한국세시풍속사전

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일러두기

❀ 사전의 전체 구성

1. 『한국세시풍속사전』은 정월편, 계절 세시편(봄 · 여름 · 가을 · 겨울), 부록 및 색인편 총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월편은 일년 세시풍속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분권하였고, 계절 세시편의 경우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 나누었다. 봄편은 음력으로 2월, 3월에 해당하고 여름편은 4월, 5월, 6월에 해당한다. 가을편은 7월, 8월, 9월에 해당하고 겨울편은 10월, 11월, 12월에 해당한다. 윤달은 겨울편에 배속시켰다. 부록 및 색인편은 마지막권으로 분류하였다.

❀ 표제어 선정 및 배열 원칙

1. 표제어 선정 범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세시풍속은 물론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만들어진 세시풍속을 표제어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2. 표제어 선정 및 배열 원칙
   1) 표제어라 함은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독립 항목으로 등재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2) 표제어는 5층위로 나누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제어의 층위는 표제어의 크기와 비중에 따라 구분하였다.
      가. 1층위 표제어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다.
      나. 2층위 표제어는 1월, 2월, 3월……12월, 윤달 등이다.
      다. 3층위 표제어는 정일(正日), 절기(節氣), 월내, 생업, 현대세시 등에 해당하는 표제어이다.
      라. 4층위의 표제어는 정일, 절기 등 3층위 표제어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시행위를 말하며 이칭, 의례, 속신, 복식, 절식, 놀이, 구비전승 등을 말한다.
      마. 5층위 표제어는 4층위 표제어의 하위항으로 주로 지역적인 양상과 관련된 표제어이다.
   3) 각 층위 속에서의 순서는 가나다순에 따랐다.

❀ 표기방법

1. 부호와 기호
   1) 맞춤법 및 표기법은 기본적으로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1) 작은따옴표 ' ' : 기본 표제어로 뜻풀이를 돌릴 때 썼다. 주로 방언이나 비표준어로 나타나는 유의어를 뜻풀이할 때 표기하였다. 시의 제목이나 노래 제목에도 사용하였다. 단, 가운뎃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큰따옴표 " " : 직접 인용의 내용에 표기하였다.
      (3) 겹낫표 『 』 : 문헌이나 저서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4) 낫표 「 」 : 작품이나 책의 하위장 제목 및 논문명을 나타낼 때 표기하였다.
      (5) 대괄호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표기할 때와 어려운 한자어를 본문에서 풀어쓰고 본디 음을 한자로 병기할 때, 그리고 ( ) 밖에 또다시 괄호를 넣어줘야 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6) 소괄호 ( ): 원어, 한자병기,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표기하였다.

(7) 줄임표 ……: 원문을 용례로 인용할 때 임의적으로 생략할 경우에 표기하였다.

(8) 가운뎃점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와 특정 차례를 일괄적으로 나열할 때, 그리고 특정의 의미를 가지는 날을 나타내는 숫자에 표기하였다.

(9) 온점 .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표기하였다. 직접 인용문의 경우에는 문장을 마칠 때 표기하였다.

(10) 물결표 ~: '내지' 라는 뜻을 나타낼 때와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표기하였다.

2) 한자와 한자어의 표기는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쓰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에는 현실음에 따른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한자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특수한 용어 및 한자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를 ( ) 속에 병기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원음대로 표기하고 가급적 외래어와 외국어의 표기를 피했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이해가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표기할 수 있다.

5) 도량형 · 단위의 경우는 미터법에 의한 부호를 우리말로 썼다.

2. 용어 및 인명

현행 교육인적자원부 규정 '한글맞춤법통일안(1989년 3월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년 10월 발간)'에 따랐다. 단, 표기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용어는 관련 학술기관의 용례집에 따르고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에 근거하여 결정하였다.

3. 자료

도표, 사진, 삽화, 지도 등 내용 설명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를 밝혔다.

❁ 참고 사항

1. 『한국세시풍속사전』 가을편은 정월편, 봄편, 여름편과는 사진의 디자인에서 약간의 차이를 지닌다. 정월편의 경우는 원고매수가 많아 분량의 늘어남을 감안하여 사진의 크기를 작게 했던 반면에 가을편의 경우는 이미 발간된 사전보다는 사진의 크기를 다소 크게 구성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2. 양력세시의 표제어에 보면 음력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있으나 양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음력 8월에 행하는 유왕산추모제 표제어가 9월 양력세시에 들어가게 되었다.
3. 이 사전의 색인에서는 독자들이 좀더 찾기 쉽도록 표제어와 해당 쪽수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4. 표제어의 (-) 줄표시는 두 글자 이하일 경우에는 짧게 표기하고 세 글자 이상인 경우에는 길게 표기하였다.

❁ 색인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 및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권말에 가나다순으로 배열해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차 례

일러두기 ····· 02

가을(秋) ····· 12

가을(秋) ····· 14
기후(氣候) ····· 14
동물(動物) ····· 16
생업(生業) ····· 18
세시풍속(歲時風俗) ····· 21
식물(植物) ····· 24

Ⅰ. 칠월(七月) ····· 28

7월(七月) ····· 30
이칭 개추(開秋) ····· 34
과기(瓜期) ····· 34
과월(瓜月) ····· 34
교월(巧月) ····· 35
금천(金天) ····· 35
난월(蘭月) ····· 35
난추(蘭秋) ····· 36
노량(露凉) ····· 36
동월(桐月) ····· 36
만열(晩熱) ····· 36
만염(晩炎) ····· 37
맹추(孟秋) ····· 37
미량(微冷) ····· 37
비월(否月) ····· 37
상월(相月) ····· 38
상추(上秋) ····· 38
소추(小秋) ····· 38
수추(首秋) ····· 38
신량(新凉) ····· 39
신월(申月) ····· 39
신추(新秋) ····· 39
양월(凉月) ····· 39
오월(梧月) ····· 40
오추(梧秋) ····· 40
유화(流火) ····· 40
이칙(夷則) ····· 40
조추(早秋) ····· 41
조추(肇秋) ····· 41
초추(初秋) ····· 41

Ⅱ. 정일(正日) ····· 42

칠석(七夕) ····· 44
이칭 꼼비기날 ····· 46
농현 ····· 47
머슴날 ····· 47
칠성날(七星-) ····· 48
의례 걸교(乞巧) ····· 49
칠석고사(七夕告祀) ····· 49
칠석불공(七夕佛供) ····· 53
칠석제(七夕祭) ····· 53
칠성제(七星祭) ····· 53
속신 까치밥주기 ····· 53
바늘에 실꿰기 ····· 54
북두칠성에 빌기 ····· 55
약물맞이 ····· 57
칠석비[七夕雨] ····· 57
칠성점(七星占) ····· 58
절식 밀떡 ····· 59
밀부꾸미 ····· 59
밀전병(-煎餠) ····· 60
호박전(-煎) ····· 61
놀이 칠석놀이(七夕-) ····· 61
구비전승 칠석요(七夕謠) ····· 66
까마귀도 칠월 칠석은 안 잊어버린다 ··· 67
칠석날 까치 대가리 같다 ····· 68

백중(百中) …… 68
이칭 망혼일(亡魂日) …… 71
머슴의 생일(-生日) …… 72
백종(白踵) …… 73
백종(百種) …… 74
중원(中元) …… 74
호미씻는날 …… 75
축수한날 …… 76
의례 꼼비기 …… 76
마불림제(-祭) …… 76
망혼제(亡魂祭) …… 78
백중불공(百中佛供) …… 78
백중제(百中祭) …… 78
심방 백중제 …… 80
여제(厲祭) …… 80
올벼천신 …… 80
용신제(龍神祭) …… 80
우란분재(盂蘭盆齋) …… 80
우란분회(盂蘭盆會) …… 82
장원례(壯元禮) …… 84
진세틱 …… 84
질먹기 …… 84
차연관 장굿(車輦館-) …… 84
초연(草宴) …… 85
테우리코시[-告祀] …… 85
풋굿 …… 85
호미씻이[洗鋤宴, 洗鋤會] …… 85
속신 물맞이 …… 88
백가지[白茄子] …… 88
백가지나물먹기[百種葉] …… 88
백중놀(百中-) …… 89
백중복숭아(百中-) …… 89
쇠미꼬지 …… 90
복식 백중빔(百中-) …… 90
놀이 강릉농악(江陵農樂) …… 90
강진땅뺏기놀이(康津-) …… 90
고양송포호미걸이(高陽松浦-) …… 91
김포통진두레놀이(金浦通津-) …… 94
남원삼동굿놀이(南原三童-) …… 97
농악(農樂) …… 101
두레놀이 …… 105
들독들기 …… 105
들돌들기 …… 105
마산농청놀이(馬山農廳-) …… 107
밀양백중놀이(密陽百中-) …… 109
백중놀이(百中-) …… 115
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石川農旗叩頭-) … 119
세도두레풍장(世道-) …… 121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 …… 123
씨름 …… 127
연산백중놀이(連山百中-) …… 127
웅상농청장원놀이(熊上農廳壯元-) …… 130
이리농악(裡里農樂) …… 132
임실필봉농악(任實筆峯農樂) …… 132
장원놀이(壯元-) …… 132
전주기접놀이(全州旗接-) …… 132
진주삼천포농악(晋州三千浦農樂) … 136
질먹기놀이 …… 136
초군놀이(樵軍-) …… 136
평택농악(平澤農樂) …… 137
현천소동패놀이(玄川少童牌-) …… 138
구비전승 백중날은 논두렁 보러 안 간다 …… 139
백중 무수기에는 메밀농사 끝에 늘어진 불 보려고 구멍에 든 소라 다 나온다 … 140
백중에 물없는 나락 가을할 것 없다 … 140
백중에 바다 미역하면 물귀신 된다 … 140
칠월 백중사리에 오리 다리 부러진다 … 141

멍에놀날 …… 141

차 례

Ⅲ. 절기(節氣) ····· 142

입추(立秋) ····· 144
구비전승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 144

처서(處暑) ····· 145
속신 처서비[處暑雨] ····· 146
구비전승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 146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 … 146
처서에 장벼 패듯 ····· 147

Ⅳ. 월내(月內) ····· 148

의례 농포제(農圃祭) ····· 150
문소전제(文昭殿祭) ····· 150
영녕전제(永寧殿祭) ····· 150
영성제(靈星祭) ····· 153
영제(禜祭) ····· 154
종묘대제(宗廟大祭) ····· 155
속신 개똥물 ····· 155
도토리점 ····· 156
옥수수알보기 ····· 156
이실먹기 ····· 157
절식 석탄병(惜呑餠) ····· 158
놀이 꽈리불기 ····· 159
하회선유줄불놀이(河回船遊 -) ····· 160
구비전승 가거도멸치잡이노래(可居島 -) ····· 160
고흥풍장소리(高興 -) ····· 161
멸치후리는소리 ····· 162
삼삼는소리 ····· 163
장원질소리 ····· 164
게으른 놈 7월에 후회한다 ····· 166
밤송이 맺을 때 모 심어도 반밥 더 먹는다 … 166
칠월 개우랑 해에 황소뿔이 녹는다 … 166
칠월 귀뚜라미가 가을 알듯 한다 ····· 167
칠월 높새바람에 볏잎 마르듯 한다 … 167
칠월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 167
칠월 사돈은 꿈에 볼까 무섭다 ····· 168
칠월에 나락 검은 집에는
손노릇 가지 말랬다 ····· 168
칠월 장마는 꾸어서 해도 한다 ····· 168
칠팔월 건들바람이다 ····· 169
칠팔월 수숫잎 ····· 169
칠팔월 은어(銀魚) 곯듯 ····· 169

Ⅴ. 생업(生業) ····· 170

농업 가을누에치기 ····· 172
갈갈이 ····· 172
기장수확[黍收穫] ····· 172
밭벼수확[山稻收穫] ····· 172
수박따기 ····· 172
퇴비장만(堆肥 -) ····· 172
어업 낙지잡이[石距 -] ····· 172
잡사 가을케메기 ····· 174
삼삼기[績麻] ····· 174
쇄서포의[曬書曝衣] ····· 175
집장담그기[汁醬 -] ····· 177

Ⅵ. 양력세시 ····· 178

국경일 제헌절(制憲節) ····· 180
현대세시 링데이(Ring Day) ····· 181
실버데이(Silver Day) ····· 181
축제 금강민속축제(錦江民俗祝祭) ····· 181

Ⅰ. 팔월(八月) ····· 184

8월(八月) ····· 186

이칭 계월(桂月)····· 190
계추(桂秋)····· 190
고추(高秋)····· 190
관월(觀月)····· 190
남려(南呂)····· 190
노냉(露冷)····· 191
엽월(葉月)····· 191
영한(迎寒)····· 191
유월(酉月)····· 192
장월(壯月)····· 192
정추(正秋)····· 192
조월(棗月)····· 193
중상(仲商)····· 193
중추(仲秋)····· 193
청추(淸秋)····· 194
추고(秋高)····· 194
추양(秋陽)····· 194
추은(秋殷)····· 195
추천(秋天)····· 195

Ⅱ. 정일(正日) ····· 196

추석(秋夕) ····· 198

이칭 가배(嘉俳)····· 205
가윗날 ····· 206
완월(玩月) ····· 206
월석(月夕) ····· 206
중추절(仲秋節) ····· 206
한가위 ····· 207

의례 귀성(歸省)····· 207
문소전제(文昭殿祭)····· 208
추석성묘(秋夕省墓)····· 208
추석절사(秋夕節祀)····· 208
추석차례(秋夕茶禮)····· 209
추석천신굿(秋夕薦新 -) ····· 212

속신 구름보기 ····· 214
달맞이 ····· 215
밀물보기 ····· 216
밭고랑기기 ····· 216
추석비[秋夕雨] ····· 217

복식 추석빔(秋夕 -)····· 217

절식 가배주(嘉俳酒)····· 218
노티 ····· 218
누름적(- 炙)····· 219
닭찜 ····· 220
박나물 ····· 221
배숙[梨熟] ····· 221
송편[松餠] ····· 222
숙주나물 ····· 223
신도주(新稻酒)····· 223
양애간무침 ····· 225
율단자(栗團子)····· 226
토란국(土卵 -)····· 226
토란단자(土卵團子) ····· 227
화양적(華陽炙) ····· 227

놀이 가마등 ····· 227
강강술래 ····· 228
거북놀이 ····· 232
고사리꺾기 ····· 234
관조(觀潮)····· 236
기러기놀이 ····· 237
길쌈놀이 ····· 237
까막잡기 ····· 239
꼬리따기 ····· 239
남생이놀이 ····· 242
닭잡기놀이 ····· 243
대문놀이 ····· 244

차 례

덕석말이[筵卷遊] …… 244
덕석풀이 …… 245
두레길쌈[共同積麻] …… 245
문열기 …… 245
문지기놀이[關守遊] …… 246
봉사놀이 …… 246
서산박첨지놀이(瑞山朴僉知 -) …… 246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舒川苧山八邑 -) … 251
석사놀이(石射 -) …… 253
소놀이 …… 254
소먹이놀이 …… 254
소싸움 …… 255
수건돌리기 …… 257
수박따기 …… 258
양양패다리놓기(襄陽 -) …… 258
의성가마싸움(義城 -) …… 259
조리희(照里戱) …… 261
쥔쥐새끼놀이 …… 261
지애밟기 …… 261
지와밟기 …… 261
청어엮기(靑魚 -) …… 262
청어풀기(靑魚 -) …… 264
추석줄다리기(秋夕 -) …… 264
판수놀이 …… 264
구비전승 강강술래 …… 265
가마타기노래 …… 269
고사리꺾기노래 …… 269
기와밟기노래 …… 269
꼬리따기노래 …… 269
남생이노래 …… 269
대문놀이노래 …… 269
덕석몰이노래 …… 269
청어엮기노래 …… 269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 269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 270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 270
푼주의 송편이
주발 뚜껑 송편 맛보다 못하다 …… 270

공자탄일(孔子誕日) …… 271

Ⅲ. 절기(節氣) …… 272

백로(白露) …… 274
속신 백로보기(白露 -) …… 274
구비전승 칠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못 먹어도
팔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먹는다 … 274

추분(秋分) …… 275
의례 노인성제(老人星祭) …… 276
구비전승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이다 … 277
추분이 지나면 우렛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 …… 277

Ⅳ. 월내(月內) …… 278

의례 근친(覲親) …… 280
마사제(馬社祭) …… 280
명산대천제(名山大川祭) …… 280
반보기 …… 280
벌초(伐草) …… 282
사직대제(社稷大祭) …… 283
성주단지갈기 …… 285
악해독제(嶽海瀆祭) …… 285
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 …… 285
올개심니 …… 286
중로보기(中路 -) …… 288
추계석전(秋季釋奠) …… 288
충렬사제향(忠烈祠祭享) …… 290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 290
속신 쌀점[米占] …… 290
절식 송이적(松栮炙) …… 291
인절미[引餠] …… 292
호박떡 …… 293
놀이 유왕산놀이(留王山 -) …… 294
차귀본향놀이(遮歸本鄕 -) …… 295
구비전승 나무꾼소리 …… 296
등짐소리 …… 297
목화따는노래 …… 298
벼베는소리 …… 300
벼타작소리 …… 302
새쫓는소리 …… 303
어정 칠월 동동 팔월 …… 304
육칠월에는 외서리
칠팔월에는 콩서리 …… 305
팔월 그믐에 마지막 쉰다 …… 305

V. 생업(生業) …… 306

농업 가을걷이[秋收] …… 308
가지수확 …… 310
고추수확[苦椒收穫] …… 310
올벼수확[早稻收穫] …… 310
조수확[粟收穫] …… 310
참깨수확 …… 310
팥수확 …… 310
어업 방어잡이(魴魚 -) …… 311
잡사 땔감장만 …… 312

VI. 양력세시 …… 314

국경일 광복절(光復節) …… 316
현대세시 그린데이(Green Day) …… 317
껌데이(Gum Day) …… 317
달데이(Doll Day) …… 317
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統營閑山大捷祝祭) … 317

I. 구월(九月) …… 320

9월(九月) …… 322
이칭 계상(季商) …… 325
계추(季秋) …… 325
국월(菊月) …… 325
국추(菊秋) …… 326
궁추(窮秋) …… 326
노추(老秋) …… 326
만추(晩秋) …… 327
모상(暮商) …… 327
모추(暮秋) …… 327
무역(無射) …… 327
박월(剝月) …… 327
상냉(霜冷) …… 328
상신(霜辰) …… 328
수의(授衣) …… 328
술월(戌月) …… 329
영월(詠月) …… 329
잔추(殘秋) …… 329
중양(重陽) …… 329
초추(杪秋) …… 329
추계(秋季) …… 330
추말(秋末) …… 330
추상(秋霜) …… 331
추심(秋深) …… 331
풍신(楓辰) …… 331
현월(玄月) …… 331

II. 정일(正日) …… 332

중양절(重陽節) …… 334
이칭 국화절(菊花節) …… 336
망제일(忘祭日) …… 337
산신의 탄신일(山神 - 誕辰日) …… 337

차 례

상국일(賞菊日) …… 338
제비돌아가는날 …… 338
중구(重九) …… 339
의례 기로연(耆老宴) …… 339
망제(忘祭) …… 341
중구차례(重九茶禮) …… 341
중양절사(重陽節祀) …… 344
속신 구절초뜯기(九節草 -) …… 345
절식 국화전(菊花煎) …… 346
국화주(菊花酒) …… 347
밤떡[栗糕] …… 348
유자화채(柚子花菜) …… 349
놀이 등고(登高) …… 349
벽골제쌍룡놀이(碧骨堤雙龍 -) …… 350
구비전승 구월 군두 조금에 사돈네 빚 갚는다 …… 353

심방의 본명일 …… 353

Ⅲ. 절기(節氣) …… 354

한로(寒露) …… 356
구비전승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 … 356

상강(霜降) …… 357
의례 둑제[纛祭] …… 357

Ⅳ. 월내(月內) …… 358

의례 뒷할망제 …… 360
숭선전제례(崇善殿祭禮) …… 360
이제(禰祭) …… 360
철갈이 …… 361
철물이굿 …… 361
칠사(七祀) …… 361
속신 갈가마귀점 …… 361
넌출물먹기 …… 362
뱀허물거두기 …… 362
절식 박속 …… 363
아욱국 …… 363
추어탕(鰍魚湯) …… 363
놀이 갈퀴치기 …… 365
꼭두각시놀음 …… 366
남사당놀이(男寺黨 -) …… 370
노적놀이(露積 -) …… 373
대말타기 …… 374
마상재(馬上才) …… 374
박첨지놀음(朴僉知 -) …… 378
비석치기(碑石 -) …… 378
수수깡안경놀이 …… 380
안성남사당풍물놀이(安城男寺黨風物 -) … 380
양주소놀이굿(楊州 -) …… 382
오룡쟁주놀이(五龍爭珠 -) …… 386
죽마놀이[竹馬戱] …… 387
줄타기 …… 388
지게놀이 …… 391
홍동지놀음(洪同知 -) …… 393
황해도평산소놀음굿(黃海道平山 -) …… 393
구비전승 갈치낚는소리 …… 396
사천마도갈방아소리(泗川馬島 -) …… 397
죽마타기노래 …… 399
가을 것 못 걷어 들인 놈
겨울 넘길 생각 마라 …… 399
가을 곡식은 재촉하지 않는다 …… 400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영근다 …… 400
가을 다람쥐 같다 …… 400
가을 더위와 노인(老人)의 건강 …… 401
가을마당에 빗자루 몽당이를 들고
춤을 추어도 농사(農事) 밑이 어둑하다 … 401

가을 메[杵]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 … 401
가을 멸구는 나락 벼늘도 먹는다 …… 402
가을 물은 소 발자국에 괸 물도 먹는다 … 402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듯 한다[秋風落葉] …… 402
가을바람은 노새 귀를 뚫는다 …… 403
가을바람이 귓전을
스쳐가듯 한다[秋風過耳] …… 403
가을밭을 밟으면 떡이 세 개요
봄밭을 밟으면 뺨이 세 대다 …… 403
가을 부채는 시세가 없다[秋扇無勢] … 403
가을비는 떡비요 겨울비는 술비다 … 404
가을비는 장인(丈人)의
나룻 밑에서도 긋는다 …… 404
가을 빚에 소도 잡아먹는다 …… 404
가을 식은 밥이 봄 양식이라 …… 405
가을 쌀밥이다 …… 405
가을 아욱국은 사위만 준다 …… 405
가을 안개는 쌀안개 봄 안개는 죽안개 … 406
가을에는 손톱 발톱도 다 먹는다 …… 406
가을에 밭에 가면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 …… 406
가을일은 미련한 놈이 잘한다 …… 406
가을 전어(錢魚) 머리에는
깨가 한 되다 …… 407
가을 중 싸대듯 …… 407
가을 하늘과 큰어미 얼굴은
검어도 좋다 …… 407
가을 한 밤은 일년 같이
지루하다[秋夜如歲] …… 408
가을 해 작대기로 못 받친다 …… 408
구시월 닭이다 …… 408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 409
구시월 세단풍(細丹楓) …… 409

V. 생업(生業) …… 410

농업 가을바령 …… 412
갈무리[貯藏] …… 412
고구마캐기[甘藷 -] …… 413
메밀수확 …… 413
박따기 …… 413
생강수확(生薑收穫) …… 413
토란수확(土卵收穫) …… 413
어업 가을갈치잡이 …… 413
민어잡이(民魚 -) …… 413
삼치잡이 …… 414
전어잡이(錢魚 -) …… 415
잡사 볼락젓담그기 …… 417
전어밤젓담그기 …… 417

VI. 양력세시 …… 418

기념일 사회복지의 날(社會福祉 -) …… 420
철도의 날(鐵道 -) …… 420
현대세시 뮤직데이(Music Day) …… 421
포토데이(Photo Day) …… 421
축제 만날제(- 祭) …… 421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安城男寺黨 - 祝祭) …… 423
유왕산추모제(留王山追慕祭) …… 425

색인 …… 386





秋

가을

가을은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추수를 하는 수확의 계절이다.
다른 계절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느낌이 들지만
본격적인 추수기에 들어서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바쁜 계절이기도 하다.
추석 무렵까지는
들녘의 일이 많지 않지만
추석이 지나면서
벼를 비롯하여 각종 곡식을
추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많아진다.



秋
가을

가을 풍경 김진열

기후(氣候)

가을은 일년 사계절 가운데 세 번째 계절로, 여름과 겨울 사이의 시기이다. 북반구 중위도(中緯度) 지역에 위치하는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여건상, 기온 변화로 보자면 일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인 여름과 최저 기온이 0도 이하인 겨울 사이에 위치한다.

계절의 변화는 지구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하여 직각이 아닌, 66.5도의 각을 유지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따라서 천문학적으로 한반도의 가을은 북반구의 가을과 일치하여 추분(秋分)부터 동지(冬至)까지를 가을로 여기며, 천문학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일년 열두 달을 네 등분하여 양력으로 9, 10, 11월을 가을이라 한다. 그러나 보통 절기상으로는 입추(立秋)부터 상강(霜降)까지를 가을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음력으로는 7, 8, 9월이 가을에 해당한다. 자연조건에 따라 계절을 구분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부지방의 가을은 초, 늦가을까지 합하여 양력으로 9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상학적으로 북한지역은 이보다 빠른 시기에 남부지방은 늦은 시기에 나타나며, 제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일주일 늦은 9월 25일 무렵에 시작되어 12월 13일 무렵에 끝난다.

가을이 되면 시베리아 고기압이 차츰 강해짐에 따라 한여름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가고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초가을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생지에서 남진하여 중국 양자강 부근에 머물면서 그 성질이 변화한 후 동진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이때 우리나라 부근의 기압 배치는 동서로 기압능을 이루어 맑은 날이 지속된다. 때로는 일기도상에서 한반도에 저기압이 머물러 비가 오지 않고 높은 구름만 나타나는 수도 있다. 이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동서로 놓이는 대상(帶狀) 기압능에 위치한 고기압들 사이에서 발달하는 뚜렷한 저기압이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악천후가 나타나고 기온이 급강하하기도 한다.

가을이 깊어짐에 따라 시베리아 고기압의 발달로 서고동저형의 전형적인 겨울철 기압계가 발달하여

매우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난방기기의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봄철보다는 발생 빈도가 낮으나 여름이나 겨울에 비하여 산불 발생이 잦으며,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의 화재 발생도 증가한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 난방기기의 가열에 따른 화재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초여름인 6~7월 한반도에 많은 비를 내리던 장마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이동하여 한여름 동안 한반도의 북쪽에 머물다가,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동남아시아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반도에 일시 정체되어 비가 지속된다. 이를 가을장마라 하며 강도가 높은 강수량이 극히 짧은 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에 따라 막대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수도 있다. 이는 태평양에서 북서진하는 태풍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한랭 전선이 동시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어 많은 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초여름의 장마에 비하여 가을장마는 불규칙적이며 어떤 해는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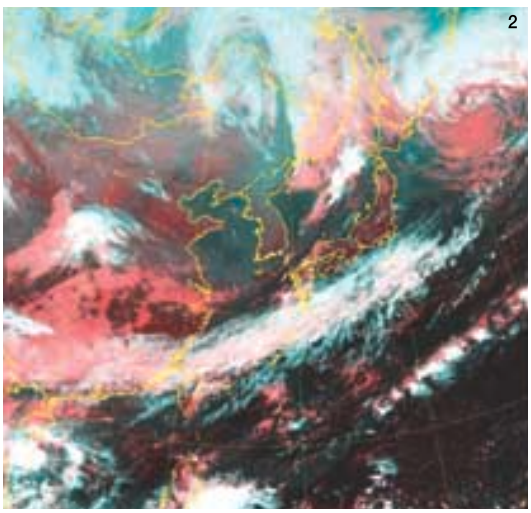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늦여름에 가장 많으며 가을인 9~10월에도 온다. 평균적으로 이 시기에 오는 태풍은 남해안으로 상륙하여 경북의 동해안을 통과하여 동해로 물러간다. 서해안에 상륙한 후 한반도를 남서에서 북동으로 관통하는 여름철 태풍의 경로에 비하여 이 시기의 태풍은 남쪽으로 치우친다. 기온이 하강하면서 서리가 내려 안개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서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하는 경우 거의 전국적으로 짙은 안개가 생성된다. 안개가 짙을 때 도로 표면에 결빙 현상이 생기기 쉬우며 특히 지면의 온도가 영하인 경우 결빙 현상이 심하여 자동차 운전에 매우 위험한 상황을 빚기도 한다.

한편, 가을은 한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인 한가위가 있는 계절이다. 농촌 출신 젊은이들의 도시 진출이 가속화되고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고향의 부모를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 기간에 방문하게 되었다. 기차, 고속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만원(滿員)이 되며 고속도로는 폭증한 교통량으로 몸살을 앓는다. 이러한 귀향의 어려움과 시골 인구의 급감은 시골의 부모를 도시로 모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는 의식주가 풍부해지는 때로, 봄철 다음으로 결혼이 많이 성사되며 가족간 모임이 잦은 계절이기도 하다. 또 야외 활동에 좋은 조건인 가을의 적절한 기온과 맑은 날씨는 각급 학교의 운동회를 비롯하여 체육 대회를 열기에 알맞다. 프로 야구와 프로 축구의 최종 결승전을 비롯해서 국내외 대부분의 중요한 체육 행사나 대회가 가을철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음은 북반구 가을철 날씨의 특성이 감안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겨울철을 대비한 식량 비축, 김장담그기, 땔감 준비, 가축 사료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겨울나기 준비 시간은 가전제품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급감하게 되었고, 많은 시간을 여가 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인들은 여가 활용 내지는 심신 단련을 위해 가을 산행을 즐기는데 단풍 구경을





1 단풍지도
2 위성사진
기상청

제일(第一)로 친다. 단풍 외에도 억새밭이나 낙엽 쌓인 산야(山野)를 찾는 사람도 많다.

한편, 가을은 기온의 급강하에 따른 감기와 순환기 계통의 질병을 조심해야 하는 철이다. 또 청명한 가을 날씨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추수기 열성 전염병[유행성(신증후)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야외 활동이 많은 군인이나 농부들에게 쉽게 전염되는 이러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마른 잔디와 피부가 직접 닿는 것을 피하고 몸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온 급강하에 따른 뇌출혈이나 심장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온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벼가 잘 익기에는 가을의 맑은 날씨와 다소 높은 기온이 좋은 조건이 된다. 특히 가을비는 벼의 건조나 익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식물의 성장으로 보자면 가을은 여름 동안의 고도성장에 이어 기온 하강과 일조 시간의 감소로 낙엽이 지는 시기에 해당한다. 한편 사계절 중 가장 풍성한 결실의 시기에도 해당한다. 한 해 농사의 대가를 받는 때로서 사과, 배, 감 같은 주요 과일도 시장에 나오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계절에 종종 발생하는 갑작스런 추위는 과수 농가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결실기에 접어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가을은 풍부한 사료와 쾌적한 날씨의 영향으로 가축이 살찌는 때이며, 과거의 가난했던 시절에도 모두가 풍족함을 맛볼 수 있던 시기였다. 또한 가을은 코스모스와 국화의 계절이기도 하다. 길섶의 코스모스는 가을의 시작을 의미하며 진한 국화 향은 한국인이 즐기는 꽃향기이다.

참고문헌 | 韓國의 氣候(金光植 外, 一志社, 1973), 한국의 기후(이현영, 法文社, 2000).
필자 | 임규호(林奎皓)

동물(動物)

절기상 입추(立秋)에서 상강(霜降)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을동물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을동물로는 잠자리와 귀뚜라미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잠자리와 실잠자리류는 잠자리목(目)에 속하는 곤충으로 다른 곤충에 비해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1초에 100번 이상 날개짓을 하며 빠르게 난다. 잠자리는 잎이나 줄기에 앉아 쉴 때 날개를 수평으로 펴서 앉지만, 실잠자리는 쉴 때 날개를 수직으로 접는 것이 특징적으로 다르다. 잠자리류는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알, 유충, 성체로 탈피하는 불완전변태를 하는 동물이다. 주로 가을에 개울가나 웅덩이 근처에서 볼 수 있고 하루살이와 같은 다른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고 산다.

잠자리 유충들은 몸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1~5년 정도 물 속에서 산다. 유충은 물 밖으로 나올 때 마지막 탈피를 거쳐 성체로 된다. 잠자리 성충은 대개 6월에서 8월에 우화(羽化)하여 가을철에 활발히 날아다닌다. 고추잠자리 수컷은 우화한 후 점차 몸의 색이 선명해진다. 잠자리 성충의 수명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양하다. 9월이나 10월에는 농가나 하천 근처의 물가에서는 잠자리들이 둘씩 짝을 맺어 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컷 잠자리는 꼬리 끝에 나 있는 부속지를 사용하여 암컷 머리 뒷부분을 붙잡아 암컷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면, 암컷은 꼬리부근에 있는 생식기를 수컷 생식기가 있는 배에 붙여 서로 몸을 옆으로 누워진 하트(♡) 모양으로 만든 후 날아다니면서 교미를 한다. 가을에 추수가 끝난 들판의 논두렁이나 습지 같은 곳에서 암컷이 물 위나 물 속의 수중식물에 알을 낳거나, 날아다니다가 배로 물을 톡톡 치며 물 속에다 알을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을 저녁, 들이나 경작지 주변 그리고 인가 주위의 정원이나 마당의 돌 밑과 숲에서는 귀뚜라미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내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귀뚜라미는 메뚜기목에 속하는 곤충이다. 날개를 들어 양쪽 날개를 마찰시키면서 소리를 내는데, 노랫소리의 빈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의 횟수를 근거로 그날의 온도를 예측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 민족과 더불어 오래 살아온 동물인 귀뚜라미의 노랫소리는 8월 중순에서 10월말까지 흔히 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을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귀뚜라미를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여겨 집 안에 있어도 해치지 않았다.

가을에 성숙한 암컷은 긴 산란관을 흙속이나 식물의 줄기 속에 넣어 알을 낳는데, 이로 인해 식물들이






1 **잠자리** 이범호
2 **귀뚜라미** 전성영
3 **다람쥐** 무경
4 **철새** 최수연

피해를 입는다. 유충들은 봄에 부화하여 여러 번 탈피를 한 다음 늦여름과 초가을에 성충이 된다. 성충들은 보통 약 두 달 동안 생존한다. 귀뚜라미는 야행성이고 잡식성이다. 요즘은 귀뚜라미를 대량으로 인공 배양하여 양식어류의 사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먹은 고기들은 육질이 맛있다고 알려져 있다.

가을은 많은 야생동물들에게는 겨울을 준비하는 가장 바쁜 계절이기도 하다. 반달가슴곰, 오소리, 다람쥐, 박쥐 같은 동물들은 가을에 접어들면 하루 종일 먹는 데 시간을 보낸다. 반달가슴곰은 식육목(食肉目)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몸은 검은색으로 광택이 나고 가슴에는 반달 모양의 흰색 무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식성은 잡식성으로 식물의 줄기, 잎, 열매, 꽃도 먹지만, 곤충이나 소형 갑각류, 쥐와 같은 소형 포유류도 먹는다. 식물로는 고사리, 조릿대, 다래의 줄기를 잘 먹으며, 칡, 병꽃나무, 진달래, 고욤나무, 구상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잎도 먹는다. 진달래나 찔레나무의 꽃을 따 먹기도 한다. 가을에 보통 때보다 5배 정도 먹이를 많이 먹어 체중이 2배 이상 늘어난다.

늦가을 오소리가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소리는 족제비과에 속하고 숲이 무성한 곳에서 사는 육식동물이다. 오소리는 위협에 처하면 죽은 척하는 매우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야행성으로 낮에는 굴에서 쉬다가 어두워지면 활동을 시작한다. 지렁이를 매우 좋아하고, 작은 포유류나 개구리나 뱀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물을 좋아하고 수영을 잘해 물고기도 잡아먹는다. 가을에는 하루 종일 먹어 몸무게가 1.5배로 늘어난다.

가을이 되면 도시의 공원이나 근교의 산림에서 부지런히 도토리, 개암, 밤 등을 땅을 파서 숨기는 다람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는 종종 먹이를 입속에 넣어 양 볼이 볼록한 다람쥐를 볼 수 있다. 다람쥐는 쥐목에 속하는 설치류로, 다람쥐란 말은 '다람'과 '쥐'의 합성어로 '달리는 쥐'라는 뜻에서 이름 지어졌다. 이름처럼 다람쥐는 매우 민첩하여 나무에서 땅으로, 땅에서 나무로 재빠르게 이동하는 동물이다. 나무구멍에 잎이나 나뭇가지로 둥지를 짓고 살거나 땅을 파서 산다. 주로 가을에 씨앗이나 도토리와 같은 단단한 열매를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먹이가 부족한 초겨울에 찾아 먹는다.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에는 겨울잠을 잔다. 가을에 먹이 찾기에 여념이 없는 오소리 등이 최대의 천적이다. 다람쥐는 호기심이

많아 처음 보는 사물이나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귀여운 동물로 예부터 애완용으로도 사용되었다.

곤충을 주로 먹는 박쥐는 겨울에 먹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면에 들어가는데, 이를 위해 가을밤에 쉬지 않고 먹이를 잡으러 비행한다. 박쥐는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동물로, 나방이나 모기 같은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운 동물이다. 박쥐란 이름은 '밝쥐'로 '눈이 밝은 쥐'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박쥐는 동굴 천정이나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살며, 배설할 때도 거꾸로 매달려 하고 새끼도 거꾸로 매달려 낳는다. 날 때도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바로 날 수 있다. 박쥐는 다른 동물에 비해 눈이 나쁜 편은 아니지만 야행성이어서 초음파를 사용해서 사물이나 먹이를 찾는다. 가을에 먹이양이 최대로 느는데 30퍼센트 이상 체중이 늘어난다.

결국 가을에 야생동물들이 살찌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혹독한 겨울에 대한 그들의 유비무환의 부지런함 때문인 셈이다.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이 되면 시베리아 등지에서 새끼를 기르고 따뜻한 남쪽나라로 월동을 떠나는 새들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는데 이를 가을철새 또는 통과조류라고도 한다. 특히 꼬까참새, 촉새, 흰배멧새 같은 멧새류가 논과 밭 그리고 숲에서 많이 관찰된다. 이들은 많게는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꼬까참새는 암수가 색이 다르며, 수컷은 머리와 가슴이 적갈색으로 수컷보다 매우 화려하다. 숲이나 농경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곡물이나 식물의 씨 그리고 곤충류 따위를 즐겨 먹는다.

힝둥새나 밭종다리와 같은 할미새과에 속하는 새들도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는 가을에 주로 보인다. 남부지방에서는 겨울철에도 관찰된다. 힝둥새는 주변에 나무가 있는 논이나 밭 또는 사방이 트여 있는 곳에 자주 나타나며, 밭종다리는 하천 주변이나 논 주변에서 많은 수가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이들은 번식기에는 주로 곤충이나 거미류 같은 것들을 먹지만 식물의 씨도 잘 먹는다.

곤충을 먹는 지빠귀과 중에는 울새가 가을에 우리나라를 지나간다. "췬 뚜루루루~" 하며 아름답게 우는 새이다.

딱새류 중에서는 노랑딱새가 10월에 산림이나 공원의 숲에서 많이 관찰된다. 노랑딱새는 암수가 서로 색이 다른 동종이형이다. 수컷은 머리와 날개 등이 검은색이며, 눈 뒤쪽 눈썹은 흰색이고 양쪽 옆구리 날개에는 흰색 무늬가 있다. 턱밑과 가슴은 오렌지색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볼 수 있는 동물들은 모두 혹독한 겨울을 날 준비를 하거나 따뜻한 남쪽나라로 날아가기 위해 몸에 충분한 지방을 축적하고자 먹이를 부지런히 찾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참고문헌 |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유정칠 외, 지성사, 2001).

필자 | 유정칠(劉正七)

생업(生業)

가을은 곡식, 채소, 과일 같은 농작물들이 익는 풍요와 결실의 계절이다. 봄철의 파종기(播種期)와 여름철의 배육기(培育期), 생장기(生長期)를 거쳐서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수확의 계절이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역법(曆法)은 태양과 지구, 달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관측의 대상에 따라 태음력(太陰曆)과 태양력(太陽曆) 그리고 태음태양력의 세 가지로 나눈다. 우리의 전통적 역법은 음력에다가 양력의 하나인 24절기(節氣)를 절충하여 사용하는 태음태양력이다. 24절기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을은 대략 입추(立秋) 이후부터 처서(處暑), 백로(白露), 추분(秋分), 한로(寒露), 상강(霜降)에 이르는 시기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음력으로 대략 7월부터 9월에 이르는 기간이다.

가을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을걷이이다. 가을걷이는 추수(秋收) 또는 서수(西收)라고도 하며, 일년 농사의 마무리로서 『순자(筍子)』 권5 「왕제편(王制篇)」에는 "봄에는 밭을 갈고 여름에 김을 맨다. 가을에 이를 거두어들이고 겨울에 이를 저장한다(春耕夏耘秋收冬藏)." 라고 하였다. 파종을 하여 재배한 작물이 성숙하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하는데, 작물의 이용부위나 발육도 조직의 충실도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다르다. 수확하는 방법은 농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지상부(地上部) 작물은 보통 낫이나 가위를 사용해서 하고, 뿌리나 줄기의

수확은 괭이와 쇠스랑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 농작물의 수확 작업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마쳐야 한다. 그래서 예부터 농민들은 대부분 품앗이를 통해 공동으로 추수를 해왔다. 품앗이는 가까운 사람이나 이웃끼리 몇 명씩 모여서 서로 돌아가며 공동으로 일하는 노동형태인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수확 작업을 수확기나 콤바인을 이용해서 하므로 이전보다 노동력이 크게 절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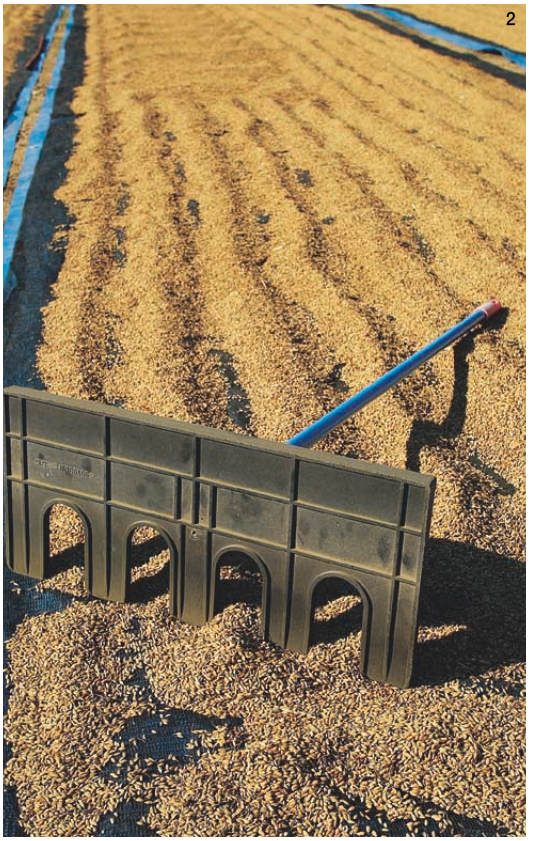
가을걷이를 하는 농작물은 벼를 비롯하여 콩, 조, 메밀, 팥, 기장 같은 곡물과 목화, 참깨, 고구마, 고추 같은 작물이 있다. 이 농작물들의 작목별 가을걷이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콩은 잎이 누렇게 변하여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씨방이 완전히 굳어지면 수확하는데, 대개 북부지방은 9월 하순, 중부지방은 10월 초중순 무렵, 남부지방은 10월 중하순 무렵이 수확 적기(適期)이다. 재배 면적이 좁을 경우에는 뿌리째 뽑기도 하지만 넓을 경우에는 낫으로 밑동을 벤다. 이것을 잘 말리고 다발을 지어 도리깨나 회전탈곡기로 낟알을 떨어낸다. 조는 줄기와 잎과 이삭이 누렇게 변할 때 수확하는데, 서북부지방의 봄 조는 9월 초중순경, 중남부지방의 그루조는 10월 상순이 수확 적기이다. 이삭만을 먼저 자르고 후에 줄기를 베는 방법과 전체를 벤 다음 이삭을 자르는 방법이 있다. 자른 이삭을 잘 말린 후 포대에 넣어 2~3일간 숙성시킨 후 낟알을 떨어낸다. 참깨를 떨 때는 들깨처럼 멍석 위에서 그대로 떠는 것이 아니라 멍석 위에 홑이불이나 비닐을 펼쳐놓고 떠는데, 그만큼 참깨가 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대파작물 가운데 하나인 메밀은 수확 적기가 북부지방 고랭지의 경우 9월 하순, 중부지방은 10월 초중순, 남부지방은 10월 중하순 무렵이다. 메밀은 다른 작물보다 생장력이 매우 왕성한 작물이며, 성숙한 것은 잘 떨어지기 때문에 포기의 70~80퍼센트 정도가 성숙하면 수확해야 한다. 포기째 낫으로 베어 묶어서 숙성시킨 후에 건조시켜 도리깨로 탈곡한다. 팥은 잎의 꼬투리가 황백색 또는 갈색으로 변했을 때 수확하는데, 대체로 그 시기는 10월 초중순 무렵이다. 콩과 같이 낫으로 베거나 뽑아 거두어들인 후 탈곡하여 잘 건조시킨다.



1


2

1 가을 수확
2 벼 말리기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김영광



낙지잡이
전남 무안 김상수

목화는 다래가 익어 벌어진 것부터 차례로 수확하는데, 보통 9월 초순부터 따기 시작한다. 된서리가 오기 전까지 대부분을 수확하고 된서리가 온 후에는 목화 대를 뽑아 양지에 널어 말려 다래가 피면 실면(實綿: 아직 씨를 배지 않은 목화)을 골라낸다. 들깨의 수확은 줄기와 잎이 누렇게 변할 시기인 9월 하순부터 10월 초중순 무렵이 적기이며, 밑동을 낫으로 베서 다발을 지어 묶고 세워서 말린 후 개상에 메어쳐서 이삭을 떠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고추는 모종 후 50일 정도 지난 늦여름부터 시작하여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열매를 딴다.

많은 가을걷이 중에서 논농사의 벼 걷이는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모내기와 김매기와 더불어 일년 중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꼽힌다. 이삭이 패고 나서 40~50일이 지나 벼가 알이 차서 이삭이 누런빛을 띠고 고개를 숙이게 되면 벼 베기를 시작한다. 제때에 벼 베기를 하지 않고 시기를 너무 늦추면 낟알이 땅에 떨어져서 수확의 손실을 가져온다. 현재 충남 연기 지역의 벼 수확 시기를 살펴보면 품종이나 작황에 따라 다소 빠르고 늦을 수 있지만 대체로 10월 초에 시작하여 10월 하순이면 끝나고 가장 한창인 때는 10월 중순 무렵이다. 벼 베기는 콤바인이나 바인더와 같은 수확 농기계가 나오기 전에는 낫을 가지고 몇 사람씩 품앗이로 했다. 이때 농군들은 한 손으로 벼 줄기를 잡고 다른 한 손에 든 낫으로 벼의 밑동을 벤다. 낫질을 할 때는 낫날을 벼 포기의 밑동에 대고 잡아당기는데 이때 벼 줄기를 잡은 손도 같이 당겨주어야 잘 베어진다. 마른 논에서는 벼를 베어 논바닥에 깔아서 말리지만 물이 있는 논에서는 베는 일과 묶는 일을 동시에 하여 볏단을 만들어서 논두렁에 세워 말리는 것이 보통이다.

오늘날의 벼 수확 작업은 대부분 콤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콤바인은 벼를 수확하는 대표적인 농기계로써 벼를 베는 것과 동시에 탈곡까지 해서 포대에 담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농가들은 개인이 소유한 콤바인이나 위탁영농회사의 콤바인을 대여해서 수확작업을 한다. 콤바인으로 벼 수확을 하면 대개 두 사람이 작업하는데, 한 사람은 농기계를 운전하고 다른 한 사람은 농기계 뒤쪽에서 벼가 탈곡되어 포대에 담기는 것을 지키고 있다가, 가득 차면 새 포대로 교환해 주는 작업을 한다. 콤바인으로 벼 베는 일을 할 때는 먼저 기계가 논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벼를 낫으로 베어서 4~5평 정도의 공간을 만든 후 콤바인을 몰고 논으로 들어가서 가장자리부터 벼를 벤다. 기계가 지나가면 한 번에 몇 줄씩 벼가 베이고 탈곡과 동시에 벼 포대에 담겨진다. 이때 볏짚은 콤바인이 지나간 뒤쪽 논바닥에 떨어지는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잘게 자를 수도 있고 그대로 논바닥에 깔기도 한다. 포대에 담긴 벼를 논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벼 베기 작업이 모두 끝나면 경운기나 차로 집이나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옮긴다. 이와 같이 농업은 1980년대 중·대형 농기계의 광범위한 사용과 함께 경운·정지, 모내기, 수확 작업 같은 중요한 농작업을 다른 작업자나 작업조에 맡기는 위탁영농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어촌은 일반적으로 농업과 어업을 겸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생업 형태를 취하므로 가을철 역시 농사일을 하면서 어로와 채취 활동도 동시에 한다. 어로와 채취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류의 흐름, 수온, 수심 등이다. 이러한 기후 요소의 차이 때문에 어로 작업이 계절과 바다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동해안에서는 가을에 성게, 멍게, 홍합 등을 채취하고, 오징어, 방어, 고등어, 쥐치 등을 주로 잡는다.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고기는 꽁치인데, 꽁치 잡는 일은 정월부터 6월까지의 '봄발이'와 10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의 '가을받이'로 나뉜다. 산란기인 봄에 잡힌 꽁치가 살이 많고 맛이 있다. 그래서 동해안에서는 "봄 꽁치, 가을 방어"라고 하는데, 이는 봄에 꽁치가 제 값을 하고 가을에는 방어가 제 값을 하여 이득을 본다는 의미이다. 반면 남해안에서는 가을철에 해삼, 소라 등을 많이 채취하고, 갈치, 도미, 방어, 농어 같은 어패류를 많이 잡는다.

서해안에서는 가을에 전어, 새우와 낙지를 많이 잡는다. 특히 갯벌이 잘 발달한 곳에서는 음력 8월부터 3~4개월 동안 낙지호미, 낙지종가래 같은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 낙지를 많이 잡는다. 서해안의 전통적인 어업인 조기잡이는, 전북 곰소만의 경우, 봄 조기잡이 철이 지나면 어살을 철거하고, 가을 조기잡이에 필요한 어살을 여름철에 만들어 9~11월에 조업하였다. 이때 어살 제작은 남녀의 분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나무를 잘라 살을 만드는 일은 남자가 하고 발을 엮는 일은 여자들이 맡는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갯벌은 바지락, 고막, 굴 같은 패류의 양식에 적합한 환경이고, 만입한 곳의 내만(內灣)은 김, 미역, 톳과 같은 해조류 양식에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어민들은 오랜 경험을 통하여 생태적 환경에 대한 인지 체계를 바탕으로, 불확실하고 위험한 바다 환경에 자신들의 삶을 적응시켜왔다.

참고문헌 |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韓國의 落島民俗誌(韓相福 외, 집문당, 1992), 漁民의 環境認知와 適應戰略(이경미,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4), 채취기술변화에 따른 어촌사회의 적응전략(이경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定置網漁業의 技術體系에 관한 硏究(李泰鎬, 安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8), 농경생활의 문화읽기(배영동, 민속원, 2000), 동해안 어촌의 민속학적 이해(권삼문, 民俗苑, 2001), 경기민속지 VI(경기도박물관, 2003), 한국근현대 농민사회연구(조승연, 서경문화사, 2004),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국립민속박물관, 2005), 반곡리 민속지(국립민속박물관, 2006).

필자 | 조승연(趙承衍)

세시풍속(歲時風俗)

가을은 음력으로 7, 8, 9월에 해당하며, 이 기간 중 음력에 따른 명절과 양력의 24절기에 따른 절일(節日)과 관련된 세시풍속이 많다.

가을은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추수를 하는 수확의 계절이다.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느낌이 들지만, 또한 본격적인 추수기에 들어서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바쁜 계절이기도 하다. 대개 추석 무렵까지는 들녘의 일이 많지 않지만 추석이 지나면서 벼를 비롯하여 각종 곡식을 추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많아진다.

가을을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세시풍속은 올개심리(올게심니)이다. 올개심리는 호남지방을 비롯하여 논농사가 많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시풍속의 하나이지만, 다른 세시풍속들과는 달리 특정한 명절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을을 대표하는 세시풍속이라고 할 만하다. 즉, 명절이나 절일로 불리는 특정한 달의 특정한 날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고 각 가정에서 날을 받아 올개심리를 한다는 점에서 명절날에 하는 세시풍속과 다르며, 그런 뜻에서 가을의 전형적인 세시풍속이라 하겠다.

음력을 기준으로 7월에는 칠석(七夕)과 백중(百中)이 있고, 절기로는 입추(立秋)와 처서(處暑)가 있다. 칠석은 견우와 직녀의 전설 때문에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도교적 성격이 짙은 명절이기도 하다. 칠석날 사람들은 조상의 차례를 모시기도 하고, 또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칠성공(七星供)이라 하여 절에 가기도 한다. 또 이날 장독에 칠성그릇을 올려놓고 정화수를 바치는 집도 있다. 7월 보름은 백중이다. 온갖 곡식이 마련되는 때여서 '백종(百種)'으로 적기도 한다. 백중은 일년을 반으로 나눌 때 처음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에, 대보름을 상원(上元)이라 부르는 것에 반해서 중원(中元)이라고 한다. 정월대보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축 행사를 벌이고, 농가에서는 여름 농한기에 들어 하루를 쉬며 논다. 각 가정에서는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게 차례를 올린다. 특히 백중은 일꾼이나 머슴들을 위하는 날이어서 '머슴명절'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호미씻이나 백중놀이를 하는 곳도 많다. 백중에 제주도

에서는 마불림제를 지내며 도처에서 우란분회(盂蘭盆會), 호미씻이[洗鋤宴] 같은 의례를 행한다. 대표적인 백중놀이로 밀양백중(密陽百中)놀이, 연산백중(連山百中)놀이가 있으며 웅상농청장원(熊上農廳壯元)놀이, 고양송포(高陽松浦)호미걸이, 김포(金浦)통진두레놀이, 남원삼동(南原三童)굿놀이, 현천소동패(玄川少童牌)놀이, 들돌들기, 씨름 등이 지역별로 행해진다.

양력으로 8월 8~9일 무렵에 입추가 든다. 입추는 말 그대로 가을의 문턱을 막 넘어서는 날이다. 입추부터는 가을 채비를 시작한다. 가을에 든다고는 하지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입추 15일 간을 3후(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중후(中候)에는 진한 이슬이 내리며, 말후(末候)에는 쓰르라미가 운다고 하여 날씨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부터 김장용 무와 배추를 심으며, 벼가 한창 익어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입추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는 말도 전한다.

양력으로 8월 23~24일 무렵에는 처서가 든다. 처서는 말 그대로 더위를 마감한다는 뜻이다.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고 했는데, 날씨가 서늘해져서 모기도 힘을 잃는다는 뜻이다. 옛날 사람들은 처서 15일 간을 3후로 나누어 초후에는 매가 새를 잡아 늘어놓고, 중후에는 천지가 쓸쓸해지기 시작하며, 말후에는 벼가 익는다고 했다. 처서가 되면 일기(日氣)가 청명해지는 시기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여름에 습기 때문에 눅눅해진 옷이나 책을 이날 말리는 풍습이 있었으니, 이를 포쇄[曝曬]라 했다.

음력을 기준으로 8월에는 추석(秋夕)이 있으며, 절기로는 백로(白露)와 추분(秋分)이 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이며, 우리나라에서 설과 더불어 가장 큰 명절로 쇠고 있다. 추수를 마치고 풍년이 들게 해준 자연신이나 조상신에게 감사의 제의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추석은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기 전에 있으며, 논에서 잘 익은 벼를 약간 베어와 신곡(新穀)으로 메를 지어 차례를 모신다.

본래 벼농사가 많은 지역에서는 추석을 크게 쇠고, 보리농사가 많은 지역에서는 단오를 크게 쉰다. 추석과 단오는 주곡의 추수와 관련해서 정해진 명절이며, 따라서 남한 지역은 추석을 크게 쇠고, 북한 지역은 단오를 크게 쇠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석은 "더도 덜도 말고 이날만 같아라"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장 풍성한 시기에 맞이하는 명절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추석을 가웃날, 가위, 가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1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조에 의하면 신라 3대 왕인 유리왕 때 가배(嘉俳)가 있었다. 즉 7월 16일부터 여자들을 궁정에서 두 패로 나누고 왕녀의 관장 아래 길쌈을 하였고, 8월 15일이 되면 심사하여 진 쪽에서 이긴 쪽을 대접하도록 하였다. 이 가배행사가 '가위'라는 말로 음운 변화를 일으켜 지금에 이르렀다.


1


2

1 호미씻이
경기도 고양 국립민속박물관

2 국화전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송봉화

요즈음 귀성인파라는 말을 일년에 두 번 듣는데, 한 번은 설이요 다른 한 번은 추석이다. 농업을 위주로 했던 사회가 산업화가 되면서 농업에 근거를 둔 대부분의 명절이 사라지는 것에 반해 지금도 설과 추석은 전통적인 명절로 쇠고 있다. 귀성인파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추석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갖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성묘(省墓)를 한다. 추석에 일을 하면 홀아비나 홀엄씨가 된다는 속담이 전하고 있는데, 이는 힘든 추수 일을 앞두고 힘을 비축하기 위해 쉴 것을 권장하는 뜻을 담고 있다. 또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으로 음복하는 것도 힘의 비축을 위한 보양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4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은 송편이다. 각 가정에서는 마치 나락을 닮은 모양으로 송편을 빚는데, 가능하면 속의 고물을 꾹꾹 눌러 채운다. 마치 들녘의 벼가 잘 익기를 소망하는 주술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하다. 속을 꽉 채운 송편이 원형을 지향하듯, 호남지역에서는 부녀자들이 모여 강강술래를 추었다. 추석에는 이 밖에 달마중, 중로보기 같은 풍속이 전해오며, 이날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는 속신도 있다.

양력으로 9월 8일 무렵에는 백로(白露)가 든다. 백로는 이슬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가 되면 밤 기온이 떨어져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옛 사람들은 백로 15일 간을 3후로 나누어 초후에는 기러기가 날아오고, 중후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날아가며, 말후에는 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고 하였다. 백로 즈음은 오곡백과가 한창 익어가는 때이다. 그래서 햇볕이 강하면 풍년이 든다고 하며, 이날 비가 오면 오곡이 겉여물고 백과의 단물이 빠진다고 한다.

양력으로 9월 23일 무렵에는 추분(秋分)이 든다. 추분은 춘분과 더불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다. 옛 사람들은 추분 15일 간을 3후로 나누어 초후에는 우렛소리가 그치고, 중후에는 겨울잠을 잘 벌레가 창을 막으며, 말후에는 땅 위의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맘때쯤이면 들녘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간다. 가을걷이(추수)를 위해 일손이 바빠지는 시기이다.

음력을 기준으로 9월에는 중구(重九)가 있으며, 절기로는 한로(寒露)와 상강(霜降)이 있다. 9월 9일은 중양절(重陽節)이라고 한다. 이는 두 개의 양수가 겹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며, 특히 9월 9일은 3의 3배수가 9이기 때문에 완전수라 하여 중히 여겨왔다. 오늘날 중양절은 명절로 여기지 않고 다만 길일(吉日)이라고만 여기고 있다. 삼짇날 날아온 제비가 이날 다시 강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옛날에는 노란 국화꽃잎으로 술을 담그고 떡을 빚어 먹었다. 황국은 약이 되는 것으로 믿어져 왔으며, 고려가요 '동동(動動)'에도 "9월 9일에 아으 약이라 먹는 황화"라 하고 있다. 또 사당(祠堂)이 있는 집에서는 배, 유자, 석류, 잣을 꿀물에 섞어 만든 화채를 만들어 조상에게 올리기도 한다. 옛날에는 중양절을 맞아 시인묵객들이 단풍놀이를 즐기면서 시회(詩會)를 열었다.

3 **추석성묘**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송봉화

4 **장원례**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김영한

양력으로 10월 8~9일 무렵에 한로가 든다. 차츰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밤에는 찬이슬이 내리는 때라는 뜻이다. 옛 사람들은 한로 15일 간을 3후로 나누어 초후에는 기러기가 모여들고, 중후에는 참새가 적어지고, 말후에는 노란 국화가 핀다고 했다. 그래서 한로 즈음에 국화전을 지져먹고, 국화술을 담그기도 한다. 또 이날 산에 올라가 붉은색의 산수유 열매를 머리에 꽂으면 잡귀를 쫓을 수 있다고 믿었다.

양력으로 9월 23~24일 무렵에 상강이 든다. 날씨가 차가워져 서리가 내리는 때이다. 옛 사람들은 상강 15일 간을 3후로 나누어 초후에는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아먹고, 중후에는 풀과 나뭇잎이 누렇게 마르며, 말후에는 겨울잠을 자는 짐승이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상강 무렵이 되면 가을걷이도 거의 끝난다. 그래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친목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가을의 세시풍속은 올개심리를 비롯하여 추수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 우리 속담에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 "가을판에는 대부인마님도 나막신짝 들고 나선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을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다. 그러나 바쁜 가운데도 7월에는 백중을 두어 여름농사에 진력했던 머슴과 일꾼들을 대접하며 하루를 쉬게 하고, 8월에는 추석을 두어 풍년이 들게 해준 조상에게 감사의 뜻으로 천신(薦新)을 하며, 9월에는 중구를 두어 가을을 완상(玩賞)하는 등 세시에 따른 풍속을 즐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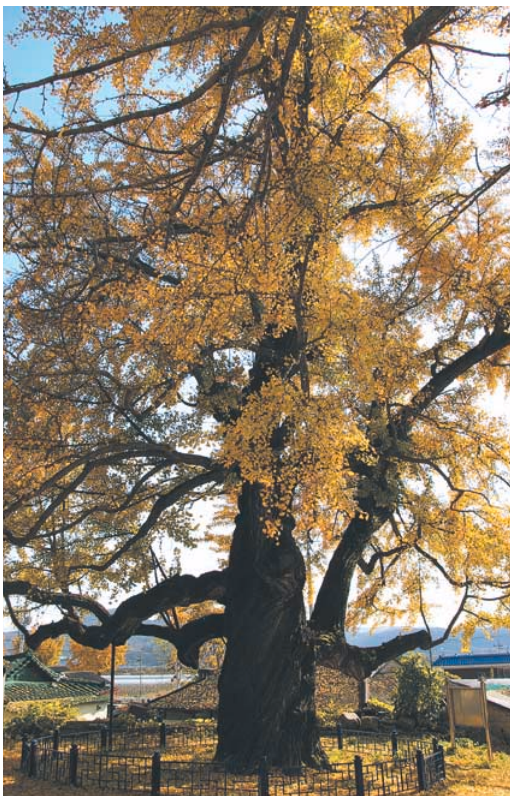
참고문헌 | 三國史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남도민속의 세계(김성식 외, 민속원, 2005).
필자 | 나경수(羅景洙)

식물(植物)

하늘이 푸르러져 쪽빛으로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질 즈음이면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절기(節氣)상으로 입추(立秋)부터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까지가 가을에 해당한다. 가을은 초목들이 대부분 열매를 맺어서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는 계절이요, 화려한 단풍으로 치장하면서 지난 여름의 치열했던 삶에서 승리한 여유를 즐기고 자랑하는 계절이다. 그런가 하면 이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꽃을 피우는 식물도 많아 계절의 막바지를 수놓는 꽃의 계절이기도 하다.

가을로 접어들어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단일식물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밤 길이가 더 길어져 일조 시간이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져야 꽃을 피우는 식물이 단일식물이다. 가을하면 들국화를 연상하는 것도 바로 단일식물 중 대표적인 것이 국화 무리이기 때문이며 가을 산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들국화란 말은 산야에 야생으로 피어 있는 국화 무리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국화 무리들은 모양이 다른 두 가지 꽃을 피우는데 꽃 밑부분이 통 모양으로 생긴 관상화(管狀花)와 혀 모양으로 생긴 설상화(舌狀花)가 그것이다. 국화 무리는 예외 없이 이런 설상화나 관상화가 화탁(花托), 즉 꽃받침에 수백 개씩 달려서 꽃 한 송이를 만들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국화 무리를 가려낼 수 있다. 가을 산야를 수놓는 들국화로는 구절초(九折草)와 산국(山菊), 감국(甘菊), 쑥부쟁이, 참취, 곰취 등이 있다.



은행나무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이건욱

구절초 무리들은 줄기 끝에 비교적 큰 흰색의 꽃을 피우며 산지의 능선에서 주로 자라는 산구절초와 구절초, 높은 산 바위틈에서 자라는 바위구절초,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한라구절초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울릉도에는 울릉국화라 하여 구절초의 일종이 자라고 있다. 관상식물인 국화도 바로 구절초 무리를 원예적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산국과 감국은 주로 산지의 숲 가장자리에 자라면서 줄기 끝에 노란색의 정겨운 꽃을 여러 개 피운다. 그리고 연한 자주색의 꽃을 피우는 쑥부쟁이 종류들로는 산지 숲에서 자라는 개미취나 벌개미취, 풀밭이나 길가를 따라 피는 개쑥부쟁이나 버드쟁이나물, 한라산 높은 지대에서 자라는 눈개쑥부쟁이 그리고 울릉도에서 자라는 섬쑥부쟁이 등이 있다. 울릉도에 가을이 오면 보라색의 섬쑥부쟁이와 노란색 털머위가 바닷가 암벽을 따라 함께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든다.

또한 봄철 나물로서 즐겨 먹는 참취도 늦여름에서 초가을에 걸쳐 흰 꽃을 피우며, 곰취는 깊은 숲 속에서 넓은 잎 사이에 기다란 꽃자루를 내어서 그 끝에 노란 색의 꽃을 피운다. 주로 중부 이남의 남쪽 지방 바닷가를 따라서는 해국이 보라색의 큰 꽃을 피운다. 그 밖에 대부분의 쑥 종류들도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늦여름부터 시작하여 가을에 걸쳐 꽃을 피운다. 쑥도 꽃이 필 때쯤이면 키가 사람의 가슴 높이까지 자라서 봄의 들판에 돋아난 쑥잎과는 다르게 된다.

여러 가을꽃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것으로 코스모스가 있다. 코스모스는 원래 멕시코의 높은 지대에서 자라던 식물이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뒤로 유럽에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에 들어와서 이제는 토종 야생 식물들과 더불어 서식하며 완벽하게 한국화에 성공한 식물이다. 코스모스처럼 외국이 원산이면서 우리나라에 살게 된 식물을 가리켜 귀화식물이라 부른다.

코스모스도 식물학적으로 국화와 같은 국화과에 속한다. 그래서 주변에 혀 모양의 꽃과 가운데에 통 모양의 꽃이 있다. 꽃은 하얀색에서 연한 홍색, 연분홍색, 짙은 홍색 등 다양하지만 모두 또렷한 꽃색을 나타낸다. 실제 꽃색은 꽃의 가장자리에 달리는 여덟 개 혀 모양의 꽃잎색이다. 혀 모양의 꽃은



코스모스 이창호



단풍 심디스마

색깔을 띠는 대신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꽃의 가운데 있는 통 모양의 꽃은 가루받이를 하여 씨를 맺는다.

지금까지 든 꽃들말고도 가을의 숲이나 들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식물들은 많다. 특히 조그만 바람에도 하늘거리며 들이나 산지의 초원에 무리지어 하얀 꽃을 피우는 억새와, 물가나 습지에 자라면서 억새보다는 몸체가 갈색이며 꽃도 짙은 색인 갈대가 들국화 무리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한껏 북돋운다.

설악산이나 오대산과 같은 중부 북쪽 고산에는 우리의 대표적인 특산 식물인 금강초롱꽃이 숲속을 따라 꽃이름 그대로 보라색 초롱 모양의 소담스런 꽃을 피운다. 또한 분홍색의 향유나 꽃향유 그리고 햇빛이 잘 드는 들에서 몇 그루가 모여서 노란 꽃을 피우는 마타리도 초가을에 흔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다.

포도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고 그 달콤한 맛이 목젖 깊숙이 느껴지는 가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결실의 계절이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는 익어가는 과일의 단맛을 더욱 돋우어주며 한낮의 뜨거운 햇살은 미처 덜 여문 열매를 알차게 영글도록 도와준다. 가을은 오곡백과가 여물어가는 들판의 풍요가 있을 뿐 아니라 산야 곳곳에서는 오미자나무루, 다래, 으름 같은 야생 초목들의 정겨운 열매가 익어가는 때이기도 하다.

오미자는 낙엽 덩굴성 식물로서 산지의 숲속에 햇볕이 잘 들고, 돌이 많은 비탈진 곳에서 주로 자란다. 잎은 덩굴성 줄기에 어긋나기로 붙어 있으며, 꽃은 줄기의 겨드랑이에 하나씩 달린다. 오미자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달린다. 가을에 접어들면 오미자는 붉게 익는데 이때쯤이면 숲에서 붉은 열매가 잔뜩 달린 오미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미자는 길게 자란 화탁에 붉은 색의 둥근 열매가 이삭 모양으로 총총히 달린다. 오미란 다섯 가지 맛으로서 신맛[酸味], 쓴맛[苦味], 매운맛[辛味], 단맛[甘味], 짠맛[鹹味]의 다섯 가지 맛을 뜻하며, 오미자의 열매를 먹으면 이 다섯 가지 맛을 다 맛볼 수 있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어쩌면 달콤하기도 하고 매콤하기도 한, 그 맛의 오묘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미자란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오미자는 이 다섯 가지 맛 중에서도 신맛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오미자와 비슷한 식물로서 우리나라에는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흑오미자가 있다. 오미자가 열매를 붉게 맺는데 반하여 흑오미자는 이름 그대로 검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오미자보다 신맛이 덜하며 이 열매를 달여 차로 마시는데 오미자차보다 더욱 귀하게 여긴다. 오미자와는 속이 다른 식물로서 남오미자라는 것도 있다. 남오미자는 우리나라의 남쪽지방의 산록의 양지에 자라는 오미자나 흑오미자와는 달리 상록성 식물이다. 잎의 윗면은 매우 반질거리며 잎의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나 있다. 남오미자는 오미자와는 달리 열매가 여러 개 뭉쳐서 둥글게 달리며 붉은 색으로 익는다. 그러나 열매를 차나 식용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미자 외에도 우리와 친숙한 가을 산의 열매로 머루와 다래가 있다. 머루는 왕머루, 머루, 새머루, 까마귀머루 따위로 여러 종류가 있다. 산에서 흔히 보는 포도나무 잎처럼 생긴 덩굴성 식물은 실제는 왕머루이다. 머루는 잎 뒷면에 갈색 털이 많으며 우리나라에는 울릉도에서만 자란다. 잘 익은 머루나 왕머루는 달콤하여 산길 걷기에 지친 심신을 달래준다. 왕머루보다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로 새머루가 있다. 새머루는 왕머루보다는 잎이 작다.

새머루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며 술로 담그기도 한다. 그러나 맛은 머루나 왕머루를 따라가지 못한다.

다래는 주로 깊은 산에서 사는 덩굴성 식물로 봄에 향기 있는 흰 꽃을 피우며 열매는 서리가 내릴 때쯤이면 황록색으로 익는다. 잘 익은 다래는 겉이 물렁물렁하며 은은히 풍기는 향기와 달콤한 맛은 어느 과일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다래의 어린잎은 나물로 즐겨 먹으며 또 다래 수액을 받아서 건강음료로 마시기도 한다.

다래와 비슷한 식물로 개다래가 있다. 개다래는 말 그대로 가짜 다래란 뜻이다. 개다래의 어린 열매는 쏘는 맛과 매운 맛이 강하여 다래로 잘못 알고 입에 넣었다가는 몇 시간 동안 입안이 얼얼해진다. 다래가 깊은 숲에서 자라는데 비해 개다래는 계곡 옆의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란다. 또한 다래는 잎이 녹색이지만 개다래는 잎의 일부분이나 때로는 잎 전체가 흰 물감을 발라 놓은 것처럼 변한다. 열매는 다래가 전체적으로 둥글고 끝이 뭉뚝하나 개다래는 날씬하고 끝이 뾰쪽하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래와 개다래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기온은 점차 떨어지고 그에 따라 북쪽의 높은 산에서부터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숲속의 식물들 중 단풍이 가장 빨리 들어, 단풍을 알리는 전령으로 여겨지는 식물로 붉나무와 옻나무가 있다. 단풍이란 식물의 잎이 붉게 또는 노랗게 물들어 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단풍은 한자로 붉을 '단(丹)'과 단풍나무 '풍(楓)'을 쓴다. 이 낱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단풍나무가 바로 단풍을 대표하는 나무이다. 실제로 가을이 되면 단풍나무의 잎이 새빨갛게 물들어서 수많은 가을 단풍 중에서 가장 맑고 아름다운 색깔을 띤다.

단풍나무는 학명(學名)이 *Acer palmatum*이다. *Acer*라는 속명(屬名)은 잎이 나누어진다는 데서 유래된 라틴어이며, 종소명(種小名)인 *palmatum*도 잎이 손가락 꼴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에서 따온 말이다. 그래서 단풍이란 말은 잎이 손가락 꼴로 벌어진 형태를 가진 식물의 이름에 흔히 접두어로 붙는다. 이를테면 단풍제비꽃은 제비꽃이긴 하지만 단풍나무처럼 손가락 꼴로 나누어지는 잎을 가진 제비꽃이다. 이 밖에 단풍터리풀, 단풍취, 단풍마, 단풍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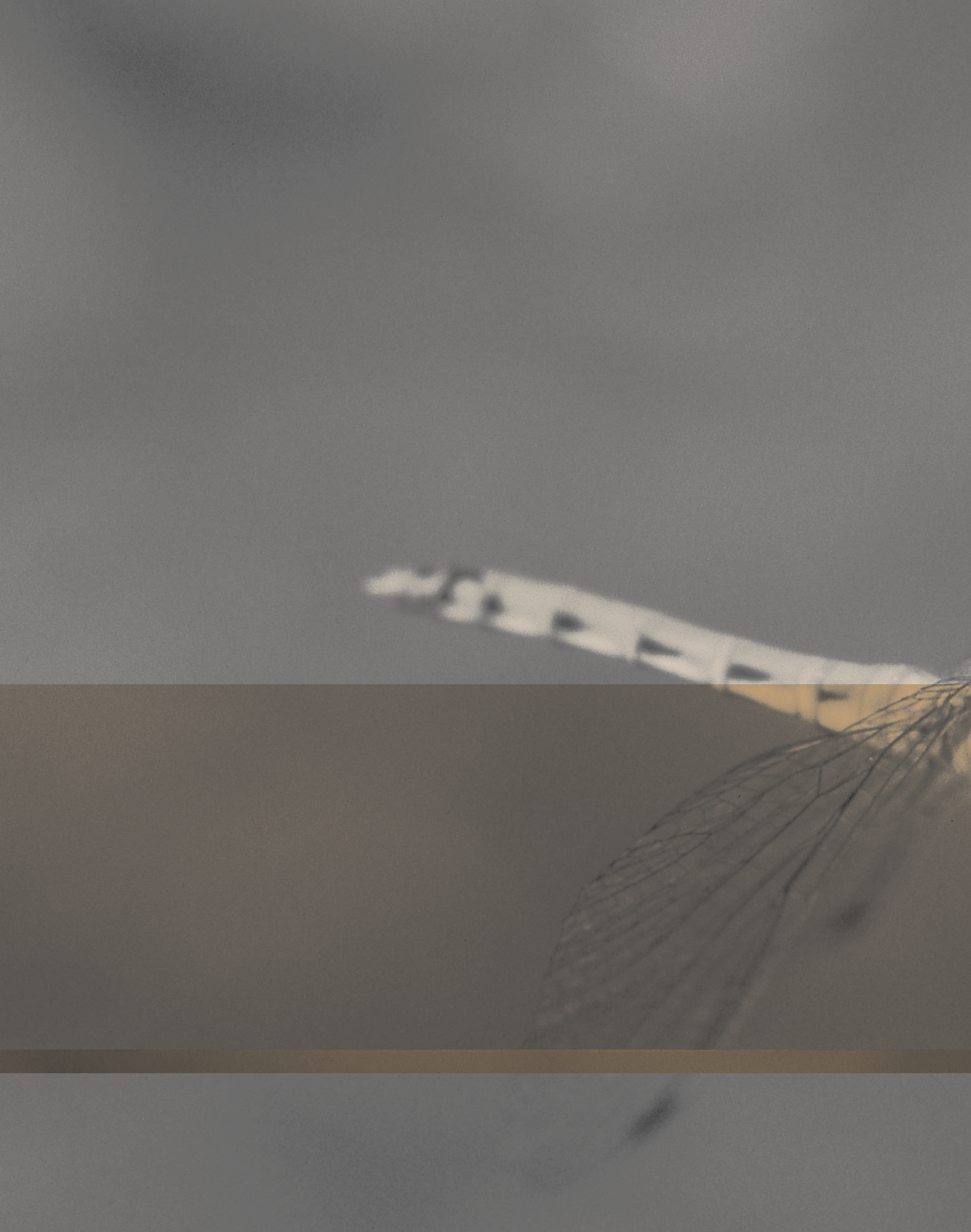


갈대 김진열

등 잎의 모양이 단풍나무를 닮아서 이름에 단풍을 붙인 식물이 많다. 단풍나무속에 포함되는 식물은 우리나라에 30여 종류가 있다. 봄에 수액을 채취하는 고로쇠나무도 단풍나무속에 포함되지만 단풍은 그리 화려하지 못하다. 산에서 가을 단풍이 빨갛게 물드는 종류로 단풍나무보다는 당단풍나무를 더 흔히 볼 수 있다. 당단풍나무는 잎이 8~9개로 나누어져서 5~6개로 나누어지는 단풍나무와 구분이 가능하다.

단풍 하면 샛노랗게 잎이 물드는 은행나무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수령이 천년 이상이라고 알려진 은행나무들도 있으나 원산지는 중국이다.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는 암수딴그루 식물이다. 동물들은 대부분 암수 구분이 쉽지만, 은행나무는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지 않는 한 암수를 구분하기 힘들다. 다만 성숙한 암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많이 달아서 그 무게 때문에 가지가 밑으로 쳐져서 스스로 암나무임을 나타낸다. 이 밖에도 가을 산에는 적갈색으로 물드는 벚나무 종류들, 짙은 갈색으로 변하는 참나무들과 독특하고 다양한 단풍색상을 만들어내는 식물들이 많다.

참고문헌 | 원색 대한식물도감 하(이창복, 향문사, 2003).
필자 | 선병윤(宣炳崙)



七月

칠월



칠월은 농가나 일반 가정에서도
특별히 바쁜 일이 많지 않아
어정대기 좋은 계절이다.
칠석날 견우직녀성을 보면서
사랑을 꿈꾸기도 하고
백중에는 사찰에 가서
우란분재를 올리며
육친의 정을 그리워한다.
호미씻이로 잔치를 베풀어
농공(農功)의
고통을 이웃에 나누는
분여(分與)의 시기이다.



7월(七月)

이칭 음력 7월은 맹추(孟秋), 만염(晩炎)이라고 부르듯이, 가을의 시작이자 늦더위가 남아 있는 시기이다. 또한 과월(瓜月), 교월(巧月)이라 하듯이 여성들과 관련된 민속이 많은 달이기도 하다.

내용 가을철의 시작인 음력 7월의 세시풍속으로는 칠석(七夕)의 걸교(乞巧), 칠석고사(七夕告祀)가 있으며, 백중(百中)의 우란분재(盂蘭盆齋), 호미씻이, 종묘대제(宗廟大祭), 올벼천신이 있다. 제주도 본향당에서는 농포제(農酺祭)를 지낸다. 장마가 계속될 때는 비가 그치기를 바라는 기청제(祈晴祭)인 영제(禜祭)를 국가의례로 지낸다. 7월에는 24절기 중에 입추(立秋)와 처서(處暑)가 들어 있는데 입추의 '입(立)'은 시작,'추(秋)'는 추렴(擉斂)으로 수확을 알린다. 처서의 '처(處)'는 지(止)로서 서기(暑氣)가 그치는 때라는 의미로, 이 시기는 농작 활동에서 수확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절기상 더위가 그치는 때이다.

칠석 음력 7월 7일은 칠석날이라 하여 하늘의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이 만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날 쇄서포의[曬書曝衣]라 하여 낮에 옷과 서적을 볕에 펼쳐서 말리는데, 그렇게 하면 벌레가 좀먹지 않는다고 한다. 칠석날 비가 오면 견우와 직녀가 재회의 기쁨에 흘리는 눈물이라 하는데, 그해 농사가 잘 될 징조라 한다. 이날 경북 지역의 여성들은 바늘에 실을 꿰어 남편의 옷자락에 몰래 꿰매두면 무엇이든 소원성취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칠성기도라 하여 칠석날 저녁에 북두칠성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백설기, 참외, 주과포 같은 제물을 놓고 촛불과 향을 피우며 수명장수(壽命長壽)를 기원한다. 특히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득남(得男)과 자식의 장수를 빈다.

칠석에 하는 놀이를 통틀어 칠석놀이라 하는데, 경남 김해에서는 김해부서(府西)인 진영읍 알촌과 하계마을에서 매년 6월 그믐에서 7월 10일까지 긴 장대에 깃발을 달아 잡악(雜樂)을 베풀면서 태종신(太宗神)에게 제사를 지낸다. 이때 모두 모여서 술을 마시고 씨름으로 승부를 겨루는데, 7월 10일에 마치게 되므로 농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중단했다가 호랑이가 가축에게 피해를 주어 다시 재현하고 있다고 한다.

백중 음력 7월 보름날을 백중이라 한다. 한자로 '百衆','百種','百中'으로 쓰고 그 외에 망혼일(亡魂日), 중원(中元), 머슴날, 머슴명일이라고도 한다. 백중의 어원은 백 가지 과일을 차리고 불교의 우란분재를 지냈기 때문이라고 하며, 또는 백 가지 씨앗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백종(百種)이라 하고 망친(亡親)의 영혼을 제사한다."라고 하였듯이 조상을 기리는 날이고 동시에 농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날이다.

1 북두칠성
http://astrophoto.co.kr 이건호

2 밀양백중놀이
경남 밀양 주병수





승려들은 4월 8일부터 하안거(夏安居)에 들어가는데, 이를 '여름을 맺는다'라고 하며, 백중에 '여름을 푼다'라고 한다. 여름을 맺는 것은 만물이 자라는 여름에 초목과 벌레를 상하게 할까 두려워 90일 동안 고요히 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농가에서는 집집마다 김매기를 끝낸 기쁨으로 서로 축하하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세서회[洗鋤會, 洗鋤宴], 즉 호미씻이를 한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백중(百中)이 백과(百果)를 가리키는 것 같다고 하였는데, 민간 어원으로는 호미씻이를 하고 나면 발뒤꿈치가 하얗게 되므로 백종(白踵)이라고 하고, 백 가지 씨앗 종자를 갖추었다 하여 백종(百種)이라 하였다.

고려가요인 '동동(動動)'에도 이날 백 가지 제물을 차려놓고 임과 함께 저승에서라도 살아가기를 빈다고 하여, 망혼일(亡魂日)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난다. 불교의 우란분경(盂蘭盆經)에는 목련비구가 오미백과(五味百果)를 갖추어 분(盆) 안에 넣어서 시방대덕[十方大德]에게 공양하였다고 하고, 도교에서는 중원절 또는 귀절(鬼節)이라 한다. 강원도 양양지방에서는 백중날 약수가 약이 된다고 하여 약수터에 가서 물을 마신다.

백중놀이는 경남 밀양이 유명하다. 밀양백중놀이는 198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되었다. 밀양에서는 백중을 농군들에 의한 '머슴날 꼼배기참놀음'이라 하며 농신대를 세우고 제사지내기, 작두말타기, 양반춤, 병신춤, 범부춤, 오북춤 등을 춘다.

고양송포호미걸이는 경기도 고양에서 전승되는 풍농제(豊農祭)이다. 김매기가 끝난 다음에 당제(堂祭)를 지내고 판놀음을 벌이는 것으로, 백중날 호미를 씻어서 걸어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미걸이를 할 때는 긴소리, 사두여, 양산도, 방아타령, 놀놀이, 자진방아타령, 상사듸어, 자진놀놀이, 몸놀이, 휠휠이와 같은 민요를 부른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1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조에는 7월 15일부터 길쌈하던 신라의 풍속이 전한다. 수십 년 전에는 영남지방에서 7월 초승달 뜬 때에 여염집 부녀자들이 모여서 삼도 삼고 무명실도 자아서 그 성과를 비교하다가 8월 초열흘에 파하고, 또 '둘레물레'라 하여



우란분재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사
국립민속박물관

오늘 저녁에는 동쪽 집에 모이고, 내일 저녁에는 서쪽 집에 모여서 물레질도 하고 삼도 삼았다.

호미씻이 7월은 "깐깐 5월, 미끈 6월,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달에 비해 일이 없는 농한기에 속한다. 7월 보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집에서 각자 음식을 만들어 나이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위로의 시간을 갖는 것을 호미씻이라고 하며,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리기도 한다.

호미씻이는 논 김매기를 끝낸 후인 음력 7월 7일 칠석에서 15일인 백중 무렵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 위로하며 음식을 먹는 잔치다. 강원도의 질먹기, 경상도의 풋굿, 전라도의 술멕이, 충청도의 두레먹기, 경기도의 호미걸이는 모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호미씻이는 두레형태의 논농사에서 생겨난 뒤풀이 민속으로 일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행하는 풍속이다. 이날 동네의 공동사를 의논하고, 집안에 장성한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음식을 주민들에게 베풀어 두레나 품앗이에서 성인 대접을 받는 성년식을 한다. 강원도에서는 농경민속 가운데 두레결사와 같은 형태를 질 또는 질레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된 용어로 질짜기, 질레짜기가 있다. 질짜기는 질이라는 명사에 짜다(구성하다)가 합성된 용어로 두레 인원을 구성하는 행위이다. 질은 김매다의 김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한자어 질서의 질(秩)이나 책 한 질(帙)처럼 단체, 무리, 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질짜기는 초벌김을 매는 아이짐부터 세벌짐까지 많은 농군들이 필요하므로 예전에는 각 호당 한 명 또는 두 명씩 참가하여 25명 내외로 한 질레를 만들었다. 강원도 강릉시 학산마을에서는 몇 농가에서 작은 논의 경우 일꾼을 사서 질을 짜는데,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대부분 기계질을 짠다고 하여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서로 돌려가면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먹기는 대개 논김을 다 매고 밭김을 두벌 매고 김장배추를 심을 시기인 7월 무렵에 한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집에서 밥에 고등어자반 같은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놓고, 나이 순서대로 멍석을 깔아놓고 위로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농군을 위로하는 먹거리 잔치이므로 마을 농악놀이도 하고, 곡주도 마련하는데, 누가 농사를 잘 지었나를 살펴 장원을 정하고 장원주라며 권한다.

아울러 장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질을 헤친다" 또는 "질을 먹인다"라며 음식을 베풀며 이후에는 성인대접을 받게 된다. 마을마다 질이라 부르는 두레를 짜면 공동으로 일을 해나가게 되는데 영좌(領座)와 대방, 비방이라는 직함을 만든다. 영좌는 마을의 어른으로 관례행사와 호미씻이를 주관하고 마을의 불량자를 훈계하기도 한다. 영월지방에는 영좌, 공사장, 대방, 상고원 등이 있었다.

절식 7월에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는다. 특히 칠석을 즈음하여 밀전병과 밀부꾸미, 호박전을 부쳐 먹는다. 밀전병은 묽은 밀가루 반죽에 애호박, 부추, 풋고추 등을 넣어 기름에 부친 것이며, 밀부꾸미는 밀가루 반죽으로 둥글게 만들어 기름에 지진 떡에 팥과 같은 소를 넣어 만든 것이다. 호박전은 애호박을 얇고 둥글게 썰어서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부친 것이다. 그리고 석탄병(惜呑餠)이라는 떡을 7월에 주로 먹는다. 석탄병은 쌀가루와 감가루를 섞어 계피가루, 잣, 대추, 밤 등으로 맛을 내는데, 너무 맛있어 삼키기가 아깝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북한에서는 '단고기국'이라 부르는 보신탕을 먹는다.

생업 7월에는 밭벼를 수확하고, 수박을 따며, 가을 농사를 위해 퇴비를 장만하는 일들로 여전히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부인들은 집장[汁醬]을 담근다. 강원도 정선과 평창에서는 가을철 쥐눈이콩으로 장을 담근다. 평창, 정선, 삼척 등지에서는 처서가 되면 4월에 파종했던 대마가 다 자라게 되므로, 이것을 베어 삼굿에 쪄서 껍질을 벗긴 다음 베틀에 놓고 삼을 삼는다. 삼베길쌈은 중국산에 밀려 사라져가지만 전남 곡성, 경북 안동, 강원도 평창 방림 지역과 삼척 하장에서는 지금도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평창에서는 삼베를 베고 난 밭에 '삼베무'라고 하여 무나 배추를 심는데 특히 맛이 좋다.

이때는 거름을 내고 퇴비 장만을 위해 풀을 베어놓고 작두질을 한다. 속담에 "퇴비무지가 쌀무지"라 하여 농가에서는 이듬해 농사에 필요한 퇴비 마련을 필수적으로 한다. 갈풀썰이는 강원 산간마을 화전농경문화의 하나로 음력 7월 무렵 추수 전에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집집마다 돌아가며 이듬해 쓸 퇴비를 장만하는 것이다. 비료가 없던 1960년대

1 장원놀이
경남 고성 주병수

2 삼삼기
충남 서천군 한산면 영모리 황현만





이전 화전농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퇴비만이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므로, 가을에 풀을 베어 말리는 작업은 긴요하였다.

갈풀은 대체로 2~3년생 초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작업 중에 풀아시(풀을 작두에 밀어넣는 사람)가 풀 이름으로 사설을 붙인 소리를 불러 주어 지루하고 힘든 작업의 피로를 덜어주고 작두질할 때 힘의 안배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해준다. 풀아시의 선소리에 답하여 작두꾼과 뒤풀꾼(뒤에서 풀을 모아 풀아시에게 챙겨주는 사람)이 화음을 내어 흥겨운 분위기를 만든다. 이날 풀밥이라 하여 일꾼들에게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며 장정들은 식사 후에 씨름을 하면서 힘자랑을 한다.

경기도 연백 지역은 7월 여름 장마로 패어나간 앞마당에 "흙을 드린다"라고 하여 새로 진흙을 퍼 고르게 편 다음, 저녁에 동네 청년들을 모아 뛰면서 놀도록 하여 곱게 밟는다. 다음에는 동네 주위의 팬 길을 닦아 정비하고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흙을 재복(財福)으로 여기는 풍습에서 유래한다.

점복 7월의 날씨로 풍흉을 점치는데, 1일에 비가 오면 쌀이 귀하고 사람에게 재앙이 들고, 4일에 비가 오면 벼에 쭉정이가 많다고 점친다. 처서 때 비가 오면 흉년이 들고, 백로가 7월 중에 들면 외(오이)가 잘 된다고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7월의 날씨를 보고 그해의 기상을 점친다. 7월이 시작하는 날에 바람 한 점 없이 바다가 잔잔하고 해가 곱게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그해 농작물과 가축이 좋다고 점친다. 가을에 천둥이 치면 불길하다고 하는데 충청도와 제주도에서는 양반이 죽는다고 하여 전란의 징조로 해석하였다.

충남에서는 논둑이나 길가에 장마풀이 돋아나면 파란 풀잎에 가로로 검게 그어진 선의 개수를 세어 그해 장마가 몇 번 들 것인지 점을 친다. 강원도 평창에서는 초가을에 옥수수 알이 여문 것을 보고, 그해 가을 풍흉을 점친다. 이른 옥수수가 잘 되면 이른 곡식이 좋은 결실을 맺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늦은 곡식이 풍작이라고 점친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7월에 창호지 구멍을 바르면 도둑이 든다고 하며, 이와 달리 영호남에서는 8월에 문을 바르면 집안에 우환이 그치지 않고 도둑이 들거나 겨울에 식구들이 감기에 걸린다 하여 7월에 바른다.

인접국가사례 중국 양나라 종름(宗懍)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는 칠석날 견우직녀의 만남과 여인들이 손재주를 비는 걸교 풍습이 기록되어 있고, 15일의 우란분회 기록이 있는데, 이 풍습은 지금도 지속된다. 옷이나 책을 햇볕에 말리는 쇄서포의 풍속은 청나라에도 있었다. 음력 6월 6일을 천황절(天貺節)이라 하여 의복과 서적을 볕에 쪼여 벌레를 제거하였다. 송나라 고승(高承)의 『사물기원(事物紀原)』에 의하면 이날은 천서(天書)가 태산에 내린 날로 제단을 만든다고 하였다. 칠석날 견우성과 직녀성의 만남은 『시경(詩經)』「소아(小雅)」에 나오며, 명나라 때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에는 중국의 여성들은 걸교라 하여 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비는 제사를 올리고 작은 바늘을 물에 띄워 그 그림자로 무엇을 수놓을지 점친다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이 달을 문월(文月)이라 하는데 교토나 오사카의 신사(神社)에는 초가을의 제사가 행해지고, 동경의 사찰에서는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는 공양 행사로 화분을 나누어준다.

의의 7월은 농가나 일반 가정에서도 특별히 바쁜 일이 많지 않아 어정대기 좋은 계절이다. "어정 7월"이라 하듯이 칠석날 견우직녀성을 보면서 사랑을 꿈꾸기도 하고, 15일 백중날에는 사찰에 가서 우란분재를 올리며 육친의 정을 그리워한다. 이처럼 7월은 그리움의 서정이 깊은 정인(情人)과 망혼(亡魂)의 달이다. 또 호미씻이로 잔치를 베풀어 농공(農功)의 고통을 이웃에 나누는 분여(分與)의 명절이다. 7월은 여성과 관련된 민속이 많고, 머슴명일이 들어 있어 사회적으로 차별받았던 계층에게는 더없이 좋은 달이다. 또한 6월처럼 지나치게 덥지도 8월처럼 서늘하지도 않으므로, 7월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수평으로 바로잡는 균형의 계절이고 휴식과 준비의 달이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朝鮮の年中行事(朝鮮總督府, 1931), 歲時風俗集(방종현, 研學社, 1946), 우리나라 세시기(李允熙, 金龍圖書, 1948),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研究(張正龍, 集文堂, 1988), 형초세시기(종름 원저, 상기숙 역저, 집문당, 1996), 한국의 두레1(주강현, 집문당, 1997), 江原道民俗研究(張正龍, 國學資料院, 2002), 열두달 민속이야기(리정순 외, 근로단체출판사, 2002).

필자 | 장정룡(張正龍)

개추(開秋)

정의 가을이 열린다거나 가을로 진입한다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가을 석 달(7월, 8월, 9월) 가운데 첫 달인 음력 7월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신추(新秋)·조추(早秋)·초추(初秋)라고도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참외가 익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추(瓜秋) 또는 과기(瓜期)라 하고, 이 달 7일 밤에 직녀성을 향해 자신의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교월(巧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송서(宋書)』 권99 「열전(列傳)」 이흉조(二凶條)의 왕준(王濬)이 올린 '오흥군무강개조소(吳興郡武康開漕疏)'에 "어떤 때는 봄이 왔는데도 밭갈이를 멈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추(開秋)에도 농사지은 것이 물에 잠기기도 하지만 농민들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기만 하지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或方春輟耕 或開秋沈稼 田家徒苦 防遏無方)."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宋書.
필자 | 이창희(李昌熙)

과기(瓜期)

정의 참외가 익는 시기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참외[瓜]는 박과의 덩굴성 한해살이 식물로, 노란 꽃이 잎겨드랑이에서 피고 음력 7월에 노란색, 녹색, 흰색의 달고 향기로운 액과(液果)를 맺기 때문에 과기(瓜期)는 참외가 익는 시기인 음력 7월에 해당한다.

참외 김진열



내용 과기는 지방관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유래는 『춘추좌전(春秋左傳)』 「장공(莊公)」 8년조에 "제(齊)나라 제후가 대부인 연칭(連稱)과 관지보(管至父)를 규구(葵丘)라는 곳으로 수(戍)자리 가게 하였는데 오이 먹을 시기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내년 오이를 따 먹을 시기에 교대해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齊侯 使連稱管至父戍葵丘 瓜時而往曰 及瓜而代)."라고 한 데에서 왔으며 이 역시 7월을 가리킨다. 또 『시경(詩經)』 「국풍(國風)」 빈풍(豳風) '7월(七月)' 시에 "7월에는 참외를 먹고 8월에는 호박을 딴다(七月食瓜 八月斷壺)."라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오동나무 잎이 비로소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추(梧秋), 동추(桐秋)라 하고, 화성의 별자리가 서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화월(流火月)이라고도 한다. 『한원신서(翰苑新書)』 「속집(續集)」 권21 회장현승(回張縣丞)에 "과기가 가까워진 요즘 저는 세상에 나아갈 뜻이 없이 적적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홀연히 은혜로운 관직을 제수하시었습니다(瓜期近只 某寂無世念 忽奉恩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詩經, 春秋左傳, 翰苑新書.
필자 | 이창희(李昌熙)

과월(瓜月)

정의 참외가 익어가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춘추좌전(春秋左傳)』 「장공(莊公)」 8년조(八年條)에 의하면, 제(齊)의 양공(襄公)이 연칭(連稱)과 관지보(管至父)에게 규구(葵丘)에 나가 수(戍)자리하게 하면서 "지금 참외가 익어가는 때이니 내년 참외가 익어갈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겠다(齊侯使連稱管至父 戍葵丘 瓜時而往曰 及瓜而代)."라고 한 구절이 있다. 또한 『시경(詩經)』 「국풍(國風)」 빈풍(豳風) '7월(七月)' 시에 "7월에는 참외를 먹고 8월에는 호박을 딴다(七月食瓜 八月斷壺)."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詩經, 春秋左傳.
필자 | 백순철(白淳哲)

교월(巧月)

정의 걸교(乞巧)가 든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걸(乞)은 빈다는 뜻이고 교(巧)는 길쌈과 바느질을 잘하는 솜씨를 뜻한다.

내용 음력 7월 7일이면 저녁에 여자들은 직녀성(織女星)을 향해 바느질과 길쌈 솜씨가 빼어나기를 빌고, 남자들은 견우성(牽牛星)을 바라보며 글을 잘 짓기를 기원하는 풍속에서 유래되었다. 김형수(金逈洙)의 『소당풍속시(嘯堂風俗詩)』에 "칠석이라 견우직녀 그리워 흘린 눈물 인간 세상 떨어져 가랑비 되었네(七夕牛女相思淚 滴下人間成霢霂)."라고 하였다. 중국의 『제경세시기승(帝京歲時紀勝)』「칠석(七夕)」에 "어린 여자 아이들은 동이에 물을 떠서 햇볕 아래에 놓고, 각자 작은 침을 던져서, 물 위에 뜨게 하여, 천천히 물 밑에 비치는 그림자를 본다. 그림자의 모양이 흩어진 것이 꽃과 같기도 하고, 움직이는 것이 구름과 같기도 하고, 가는 것이 실과 같기도 하고, 거친 것이 방망이와 같기도 한데, 이것을 가지고 그 여자 아이의 재주를 점쳤다(幼女以盂水曝日下 各投小針 浮之水面 徐視水底日影 或散如花動如雲 細如線 犖如椎 因以卜女之巧)."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嘯堂風俗詩, 帝京歲時紀勝.
필자 | 백순철(白淳哲)

금천(金天)

정의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동양 철학에서는 천지 간에 끊임없이 순환하는 다섯 가지 원소가 있는데 목(木)은 동쪽과 봄, 화(火)는 남쪽과 여름, 토(土)는 중앙과 계절의 중간, 금(金)은 서쪽과 가을, 수(水)는 북쪽과 겨울을 담당한다.

내용 『전당시(全唐詩)』 권84에 수록된 중국 당(唐)나라 진자앙(陳子昂)의 '송저작좌랑최융등종양왕동정(送著作佐郎崔融等從楊王東征)' 시에 "가을 하늘 서늘한 기운이 가득하니 차가운 이슬이 온 세상을 덮었네(金天方肅殺 白露始專征)."라고 하였다. 또한 『전당시(全唐詩)』 권125에 수록된 중국 당(唐)나라 왕유(王維)의 '봉화성제천장절사재신가응제(奉和聖制天長節賜宰臣歌應制)' 시에 "가을하늘 맑음이여 별들이 걸려있고 대궐의 서광이여 땅끝까지 이어졌네(金天淨兮麗三光 彤庭曙兮延八荒)."라고 하였고, 그 주(註)에 "당(唐)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금천(金天)이라고 쓰니, 곧 가을 하늘이다. 가을은 오행(五行)에서 금(金)에 속하기 때문에 금천(金天)이라고 한다(唐人多使金天字 則秋天也 秋于五行屬金 故曰金天)."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全唐詩, 陳伯玉集.
필자 | 백순철(白淳哲)

난월(蘭月)

정의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난월(蘭月)은 봄에 포기나누기를 한 난(蘭)의 알뿌리에서 음력 7월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기 때문에, 『세시광기(歲時廣記)』 권3에 『제요록(提要錄)』을 재인용하여 "7월을 난월이라 한다(七月爲蘭月)"라고 하였다. 7월 7일 밤을 난야(蘭夜)라고도 한다. 이 달 7일 밤에 직녀성을 향해 자신의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교월(巧月)이라 하고, 『시경(詩經)』「국풍(國風)」 빈풍(豳風) '7월(七月)' 시에 "7월이 되면 화성이 서쪽으로 내려온다(七月流火)."라고 하여 유화월(流火月)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 歲時廣記, 詩經.
필자 | 이창희(李昌熙)



빈풍칠월도 국립중앙박물관

난추(蘭秋)

정의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고시기(古詩紀)』 권59에 수록된 중국 남조(南朝)시대 송(宋)나라 사혜련(謝惠連)의 '여공곡아별(與孔曲阿別)' 시에 "쓸쓸한 바람 불어오는 초가을 천 리 먼 길 떠나가는 배를 전송하네(悽悽乘蘭秋 言餞千里舟)."라고 하였으며, 『세시광기(歲時廣記)』 권3에 『제요록(提要錄)』을 재인용하여 "7월을 난추라고 한다(七月爲蘭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古詩紀, 歲時廣記.
필자 | 백순철(白淳哲)

노량(露凉)

정의 차가운 이슬이 내리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냉월(冷月), 양월(凉月), 신량(新凉)이라고도 한다.

내용 밤이 되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대기의 온도에서 포함할 수 있는 양보다 많게 되어 그 만큼이 주위의 물체에 맺히게 되는 것이 이슬이다. 수증기가 많이 증발되는 호수나 하천 부근에서 이슬이 잘 맺히며, 이슬은 그 양이 많지는 않더라도 식물의 생장에 큰 역할을 한다. 『시경(詩經)』「정풍(鄭風)」 '야유만초(野有蔓草)' 시에 "들판에 덩굴풀 있으니 이슬이 내려 흠뻑 맺혀 있네(野有蔓草 零露溥兮)."라고 한 구절이 있다.



이슬 김진열

참고문헌 | 詩經, 呂氏春秋, 禮記.
필자 | 백순철(白淳哲)

동월(桐月)

정의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오월(梧月) 또는 오추(梧秋)라고도 한다.

내용 오동나무는 현삼과(玄蔘科)의 낙엽 활엽 교목이고 우리나라 특산으로 마을 부근에 심으며, 봄에 보랏빛 꽃이 피고 음력 7월이면 나뭇잎이 지기 시작한다. 『어정패문재광군방보(御定佩文齋廣群芳譜)』 「목보(木譜)」6 동조(桐條)에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면 천하 사람들이 모두 가을이 온 줄 안다(梧桐一葉落 天下盡知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권아(卷阿)' 시에 "봉황의 울음이여 저 높은 뫼에 있네. 오동나무가 자람이여 저 조양에 있네(鳳凰鳴矣 于彼高岡 梧桐生矣 于彼朝陽)."라고 한 구절이 있으며, 그 주(註)에 "봉황의 성질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는다(鳳凰之性 非梧桐不棲)."라고 하여 신성시하였다. 한편 동월(桐月)을 음력 3월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동나무 꽃이 3월에 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詩經, 御定佩文齋廣群芳譜.
필자 | 백순철(白淳哲)

만열(晩熱)

정의 늦더위를 뜻하는 말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만염(晩炎)이라고도 한다.

내용 입추가 되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만, 한 해 가운데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三伏)의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어서 들판에는 아직도 타는 듯한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 당(唐)나라 백거이(白居易)의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권17에 수록된 '잔서초객(殘暑招客)' 시에 "누가 늦더위[晩熱]를 씻어주리오, 간간이 두세 잔 술을 마시네(誰能淘晩熱 間飮兩三杯)."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氏長慶集.
필자 | 백순철(白淳哲)


酷暑속의 七夕
佛徒할머니들 塔돌이

酷暑속의 七夕
조선일보 1967년 8월 13일

만염(晩炎)

정의 여름이 지났지만 아직 남아 있는 늦더위를 뜻하며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염(炎)은 '덥다, 불타다'의 뜻으로 늦은 더위를 의미하며 만열(晩熱)이라고도 한다.

내용 일일재(一一齋) 김시찬(金是瓚)의 문집인 『일일재선생문집(一一齋先生文集)』 권2 시(詩)에 보면 가을 7월의 늦은 더위에 대해 노래한 "晩炎秋七月 當晝氣隆蘊 雲逗如蒸熨 風來亦自薰 蟬吟渠獨冷 狗喘養生紋 靜臥羲皇上 陶云吾更云"이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一一齋先生文集.
필자 | 백순철(白淳哲)

맹추(孟秋)

정의 한 계절을 맹(孟), 중(仲), 계(季)로 나누는데 가을은 맹추(孟秋), 중추(仲秋), 계추(季秋)로 석 달을 나눌 때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가을에 해당하는 음력 7, 8, 9월 중에서 첫 달이므로 맹추라고 한다. 이 밖에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로는 상월(相月), 양월(凉月), 냉월(冷月), 동월(桐月), 초추(初秋), 신추(新秋), 상추(上秋), 유화(流火), 처서(處暑), 과월(瓜月), 선월(蟬月), 조월(棗月), 신월(申月) 등이 있다.

내용 『예기(禮記)』「월령(月令)」에 "맹추의 달에 해는 익수(翼宿)에 있으며, 저녁에는 건성(建星)이 남중하고, 새벽에는 필수(畢宿)가 남중한다. ……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서리가 내린다. 쓰르라미가 울고, 매는 새를 잡아 제사 지낸다. 비로소 형벌을 시행한다(孟秋之月 日在翼 昏建星中 旦畢中 …… 凉風至 白露降 寒蟬鳴 鷹乃祭鳥 始用行戮……)."라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시칙훈(時則訓)」과 『여씨춘추(呂氏春秋)』「맹추기(孟秋紀)」에도 「월령」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 呂氏春秋, 禮記, 淮南子.
필자 | 신하령(申河令)

미랭(微冷)

정의 아직 늦더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밤이 되면 비교적 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서서히 가을 채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아직 남아 있는 늦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받아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시기이다. 중국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조자건집(曹子建集)』 권5 '증백마왕표(贈白馬王彪)' 시에 "가을바람이 불어오니 서늘한 기운이 생기고 쓰르라미는 내 침상 곁에서 우네(秋風發微冷 寒蟬鳴我側)."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曹子建集.
필자 | 백순철(白淳哲)

비월(否月)

정의 하늘과 땅의 음양이 서로 통하지 않아 사물의 기운이 꽉 막힌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비(否, ䷋)는 『주역(周易)』의 괘이름으로 상괘(上卦)는 건괘(乾卦, ☰)이고 하괘(下卦)는 곤괘(坤卦, ☷)로 이루어져 있다. 비월(否月)은 하늘과 땅의 음양(陰陽)이 서로 통하지 않아 사물의 기운이 꽉 막힌 달이라는 뜻이다. 정약용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권12 찬(贊) '봉화주문공역오찬(奉和朱文公易五贊)'에 보면 "비(否)는 칠월의 괘가 된다(否月

爲七)."라는 구절이 있어 비월이 칠월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茶山詩文集, 周易.
필자 | 백순철(白淳哲)

상월(相月)

정의 상(相)은 도(導)를 말하니 상월(相月)은 여러 음(陰)을 인도하여 위로 올라가 장차 음기가 왕성해진다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이아(爾雅)』「석천편(釋天篇)」 월명조(月名條)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病**),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病**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라고 하였고, 그 소(疏)에 "7월은 상월(相月)이라고 한다. 상(相)은 인도(引導)하는 것이니 삼음(三陰)의 기세가 이미 성대해져 음의 기운을 이끌어 위로 올라가는 형세이다(七月爲相 相者導也 三陰勢已成 遂導引而上也)."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爾雅.
필자 | 백순철(白淳哲)

상추(上秋)

정의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조추(肇秋), 맹추(孟秋)라고도 한다.
내용 일년 열두 달을 4계절로 나누어 1~3월을 춘(春), 4~6월을 하(夏), 7~9월을 추(秋), 10~12월을 동(冬)이라 하고, 각 계절에 속한 석 달을 나누어 첫 달을 초(初) 혹은 맹(孟), 둘째 달을 중(仲), 마지막 달을 만(晩) 혹은 모(暮), 계(季)라고 한다. 따라서 7월은 맹추(孟秋) 혹은 초추(初秋), 8월은 중추(仲秋), 9월은 계추(季秋) 혹은 만추(晩秋)라고 한다.

7월은 가을의 첫 시작으로 상중하(上中下)로 나눌 때 상(上)에 해당하여 상추(上秋)라고도 부른다. 『세시광기(歲時廣記)』 권3에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를 재인용하여 "7월을 맹추(孟秋), 수추(首秋), 초추(初秋), 상추(上秋), 조추(肇秋), 난추(蘭秋)라고 하며, 또 양월(凉月)이라고도 한다(七月曰 孟秋首秋 初秋上秋 肇秋蘭秋 又曰 凉月)."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歲時廣記, 呂氏春秋.
필자 | 백순철(白淳哲)

소추(小秋)

정의 가을 석 달(7월, 8월, 9월)을 각기 소추(小秋), 중추(中秋), 대추(大秋)라고 할 때 7월에 해당하여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 7월은 가을이 막 시작되는 소추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맹추(孟秋), 상추(上秋), 초추(初秋)라고도 한다.
내용 『육씨시소광요(陸氏詩疏廣**要**)』 권상(卷上)「석초편(釋草篇)」에 『도경(圖經)』의 내용을 재인용하여 "봄이 되면 붉은 싹이 무더기를 이루며 돋아난다. 줄기 위에는 마치 모란처럼 세 갈래로 다섯 잎이 매달리며 좁고 줄기의 길이는 1~2자나 된다. 여름에 꽃을 피우는데 이 역시 모란처럼 홍색과 백색과 자주색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소추(小秋)에 뿌리를 캐는데 뿌리도 적색과 백색 두 가지가 있다(春生紅芽作叢 莖上三枝五葉似牡丹 而狹長高一二尺 夏開花 有紅白紫數種子似牡丹 而小秋時 採根 根亦有赤白二色)."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陸氏詩疏廣要.
필자 | 이창희(李昌熙)

수추(首秋)

정의 수(首)는 처음 시작된다는 뜻이니 수추(首秋)는 가을이 처음 시작되는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한위육조백삼가집(漢魏六朝百三家集)』 권92에 수록된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왕승유(王僧孺)의 '추일수거답공주부(秋日愁居答孔主簿)' 시에 "수추(首秋)가 되니 수많은 사물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낮은 아직 덥지만 아침에는 오히려 서늘하구나(首秋雲物善 晝暑旦猶淸)."라고 하였다. 『위서(魏書)』 권19「경목십이왕열전(景穆十二王列傳)」에는 "예주와 늑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병사와 군마를

모집하여 수추에 크게 모였다(豫勒諸州 纂集士馬 首秋大集).”라고 하였고, 『구당서(舊唐書)』 권37 「지(志)」 오행조(五行條)에는 “수추에 나라에 수재가 들어 사람들에게 자주 해를 끼쳤다(首秋郡國水災屢爲人害).”라고 하였으며, 『통지(通志)』 권7 「위기(魏紀)」 7에는 “수추 7월에 태조가 양평에 이르렀다(首秋七月太祖至陽平).”라고 한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舊唐書, 魏書, 通志, 漢魏六朝百三家集.
필자 | 홍성훈(洪性薰)

신량(新凉)

정의 초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뜻하며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냉월(冷月), 노량(露凉) 혹은 양월(凉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송시초(宋詩鈔)』 권54에 수록된 중국 송(宋)나라 주송(朱松)의 ‘기진함원(寄陳陷元)’ 시에 “서늘한 초가을[新凉] 등불 가까이 하기 좋으니 긴긴 밤 글공부할 것 살펴보네(新凉宜燈火 永夜勘書帙).”라고 한 구절이 있고, 중국 당(唐)나라 한유(韓愈)의 ‘부독서성남(符讀書城南)’ 시에 “가을되어 긴긴 장마 개이고 초가을의 서늘한 기운[新凉] 들판에서 들어오네. 등불을 점차 가까이 할만하니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네(時秋積雨霽 新凉入郊墟 燈火稍可親 簡編可卷舒).”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宋詩鈔, 昌黎先生集.
필자 | 백순철(白淳哲)

신월(申月)

정의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신(申)은 십이지(十二支) 중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음력은 중국 하(夏)나라에서 십이지의 세 번째인 인(寅)을 정월로 삼았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월(申月)은 7월에 해당한다.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 권4에 의하면 “신월(申月)을 7월이라 한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山林經濟.
필자 | 김정석(金正錫)

신추(新秋)

정의 첫가을을 뜻하는 말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초추(初秋)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남북조 시대 북주(北周) 유신(庾信)의 『유자산집(庾子山集)』 권3 ‘의영회(擬永懷)’ 시에 “새벽 그믐달빛 초승달처럼 희미하고 초가을[新秋] 날씨가 지난 가을처럼 서늘하네(殘月如初月 新秋似舊秋).”라고 한 구절이 있고, 『한위육조백삼가집(漢魏六朝百三家集)』 권106에 수록된 중국 진(陳)나라 장정견(張正見)의 ‘화형양왕추야(和衡陽王秋夜)’ 시에 “높은 누각에 낙엽이 흩날리니 이제부터 초가을[新秋]을 읊조리네(高軒揚麗藻 卽是賦新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庾子山集, 漢魏六朝百三家集.
필자 | 백순철(白淳哲)

양월(凉月)

정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양천(凉天)이라고도 한다.
내용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한 절기라서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는 하지만, 밤이 되면 비교적 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중국 진(秦)나라 여불위(呂不韋)의 『여씨춘추(呂氏春秋)』 「맹추기(孟秋紀)」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슬이 진하게 내리며 쓰르라미가 운다(凉風至 白露降 寒蟬鳴).”라고 하였다. 중국 남조(南朝) 제(齊)나라 사조(謝朓)의 『사선성집(謝宣城集)』 권3에 수록된 ‘이병환원시친속(移病還園示親屬)’ 시에 “거문고 타기를 멈춘 채 양월(凉月)을 기다리고 촛불조차 꺼진 뒤 기러기소리 들리네(停琴佇凉月 滅燭聽歸鴻).”라고 하였다. 『세시광기(歲時廣記)』 권3에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를 재인용하여 “7월을 맹추(孟秋), 수추(首秋), 초추(初秋), 상추(上秋), 조추(肇秋), 난추(蘭秋)라고 하며 또 양월(凉月)이라고도 한다(七月曰 孟秋首秋 初秋上秋 肇秋蘭秋 又曰 凉月).”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謝宣城集, 歲時廣記, 呂氏春秋.
필자 | 백순철(白淳哲)

오월(梧月)

정의 오월(梧月)은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오추(梧秋)라고도 한다.

내용 조선시대 김성일(金誠一)의 『학봉전집(鶴峯全集)』 4, 『학봉일고(鶴峯逸稿)』 권1에 수록된 '병중에 선행가(宣行可)가 서쪽으로 길을 떠나는 것을 전송하여 이별하다' 시에 "수심 속에 오월(梧月)을 맞이하니 백아의 거문고는 문갑 속에서 먼지가 쌓이네(梧月愁邊遇 牙絃匣裏塵)."라고 하였다. 『어정패문재광군방보(御定佩文齋廣群芳譜)』 「목보(木譜)」 동조(桐條)에 "오동잎이 하나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가을이 온 줄 안다(梧桐一葉落 天下盡知秋)."라고 한 구절이 있다. 한편 오월을 음력 3월의 이칭으로도 사용하는데 이는 오동나무의 꽃이 3월에 피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御定佩文齋廣群芳譜, 鶴峯全集.
필자 | 홍성훈(洪性薰)



오추(梧秋)

정의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오월(梧月) 또는 동월(桐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주자(朱子)의 「권학문(勸學文)」에 "연못가의 봄풀은 채 꿈도 깨기 전에 층계 앞 오동나무 잎이 가을을 알리네(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已秋聲)."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朱文公文集.
필자 | 백순철(白淳哲)

유화(流火)

정의 화성(火星)이 6월에 남쪽에 나타났다가 7월이 되어 서쪽으로 이동한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시경(詩經)』 「빈풍(豳風)」 '7월(七月)' 시에 "7월이 되면 화성이 서쪽으로 내려온다(七月流火)."라고 하였다. 주(註)에 "류(流)는 내려간다(下)의 뜻이고, 화(火)는 대화(大火)이니 곧 심성(心星)이다(流下也 火大火心星)."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백순철(白淳哲)

이칙(夷則)

정의 이칙(夷則)은 동양 음악의 십이율(十二律) 중에서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십이율은 낮은 음으로부터 황종(黃鐘),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鐘),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鐘),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鐘)의 순으로 되어 있다. 중국 고대 역법에서는 십이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첫 음인 황종(黃鐘)을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아홉 번째인 이칙(夷則)은 7월에 해당한다.

중국 후한(後漢)시대의 반고(班固)가 편찬한 『백호통의(白虎通義)』 권상(卷上)에 "7월을 이칙(夷

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夷)는 다친다는 뜻이고 칙(則)은 법칙이니, 만물이 비로소 자연의 법칙에 따라 다치게 된다는 의미이다(七月謂之夷則何 夷傷則法也 言萬物始傷被刑法也).”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 ‘다친다’는 것은 ‘시든다’는 의미이다.

중국 북주(北周) 유신(庾信)의 『유자산집(庾子山集)』 권3에 수록된 ‘화장시중술회(和張侍中述懷)’ 시에 “7월에는 화성이 아래로 내려가고 천근(天根)이 나타나니 가을 물이 마르네(夷則火星流 天根秋水涸).”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虎通義, 庾子山集.
필자 | 홍성훈(洪性薰)

조추(早秋)

정의 이른 가을이라는 뜻으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상추(上秋), 맹추(孟秋), 초추(初秋)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당(唐)나라 왕발(王勃)의 『왕자안집(王子安集)』 권3에 수록된 ‘추강송별(秋江送別)’ 시에 “이곳 타향에는 벌써 조추(早秋)가 되어 강가 정자의 밝은 달이 강물에 떠가네(早是他鄉值早秋 江亭明月帶江流).”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王子安集.
필자 | 백순철(白淳哲)

조추(肇秋)

정의 조(肇)는 시작을 뜻하는 말로, 각 계절의 처음 시작하는 달을 가리키는데 조추(肇秋)는 가을의 시작인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조의 의미에 대한 용례로는 『서경(書經)』 「순전편(舜典篇)」에 “12주(州)를 처음으로 만들고 12주의 산(山)을 봉표(封表)하며 내를 깊이 파셨다(肇十有二州 封十有二山 濬川).”라고 한 구절이 있고, 그 주(註)에 “조(肇)는 시작하는 것이다(肇始也).”라고 하였다.

내용 중국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조자건집(曹子建集)』 권1에 수록된 ‘이사부(離思賦)’에 “조추(肇秋)의 아름다운 절기가 이름이여 화려하게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서풍에 깃발을 날리네(在肇秋之嘉月 將曜師而西旗).”라고 한 구절이 있다.

『어정패문재광군방보(御定佩文齋廣群芳譜)』 「천시보(天時譜)」 7월조(七月條)에 양원제(梁元帝)의 『찬요(纂要)』를 재인용하여 “7월을 맹추(孟秋), 수추(首秋), 초추(初秋), 상추(上秋), 조추(肇秋), 난추(蘭秋)라고 하며 또 양월(凉月)이라고도 한다(七月曰 孟秋首秋 初秋上秋 肇秋蘭秋 又曰 凉月).”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書經, 御定佩文齋廣群芳譜, 曹子建集.
필자 | 홍성훈(洪性薰)

초추(初秋)

정의 가을 중에 첫 번째 달이라는 말로 음력 7월을 달리 부르는 말. 상추(上秋), 맹추(孟秋), 초량(初凉)이라고도 한다.

내용 일년 열두 달을 사계절로 나누어 1~3월을 춘(春), 4~6월을 하(夏), 7~9월을 추(秋), 10~12월을 동(冬)이라 하고, 각 계절에 속한 석 달을 나누어 첫 달을 초(初) 혹은 맹(孟), 두 번째 달을 중(仲), 마지막 달을 만(晩) 혹은 모(暮), 계(季)라고 한다. 따라서 7월은 맹추(孟秋) 혹은 초추(初秋), 8월은 중추(仲秋), 9월은 계추(季秋) 혹은 만추(晩秋)라고 한다.

『세시광기(歲時廣記)』 권3에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를 재인용하여 “7월을 맹추(孟秋), 수추(首秋), 초추(初秋), 상추(上秋), 조추(肇秋), 난추(蘭秋)라고 하며 또 양월(凉月)이라고도 한다(七月曰 孟秋首秋 初秋上秋 肇秋蘭秋 又曰 凉月).”라고 한 구절이 있다. 중국 위(魏)나라 조식(曹植)의 『조자건집(曹子建集)』 권5에 수록된 ‘증정의(贈丁儀)’ 시에 “초추(初秋)의 서늘한 바람 불어오니 뜰 앞의 나뭇잎 하나둘 떨어지네(初秋凉氣發 庭樹微銷落).”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歲時廣記, 曹子建集.
필자 | 백순철(白淳哲)





正日

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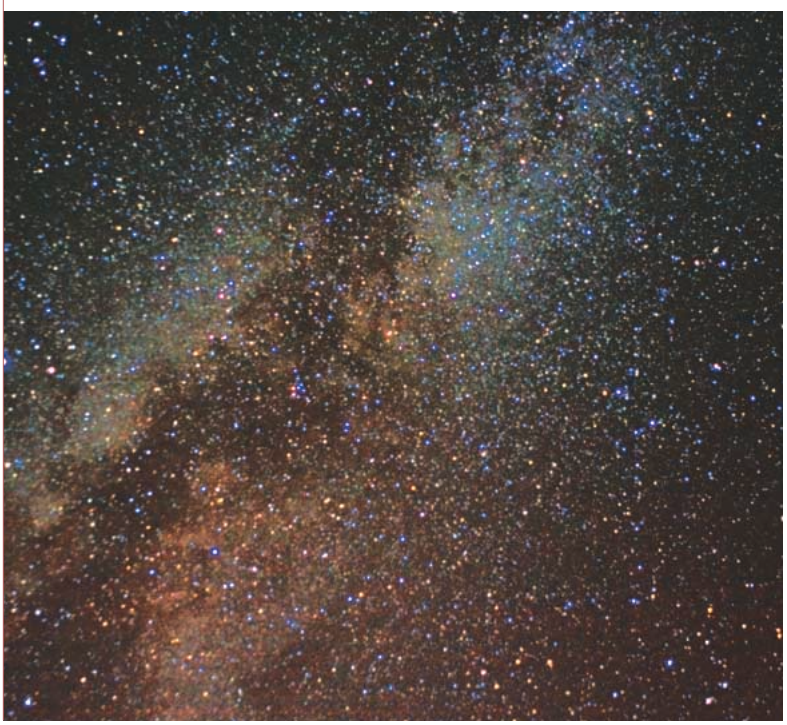
백중은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다.
백중놀이는 두레먹기에서
두드러진다.
백중에 열리는 두레먹기야말로
두레일꾼들이 모처럼
노동의 피로를 풀어내는 축제였다.
백중놀이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며
호미걸이, 호미씻이, 술멕이, 풋굿
질먹기, 진서턱(진세턱) 등이
대표적이다.

칠석(七夕)

정의 음력 7월 7일로 세시 명절의 하나. 헤어져 있던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만나는 날이라고도 한다.

유래 칠석(七夕)의 유래는 중국의 『제해기(齊諧記)』에 처음 나타난다. 주(周)나라에서 한대(漢代)에 걸쳐 우리나라에 유입되기까지 윤색을 거듭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설화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하늘나라 궁전의 은하수 건너에 부지런한 목동인 견우가 살고 있었다. 옥황상제는 견우가 부지런하고 착하여 손녀인 직녀와 결혼시켰다. 그런데 결혼한 견우와 직녀는 너무 사이가 좋아 견우는 농사일을 게을리 하고 직녀는 베짜는 일을 게을리 했다. 그러자 천계(天界)의 현상이 혼란에 빠져 사람들은 천재(天災)와 기근(饑饉)으로 고통받게 되었다. 이것을 본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두 사람을 은하수의 양쪽에 각각 떨어져 살게 하였다.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애만 태울 수밖에 없었다.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까마귀와 까치들은 해마다 칠석날에 이들이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주니 이것이 오작교(烏鵲橋)이다.



은하수
http://astrophoto.co.kr 이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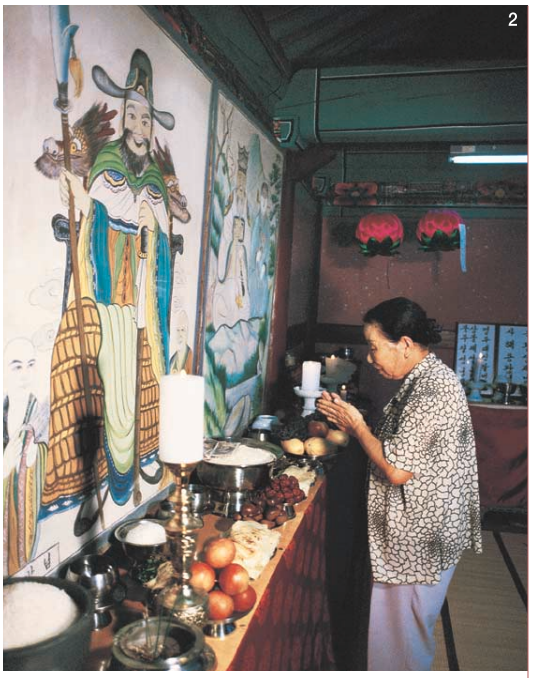
견우와 직녀는 칠석날이 되면 오작교를 건너 서로 그리던 임을 만나 일년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고 다시 헤어져야 한다. 칠석 다음날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를 보면 모두 벗겨져 있는데 그것은 오작교를 놓기 위해 머리에 돌을 이고 다녔기 때문이라 한다. 칠석날에는 비가 내리는데 하루 전에 내리는 비는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고, 이튿날 내리는 비는 헤어지면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라고 한다. 또는 낮에 오는 비는 기쁨의 눈물이고 밤에 오는 비는 슬픔의 눈물이라고 한다.

이 설화의 배경은 독수리별자리[鷲星座]의 알타이르(Altair)별과 거문고별자리[琴星座]의 베가(Vega)별을 가리키는 것으로 두 별이 은하수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데서 유래한 듯하다. 이 두 별은 태양 황도상(黃道上) 운행할 때 가을 초저녁에는 서쪽 하늘에 보이고, 겨울에는 태양과 함께 낮에 떠 있으며, 봄날 초저녁에는 동쪽 하늘에 나타나고, 칠석 무렵이면 천장 부근에서 보이게 되므로 마치 일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견우성과 직녀성이 일년에 한 번씩 마주치게 되는 천문 현상은 중국의 주(周)나라 때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漢)나라에 이르러서 칠석 설화가 형성되고 여러 가지 풍속이 발전하였다.

내용 우리나라도 일찍이 삼국시대에 이 설화와 풍속이 있었던 듯하다.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덕흥리 고분 벽화에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기록에는 고려 공민왕이 몽고의 왕후와 더불어 칠석날 궁궐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에 제사하고 백관들에게 녹을 주었다고 하였고, 조선조에 와서는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절일제(節日製)의 과거를 실시한 기록이 있다. 궁중 밖의 민간에서도 칠석의 풍속이 활발히 전개되었던 모습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등의 문헌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칠석날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풍속이 행해졌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옛날 서당에서는 학동들에게 견우직녀를 시제(詩題)로 시를 짓게 하였다. 또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폭의(曝衣)와 폭서(曝書) 풍속이 있었다. 여름 장마철에 장롱 속의 옷가지와





1 칠석고사
충북 청양군 정산면 덕성리 황헌만

2 칠석고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거북산당
황헌만

책장의 책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끼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여인들이 직녀성에 바느질 솜씨를 비는 걸교(乞巧) 풍속이 있었는데, 걸교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풍속이다. 칠석날 새벽에 부녀자들이 참외, 오이 등의 과일을 상에 올려놓고 절을 하며 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빈다. 저녁에 상 위로 거미줄이 쳐 있으면 하늘에 있는 직녀가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 여기고 기뻐한다. 다른 지방에서는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그 위에 재를 담은 쟁반을 올려 놓은 뒤, 별에게 바느질 솜씨가 좋게 해달라고 빌고 다음날 아침 재 위에 흔적이 있으면 영험이 있어 바느질을 잘하게 된다고 믿었다.

별과 조상과 자연과 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풍속도 지역과 가정에 따라서 행해졌다. 지역에 따라서 칠석제, 용왕제, 밭제 같은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 천신(薦新)하며 밀국수, 밀전병, 호박도래전 등 시절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칠석음식으로 밀전병을 만들어 먹고 칠석놀이라 하여 술과 안주를 갖추어 가무로 밤이 깊도록 놀기도 한다.

지역사례 전북 고창과 태인, 경북 봉화·예천·안동에서는 외와 수박을 차려놓고 조상에 제사를 지낸다. 전북 익산과 군산에서는 칠석날 시암제(샘제)를 지냈다. 마을에서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정결하게 한 다음 각 가정마다 시루떡을 쪄서 우물 옆에 두었다. 청년들은 솔불놀이라 하여 달집짓기와 비슷하게 이웃마을과 놀이를 벌여 즐기고 진 마을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며, 이긴 편의 마을을 함부로 방문할 수도 없었다. 진안에서는 농현이라 하여 김매기를 끝내고 하루를 쉰다.

경북 안동에서는 부인들이 밤에 까마귀밥이라 하여 담 위에 올려놓고 자손의 명(命)과 복(福)을 빌고 집안일이 잘 되기를 빌기도 했다. 상주에서는 칠성단에 참기름으로 불을 켜서 자손들의 수명장수를 빌었다. 영일에서는 이날 바닷물을 약물이라며 멱을 감는다.

속신 강원도 양양에서는 으레 비가 오는 날로 되어 있어서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살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해 곡물에 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비가 내리면 견우직녀가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알고 농사에 좋을 것이라 여겼다.

한편 칠석에는 아침에 일찍 논에 나가지 않는 풍속이 있었다. 이날 신이 들에 내려와서 들마다 곡식의 생산량을 정해 주기 때문에 논밭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근신한다.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신이 수확량을 감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경기도 의왕, 전북 전주,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따라 칠석날은 '곡식을 마련하는 날'이라고 하여 남자들은

1~2 꼼비기날
충북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국립민속박물관


1


2

들에 나가도 되지만, 여자들은 일찍 나가지 않고 오후가 되어서야 들에 나간다. 경북 고령에서는 목동들이 잡귀를 막는다고 복숭아 회초리로 소의 꼬리를 치며 몰고 온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農家月令歌,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齊諧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安東民俗資料誌(安東郡, 1981), 韓國民俗大觀4-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내고장 전통가꾸기(단양군, 1982), 대구의 향기(대구직할시, 1982), 미륵산의 정기(익산군, 1982),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義城郡誌(義城郡, 1987), 歲時風俗(崔常壽, 瑞文堂, 1988), 始興郡誌(始興郡, 1988), 서울六百年史-民俗 篇-(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90), 龜尾 · 善山의 歲時風俗(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慶南民俗資料集(한국문화원연합경상남도지부, 1993), 한국의 풍속사 I(김용덕, 밀알, 1994), 조선풍속사(김내창 편저, 사회과학출판사, 1998),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 · 하권(김용덕 편, 창솔, 2004).
필자 | 김용덕(金容德)

꼼비기날

정의 7월 칠석을 경상도 지역에서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모심은 뒤 애벌논을 매고 나서 일꾼들이 술을 마시며 노는 날이다. 꼼비기는 경북 북부 지역에서 '풋구'라 불리는 것으로, 7월 백중 무렵 논매기를 마친 농군들이 모여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다. 일꾼을 소에 태우고 마을을 돌고 그날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갖 놀이를 즐긴다. 나이 어린 소년이 어른이 되었다는 뜻으로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한 턱 내는 날도 '꼼비기날'이라 한다. 또 여름철에 콩이나 밀 따위를 볶아서 먹고 노는 날도 꼼비기 날이라 한다. 풋구는 경북 안동 인근 지역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문경에서는 '호미씻이'라 부르고, 구미 선산 지역에서는 이를 '꼼비기'라 부른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풍속은 밀양, 구미, 선산을 비롯한 경상도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지역사례 경북 구미시 선산읍 봉곡 2리에서는 꼼비기를 두 번 했다. 7월 꼼비기는 세벌논매기가 끝날 때 하고 봄 꼼비기는 모를 심고 나서 한다. 이날은 따로 날을 받아 '꼼비기날'이라 하고 "꼼비기술먹는다"라고도 한다. 이날에 일꾼들의 그해 품값도 결정한다. 여름에는 논을 다 매고 난 다음 꼼비기날이 정해지면 각 집마다 음식을 만드는데 "술 한 말을 내라", "명태포로 전을 붙여 오너라", "밀가루국을 끓여라" 하는 식으로 음식 마련을 배당한다. 잘사는 집에서는 고기안주도 마련하며, 대개는 명태를 두드려서 전을 부치고 밀가루에 된장을 부친 장떡을 크게 해서 가져온다. 음식들이 나오면 연령별 또는 모이는 데로 나눠 앉는데, 20~30대는 바가지로 술(탁주)을 떠서 노인들에게 드리고 음식을 주며 나이 순서로 먹기 마련이다.

경북 구미시 해평면 문량 2리에서는 모를 심고 논을 다 매고 나면 일꾼들이 모여 하루 노는 날이 있는데, 이것을 '꼼베기논다'라고 한다. 이날 사람들이 손을 연결하여 만든 '꾀말'을 타고 일꾼들이 들어오면 주인집에서 술과 안주를 장만해 대접하고 놀게

해준다. 그리고 꼼베기돈과 휴가를 주어서 며칠 고향에 다녀오게 한다.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 2리에서는 7월 중에 날을 받아서 농가에서 고용살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꼼배기를 한다. 꼼배기 먹는 날 머슴들이 논을 모두 매고 나면 외말을 타고 주인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주인은 술과 안주를 내어 일꾼들에게 대접을 한다.

경북 상주시 원흥 1리에서는 모심기를 한 후 세벌논매기를 끝낸 다음, 일꾼들에게 하루 놀게 해주는 것을 '꼼비기' 혹은 '꼼배기'라고 한다. '아시논매기'는 호미로 골 사이 땅을 파내어 엎고, '두벌논매기'는 손으로 잡초를 뽑는다. 세벌논매기가 끝나면 상일꾼을 걸채에 태워서 어깨에 메고 노래를 하며 들어오면 부잣집에서 머슴들을 한바탕 놀게 해준다. 꼼비기할 때는 상머슴을 뽑아 소에 태우고, 풍장을 치며 술과 음식을 먹으며 크게 논다. 개를 잡아서 개장국을 끓여먹고 각 가정에서는 술을 준다.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평촌리 중도마을에서는 백중날 주인이 일꾼들에게 옷을 한 벌씩 해주고 음식과 술을 내며 온종일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를 꼰배기라고 한다. 일꾼들 사이에서는 들돌들기를 하여 어린 일꾼이 온전한 일꾼의 몫으로 되는 것을 가늠하기도 한다.

진주시 지수면 상동리 선산마을에서는 '꼼배기먹기'라고 한다. 농사는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힘든 것이 한여름에 벼의 피를 뽑는 것이다. 그러기에 벼의 피뽑기를 마칠 즈음에 머슴을 둔 집에서는 음식과 술을 머슴들에게 대접하고 그 노고를 치하한다. 이를 '꼼배기먹는다'라고 한다. 이때 풍물놀이를 하기도 한다. 경남 마산시 진북면 이목리에서도 백중날 주인이 일꾼에게 음식과 술을 낸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 II(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김용덕(金容德)





1~2 호미걸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송봉화

하루를 쉰다. 산악지대인 전북의 진안, 무주에서도 부녀자들이 밭매기가 끝났으므로 하루 일손을 놓고 호박전 같은 별식을 만들어 먹으며 논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필자 | 김용덕(金容德)

농현

정의 7월 칠석을 전라북도에서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칠석은 농한기라 하여 농현이라고 부른다. 전북 군산지방에서는 이날은 김매기를 끝내고 호미를 씻어서 걸어두므로 호미씻이 또는 호미걸이라고 하며

머슴날

정의 음력 7월 7일 칠석을 가리키는 말로 일꾼들을 위로하고 쉬게 하는 날.
내용 음력 2월 1일과 7월 7일이 머슴날로 불렸다. 2월 1일은 노비일(奴婢日)이라고도 했으며, 일년의



장원례
경남 밀양 주병수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꾼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날 주인은 일꾼들에게 새 옷을 지어주고 술과 음식을 잘 장만하여 먹이고 놀게 하였다. 또 용돈을 주어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게 해주었다. 7월 칠석을 머슴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일꾼들을 위로하고 쉬게 하는 날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칠석 무렵이 되면 일년의 농사일 중에서 김매기가 끝날 무렵이며, 추수기까지 당분간 한가할 때이다. 이 무렵 호미걸이, 써레씻이, 호미씻이가 있게 되며, 그동안 고단했던 농사꾼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 7월의 대표적인 세시명일은 칠월 칠석과 칠월 보름의 백중날이다. 이 기간은 두레가 세벌김매기를 끝내고서 술멕이기를 하는 머슴날 의례가 거행된다. 농사를 잘 지은 머슴을 장원으로 뽑는 장원례를 칠석날 또는 백중날에 행한다. 장원례를 치르고 머슴의 집주인은 수고의 의미로 술잔치를 벌여주거나, 농사 잘 지은 농부를 사다리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축하해주면 장원한 농부가 술 한턱을 낸다.

그런데 호남의 우도 평야 지역에서는 대체로 칠석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마을 모정에 모여 술멕이기를 하는 반면, 좌도 지역에서는 백중날 모정에 모여 술멕이 또는 호미씻기를 한다. 일주일을 차이로 우도 지역이 좌도 지역보다 앞서 술멕이를 하는 것은 기후환경에 따라 벼의 숙성 시기에서 차이가 나는 요인으로 본다.

영농의 기계화는 농촌 공동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아직도 칠월 칠석날이나 7월 백중에 마을 모정에 모여 술 마시는 전통의 명맥은 남아 있지만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농촌 인구가 격감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력이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뀌면서 절기에 따른 세시풍속이 소멸되어버린 탓이다. 농촌에서 두레노작 행위가 소멸되면서 칠월 칠석날 술멕이, 호미씻이 풍속 또는 칠월 백중의 장원례 풍속이 사라졌고 두레노동의 집회소였던 모정마저도 그 기능과 주인을 상실한 채 농촌의 들목에 흉물로 방치된 마을이 많다. 두레가 서지 않으면서 농촌에서 모정문화가 사라지고 공동체문화도 그 기반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韓國의 歲時風俗 I (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김용덕(金容德)

칠성날(七星-)

정의 음력 7월 7일인 칠석(七夕)을 달리 부르는 말. 천체의 하나인 북두칠성(北斗七星)과 관련된 도교와 불교의 색채가 강한 신으로서 비를 내리게 하고 인간의 장수와 재물을 관장하는 '북두칠성님' 또는 '일곱 칠성신'을 모시는 날이다.

유래 도교의 전래와 함께 전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칠성신(七星神)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2 「노무편(老巫篇)」에 칠원성군(七元星君)을 모셨다는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칠성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태일초(太一醮)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후 민간에서 칠석 무렵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전승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및 지역사례 도교와 불교의 색채가 강한 칠성신은 비를 내리게 해주는 기우(祈雨)의 신,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장수의 신, 재물을 관장하는 소원성취의 신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날에는 칠석제(七夕祭) 또는 칠성제(七星祭)라고 하여 부인들이 밤에 칠성단을 마련해놓고 음식을 차려 집안이 잘 되라고 복을 빈다. 충북 괴산에서는 이날 부인들이 북두칠성을 위하면서 장수를 기원하기도 하고, 또 절에 가서 칠성당 앞에 백설기를 쪄놓고 소원을 빌기도 한다. 전북 남원에서도 이날



북두칠성명두 국립민속박물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 호남 지역에서는 민가의 뒤뜰 장독대 옆에 칠성단을 마련해놓고 아이 낳기와 아이의 장수를 빈다. 무속신앙의 무신도(巫神圖)에서 칠성신은 인격을 갖춘 일곱 사람의 점잖은 남자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모자를 쓴 앞이마에는 각각 별을 뜻하는 둥근 광채를 새김으로써 북두칠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처럼 칠성날은 단순한 세시명절 또는 민간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불교와 도교 그리고 무속신앙에 이르기까지 종교 습합현상을 보이면서 오늘날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전승되어오고 있다.

참고문헌 | 東國李相國集, 韓國民俗大觀3-民間信仰 · 宗敎-(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학연사,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사전2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人의 敎育 歲時風俗(孫仁銖, 文音社, 1991), 韓國의 歲時風俗 I(국립민속박물관, 1997), 충청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이관호(李官浩)

걸교(乞巧)

정의 칠석날 처녀들이 별을 보며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비는 풍속. '교묘한 재주를 구한다'라는 뜻의 걸교는 지방에 따라 걸짐, 걸교전(乞巧奠)이라고도 한다. 이날 서당의 학동들은 별을 보며 시를 짓거나 글공부 잘할 것을 빌기도 했다.

내용 칠석날 새벽 또는 밤에 부녀자들이 바느질감과 오이, 참외 등 초과류(草果類)를 상에 차려놓고 절을 하며 바느질 솜씨가 있게 해 달라고 빌었는데, 이를 흔히 별제사[성제(星祭)]라고도 한다. 제사를 지낸 뒤 음식상 위에 거미줄이 쳐져 있으면 하늘에 있는 선녀가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믿고 기뻐했다고 한다. 걸교의 제를 지내는 일은 이미 중국 한나라 때부터 행해졌으며, 당나라 때 주변 민족들에 전파되었는데, 우리의 걸교나 일본의 다나바다마쯔리가 그 예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공민왕이 이날 왕후와 더불어 궁중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에게 제사를 지냈고, 백관들에게 녹(祿)을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풍속은 직녀를 하늘에서 바느질을 관장하는 신격으로 여기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례 경북 청송지방에서는 이날 여자들이 바늘에 실을 꿰어 남편의 옷자락을 몰래 꿰매어 두면 소원이 성취되며, 이날 저녁에 불을 켜지 않고 바늘 일곱 개에 실을 꿰어서 아이들 옷을 만들어 주면 좋다고 믿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선산과 구미지방에서는 이날 밤 별빛을 이용하여 바늘에 색실을 꿰어 남편이나 아들의 깃고대에 몰래 꽂아두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4-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韓國 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傳統文化의 脈(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87),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1998),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박창원(朴昌原)

칠석고사(七夕告祀)

정의 음력 7월 7일인 칠석날 행하는 의례를 가리키는 말. 지역에 따라 고사(告祀), 칠석고사(七夕告祀), 칠석맞이(七夕-), 칠석불공(七夕佛供), 칠석불공 드리기, 칠석제(七夕祭), 칠석제사(七夕祭祀), 칠성고사(七星告祀), 칠성맞이(七星-), 칠성맞이고사, 칠성불공(七星佛供), 칠성불공 드리기, 칠성위하기, 칠성제(七星祭), 칠성제 올리기, 칠성제 지내기, 터위하기, 터주에 밀떡 올리기, 천신(薦新), 고사천신(告祀薦新), 용신제(龍神祭) 같이 다양하게 말해지고 있으나 칠석고사와 칠성고사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1~2 칠석고사
충북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 황헌만

3 칠석고사
충북 청양군 정산면 덕성리 황헌만

내용 및 지역사례 칠석고사는 대체로 부녀자들이 행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대개 칠월 칠석날 아침 혹은 저녁에 행해지지만 간혹 전날 저녁에 행하는 곳도 있다. 전국에 걸쳐 행해지던 칠석고사는 성격상 절에 가서 불공 드리기, 만신(무당)집에 가서 굿하기, 집안의 장광에서 하늘의 북두칠성에게 자손의 장수를 기원하기, 바느질이나 길쌈이 잘 되기를 기원하기, 집안에서 조상신이나 가신(家神)들에게 안택을 기원하기, 용신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일이나 만신집에서 칠석맞이 굿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간단히 집에서 제물을 차려놓고 비손을 하며 기원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불자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절에 갈 때는 쌀, 돈, 양초, 향 등을 가지고 간다. 스님은 제단에 칠성메(칠성밥)와 과일을 차려놓고 신도들을 위해 목탁을 두드리며 축원해 준다. 충남 당진군 순성면 광천리 대광천마을에서는 칠월 초하루부터 초이레까지 절에 가서 칠성불공을 드렸다고 하며, 전남에서는 대개 절의 칠성당에서 자식들의 명과 복을 빌었다고 한다.

굿은 주로 단골로 가는 만신(무속인)이 있는 경우에 한다. 칠석날 만신이 간단한 축원을 해주는데, 이를 칠석굿, 칠석맞이굿, 칠성맞이, 칠성맞이굿이라 한다.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에서 자료가 수집되는데, 아마도 전국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황해도에서는 이날 칠성님을 모시는데, 무명다리에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걸어놓고 칠성님께 명을 빌었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한정마을에서는 아침에 집에서 간단히 술과 밀전으로 천신을 하고 과일, 쌀, 백설기, 무나물, 숙주나물, 향, 초 등을 가지고 만신집에 가서 칠성맞이굿을 하면서 북두칠성에게 소원을 빌었다. 화성시 송산면 쌍정 2리에서는 동네에 있는 만신집에 칠석맞이굿을 하러 갈 때 "액맥이 풀러 가자"라고 했으며, 명다리(시엉)를 건 사람은 정월맞이, 봄꽃맞이, 칠석맞이, 시월 상달맞이 같은 굿을 무당집에서 했다.

칠석 전날 저녁 혹은 칠석날 아침이나 저녁에 부녀자들이 뒤꼍의 장광, 장독대에 제물을 차려놓고 하늘의 북두칠성에게 가족의 장수나 집안의 평안과 풍농을 기원하였다. 이는 전국에 걸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칠성을 위하면 자손에게 좋다고 여겨 이것을 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북두칠성이 인간의 생명이나 수명을 점지한다고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치성을 드릴 때 제물은 정화수만을 놓거나 혹은 메, 백설기, 햇밀을 갈아 만든 밀떡과 호박을 넣은 밀부침개 그리고 참외와 같은 햇과일을 함께 올린다. 이때가 바로 보리나 밀을 수확한 직후라 밀떡이나 밀부침개(밀전병) 등을 제물로 올리는 곳이 많았다. 몇 가지 지역별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황해도 지역에서는 햇밀이 나면 연자매로 가루를 내어 칠석날 애호박을 잘게 썰어 넣고 밀전병을 만들고 밀범벅과 수박, 참외를 대청마루와 장독대에 놓고 칠성님을 위하면서 자식들의 명을 빈다. 함경남도에서는 대체로 주부가 칠석날 밤에 북두칠성에게 아이들의 무사성장과 집안의 평안을 비는데, 산이나 냇가, 소나무 밑에 가서 고사를 지내는 집도 있고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집에서 칠성기도를 하는 경우에는 냇가에 가서 고운 물모래를 가져다 마당에 깔고, 산에서 솔가지를 꺾어놓고 흰쌀로 지은 메를 솥째 올리고 정화수, 무채(무나물) 등도 곁들이지만, 비린 것은 쓰지 않는다. 사방에 일곱 번씩 절하고 식구 수대로 소지를 올린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안골마을에서는 칠석날 쌀 한 말을 빻아서 칠성시루라 하여 백설기를 만들고, 밀떡을 부쳐 칠성맞이고사를 한 후 이웃끼리 돌려 먹는다.

충북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잿골마을과 조곡리 사실마을에서는 상에 흰 종이를 깔고 백설기 한 시루와 청수 한 그릇, 통북어 한 마리를 놓고 칠성제(칠석제)를 지낸다.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에서는 정초에 토정비결을 통해 한 해 운수가 나쁠 것으로 점쳐지면 칠석날 해질 무렵 흰설기, 삼색실과, 정화수를 장광과 부엌 찬장에 진설하고 촛불을 켠 후 사방에 재배하고, 자식들의 건강과 집안일, 농사가 잘 되도록 빌었으며, 남편의 눈을 환하고 밝게 해주기를 기원한다.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새말에서는 칠석날 집안에 칠성단을 만들기도 하고, 산이나 냇가와 같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몰래 칠성단을 만들어 칠성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단에는 떡시루와 청수를 준비한다. 한수면 송계리 구여곡마을에서는 저녁에 칠성이 뜨기 전 북쪽을 향해 가정의 행운을 빈다. 시루는 쓰지 않으며, 국수와 밀전병 같은 음식을 놓고 제를 지낸다.

충남 공주시, 금산군, 연기군 일대에서는 칠성위하기를 초엿샛날 저녁에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에서는 저녁에 시루를 마련하여 장광에 올리고 메, 미역국, 청수를 함께 놓고 사방에 절을 한 후 칠성소지를 올리고 이어서 식구 수대로 소지를 올린다. 금산군 군북면 두두 1리 헌대리마을에서는 그 밖에 대문 앞에 솔잎을 꿴 왼새끼 금줄을 꼬아 거는 것이 다르다. 복수면 다복마을에서는 엿샛날 저녁에 주부가 목욕재계를 하고, 떡을 쪄서 청수와 같이 장광의 한쪽에 짚을 가지런히 깔고 그 위에 놓는다. 그리고 칠석날에는 아침에 밥을 해서 양푼에 담아 장광에 가져다 두는데, 양푼에는 식구 수대로 숟가락을 꽂아 나물과 함께 놓고 자손의 안녕을 기원한다. 보령시 웅천읍 노천리 가리티마을이나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서원마을에서는 칠성위하기를 할 때 주부가 월경을 하면 부정하다 하여 칠석제를 뒤로 물린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서면에서는 집집마다 장독대 앞에 칠성당이라고 하여 넓은 돌을 놓아두고, 칠석날 이곳에 음식을 차려 칠석제를 지낸다. 동산면 조양 2리 밭치리마을에서는 칠석제를 할 때 장독대에는 황토를 깔지 않지만, 대문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깔아놓는다. 서면 덕두원 1리에서는 주부가 목욕재계를 하고 밤 12시에 칠석제를 지내는데, 대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다. 가장은 산제당에 가서 산치성을 드린다. 화천군 화천읍 신읍 1리 동지화마을에서는 장독대 앞에 칠성단을 만들고 저녁에 밀떡과 정화수를 놓고 간단히 치성을 드리며, 금줄이나 황토는 치지 않는다.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개젖마을에서는 자식이 귀해 칠성을 모시는 집에서는 삼월 삼짓날, 사월 초파일과 함께 칠월 칠석날이면 집안에 모시고 있는 칠성단지에 고사를 지낸다.

경북 상주에서는 칠성단에 참기름으로 불을 켜서 자손들의 장수와 명복을 빌고 점쟁이를 찾아 아이를 바위, 나무 등에 팔기도 한다. 북두칠성을 향하여 물을 떠놓고 마당에서 소지올리고 절을 한다.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에서는 칠성제를 지내는데, 북두칠성을 대상으로 한 칠원성군제로 지낸다.

해질 무렵 부녀자들이 제상에 바늘과 실, 실패 등을 올려놓고 바느질과 길쌈 솜씨를 좋게 해주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이것은 간혹 칠석에 북두칠성에게 가족의 장수와 집안의 평안, 풍농을 기원하는 것과 병행하여 행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풍속은 충북, 경북, 경남 등에서 많이 행해졌다.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에서는 칠석날 칠성단을 모시고 여기에 청수와 떡시루를 놓고 칠성제를 지내며, 처녀들은 저녁에 바느질 솜씨가 늘게 해달라고 빌었다. 영동군 매곡면 수동리에서는 해질 무렵 마당에 바느질감을 흩어놓고 한 구석에 백설기와 정화수를 진설하고, 촛불을 켠 후 사방을 향해 재배하면서 "칠석님께 비나이다. 칠석님께 비나이다. 아무쪼록 베 짜는 기술이 날로 늘어 더욱 일이 많게 해 주시옵고, 또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하며 비손했다. 비손을 한 후에는 마당에 누워 북두칠성을 보았는데, 북두칠성이 입안 가득 들어오기를 기원하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한다.

칠석에 집안의 여러 가신(家神)과 조상신에게 고사를 지내는데, 경기도, 충남, 강원도에서는 지난 가을에 햅쌀을 따로 담아 보관하여 놓았던 성주단지나 제석단지의 쌀로 밥을 짓거나 떡을 하여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

경기도 시흥시 신현동과 포동의 새우개에서는 밀부침개를 하여 성주와 터주신에 갖다 놓고, 마당에는 도당할머니와 할아버지 몫으로 술 한 잔과 부침개, 무나물 등을 따로 차려 도당을 향해 놓았다. 안양시 만안구 삼막마을에서는 고사떡을 집안의 성주와 위하던 항아리에 올리고 터줏가리에는 밀떡과 참외를 올리고 안택고사를 지낸다. 수원시 팔달구 의상마을에서는 호박을 넣은 밀떡과 아무것도 넣지 않은 하얀 밀떡을 부쳐 성주와 터줏가리 등에 올려 천신을 하고, 우물에도 제물을 놓고 물이 잘 나오기를 기원하는 우물고사를 지냈다. 충남 연기군 전의면 읍내리 북동네마을에서는 칠석날을 명절이라 하여 흰쌀밥과 미역국, 호박나물, 가지나물 등을 볶아서 먹는다. 이때 쌀은 성주단지가 있으면 그것을 헐거나 제석쌀을 덜어서 밥을 짓고, 미역국은 고기를 넣지 않고 맑은 장국으로 끓이는데, 밥 한 그릇과 청수 한 그릇을 장광에 올렸다가 내려서 먹는다. 충남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큰말에서는 타작할 때 수지벼를 떠서 집안 깨끗한 곳에 모셨다가 이것으로 칠석날 방아를 빻아 깨끗한 곳에 가지고 가 집안의 무사태평을 빈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 2리 안마을에서는 가을에 햅쌀을 담아 터주와 성주, 지석(제석)을 모시는데, 특히 칠석에는 지석동이(원귀동이)의 쌀로 백설기를 만들어 가족끼리 먹는다. 비어 있는 지석동이에는 가을에 처음 수확한 쌀을 넣는다. 경북 봉화, 예천, 안동에서는 외(참외), 수박으로 조상께 제사 지내고, 김천, 월성에서는 죽은 부모형제의 영혼을 위로한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석문마을에서는 칠석날 아침에 참외, 수박 같은 여름 과일을 차려놓고 조상신께 제를 지낸다.

유월 용날 혹은 유두에 용신제를 지내는 곳이 많은데, 경남 지역에서는 칠월 칠석에도 용신제를 지냈다. 용신제는 '용왕먹인다', '용왕제', '용왕산제', '물산제'라고도 한다. 지역에 따라 안주인이 아닌 바깥주인이 지내는 곳도 있고, 지내는 시간도 새벽과 저녁으로 나뉜다. 경남 의령에서는 유두보다 칠석용왕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영시 욕지면에서는 안주인이 저녁에 용신제를 하는 반면 통영시 사량면, 부산광역시 창선동에서는 남자주인 혹은 머슴이 저녁에 지낸다. 용신제는 주인이 목욕재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논두렁에 가서 제수를 차리고 곡식이 잘 되기를 비는데, 사량과 같은 곳에서는 물구멍 옆의 논두렁에 추린 짚단을 펴고 그 위에 음식을 차리고 술잔을 채워 산 쪽을 향해 고사를 지내며 농사가 잘 되기를 빈다. 음식은 논두렁에 그대로 두는데, 그러면 농부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나눠 먹었다. 칠석의 용신제는 대개 밀개떡, 밀부침이(전), 장어 등을 제물로 쓰는데, 장어는 벼 이삭이 장어처럼 굵고 길어지라는 뜻에서 토막을 내지 않고 통째로 굽거나 쪄서 사용한다.

경기도 오산의 부산동이나 평택시 현덕면 기산 1리에서는 칠성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광목이나 비단, 창호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햅쌀을 넣어 안방 벽에다 걸어놓았다가 칠석날 아침에 햅쌀을 꺼내 밥을 지어 미역국, 나물과 함께 주머니 밑에 차려놓았다가 먹는다. 주머니는 빨거나 새로 만들어놓았다가 가을에 햅쌀이 나오면 채워서 걸어둔다. 이천시 산대마을에서는 칠석날 집집마다 떡을 하여 마을에 있는 큰 향나무에 천신한 다음 나누어 먹었다.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 2리에서는 칠석날 아낙네들이 산에 가서 치성을 드리거나 물가에서 밥을 하여 제물을 올려서 치성을 드렸다.

경북 안동에서는 까마귀밥을 해서 담에 올려놓았다. 경북 고령과 봉화에서는 농작물의 결실을 위하여 죽은 사람의 영혼을 추모했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당골마을에서는 칠석제를 지낼 때 집 근처나 산에 미리 정해 놓은 칠성바위에 초를 일곱 개를 켜고, 칠색 천을 바위에 묶어놓고 제물로 깨끗한 물과 삼색 나물을 놓고 마지막에 소지를 하며 무병장수를 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평소에도 수시로 칠성에게 치성을 드렸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마을의 경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날 논두렁에 메, 떡, 나물, 생선 등을 차려놓고 그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비손을 한다. 제물로 사용하는 생선은 숭어와 마티미는 올리지 않는데, 숭어는 머리가 뱀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에서는 칠석날 칠성고사를 지내는데, 유두 때 밭에서 고사를 지냈다면, 칠석 때에는 논에 가서 고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섬에는 논이 없기 때문에 이날도 다시 밭에 나가 고사를 지내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집을 나가서 언제 죽었는지 몰라 제삿날을 모르는 사람의 망제(忘祭)를 그 분의 생일이나 9월 9일에 많이 지내는데, 경남 양산에서는 7월 7일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全南의 歲時風俗(全羅南道 鄕土文化叢書29, 全羅南道, 1988), 民俗誌(光州直轄市·南道民俗學會, 1990), 安城郡誌(安城郡誌編纂委員會, 安城郡, 1990),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서울民俗大觀 3-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濟州道誌3(濟州道, 1993), 北韓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97), 삼척민속지 1~5(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2002), 韓國의 歲時風俗 I(국립민속박물관, 1997), 함경도의 민속(전경욱,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경기민속지 III(경기도박물관, 2000),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이수자(李秀子)

칠석불공(七夕佛供)

☞ 초파일불공[初八日佛供]: 여름편

칠석제(七夕祭)

☞ 칠석고사(七夕告祀): 가을편

칠성제(七星祭)

☞ 칠석고사(七夕告祀): 가을편

까치밥주기

정의 음력 7월 7일인 칠석(七夕)에 까막까치를 위해서 담장 위에 밥을 올려두는 풍속.

유래 칠월 칠석이 되면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두 별(牽牛星·織女星)의 위치가 매우 가까워지는데, 이로 인해 설화가 생겨났다. 중국 후한 때 만든 효당산(孝堂山) 석실의 삼족오도(三足烏圖)에 직녀성과 견우성이 보인다. 따라서 전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나 이미 춘추전국시대에 천문관측을 통해 은하수를 발견하였고, 『시경(詩經)』「소아(小雅)」 곡풍지십(谷風之什) '대동(大東)' 시에 견우직녀 설화의 연원으로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 "하늘엔 은하수가 있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데, 직녀를 바라보니 하루 종일 일곱 번이나 베틀에 오르네. 일곱 번이나 베틀에 오르면서도 천은 이루지 못하고, 반짝거리는 저 견우성은 수레를 끌지 않네(維天有漢 監亦有光 跂彼織女 終日七襄 雖則七襄 不成報章 晛彼牽牛 不以服箱)."

본격적인 견우직녀 고사는 『회남자(淮南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나라 때 견우성과 직녀성이 인격화되면서 설화로 꾸며지게 되었으며,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전설의 초기 형태가 생겨났다. 『풍속기(風俗記)』에 "직녀가 칠석 때 은하수를 건널 때 까치로 다리를 삼았다(織女七夕當渡河 使鵲爲橋)."라는 초보적인 기록이 전한다.

칠석은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 놓은 오작교(烏鵲橋)를 건너 만나는 날이기에 이날 까마귀나 까치를 볼 수 없다고 하며, 칠석날이 지난 까치는 그 머리털이 모두 벗겨져 있는데 그것은 오작교를 놓느라고 돌을 머리에 이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설에서 오작교는 남녀가 서로 인연을 맺는 다리로 알려졌다. 중국 초당의 시인 송지문(宋之問)도 「명하편(明河篇)」에서 이와 같은 고사를 읊었다(七月七日 鵲首兮故皆髡 相傳以爲是河鼓與織女會

於漢東 役鵲爲梁以渡 故毛皆脫去).

또한 까치는 까치성의 전설을 비롯하여 수많은 설화의 주인공이며 심지어 유행가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고대부터 우리 민족과 친근하게 지내온 까치는 상서로운 새로 알려져 있어 "까치를 죽이면 죄가 된다."는 속신(俗信)이 전국에 퍼져 있으며, "아침에 까치가 울면 그 집에 반가운 사람이 온다."라고도 한다. 경기와 충청 등 중부지방에서는 까치가 정월 열 나흗날 울면 수수가 잘 된다고 믿고 있으며, 까치가 물을 치면 날이 갠다고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까치밥주기 풍속은 칠월 칠석날 까치가 견우와 직녀가 만나도록 오작교를 놓아 고생을 하여 머리가 벗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까치밥을 주는 풍속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풍속이 보이며, 강원도, 경남, 전남에서도 행해지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물건마을에서는 칠석날 견우직녀가 오작교에서 상봉하도록 도운 까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칠석고사를 지낸 후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문 바깥에 내어놓는다. 남해군 설천면 문항리 문항마을에서도 까치에 대한 고마움의 뜻으로 칠석날 담장이나 마당에 음식을 조금 떼어 놓기도 한다.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생촌리에서는 칠석날 까치를 위해 담장 위에 밥을 조금 올려놓는다.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서도 칠석날 아침, 대문 바깥에 밥과 나물 몇 가지를 차려서 놓는다. 이를 '까치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까치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와서 먹고 간다. 한편,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1구에는 "북두칠성님은 여자로서 신참봉에게 시집을 갔다. 그런데 신랑에게 가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한데, 이 다리를 까치가 지상에서 올라와 놓아준다. 그래서 까치머리가 벗겨진다."라는 전설이 있다. 이 때문에 칠석에는 까치를 위해서 까치밥을 담장 위에 올려놓는다고 한다.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 3리에서는 칠석날 까치에게 백설기를 준다. 칠월 칠석은 "칠성할머니 다리 놓아주느라고 까치 머리가 벗겨진다."라는 날이므로, 백설기를 쪄서 칠성할머니를 위해 고생한 까마귀나 까치에게 먹으라고 밖에 놓아둔다.

의의 까치밥주기 풍속은 오작교 전설과 함께 고금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상서로운 익조(益鳥)로 인식된 까치에 대한 사려 깊은 애정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바탕으로 비단 칠석날뿐만 아니라 가을걷이(추수)가 끝날 무렵 야생 조류와 동물을 위해 논바닥에 이삭을 남기고, 까치밥이라고 하여 감나무에 감을 서너 개쯤 남겨두기도 한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三國遺事, 詩經, 太平御覽, 風俗記, 淮南子, 朝鮮常識-風俗 篇-(崔南善, 東明社, 1948),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이강로, 세종 대왕 기념 사업회, 1974), 韓國民俗大觀4-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中文大辭典(台北: 中華學術院, 1982),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장정룡, 집문당, 1988), 中國歲時禮俗(喬繼堂, 天津人民出版社, 1991),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원저,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형초세시기(종름 원저, 상기숙 역저, 집문당, 1996), 조선풍속사(김내창 편저, 사회과학출판사, 1998),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의 세시풍속(정승모, 학고재,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조선대세시기 II(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 상기숙(尙基淑)

바늘에 실꿰기

정의 칠월 칠석날 여자들이 달빛 아래에서 바늘에 실을 꿰어 두었다가 옷자락에 몰래 꿰매면 소원을 성취한다고 믿는 풍속.

내용 칠월 칠석에 주부들이 바늘 한 쌈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별빛 아래서 실을 꿴다. 그 중에서 단번에 실이 꿰어진 바늘을 잘 간수해두었다가 집안에서 시험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바늘을 그 사람의 옷에 몰래 꽂아주면 틀림없이 합격한다고 믿는 풍속이다. 이것은 어두운 곳에서 실을 쉽게 꿴 바늘이 어려운 시험에 쉽게 합격시킬 수 있다는 주술로 유감신앙(類感信仰)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칠석날 저녁에 어머니들이 색실을 꿰어 자식의 오지랖에 꽂아두는 것을 '양밥한다'라고도 하며 이렇게 하면 자식의 과거운(科擧運)이 트인다고 믿었다. 바늘에 실꿰기 풍속과 마찬가지로 '색실 달기', '골무 물에 띄워 보내기' 풍속도 모두 자손을 위하는 마음이 담긴 풍속이며 특히 경남 지역에서 다수 발견된다. 전남, 경북 지역에서도 이러한 풍속이 행해졌는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지역사례 전남 나주시 왕곡면 월천리 구천마을에서는 바늘에 실꿰기 풍속과 유사한 풍속으로, 골무를 물에 띄워 보내는 풍속이 있다. 칠석날 밤 세 가지 색의 헝겊을 이용해 골무를 만들고, 여기에 바늘을 꽂아 물에 띄워 보낸다. 이는 견우와 직녀가 잘 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손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경북 칠곡군 남원 2리 남창마을에서는 칠석날 저녁 달밤에 실을 바늘에 끼워서 보관해두고 이것을 시험 보러 가는 아이들에게 꽂아주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마을이나 일가에서 낳은 맏아들의 배냇저고리를 조금 떼어서 저고리에 꽂는다.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군위군 군위읍 대북 1리에서는 이날 열아홉 살 된 처녀가 가지밭에 앉아서 바늘구멍을 별에 맞춰서 실을 끼워 간직하고 있다가, 후에 남편이나 자식이 과거를 보러 갈 때 등 뒤 깃고대에 끼워주면 합격한다고 믿었다.

경남 지역에서는 칠석날 저녁에 어머니들이 오색의 실을 엮어서 어린 자식의 오지랖에 꿰어둔다. 이렇게 하면 공부, 과거, 시험 운이 트이고 매사에 길하다고 여겼다. 부산광역시 산성마을에서도 칠석날 밤, 달이 질 때 달빛 아래에서 바늘에 실을 꿰어두었다가 시험 또는 대사(大事)를 치르는 사람이 있을 때 본인 모르게 그 실로 그날 입을 윗옷에 삼자(三字)를 새겨두면 일이 잘 된다고 믿었다.

인접국가사례 중국 육조의 지괴소설집(志怪小說集) 『수신기(搜神記)』에 의하면 7월 7일이 되면 한나라 궁중의 여성들이 물가에 가서 우전(于闐: 서역)의 악곡을 노래하고, 서로 채색실을 머리에 매어 장식하였는데 이를 상련수[相連綬 · 相連怜 · 相連愛]라고 부른다. 이는 채색실을 통해 여성들이 기자(祈子)하고 남성에게 사랑 얻기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우리나라와는 득남(得男)과 남성에게 사랑을 기구하는 점이 약간 다르다. 또한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오월조(五月條)에 오채의 비단 색실인 벽병(辟兵)을 팔에 걸어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했다. 중하(仲夏)에 고치가 나오면 부녀자들이 모두 모여 물들이는 작업을 하는데 일월성신(日月星辰)이나 조수(鳥獸)의 형상을 무늬로 수놓거나 금박으로 아로새겨 존장자(尊長者)에게 바친다. 일명 장명루(長命縷) · 속명루(續命縷) · 벽병증(辟兵繒) · 오색사 · 주삭[朱索, 百索]으로 불리며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이들은 비록 칠석 풍속이 아닌 5월의 풍속이지만 오색실로 가내(家內)의 역병(疫病)을 예방하고 장수를 기원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國歲時記, 太平御覽, 朝鮮常識-風俗篇-(崔南善, 東明社, 1948),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이강로, 세종 대왕 기념 사업회, 1974), 韓國民俗大觀4-歲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中文大辭典(台北: 中華學術院, 1982),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 · 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搜神記全譯(晉 干寶 원저 · 黃滌明 譯注, 貴州人民出版社, 1991), 中國歲時禮俗(喬繼堂, 天津人民出版社, 1991),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우리 세시풍속의 노래(유만공 원저, 임기중 역주, 집문당, 1993), 漢語大詞典(한어대사전출판사, 1994), 형초세시기(종름 원저, 상기숙 역저, 집문당, 1996), 조선풍속사(김내창 편저, 사회과학출판사, 1998), 강원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의 세시풍속(정승모, 학고재,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 · 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 · 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조선대세시기 II(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 상기숙(尙基淑)

북두칠성에 빌기

정의 칠월 칠석날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칠성신(七星神)에게 장수(長壽)와 복(福)을 비는 풍속. 북두칠성 바라보기라고도 한다.

유래 칠성신은 비와 수명과 재물을 관장한다는 신이 천체와 별을 신앙하는 도교에서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관한다는 북두칠성을 신체(神體)로 하여





1 북두칠성에 빌기
2 칠석재
충남 논산시 양촌면 황헌만

칠원성군(七元星君)을 숭상한다.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우리의 북두칠성 신앙이 민간신앙 차원으로 행해지는 한편, 불교와 습합되어 사찰에 칠성각이 건립되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七夕齋)가 행해지게 되었다. '칠석(七夕)'과 '칠성(七星)'이 발음이 비슷하고 칠(七)이라는 숫자가 같아서 서로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여 특별히 칠석날에 여러 가지 칠성신앙 행위가 행해지게 되었다.

내용 및 지역사례 칠석날 밤에 부녀자가 장독간의 한 옆을 칠성단 혹은 칠성당 자리로 여기고 여기에 정화수를 떠놓고 북두칠성을 보고 자신의 소원을 빌거나 가족의 수명장수를 비는 것이 보편적인 양상이다. 이때에 참기름 불을 켜거나 소지를 불사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 칠성제를 지낼 때에는 목욕재계하고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입어야 하며, 대문 좌우에 황토를 놓아 부정한 것의 출입을 막고, 만약 주부가 월경이 있거나 집안에 부정한 일이 생기면 제의를 행하는 날을 물린다.

칠성제는 장독간뿐만 아니라 우물가나 부엌 뒤란에서 지내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칠석날 밤 집의 마당에 병풍을 치고 7명의 신위 이름을 백지에 써 붙이고 제물을 각각 일곱 그릇씩 진설하고 제를 지낸다. 전남 진도에서도 마당에 짚을 깔고 물동이물을 떠놓고 칠성님께 빈다.

제물은 정화수를 비롯한 흰쌀밥, 미역국, 시루떡, 과일, 나물, 밀가루 음식(밀전, 밀전병, 밀떡, 밀국수) 등을 차리는데, 두세 가지를 간단히 놓는다. 칠성신이 일곱 신이라는 생각에서 밥 일곱 그릇을 놓거나 큰 양푼에 쌀밥을 가득 담아 숟가락을 일곱 개 꽂는 경우가 많다. 백설기는 시루째 차린다. 호서 지역에서는 칠성벼(칠성쌀)라고 하여 따로 보관하였다가 정성스럽게 메밥을 짓고, 호남과 호서지방에서는 쌀 서 되 세 홉을 곱게 찧어 백설기를 만들어 칠성에게 올린다. 국수 가락처럼 가족들의 수명이 길어지라고 반드시 국수를 제물로 쓰는 가정도 있다. 근년에는 정화수만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주부가 늘고 있다.

근래에는 칠성신에게 수명장수뿐만 아니라 무사태평, 자식 공부 잘하기, 처녀의 시집 잘 가기 등을 빈다. 같은 칠석날 저녁에 처녀들이 직녀성에게 바느질 솜씨를 빌던 걸교(乞巧) 풍속도 칠성신에게 전이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호서와 호남 지역에서는 칠석날에 칠성신이 하늘에서 들로 내려와서 둘러보고 곡식의 소출을 정한다고 칠석 전에 벼를 잘 가꾸고 논을 손질하여 둔다. "칠석날 논에 일찍 나가면 곡식을 감한다."라고 들에 나가지 않고 근신하며 조용히 저녁에 칠성신을 맞이한다.

불교 신자들은 이날 절에 가서 칠석재에 참석하여 칠석 불공을 드리면서 가족의 수명장수와 재앙소멸을 기원한다. 절에 칠성각이 있으면 반드시 들러 기원을 한다.

충북 지역에서도 칠석날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복을 기원한다. 이날 북두칠성의 일곱별의 놓인 모습이 국자 모양으로 입을 벌린 것처럼 보이는데, 칠석날 밤에 사람들은 이 북두칠성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별을 바라본다. 이는 복을 기원하는 행위로, 이때에 은하수가 뚜렷이 보이면 그해 반드시 풍년이 든다고 여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 I(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국립민속박물관, 1998),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0~2003).
필자 | 정상박(鄭尙朴)

약물맞이

정의 칠월 칠석날에 내리는 물은 약효가 있다고 하여 '약물'이라고 하고, 이날 물맞이를 하거나 약수(藥水)를 마시는 풍속. 칠석 물맞이, 칠석 약물맞이라고도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칠석날은 소질금물(외양간 거름물)도 약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칠석날 내리는 물이 몸에 가장 좋은 약물이라고 하여 맑은 샘물을 마시거나 목욕을 한다. 이는 칠석 때가 약물이 여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칠석날 약물은 아침 먹은 뒤, 점심 때, 저녁 먹은 뒤, 하루 세 번 내린다고 하고, 점심 때 오시(午時)에 내리는 물이 가장 약효가 크다고 한다. 칠석물은 피부에 좋아 땀띠가 가시고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는다. 또한 칠석 물맞이를 하면 여름에 더위를 먹은 데도 좋다고 한다. 심지어 칠석날 물맞이를 하면 "처녀가 시집가서 잘 산다."라고 믿기도 한다. 폭포수에 가서 물맞이를 하면 신경통과 관절염에 좋은데 특히 허리, 어깨, 목 등 아픈 곳에 물을 맞으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날 바닷물에 몸을 씻는데, 모래찜질을 겸하는 수도 있다.

경북 해안 지역 사람들은 칠석날 바닷물에 맹물이 들어오는 것을 약수라고 하고 어른들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약물 들어온다. 목욕 가자."라고 하면서 손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바다에 가서 멱을 감는다. 선주(船主)는 칠석날에 마을 사람들을 태우고 뱃놀이를 나가기도 하는데, 해수욕과 뱃놀이를 아울러서 '약물맞이'라고 한다. 어린이들이 강물에서 목욕을 하면 재앙을 멀리 한다고 믿는다. 이날 물맞이를 가지 못하면 집안에서 머리를 감거나 목물이라도 쳐서 아쉽지만 칠석 물맞이를 한 것으로 여긴다. 또 약수를 마시면 속병이나 신경통, 관절염을 고친다고 하여 사람들이 무리지어 이름난 약수터를 찾아가 물을 마시고 하루를 논다. 심지어 중병도 고친다고 하여, 노인과 부녀자들이 주로 약물 마시기를 하였다. 칠석물의 효험을 얻기 위하여 칠석 전 사흘 동안 소식(素食)을 하는 사람도 있다. 포항에서는 칠석날 약물 뜨러 간다며 바다에 가서 멱을 감고 온다. 주로 저녁에 가는데 이날 물은 섬뜩한 것이 평소와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한다. 이날 멱을 감으면 약이 된다고 하여 "약물에 멱 감으러 가자."라고 하며 또래 아이들과 더불어 바다로 나간다.

한편, 깻잎을 담가 우린 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부드러워진다고 하여 칠석날 부녀자들이 머리를 감기도 하였다. 이날 머리를 감으면 부스럼이 나지 않고 비듬도 없어진다고 믿었다.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칼이 부드럽고 윤이 난다고 여겨 단옷날처럼 칠석날에도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한다. 또 피마자잎을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두통이 생기지 않는다고 여겼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의 歲時風俗 I(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국립민속박물관, 1998),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정상박(鄭尙朴)

칠석비[七夕雨]

정의 음력 7월 7일 칠석(七夕)을 전후로 내리는 비를 칠석비[七夕雨]라고 한다. 칠석비를 칠석우(七夕雨), 칠석물이라 하고 칠석에 비가 오는 것을 가리켜서 칠석물지운다, 칠석갈이한다, 칠석아래비라고도 한다. 또한 칠석비로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치기도 한다.

유래 『세시잡기(歲時雜記)』에 의하면, 음력 7월 6일에 오는 비를 세거우(洗車雨)라 하고, 7월 7일에 오는 비를 쇄루우(灑淚雨)라고 한다. 세거우는 직녀가 타고 갈 수레를 씻기 위한 것이라 하며, 쇄루우는 견우와 직녀가 이별에 쏟아내는 '눈물의 비'라고 한다.




오늘 七夕
비 때한…가인「물눈 의橋鵲烏」

1 덕흥리 고분벽화
평안남도 대동군 덕흥리

2 오늘 七夕
한국일보 1960년 8월 28일

내용 및 지역사례 칠월 칠석날은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만나기에 이날의 비는 해후의 눈물이고, 이튿날 내리는 비는 작별의 눈물이라 한다. 한국의 민간에서는 칠석날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들거나 병을 쫓는 영험이 있어 빗물로 목욕을 하고 물맞이를 한다.

경남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선창마을에서는 칠석날에 아침밥을 일찍 먹고 물을 맞으러 간다. 이날 물을 맞으면 한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아서 좋다고 한다.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양촌마을에서는 칠석날 약물을 맞으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고 몸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 칠석날 떠오는 샘물을 '약물'이라고 불러 이를 떠와서 머리를 감는다.

경북 상주시 사벌면 원흥 1리에서는 칠석날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들고, 날씨가 좋거나 바람이 불면 흉년이 든다고 점을 치기도 한다. 또한 칠석에 비가 오면 곡식이 줄어 흉년이 든다고 믿기도 한다.

전북 임실에서는 "칠석날 비가 오면 곡식 칠석을 덜고, 백중날 비가 오면 백석을 던다."는 말이 있어서, 칠석과 백중날 비가 오면 곡식의 양이 줄어든다고 여겨, 이날 비가 오면 좋지 않다고 한다. 또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서원마을에서는 칠석을 즈음하여 칠석물이 들면 그해 농사를 망친다고 한다. 김매기까지 끝내고 햇볕을 충분하게 받아야 벼가 성장하는데, 비가 오면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경남 지역에서는 칠석 아래(칠석 전 이삼일간) 비가 와야 그해 시절이 좋다고 하여 '칠석아래비'라고 한다. 부산 지역에서는 칠석에 비가 오거나 흐린 것을 '칠석물지운다' 또는 '칠석갈이한다'라고 한다. 칠석갈이를 하면 농작물에 흉년이 들고, 미역이 잘 안 된다고 믿는다.

의의 칠석비가 만남과 이별의 비라고 여기는 것은 중국의 견우직녀 전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설과는 무관하게 칠석비가 농작물이나 해초의 풍년 또는 흉년을 예측하는 대립된 관념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질병과 같은 액을 쫓기 위한 물맞이 행사도 전승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칠석의 액쫓기 행사는 고유의 신앙에 기초를 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歲時廣記,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한국사 이야기⑭-놀이와 풍속의 사회사-(이이화, 한길사,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임장혁(任章赫)

칠성점(七星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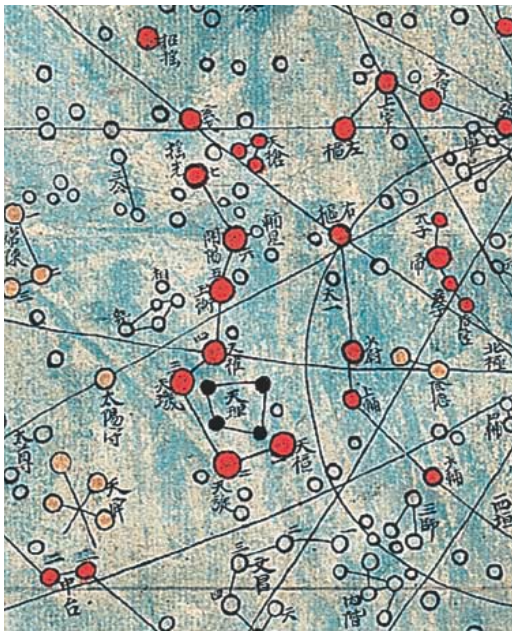
정의 칠월 칠석(七夕)날 밤에 여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인 북두칠성, 직녀성(Vega), 견우성(Algedi)을 바라보거나 별자리와 농사와의 관련성을 점쳐보는 풍속.

유래 칠석은 성수(聖數)인 7이 두 번 겹치는 날로 일찍부터 중요 명절로 여겼다. 이날은 특별히 별자리와 관련이 깊다. 여름철에는 서쪽 하늘이 내려가고,

이 별들이 있는 동쪽 하늘이 올라온다. 특히 칠석날 밤에는 은하수와 함께 이들 별들이 남쪽하늘을 장식한다. 북두칠성은 그 중에서도 중앙에 위치한다. 직녀성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별 중에서 밝기가 세 손가락에 드는 밝은 별이다. 직녀성이 나타나면 그 남쪽으로 약간 떨어져서 밝은 일등성이 하나 따라오는데, 이것이 견우성이다. 두 별은 태양 황도상(黃道上)의 운행 중 칠석 때에만 천장 부근에서 보이므로, 마치 일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애타게 그리워하는 견우와 직녀의 애달픔으로 승화되었다.

내용 칠월 칠석날 저녁 하늘의 중앙에는 북두칠성이 빛나고, 동쪽 하늘에는 견우성과 직녀성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일년에 한번 가까운 거리에서 밝게 빛나는 견우성과 직녀성의 애달픔이 전이될까 하여 이날 별을 보지 않는다. 이 별을 보면 일년 내내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여 별 보기를 꺼린다. 꼭 별을 보고 싶다면 직접 보지 않고 그릇에 물을 담아 그 물에 비치는 별을 본다.

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별과 농사와의 관련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칠성별 무리와 달과의 거리를 보아 그 거리가 가까우면 풍년이 들고, 멀면 흉년이 든다고 예상한다. 달이 멀리 있으면 좇아가도 먹을 것이 적어 얻어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황도북계총성도 국립민속박물관

이때는 직녀성 위의 포과(匏瓜)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기도 하는데, 그 별이 밝으면 곡식이나 채소가 잘 익고, 희미해지면 오이와 과일이 잘 익지 않는다거나, 객성이 머무르면 물고기와 소금이 모자란다고 한다. 견우성 아래에는 늙은 소와 견우가 함께 일구었을 법한 천전(天田) 별자리가 있는데, 이 별 주변에 혜성(彗星)이나 객성(客星)이 머물면 농부가 일자리를 잃게 될 조짐으로 보기도 한다.

의의 칠석 명절을 맞은 농군들은 여름 하늘의 중심에 있는 이 별들에 앞으로 이루지기를 소망하는 자신들의 소망을 비추어 본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민속지 III(경기도박물관, 2000), 우리별자리(안상현, 현암사, 2000),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김효경(金孝慶)

밀떡

⇨ 밀부꾸미: 가을편

밀부꾸미

정의 밀가루를 반죽하여 둥글게 지진 떡에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지진 것. 칠석(七夕) 무렵에 밀의 수확을 끝내고 만들어 먹었으며, 지역에 따라 밀떡, 밀전병, 밀부침개로 불리기도 한다. 부꾸미는 찹쌀가루, 차수수가루, 밀가루, 녹두가루 등을 반죽하여 둥글게 지진 떡에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지진 것이다. 수수전병은 일명 수수부꾸미, 수수지지미라고 한다. 밀부꾸미는 밀가루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내용 칠월 칠석 즈음에는 바쁜 농사일도 거의 끝내고 지루한 장마도 지나고 무덥던 더위도 한풀 꺾이는 때이다. 농부들은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호미와 쟁기를 씻고 닦아서 보관하며, 여름 내내 장롱에 넣어둔 의류나 책이 습기가 차서 좀이 슬거나 곰팡이가 나기 쉬우므로 햇볕에 말린다. 그렇게 해야만 옷과 책이 상하지 않는다. 지방에 따라서는 칠석제(七夕祭)를 지내며, 올벼를 사당에 천신하기도 한다. 또 칠월 칠석 무렵에 새로 수확한 밀가루를 밀전병 또는 밀부꾸미 형태로 만들어 먹었다.

밀부꾸미를 기름에 지지는 것은 화전(花煎)이나

주악과 같으나, 화전의 모양대로 부치다가 팥고물이나 밤 같은 소를 넣고 반을 접어 기름에 지진 것이다. 그 크기는 대개 손바닥만 하게 빚어 기름에 지지면서 팥소를 한 편으로 붙이고 반을 접어 꼭꼭 눌러 붙인다. 옛날에는 여름이면 오이나 애호박을 채 썰어 잠깐 절였다가 꼭 짜서 볶은 것이나, 채 썰어 볶은 쇠고기를 넣기도 하였다.

밀부꾸미는 밀전병[小麥煎餠] 형태로 이용기의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새로 수확한 햇밀을 가루 내어 묽게 반죽한 것에 애호박을 채쳐 잠깐 절였다가 꼭 짜서 넣고 전병을 부친다. 애호박이 없으면 파나 미나리를 잠깐 절였다가 넣거나, 빈대떡처럼 갖은 것을 넣어도 좋고, 풋고추를 썰어 넣고 지지는 것도 좋다. 밀가루는 양밀가루가 좋으나 여기 밀도 곱게 가루로 하면 밀냄새가 나는 것이 도리어 좋다고 하였다.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서는 밀가루를 냉수에 덩어리지지 않도록 잘 개고 애호박이나 오이를 넣으려면 채를 썰어서 소금에 약간 절였다가 꼭 짜서 묽은 죽처럼 반죽한 밀가루에 섞어서 전병을 작은 접시만큼씩 붙여서 먹는다고 하였다. 미나리, 파, 풋고추, 배추김치 등도 각각 채를 썰어서 반죽에 넣고 부친다고 하였다.

밀부꾸미는 지역에 따라 잡곡부치기, 찰부꾸미, 수수부꾸미 등과 같이 약간 형태가 다른 것들이 있다. 황해도에서는 멥쌀가루 두 컵에 흰콩을 불려 갈아서 섞고, 차수수가루 두 컵과 녹두를 갈아서 한 컵을 섞어 잡곡부치기를 한다. 보통 부꾸미처럼 반달로 접으면서 고기(200그램)와 김치(또는 감자 줄기) 한 대접을 썰어서 소로 싸서 지지거나 또는 녹두지지미처럼 둥글넓적하게 손바닥만큼씩 고기와 김치를 붙여서 지지기도 하였다.

평안도의 찰부꾸미는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달걀 반 개 정도 크기로 둥글게 빚어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수저로 누르면서 늘리다가 뒤집어 한 편에 녹두소를 놓고 반자락을 덮어 반달 모양으로 해서 누른다. 누른 떡 위에 밤, 대추, 석이채를 예쁘게 붙인 다음 꿀에 재워둔다.

경기도의 수수지지미(부꾸미)는 수수 다섯 홉을 두세 시간 불렸다가 말끔히 씻어 건져서 소금 한 큰술 정도를 넣고 가루를 낸다. 팥 두 홉을 삶아 앙금을 내어 설탕을 넣고 소를 만든다. 수수가루에 뜨거운 물로 말랑하게 익반죽하여 동글납작하게 빚어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누르면서 지지다가 한 편에 팥소를 갸름하게 뭉쳐놓고 반 접어 붙인다. 뜨거울 때 설탕을 뿌린다.

칠월 칠석 무렵에 새로 수확한 밀가루를 밀전병 또는 밀부꾸미로 만들어 시식(時食)을 즐겼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朝鮮料理製法(方信榮, 漢城圖書株式會社, 1942), 한국풍속지(양재연 외, 을유문화사, 198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식 백가지1(한복진, 현암사, 1998), 한국전통음식-떡·한과·음청류-(윤숙자 외, 지구문화사, 1998).
필자 | 윤덕인(尹德仁)

밀전병(-煎餠)

정의 밀가루 반죽을 묽게 하여 애호박, 부추, 풋고추, 파 같은 채소를 썰어넣어 부친 것으로 칠석에 먹는 음식.

내용 애호박은 채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꼭 짜서 밀가루에 버무린다. 풋고추는 너무 맵지 않은 것으로 채 썰어 밀가루에 버무린다. 밀가루를 너무 되지 않게 개어 준비한 후 호박과 풋고추를 넣어 번철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한 국자씩 떠서 부친다. 밀전병은 썰어서 내기도 하고 동그란 모양 그대로 내기도 한다. 초간장을 곁들여 먹는다.

밀전병과 비슷한 경북지방의 밀부꾸미는 칠석날에



밀전병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심디스마

빼놓지 않고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 동그랗게 민 밀가루 피 속에 삶은 팥을 넣고 만두를 빚듯이 양쪽 귀를 접어서 반달 모양으로 빚어 기름에 지져낸다. 달콤한 팥과 기름에 지져낸 밀가루가 한데 어울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난다. 요즘도 밀전병을 만들어 먹는 집이 많다. 크고 잘 익은 수박을 비롯한 과일을 많이 따다가 술과 함께 먹기도 한다.

의의 칠석날에는 밀전병을 부치고 가지, 고추 같은 햇것을 천신하고 나물을 무쳐서 햇곡식 맛을 보는 풍습이 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밀가루 음식은 철이 지나 밀냄새가 난다고 하였으므로, 이때가 밀음식의 마지막 향연이 되는 셈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한국의 맛(강인희, 대한교과서, 1988), 한국의 상차림(강인희, 효일문화사, 1999), 세시풍습과 우리음식(조후종, 한림출판사, 2002),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임희수(林姬洙)

⇨ 연병(連餠): 여름편

호박전(-煎)

정의 애호박을 얇고 둥글게 썰어서 밀가루와 달걀을 입혀 부친 것. 호박은 칠석 무렵에 잘 열리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 시기에 호박전을 만들어 칠성님께 빌거나 절식으로 즐겼다.

내용 애호박은 가늘고 곧은 것을 선택하여 둥글게 썰어서 밀가루를 입히고 달걀을 씌워 부친다. 달걀을 입히지 않고 밀가루만 개서 부치기도 한다. 또 애호박을 얇게 저민 것에 고기를 조금 끼워서 부치기도 한다. 고기를 끼울 때는 호박을 얇게 저미고 고기는 다져서 조금만 끼우며 애호박을 소금에 절이면 수분이 많이 흐르므로 달걀에 간을 하여 부친다.

의의 우리나라는 튀김음식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반면에 식품 재료에 달걀과 밀가루를 입혀 기름에 지져내는 각종 전(煎)요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호박에 밀가루와 달걀을 입혀 기름으로 지져낸 호박전은 달걀과 기름의 사용으로 높은 열량을 내므로 여름철에 무더위로 지쳐 있을 때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음식이다.



호박전 궁중음식연구원

참고문헌 | 韓國飮食(尹瑞石, 修學社, 1988), 한국음식(염초애 외, 효일문화사, 1999).

필자 | 임희수(林姬洙)

칠석놀이(七夕-)

정의 음력 7월 7일 칠석날에 풍장패를 앞세워 길놀이, 합궁놀이, 황새샘치기, 칠성굿놀이, 견우직녀상봉놀이, 장치기놀이로 이어지는 공동체 놀이.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芙沙洞)의 칠석놀이를 비롯하여 경남 김해군 부서(府西)의 알촌과 하계(荷溪) 마을의 칠석놀이, 충남 금산군 진악산의 송계놀이, 충남 당진군 송산면 부곡리에서 칠석날 행했던 풍년제, 전북 정읍의 솔불놀이, 전남 여수 일대의 진세놀이 등이 칠석놀이로 보고된 바 있다.

유래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에서는 칠석날 칠석놀이를 행하는데, 부사동은 보문산 동쪽 기슭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보문산을 경계로 남쪽으로 대사동과 호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북쪽으로 문창동, 동쪽으로 석교동, 서쪽으로 대사동과 대흥동 일부가 동계(洞界)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전승되는 칠석놀이는 백제시대 두 연인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일종의 촌락신화(村落神話)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서사 내용을 화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백제시대에 부사동은 윗말과 아랫말로 나뉘어져 있다. 두 마을은 항상 갈등을 겪는다. ② 윗말의 부용(芙蓉)이라는 처녀와 아랫마을의 사득(沙得)이


1


2


3


7


8


9


15


16


4


5


6


10


12


13


11


14


17


18

〈칠석놀이〉
1 선바위고사 진설
2 헌작
3 치성문 낭독
4 재배
5 소지
6 마을사람들 치성
7 음복
8 부사샘
9 길놀이
10 부사샘 앞 길놀이
11 부용이와 사득이
12 샘고사 준비
13 아낙네의 치성
14 샘고사(분향)
15 샘고사(헌작)
16 샘고사(독축)
17 샘고사(소지)
18 샘고사(음복)
대전시 중구 부사동 국립민속박물관

라는 총각이 사랑에 빠진다. ③ 신라가 백제를 침략하자 사득이는 백제군으로 징집되어 전장에서 전사한다. ④ 부용이는 매양 보문산 선바위에 올라 사득이를 그리워하다 실족하여 죽는다. ⑤ 몇 해 후, 마을에 가뭄이 들어 샘물이 마른다. 그래서 황새샘까지 가서 물을 길어온다. ⑥ 윗말의 한 노인 꿈에 부용이가 현몽하여 가뭄 해소의 대가로 사득이와 영혼결혼을 시켜줄 것을 원한다. ⑦ 아랫말의 한 노인 꿈에 사득이가 현몽하여 부용이와 같은 말을 건넨다. ⑧ 윗말과 아랫말 사람들이 화해하고 칠석날에 함께 모여 샘고사를 지낸 후 영혼결혼을 성사시킨다. ⑨ 샘물이 펑펑 솟는다. ⑩ 샘을 부용과 사득의 첫 자를 따서 '부사샘'이라고 일컫는다.

부사동이라는 마을의 이름도 이 촌락신화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리고 촌락신화의 내용을 토대로, 부사동의 칠석놀이가 구비설화에서 삼국시대부터 형성(③참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 권38 「세가(世家)」38 공민왕(恭愍王) 2년(1353)에 "임신일에 칠석이므로 왕과 공주가 내정 뜰에서 견우와 직녀에게 제사지냈다(壬申 七夕 王與公主祭牽牛織女于內庭)."라는 것으로 보아 칠석놀이는 칠석제(七夕祭)에 근거하고 있다. 칠석놀이가 부용과 사득이라는 두 영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두 마을의 결합(화합)까지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강한 전승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마을은 매년 칠석에 보문산 선바위에서 부용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부사샘을 깨끗이 치운 후에 샘고사를 올렸으며, 부용과 사득의 넋을 달래기 위해 합궁놀이를 하였다. 오늘날에는 선바위에서 부용을 위로하는 제사를 선바위 치성이라고 하며, 부녀자를 중심으로 제물을 진설한 후 비손하며 소지를 올리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샘고사는 풍장을 동원하여 길놀이, 기세배, 샘풀이, 샘치기 노래, 고사가 결합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합궁놀이는 마을 공동체가 행하는 모의 결혼 행위로서 일종의 마을축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부사동의 칠석놀이는 1930년대까지 온전한 형태로 전승되다가 단절된 후 최근에 재현을 시도하였다. 1992년 대전광역시 중구 민속놀이로 선정된 이래 1993년에 대전시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1994년에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현재 부사칠석놀이보존회(회장 김준헌)가 결성되어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내용 현재까지 조사 보고된 칠석놀이를 살펴보면, 전북 정읍의 솔불놀이는 두 동네가 달집짓기를 다투는 성장의례 관련 놀이이며, 전남 여수 일대의 진세놀이는 칠석날을 '진세먹는 날'이라고 하여 3세나 5세가 된 아이가 있는 집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해 마을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노는 날이다.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칠석놀이의 놀이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길놀이와 합궁놀이: 길놀이는 마을 축제유희(祝祭遊戱)에 기본적으로 있는 부수놀이인데, 합궁놀이와 한 단위로 묶을 수 있다. 여느 지역의 일반적인 기싸움처럼 용기(龍旗)를 세우기 위해 농악을 동원하여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만나는 과정이다. 이른바 '깃봉싸움'이 전개되는데, 그 자체를 농경 모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부사동 칠석놀이에서 주목되는 것은 '합궁(合宮)'인데, 이는 양쪽 마을의 기를 통해 화합을 표시하는 기세배의 일종이다. 이를 흔히 '상견례'라고 부른다. 기를 통한 인사굿인 셈이다.

합궁놀이는 마을 사람들이 농악에 맞춰 대열을 이루고 농악소리에 따라 양쪽의 기를 숙이는 인사굿이다. 합궁이 남녀 결합방식을 모의하여 마을의 화합을 재확인하듯, 집단놀이의 겨루기 방식과 동일하게 음양 현상의 결연을 통해 풍농을 기원하는 뜻이 담긴 듯하다. 지역의 제보자들도 합궁을 성행위의 모의적 발상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두 마을이 힘을 모아 농사짓기를 합의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② 황새샘치기와 칠성제: 황새샘은 부사동의 논에 물을 대는 수원(水源)이다. 매년 칠월 칠석 무렵에 지역의 농민들은 농기와 풍장을 앞세워 샘을 다시 치우고 고사를 올린다. 샘은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한 요인이기 때문에 장마가 지난 음력 7월에 샘을 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때 '황새샘치는 노래'를 부르는데, 고사의 참여자들은 소리에 맞추어 다함께 물을 퍼낸다.

샘치우세 샘치우세,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칠월이라 칠석날에,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샘치움을 잊었던가,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한바가지 두바가지,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정성으로 치운물로,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추석명절 돌아오면,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햇곡으로 밥을지어,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조상님전 제올리고,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부모님께 봉양하면,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이샘으로 합수되어,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만 복 이 기틀터니,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상하부사리 벗님들아,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유왕제를 지내로세, 우려러차하 우려러하차

풍장과 더불어 '메기고 받는 소리'를 통해 샘 주변에서 일종의 우물굿을 하는 방식이다. 칠성님의 도움으로 농사가 잘 되고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설이다. 작업노동요나 작업의식요가 그러하듯이 메기는 사설은 2음보 연속이고, 후렴은 행위의 의성어와 감탄어구가 결합된 형태이다

샘고사가 끝나면 칠성제(七星祭)를 행한다. 본디 칠성제 자체가 공동으로 거행된 경우가 드물지만, 부사동에서는 공동제의로서 칠성제를 통해 마을의 번영을 칠성신한테 기원한다. 칠성단의 제단에는 물동이에 정수를 다른 제물과 함께 진설한다. 제차(祭次)는 일반 동제와 동일하다. 부사동에서는 칠성제를 '부용제(芙蓉祭)'라고 하여, 선바위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③ 견우직녀 상봉놀이와 장치기놀이: 칠석놀이의 핵심은 견우직녀 상봉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알려져 있다. 부사동에서는 흔히 '부용·사득이놀이'라고 한다. 이 상봉놀이는 풍장에 따라 오작교 대열을 만들고 견우와 직녀로 가장한 놀이꾼이 각각 오작교 뒤쪽에서 앞으로 오면서 만나는 것이다. 만나는 과정에서 놋다리밟기처럼 노래를 부른다. 칠석놀이의 '부용·사득이 노래'는 다음과 같다.

봄나비 꽃잎에 쌍쌍 (왼쪽)
봄나비 꽃잎에 쌍쌍 (오른쪽)
꾀꼬리 버들에 쌍쌍 (왼쪽)
꾀꼬리 버들에 쌍쌍 (오른쪽)
바위에 다람쥐 쌍쌍 (왼쪽)
바위에 다람쥐 쌍쌍 (오른쪽)
시냇가 가재가 쌍쌍 (왼쪽)
시냇가 가재가 쌍쌍 (오른쪽)
날짐승 길버러지 (왼쪽), 제각각 쌍쌍인데
어이해 부용사득은 (왼쪽), 혈혈이 단신인고
어이해 부용사득은 (왼쪽), 혈혈이 단신인고
칠석날 견우직녀, 오작교 만나듯이
부용사득 칠석날에, 오작교에 만났네
어헤야 놀아나보세, 어헤야 놀아나보세

오작교 대열을 이룬 양쪽 놀이꾼들은 '주고받는 소리'를 통해 대열의 길이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다. 사설은 견우직녀 설화가 그러하듯이 남녀상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견우와 직녀의 사랑이 얽힌 전설을 바탕으로 형성된 오작교놀이인 셈이다. 곧 견우직녀의 고사를 통해 상부사리인 견우쪽과 하부사리인 직녀쪽 양편이 결합하는 모의 행위인 것이다. 곧 음과 양의 싸움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의 깃봉싸움처럼 음양의 화합을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의 생장을 기원한다. 양쪽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움으로써 견우와 직녀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듯이 농민의 상부상조와 협동단결을 이루자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그 바탕은 제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칠석 풍속의 농경의례와 맞물려 있는 대표적인 전승물이 아닌가 한다.

장치기놀이는 견우직녀 상봉놀이에 이어 견우쪽과 직녀쪽이 나누어 지게줄로 만든 공을 지게작대기로 치며 상대편 깃대를 맞추는 민속경기이다. 장치기에 참가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자기편을 응원하며, 풍물에 따라 다양한 종목의 노래를 부른다. 율동은 흔히 지게 장단이나 물박 장단이며, 풍물은 대전 지역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는 웃다리농악과 대체로 일치한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에서는 칠석이 여인들의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여아절(女兒節)이라 부르는데, 이는 중국 전통 명절 중의 부녀절이다. 일본의 타나바타마츠리(七夕祭)는 중국의 경우와 직녀성의 전설 그리고 걸교전(乞巧奠; 지혜를 구하는 행사)의 풍습이 전해져서 일본 고유의 '타나바타쯔메(七夕律女)' 신화로 습합(習合)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소원을 적은 '탄자쿠(短册: 글씨를 쓰거나 표시로 물건에 매달거나 하는 데 쓰는 조붓한 종이)'를 매단 세죽(笹竹)을 장식하는 것이 주된 행사이다. 타나바타란 선반 구조가 있는 베틀로 베를 짜는 여자를 타나바타쯔메라고 하는데, 이는 신에게 인간의 더러움과 액을 실어 가져가게 하는 선녀였다. 타나바타는

이와 같이 액을 떨치는 일본 고유의 행사로 에도시대에는 5대 명절로 성행하였으나, 메이지 6년에 공식 행사로서의 칠석이 폐지되고부터 민중들 사이에서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에는 센다이(仙台)나 히라즈카(平塚) 같은 관광에서 명물로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의의 여름철 세시풍속과 관련한 놀이가 백중놀이 외에 별로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 중구 부사동 칠석놀이는 성장의례의 생산성을 기원하는 세시놀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있다. 부사동 칠석놀이의 핵심 단위는 견우직녀 설화와 유사한 부용·사득 상봉놀이가 바탕이 된 것인데, 백중놀이와 함께 농작물 성장의례에 부합하는 공동체 놀이이다. 연인이 이루지 못한 인연을 맺어주고 달래주는 놀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시에 마을의 화해와 화합을 기하고 있다. 촌락신화가 전승지역의 세시풍속과 결부하여 길놀이, 합궁, 샘치기 같은 형태로 놀이화된 것인데, 칠석세시에 순차적인 놀이가 관행화되어 전승되고 있는 점은 여느 지역에서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다. 다만 설화의 놀이화라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농악의 경우에도 대전지역의 웃다리농악과 동일하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농악과 어울려 불리는 '황새샘치는 노래'나 '부용·사득이 노래'는 놀이의 독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사칠석놀이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후 보존회를 통해 관리되는 공동체 유산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朝鮮常識-風俗篇-(崔南善, 東明社, 1948), 韓國民謠集 I(任東權 編, 集文堂, 1961),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七夕놀이의 文化史的 意味(이창식, 中央民俗學5, 中央民俗學硏究所, 1993), 韓國民俗祭儀와 陰陽五行(김의숙, 집문당, 1993), 금산의 민속놀이(강성복, 금산문화원, 1994), 경기민속지 III(경기도박물관, 2000), 지역민속의 세계(이경엽, 민속원, 2004).

필자 | 이창식(李昌植)

칠석요(七夕謠)

정의 칠월 칠석(七夕)이 되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그리워하던 견우성과 직녀성이 일년에 단 한 번 상봉한다는 전설을 소재로 삼아서 민간에서 불려진 민요.

내용 견우성과 직녀성은 본디 부부 사이였으나, 일년 동안 은하수를 사이에 놓고 상봉하지 못하다가 칠월 칠석이 되면 까치가 다리를 놓아주어서 그리던 정회를 푼다는 전설이 있다. 그 다리를 오작교(烏鵲橋)라 하며, 까치들이 돌을 머리로 이고 가서 다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이날이 지나면 까치의 머리털이 벗겨져 있다고 한다. 칠석과 관련된 이 전설은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많은 문인들의 시재(詩材)가 되었고, 민간에서는 노래로도 불려졌다. 칠석요(七夕謠)는 칠석의 전설을 담은 민요이다. 견우와 직녀의 그리움, 칠석날 상봉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일년 후를 기약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주된 내용이다. 『한국민요집』1에 전하는 칠석요 자료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칠월칠석 오늘밤은 은 하 수 오작교에
견우직녀 일년만에 서로반겨 만날세라
애야애야 애야좋네 칠석놀이 좀더좋네
은하수의 잔별들은 종알종알 속삭이며
무슨말을 속삭이나 반작반작 웃는구나
애야애야 애야좋네 칠석놀이 좀더좋네
까치까치 까막까치 어서빨리 날러와서
은하수에 다리놓아 견우직녀 상봉시켜
일년동안 맛본서름 만단설화 하게하소
애야애야 애야좋네 칠석놀이 좀더좋네
은 하 수 한허리에 채색다리 놓으렬제
까막까막 까치들이 오작교를 놓았구나
애야애야 애야좋네 칠석놀이 좀더좋네
……(중략)……
은하수를 못메워주나 우리서로 사랑타가
옥황님께 죄를지어 님은강건너 서쪽마을
이내몸은 동쪽에서 일년한번 만날날이
오날밖에 없었구나 전생차생 무슨죄로
각분동서 헤어져서 일년일도 상봉인가
……(중략)……
닭아닭아 우지말아 네가울면 날이새고
날이새면 임은간다 이제다시 이별하고
일년삼백 육십일에 임그리워 어이살지
우지말아 우지말아 무정하게 우지말아
원수로다 원수로다 은하수가 원수로다.

"애야애야 애야좋네 칠석놀이 좀더좋네"라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칠석날 행해진

놀이에서 부른 것처럼 보이는데, 칠석놀이에 관한 자료는 전승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유래된 칠석의 풍속은 고려시대부터 기록에 나타난다. 왕가에서는 이날 견우성과 직녀성에 제사를 지내고, 관리들에게는 녹봉과 휴가를 주었다. 고려의 문집들은 민간에서도 이날 부녀자들이 길쌈과 바느질을 잘하게 해달라고 비는 걸교(乞巧)와 여름 장마를 대비하여 옷을 말리는 쇄서포의[曬書曝衣] 풍속이 있었다고 전한다. 오늘날까지도 칠석은 중양절과 함께 양이 겹치는 길일의 하나로 인식되어 여러 가지 세시행사가 이루어져 왔다. 칠석차례를 지내거나 불공을 올리기도 하며, 부녀자들은 밀전병을 부쳐 먹으면서 노는 풍속이 있다. 농사일이 거의 끝난 무렵이어서 집안의 머슴들을 놀리고, 또 이날 내리는 물은 약물이라고 하여 물맞이도 많이 한다.

칠석요의 전승은 풍부하지 않다. 위의 자료 외에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두 편이 채록되어 있으나, 이들도 '칠석가'라는 제목이 붙은 데다 내용도 가사(歌辭) '칠석가'와 넘나든다. 원래 가사로 지어진 것이 민간에서 구전되면서 부요화(婦謠化)되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관련자료 칠석요는 규방가사 칠석가와 연관이 깊다. 규방가사 칠석가는 옥황상제의 막내딸 직녀가 견우와 혼인을 하여 금슬 자별하게 살다가, 옥황에게 득죄하여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져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는 자탄으로 시작된다.

차호신명 취박하여　견우낭궁 만나든니
죵고금실 자별하여　우리둘이 죠흔인연
원앙볏치 상상이라　화류츈풍 조흔때라
오동츄야 황군젼에　금실갓치 즐거떳니
조 물 이 시기하고　호 사 가 다마하야
옥황안젼 득죄하야　하동하서 분찬하니
은 하 슈 깁은물에　엇찌하야 만나볼고
오비홍안 죠흔시졀　섬오청춘 꼿가지에
생사이별 되단말가

이후로 칠월 칠석 단 하루의 상봉을 허락받아 그날만 고대하고 살아야 하는 신세에 대한 한탄, 기다리다 지쳐서 남편의 의복 짓기, 마침내 칠석날이 되자 들어서는 남편의 행차, 눈물의 상봉, 홀연한 이별의 슬픔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

가사 '규원가'에도 견우와 직녀의 전설에 기대어 떠난 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부분이 있다.

천 상 의 견우직녀　은 하 수 막혀서도
칠월칠석 일년일도　실 기 치 아니커든
우 리 님 가신후난　무슴약수 가렷관듸
오 거 니 가 거 니　소식조차 끄쳤난고

떠난 뒤로 소식이 아주 끊긴 시적 자아의 처지로서는 그나마 일년에 한번이라도 기약된 견우와 직녀의 만남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다. 일년 열두 달의 정경, 행사, 회포를 노래하는 월령체 민요 '달거리 노래'의 칠월 부분에도 위와 유사한 묘사가 있다.

의의 칠석은 원래 중국의 풍속이자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고려 이래로 한국의 중요한 세시로 자리 잡아왔다. 칠석요는 그때 불려진 세시유희요이다. 또한 칠석요는 가사 칠석가와 함께, 칠석을 소재로 하여 풍부하게 지어진 문인들의 시문학에 비견될 수 있는 민간의 노래문학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칠석의 슬픈 전설이 남녀간의 운명적 사랑이나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문학적 형상화를 얻은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謠集 I(任東權 編, 集文堂, 1961), 韓國口碑文學大系 7-10(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4),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口碑文學大系 7-17(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8),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주해 가사문학전집(김성배 외 편저, 민속원, 1997), 한국세시풍속 I-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천혜숙(千惠淑)

까마귀도 칠월 칠석은 안 잊어버린다
(가마기도 칠월 칠석은 안 잊어분다)

정의 중요한 사실이나 날짜는 명심해서 잊지 말 것을 일깨울 때 쓰는 속담.

내용 칠월 칠석은 음력 칠월 초이렛날 밤을 일컫는다. 이날에 견우와 직녀가 까막까치들이 놓아준 은하수의 오작교(烏鵲橋)를 건너서 일년에 한 번 만난다는 중국의 전설이 널리 퍼져, 마치 한국의 전설처럼 돼버렸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까마귀들이 칠월 칠석은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만남의 다리인 오작교를 놓기 위해 은하수에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지상에는 까마귀의 수효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칠석이 지나고 보면 묘하게도 까마귀 머리에 털이 벗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몸으로 오작교를 놓아 견우와 직녀가 밟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때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헤어질 때 흘린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라고 하며,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는 칠석차례(七夕茶禮), 칠석제(七夕祭), 용신제(龍神祭)와 같은 속신과 풍습이 있다. 이렇듯 농경생활에 친숙한 옛 사람들의 칠월 칠석에 대한 인식은 견우직녀의 전설과 함께 까마귀의 생태를 통해 사람을 깨우치고자 한 데서 이 속담이 형성된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고재환(高在奐)

칠석날 까치 대가리 같다

정의 칠석날 까치의 머리가 벗겨진 것과 같이 머리털이 빠져 성긴 모양을 일컫는 속담.

내용 견우직녀(牽牛織女) 설화에서 유래한 말이다. 옛날 하늘나라에 살던 견우와 직녀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각자의 일을 소홀히 하여 옥황상제의 미움을 샀다. 그리하여 옥황상제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각자 떨어져 살게 하고는 매년 음력 7월 7일 칠석날 한번만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둘은 정작 칠석날이 되어도 은하수가 가로막고 있어 건널 수가 없었는데, 이 딱한 사연을 알게 된 지상의 까막까치가 다리를 놓아주어 서로 만나 회포를 풀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칠석 무렵이면 까마귀와 까치인 오작(烏鵲)이 하늘로 올라가 오작교를 놓아주어 만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다리를 놓기 위해 돌을 머리에 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때문에 머리의 털이 다 빠진다는 것이다. 칠석 무렵에는 근처에서 까마귀와 까치를 볼 수 없다는데 혹 있다면 병들어 약한 놈뿐이라고 한다. 이 속담은 달리 표현하여 "칠월 칠석날 까치 대머리 같다."라고 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강재철(姜在哲)

백중(百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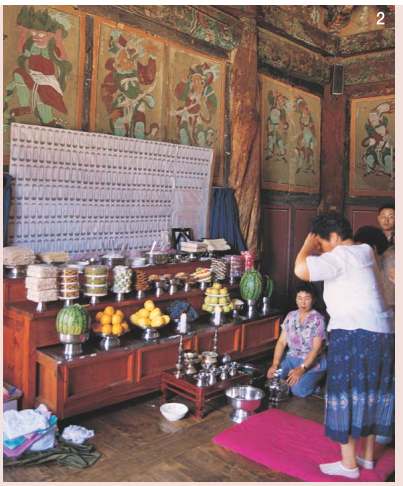
정의 음력 7월 15일에 해당하며 세벌김매기가 끝난 후 여름철 농한기에 휴식을 취하는 날. 농민들의 여름철 축제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고,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백중놀이를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던 농민명절을 뜻한다.

이칭 백중(百中)의 이칭으로는 백중(白中), 백중(百衆), 백종(百種), 백종절(百種節), 중원일(中元日), 망혼일(亡魂日) 등이 있다. 민간에서는 백중이란 말로 통일되어 있다. 백중은 원래 불가에서 부처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일을 합한 4대 명절에 더하여 우란분재(盂蘭盆齋)가 행해지는 5대 명절에 해당된다. 우란분(盂蘭盆)은 범어의 'Ullambana'를 음사(音寫)한 오람파라(烏籃婆拏)가 와전된 것이다.

내용 백중에 관한 기록들은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김육(金堉)의 『송도지(松都志)』에 7월 15일을 백종이라 부르고 있다. 남녀가 주식(酒食)을 차려놓고 삼혼(三魂)을 부르며 우란분재의 고풍(古風)이라 하였다. 『송남잡지(松南雜識)』에서는 '百種·白中'을 병기하였다. 『규합총서(閨閤叢書)』, 『이운지(怡雲志)』,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百種'으로만 명기된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는, 7월 15일은 속칭 백종이라 부르며 백종에는 중들이 백 가지의 화과(花菓)를 갖추어서 우란분을 설치하고 불공한다고 했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백종절이라고 하여, 중원일에 백종의 꽃과 과일을 부처님께 공양하며 복을 빌었으므로 그날의 이름을 백종이라 붙였다고 하였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는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를 그대로 인용하여 백종일이라 불렀다. 사찰에서 행하는 우란분회와 달리 민간에서는 망혼일이라 하여 여염집에서 중원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을 갖추어 죽은 어버이 혼을 부른다고 하였다. 한편 충청도 풍속에 15일에는 노소가 저자로 나와 마시고 먹으며 즐길 뿐더러 씨름놀이도 하고, 경사대부 집에서 초하룻날이나 보름날에 올벼[早生稻]를 사당에 천신한다고도 했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도 백종절이라고 하였으며, 서울 사람들은 성찬을 차려서 산에 올라가 가무를 즐겼다고 하였다. 백종은 백 가지 맛을 이르는 것이며,


1


2


3


4


5


6

〈백중〉
1~3 우란분재
충남 논산시 양촌면 쌍계사 황헌만

4 연산백중놀이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황헌만

5 장원례
경북 예천 서헌강

6 밀양백중놀이
경남 밀양 국립문화재연구소

혹은 백 가지 곡식의 씨를 중원에 진열하였으므로 백종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는 황당무계한 설이라고도 하였다.

20세기 초 장지연의 『조선세시기(朝鮮歲時記)』에서 속칭 백종절이라 하고 백중이라 하였다. 도시의 사녀(士女)가 주찬을 성대하게 차리고 산에 올라가 가무로 놀이를 하니 그 풍속이 신라와 고려부터의 풍속이라고 하였다. 숭불(崇佛)로 인해 우란분공을 위하여 백종의 채소와 과일을 구비하였던 탓으로 백종이란 말이 생겼다고도 하고 혹은 백곡지종(百穀之種)에서 나왔다고는 하나 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백중에는 민간에서 망혼제(亡魂祭)를 지내고, 절에서는 스님들이 석 달 동안의 하안거(夏安居)를 끝내는 날이기도 하다. 즉 우란분재와 백중은 조상영혼의 천도, 참회와 중생제도, 나아가서 일꾼들이 즐기는 농촌축제의 날이 된다.

백중은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다. 백중놀이는 두레먹기에서 두드러진다. 백중에 열리는 두레먹기야말로 두레일꾼들이 모처럼 노동의 피로를 풀어내는 축제였다. 백중놀이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며, 호미걸이, 호미씻이, 술멕이, 풋굿, 질먹기, 진서턱(진세턱) 등이 대표적이다. 여름철 우물고사도 중요한 행사였는데 지역에 따라서 백중과 칠석에 혼재되어 나타나므로 칠석놀이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백중날에 머슴들에게는 백중빔이라고 하여 새 옷을 장만해 주었으며, 모처럼의 휴가를 주어 백중장에서 즐기도록 하였다.

두레에 들어가야 할 청소년은 진서라고 부르며 두레에 내게 되는 술은 진서술이라고 부른다. 진서턱을 내는 시기는 7월 백중 무렵에 곁들여서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진서턱은 전국적인 명칭은 아니다. 전라도에서는 모두 진서턱이 확인된다. 충청도에서는 금강을 기점으로 부여군 남쪽에서 일부 확인이 된다. 이로써 남도에 국한된 지역 명칭임을 알 수 있다. 꽁배술 풍습은 주로 충청도에서 많이 쓰인다. 꽁배란 두레에서 심부름하는 청소년층을 일컬으며, 꽁배가 연령이 차서 두레성원이 되고자 할 때, 백중날 동이로 술을 내는 꽁배술을 거쳐 허락을 얻는다.

호남이나 호서지방은 들돌들기, 돌독들기, 등돌들기, 진쇠돌들기, 당산돌들기가 많으며 경상도에서는 힘발림이라는 명칭도 쓰인다. 들돌을 두는 위치는 대개 여름철 노동의 피로와 더위를 피하는 휴식 장소이기도 한 당수나무 밑이다. 들돌의 주된 기능은 역시 7월 백중에 마을 청장년들이 시원한 나무 밑에 모여 힘을 겨뤄 장사를 뽑는 것이다. 경남 밀양 감천의 백중놀이에서 놀아지는 힘발림은 그해 가장 일을 부지런히 한 머슴들 중에서 씨름과 더불어 무거운 돌을 들도록 하여 힘센 사람을 뽑아 좌상과 우상으로 삼았다. 한 해 농사짓기 전 두레농군을 입사시키는데도 쓰였다.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청소년은 힘발림을 통과해야 했다. 물론 별도로 꼼배기참이라고 하여 어른들에게 술을 올려야 했다. 전북 고창군 상평에서는 품앗이를 하려면 백중날 들독(들돌)을 들어서 품앗이를 결정했다. 들독을 못 들면 장정품앗이를 주지 않았다.

경기도 일원에서는 호미걸이가 많이 쓰였다. 호미걸이는 호미나 악기를 낭대[農旗]의 버레줄에 주렁주렁 걸어두는 의례다. 삼남에 호미걸이 명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기 지역에 고유한 명칭으로 보인다. 8월 초순, 칠석, 백중 등 형편에 맞게 이루어졌다. 장소는 시원한 정자나무 아래나 마을이 바라다보이는 탁 트인 산중턱이 많이 쓰였다. 백중놀이는 장터에서 별도로 열렸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백중놀이란 머슴들이 장터로 가서 노는 놀이를 뜻하였다. 백중날은 머슴들이 주동이 되어 장터에 가서 씨름대회에 참가하였다. 상인들은 시장 경기를 부추기는 방법의 하나로 씨름대회를 열었으며, 음식장사, 술장사 등 난장(亂場)이 섰다. 머슴들은 씨름에 이기면 송아지를 끌고서 기세를 올리면서 자기 마을로 돌아왔다. 백중놀이에서 머슴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충청도에서는 백중보다 칠석날 두레먹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충청 서해안과 내륙 모두에 걸쳐서 칠석이 중시되었다. 반면에 백중은 아예 머슴날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백중날 머슴에게 돈도 주고 무명으로 여름 한복을 한 벌씩 해 주었기에 새 옷 입고 장에 나가서 술도 마시고 하루를 즐겼다. 칠석날 두레먹기가 성했다는 것일 뿐, 획일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전라도에서는 술멕이와 풍장놀이, 장원례 등으로

부르는데 술멕이는 글자 그대로 '술먹는날'이란 뜻이다. 충남과 전북의 경계선인 금강을 기점으로 술멕이의 경계선이 그어진다. 따라서 남도에서 쓰인 풍습이 북상하다가 금강 유역에서 멈춘 것으로 보인다. 술멕이날은 대개 칠월 칠석이나 백중날이었다. 날짜 선택에 어떤 일정한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술멕이날은 마지막 김매기날에 행하는 만두레 행사와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술멕이날은 마을풍물패가 동원되어 당산굿을 쳤으며,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동네잔치를 벌였다. 술멕이날이 다가오면 사전에 도로닦기, 잡초제거 같은 대청소도 이루어졌다.

풋굿은 경상도 말로 풋구, 푸꾸, 풋꾸라고 부른다. 문헌에 초연(草宴)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나, 일반 민중들이 쓰던 말은 아니다. 풋굿은 세벌논매기가 끝났을 때 백중에 놀아진다. 농민층이 많이 참가하는 행사이나 지주가 많은 양반 출신들의 동성촌락인 경우에는 머슴잔치라는 인상이 짙다. 일제강점기에 송석하(宋錫夏)는 경상도지방의 '나다리'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풋굿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질먹기에서 질은 김매기의 '김'에서 나온 말이다. 김매기를 끝내고서 잔치를 먹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여느 지방과 마찬가지로 음력 7월 15일 백중날 질을 먹는다. 마을의 시원한 솔밭이나 성황당 마당 같은 곳에 모여서 김매기 노동의 결산을 먼저 한다. 이날은 '머슴의 생일'이라고 하여 머슴살이하는 고용인들에게 주인집에서 상을 차려낸다. 하루 종일 먹고 마시면서 피로를 풀어내는 방식은 다른 지방과 다를 게 없다.

의의 농민들에게는 일년에 두 차례 거대한 농민축제가 존재했다. 겨울철 농한기인 정월대보름과 여름철 농한기인 7월 백중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보름과 달리 7월 백중은 두레의 소멸과 더불어 거의 잊혀져가는 풍습이 되었으며, 밀양백중놀이 등에 그 잔재가 남아 있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閨閣叢書, 東國歲時記, 松南雜識, 松都志, 燃藜室記述, 洌陽歲時記, 慵齋叢話, 怡雲志, 玄應音義, 荊楚歲時記, 朝鮮歲時記(洪錫謨 外 · 李錫浩 譯註, 東文選, 1991), 한국의 두레1(주강현, 집문당, 1997), 한국의 두레2(주강현, 집문당, 1997).

필자 | 주강현(朱剛玄)

망혼일(亡魂日)

정의 조상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술과 햇과일을 정성껏 차려놓고 천신(薦新)을 한 데서 비롯된 날로 음력 칠월 보름인 백중(百中)의 다른 이름.

유래 백 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은 데에서 유래된 백종을 '망혼일'이라고도 하는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칠월 중원조(七月中元條)에 "우리나라 풍속에 중원을 망혼일이라고도 한다. 대개 여염집 사람들은 이날 저녁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을 차려놓고 죽은 어버이의 혼을 부른다."라고 하였다. 또 이안눌(李安訥)의 『동악선생집(東岳先生集)』 권17 「동천록(東遷錄)」 7월 15일 '야좌대월(夜坐對月)' 시에 "시장에 채소, 과일이 지천으로 있는 것을 생각하니 서울 사람들이 도처에서 망혼제를 지내는구나."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아 햇곡식이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조상에게 천신을 한데서 '망혼일'이란 말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 백 가지 곡식을 모두 갖춘 시기라 하여 붙여진 백중(百中)은 음력 7월 15일로 백종, 중원, 망혼일이라고도 한다. 이 무렵은 과실(果實)과 소채(蔬菜)가 많이 나오는 계절로, 상원(음력 1월 15일), 하원(음력 10월 15일)과 함께 삼원(三元)이라 하여 초제(醮祭)를 지내는 풍속이 있다. 특히 이날을 망혼일이라고 한 것은 조상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술과 햇과일을 정성껏 차려놓고 천신(薦新)을 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불가(佛家)에서도 우란분회(盂蘭盆會)를 열어 공양을 하는 풍속이 있다. 이처럼 백중날에 행해지는 행사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농가에서는 백중날이 되면 머슴을 하루 쉬게 하고 돈을 주어 시장에 가서 술과 음식을 사먹고 물건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그래서 이날 열리는 장을 백중장(百中場)이라 한다. 또한 이날은 그해에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소에 태워 마을을 돌며 위로하고 노는 풍습이 있다. 이것은 바쁜 농사를 끝내고 하는 농군들의 잔치로서 이것을 '호미씻이'라고 한다.

백중의 다른 이름인 망혼일은 힘든 농사를 다 마치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나오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조상에게 천신하면서 하루를 즐기던 농민들의 축제에서 비롯된 천신의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東岳先生集, 韓國民俗大觀4-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학연사, 1983), 韓國의 歲時風俗(金星元, 明文堂, 19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人의 敎育歲時風俗(孫仁銖, 文音社, 1991), 韓國의 歲時風俗 I(국립민속박물관, 1997).

필자 | 이관호(李官浩)

머슴의 생일 (-生日)

정의 백중을 전후하여 논의 김매기가 끝나면 그해 농사를 짓느라 고생한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백중날 농군 혹은 머슴들에게 새 옷을 해주고 돈을 주며 놀리기에 부르던 백중(百中)의 이칭. 머슴의 생일 혹은 머슴날이라고 하며 전북 전주에서는 머슴명일, 경남 함안에서는 상놈명절이라고도 했다. 전북 전주와 진안에서는 머슴날을 백중날로 고정하지 않고, 칠석날을 택하거나 혹은 세벌논매기가 마지막인 곳은 세벌논을 맨 후, 네벌논매기가 마지막인 곳은 맘 논매기(마지막 논매기) 후에 머슴날 행사를 한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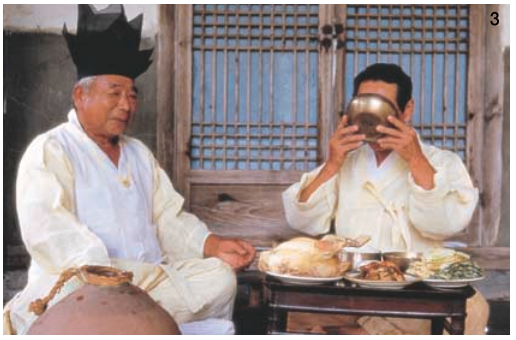
내용 머슴을 놀리는 방법에는 머슴들에게 새 옷과 술, 음식, 돈 등을 주고 하루를 편히 놀게 하거나, 음식을 장만하고 술을 내어 한턱 잘 먹게 하고 풍물을 치고 놀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 전자의 경우, 머슴들은 백중날 특별히 장만한 아침상을 받고 새 옷을 입은 후 백중돈을 받아 백중장에 가서 씨름판, 농악경연, 그네대회 같은 난장판에서 놀이를 하거나 구경을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이와 같은 일은 몇 군데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해졌는데, 함경도에서는 일꾼들에게 삼베옷을 해주고 잘 먹고 놀게 했다고 한다.

후자의 경우는 마을에서 행하는 상머슴 뽑기와 같은 행사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행사는 특히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행해진 듯하다. 이 놀이는 마을 형편에 따라 적당한 날을 택하여 농사를 잘 지은 집의 머슴을 소에 태우거나 가마 혹은 괭이자루 등에 태운 후 위로하며 흥겹게 노는 것이다.

지역사례 충북 괴산 운곡리에서는 머슴과 농사꾼들이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한 멍석을 팔고, 상머슴을 뽑아 관을 씌워 황소에 태우고 풍장을 앞세우며


1


2


3


4


5

〈머슴의 생일〉
1 상머슴 대접하기
2 상머슴 술대접
3 술 마시는 상머슴
4 상머슴에게 옷을 줌
5 어울려 노는 모습
경북 예천 서헌강

동네를 순회하면서 돈과 곡식을 모아 한바탕 놀았다. 거둔 돈은 상머슴을 주었는데, 간혹 상머슴이 노총각이거나 홀아비이면, 어른들이 상의하여 여자를 선택해 결혼을 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백중날 상머슴 장가간다"라는 옛말도 생겼다. 전북 진안에서도 사다리에 가마니를 펴고 머슴을 태워 동네를 돌며 놀았는데, 이를 술메기라 했다. 익산에서는 이를 장원놀이, 장원질 또는 소 태우는 놀이라고 했다. 전남에서도 백중을 즈음하여 머슴을 소 등에 태우고 마을을 돌며 노는 장원례 등이 행해졌는데, 진도에서는 이와 비슷한 행사를 길꼬냉이라고 했다.

경남 밀양에서는 백중날 놀았던 놀이를 꼼배기 참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신제, 작두말타기, 춤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작두말타기는 농군들이 뽑은 상머슴을 소의 등에 거꾸로 태우고 작은 삿갓을 씌워 동네의 골목을 도는 것이다. 지금은 소대신 작두말을 탄다. 남해에서는 세 번째 논매기를 한 후 머슴을 놀리는데, 머슴들끼리 농사를 잘 지은 이를 뽑아 괭이자루에 태우고 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주인집으로 들어오면 주인은 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데, 이를 괭이자리탄다라고 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江原道 篇-(文化財管理局, 1977),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韓國의 歲時風俗 II(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이수자(李秀子)

백종(白踵)

정의 발꿈치가 하얗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형성된 말로 백중(百中)의 이칭. 흰 백(白), 발꿈치 종(踵) 자로 백중 무렵이 되면 더 이상 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발뒤꿈치를 하얗게 씻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래 백중을 백종(白踵)이라고도 했다는 것은 조재삼(趙在三)이 철종 6년(1855)에 저술한 『송남잡지(松南雜識)』 세시류(歲時類)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원 백종조(中元 百種條) 밑에 작은 글씨로 "승가에서는 이날 모두 발을 씻으므로 백종이라 했다(僧家是日皆洗足故謂白踵)."라고 소개하고 있다. 최남선(崔南善)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


백종(白踵)
경북 예천 서헌강

에서 『송남잡지』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백중을 백종(白踵)이라고도 쓴다고 하였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백중을 "백종(百種)이라 하고 망친(亡親)의 영혼을 제사한다."라고 하여 조상을 기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농업생산 활동과 관련 있는 날임을 알게 한다. 민간 어원으로는 호미씻이를 하고 나면 발뒤꿈치가 하얗게 되므로 백종(白踵)이라고 하고, 백 가지 씨앗 종자를 갖추었다 하여 백종(百種)이라 하였다.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북편」에는 전주에서 채록된 자료로 백종은 '머슴명일'이라고 하여, 논두렁을 전부 깎아서 깨끗이 만들어놓고, 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발뒤꿈치를 하얗게 씻는다고 해서 백종(白踵)이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벼농사를 짓는 경우, 사람들은 7월 백중 때까지 논에서 맨발로 세벌논매기를 하는 등 힘든 일 때문에 발바닥이 거의 하얗게 되었다는 뜻에서 붙여진 말인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문헌 | 松南雜識, 慵齋叢話,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朝鮮常識問答(崔南善, 三星文化財團, 1972), 韓國民俗大觀4- 歲 時風俗 · 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필자 | 이수자(李秀子)

1 수박
2 포도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황현만


1


2

백종(百種)

정의 여물어가는 백 가지의 꽃과 과일을 일컫는 말로 농민의 명절인 백중(百中)의 이칭. 백곡지종(百穀之種)의 줄임말로 상정된다. 음력 7월 15일이 되면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서 만물이 성숙하게 된다.

내용 『송도지(松都志)』, 『규합총서(閨閤叢書)』, 『이운지(怡雲志)』, 『용재총화(慵齋叢話)』,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에서 "7월 15일을 백종이라고 불렀다(七月十五日俗呼爲百種)."라고 하였고, 조수삼(趙秀三)이 편찬한 『추재집(秋齋集)』 권8 「세시기(歲時記)」에도 "이날을 백종이라 불렀으며, 백곡이 열매를 맺으며 유두(流頭)와 같다(是日謂之百種 言百穀皆結實也 與流頭同)."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閨閤叢書, 松都志, 燃藜室記述, 慵齋叢話, 怡雲志, 秋齋集, 한국의 두레1(주강현, 집문당, 1997), 한국의 두레2(주강현, 집문당, 1997).

필자 | 주강현(朱剛玄)

중원(中元)

정의 음력 7월 15일인 백중을 달리 부르는 말. 도교(道敎)에서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일년에 세 번 인간들의 선과 악을 매기는데 그 시기를 '원(元)'이라고 한다. 그 첫째가 정월 15일로 상원(上元)이라고 하고, 둘째가 7월 15일로 중원(中元), 셋째가 10월 15일로 하원(下元)이라고 한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경도잡지(京都雜志)』 등에는 신라(新羅) 시대에 7월 16일부터 육부(六部)의 여자들이 길쌈을 시작하였다고 하며, 이때 온갖 놀이와 가무를 행하여 백종절(百種節)이라 하였다는 설과 고려시대에 불교 숭상으로 우란분(盂蘭盆)의 공양을 모방하여 중원일에 백종(百種)의 과일과 꽃을 바치며 복을 빌었던 것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표기도 백종일(百種日), 백중일(白衆日), 백중일(百中日) 등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을 망혼일(亡魂日)이라 하여 일반 가정에서는 저녁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밥 등을 차려 놓고 돌아가신 어버이의 혼을 부르는 제(祭)를 지냈다고도 하며, 일부 지방에서는 남녀노소가 거리에 나와 마시고 먹는 것으로 낙(樂)을 삼으며 씨름놀이, 농악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과 관련된 풍속으로 '머슴사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백중날 상머슴 장가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청나라 때에 지은 『제경세시기승(帝京歲時記勝)』 중원조(中元條)에 "중원(中元)에 무덤을 깨끗이 단장하고 제사를 지내니…… 도관과 사원에서는



우란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국립민속박물관

우란회(盂蘭會)를 설치한다(中元祭掃……庵觀寺院設盂蘭會).”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날을 우란분절(盂蘭盆節), 귀절(鬼節), 칠월반(七月半) 등으로 부르며, 민간에서는 지전(紙錢)을 길가에서 태워 저승의 부모와 조상들이 사용할 돈으로 드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사고혼(祀孤魂)’이라 부른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東國歲時記, 顔氏家訓, 洌陽歲時記, 節令的故事, 帝京歲時記勝, 中文大辭典1~10(中華學術院, 1962), 中國民俗辭典(鄭傳寅 主編, 湖北辭書出版社, 1987), 中國大百科全書-宗教篇-(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8), 中國風俗辭典(上海辭栖出版社, 1990),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임동석(林東錫)

호미씻는날

정의 백중이 되면 여름 농사가 거의 끝나 호미를 다 썼으므로 씻어서 치워둔다는 의미에서 부르는 백중(百中)의 이칭. 지방에 따라 약간 다르게 말하기도 하는데, 황해도 지역에서는 호미씻이, 호미걸이, 파접, 파결이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 강원도에서는 써레를 씻는다 하여 써레씻이라고도 한다. 충북에서는 호미씨시, 전북에서는 호미씻기연, 농현, 경북에서는 초연(草宴), 풋굿이라고도 했으며, 경남에서는 이를 세사연, 꼰비기먹인다, 괭이발이, 써리씻금, 호맹이씻기라고도 했다. 보편적으로는 호미씻기, 호미씻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한자어로는 세서연(洗鋤宴)이라 한다. 백중에는 농사일을 마치고 머슴들을 놀게 했기에 호미씻는 날은 간혹 머슴날, 혹은 머슴의 생일로 불리기도 한다.

내용 속담에 “어정 7월 동동 8월”이란 말이 있듯, 7월 백중을 전후하여 농촌에서는 밭이나 논의 김매기가 거의 끝나고 비교적 한가한 시기여서 잠시 농사일을 쉰다. 이때를 기하여 각 지역에서는 일정한 날을 잡아 집집마다 술, 떡, 적과 같은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안에서 한바탕 놀거나 산이나 계곡을 찾아가서 먹고 마시며 풍물을 치고 춤추며 하루를 즐겁게 놀고 호미를 씻어 치운다. 그래서 백중을 호미씻는 날이라고도 하게 되었다.

경기도와 충청 지역에서는 7월 15일을 전후하여 마을 형편에 따라 적당한 날을 택하여, 농사를 잘 지은 집의 머슴을 소에 태우거나 가마에 태우고 위로하며 흥겹게 놀고, 호미씻이를 행하였다. 전북에서도 백중날 호미씻기연을 하거나 술메기 등을 행하고, 샘도 치고 줄다리기나 농악을 치며 씨름판도 벌였다.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는 백중날 특별한 행사가 없었으나, 영서 지역에서는 7월에 논밭의 김을 다매고 호미씻이를 했다. 경북의 금릉(金陵), 상주(尙州), 문경(聞慶)에서는 칠월 칠석(七夕)을 ‘시세일’





1~2 호미씻이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송봉화

이라 하여 농사일을 다 해놓고 호미를 씻는 날이라 했다.

의의 백중의 호미씻이 행사는 일종의 농사 피로연이라 할 수 있는데, 봄부터 여름까지 농사를 짓느라 힘들었던 농부 혹은 머슴들이 더위와 피곤을 풀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적 삶의 현장으로서 혹은 마을축제로서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韓國의 歲時風俗 II(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이수자(李秀子)

축수한날

정의 햇곡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로 백중(百中)의 이칭. 경상북도 고령에서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백중은 옛날 어느 왕이 햇곡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날을 축수한날이라고 했다고 한다.

내용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신화라 할 수 있는 세경본풀이에는 백중이 우리 민족의 농경기원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백중이 농경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자청비'라는 여신이 하늘에서 오곡종자를 받아 음력 칠월 열나흗날에 지상에 전해주었는데, 이로써 이날을 백중대제일(百中大祭日)이라 하게 되었다.

백중과 관련하여 행해졌던 행사에는 실제로 농경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많다. 경상도에서는 호미씻이를 하는 경우 농신(農神), 답신(沓神), 용신(龍神)에게 제(祭)를 올리면서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고, 호남에서는 이날을 농신이 수확량을 정하는 날이라 하여 여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백중이 햇곡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기를 축수했던 날이었다는 내용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백중의 기원 및 유래가 햇곡 혹은 농경(農耕), 농신(農神)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백중의 기원과 성격(이수자,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1993).

필자 | 이수자(李秀子)

꼼비기

☞ 호미씻이[洗鋤宴, 洗鋤會]: 가을편

마불림제(-祭)

정의 제주도 중산간 지역 마을의 본향당(本鄕堂)에서 7월에 하는 무속제의. 대부분 7월 백중 무렵에 하는데, 마(곰팡이)를 날려 보내는 제의라는 의미가 있고, 또 농사와 축산의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무속적 제사로서 특히 우마(牛馬)의 번성(繁盛)을 위해 축산신(畜産神)인 '정수남'에게 올리는 제의라는 의미도 있다.

유래 백중날 마불림제가 행해지게 된 것은 농경과 목축의 원리를 풀이한 농경목축신 세경(世耕)의 신화, '세경본풀이'에서 유래한다. 세경본풀이에 등장하는 신격에는 상세경(문도령), 중세경(자청비), 하세경(정수남)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여신인 자청비의 일대기이며, 자청비와 문도령의 연애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자정성을 통해 태어난 여주인공 자청비는 성장한 후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을 보고 반하여 남장을 하고 함께 서당에 가서 삼 년을 같이 공부하며 지낸다. 하늘에서 결혼을 시키기 위해 문도령을 돌아오게 하자, 자청비는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문도령과 함께 사랑을 나눈 후 이별을 한다. 지상에 홀로 남은 자청비는 집안 머슴 정수남이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자 그를 죽이게 되는데 부모는 이 일로 인하여 자청비를 집에서 쫓아낸다. 온갖 고생 끝에 자청비는 하늘에 올라가 문도령과 결혼을 한다.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변란이 일어나자 자청비가 나서서 진압해주고 그 공으로 오곡 종자와 열두시만국을 얻어 문도령과 함께 음력 7월 14일 지상으로 내려와 농경신으로 좌정한다. 마침 자청비에게 부모의 소식을 전해준 정수남이는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자청비의 명에 따라 목자를 거느린 목축신으로 좌정하여 마불림제를 얻어먹고 살게 된다.

내용 마불림제의 계절적인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주도 사람들은 마불림제를 가리켜 마(곰팡이)를 날려 보내는 제의로 설명하기도 한다. '마'란 장마[霖] 또는 곰팡이의 뜻이고 '불림'이란 바람에 날려 보낸다는 뜻이다. 마불림제는 곧 주민들이 당신(堂神)에게













〈마불림제〉
1 제물 진설
2 제물
3 단골들
4 제물을 들고 당으로 가는 단골들
5 심방의 굿
6 월정리 본향당
7 소지 올리는 단골
8 굿을 하는 심방
9 헌식
10 헌식
11 헌식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국립민속박물관

헌납한 신의(神衣)의 곰팡이를 장마 후에 바람에 쏘여 날리는 제의를 이른다.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 지역에서는 백중날 본향당에서 당신(堂神)인 금백주할망을 모시고 백중굿을 할 때 이 여신의 옷을 꺼내어 바람에 말리면서 이를 마불림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불림제는 마을 수호신인 본향 당신에게 일년에 세 번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는 공동체 제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 당제에는 음력 정월에 하는 신과세제(新過歲祭), 2월의 영등제 혹은 잠수굿, 7월의 마불림제와 백중제, 10월의 시만곡대제[十萬穀大祭]가 있다. 다른 한편, 마불림은 장마를 풀어낸다는 뜻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조를 파종하고 나서 당분간 비가 오지 않아야 모종이 잘 발아한다. 그래서 파종한 후 비가 오지 않아서 모종의 성장 상태가 좋으면 '마가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마걷이', 곧 장마가 걷혔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마불림제는 장마를 풀어내어서 곡식의 풍등(豊登)을 비는 일기조절의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濟州道歲時風俗-(秦聖麒, 敎學社, 1975), 濟州島巫俗資料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濟州의 民俗 I(濟州文化資料叢書1, 濟州道, 1993), 제주도 무속신화(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의 마불림제가 백중과 상관성을 갖게 된 원인과 그 의의(이수자, 역사민속학19,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필자 | 김성례(金成禮)

망혼제(亡魂祭)

⇨ 망혼일(亡魂日): 가을편

백중불공(百中佛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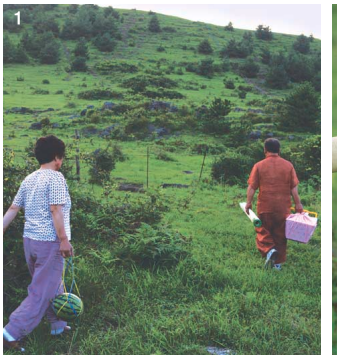
⇨ 초파일불공[初八日佛供]: 여름편

백중제(百中祭)

정의 제주도 지역에서 7월 백중에 우마번성(牛馬繁盛)을 기원하며 지내는 목축의례. 테우리코ᄉᆞ 혹은 쉐멩질이라 하여 마소를 방목하는 목동들의 명절과 겸하고 있다. 목동들의 제의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유래 "오곡열두시만국[五穀十二新萬穀]을 마련하던 상세경 문도령, 중세경 자청비를 마련하고, 하세경 정이엇인 정수남이 칠월 마불림으로 받아먹기 마련허고, 일이삼사오륙수장[一二三四五六所場] 테우리를 마련하여 자부일월상세경이 되옵니다."라고 구송하는 세경본풀이에서 세경은 일차적으로 농경과 목축을 하는 땅 혹은 대지를 뜻한다. 그러나 제주도 굿의 청신의례인 초감제(初監祭)에서 "사람들이 생전에 먹고 입는 것도 죽어 묻히는 것도 모두 세경의 덕"이라고 구송하는 무가의 내용처럼 세경의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인 동시에 신격이다.

내용 농경기원신화에 해당하는 세경본풀이에는 농경신에 대한 본풀이 속에 목축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목축신이 농경신과 함께 제의를 받는 것은 한 가정에서 농경과 목축을 함께 행하는


1


2


6

제주도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관습의 반영이다. 특히 우마를 관장하는 목축신인 정수남이 자청비네 집의 남종으로 설정된 것은 농경을 위해 마소가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하며, 이들의 주종 관계는 목축을 농경보다 부차적으로 인식하는 문화적 관념을 반영한다. 또한 마불림제의 명칭에서 말이 강조되는 이유는 제주도의 땅이 화산암이라 흙이 적어 소가 밭을 갈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말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하는 생태적 조건 때문이다.

마불림제의 또 다른 명칭인 '테우리코ᄉᆞ'의 원래 형태는 세경본풀이 내용 안에 묘사된 '말머리코ᄉᆞ'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화 속에서 자청비는 "밥 아홉 동이, 국 아홉 동이, 술 아홉 동이를 차려놓고, 말머리 수건을 석자 오치 마련하고, 돼지머리도 차려놓는" 말머리코ᄉᆞ를 지내는데 축산신(畜産神) 정수남이 혼자 다 먹어치운다. 신화 내용은 제주도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말머리코ᄉᆞ에 제물로 오르는 소, 말, 돼지는 실제로 제주도의 주요 가축이다. 돼지는 집에서 사육하지만 소와 말은 마을의 공동 목장에 풀어놓고 공동으로 돌본다. 일년 내내 집 밖에 풀어놓고 방목하는 종년방목(終年放牧)이 있고, 청명(淸明)부터 겨울 전까지 공동목장에서 방목하고 겨울 동안은 개인의 집에서 기르는 계절적 방목(放牧)이 있다. 종년방목의 경우 마소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데, 이때 마소를 돌보는 사람을 '테우리'라고 한다.

제주도의 중산간 마을에서는 대부분 종년방목과 계절적 방목의 절충 방식을 따르는데, 마을의 공동목장은 조합을 구성하여 목장을 공동으로 소유 관리한다. 마소의 소유와 관리가 개인과 마을로 이원화된 것처럼 테우리코ᄉᆞ도 개인과 마을 차원에서 따로 이루어진다. '쉐멩질'이라 하여 우마를 키우는 집안에서 테우리코ᄉᆞ 또는 백중제를 지내고 축산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에서는 공동으로 제의를 지내는데,

〈백중제〉
1 제물 운반
2 제물 운반
3 제물 진설
4 헌작
5 진설 후 자정까지 기다림
6 제물을 조금씩 떼어내 담음
7 입으로 술 뿌리기
8 입으로 술 뿌리기
9 헌식
10 음복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국립민속박물관


3


4


5


7


8


9


10

각 가정과 마을에서 한날한시에 제를 치른다. 제주도 우도(牛島)는 지세가 소가 누운 형국이라 하여 소섬이라고 하며, 우도의 동천진동에서는 이 백중제를 아주 크게 하였다. 소를 기르는 집안에서 계원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돼지나 닭을 잡고 모두 모여 잔치를 하며 논다. 또한 각 집안에서는 술과 메를 마련하여 소를 방목하고 있는 등대 부근에 있는 '섬머리'에 가서 고사를 지낸다. 동천진동의 섬머리는 목장지였고 동천진동에서는 목장제(牧場祭) 또는 장제(場祭)를 따로 지내기도 하였다. 목장지의 소유권이 육지 사람에게 넘어간 뒤부터 장제를 지내지 않게 되었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濟州道歲時風俗-(秦聖麒, 敎學社, 1975), 濟州島巫俗資料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濟州의 民俗 I(濟州文化資料叢書1, 濟州道, 1993),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의 마불림제가 백중과 상관성을 갖게 된 원인과 그 의의(이수자, 역사민속학19,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필자 | 김성례(金成禮)

심방 백중제

정의 음력 7월 15일 백중제일에 제주도 심방의 집에서 무조신(巫祖神)을 모신 당주(堂住)를 지키는 세경신을 기리는 제의.

내용 심방의 집에는 초공본풀이에 나오는 무조신인 삼시왕을 모신 연양당주[靈蹇堂住]가 있고 이곳을 무가 초감제(初監祭)에서는 '직부일월 상세경'이라 칭하며, 세경신이 이곳으로 하강하기를 기원한다. 제주도 굿의 청신의례인 초감제에서 "사람들이 생전에 먹고 입는 것도 죽어 묻히는 것도 모두 세경의 덕"이라고 구송하는 무가의 내용처럼 세경(世耕)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인 동시에 신격을 의미한다. 당주는 수호신을 모신 곳이기도 하지만 수호신을 지칭한다는 의미에서 당주로서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다. 심방은 7월 백중제일을 맞이하여 세경본풀이를 구송하며 그동안 사용한 신복(神服)에 생긴 곰팡이를 바람에 쏘여 날리는 제를 당주 앞에서 간단하게 지낸다.

참고문헌 | 濟州島巫俗資料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필자 | 김성례(金成禮)

여제(厲祭)

⇨ 여제(厲祭): 정월편

올벼천신

⇨ 올개심니: 가을편

용신제(龍神祭)

⇨ 농신제(農神祭): 여름편

우란분재(盂蘭盆齋)

정의 죽은 사람이 사후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후손들이 음식을 마련하여 승려들에게 공양하는 것. 우란분재(盂蘭盆齋)는 흔히 백중이라 부르는 음력 7월 15일에 사찰에서 거행하는 불교 행사이다. 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란분절(盂蘭盆節)이라고도 한다. 우란분이란 산스크리트어 'ullambana'에서 나온 말인데 'avalambana'가 전화(轉化)하여 생긴 말로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倒懸]는 뜻이다.

유래 우란분재는 불교 경전인 『우란분경(盂蘭盆經)』과 『목련경(目連經)』에서 비롯되었다. 『우란분경』에 의하면, 부처의 십대 제자 중에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인 목련(目連)은 어머니가 선행을 닦지 못해 아귀도에 떨어져 배가 고파 피골이 상접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목련이 음식을 가져다주었으나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새까맣게 타서 먹을 수가 없었다. 목련이 비통해하며 그 원인을 물으니 부처는 죄업의 뿌리가 너무 깊어 그렇게 된 것이므로, 시방의 여러 승려들의 위신력(威神力)만이 구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 모든 승려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점검하는 자자(自恣)를 행하는 7월 15일에, 과거의 7세 부모와 현세의 부모 중에 재앙에 빠진 자가 있으면 밥을 비롯한 백 가지 음식과 다섯 가지 과일을 우란분(盂蘭盆)에 담고 향과 촛불을 켜서 시방의 승려들에게 공양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수행하고 교화하는 모든 승려들이 이 공양을 받으면, 현재의 부모가 무병장수하며 복락을 누리고, 돌아가신 조상은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나 끝없는 복락을 누린다고 하였다.

『목련경』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목련의 모친이 살아서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고생하는 것을, 목련이 대승경전을 외우고 우란분재를 베풀어 지옥, 아귀, 축생으로부터 차례대로 구제하여 천상에 태어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7월 15일인 자자일(自恣日)에 행하는 것은, 수행 정진하는 하안거(夏安居) 석 달 동안 보고 듣고 의심하던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 잘못을 고백하여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이어서 승려들에게 공덕을 올리기 좋은 날이기 때문이다.

내용 7월 보름은 흔히 백중이라고 하는데, 백종(百種), 중원(中元) 또는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한다. 백중날 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큰 행사가 열렸다. 불교의 4대 명절을 보통 불탄절(佛誕節), 출가절, 성도절, 열반절로 꼽지만, 이에 못지않게 성행한 것이 우란분절이었다. 불교가 동아시아 문화권에 들어와 유교의 효(孝) 윤리와 충돌하면서 효를 실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불교 배척의 중요한 논거가 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불교계에서 설정한 우란분재는 돌아간 부모가 혹 좋지 못한 과보를 받으면 후손들이 이를 천도하여 천상에 태어나도록 한다고 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우란분절은 초파일의 불탄절과 함께 불교계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인 양나라 무제 때 동태사에서 처음으로 우란분재를 지낸 이후 역대 제왕들이 우란분재를 설하였다. 이 행사는 7월 15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행해졌고, 당나라 중기 이후에는 민속화된 행사로 정착되어 승려와 일반인들이 함께 우란분재를 시행하고 공양을 올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우란분재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고려 이전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일본에서도 이 재를 신라의 진평왕대부터 시행해 왔으므로 신라시대부터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우란분재가 여러 차례 개설되었다. 예종 때인 1106년에 궁궐의 장령전(長齡殿)에서 선왕(先王) 숙종의 명복을 빌고 천도를 바라는 우란분재가 거행되었고, 이는 1109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의종 때인 1153년에는 봉원전(奉元殿)에서 개설되었다. 충렬왕(忠烈王) 때인 1285년에는 신효사(神孝寺)에서, 1296년에는 광명사(廣明寺)에서 거행하여 고려 말에는 궁궐에서 사찰로 개최 장소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데, 공민왕 때인 1356년에는 다시 내전(內殿)에서 우란분재를 개설하였다. 이들은 모두 부모를 비롯한 조상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으로서 7월 15일에 열렸다. 이 밖에 왕실 밖이나 각 사찰에서도 우란분재가 널리 열렸으리라 추측된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초기에는 우란분재가 시행되었다. 『태조실록(太祖實錄)』에는 태조 7년(1398) 7월에 흥천사(興天寺)에서 우란분재를 설하였다고 하였다. 조선 전기의 풍속과 문물을 전하는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권2에는 "7월 15일을 풍속에서 백종(百種)이라 부르는데, 승가에서는 백가지의 꽃과 과일을 모아 우란분재를 개설한다. 서울의 비구니 사찰에서 더욱 심하다. 부녀들이 많이 모여들어 쌀과 곡식을 바치고 돌아간 조상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 때로는 승려들이 길가에 탁자를 놓고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은 모두 금하게 하여 일부에 그친다."라고 하여, 이미 15세기 말에 국가의 금령으로 우란분절 행사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끊이지 않고 중요한 행사로 전승되었다. 그래서 점차 일반화되고 민속화된 우란분절은 각 사찰에서 죽은 이를 위해 재를 지내는 행사로 널리 시행되었다.

우란분재 행사는 오늘날에도 과거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다. 음력 7월 15일에 사찰에서는 갖은 음식과 과일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조상의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의식을 거행한다. 특히 초파일의 불탄절에 연등을 공양하여 부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에 비하여, 우란분절에는 백등(白燈)을 밝혀 죽은 조상을 추모한다.

오늘날 거행하는 우란분절 법회의 의식은 불탄절 봉축법회와 같은 절차로 행하며, 다만 고혼(孤魂) 영가의 조상을 천도하는 의례가 추가된다. 조상을 천도하는 특성에 맞추어 독경은 천수경(千手經)이나 지장경(地藏經) 또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가운데 선택해서 시행한다. 요즈음 서울의 한 사찰에서 시행하는 우란분절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란분절 법회는 돌아가신 부모의 천도를 위해

승려에게 공양을 올리는 사은법회로 진행한다. 1부는 부처를 모셔 올리는 차례로 관욕(灌浴)과 상단불공축원이 진행된다. 2부는 삼귀의, 보현행원, 청법가, 설법, 우란분공양, 사은사봉독, 불자대중 삼배 순으로 진행된다. 3부는 영가시식과 봉송소전으로 진행된다. 우란분공양에서는 절의 신도회가 마련한 공양물을 절에 주석하는 대중승려에게 올리고, 이어 신도들이 합장하고 사은사를 봉독하며 승려에 대한 공경의 예를 다한다. 우란분공양에 앞서 대중스님들은 우란분경을 함께 봉송한다. 신도들이 마련한 우란분에는 승려들의 내의, 양말, 면 티셔츠, 치약, 비누와 같은 일용용품을 담는다.

의의 오늘날 우란분절에 행하는 우란분재는 생명의 실상, 영혼의 의미, 천도의 공덕을 생각해보는 모임을 마련하는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덕을 쌓는 방법으로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보시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며, 외로운 자를 위로하며, 청정한 수행자를 보호하라고 한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서 베풂의 공덕을 쌓는 날로 변환시킨 것이다. 돌아가신 부모와 모든 무주고혼(無主孤魂)의 원한을 풀어 극락왕생하게 할 뿐 아니라, 고통 받는 생명이 질곡에서 해방되어 죽은 자와 산 자가 한마음으로 만나는 행사를 마련하여 우란분절의 참뜻을 새긴다. 수해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천도재가 열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민속 행사도 열린다. 복지시설을 찾아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봉사하여 효를 실천하며, 이웃에게 따뜻한 베풂의 자리도 마련한다. 고통에서 헤매는 모든 생명들을 해방시키자는 뜻에서 야생동물들을 산으로 돌려보내고 물고기를 놓아주는 방생 행사도 한다. 요즈음의 우란분절은 부처의 위신력과 승려들의 수행력, 신도들의 공덕을 합친 생명 해방의 날로 기념하려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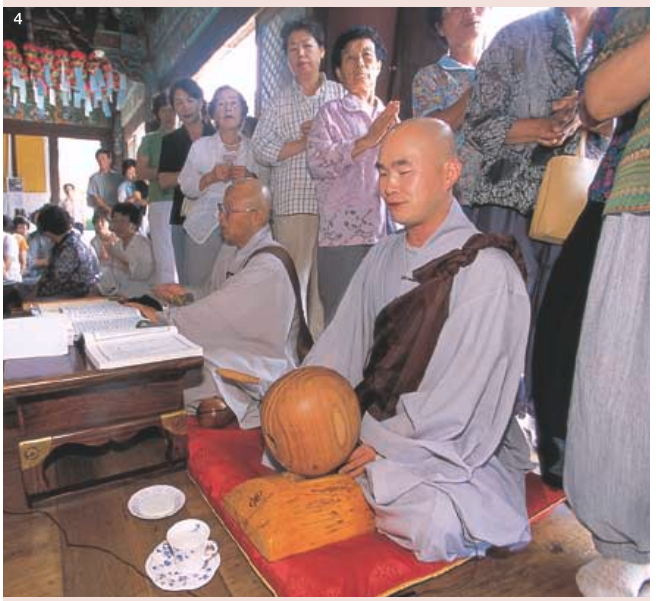
참고문헌 | 高麗史, 目連經, 慵齋叢話, 盂蘭盆經, 太祖實錄, 朝鮮佛敎通史(李能和, 新文館, 1918), 盂蘭盆齋와 目連傳承의 文化史(史在東 編, 中央人文社,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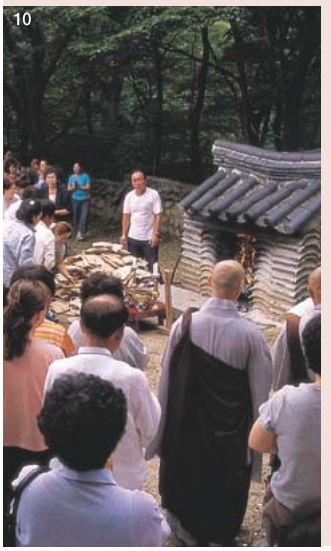
필자 | 정병삼(鄭炳三)

우란분회(盂蘭盆會)

⇨ 우란분재(盂蘭盆齋): 가을편










2


3


5


6


7


8


9


12


13

〈우란분재〉
1 보경사 대웅전
2 발원 천도
3 발원 천도
4 스님의 독경
5 영가천도 발원
6 신도들의 발원
7 소각장으로 향하는 신도들
8 위패들고 소각장 이동
9 위패들고 소각장 이동
10 소각 전 스님의 독경
11 소각할 짚신과 영가옷
12 짚신과 영가옷을 소각
13 소각장 앞에서 합장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사
국립민속박물관

장원례(壯元禮)

⇨ 호미씻이[洗鋤宴, 洗鋤會]: 가을편

진세턱

정의 청소년층이 두레패에서 장정 대접을 받게 되는 통과의례. 청소년들은 반품앗이로 노동력의 절반 이하만 인정받다가 두레에 가입함으로써 온전하게 장정 품을 인정받는다. 이에 청소년의 집안이나 고용주 쪽에서 인사치레로 두레 성원 전체에게 술을 대접하는데 이를 '진세턱'이라 한다. 지역에 따라 진서턱, 진쇠턱, 꽁배술, 손더듬이라고도 부른다.

내용 평소에 두레를 따라다니며 일을 하는 미성년자를 소동(小童) 혹은 꽁배라고 부른다. 이들은 젊은 층의 지도자인 총각대방(總角大方)의 지휘를 받아 화톳불 나르기, 소 돌보기, 각따귀 쫓기 같은 잡일을 하다가 신입례(新入禮)를 통해 두레에 참여하게 된다.

보통 16~20세에 이르러 노동력의 기준이 되는 체력이 뒷받침된다고 판단되면 신입례를 치를 자격이 부여된다. 대개 마을의 동수나무나 정자 아래에 놓인 들돌을 들어올리는 들돌들기를 통해 신입례가 이루어진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돌을 번쩍 들어 온전한 일꾼으로 구실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이를 축하하고 이에 답례하는 술이 오고 가는 것이다.

두레에 들어가야 할 청소년을 진세, 진서라 부르며 두레에 내는 술을 진서술이라 한다. 충청도에서는 조무래기라는 뜻의 꽁배가 내는 술이라 하여 꽁배술이라고도 한다. 진세턱을 내는 시기는 7월 '두레먹기' 즈음이다. 지역에 따라 백중이나 칠석 무렵 세벌 김매기를 마친 후, 날을 잡아 하루 동안 신나게 노는데 이때 진세턱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의의 진세턱을 통한 신입례는 양반층의 관례(冠禮)와 대비되는 농민들의 성년식인 셈이다. 양반들이 관례를 거쳐 관을 쓰고 붓과 먹을 하사받아 지배계급으로 편성되는 데 반하여, 농민들은 힘자랑을 한다거나 육체적 노동 능력을 검증받아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에 들어가 온전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기타 지역적인 사례로 명칭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진세잔치'도 있다. 어린아이가 만 1세, 3세, 5세, 7세가 되는 집에서 진세턱을 낸다. '진세꼬리밟는다'고 하여 이때에 진세잔치를 해야만 어린아이가 무사히 유아기를 넘겨 무병장수한다는 향언이 있다. 전남 여수나 순천 등의 동부권 일대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민속이다.

참고문헌 | 들돌[擧石] 信仰考(崔德源, 韓國民俗學20, 民俗學會, 1987), 全南의 歲時風俗(全羅南道 鄕土文化叢書29, 全羅南道, 1988), 생활문화와 옛 문서(국립민속박물관, 1991), 여천시의 민속과 축제(최덕원 외, 순천대학교, 1995), 한국의 두레(주강현, 집문당,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국립민속박물관, 1998),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필자 | 안태현(安泰賢)

질먹기

⇨ 호미씻이[洗鋤宴, 洗鋤會]

차연관 장굿(車輦館-)

정의 평안북도 철산군 차연관(車輦館) 장터에서 일년 동안 장사가 잘 되기를 기원(祈願)하며 행하던 굿.

내용 차연관은 연행로(燕行路)에 위치하여 일찍이 시장(4·9일장)과 역(驛)이 들어섰고, 그로 인해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장터의 음식업자들이 주도하여 연 4회(1, 5, 7, 9월) 내지 2회(1, 7월)에 걸쳐 장굿을 벌였다. 장굿은 그 횟수가 차츰 줄어들어, 격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7월에 벌이다가 1910년대에 중단되었다.

차연관 장굿은 사흘 내지 닷새 동안 벌어졌고, 도박이 허용될 경우에는 두 주 이상 계속되기도 했다. 장굿은 신을 맞이한 후에 소를 희생 제물로 바치고 노래와 춤과 음악으로써 신을 위무(慰撫)하고 배송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굿을 하는 동안 신에게 바치는 돈과 쌀 등을 인정(人情)이라고 불렀다. 공식적인 제의가 끝난 뒤에는 무당과 주민이 밤새 어울려 춤을 추었다. 장굿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무녀(巫女)들이 약 9미터 높이의 기둥에 매단 꽃 광주리에 올라타고 춤을 추면서 오르내리는 모습이었다.

이때 무녀들은 광주리 위에서 꽃잎을 뿌리고 구경꾼들은 돈을 광주리에 던져 넣었다.

참고문헌 | 部落祭(朝鮮總督府, 1937), 鐵山郡誌(鐵山郡誌編纂委員會, 1976).
필자 | 이상열(李相烈)

초연(草宴)

⇨ 호미씻이[洗鋤宴, 洗鋤會]: 가을편

테우리코시[-告祀]

⇨ 마불림제: 가을편

풋굿

⇨ 호미씻이[洗鋤宴, 洗鋤會]: 가을편

호미씻이[洗鋤宴, 洗鋤會]

정의 농부들이 연간 농작물 재배의 핵심적인 활동을 모두 마치고, 음력 7월 초중순 무렵에 마을 단위로 날을 정하여 하루를 먹고 노는 잔치이자 의례. 이것이 호미씻이로 명명된 것은, 일년이라는 영농 주기에서 농작물 재배의 핵심적인 활동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작업이 호미를 이용한 김매기였기 때문이다.

유래 호미씻이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유중림(柳重臨)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세서회(洗鋤會)라는 표기로 처음 나타나고, 이어 우하영(禹夏永)의 『천일록(千一錄)』에는 세서연(洗鋤宴)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조선 초기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권2에는 백종(百種)날의 우란분재(盂蘭盆齋)에 대해 "7월 15일은 백종이라 부른다. 불가(佛家)에서는 100종의 화과(花果)를 모아 놓고 우란분(盂蘭盆)을 마련하는데, 장안의 비구니 사찰에서는 더욱 심하였다. 부녀자들이 모여들어 쌀과 곡식을 바치며, 죽은 부모의 영혼을 창(唱)하며 제사 지내었다. 가끔 승려들이 길거리에 탁자를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세시기인 『경도잡지(京都雜志)』,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동국세시기(東







〈호미씻이〉
1 호미 2 장원례 3 풍물 경북 예천 서헌강

國歲時記)』에도 백중(百中) 또는 백종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호미씻이와 같은 행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세 권의 세시기에는 "이날 사찰에서는 재(齋)를 올리고, 민간에서는 망혼(亡魂)에 제사 지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도잡지』에서는 "옛날 풍속에 백 가지 씨를 진열하였으므로 백종이라 한다고 하는데 황당무계한 설"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 전기 『용재총화』를 위시하여 후대의 세시기 저자들에 따르면, 백중일은 농민들의 호미씻이와 관련 없이, 불교적인 의례가 행해진 날이었다고 풀이된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증보산림경제』와 『천일록』에 호미씻이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백중일은 불교적인 의례일이었다고 이해된다. 한편 백중이 불교적 의례일로 정착되기 이전에는 우리 고유의 농경의례가 행해지던 날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호미씻이가 등장한 배경은 복합적이다. 17~18세기에는 이앙법과 도맥(稻麥) 2작 체계가 일반화되고, 수리시설의 확충으로 논 면적이 늘어났다. 이앙법으로 제초 작업에는 노동력은 절감되었으나, 새로운 농작업으로 부각된 모내기는 집약적인 노동력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앙법의 효과는 연간 도맥 2작 체계를 형성하여 토지 생산성을 높였다. 맥작(麥作)의 수확과 탈곡에 잇달은 도작(稻作)의 모내기는 맥작과 도작의 교체기에 노동력의 집중도를 현저히 높였다. 특히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던 상태에서 진행된 모내기와 논매기는 두레와 같은 집약적인 공동협업노동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모내기를 위하여 두레가 결성되니, 모내기 때의 여세를 몰아서 논매기까지도 마을 단위 공동 노동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년 중 논매기 작업을 마친 후에, 마을 단위 공동협업노동을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농민들이 함께 모여 하루를 쉬는 형태의 호미씻이가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호미씻이가 형성된 농업기술사적 요인은, 17세기 이래 노동력의 집중도를 증가시킨 이앙법과 도맥 2작 체계라고 하는 답작 농업의 기술과 형태 변화였다. 아울러 공동 작업, 공동 식사, 공동 놀이를 그 기능으로 하는 두레의 성립과 활성화도 호미씻이 형성의 촌락사회적, 노동형태적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 물론 호미씻이는 그 이전의 불교적 명절이던 백중 혹은 도교적 명절이던 칠석이 농경문화적으로 재편성된 것이라고 하겠다.

내용 농민들의 일년 영농 주기를 보면, 크게 농번기와 농한기가 교차하면서 그 중간 중간에 준(準) 농한기가 끼어 있다. 이것은 기후 변화라는 자연 조건, 농업 노동력, 농업 노동의 적기, 재배 작물의 생육기간과 특성 등이 결합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호미씻이는 여름철의 최대 농작업이던 논매기뿐만 아니라 밭매기를 마치는 시점에 형성되는 준 농한기에 하루를 잡아서 온 동민이 모여 놀던 농경세시였다. 모이는 장소는 강변이나 개울가의 그늘 또는 마을 주변의 그늘진 곳이었다. 호미씻이를 하러 나갈 때는 집집마다 성의껏 음식과 술을 준비하여 갔다. 대체로 부잣집에서 더 풍성하게 마련하는 게 관례였다. 참여한 사람들은 온종일 먹고 마시며, 풍물을 치고 춤을 추면서 놀았다.

머슴들이 많던 시기 혹은 머슴이 많은 마을에서는 호미씻이의 주축이 머슴들이었다. 머슴들은 주인집에서 만들어 준 음식과 술을 가지고 나가서 은근히 과시하면서 흥겹게 놀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집마다 마련해 준 음식물을 늘어놓고 머슴들 스스로 품평회를 하기도 했다. 주인집에서 많은 음식을 제공받은 머슴은 주인한테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제공된 음식물로 주인의 인심이 얼마나 후한가도 헤아려졌다.

그런가 하면, 예부터 머슴들이 별로 없던 마을 그리고 과거에 머슴들이 많았던 마을이라 해도 신분제가 해체된 후의 농촌에서는, 호미씻이를 할 때 집집마다 농민들이 성의껏 음식물을 마련하여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을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아무런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고 호미씻이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호미씻이는 머슴들에게 베푸는 잔치이며, 머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긍정적 자극을 주는 의례였다.

이렇듯이 전통적인 호미씻이에서는 일꾼과 남성을 주축으로 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를 먹고 마시고 즐겼다. 전통적으로는 자연마을마다 정한 날짜에 다른 장소에서 호미씻이를 했다. 호미씻이를 하던 시기는 음력 7월 초중순이지만, 원래부터 명일의 의미를 지닌 칠석이나 백중일로 선택되는 경향이 짙었다.

지역사례 호미씻이의 명칭은 다양하여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표준어인 '호미씻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세서연, 세서회 등으로 표현할 때의 내용을 가리킨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호미로 김매는 작업의 고통을 씻는 것이라는 뜻이다. '호미걸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호미로 김매는 작업을 마치고 더 이상 호미를 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호미를 걸어둔다는 뜻이다. 호미씻이와 호미걸이는 주로 기호(畿湖)지방에서 나타나는 말이다. 이 둘은 '호미씻이한다', '호미걸이한다'와 같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풋구(혹은 풋꾸, 풋굿)와 초연(草宴)이라는 말도 퍽 널리 사용되었다. 풋구는 들판의 잡초(풀: 草)를 제거한 다음에 하는 굿(잔치: 宴)이란 뜻을 가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 풋구를 한자로 옮기면 곧 초연(草宴)이 된다. 이 말은 주로 영남지방 그것도 경북에서 흔히 보이는데, 이 둘은 '풋구먹는다', '풋구먹이한다', '풀굿먹이한다', '초연먹는다'와 같이 사용된다. 영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꼼비기(혹은 꼼베기, 꼰비기, 꼰배기)먹기', '깨이말(꽹이말)타기'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꼼비기'는 밀이나 콩을 볶은 것이라고 하며, 깨이말은 꽹이를 타는 말처럼 여긴 것이라고 하지만, 이 둘의 어원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말을 쓸 때에는 '꼼비기먹는다', '깨이말타기한다'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두레와 관련하여 호미씻이를 명명한 것은 '두레먹기'이다. 이 말은 호남과 충남, 경남 남부 등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주로 쓰인다. 특히 두레가 성했던 호남지방의 호미씻이는 두레먹기로 잘 알려져 있다. 두레꾼의 공동 작업인 제초 작업이 끝난 후에 모여서 놀고 먹는다는 의미로 '두레먹는다'라고 하였으며, 간혹 '두레잔치'라고도 했다. 호남에서는 더러 두레 장원(壯元), 농사 장원, 장원례(壯元禮) 같은 말로도 일컬어졌다. 이것은 두레먹기를 할 때, 두레꾼 가운데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아 소에 태워 주인집에 가서 후하게 대접받고 즐겁게 노는 것에서 비롯된 말이다. 머슴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이므로, 경남에서는 이 행사를 머슴잔치 또는 머슴회치라 하였고, 전국적으로 이날을 머슴생일 또는 머슴날이라고도 했다.

한편 '백중놀이' 혹은 '백중'이라고 하면서도 그 의례적 의미는 호미씻이와 같은 경우도 있다. 이것은 조선 중기까지 성행했던 불교의례인 우란분재를 행하던 백중일에 후대의 농경세시인 호미씻이가 겹쳐진 현상이다. 더 소급하면, 음력 7월 15일은 삼원사상(三元思想)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중원일(中元日)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었다.

경북 문경시 산양면 현리에서 1950~1960년대에 행해진 '풋구먹이'는 음력 7월 초순부터 보름 무렵 풋구를 먹기 며칠 전부터 머슴들끼리 의논하여 날짜를 정하고, 마을길 청소와 풀베기를 했다. 풋구를 먹기 전에 머슴들은 멍석을 하나씩 만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머슴들은 밤에 호롱불을 켜놓고 멍석을 만들거나, 비가 와서 일을 하지 않는 날 멍석을 만들었다. 풀굿먹이 하기 전날 대방(머슴들의 우두머리)은 전머슴을 데리고 용궁장(경북 예천군 용궁면 소재)에 가서 장을 봤다. 풀굿날 대방이 박산재 꼭대기에 앉아서 집집마다 음식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풀굿먹이날 명태찜 한 마리, 고등어 한 토막, 전(고추전, 호박전), 닭고기, 돼지고깃국 같은 음식을 장만한다. 풀굿날에는 머슴들이 주인집에서 삼베적삼 한 벌을 얻어 입기도 하는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박산재로 올라간다. 식모가 음식을 개상반(개다리소반)에 차려서 이고 온다. 이날 머슴들은 풍물을 치고 논다.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쓰고 그걸 대나무에 맨다. 대나무 맨 위에는 가지를 치지 않는다. 풍물은 신임 있는 사람이 이웃마을 가곡, 녹문, 서중, 약서 등에 가서 빌려왔다.

의의 호미씻이는 중노동의 농번기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농민들이 집약 노동의 중압감을 씻어내고 노동 주기상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전환점이었다. 따라서 호미씻이는 일년 주기의 농업 노동에서 전반부의 재배기에서 후반부의 수확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설정된 시간적 통과의례였다. 동시에 호미씻이는 매년 결성되던 두레와 같은 공동 협업 노동 조직이 제 기능을 다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그런 노동 조직을 해체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호미씻이는 불교 의례일로서 우란분재를 올리던 백중 혹은 도교적 명절이던 칠석이 조선 후기에 이앙법과 도맥 2작 체계의 성립 이후에 농경의례일로 바뀐 것이다. 우란분재를 올리던 불교 의례일이나, 도교적 명절로서 견우직녀의

전설을 간직한 칠석이 중국에서 전래되어 그 자체로서도 명절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한 갈래로 호미씻이라는 농경의례로 발전 변화되었다. 이러한 호미씻이는 중국에는 없는 한국 고유의 농경의례이다.

참고문헌 | 朝鮮常識-風俗 篇-(崔南善, 東明社, 1948), 韓國의 歲時風俗(최상수, 高麗書籍, 1960), 韓國歲時風俗(任東權, 瑞文堂, 1973), 두레共同體와 農樂의 社會史(신용하, 한국사회연구2, 한국사회사연구회, 한길사, 1984),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호미에 觀한 一硏究-그 機能과 關聯民俗을 중심으로-(裵永東,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7),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논매기의 技術과 農耕文化的 意義(배영동, 斗山金宅圭博士華甲紀念 文化人類學論叢, 同刊行委員會,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백중의 기원과 성격(이수자, 韓國民俗學25, 民俗學會, 1993), 호미의 變遷과 農耕文化(裵永東, 민족문화6, 한성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한국의 두레1(주강현, 집문당, 1997), 한국에 전해진 目連求母 故事(金學主, 盂蘭盆齋와 目連傳承의 文化史, 중앙인문사, 2000), 농업생산형태 변화에 따른 草宴의 소멸과 대체의례 등장(배영동, 역사민속학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백중과 우란분재의 발생 기원에 관한 연구(구미래, 比較民俗學25, 比較民俗學會, 2003), 조선후기 답작형 두레의 출현 배경(배영동, 韓國의 農耕文化6, 京畿大學校博物館, 2003), 조선후기 호미씻이[洗鋤宴] 형성의 농업사적 배경(배영동, 농업사연구2-2, 한국농업사학회, 2003).
필자 | 배영동(裵永東)

물맞이

⇨ 물맞이: 여름편

백가지[白茄子]

⇨ 백가지나물먹기[百種葉]: 가을편

백가지나물먹기[百種葉]

정의 7월 15일 백중날은 백종(百種)의 뜻이 있어, 백(百) 가지 나물을 해 먹으면 몸에 좋다고 믿었던 속신(俗信).

내용 및 지역사례 백중날은 '백종'의 뜻이 있다고 하여 백 가지 나물을 해 먹으면 몸에 좋다고 믿었다. 그러나 백여 가지의 나물을 모두 해먹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흰 가지나물을 해먹기도 한다. 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하얗게 쪄먹는데, 이는 흰 가지[白茄子]의 백(白)자와 백 가지의 백(百)자가 동음(同音)이기 때문이다.

경남 지역에서는 백중날에 백종(百種), 곧 백 가지 나물을 해 먹으면 좋다고 하여 구할 수 있는 채소를 모두 구해서 무쳐 먹었다. 특히 고성에서는 이날 흰색의 박나물을 해 먹음으로써 백 가지의 나물을 해 먹은 것으로 대체하였다. 전북에서도 백중에 백 가지 음식을 먹어야 좋다고 하였으며, 경북에서는 이날 일꾼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백중날 백 가지 나물을 먹는 풍속과 비슷한 것으로, 정월 열나흗날이나 정월대보름에 묵은 나물을 먹는 풍속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정월 열나흗날에 먹는 아홉 가지의 묵은 나물이 더위를 면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믿었으며, 정월 열나흗날을 '나물 먹는 명절'이라고도 하였다. 나물은 열나흗날 오곡밥과 함께 장만하는데 주로 아주까리나물, 고구마 줄기, 호박꼬지, 고사리, 가지나물, 취나물, 무나물 등을 미리 말려 보관하여 두었던 것이다. 특히, 호박 나물을 먹으면 '달이 밝을 때 죽는다'라고 하여 많이 먹었다. 나물의 가짓수는 아홉이며 오곡밥과 함께 묵은 나물을 많이 장만하여 이웃끼리 나누어 먹어야 복이 온다고 믿었다.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秋齋集)』 권8 「세시기(歲時記)」에 "칠월 15일을 백종(百種)이라고 하니, 백곡(百穀)이 모두 익어간다는 말"이라고 하였다. 면암(勉庵) 조운종(趙雲從)의 『면암집(勉庵集)』 「세시기속(歲時記俗)」에도 "세속에서는 백 가지 종자를 수확하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에서, 불가에서는 우란반공(盂蘭飯供)의 의미에서 큰 명절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였다. 민간에서는 그 간의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백 가지 곡식을 마련하느라 수고하였으니,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으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문헌 | 勉庵集, 秋齋集,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경기민속지 I(경기도박물관, 1998), 경기민속지III(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김지욱(金志昱)

백중놀(百中-)

정의 백중(百中) 무렵 제주 지역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큰 비바람을 가리키는 말.

내용 백중놀은 '백중'과 '놀'의 합성어로, '百中'과 큰 비바람을 일컫는 제주어(濟州語)인 '놀'의 합성어이다. 놀과 관련된 일상어로는 "놀 불젠 햄쩌(큰 비바람이 일 것 같다)."가 있으며, 관련속담으로 "바당물은 들망들망ᄒᆞ나 ᄒᆞ되 놀은 불어도 금새예 물은 아니 들어(바닷물은 들망들망하나 하되 풍랑은 불어도 곧 물은 아니 들어).", "곰수(세)기 들러퀴민 놀 분다(돌고래 뛰놀면 풍랑이 인다)."가 있다. 백중 무렵에 감나무 등의 나무에 새순이 나면 '백중놀'이 불 것 같다는 예측을 하게 된다.

백중놀이 불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데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조, 산디[陸稻], 콩 등이 수확기를 앞두고 비바람에 쓰러져 흉작이 들게 된다. 이로 인해 백중놀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에 따라 농사의 희비가 엇갈린다.

지역사례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가시나물마을에서는 7월 백중에 비가 오면 곡식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백중에 비가 오면 과일이 안 익고 떨어지며, 다래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濟州道誌3(濟州道, 1993),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강권용(康權用)

백중복숭아(百中-)

정의 백중날 저녁에 복숭아를 먹으면 좋다고 믿는 풍속.

내용 복숭아는 벽사력(辟邪力)이 있다고 믿어지고, 장수(長壽)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백중날 저녁에 복숭아를 먹으면 여자들은 아름다워지고 남자들은 건강해진다고 한다. 또한 백중날 저녁 집안에 잡귀가 침범하는 것을 막고 잇병을 예방하기 위해 복숭아를 먹기도 한다. 이 외에도 복숭아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믿었다.

지역사례 경남 양산시 물금면 증산리 상리마을에서는 백중날 저녁에 벌레 먹은 복숭아를 골라, 벌레 먹은 자리를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인물이 좋아진다고 한다. 또 산청군 산청읍 내리 한밭마을에서도 마을의 젊은 여인네들이 백중날 저녁에 벌레 먹은 복숭아를 그대로 먹으면 인물이 좋아진다고 하여 밤에 복숭아를 몰래 먹기도 하였다. 의령군 용덕면 운덕마을에도 여인들이 벌레 먹은 복숭아를 그대로 먹으면 인물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다. 합천군 가야면 치인 2리 마장마을에서는 백중날 저녁에 복숭아를 먹으면 살결이 고와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벌레가 들어간 복숭아를 먹으면 피부가 더욱 고와진다고 한다. 벌레를 보고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두울 때 주로 먹는다고 한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송정마을에서도 저녁에 복숭아를 먹는데, 이때 벌레 먹은 곳을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여자들이 얼굴이 예뻐진다는 말이 있다.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에서도 백종날 저녁에 복숭아를 사서 어두운 데서 벌레가 든 채로 먹으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믿었다.

기타 일부 지역에서는 복달임을 할 때 고기를 먹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과일로 복달임을 대신하는데, 이때 수박이나 참외 외에 복숭아를 먹기도 한다. 그 밖에 '복숭아벌레를 먹으면 이가 빠진다.' 거나, '복숭아를 먹고 곧바로 목욕을 하면 죽는다.' 라는 속신(俗信)이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大觀4-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한국정신문화연구원,



복숭아 심디스마

1991),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집문당, 1995),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지현(金智賢)

쇠미꼬지

정의 백중날 늦게까지 소를 방목하면 귀신이 따라온다고 일찍 귀가하는 풍속. 지역에 따라 '소 일찍 끌고 들어오기'라고 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쇠미꼬지는 주로 경상도 서부 지역의 세시풍속이다. 경남 합천군 서산면 서산리에서는 7월 백중날 아침 일찍 소를 먹이러 나갔다가 해가 진 후 늦게 귀가하면 소꼬리에 귀신이 붙기 때문에 이날은 반드시 일찍 돌아온다고 한다. 만약 늦게 귀가하여 소꼬리에 귀신이 붙으면 소의 꼬리에 밀가루를 묻혀놓고 "귀신 붙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회초리로 소를 때리면 귀신이 떨어진다고 한다. 경북 고령에서는 산골짜기에 소를 방목할 때는 낮에 점심 먹고 소를 데려다놓았다가 저녁에 일을 끝내고 들어올 때 끌고 온다. 대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소를 끌고 들어오는데, 백중날 늦게 소를 데려오면 귀신이 따라온다고 하여 해가 지기 전에 소를 일찍 끌고 들어온다. 이를 소 일찍 끌고 들어오기라고 한다. 그리고 경남 합천에서는 소먹이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각자 음식을 준비하여 소먹이는 산에 올라 소에게 탈이 없게 해달라는 뜻에서 7월 백중고사를 지내고 가져간 음식을 먹고 노는 연희를 쇠미꼬지라고 한다.

소를 위한 이같은 의례는 제주도의 소가 잘되기를 기원하는 '백중고사' 혹은 '테우리고ᄉᆞ'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경남 통영시 한산면 염호리에 있는 세미꼴산은 '쇠미이는 꼴(소먹이는 꼴)'이 무성했던 산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것으로 보아 '쇠미'는 소를 먹이는 일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쇠미꼬지는 소먹이기를 잘하기 위해 행하는 의례이면서 유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시덕(金時德)

백중빔(百中-)

⇨ 백중(百中): 가을편

강릉농악(江陵農樂)

⇨ 농악(農樂): 가을편

강진땅뺏기놀이(康津-)

정의 김매기를 끝낸 농군들이 피로를 달래고 풍년을 기원하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두레놀이. '두레싸움' 또는 '덕석기뺏기'라고도 한다. 1975년 호남 지역 민속축제인 남도문화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내용 음력 7월은 어정어정하는 동안에 지나가 버린다는 의미에서 "어정 7월"이라 하며 힘겨운 세벌김매기가 끝난 후 약간의 휴식기에 들어가는 시기이다. 이때 농촌에서는 다양한 두레놀이가 행해진다.

전남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화방(花坊), 삼화(三化), 영화(永化)]에서는 6월 유두(流頭)나 7월 백중(百中)에 마을단위로 또는 한 마을에서 동 농군, 서 농군으로 편을 갈라 힘을 겨루는 땅뺏기놀이를 한다. 이 놀이는 풍년을 구가하는 농경의례로 널리 전승된 두레꾼들의 민속놀이다.

흥겨운 '농부가'를 부르며 모심기를 하고, 이어서 초벌부터 만두레(만물, 세벌김매기)까지 새납과 노랫가락에 어울려 김매기를 한다. 김매기가 끝나면 우순풍조(雨順風調)하여 풍년이 들기를 천신에게 기원하는 농악놀이를 한 뒤, 마을에서 농사 풍작이 예상되는 집의 상머슴을 그해의 농장원으로 뽑는다. 어사화로 곱게 꾸민 패랭이를 씌워 소 위에 태우고 농악에 맞춰 농부가를 부르면서 쌍룡이 꿈틀거리는 덕석기(쌍룡기)와 황청색의 영기(令旗)를 들고 마을로 돌아간다.

이때 마을 어귀나 외길에서 이웃 마을의 두레꾼 행렬과 마주칠 경우, 서로 먼저 길을 가거나 윗길로 가기 위해 다툼이 벌어진다. 싸움 직전에 마을 대표자들이 나와 힘을 겨뤄 담판을 내기로 협약하고 몇 마지기의 마을 전답과 황소를 걸고 싸움을 벌인다. 승부는 공격과 방어를 통해 상대방의 덕석기를 먼저 넘어뜨린 편이 승자가 된다. 마을의

명예와 체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양편 모두 결사적으로 싸운다.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아 새벽까지 계속될 때도 있다. 연 3승을 하면 승자에게 정해진 농토를 완전히 넘겨주며 이듬해 농사는 승자 편에서 지어 수확하게 되고 황소는 승자가 차지한다.

전남 강진 지역에서는 두레놀이의 용기(龍旗)뺏기를 해서 이긴 편이 땅을 뺏는다 해서 땅뺏기놀이라 한다. 그러나 보통 땅뺏기놀이라 하면 소녀들이 즐겨하는 놀이로서, 시골마당이나 골목길에 정사각형의 모형을 그려놓고 2~4명이 각기 한 모퉁이에 각자의 뼘으로 한 뼘씩의 자기 집을 그린다. 그리고는 가위바위보로서 차례를 정한 후 미리 준비한 사금파리의 튕김 돌로 상대방의 튕김 돌을 맞춘다. 한 번 튕겨서 맞추면 한 뼘을 재어먹고 2번 튕겨서 맞추면 새끼 뼘으로 재서 땅을 그려 먹는다. 단, 두 번 이상 튕겨서는 안 된다. 벌칙은 두 번에 못 맞추거나 사각형 밖으로 튕김돌이 빠져나가면 실격이 되어 다음 사람 순서가 되는데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기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정사각형의 모형에 각자의 집을 한 뼘씩 갖는 것은 동일하나 자기 집에서 튕김 돌을 튕겨서 자기 집에 두 번 만에 돌아오는데 성공하면 첫 번째 튕김 돌 자리까지 선을 그어 자기 땅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도 있다. 이런 어린이 땅뺏기와 두레꾼들의 땅뺏기는 방법은 다르지만, 땅을 소유하려는 놀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의의 이 놀이는 농촌의 협동심과 단결심을 고취시킨 흥겨운 민속놀이로서 매우 이색적이고 흥미롭다. 즉, 마을 상호간의 전형적인 두레싸움이 발달한 모습이며 백중놀이와 호미씻이의 역할도 하는 두레 풍물패의 세시놀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농신을 즐겁게 해주므로 반드시 그 이듬해는 풍년이 들었다. 놀이가 끝나면 농장원한 집에서 밤새도록 축연(祝宴)을 벌이고 마을의 결속과 화합을 다진다. 명칭은 땅뺏기놀이지만 힘과 마음을 모으는 힘겨루기놀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康津鄕土誌(康津郡鄕土誌編纂委員會 編, 康津郡, 1978),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최덕원(崔德源)

고양송포호미걸이(高陽松浦-)

정의 경기도 고양시 송포면에서 칠석(七夕)부터 백중(百中) 사이에 전승되었던 농경의례. 호미걸이는 호미씻이라고도 한다. 두레의 힘과 풍류를 담고 있는 고양송포호미걸이는 1931년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최근 들어 고양송포호미걸이보존회에서 부분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1984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1998년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호미걸이는 세벌김매기가 끝나는 음력 7월 중순 무렵에 농기(農旗)의 버릿줄에 호미를 주렁주렁 걸어둠으로써 사실상 한 해 농사를 마감한다는



고양송포호미걸이
경기도 고양시 송포면 국립민속박물관















〈고양송포호미걸이〉
1 김매기
2 김매기
3 호미씻이
4 호미씻이
5 새참먹기
6 주인집 앞에 선 놀이꾼
7 머슴대접
8 대접하기
9 대동놀이
10 대동놀이
경기도 고양시 송포면 국립민속박물관


2


7


10

의미와 이듬해의 농사를 위해 호미를 씻어 걸어둔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호미걸이가 전래되는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대화동 일대는 과거 송포 벌판이라는 넓은 평야가 자리잡은 곳으로, 오랫동안 농경이 이루어졌던 곳이다. 송포호미걸이는 농촌에서 활발했던 두레 공동체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호미걸이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두벌김을 멜 때쯤 그해 농사를 어느 정도 가늠하여 농사가 잘 되었다고 판단될 때만 했다고 한다.

호미걸이가 결정되면 마을 사람들은 놀이에 쓰일 악기와 깃발을 점검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등 잔치 준비를 한다. 여기에 사용되는 음식과 기구는 마을 사람들이 제각기 능력에 맞추어 정성껏 마련한다.

호미걸이 하는 날이 되면 기를 앞세우고 행진 농악인 길군악을 치면서 뒷산에 오른다. 도당나무에 도착하면 기잽이가 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 삼실과와 건어물로 제물을 진설하고 산상제(山上祭)를 지내게 된다. 산상제란 마을 주민 대표가 마을 수호신인 도당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마을 중심에 그리 높지 않은 야산이 있는데, 이를 도당산(都堂山)이라 부른다. 이 도당산에는 큰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소나무를 도당나무로 정하고 그 앞에 제상을 차려 놓는다. 마을에서 제일 웃어른이자 두레패의 영좌가 의관을 정제하고 축문을 읽고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는데, 이로써 호미걸이 행사가 시작된다. 산상제에는 이 마을 두레패만 참석하며 두레패들은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해야 한다.

산상제를 지낸 뒤 두레패들이 마을로 돌아오면 놀이판에서는 대동고사를 위해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로는 시루떡과 돼지고기가 쓰이며, "입심 좋고 나이 많은 반 마나님" 같은 할머니가 제주(祭主)가 되어 비손하면 참석자 모두 같이 비손한다. 이 대동고사는 여자들이 마을의 풍년과 집안의 무사태평을 기원하기 위해서 지낸다.

여자들의 고사가 끝나면 대동놀이가 시작되는데, 대동놀이는 초청된 이웃 두레패를 맞이하는 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원래 김동(金東), 김서(金西), 양촌(陽村) 두레패는 이 부근 두레패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구두레'라고 한다. 두레패는 선후(先後)를 매우 존중하는 풍습이 있어서

서로 만나면 선배 두레패의 기(旗)에 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초청된 두레패는 재비를 울리면서 구두레의 기를 향해 온절을 하면 구두레의 기는 반절로서 답례한다. 이를 '기절받기' 또는 '기세배'라고 한다.

기절받기가 끝나면 그해의 깃대잡이를 선발하는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 깃대잡이로 선발된다. 일단 깃대잡이로 선정되면 필목(疋木) 등을 선물로 받는다. 깃대잡이는 선물로 받은 필목을 풀어헤쳐 몸에 감으면서 춤을 추고, 깃대를 손바닥, 어깨 등에 올려놓고 춤추기도 하고 기쓸기도 하는데, 이것을 '깃대재주부리기'라고 한다. 이 깃대잡이는 양촌마을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기놀리기, 조사놀리기 등 온갖 재주를 부린다. 그런 다음 무등타기를 하고 멍석을 짜서 만든 소가 등장하면서 호미걸이소리가 불려진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울려서 춤마당을 이루면서 흥을 돋우어 대동놀이의 절정을 이루게 된다.

기쓸기가 끝나면 호미걸이소리가 시작되는데, 그 소리는 열 가지 가락으로 다른 지방의 소리와 비교할 때 특색이 있다. 소리는 긴소리, 사두여, 양산도,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놀놀이, 자진놀놀이, 닐닐닐 상사도야, 우후야 훨훨이, 몸돌여 가락으로 끝을 맺는다. 호미걸이에 나오는 농요의 가락은 높고 낮음이 분명하여 경쾌하며, 선소리와 후렴이 다른 구절이 많아 복잡하고, 소리의 종류가 많아 지루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

호미걸이가 끝나면 두레패가 떼를 지어 풍물을 울리면서 집집마다 돌며 가내의 무사태평을 빌면 집주인이 나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온 동네 집을 다 돌면 호미걸이가 끝난다.

한편, 이러한 호미걸이 외에도 두레놀이가 전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레싸움이다. 두레싸움의 발단은 이웃하고 있는 두레와 길이 좁은 논두둑에서 만났을 때 혹은 논두둑에 농기를 꽂아 두어 지나가지 못했을 때 발생하기도 하며, 이 외에도 먼저 난 두레한테 나중 난 두레가 절을 하지 않으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기세배는 나중 난 두레가 먼저 난 영좌두레한테 45도 정도의 각도로 기를 숙여서 세 바퀴 돌면 그 답례로 기를 조금 숙여 한 바퀴 도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고양시 호미걸이 팸플릿(고양시문화원, 1997), 한국의 두레1·2(주강현, 집문당, 1997).

필자 | 황보명(皇甫明)

김포통진두레놀이(金浦通津-)

정의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가현리를 중심으로 전승, 보존되는 농상패놀이. 한 해의 농사 과정인 볍씨뿌리기, 논갈이, 써레질, 못자리고사, 모찌기, 모내기, 새참먹기, 물꼬싸움, 두레싸움, 김매기, 벼베기, 탈곡하기, 섬쌓기, 풍년고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놀이화한 민속놀이이다. 1998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김포의 통진두레놀이는 한강과 임진강에 접하여 농업 문화가 발달한 김포시 통진면 가현리 지역에서 행해왔다. 일제강점기의 문화말살 정책으로 한때는 전통이 단절되어 전래되지 못하고 있다가, 광복이 되면서 이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1960년대 중반까지 두레패를 조직하여 과거의 풍속을 다시 되살려놓았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영농의 기계화와 농약이 점진적으로 사용되면서 다시 조금씩 자취를 감추게 되어 일부 마을에서만 전해지게 되었다. 농촌의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서 통진두레놀이의 전승이 단절될 위기 속에서 통진두레놀이보존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생존해 있던 김포 지역의 고로(古老)들과 상쇠 선소리꾼을 찾아 김포지방에서 구연되던 농요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두레를 조직하여 농사를 짓던 과거의 모습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통진두레놀이는 오늘날까지 전승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1997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1998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 재현에는 200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특히 통진면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두레는 집단적 노동조직으로서 두레 자체의 의례와 놀이를 가지고 있다. 또 두레와 세시의 관계도 중요한데 전국적으로 두레를 결산하는 칠석과 백중이 최대의 농민잔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김포의 통진두레놀이에서도 백중을 전후해서 이루어지는 김매기에


1


2


3


4


5


6


7


8


9

〈김포통진두레놀이〉
1 길놀이
2 길놀이
3 새참먹기
4 두레싸움
5 섬쌓기
6 풍년고사
7 대동놀이
8 대동놀이
9 대동놀이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국립민속박물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으며, 농민들의 진솔한 농촌 생활을 반영해주는 다양한 농요가 잘 보존되어 있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는 전반적인 농사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볍씨뿌리기에서는 재를 뿌리고 밀대질을 하여 못자리를 만들어 볍씨를 뿌리고 그 뒤에 소고놀이로 볍씨 뿌리는 장면을 연출한다. 논갈이와 써레질은 논으로 흘러내린 흙을 올리는 가래질과 소에 멍에를 얹어 쟁기질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써레질을 하는 농사의 과정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통진두레놀이의 내용에는 고사 지내기도 있는데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못자리고사를 지낸다. 이것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못자리의 입종이 잘 되어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찌기는 두레와 논갈이 소를 앞세우고 농악을 치면서 농부들은 농요를 부르면서 모찌기와 논갈이를 하는 과정이다. 모찌기가 끝나면 모내기가 시작되는데 못줄을 사용하지 않고 마름모 간격으로 모내기를 한다. 이전에는 망종(芒種) 이전에 모내기를 마쳐야 제대로 수확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두레와 같은 집단적인 노동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모내기를 마치면 모를 낸 농민들이 모두 함께 모여 흥겨운 농악놀이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풀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들 간에 화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이다.

모내기가 끝나면 새참먹기를 하는데 논에서 나올 때 손발을 씻고 우장이나 삿갓을 들고 새참을 먹는다. 두레라는 공동 작업은 고된 일이기는 하지만 새참먹기와 같이 막걸리마시는 시간과 농악을 즐기는 시간이 틈틈이 있어서 노동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한다. 새참먹기가 끝나면 물꼬싸움이 벌어지고 이것은 다시 두레싸움으로 이어진다. 두레싸움은 두레패의 상징인 농기(農旗)를 빼앗는 놀이이다. 전통적인 농촌 마을은 대부분 두레가 있고 두레를 상징하는 농기가 있는데,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며 때로는 용의 그림을 그린 것도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고 쓴 것도 있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에서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농기가 등장한다.

두레싸움은 남의 논물을 종가래꾼이 자기 논에다 끌어 대려고 하다가 서로 싸우게 되면서 마을 간의 다툼으로 번진다. 마을 간의 두레패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상대의 두레기를 먼저 뽑으면 이기게 된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에 가현마을의 두레패와 이웃 들뫼마을 두레패 간의 싸움이 묘사되어 있다. 결국 두레싸움에서 가현마을이 이기게 된다. 가현마을에서는 들뫼마을의 항복을 인정하고 들뫼마을을 향하여 두레기를 한 번 돌리고 들어간다. 들뫼마을에서는 절을 세 번 하고, 인사를 받은 가현마을에서는 빼앗은 장목(깃대 끝에 꾸밈새로 다는 꿩의 꽁지털)을 들뫼마을의 두레기에 다시 꽂아준다. 그리고는 두 마을은 화합하고 전체 두레패들은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서 화합을 다지는 놀이를 벌인다.

두레패 사이의 물꼬싸움과 두레싸움이 끝나면 두 마을의 화합이 이루어져 모두 함께 김매기를 시작한다. 마름모꼴로 심은 논의 김매기는 논두렁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김을 맨다. 작업 도중에 막걸리 참이 있다. 두레의 김매기에는 보통 공동 오락, 공동 노동, 공동 식사의 세 요소가 두루 갖추어져 있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에서도 두레가 가지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잘 나타나 있다. 김매기가 끝나면 벼베기, 탈곡하기, 섬쌓기 등의 과정이 이어지며 마지막 과정으로 풍년고사가 있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는 일년 동안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집단적인 노동의 조직을 통하여 농악과 농요를 가지고 노동의 고단함을 달래며 마을 주민들 사이의 화합을 다졌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농경문화의 전 과정을 풍년고사, 소고놀이, 물꼬싸움, 두레싸움과 같은 농경의례 및 민속놀이와 더불어서 완전하게 재현한 총체적이고도 흥겨운 두레놀이인 셈이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는 계절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조상들의 효율적인 생업현장을 잘 대변해준다. 가령 전통적인 농촌 마을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두레는 대개 모심기, 김매기, 나락베기, 보막이 등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모내기철은 농촌에서 가장 바쁜 때이며, 김매기철은 한 해 중에서 가장 더운 때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농사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따라서 두레패를 만들어 구성원들의 논을 다니면서 풍장을 울리고

공동으로 노동하고 함께 참을 먹고, 노동이 끝난 뒤에는 다시 농악을 치면서 함께 어울리는 과정을 통하여 농경 생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통진두레놀이는 생업현장에서 노동과 오락이 함께 아우러지기 때문에 꽹과리를 중심으로 하여 징, 북, 장구, 소고, 제금 같은 악기도 잘 갖추어져 있다. 30~40명의 농군이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점심을 먹은 뒤와 같은 쉴 참에 논둑에 꽂아 놓은 농기 아래에서 흥겹게 한바탕 논다. 그리고는 장구잡이와 꽹가리, 징, 북잡이 등을 남겨놓고 모두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일의 동작에 따라 농부가 풍년가에 맞추어 농악을 울리고 선소리꾼의 앞소리를 농부들이 후렴으로 받아 넘기면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 피로를 잊고 농사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집에서 한 사람씩 동원되는 것이 보통이며 한 마을의 성인 남자는 모두 두레꾼이 되어 참여하는 두레는 마을 공동체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화하고 마을의 생업활동 효과를 드높이는 우리 고유의 대표적인 협동 조직이다.

의의 두레놀이는 일 년 중 농사 일로 가장 바쁜 때인 음력으로 5월부터 농사의 중요한 일이 거의 끝나는 백중 때까지 주로 행하여지는 놀이이다. 김포의 통진두레놀이는 한 해의 농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과정을 대부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내기와 김매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음력 칠월은 농사의 중요한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므로 두레놀이가 최절정에 달하게 된다. 곧 7월 15일 백중을 전후하여 농부들은 그동안의 힘든 노동을 위로하고 이듬해 농사를 위한 노동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두레놀이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이다. 따라서 김포의 통진두레놀이 속에는 시간의 순환 질서인 세시풍속과 마찬가지로 생업 현장의 질서인 농사 과정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과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노동과 오락을 함께 조화시켰던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 있다.

참고문헌 | 경기도의 민속예술(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편, 통진두레놀이,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7), 한국의 두레1(주강현, 집문당, 1997), 경기민속지III(경기도박물관, 2000).

필자 | 박환영(朴奐榮)

남원삼동굿놀이(南原三童-)

정의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괴양리에서 전승되는 백중(百中)의 민속놀이. 괴양리 세 마을의 두레굿이 하나로 모여서 백중놀이를 즐기던 삼동(三洞)굿이다. 괴양리의 합굿이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세 마을의 삼동(三洞)이 세 무동(舞童)을 상징하는 삼동(三童)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래 남원삼동굿놀이는 세 마을의 역사적 배경과 마을의 풍수와 관련된다. 괴양리에 사람이 처음 터를 닦고 살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일이다. 지금부터 400년쯤 전에 광주 안씨, 언양 김씨, 은진 송씨의 삼성(三姓)받이가 양촌마을에 터를 잡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양촌(陽村)·음촌(陰村)·개신(開新)마을은 몇 개의 혈연 집단이 중심을 이루는 각성촌이다. 양촌마을이 음촌과 개신마을보다 취락 형성 시기가 앞서므로, 두 마을이 양촌마을에 기세배를 올리는 것이 삼동굿놀이의 시작이다.

한편 괴양리의 마을풍수를 보면 양촌의 주산이 계룡산으로 닭의 형상을 하고 있는 형국이고, 양촌 앞뜰 건너편 음촌의 주산은 길게 뻗어 지네 형국의 약산이다. 실제 약산의 산세는 남쪽에서 북향으로 길게 뻗어 지네의 머리가 닭의 형국인 양촌을 노려보는 모습이다. 괴양리 주민들은 계룡산의 닭 형국과 약산의 지네 형국이 서로 상극이라고 믿고 있다. 닭과 지네의 상극 관계가 마을풍수에도 적용된 사례를 괴양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지네가 닭을 공격하여 마을에 생길 재앙을 예방하고자 풍수비보적 장치로서 양촌과 음촌 사이 도랑가에 남북으로 비보숲을 조성하였다. 비보숲은 약산의 지네혈에서 흉한 기운이 양촌으로 비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백중에는 세 마을 사람들이 비보숲의 넓은 백사장에 모여 기세배를 하고 지네혈을 밟아주는 지네밟기를 해왔다. 그곳에서 연행된 기세배놀이의 합굿과 지네밟기가 삼동굿놀이의 근원이 되었다.

지네밟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풍수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양촌마을 아래뜸 회산천과 장태봉이 만나는 곳에 영계욕진(靈鷄浴塵)이라는 명당이 있는데, 그곳에 장(張), 박(朴), 이(李) 삼성 가운데 한

부인이 들어가면 당대에 발복하여 삼정승(三政丞)이 나온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음촌의 지네혈이 양촌에서 삼정승이 나온다는 명당을 해칠 우려가 높아 예방 차원에서 지네밟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풍수설화는 괴양리에서 왜 지네밟기가 발생하였는지를 말해준다. 양촌마을 주민들은 항상 양촌을 노려보는 지네혈을 눌러주어야 마을이 평안하고 후손이 번창한다는 풍수관념을 갖고 있어서 양촌마을 주민들이 합굿과 지네밟기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반면, 음촌과 개신 마을 주민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음촌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산인 지네혈을 밟아 누른다는 합굿과 지네밟기에 소극적이지만, 같은 집안 자손의 입신출세와 관련된 일이어서 불쾌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합굿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내용 남원삼동굿놀이는 세 마을의 주민들이 매년 음력 7월 15일 백중날 한 곳에 모여서 혈연공동체의 결속을 높이고, 마을끼리 예를 갖추어 기세배로 화합하고 술멕이를 하면서 흥겹게 노는 백중놀이라 할 수 있다. 또 기운이 센 터(지네혈)를 눌러주는 압승 방식의 지네밟기를 행하여 마을의 안정을 가져오는 풍수비보놀이이기도 하다. 백중날 세 마을이 모여 기세배 합굿과 비보풍수의 지네밟기를 하는 삼동굿은 이곳 괴양리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민속놀이이다.

괴양리에서는 7월 칠석(七夕)날에 마을 대동회의에서 백중절 합굿을 논의하여 김매기, 장원례와 술멕이의 방식을 결정하고, 백중일 이전에 세벌김매기의 농사일을 마친다. 김매기는 두레꾼들이 공동으로 뙤약볕에 논 속을 휘저으며 호미로 벼 고랑의 흙을 파서 벼 포기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벼 포기 사이에 자라는 잡초를 뽑아, 벼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돕는 고된 농사일이다. 이처럼 힘든 김매기를 세 차례나 반복한다 하여 세벌매기라 한다. 세벌매기를 끝으로 여름철 농사일은 모두 마친다.

세벌김매기를 마친 뒤에 벼농사를 가장 잘 지은 머슴을 선발하여 장원례를 행한다. 머슴이 장원으로 뽑힌 집주인은 농민들에게 농사짓느라 수고하였다며, 술과 음식을 내놓고 위로연(慰勞宴)을 열어준다. 부농(富農)에서 막걸리를 5~6동이씩 내면 먹고 살만한 집에서도 1~2동이씩 내놓는다. 50년 전까지도


1


2


7


8


11


3


4


5


6


9


10


12

〈남원삼동굿놀이〉
1 고사 지내기
2 기세배를 위해 이동
3 기세배
4 당산제 지내기
5 샘굿
6 샘굿
7 입신출세과정(삼동서기)
8 입신출세과정
9 지네밟기
10 지네밟기
11 합굿
12 지신밟기
전북 남원시 보절면 국립민속박물관

괴양리 가구 수가 250호 정도였으니, 백중날 소비되는 막걸리의 양을 짐작할 만하다. 이 위로연은 김매는 호미를 씻는다 하여 '호미씻이잔치[洗鋤宴]'라고도 불렀다. 이날만큼은 온갖 시름 다 잊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면서 '술멕이'를 즐긴다.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 또는 모정(茅亭)에서 벌어지는 술멕이에서는 힘센 장정들이 들독(들돌)을 들면서 힘자랑을 하기도 한다. 술멕이는 부농의 지주들이 뜨거운 뙤약볕에서 농사짓느라 고생한 농부들에게 술과 안주를 내놓고 위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백중놀이의 핵심은 기세배와 합굿이다. 논에서 김매기를 할 때에도 이웃마을의 농악대를 만나면 기(旗)로써 서로 예를 갖추어 절하고 서로 섞여서 흥겹게 판굿을 벌인다. 이러한 기절놀이가 백중날 각 마을의 농신기(農神旗)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맞절하는 기세배놀이로 발전하였다. 기세배하는 과정에서 각 마을의 농신기가 서로 예절을 갖추는 게 상례인데, 자칫 마을끼리 감정과 갈등이 유발되면 기싸움의 상황으로 돌변하여 난장판이 되기도 한다. 기세배놀이를 마치면 농신기를 앞세운 각 마을의 농악대가 서로 합하여 풍장굿을 친다고 하여 합굿이라 하였다.

백중날 괴양리의 세 마을은 각 마을 단위로 술멕이를 끝낸 후 농신기를 앞세우고 마을 숲 아래 백사장으로 나아가 기세배와 합굿을 치고 난 뒤 양촌과 음촌마을 사이 하천의 넓은 모래 터에서 지네밟기를 한다. 기세배와 지네밟기는 힘센 남성들이 주도하며 세 마을의 여성과 노인, 어린이들은 구경꾼으로 참여한다. 괴양리에서 양촌마을은 형마을이고 음촌과 개신마을은 아우마을이다. 그래서 합굿에서 기세배를 할 때 양촌마을의 농신기 앞에서 음촌과 개신마을의 농신기가 큰 절을 세 번 올리면 양촌마을의 농신기는 깃대를 좌우로 흔들며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을 취하고 답례한다. 아우두레가 형두레에게 예(禮)를 갖추어 세배하는 것을 기(旗)로 대신한 것이다. 이처럼 농촌에서 마을 사이에 상하질서의 예절을 갖추는 기세배의 농경의례를 백중절 기세배놀이라 한다.

기세배놀이에는 공동체사회의 정신과 질서가 따른다. 기세배놀이의 세 요소는 농신기와 농악대, 농사꾼이다. 농신기는 용, 거북, 물고기와 같은 수신(水神)을 농신(農神)으로 섬기는 마을의 상징적인 깃발이다. 따라서 기세배는 농신기가 대신하는 마을끼리의 백중날 집단세배라고 할 수 있다.

기세배를 마치면 기잡이가 재기(才氣)를 부리고 흥겨운 합굿이 벌어진다. 합굿을 마친 뒤에는 각 마을의 농악대가 하천의 제방둑을 밟으며 지네밟기를 한다. 지네밟기는 지네를 밟자는 소리를 하고 걸어가면서 강하게 터를 밟는 방식이다. 음촌마을 주민들은 자기 마을의 지네혈을 밟아 누르는 합굿에 내심 불쾌하고 못마땅하지만, 양촌의 권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 합굿이 세 마을의 농신기가 서로 집단세배를 하면서 풍년을 축원하는 의식이라면, 지네밟기는 지네의 형국을 진압한다는 주술적 원리를 도입하여, 하천둑을 걸어가면서 터를 밟아주는 비보풍수 의식이다.

기세배놀이와 합굿, 지네밟기가 끝나면 세 마을의 주민들은 농신기를 앞세우고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 당산으로 간다. 현재 당산제는 개신마을 도로변에 있는 당산나무에서 행하고 있다. 당산나무 아래에 제물을 차려놓고 세 마을이 공동으로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제는 강신 - 헌주 - 참배 - 독축 - 소지의 순서로 진행한다. 당산제는 정월 초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괴양리의 당산제는 백중절에 지내고 있다. 이러한 합굿과 당산제의 전통은 괴양리에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미풍양속이다. 당산신은 세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세 마을이 합하여 놀이를 즐기는 백중절에 당산신에게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반드시 병행한다. 농신이 풍요신이라면, 당산신은 마을의 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당산제가 끝나면 기를 앞세우고 마을의 공동우물로 가서 괴양리가 처음 생겨난 태생의 축원굿을 친다. 우물가에 샘물을 떠놓고 샘굿을 치는 것으로 백중놀이를 마친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남원삼동굿놀이는 세 마을(三洞)이 아닌, 세 아이(三童)의 입신출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연대회 출전 이후 백중놀이의 원형이 변질되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현재 연행되고 있는 삼동굿놀이는 양촌마을 앞 새마을회관 광장 한 곳에서만 행해지고 있으며, 예전에 세 마을이 모여서 삼동굿놀이를 하던 백사장은 자취를 감추고 지금은 하천으로 변하였다.

또한 현재 전승되고 있는 삼동굿놀이의 절차도 기세배를 한 후에 당산제를 지내고 샘굿을 친 후에 다시 '삼동서기'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삼동서기는 세 마을의 농악대에 참가하는 세 무동을 괴양리의 풍수설화와 결합하여 과거 급제자, 관료, 장군으로 분장시키고 입신출세하는 내용으로 극화한 새로운 민속놀이의 과정이다. 삼동서기는 무동을 태운 세 사람이 각각 무동을 태운 동자를 두 다리 사이로 돌려서 빼내어 출산 과정을 연출하고, 가슴으로 품어 올려서 성장 과정을 연출하며, 부녀자들을 지네 형상으로 구부리게 하고 세 무동이 부녀자들의 등을 밟으며 걸어가는 형식으로 지네밟기를 한 후 대동합굿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의의 남원삼동굿놀이는 백중절 풍농을 축원하는 위로연으로서 호미씻이를 행하고, 세 마을이 모여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세배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내는 여름철의 대표적인 백중놀이이다. 특히 지네밟기는 괴양리의 삼동굿에서만 볼 수 있는 풍수놀이로서, 풍수지리와 민속놀이가 결합된 독특한 비보풍수의 민속놀이라는 데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神대와 農旗(李輔亨, 韓國文化人類學8, 韓國文化人類學會, 1976), 두레 共同體와 農樂의 社會史(신용하, 한국사회연구2, 한길사, 1984), 한국의 두레1(주강현, 집문당, 1997), 한국의 두레2(주강현, 집문당, 1997).

필자 | 송화섭(宋華燮)

농악(農樂)

정의 농민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풍농을 기원하고 액운을 막기 위해 행하는 제반 문화 현상. 농악(農樂)을 가리켜 풍물굿, 풍장굿, 두레굿, 매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단순히 '굿'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연행 주체나 목적에 따라 마을굿, 당산굿, 걸립굿, 판굿, 마당밟기(뜰밟기)라고도 하며, 연행 시기에 따라 대보름굿, 백중굿, 호미씻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농악을 굿이라고 부르고 세시놀이와 관련하는 것은 농악이 단순한 연희 혹은 놀이가 아니라 각종 세시명절에 연행되어 벽사진경과 감사제라는 민간신앙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농악은 농사일의 고된 노동을 공동체적 신명으로 푸는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 농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진주삼천포농악(晋州三千浦農樂, 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 평택농악(平澤農樂, 중요무형문화재 제11-나호), 이리농악(裡里農樂, 중요무형문화재 제11-다호), 강릉농악(江陵農樂, 중요무형문화재 제11-라호), 임실필봉농악(任實筆峯農樂, 중요무형문화재 제11-마호) 등 다섯 지방의 농악이 지정되었다.

유래 농악의 기원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고대국가의 풍습을 기록한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보이는 부여의 영고



이한철 풍속도 동아대학교 박물관















〈농악〉
1 강릉농악
2 진주삼천포농악
3 진주삼천포농악
4 평택농악
5 이리농악
6 이리농악
7 임실필봉농악
국립문화재연구소

(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같은 제천의식에서 농악의 기원을 찾기도 하는데, 이는 악가무(樂歌舞)를 수반하는 제천의식이 현재의 농악과 비슷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형태의 농악이 형성된 것은 아마도 조선 후기에 이앙법이 널리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규모의 집단 노동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의 신명을 돋우기 위한 풍물패의 음악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의식이나 놀이에 두루 쓰이기 시작하면서 농악이 발전했을 것이다.

농악의 기원에 관해 군대기원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농악에는 실제로 군대와 관련된 용어와 연행이 많다. 농악패는 여러 모양의 진(陣)을 짜고, 농악패의 기수가 드는 깃발도 군대의 영기(令旗)와 각종 깃발에서 비롯된 것이고, 농악패가 쓰는 전립(戰笠, 상모 혹은 벙거지)은 군대의 유풍이다. 또한 농악패의 악기도 군대와 관련된 것이다. 징과 북은 군대의 전진과 후퇴를 알리는 악기이고, 나발은 멀리까지 소리를 내는 군대의 신호용 악기이며, 태평소도 예전에는 군영에서 연주하던 악기이다. 이렇게 농악패에 남아 있는 군대 문화의 흔적은 농악이 조선 후기 군대의 음악 문화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내용 및 특징 농악패는 악기를 연주하는 치배(잽이)와 여러 종류의 분장을 하고 춤을 추면서 흥을 돋우는 잡색(뒷치배) 그리고 각종 깃발을 드는 기수(旗手)로 구성된다. 치배는 쇠(꽹과리, 깽매기, 꽹쇠), 징, 장구, 북, 소고의 순서로 편성된다. 마을에 따라 법고(벅구), 태평소(호적, 날라리, 새납), 나발, 영각(令角) 등을 편성하는 곳도 많다. 상쇠는 농악패의 행렬과 음악을 주도하는 역할 외에도 집안의 가신(家神)을 위한 고사소리나 덕담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잡색을 주도하는 대포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쇠 대신에 고사소리나 덕담도 해야 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농악패의 깃발은 농기(農旗)와 영기가 기본이고, 용(龍)을 그려 넣은 용기(龍旗)를 편성하는 곳도 있다.

농악은 전승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현재 농악은 지역별로 호남좌도농악, 호남우도농악, 영남농악, 경기농악(웃다리농악), 영동농악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호남좌도농악에는 임실필봉농악이 지정되어 있고, 호남우도농악에는 이리농악이 지정되어 있으며, 영남농악에는 진주삼천포농악이 그리고 경기농악에는 평택농악이 지정되어 있다. 또 영동농악에는 강릉농악이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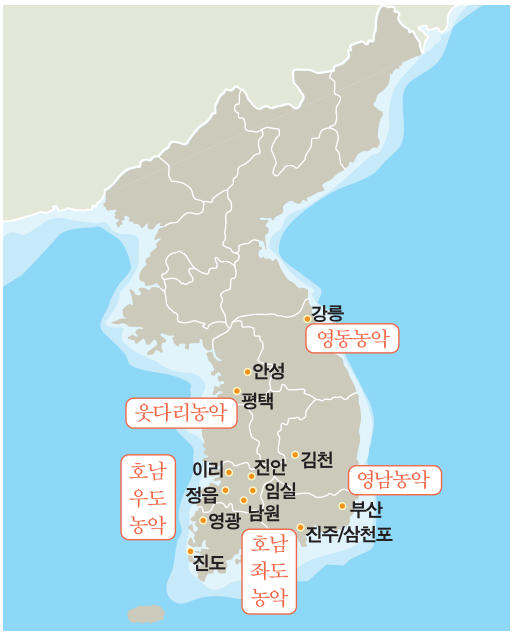
호남좌도농악은 전라도 동북부 지역인 임실, 진안, 남원, 곡성 등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농악이다. 이 지역은 가락이 힘차고 호남우도농악과 영남농악의 사이에 위치해서 두 농악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임실필봉농악은 걸출한 상쇠인 양순용이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는 걸궁패의 상쇠로 활동하다가 필봉농악단을 구성하여 전주대사습놀이(1979)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84)에 입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임실필봉농악의 편성은 대개 쇠 4, 징 3, 장구 7~8, 북 1~2, 소고 8~12가 기본이다. 여기에 날라리와 나발 각 1명, 기수 그리고 잡색(대포수, 양반, 조리중, 각시, 화동, 창부, 농구, 무동) 등으로 구성된다. 임실필봉농악은 편성이 큰데, 이는 다수가 참여하여 공동체의 단결을 도모하려는 마을농악의 전통을 잇는 것이다. 복색을 보면 치배는 흰 바지저고리에 남색 조끼를 입고 삼색띠(가사)를 두르고, 머리에는 고깔을 쓰는 것이 기본이다. 쇠잽이들은 색동(까치동) 반소매 동리가 달린 쇠옷을 입고, 등에 삼색드림과 허리에 청색드림을 두르고, 머리에는 흰 두루미털로 만든 부포를 단 전립을 쓴다. 소고는 머리에 고깔을 쓰는 고깔소고와 전립을 쓰고 채상놀이를 하는 채상소고로 구분된다.

임실필봉농악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호남좌도농악에서는 모든 치배들이 전립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전문 연희 집단인 걸립패의 영향으로 채상놀이를 하기 위해서인데, 채상놀이는 고도로 숙련된 치배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호남좌도농악의 치배들이 화려한 채상놀이를 하는 것을 두고 흔히 머리 위쪽을 주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윗놀음'이 발달했다고 한다.

임실필봉농악의 가락은 3소박 4박 장단으로 된 갠지갠, 된삼채, 질굿, 두마치, 이채, 삼채, 사채, 육채, 칠채, 휘모리 등이 있고, 혼소박 장단인 오채질굿,

전국 농악 분포도



3소박 6박 장단 장단인 일체 등이 있다. 3소박 4박자 가락 중에는 2+2+2의 2소박으로 치는 가락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호남우도농악은 전라도의 서남부 지역인 익산(이리), 김제, 정읍, 부안, 고창, 영광, 광주에서 전승되는 농악이다. 이 지역 농악은 가락이 화려하고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호남우도농악은 1920년대에 정읍지방의 민중 종교인 보천교가 농악을 종교 음악으로 채택하면서 정읍을 중심으로 뛰어난 치배들이 모여들면서 크게 성행했다. 정읍농악이 처음 입장료를 받고 공연하는 포장걸립을 했고, 1950년대에 여성농악단이 크게 활약한 곳도 호남 우도 지역이다. 이리농악의 역사는 예능보유자인 김형순이 부안에서 이리로 이주하여 농악단을 결성하고 주변의 이름난 치배들이 모여들어 전국농악경연대회(1983)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85)에서 입상하면서 유명해졌다.

이리농악의 편성은 꽹쇠 4, 징 2, 장구 5~6, 북 2, 소고 12~16(고깔소고와 채상소고)이 기본이고, 여기에 나발과 새납 각 1명, 기수 그리고 잡색(대포수, 조리중, 창부, 양반, 각시, 무동) 등으로 구성된다. 치배의 복색은 흰 바지저고리가 기본이다. 이 위에 꽹쇠와 징수는 색동 반소매가 달린 쇠옷을 입는다. 상쇠는 등에 일월(日月)을 상징하는 둥근 거울 모양의 장식을 두 개 단다. 나머지 치배는 소창옷을 입고 삼색띠를 맨다. 꽹쇠와 영기수는 머리에 전립을 쓰고 나머지 치배는 고깔을 쓴다. 소고잽이 중에는 채상소고를 쓰고 상모놀이를 하는 잽이도 있다. 치배들이 대부분 고깔을 쓰는 것은 여러 모양의 진(陳)을 짜면서 노는 '아랫놀음'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리농악에서는 오방진, 쌍방울진 등의 여러 진놀이가 다른 지역의 농악에 비해 발달했다.

이리농악의 가락은 3소박 4박인 인사굿, 양산도, 긴삼채, 짧은삼채, 매도지, 달어치기 외에 2소박 4박자인 이채, 오방진이 있고, 혼소박 4박자인 오채질굿, 우질굿, 호호굿이 있다. 이렇게 이리농악은 가락의 종류도 많고 치배들이 변주가락을 화려하고 섬세하게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남농악은 경상도 일대에 전승되는 농악이다. 진주와 삼천포(사천시)는 서로 인접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오랜 공생 관계를 유지했다. 1966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당시 진주농악의 황일백과 삼천포농악의 문백윤이라는 두 걸출한 상쇠가 전한 가락을 '농악 12차'라는 가락으로 합친 것이다.

진주삼천포농악은 다른 지방의 농악에 비해 군악(軍樂)적인 요소가 많고 남성적인 농악이다. 진주삼천포농악의 편성은 쇠 3~4, 징 2~3, 장구 3~5, 북 2~5, 벅구 8 혹은 12명이 기본이다. 여기에 나발과 호적, 기수 그리고 잡색 등이 편성된다. 치배의 복색은 흰 바지저고리에 삼색띠가 기본이다. 상쇠는 등에 일월을 상징하는 둥근 쇠를 두 개 단다. 쇠잽이와 징잽이 그리고 북잽이는 부포가 달린 상모를 쓰고, 장구잽이와 벅구잽이는 상피지가 달린 채상모를 쓴다. 이렇게 진주삼천포농악의 치배들은 전원이 전립을 쓰고 윗놀음을 많이 하는데, 이는 예전 걸립패의 흔적이다.

진주삼천포농악의 가락은 다른 지방의 농악 가락에 비해 매우 빠르게 몰아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느린 음악에서만 연주할 수 있는 혼합박자의 가락이 드물고 대부분의 가락이 3소박 4박자로 되어 있다. 가락의 종류로는 얼림굿, 인사굿, 오방진(진풀이), 덧배기, 길군악, 연풍대, 영산다드래기(자부랑깽), 다드래기, 등맞이굿, 호호굿, 굿거리 등이 있다.

경기농악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고도로 숙련된 기예를 연행하던 유랑 예인 집단인 걸립패 혹은

사당패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경기농악은 한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마을농악이라기보다는 그 마을에 거주하는 명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인 단체(행중)의 성격이 강하다. 평택농악도 젊어서 걸립을 하던 최은창이라는 명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렇듯 평택농악은 전문 연희패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치배의 편성도 단출해서 보통 쇠 2, 징 1, 장구 3, 북 2의 8치배가 기본이다. 여기에 법고 8명과 무동 8명, 호적과 양반 각 1명, 기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고와 무동은 상황에 따라 훨씬 적은 수가 편성되기도 한다. 평택농악에 무동이 많은 것은 삼무동 혹은 오무동(곡마단) 같은 무동놀이를 위해서이다. 평택농악에서는 12발 상모놀이를 하기도 한다. 치배는 흰 바지저고리에 삼색띠(가사)를 두르고, 머리에는 나비상을 단 전립을 쓴다. 법고잽이는 전립을 쓰고 채상놀이를 한다.

평택농악의 가락은 3소박 4박으로 된 것이 많은데 쩍쩍이, 삼채, 좌우치기, 양산더드래기, 연풍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2소박 4박으로 된 자진가락(이채)과 더드래기도 있고, 혼소박 가락의 마당일채와 길군악 칠채 등이 있다.

영동농악은 다른 어느 지방의 농악에 비해 향토성이 깊이 배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강릉농악은 전형적인 마을농악의 전통을 간직한 것으로서, 정초의 지신밟기나 정월대보름의 다리밟기, 2월의 좀상놀이, 3월의 화전(花煎)놀이 같은 명절의식과 관련되어 마을 공동체의 대동단결을 위해 농악을 연행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농악은 치배의 복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독특하며, 가락이 빠르고 힘찬 특징이 있다.

강릉농악은 강원도 강릉 홍제동 농악의 상쇠였던 박기하와 사천면 하평농악을 이끌던 김용현이 연합하여 1985년에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입상하고 같은 해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강릉농악은 강릉의 4개 농악대(두산동, 원호평동, 저동, 사천답교)가 연합한 것으로서, 강릉농악의 판굿은 어느 한 지역의 판굿이 아니라 강릉 지역 전체의 내용을 포괄하여 연출한 것이다.

강릉농악의 치배는 쇠 3, 징 2, 장구 2, 북 3, 소고 8, 법고 8, 무동 8, 농기수 1, 호적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예전에는 여러 잡색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동 이외에는 편성되지 않는다. 강릉농악에서는 소고와 법고를 구별하는데, 소고는 법고에 비해 크기가 크고 자루를 달아서 악기를 치면 "철철"하는 소리가 난다.

치배는 흰 바지저고리에 삼색띠를 두른다. 머리에는 짧고 두꺼운 방망이 상모를 매단 벙거지를 써서 상모놀이는 하지 않는다. 쇠잽이는 상모지를 매단 벙거지를 쓰며, 상쇠(상공)는 남색 등지기를 입는다. 소고잽이는 다른 치배와 같은 복색이지만 법고잽이는 긴 상모지가 달린 벙거지를 쓰고 채상놀이를 한다. 기수와 무동 그리고 호적수는 모두 고깔을 쓴다.

강릉농악의 가락은 일채(한마치), 이채, 삼채, 사채, 길놀이(신식 행진가락), 굿거리, 구식 길놀이(12채), 구식 행진가락(천부당만부당), 칠채(멍석말이)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2소박 4박 혹은 3소박 4박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 三國志, 農樂(鄭晛浩, 悅話堂, 1986), 호남우도 풍물굿(김익두 외, 전북대학교, 1994), 호남좌도 풍물굿 (김익두 외, 전북대학교, 1994), 풍물굿 연구(김원호, 학민사, 1999).

필자 | 이용식(李庸植)

두레놀이

⇨ 백중놀이(百中-): 가을편

들독들기

⇨ 들돌들기: 가을편

들돌들기

정의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는 거석행위(擧石行爲)로서 소동(小童)들이 진쇠[成人]가 되는 관례의식이며, 노작(勞作)의 협동관행의 두레의례. 들돌을 가리켜 거석, 뚱돌, 쇠돌, 들독, 등돌, 든돌, 뜬돌, 당산돌, 신돌, 초군돌, 차돌백이돌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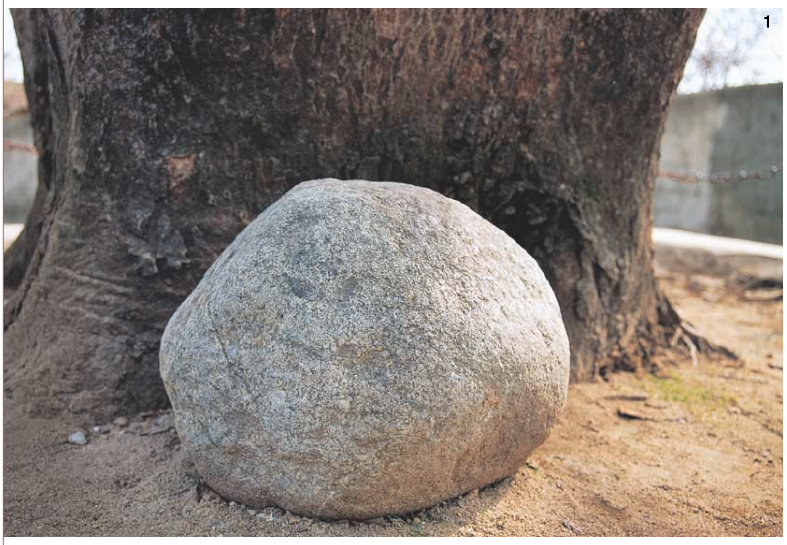
내용 돌은 그 항구불변성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힘과 영험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믿어져, 고대로부터

이를 신성시하여 주술적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미 신석기시대에 풍양, 내세, 현세의 축원을 위해 돌멘, 선돌, 열석 같은 암석 제례가 종교적 복합체로 존재하였다.

들돌은 주로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 있는데 노두목, 정자, 당집, 선내(船內), 장자집 마당에서도 볼 수 있다. 각 마을마다 가지고 있는 들돌의 수는 1~3개이지만 많으면 5~7개에 이르는 곳도 있다.

들돌은 견고하고 무거운데 큰 들돌의 경우는 젊은이들이 지면에서 들어올리는 땅뜨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거운 돌이며 작은 들돌은 쌀 한 가마의 무게로 등 넘기기를 할 수 있는 돌이다. 마을 제단인 당집에 있는 들돌은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가볍다.

1 들돌
2 들돌들기
전북 임실군 덕치면 황현만


1


2

들돌은 여러 빛깔을 띠고 있는데, 흔히 동구 밖에 있는 들돌은 백색(白色)이고, 마을 앞 당산나무 아래에 있는 들돌은 흑석(黑石)과 청색(靑色)이며, 장자 집에 있는 들돌은 황색(黃色), 산중 마을이나 어촌 마을은 적색(赤色) 들돌이 많다. 청색 들돌은 풍년을 들게 하고, 흑석은 풍우(風雨)를 고르게 한다. 백색은 귀신을 막으며 적석은 돌림병이나 액살(厄煞)을 물리치고 황석(黃石)은 부귀영화를 얻게 한다고 한다.

대개 정월대보름, 유월 유두(流頭), 칠월 칠석(七夕), 백중(百中), 추석(秋夕) 등의 명절에 들돌들기를 하는데, 소동들이 진쇠가 되기 위해 마을 원로인 좌장 앞에서 들돌을 들어 판정을 받는다. 평소에도 휴식 공간인 당산나무 밑에서 심신의 단련과 친목을 다지고 허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 틈나는 대로 들돌들기를 한다.

일인력(一人力) 들돌을 넘기면 진쇠(성인)의 온품값을 받고, 성인이 되었으므로 장가도 갈 수 있다. 이인력(二人力) 들돌을 넘기면 장사라 하며, 삼인력(三人力) 들돌을 넘기면 '머리나이'라고 하였다. 머리나이는 곱절의 품값을 받았으며, 풍물판의 기수로 선발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머슴살이로 오면 들돌을 들게 하여 그의 힘의 세기를 알아보기도 하고, 장가를 보내달라고 보채면 허리힘을 보기 위해 들돌을 들게 했다.

놀이 방법은 양발을 벌리고 굽은 자세로 땅뜨기, 물박치기, 허리 올리기, 가슴팍 올리기, 등 넘기기 등이 있다. 두레꾼들이 편을 갈라 가슴에 품고 당 돌기, 어깨에 메고 당나무 돌기, 마을 돌기를 한다. 또 머리위로 치켜 올리기, 들돌을 지게에 지고 양손으로 귀 잡고 일어서기 등의 여러 놀이가 있는데, 들돌을 들어서 등 뒤로 넘기므로 '등돌놀이'라고도 한다.

지역사례 전남 신안군 흑산도 진리당의 들돌은 당집 중앙 제궤(祭几) 밑에 모셔져 있다. 제주(祭主)는 당신(堂神)에게 제사 지낸 후 들돌을 들어보아서 가벼우면 깨끗한 제사를 지내서 당신이 잘 흠향하였다고 믿고 파제(罷祭)를 한다. 만일 들돌이 무겁고 빛깔이 이상하면 다시 날을 받아 제사를 지낸다. 어촌에서는 배의 선왕으로 모시는 곳도 있다.

전남 보성군 노동면 거석리(擧石里)의 들돌은 당제가 끝나면 지난해 들돌 장원이 들돌을 들어 당제를

잘 지냈는지를 확인한다. 그 후에 들돌놀이를 하는데 들돌을 드는 정도에 따라 상머슴, 담살이 등으로 구분하여 새경을 결정한다. 한편 아기를 못 가진 부녀자들은 들돌에 금줄을 치고 정화수를 떠놓고 소원을 빌면 득남한다고 한다.

인접국가사례 일본은 들돌을 신사(神祠)의 경내나 공회당의 마당에 젊은이들이 거석하도록 역석(力石)이란 들돌을 놓아두고 있다. 인도 브라만의 아이는 성년식 때 돌을 밟게 했다. "이 돌을 밟아라. 이 돌이 단단하듯이 돌을 밟아라." 하며 오른발로 돌을 밟도록 명령한다. 이러한 의식은 결혼 때 신부에게도 준수된다. 인도네시아의 카이 제도에서는 남편이 출정하면 들돌에 기름을 발라서 상자에 넣어놓으면서 "이 기름을 칠한 것이 비를 튀기듯이 우리 남편의 몸으로 하여금 적의 화살을 튀기게 하소서." 라고 축원한다.

의의 들돌은 개촌주, 장사, 농부(초군), 소동, 제주가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대개 여인이 치마에 싸가지고 온다. 남성들은 여인이 신성한 곳에서 치마에 싸가지고 온 들돌을 들어 힘을 길러 품자리에 들어가야 하며 낮에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 또한 들돌은 당나무의 갈라진 가지 속에 올려놓거나 구멍 속에 넣어 교접의 주력으로 나무시집보내기[嫁樹]를 시키고 연리목(連理木)이 되게 하여 풍성한 생산과 안산을 기구한다.

들돌은 동구 밖 길목에서 또는 당산에서 재액을 막아주는 마을의 부적이며 수호신이다. 들돌은 마을에 힘이 있음을 알리는 증표로서 이것이 있으면 잡귀, 잡신이 마을을 범하지 못한다. 노두를 건너갈 때도 아무런 변고가 없도록 들돌을 들고 갔다. 힘든 뱃길에 나갈 때에도 먼저 들돌을 들고 나서 나갔다. 농우(農牛)가 탈진하면 들돌을 밟고 지나가게 한다. 들돌의 형상은 타원형으로 길쭉한 것도 있으나 대체로 알처럼 생겼으며 쌀알과 흡사하거나 만월처럼 둥글다. 이는 생식과 풍요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들돌들기는 진쇠가 되는 관례의식이며 노작의 협동 관행의 두레의례이다.

참고문헌 | 南道民俗考(崔德源, 삼성출판사, 1990).

필자 | 최덕원(崔德源)

마산농청놀이(馬山農廳-)

정의 경상남도 마산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동체적 생산과 협동을 목적으로 한 자치 조직인 농청의 작업과 경기 과정을 표현한 향토 예능(鄕土藝能). 마산농청놀이는 특히 논농사의 작업을 반영한 향토 예능의 하나로, 공동 작업과 공동 경기를 위한 집단 민속 예능이다. 1983년 8월 6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민속놀이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마산민속문화보존회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

유래 마산농청놀이는 경남 마산과 창원 지역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로서 그 연원은 두레로 볼 수 있다. 원시 공동사회에서는 협동 노동의 필요성에 의해 일정한 조직체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조직체로 두레를 꼽을 수 있다. 두레의 연원은 이미 씨족사회 말기 부족국가 시대로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이 후세의 농청(農廳)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두레는 지역에 따라 농사(農社), 농기(農旗), 농계(農契), 목청(牧廳) 등으로 불려왔는데, 중부 이남 지역의 두레에서는 두령(頭領)을 좌상(座上), 그 밑의 간사역(幹事役)을 공원(公員)이라 했다.

두레마다 각각을 대표하는 기(旗)가 있었고, 유훙으로 풍물이 있었다. 호칭은 지역공동체의 일반적 호칭인 선생(先生), 제자(弟子), 형(兄), 제(弟) 등으로 예(禮)를 갖추었으나 후대에 내려오면서 두레와 두레 간에 기(旗)를 넘어뜨리는 기(旗)싸움이 생겼다. 기싸움에서 이긴 쪽은 형 두레[大旗]가 되고, 진 쪽이 아우 두레[小旗]가 되었는데, 이로부터 농청은 형 두레와 수십 개의 아우 두레가 뭉쳐진 하나의 지역사회집단이 되었다. 이 두레기(훗날의 농청기) 싸움이 바로 농청놀이의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농청은 초기에는 자연적 원시공동체였으나, 훗날 지역 사회의 단합과 공동 작업, 공동 경기를 위한 인위적 사회 집단으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 마산 지역의 두레는 농청의 형태로 줄곧 전승되었는데, 농청 간의 기싸움은 주로 경남 마산시 봉암동 어복골[魚伏谷]에 있는 '상투바위'를 둘러싸고 행해졌다. 세벌논매기를 끝낸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을 맞이하여 이 상투바위에 농청기를 먼저 꽂고 정성들여 기도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이 창성하며

대풍년이 들고 관재구설(官災口舌)을 막아내는 데 큰 효험이 있다고 한다. 또 이날 처녀 총각들은 건너편 언덕에서 돌을 던져 이 바위의 홈에 돌이 얹히면 그해 좋은 혼처가 생겨 시집, 장가를 가게 된다는 속신(俗信)이 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농청은 서로 먼저 영암(靈岩)인 상투바위에 가고자 기싸움을 벌인다.

이 지역의 농청은 1919년 기미독립만세운동(己未獨立萬歲運動)이 일어나자 일제의 강압으로 잠시 중단되었으나 1925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1929년 어복골 뒤쪽에 상수도 수원지가 건설되어 마을 주민들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사라졌다.

그 후 1981년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마산민속문화보존회가 결성되어 예전에 농청놀이에 참여했거나 구경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의 증언과 학계 인사들의 고증을 거쳐 마산농청놀이를 복원하였으며, 그해 첫 평가회를 가진 후 매년 각종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오늘날과 같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내용 마산농청놀이는 첫째 마당인 기제(旗祭)로부터 둘째 마당인 쟁기전 마당과 셋째 마당인 축원 마당, 넷째 마당인 홍취와 회향 마당의 모두 네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마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당은 상투바위로 떠나기 전에 올리는 기제(旗祭)로부터 시작된다. 이때 사용하는 깃발은 길이 8미터에 너비 1.5미터 정도의 농청대기(農廳大旗)이다. 깃대 앞에는 멍석을 깔고 명태와 밀떡 등이 제물로 차려진 후 두령인 좌상(座上)이 헌작하고 절하면 일동이 재배한다. 예(禮)를 마치면 풍물에 맞춰 농청대기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함성을 지르며 상투바위로 향한다.

둘째 마당인 쟁기전이 시작되면 구강농청패와 봉정농청패로 나뉜 두 농청패를 선두로 풍물패에 이어 장정들이 호위하는 농청대기가 그 뒤에 서고 좌상이 행렬의 총지휘를 한다. 뒤를 이어오는 남자들은 기구와 음식을 실은 지게를 지고, 여자들은 질그릇을 이고 풍물을 올리며 일대 행렬을 이룬다.

행진 중 다른 농청과 만나면 좌상의 명령에 의해 한 무리는 자기 농청기를 둘러싸서 지키고, 다른 한 무리는 상대편 대기(大旗)를 꺾을 태세로 진을 친다. 양편 모두 앞뒤로 어르며 빙빙 돌다가 신호에 따라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공격대가 상대편 대기를 향해 몰려간다. 공격대와 대기를 지키는 상대방 무리가 격돌하면 난장판을 이룬다. 싸움 중에 깃대가 기울어 넘어지고 깃발이 풀어진 쪽이 패배하게 된다. 이긴 편은 환호성을 울리고 밀대방석을 흔들며 춤을 추고 상투바위 앞으로 달려가 농청대기를 바위 상단에 꽂는다. 진 편은 땅을 치며 통탄하다가 이긴 편 풍물패의 권유에 따라 넘어진 대기를 수습하여 바위 하단에 꽂는다. 이때 여러 개의 소기(小旗)를 대기 밑에 꽂는데, 이것은 대기를 중심으로 하는 각 농청원들의 단합을 뜻한다.

싸움이 끝난 후 셋째 마당인 축원 마당이 되면 농청원들은 메고 온 밀대방석을 상투바위 앞에 깐다. 여자들은 이고 온 음식을 차려놓고 일제히 엎드려 소원성취를 비는 기도를 올린다. 이 기도문을 '성신선고(聖神宣告)'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헤이 해동조선 경상남도 마산시 봉암동 반룡산 어복곡 만성가문 만성중생 목욕재배 축원례이, 천지지신 용왕상제님네 오방신장님네 반룡산 산신님네 만성가문 만성중생 죽은 조상님네 화혜동참하옵소사. 칠월 백중당천명일 차갑상에 높이 앉아 착실히 용감하시고 금년농사 장원하고 자손이 창성하고 관재구설 막아서 하로같이 남기시고 개모조리 고뿌리는 똘똘 몰아다가 거제 장서방집에 할라크든지 안할라크든지 억지로 들어 매기삐고 안과태평하여 만대유전하여 주시기를 점시하여 주옵소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상투바위에 축원하는 모습은 다양하다. 바가지에 물을 떠서 부정을 닦고 종이에 불을 붙여 손으로 날려 보내기도 하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나와 정성껏 합장배례하기도 한다.

넷째 마당인 홍취와 회향 마당에서 농청원들은 술과 음식을 실컷 마시고 먹으며, 각 농청 간에 여러 경기와 놀이를 한다. 원래 일정한 놀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즉흥적으로 태껸을 하는 수도 있고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길게 늘어지면 맨 앞사람들이 팔을 붙잡고 줄다리기식으로 힘을 겨루는 놀이를 하기도 한다. 각 농청들에서 풍물이 나와 장기자랑을 하기도 하며, 갖가지 춤을 즐기기도 한다.

경기 중 씨름을 통해 상머슴을 뽑는데, 쌍방에서

선발된 두 명의 장사가 나와 이긴 장사가 상머슴이 된다. 쌀섬을 상품으로 주는 한편 두 사람을 무등태우고 좌상과 농군들이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며 즐긴다. 백중이 호미씻이를 하는 머슴들의 날임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각 농청들은 무리를 지어 춤을 추다가 판굿을 벌이고 풍물을 치며, 상투바위 앞에서 한바탕 놀다가 인사를 하고 각각 자기 농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놀이는 끝난다.

의의 마산농청놀이는 두레로부터 이어온 오랜 전통을 가진 농청의 모습을 잘 전승하고 있으며, 기싸움의 풍습과 서민들의 기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상투바위에 대한 속신을 통해 민간신앙의 다양한 양상을 느낄 수 있다. 놀이판에서 나타나는 가락과 춤은 농민의 생활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싸움에서는 농청 간의 힘과 권위를 위해서 격렬한 승부를 겨루다가도 승패가 가려진 다음에는 승패와 관계없이 소탈한 인정을 베풀며 함께 즐기는 미덕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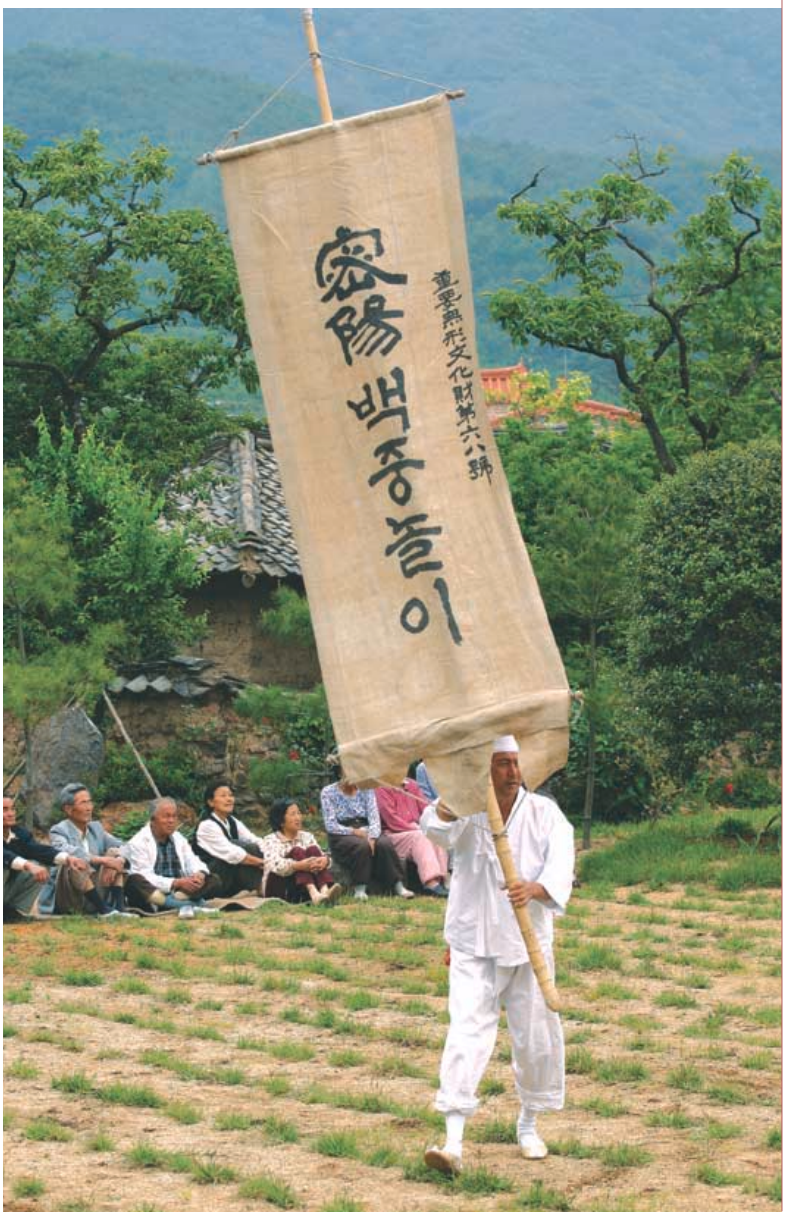
마산농청놀이는 전통적 백중놀이의 세시적 의의를 보여주며, 동시에 전통 농촌의 촌락 단위 자치 조직으로서 마을의 경제, 군사, 노동 단체이자 경기, 유흥 단체인 농청을 통한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생산과 협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놀이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大觀3-民間信仰·宗敎-(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韓國 民俗文化 硏究(康龍權, 集文堂, 1996), 鄕土의 民俗文化(康龍權,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硏究院, 1996), 지역민속의 세계(이경엽, 민속원, 2004).
필자 | 류종목(柳鍾穆)

밀양백중놀이(密陽百中-)

정의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서 직접 농업 생산 활동에 참가하는 농민들이 논에서 김매기를 마칠 무렵인 백중(百中)을 전후하여 벌이는 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놀이는 주로 논농사가 발달한 중부 이남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전승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그 명칭과 놀이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호미씻이라고 부르는데 '논매기가 끝나고 호미를 씻어둔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호미씻이말고도 써레씻이(강원도), 길꼬냉이·대동굿·장원례·술멕이(전라도), 머슴날(전라도, 경상도), 백중놀이·풋굿·꼼배기·꼼비기·깨임말타기(경상도), 초연(草宴), 세서연(洗鋤宴) 등으로 그 명칭이 다양하다. 이 중에서 초연과 세서연은 풋굿과 호미씻이의 한자 명칭이다.

유래 백중의 전통은 불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불교에서는 이날 아귀보(餓鬼報)를 받는 중생의 구제를 위해 우란분재(盂蘭盆齋)를 열었는데, 불교의 수입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 고려시대에는



밀양백중놀이
경남 밀양 국립문화재연구소


1


2


3


6


11


12


4


5


7


8


9


10


13


14

〈밀양백중놀이〉
1 농신대 만들기
2 농신대 만들기
3 용줄에 주머니 달기
4 완성된 농신대
5 잡귀막이굿
6 모심기 흉내
7 춤추는 놀이꾼들
8 김매기 흉내
9 농신대 앞에 제물 진설
10 농신대 앞에서 고사
11 춤추는 좌상
12 음복
13 작두말타기
14 양반춤
경남 밀양 국립문화재연구소


1


2


3


7


8


9


10


12


13


14


4


5


6


11


15


16

〈밀양백중놀이〉
1 양반춤
2 병신춤
3 범부춤
4 행진
5 길놀이
6 길놀이
7 주인집 앞의 놀이꾼
8 주인집 앞의 놀이꾼
9 막걸리 대접
10 주인집에서 내놓은 명태포와 막걸리
11 상머슴에게 명태포를 내주는 주인
12 주인집에서 음복하는 좌상
13 주인집에서 음복하는 머슴
14 주인집 마당에서 풍물
15 화동마당
16 화동마당
경남 밀양 국립문화재연구소

왕실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된 행사였다고 한다.

이처럼 불교의 명절이었던 백중은 조선 후기에 이앙법(移秧法)이 일반화하기 시작하면서, 농업과 연관된 세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논농사에서 가장 고된 일인 김매기는 대개 음력 7월 보름을 전후하여 끝나는데, 농민들은 이를 기념하고 즐기기 위해 그들만의 축제를 열었고 그 시기가 백중과 겹쳐짐으로써, 불교축제인 백중에 농민축제의 성격이 덧붙여진 것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밀양도호부조(密陽都護府條)의 영남루기(嶺南樓記)를 보면 "긴 강을 굽어 끼고 넓은 들은 평평히 얼싸 안고 있으며, 농사는 부지런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밀양은 예로부터 농업이 성한 곳으로서, 백중놀이의 전통 역시 강성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밀양 지역의 농민들이 전승해온 백중놀이는 김매기를 마친 일꾼들이 푸짐한 먹거리를 즐기면서 활발한 놀이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풍물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놀이의 핵심은 그해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상일꾼'을 뽑아서 소의 걸채 또는 작두말 등에 태우고 삿갓을 거꾸로 씌우는 등의 가장을 시켜, 마을을 돌면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것이었다.

밀양백중놀이는 농민들의 백중놀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이 지역 한량들의 친목 조직이라고 전하는 보본계(報本契)의 들놀이에 그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한다. 이 들놀이의 중심적 연행은 '병신놀이(병신굿)'로서,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쉴 때 병신춤을 추며 양반을 풍자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지만 근거가 모호하다.

이 놀이는 1970년대에 들어 지역축제인 밀양아랑제에 첫선을 보였으며, 1972년부터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 처음 참가할 때의 명칭은 '병신굿놀이'로서 인사굿, 신풀이굿, 병신굿, 모듬굿 등을 연행하였는데, 그 뒤 명칭과 내용이 여러 번 바뀌었으며 1980년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여하면서 놀이의 명칭을 '백중놀이'로 바꾸고, 내용도 오늘날 전승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뒤 1980년 11월 17일, '밀양백중놀이'라는 이름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가 되었다.

내용 밀양백중놀이는 앞놀이, 본놀이, 뒷놀이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앞놀이는 잡귀맞이굿, 모정자놀이, 농신제 순으로 진행되는데, 제의적 요소가 강한 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잡귀맞이굿은 놀이꾼들이 놀이판 가운데에 세운 농신대를 향해 삼배(三拜)를 하여 오방신장을 일으켜 잡귀를 막고 신이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모정자놀이는 모심기와 논매기소리를 부르면서 모심고 논매는 동작을 흉내내는 놀이이다. 이 놀이가 끝나면 씨름이나 들돌들기로 좌상, 무상, 숫총각을 뽑고 덧배기춤을 춘다. 흥이 고조되면 농신대 앞에 제물을 차리고 농신제를 지내는데, 이때 잡귀를 쫓기 위해 약쑥을 태운다. 농신대는 저릅대(삼대) 360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묶고 위에서부터 새끼줄 12개를 늘어뜨린 모양이다. 농신대의 네 묶음은 사계절을, 새끼줄 12개는 일년 열두 달을, 삼대 360개는 일년 360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방으로 네 가지 색깔의 베를 묶어 사선으로 당겨 매는데, 북쪽에는 흑색, 남쪽에는 적색, 동쪽에는 청색, 서쪽에는 백색을 각각 매고 중앙에는 황색을 감아 오방신장을 상징한다고 한다.

본놀이는 앞놀이에 비해 극적 요소가 강한 작두말타기와 양반춤, 병신춤, 범부춤 등의 춤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두말타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신명이 솟구치면 양반이 머슴들의 놀이판에 끼어들어 양반춤을 추는데, 이러한 양반의 모습이 못마땅한 머슴들은 양반을 놀이판에서 쫓아내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병신춤을 춘다. 병신춤 대목에서는 곱추춤, 난쟁이춤, 꼬부랑할미춤, 떨떨이춤, 문둥이춤, 배불뚝이춤, 봉사춤, 절름발이춤, 중풍쟁이춤, 히줄래기춤 등 열 명의 배역들이 각자의 장기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이런 춤은 양반춤과는 대조적으로 자유분방한 분위기로 구경꾼을 격동시킨다. 놀이판에서 쫓겨난 양반은 이를 보고 흥겨움을 참지 못하여 의관을 벗어던지고 놀이판에 뛰어들어 범부춤을 춘다. 놀이판을 돌면서 입장하여 장구잽이와 대무를 하는 범부춤을 달리 벌춤이라고도 한다.

뒷풀이는 오북춤과 화동마당으로 구성되는데, 놀이꾼과 구경꾼이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며 노는 대동의 장이다. 오북춤은 풍물잽이 중에서 다섯 명의 북잽이들이 나와 역동적이 춤판을 벌이는 것이다.

흥겨운 덧배기장단에 맞추어 원형을 만들면서 조이고 푸는 것을 거듭하며 북배김을 하는데, 북배김은 북잽이들이 원심을 향해 모여들어 서로 마주 보며 북을 힘차게 치는 것으로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다. 오북춤은 오행과 오기가 순조롭고 오체가 성하며, 오곡이 잘되어 오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화동마당은 놀이꾼들과 구경꾼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바탕 춤을 추며 신명을 맘껏 풀어내는 장으로서 이 놀이의 대단원을 이룬다.

지역사례 전남 진도 지역에는 농사를 제일 잘 지은 집에서 하는 '장원례(壯元禮)'라는 놀이가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그 집 머슴에게 술을 권하며 위로하고, 얼굴에 검정칠을 하여 도롱이를 입히고 머리에 삿갓을 씌워서 우습게 꾸민 후, 지게나 사다리 혹은 황소 등에 태워서 마을을 돌았다. 머슴이 총각이거나 홀아비인 경우, 마을 어른들이 마땅한 처녀나 과부를 골라서 장가를 들여 주고 살림도 장만해 주는 풍습이 있었다.

경남 창녕의 영산에서는 서로 품앗이를 하는 머슴끼리 한패가 되어, 나이에 따라 상머슴·중머슴·새끼머슴 등을 정한 후 소에 태우고, 풍물을 치고 영각(나발)을 불며 성내를 한 바퀴 돈 후 주인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주가무를 즐겼다.

경북 예천의 금당실에서는 논매기를 마친 후에 날을 잡아 잔치를 벌였는데 '풋구먹는다'고 하였다. 풋구를 먹기 전날에 농로를 수리(治道)한 뒤에 풋구날이 되면, 일꾼들의 우두머리인 '상일꾼'의 주도로 주인집에서 내온 푸짐한 먹거리를 먹고 마시면서 가무를 즐겼다. 풍물 반주에 맞추어 놀았는데, 상일꾼은 삿갓을 뒤집어썼다.

의의 백중놀이는 고된 농업활동을 일단락 지은 농민들이 벌인 축제로서, 축제의 주체는 머슴과 소농이었고 지주 부농들은 이들을 후원하는 입장에 있었다.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 머슴과 소농들은 맘껏 먹고 마시면서 신명을 풀어냈으며 지주부농들은 이를 용인하고 후원함으로써, 고용인과 피고용인, 지주와 소작인이 상생(相生)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밀양백중놀이는, 민속예술과 놀이 그리고 신앙을 바탕으로 구성한 공연물로서, 내고 달고 맺고 푸는 우리 마당놀음의 연행원리를 수용하여 신명풀이의 미학을 구현함으로써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 東國輿地勝覽, 密陽 백중놀이 硏究(裵桃植, 韓國民俗學19, 民俗學會, 1986), 호미씻이(김수남·김미숙, 평민사, 1986), 중요무형문화재2(문화재연구회, 대원사, 1999), 금당실의 축제문화(한양명, 예천 금당실·맛질마을,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2004), 밀양백중놀이의 전통창출과 사회문화적 의미(추현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필자 | 한양명(韓陽明)

백중놀이(百中-)

정의 음력으로 7월 15일 백중날 행해지던 놀이.

개관 본래 백중놀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농촌에서는 백중(百中)을 명절로 여겨 가정에서는 차례를 모시기도 하고, 또 마을에 따라서는 동제를 모시는 곳도 있다. 또 마당밟이를 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마을도 있다. 명절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쉬면서 여러 가지 의례를 올리고 놀이를 즐기는데, 이들을 모아 통칭하는 말로써 백중놀이라고 한다.

현재 백중놀이라는 말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지명(地名)과 함께 묶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예는 경남의 밀양백중놀이이다. 그 밖에도 충남의 연산백중놀이, 충북의 괴산백중놀이, 서울의 송파백중놀이 등이 있으며, 전북 남원의 삼동굿놀이, 전주의 칠월백중놀이도 백중일에 하는 백중놀이이다.



연산백중놀이(기세배)
충남 연산시 연산면 황현만


1


2

내용 경남의 밀양백중놀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68호로서 1980년 11월 17일 지정되었다. 밀양에서는 꼼배기참놀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꼼배기참이라고 하는 음식을 마련하여 머슴들을 대접하고 각종 춤과 놀이를 벌인다. 놀이는 농신제(農神祭)로 시작하여 작두말타기, 춤판(양반춤·병신춤·범춤), 뒷놀이의 순서로 진행된다.

충남의 연산백중놀이는 1991년 7월 9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다. 충남 연산면 일대에서는 조선 성종 때 좌의정을 지낸 김국광(金國光)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생가가 있던 왕대리와 인근 마을의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농사일이 끝나는 백중에 김국광의 묘에 참배한 뒤 두계천에 모여 축제를 벌였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그 뒤 광산 김씨들이 연산 일대로 옮겨 살면서 백중날 연산 장터에 모여 놀이를 즐겼으며, 한창 성행할 때는 전국의 한량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연산백중놀이는 쌍룡기(雙龍旗)와 용기(龍旗)를 가진 동리로 각각 나누어 놀이마당으로 들어오는 길놀이부터 시작해서 기싸움으로 이어진다. 기싸움이 끝나면 용기 집단이 쌍룡기에게 기세배(旗歲拜)를 올리고 농신제(農神祭)를 지낸다. 다음은 상벌마당이다. 마을의 효부, 효자에게 상을 주고 불효자에게는 벌을 주며, 농사를 잘 지은 머슴을 뽑아 표창한다. 상을 받은 머슴을 가마에 태워 머슴놀이를 한 다음 상쇠의 인솔로 농악이 앞장서서 기 주위를 돌며 춤을 추는 뒤풀이로 끝을 맺는다.

전북 남원의 괴양마을에서는 백중에 삼동굿놀이를 한다. 괴양리의 백중놀이에는 삼동굿놀이 이 외에도 샘굿, 당산제, 마당밟기 및 합굿 등 여러 가지를 함께 연행한다. 이러한 굿놀이는 괴양리에서만 전승되는 고유한 놀이다. 일종의 공동체적 두레놀이로서 백중날 지네를 밟아 마을의 무사와 풍년을 기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괴양리 동쪽에는 약산(지네)이 있고, 서쪽에는 계룡산(닭)이 남북으로 뻗쳐 있어 지네가 닭을 해친다는 설화에서 유래하였다. 괴양리의 세 마을에서 행사에 참가할 건강한 남아 셋을 선출해 출산과장, 성정(性情)과장, 입신출세과장, 지네밟기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 남아 출산과 무병장수, 입신출세를 기원하는 놀이로, 삼동들이 명당에 침범한 지네를 마을 밖으로 쫓아내면 놀이는 끝난다. 네 단계 과장이 끝나면 삼동으로 뽑힌 아이들의 집에서







1 남원삼동굿놀이(지네밟기)
전북 남원시 보절면 국립민속박물관

2 무동타기
국립민속박물관

3 수영농청놀이
부산시 중구 용두산공원 국립민속박물관

4 밀양백중놀이
경남 밀양 주병수

5 평택농악
국립문화재연구소

농악단을 초청해 하루를 즐겁게 논다. 이 놀이는 1982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으며, 그 후 지금까지 매년 괴양리에서 백중을 맞이하여 열리고 있다.

서울의 송파백중놀이는 1925년 한강의 대홍수로 송파 일대가 백사장으로 변해버린 이후 단절되었다가 70여 년 만에 재현되었다. 송파는 조선 후기 전국 15대 향시(鄕市) 중의 하나로 서울, 경기 일원의 중요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지역이었다. 한때는 전국에서 각종 상품들이 송파장으로 모여들어 270여 호의 객주집이 성업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장시가 성하다 보니 거부상이 많아 그들이 추렴하는 기부금으로 대소 명절과 장날에 큰 놀이판을 벌임으로써 송파장에 사람들을 모으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에 비해서 장꾼들이 덜 모인다 싶으면 백중 난장을 열어 놀이판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때는 상인들이 추렴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재주가 좋기로 잘 알려진 연희자들을 불러들여 줄타기, 씨름, 소리, 산대놀이판을 벌임으로써 장꾼들이 몰려 장이 훨씬 더 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송파백중놀이는 농민들에 의한 농촌형 백중놀이와는 달리 도시형 놀이로서 직업적인 놀이패 즉, 사당패, 소리꾼, 탈꾼패들을 불러들여 공연 형태를 갖춘 놀이로서 놀았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백중놀이들은 대부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 수상하거나 또는 관심 있는 학자나 보존회 등에서 재현한 것들이 많다. 따라서 이상의 백중놀이들은 대개 농신제와 같은 의례와 여러 가지 놀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굳이 백중놀이로 통칭하기 어려운 개별적인 놀이들이 백중을 맞아 다양하게 농촌에서 놀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백중을 '머슴날'이라고도 하는 바, 명절을 맞아 그간 고생했던 머슴을 특별히 대접하기도 하고, 또 마을에서는 농군들 스스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하루를 즐기는 예도 많다.

현재까지 백중에 놀았던 구체적인 놀이로 전국에서 조사된 것을 보면 기세배, 농기싸움, 마당밟이, 장원례(만들이), 백중장 가기, 씨름, 진세내기, 들돌들기, 모래찜질, 물맞이 등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세배, 농기싸움, 마당밟이 등은 주로 정월대보름에 놀던 것으로 고유의 백중놀이로 보기는 어렵다.

장원례 역시 꼭 백중날에 행하는 것은 아니며, 마을의 사정에 따라 7월 중에 하는 곳도 많다. 또 모래찜질이나 물맞이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 역시 음력 6월 15일인 유두(流頭) 때나 또는 여름철의 일정한 날을 받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백중의 고유한 놀이는 아니다.

백중 무렵이면 여름철 농사일이 거의 마무리되고 망중한의 시기를 맞는다. 전국적으로 백중이 되면 호미씻이[洗鋤宴] 또는 호미걸이를 한다. 백중 무렵이 되면 밭일이나 논일에서 이제 더 이상 호미가 필요 없게 된다. 수확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호미가 아니라 낫이 필요해지는 계절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풀을 매거나 흙을 일구면서 사용했던 호미를 씻어서 내년을 위해 걸어둔다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호미씻이나 호미걸이가 이렇듯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호미를 가지고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어울리는 놀이가 백중 무렵에 마을에서 다채롭게 벌어진다.



백중 물맞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소정방폭포
국립민속박물관

지역에 따라서는 실제로 그동안 사용했던 농기구를 내다놓고 백중놀이를 하는 곳도 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백중날 소위 질먹기놀이라는 것을 하는데, 각 가정에서 형편대로 음식을 장만해오고 또 쟁기, 괭이 같은 농기구를 내와서 성황당 앞에 모아 놓은 후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를 즐겁게 놀면서 지낸다.

특히 백중 무렵이면 논매기가 끝난다. 김을 세벌 매는 곳도 있고, 네벌 매는 곳도 있지만, 횟수에 상관없이 백중을 앞두고 마지막 논매기를 한다. 마지막 논매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농부들은 마을에서 부유한 집을 골라 누구 집 농사가 금년에 가장 잘 되었는지 살펴보고 합의한 후 논 주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백중 무렵에 마을의 농부들은 이미 정해진 논에 가서 마지막 논매기를 한다. 논매기가 끝나면 마을사람들은 그 집 머슴의 얼굴과 몸에 진흙을 바르고 우장을 뒤집어씌운 후 소에 태운다. 소에 올라탄 머슴을 앞세우고 사람들은 흥겹게 길굿을 즐기며 주인집으로 향한다. 주인집에서는 넉넉하게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일꾼들과 마을사람들을 대접한다. 그날은 밤이 깊도록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마을잔치를 벌인다.

마지막 논매기를 하고 마을잔치를 벌이는 것은 거의 전국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며, 강원도나 경기 지역에서처럼 이를 일반적으로 호미씻이라 부른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호미씻이 이 외에 다양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경북에서는 풋굿, 풋굿먹기, 푸술먹기, 꼼베기놀기, 만물매기 등으로 부르며, 경남에서는 꼼비기날, 켕말타기, 괭이자루타기, 낟알이먹기 등으로 부른다. 또 전라도에서는 만들이, 장원례, 농사장원, 술멕이 등으로 부르며, 제주도는 발씻기, 만들이라 한다.

추석이 본격적인 추수를 앞두고 풍년을 들게 해준 조상신들에게 천신하는 추수예축제(秋收豫祝祭)라면, 백중은 풍년을 일구어낸 농군들이 스스로 즐기는

날이며, 또한 농사를 도와준 일꾼들과 머슴을 대접하고 위하는 날이다. 그래서 백중을 머슴명절, 일꾼들 생일날, 일꾼들 잔칫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백중은 농부들이 모두 일손을 놓고 하루를 푹 쉬기 때문에 전라도에서는 농군들 발뒤꿈치가 쉬는 날이라고 부르지만, 특히 남의 집에서 농사일을 돕는 머슴에게 백중은 특별한 날이다. 실제로 백중의 이칭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머슴날이다. 봄부터 시작된 농사일에 지친 머슴들을 휴가 겸해서 대접하는 날이 바로 백중이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백중을 머슴 위하는 날, 머슴들 쉬는 날, 머슴에게 옷 해주는 날로 부르기도 한다.

백중날 농촌에서는 일손을 놓고 하루를 쉬지만, 특히 머슴에게는 음식을 장만하여 잘 대접하고, 또 새로 옷을 해주며, 돈을 주기도 한다. 이날 마을의 머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놀기도 하지만, 새 옷을 입고 장에 가기도 한다. 백중에 열리는 장을 백중장이라고 하는데, 장터에서는 갖가지 놀이나 씨름대회 같은 행사가 열리기도 한다.

백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놀이는 들돌들기이다. 어느 마을이나 예전에는 당산나무 밑에 들돌이 있었다. 여름철에 마을 사람들이 당산나무 밑에서 놀면 젊은 사람들이 힘자랑을 겸해서 들돌을 들어보였지만, 백중날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누가 들돌을 높이 드는지 시합을 벌이기도 한다. 이때 술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마을에 따라서는 들돌을 어디까지 들어올리느냐에 따라 두레에 참여시킬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기도 하고 또 품삯을 정하기도 한다. 마을에 두레가 있는 곳에서는 백중에 두레패가 모인 자리에서 어깨높이까지 들돌을 들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으면 한 명의 상일꾼으로 간주하여 두레에 넣어주기도 한다. 또 두레가 없더라도 들돌을 들어올린 장정에게는 한 명 몫의 품삯을 주었다.

호남 지역에서는 백중날 진세내기라 하여 특별히 마을잔치를 하는 곳이 많다. 농촌에서 품삯을 결정할 때 온 품삯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반 품삯을 받는 사람도 있다. 품앗이를 할 때도 기준은 같다. 온 품삯을 받는 사람과 함께 품앗이를 할 때 반 품삯을 받는 사람은 이틀 동안 일을 해주어야 한다. 나이가 어려 아직 반 품삯을 받는 사람은 농사일을 할 때 주로 뒤에서 거드는 일을 하지만, 성장을 하면 본격적으로 한 사람 몫을 제대로 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 이제 한 사람의 몫을 하게 된 사람은 온 품삯을 받고 일하게 된다. 그런데 온 품삯을 받게 된 사람을 둔 집에서는 백중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사람들을 대접한다. 일종의 입사식(入社式)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두레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온 품을 팔게 되는 것을 자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백중날 마을사람들이 모여 놀 수 있는 또 다른 계기의 하나로서 마을에서 살림이 좀 넉넉한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내는 경우도 많다.

백중놀이는 여름철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이 바쁜 농사일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을 맞아 그 중 하루를 자신들을 위해 마련해 놓고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는 성격을 지닌다. 한편 근래 백중놀이는 하나의 형식을 갖추면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에 출연하거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남도민속의 세계(김성식 외, 민속원, 2005).
필자 | 나경수(羅景洙)

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石川農旗叩頭-)

정의 경기도 부천의 옛 석천 지역인 부평군 석천면(富平郡 石川面: 부천시 상동·중동 일대와 송내동, 인천광역시 구산동 일부지역)의 논농사 지대에서 두레패의 세벌논매기가 끝나는 즈음 펼쳐진 백중놀이. 농기(農旗) 꼭대기에 꽂힌 고두마리[기봉(旗峰): 깃털봉, 꿩장목, 꿩깃, 장기털]를 먼저 뺏는 마을이 상좌(上坐)가 되는 마을 대항 기(旗)싸움 놀이이다. 상좌다툼, 상좌다툼놀이, 고두마리 농악놀이라고도 하며, 농기를 쓰러뜨리기 때문에 농기 쓰러뜨리기 놀이로 부르기도 한다.

어원 고두(叩頭)는 '머리를 조아린다'로 해석되며 기(旗)싸움에서 패한 마을이 상좌마을의 기에 고개를 숙여 예(禮)를 갖추는 것을 묘사한 한자어이다. '마리'는 '머리[頭]'와 같은 뜻이므로, '고두마리'는 동어반복으로 여겨진다.

유래 농기고두마리의 연원은 논농사가 보편화된

조선 후기로 볼 수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부평수리조합(富平水利組合)의 설치(1923)에 따른 수리안전답(水利安全畓)의 확보로 논농사 지대가 부평평야(부천 서북쪽)까지 확대되기 이전의 조선시대에도, 한강(漢江)으로 통하는 굴포천(掘浦川) 주위에 방죽이 여럿 있었으며, 1910년까지의 지명(地名)에 장포들[長浦坪], 삼거리들[三街坪], 만석이들[萬石坪] 같은 명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도 두레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초창기 두레패의 농기싸움 놀이는 기간, 방식, 순서 등에서 현재 재연되고 있는 농기고두마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뿐 아니라 부천 내 여러 마을의 다른 두레패 농기싸움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병존해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놀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단절되었다가, 이 지역 촌로들에게 구전되던 것을 1970년대 초에 부천의 민속자료를 조사하던 최은휴(전 한국문인협회 초대 부천지부장, 작고)가 김진엽, 박희재(모두 작고)의 제보를 통해 발굴하고 이 지역 촌로들의 고증을 거쳐 1980년대에 재현하였다. 현재 부천문화원이 맡아서 전승하고 있다.

1997년 제11회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최은휴의 고증, 손영철(당시 복사골 마당 상임대표)의 풍물 지도, 백수현(당시 부천문화원 사무국장)의 인솔로 120명(남 52명, 여 68명)의 인원이 30분간 공연하여 종합우수상을 차지하였고, 1999년에는 경기도 대표로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우수상(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
경기도 부천 부천문화원

내용 농기고두마리놀이는 주로 김매기 기간과 백중 때 행해진다. 놀이의 내용을 보면 농기(農旗)를 제일 먼저 만든 마을의 상좌(上座)차지 - 상견례(기인사) - 한바탕놀이 - 농기싸움 - 농기행렬 - 풍년제 - 농기싸움행렬 - 풍년기원 노래 - 논매기(민요) - 호미씻이 - 풍년제 - 상견례(기인사) - 상좌다툼 농기싸움 - 기인사 - 뒤풀이(부평문화원, 1997) 같은 몇 가지의 유형이 전해진다.

이 놀이는 논매기, 풍년제, 농기싸움, 대동놀이로 크게 구성되나, 현재는 재미있는 요소가 가미되고 민요 등을 각색하여 모두 아홉 마당으로 재현하고 있다. 풍물패의 구성은 사물(四物)과 제금(동발), 호적(날라리)의 풍장으로 이루어지며, 연주되는 가락은 경기도의 힘차고 빠르며 경쾌한 윗다리 풍물가락이다.

놀이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농기를 앞세운 두 마을 풍물패가 논둑을 따라 춤추며 넓은 공터(마당)에 모여, 호미를 들고 김맬 준비를 하고 기다리던 제 마을 농군들과 합세하여 상쇠의 선소리[先唱]와 농군의 뒷소리[後唱]로 풍년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논으로 들어가 '상사뒤소리', '방애소리(상쇠의 선창과 농군의 후창)'를 하며 논매기를 한다. 논매기가 다 끝나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논에서 나와 냇가에서 호미를 씻은 후 각 마을 호미걸이에 걸고 간단한 잔치를 벌인 후, 지난해 상좌다툼에서 진 마을에서 준비한 제사상을 논 쪽을 향해 놓고 풍년제를 지낸다.

이어 상좌마을의 제안으로 고두마리 싸움을 한다. 놀이에 앞서 지난해 패자마을 농기가 상좌마을 농기에 기세배(旗歲拜) 형식으로 기 인사의 예(禮)를 갖춘다. 기 인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농군의 절반은 농기를 지키고 나머지 반은 상대 마을 농기를 쓰러뜨리기 위해 달려간다. 상대편 농기에 꽂혀 있는 깃털봉(고두마리)을 먼저 뽑는 마을이 승자가 된다. 싸움에서 진 마을에서 음식상을 차려와 이긴 마을 상쇠에게 술을 올려 예를 표하면 상좌측 상쇠가 싸움에서 패한 마을 상쇠에게 뺏은 고두마리를 넘겨주며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제안한다. 이어 싸움에서 진 마을 농기가 좌우로

한 번씩 흔들고 서서 절을 하면 상좌마을 농기도 기를 약간 숙여 다시 한번 예를 표하는 것으로 싸움은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양쪽 마을 농군과 풍물패가 하나 되어 뒷전(뒤풀이)을 하며 한바탕 크게 노는 것으로 끝을 장식한다.

농기고두마리놀이는 예전에 부천 지역이었다가 현재 서울시로 편입된 궁동, 온수동 일대와 주변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도 파주, 충북 보은 등지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국에 산재한 농기뺏기놀이와 유사하다. 또한 기 인사의 형식이 경기도 평택, 전북 익산의 기세배와 비슷하나 패자 마을의 기를 기울이는 각도는 45~50도(평택 15도, 익산 45도), 상좌 마을은 답례각도는 4~10도로 차이가 있다.

의의 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는 두레의 풍물패가 주축이 된 마을 대항의 농기싸움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수확만을 남겨둔 시기에 논농사의 큰 노동인 마지막 김매기를 마치고 난 후 호미씻이를 통해 표현한 것이며, 농부들이 서로 노고를 위로하며 휴식을 취하는 마을대동잔치이다. 또 백중장(百中場)을 보아 조상에게 천신(薦新)하며 농신(農神)에게 풍년제를 올리는 백중 행사의 복합적 의미도 담고 있다.

참고문헌 | 軍浦場-1/50,000圖-(조선총독부, 1911), 漢城四號-1/50,000圖-(조선총독부, 1918), 京畿道の名勝古蹟(京畿道, 193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한국토지개발공사 · 인하대박물관, 1995), 조선지지자료와 부평의 지명(임용기, 畿甸文化硏究24,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96),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부천시사1(부천시사편찬위원회, 2002), 경기도의 옛지도(경기문화재단, 2005).

필자 | 염경화(廉庚和)

세도두레풍장(世道-)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동사리(東寺里)에 전승되고 있는 두레 풍장. 2000년 1월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충남 부여군의 남쪽에 위치한 세도면은 금강 하류에 발달한 비옥하고 넓은 농토를 지니고 있다. 동편에는 사동천(寺東川)이 흐르고, 이 유역에는 간대들이라 부르는 넓은 농토가 발달해 있다. 그 일대의 논은 약 45만 평으로 세도 망게들 다음으로 넓으며, 밭도 10만 평 정도가 된다. 또한 이곳은 산지이지만 높이 50미터 정도의 아주 낮은 구릉성 산지이고, 면 전체가 낮고 평평하다.

세도두레풍장이 전승되는 동사리는 세도면의 서남부에 있는데, 남향(南向)으로 자리 잡은 마을 앞으로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마을에는 풍양 조씨가 10대 넘게 살고 있고, 수령 400여 년이 넘는 둥구나무도 있다. 풍양 조씨는 아직도 장암과 세도면에 가장 많이 산다. 현재는 100여 호에 300여 명이 살고 있다. 마을에는 고려시대의 회양부사(淮陽府使) 조신(趙愼)을 배향한 동곡서원(東谷書院)과 동사리 폐사지(廢寺址)가 있다.

현재에는 두레를 하지 않지만, 두레 때 하던 풍장만큼은 세도두레풍장보존회(1986년 결성)를 중심으로 보존과 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원래 세도두레풍장은 박산봉이 중심이 되어 지켜 왔으나, 그의 작고 후에 최종남이 중심이 되었다. 이후 한동안 두레 풍장이 쇠퇴하였으나 서재억(장고), 권현주(상쇠), 윤구병(쇄납) 등이 세도두레풍장보존회를 조직하여 다시 일으켰다. 보존회의 노력으로 세도두레풍장은 1996년 9월, 제1회 충남 민속예술경연대회와 1997년 10월,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에 참가하였다.

내용 마을에서는 하지(夏至) 즈음에 모내기를 시작한다. 모내기를 마치고 한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바짝 마르고 논바닥이 갈라진다. 가뭄이 심하면 모는 자라지 못하고 피가 자라서 모와 비슷한 발육 상태를 보인다. 이때 비가 내리면 피의 성장 속도가 빨라 단기간에 김매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두레를 구성한다.

다랭이[天水畓]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좌상이나 공좌상을 찾아와서 먼저 김을 매달라고 부탁하면 생일꾼(상일꾼)과 같이 가서 마을 전체의 논을 돌아본다. 논을 돌아보고 먼저 김맬 논의 순서와 하루 작업량을 결정한다. 이를 '두레 짜는 모임'이라고 하며 앞마당이 넓고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 하였다. 이 집을 일러 '화주'라 하며 마을 사람들이 두레를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된다. 대개 물이 금방 마르는 다랭이 논부터 김을 맨다. 수답(水畓)은 천변(川邊)의 논으로 가물어도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늦게 김을 매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천수답 한 마지기를 매는 것도 힘들었다.

두레를 조직하는 것을 일컬어 "두레났다"라고 하며, 집집마다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나온다. 두레는 좌상(1명)을 필두로 공좌상(1명), 총각대방(1명), 역원, 꼼뱅이, 기(旗)잡이(6명), 풍물패(4명)로 구성된다.

김매기는 세 번을 한다. 처음이 아시매기, 다음이 두벌매기, 마지막이 만물이다. 모내기를 마치고 보름에서 20일 정도가 지나면 아시매기를 시작한다. 아시매기는 품앗이로 하고, 두벌매기만 두레를 구성하여 공동 작업으로 한다. 두벌매기는 아시매기를 마치고 열흘 정도가 지나면 하기 시작한다. 만물은 두벌매기를 마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한다. 만물은 논 주인이 직접 손으로 피를 훔쳐내는 것으로 대신한다.

보통 열 살 무렵부터 집안 어른들에게서 농사일을 배우며 15세가 넘으면 어른 품삯을 쳐준다. 어른 품삯을 받게 된 사람은 칠월 칠석(七夕)날 막걸리 한 말 가량을 내는데, 이를 꼼뱅이술이라고 한다. 좌상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느 집에서 누가 두레 일꾼이 되어 술을 냈다고 일러준다.

두레는 일감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결성되면 사흘에서 닷새 정도 일을 하였다. 일꾼들은 이른 아침에 화주 집 앞마당에 모인다. 사람들이 모이면 마당 한 귀퉁이에 용기(龍旗)를 세우고 그 앞에서 기고사를 지낸다. 두레를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매일 아침 기고사를 지내고 일을 시작한다. 저녁에 일을 모두 마친 다음에도 하루의 무탈을 기에 고(告)하고 해산한다.

용기에 기고사를 드리고 나서 풍물을 울리며 논으로 향한다. 영기(令旗)가 앞에 서고, 농기 - 꽹맥이(꽹과리) - 징 - 장고 - 북 - 역원 순으로 선다. 역원들은 조랭이를 쓰고, 허리춤에 호미를 차고 논으로 나간다. 일을 할 때는 조랭이를 논둑에 벗어놓는다. 논으로 가는 길에 샘을 지나게 되면 반드시 그 앞에서 샘굿을 쳐 준다.

논에 도착하면 농기는 가장 큰 논이 있는 주변에 세워둔다. 많은 사람이 한 논에 들어가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좌상이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눈다. 역원을 두 패로 나누어 김을 매게 되면 영기를 각각 일 할 논둑에 꽂아둔다.

풍물은 꽹맥이, 징, 장고, 북의 사물(四物)로 구성된다. 논에 가서 사물을 놓을 때 풀 위에도 함부로 내려놓지 못하게 하였다. 두레 풍물은 화주 집에 사람들이 모이면 치기 시작한다. 이때는 삼채 가락을 쳐 흥을 돋운다. 이어서 논으로 가는 길에는 길굿(늦은 질굿) 장단을 맞춘다. 길굿은 굿거리장단과 유사하다. 논으로 향하는 길에 샘을 지나치게 되면 샘고사를 지낸다. 이때는 길을 멈추고 삼채(세마치) 가락을 친 후 다드래기(자진바리, 이채, 이마치)를 치며 샘을 돈다. 절을 세 번 하고 목적지로 향한다.

논에 도착하면 논 중앙으로 풍물패가 먼저 들어간다. 김매기는 뒤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하므로, 풍물패가 뒤에서 역원들을 몰아간다. 이때 '두레풍장(논풍장가락)' 가락을 친다. 역원들이 일하는 동안 잡담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끊임없이 풍장을 친다. 한 논에서 일이 끝나갈 무렵 가락을 바꾸어 삼채를 친다. 이어서 다드래기 가락을 쳐서 일꾼들이 빠르게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흥을 돋운다. 마지막에는 "이~야" 하고 외쳐 뱀, 개구리 등을 논 밖으로 내쫓는다. 논일을 마치고 잠깐 쉴 때나 놀음 마당을 벌일 때는 삼채 가락을 친다.

김매기가 끝난 후 상쇠가 늦은 질굿을 치면서 논을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나간다. 기잡이가 영기를 앞에 들고 다음 논에 가서 기를 꽂아 놓으면 그곳으로 풍물패가 이동한다. 두레 먹는 날도 풍물을 치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의의 충남 부여에서는 두레먹기가 칠월 칠석에 광범위하게 행해진다. 부여는 칠석문화권이다. 간혹 백중이 중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에서 칠석과 겹쳐서 이루어질 뿐 백중은 대체로 무시된다. 백중은 대개 머슴들의 명절로 백중장이 서는 정도로 약화된 모습이다. 또 여기서는 김매기 노래에 호남권의 상사디여소리와 충청권의 얼카뎅이소리가 함께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곧, 이 지역은 두레음악의 접이지대인 것이다.

참고문헌 | 부여지역의 두레界線移動과 생산풍습(주강현, 역사민속학6, 한국역사민속학회, 1997), 세도두레풍장(중도일보, 1998년 10월 13일 화요일 제10169호), 부여의 민속예술(심우성, 부여군지6 부여의 민속문화,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부여의 생산풍습(김효경, 부여군지6 부여의 민속문화,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필자 | 이필영(李弼泳)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

정의 부산광역시 수영(水營) 지역에 전승되는 농촌 자치 조직의 공동 작업 과정과 생활을 표현한 향토 예능. 농청(農廳)이란 농사철에 서로 도와 일을 하는 마을 주민들의 모임을 가리키며, 삼한시대부터 있었던 두레에서 나온 풍속이다. 수영농청놀이는 특히 논농사의 작업을 반영한 것으로 농민의 생활상을 잘 담고 있다. 1972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농청원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부르던 농업 노동요를 중심으로 작업과정을 재현하고 연희화 하여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유래 원시 공동사회에서는 협동 노동의 필요성에 의해 일정한 조직체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조직체로 두레를 꼽을 수 있다. 두레는 지역에 따라 농사(農社), 농기(農旗), 농계(農契), 목청(牧廳) 등으로 불러왔다. 부산광역시 수영 지역은 고려 현종 때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개설된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영(廢營)이 될 때까지 수군의 요새지였던 곳이다. 수영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바다와 면한 수영성 동문 밖의 주민들은 어업과 염업에, 남북문 밖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생업의 형태에 따라 좌수영어방놀이와 수영농청농요 등이 형성되었다. 지금은 완전히 도시화되었지만 수영은 1945년 해방 당시만 해도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이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00여 년 전부터 농민을 중심으로 공동작업의 조직화와 능률화를 위해 농청이 존재했었다고 하지만 그 역사는 더 소급될 수 있을 것이다. 수영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넓은 경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 인력을 극복하기 위해 일찍부터 두레 형식의 협동조합격인 농청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농청의 조직에는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수군(水軍)의 조직이 원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내용 수영 지역에서는 5명 이하의 인원이 서로 도와 일할 때는 품앗이, 6~10명 정도일 때는 두레, 그 이상의 인원이 서로 도와서 일할 때는 농청에 붙여서 노동해왔다고 한다. 수영농청은 원래 붕밖(북밖) 농청과 남밖 농청, 남북 농청이 각각 있었다. 각 농청에 소속된 농청원은 노동력이 있는 성인 남녀로 구성되는데 집강(執綱), 행수(行首), 문서잡이, 집강(集講), 야장(野長), 영각수(令角手) 같은 역원들에 의해 통제되었다. 집강(執綱)은 수장 격으로 계열 농청의 대표이며 행수는 농사의 총감독격으로 전체 작업을 관장하였다. 문서잡이는 서무, 회계, 기록을 맡았고, 집강(集講)은 농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하는 일을 처리하였는데 집강행수라고도 부른다. 또 야장은 수총각(首總角)이라고도 하는데, 부분적인 작업을 관장하고 지도하는 직책으로 들일의 책임자였다. 영각수는 영각(令角)을 불어 집합하게 하거나 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각 농청 산하에는 내방청(內房廳)과 모기청(模技廳)이 있다. 내방청은 성인 여자로 구성되며 행수, 집강(集講), 야장 같은 역원이 있다. 모기청은 15~16세 내외의 미성년 남자로 조직되며 농청원이 되기 위해 훈련을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

남자로 구성된 각 농청원들은 풀베기, 논갈이, 볍씨 뿌리기, 모춤 나르기, 보리타작, 논매기 같은 전문성과 노동력이 많이 드는 일을 하였다. 한편 여자로 구성된 내방청원들은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되, 모심기철에는 모찌기, 모심기 그리고 그 밖의 잔일에도 동원되었다.

수영농청놀이와 농요는 엄격한 조직과 규율 속에서 운영되던 농청의 각종 작업 과정과 그에 따르는 민요들을 정리하여 표현한 향토 예능이다. 특히 논농사의 작업들을 많이 반영하여 농민의 생활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현재 연희되는 수영농청놀이의 전체적인 연희 과정은 풀베기소리, 가래소리,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도리깨타작소리, 논매기소리 같은 농요와 소싸움 그리고 칭칭소리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그 대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각수의 집합 신호에 따라 풍물패가 잠시 동안 흥겹게 풍물을 울린다. 이 사이에 남녀 농청원들은 놀이마당의 입구에 행렬을 지어 선다. 행렬의 맨 앞에는 농청기와 농기를 앞세우고 영각, 호적, 꽹과리, 징, 장고, 북을 각각 하나씩 든 풍물패가 뒤에 선다.

이어 정자관을 쓴 양반이 따르고 그 뒤로 검정소를 모는 소몰이, 쟁기를 지게에 진 농부, 누렁소를 모는 소몰이, 써레를 지게에 진 농부의 순으로 선다. 그 뒤로는 가래를 어깨에 짊어진 목가래꾼과 줄가래꾼들이 따른다. 농청원들의 뒤에는 내방청원인 부인들이 따른다. 이 가운데는 술동이를 이고 있는 사람과 함지박을 이고 있는 사람이 각각 한 사람씩 포함되어 있다. 행렬의 맨 끝에는 도리깨, 풍석, 자루바가지, 대빗자루, 갈쿠리, 밀개, 대소쿠리, 키 같은 여러 농기구를 짊어진 농청원 한 사람이 따른다.

정렬을 한 후 일동이 모든 동작을 멈춘 채 서 있는 동안 풍물소리가 그치면 먼저 풀베기소리를 부른다. 풀베기소리를 부를 때는 악기의 반주 따위는 없고,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한 편을 부르는 식으로 불러간다. 풀을 벨 때 주로 부르는 노래라 해서 풀베기소리라고 한다.

풀베기소리를 다 부르고 나면 남녀 농청원들은 행렬의 순서를 따라 춤을 추며 입장한다. 일단 놀이마당 중앙으로 들어오면 내방청원들은 모두 퇴장하고 남자 농청원들은 일을 시작한다. 소 두 마리를 가지고 한쪽은 논갈이, 한쪽은 써레질을 한다. 그 주위에는 가래꾼들이 빙 둘러서서 가래질을 하며 가래소리를 부른다. 이 노래는 선후창식으로 가창하는데, 뒷소리인 "어허가래야"를 처음 시작할 때 반드시 선창과 후창으로 주고받은 후에 본격적인 노래로 들어간다.

가래소리가 끝나면 가락에 맞추어 쟁기꾼, 써레꾼, 가래꾼이 연장과 소를 몰고 퇴장한다. 이와 거의 동시에 내방청원 10여 명과 남자 농청원 4~5명이 춤을 추며 들어온다. 남자 농청원들은 내방청원들이 모를 찌는 동안 바지게에다 모춤을 얹어 져다 나르고 이것을 논(놀이마당)의 여기저기에 적당한 간격으로 던져놓는다. 이것을 '모 베룬다'라고 한다. 오른손으로 모를 쪄서 한 움큼이 되면 그것을 왼손에 모으는데 반드시 '×자 형'으로 포개어 얹는다. 왼손에 모은 모가 5~6 움큼이 되면 옆에 끌고 다니는 짚단의 짚을 뽑아 묶는데, 이렇게 묶는 한 단을 '모춤'이라 한다. 한편 다른 농청원들은 논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세모리를 밟거나 쇠스랑이나 삽으로 논을 손질하여 평평하게 해준다. 세모리란 써레질을 하고 나서 흙이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남아



1


5


7


2


3


4


6


8


9

〈수영농청놀이〉
1 길놀이
2 길놀이
3 써레질
4 가래질
5 모찌기
6 소몰고 등장하는 모습
7 모찌기를 끝낸 후 춤추는 모습
8 모심기
9 모심기
부산시 중구 용두산공원 국립민속박물관


1


2


3


4


5


6


7


8

〈수영농청놀이〉
1 모심기
2 감독하는 행수
3 도리깨타작
4 풍석질
5 중참먹기
6 서쪽농청
7 동쪽농청
8 소싸움
부산시 중구 용두산공원 국립민속박물관

있는 부분을 말한다. 논으로 들어온 내방청원들은 모를 찌면서 모찌기소리를 부른다.

모찌기가 끝나면 내방청원들은 춤을 추며 일단 바깥쪽으로 나오고 그 사이에 남자들은 모춤을 지고 가서 모를 베룬다. 모를 찌던 여자들은 다시 논으로 들어가 모를 쥐고 심기 시작한다. 모를 심는 일은 허리도 아프고 지루한 일이므로 노동의 고통을 잊고 일의 흥을 돋우기 위해 모심기소리를 부른다. 수영 지역은 예부터 반드시 여자들이 모를 심어왔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심기소리를 부를 줄도 모른다.

내방청원들이 모심기를 하고 있는 동안 다른쪽에서는 남자 농청원들이 보릿대를 쌓아놓고 도리깨로 타작을 하며 도리깨타작소리를 부른다. 보리타작을 하는 동안 한 사람은 빗자루로 타작마당을 쓸고 한 사람은 갈퀴질을 한다. 도리깨타작소리는 목도리깨꾼이 앞소리를 메기고 종도리깨꾼들이 뒷소리를 받는 방식, 즉 선후창식으로 부른다. 처음에는 천천히 "에화" 소리를 주고받다가 본격적인 노랫말을 부르기 시작한다. 모심기와 보리타작이 끝난 뒤에 중참을 먹는다. 이때 술동이와 함지박을 이고 나와 남자들은 술동이 옆에, 여자들은 함지박 옆에 둘러앉아 중참을 먹는다.

중참을 먹은 후 논매기가 시작되면 남자들은 빈손으로, 여자들은 호미를 들고 입장한다. 남자들이 논을 매는 동안 여자들은 양 옆에서 호미를 쥐고 밭을 맨다. 남자 셋과 여자 둘은 논을 매는 옆에서 보리를 풍석질해서 담는다. 풍석질이란 타작한 보리를 풍석으로 바람을 일으켜 잡티가 없도록 손질하는 과정을 말한다.

논매기가 끝나면 농청기를 중심으로 남녀 농청원들이 입장하여 동부와 서부 양편으로 갈라서서 춤을 추며 논다. 이 사이 동서부에서 각각 소몰이꾼이 소를 몰고 중앙으로 나온다. 중앙으로 나온 소 두 마리는 소싸움을 벌이고, 남녀 농청원들은 함성을 울리며 흥을 돋운다.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밀리기 시작하다가 꼬리를 늘어뜨리고 달아나면 승패가 결정된다.

진 쪽은 억울하고 분통한 듯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한다. 한편 이긴 쪽은 신이 나서 춤을 추고 함성을 지르며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진 쪽을 일으켜 한 덩어리가 되어 춤추고 노래하며 논다. 이때 부르는 노래가 칭칭소리이다. 노래가 끝나면 일동은 풍물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퇴장함으로써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된다.

의의 수영농청놀이는 사라진 전통문화를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되살린 것으로, 공동 작업 과정과 농사노동요가 연희의 핵심이 된다. 도시화된 수영에서 농청이라는 농촌 자치 조직의 공동 작업과 놀이 과정을 재현하고, 그들이 부르던 농요를 연희화한 것은 지역의 중요한 음악적, 민속적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공동 작업에 깃든 조상들의 협동, 단결, 근면 등의 정신적 유산을 전승한다는 의미도 크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大觀3-民間信仰 · 宗敎-(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水營傳統藝能(수영고적민속보존회, 1993), 韓國 民俗文化 硏究(康龍權, 集文堂, 1996), 鄕土의 民俗文化(康龍權,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硏究院, 1996), 수영구의 민속과 문화(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2005).
필자 | 류종목(柳鍾穆)

씨름

▷ 씨름: 여름편

연산백중놀이(連山百中-)

정의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에서 매년 음력 7월 15일 백중에 전승되는 민속놀이. 본래 논산시 두마면(계룡시) 왕대리를 중심으로 하는 열두 두레의 '합두레먹이'로 전승되었던 놀이인데, 1989년에 연산백중놀이로 새롭게 복원되었다. 1991년에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연산백중(連山百中)놀이는 조선 성종 때 좌의정을 지낸 서석(瑞石) 김국광(金國光)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곧, 그의 생가가 있는 왕대리와 주변 마을이 해마다 김매기를 마치고 백중날 김국광의 묘를 참배한 후에 한바탕 난장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김국광의 후예인 광산 김씨들이 이웃한 연산 일대로 이주하면서 연산 장터에 모여 백중놀이를 거행하기도 했다.

촌로들의 말에 따르면, 이 행사가 성황을 이루었던 시절에는 전국의 한량과 온갖 장사꾼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날 김국광의 묘소가 위치한 왕대리는 좌상마을이라 하여 용기(龍旗)를 갖추고 각 동리의 두레패를 통솔하여 백중놀이를 주관했다. 뿐만 아니라 광산 김씨 집안에서는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장만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며, 그런 연유로 백중놀이를 마친 뒤에는 간장, 된장조차 바닥이 났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문화말살정책이 극에 달하면서 대규모의 백중놀이는 1942년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까마득하게 잊혀졌던 이 놀이는 마지막 행사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고증을 토대로 1989년 발굴, 재연되었으며, 그해 제3회 놀뫼향토제에서 시연을 펼쳐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제주도에서 열린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충남 대표로 출연하여 종합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1991년 7월 9일에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다. 이를 계승하기 위해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양리, 표정리, 관동리, 백석리 주민들이 전승보존위원회를 결성하여 1992년부터 매년 백중절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내용 연산백중놀이는 각 마을 간의 상견례 의식인 기세배와 농신제,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기원하는 액막이굿을 비롯한 머슴놀이, 용기놀이, 오방진굿 등으로 구성된다.

백중날 아침이 되면 각 마을의 두레꾼들은 영기(令旗)와 농기(農旗), 용기(龍旗)를 앞세우고 홍겹게 길군악을 울리며 좌상기가 있는 왕대리로 향한다. 이때 주민들은 각자 호미, 삽, 낫 같은 농기구를 지참하고, 동리별로 짚 몇 단씩을 지게에 짊어지고 청황등(靑皇燈)을 준비하여 장사진을 친다. 이날 행사에는 두마면에 속한 동리는 거의 다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심지어 이웃한 연산면과 벌곡면 일부 마을도 10여 리 길을 마다 않고 왔기에 동참하는 농기의 수가 무려 12~16개를 헤아렸다. 이와 같이 각 마을이 풍물을 대동하고 깃발을 펄럭이며 집결하는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백중놀이가 열렸던 장소는 왕대리 재실말로 김국광의 묘역 주변이었다. 예전에는 이곳에 매우 넓은 공터가 마련되어 있었다. 또 그 언저리에는 해묵은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각 마을의 두레패들은 속속 현장에 도착해 쌍룡(雙龍)이 그려진 왕대리 좌상기 앞에 한 줄로 선다. 이윽고 공원의 지시에 따라 한 마을씩 차례로 좌상기를 향해 기세배를 올린다. 그러면 좌상기는 답례로 아우두레 농기의 꿩장목 밑에 흰색 수건을 매달아준다. 기세배는 열두 두레 사이의 서열을 확인하고 일체감을 다지는 의식으로서 백중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다.

기세배를 마치면 짚단으로 기둥을 만들어 세우고 왼새끼로 묶는다. 그리고 무당의 신장대와 흡사하게 생긴 농신대에 오곡주머니 4개를 매달아서 짚기둥의 중간에 꽂는다. 농신대 앞에 제물이 진설되면 각 마을의 좌상이 제관이 되어 제를 지낸다. 농신제는 국태민안(國泰民安)과 세화연풍(歲和年豊)을 축원하는 의례인데, 그 순서는 총좌상이 헌작(獻爵), 재배(再拜)한 뒤 축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진행된다. 곧이어 모든 액운을 소멸시킨다는 의미로 농신대에 불을 지펴 태운다. 이때 각 마을의 두레패들은 신명나게 풍물을 울리면서 고사덕담으로 액운이 없기를 축원하는 액막이굿을 한다.

액막이굿이 끝나면 상벌을 논하여 평소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쌍룡기(雙龍旗)에 묶어서 벌을 준다. 그리고 그해 농사를 가장 잘 지은 머슴을 동리별로 한 사람씩 뽑는다. 선정된 머슴은 좌상이 백미 7말씩을 상금으로 주고 소 등에 태워 장원례(壯元禮)를 행한다. 혹 소가 없는 경우에는 농군들이 무동을 태우고 선소리꾼의 구성진 노랫가락을 따라 부르며 행진한다. 바야흐로 장단에 맞춰 농군들과 아낙네들은 호미, 삽, 낫을 들고 지게춤을 추며 머슴놀이를 시작한다. 이때 선소리꾼이 다음과 같이 소리를 메기면 주민들은 "어럴럴 상사뒤여"로 후렴을 반복한다.

계 룡 산 정기받아 왕 대 가 생겼도다
한 듬 산 정기받아 은 동 이 생겼도다
산 재 산 정기받아 선 바 위 생겼도다
우 왕 산 정기받아 팥 거 리 생겼도다
천 마 산 정기받아 구 로 실 생겼도다
하 늘 이 도왔도다 산 신 이 도왔도다
국태민안 공주개명 연산골이 복을받고
일년이라 열 두 달 과년이라 열 석 달
왕대동리 복을받고 은동거리 복을받고















〈연산백중놀이〉
1 연산백중놀이
2 길놀이
3 기세배
4 농신제
5 액운풀이(농신대 태우기)
6 상벌(머슴놀이)
7 뒷풀이
충남 논산시 연산면 황현만

선 바 위 복을받고 팥거리도 복을받고
구로실도 복을받고 너도나도 복을받고
연 년 이 풍년들고 우리동리 풍년들고
7월 이라 백중날은 우리동리 명절일세
조상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머슴살이 슬퍼마라 부귀영화 안부럽다
우리동리 세세풍년 들판에도 황금풍년
밭골에도 오곡풍년 동리사람 인심풍년
우리동리 백중놀이 세세토록 복을받자
만세만세 만 만 세 우리동리 만 만 세

머슴놀이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면 그때까지 구경만 하고 있던 양반들도 신바람이 나서 덩실덩실 양반춤을 추며 놀이판에 합세한다. 이어서 백중놀이의 대미를 장식하는 용기놀이, 쩍지기굿, 칠채굿, 청황등놀이, 두레굿, 오방진굿이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고,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풍물소리에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절정에 휩싸인다.

의의 연산백중놀이는 충남지방 두레먹이(호미씻이)의 특징이 잘 녹아 있는 대동놀이이자 지역축제이다. 흔히 두레먹이는 자연마을 단위로 베풀어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여덟두레 또는 열두두레라 하여 동맹을 맺은 여러 마을이 한자리에 모여 합두레먹이를 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논매기가 끝난 칠석이나 백중 무렵에 날을 잡고 난장을 터서 흐드러지게 하루를 놀았다. 가령 충남 논산시 노성면의 칠형제 두레먹이나, 공주시 반포면 여덟두레 두레먹이, 계룡면 열두 대징이 풍장놀이는 좋은 예가 된다. 그 중에서도 왕대리에서 전승되었던 백중놀이는 행사의 규모나 내용으로 볼 때 이 지역 두레먹이의 대표성을 획득할 만한 역동적인 축제였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은 강한 유대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훈훈한 공동체 의식을 다져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 論山의 民俗(論山文化院, 1992), 論山郡誌(論山郡誌編纂委員會, 1994), 한국의 두레(국립민속박물관, 1994), 충남의 민속예술(한상수, 충청남도, 1995), 한국의 지역축제(문화체육부, 1996), 공주의 두레(이걸재, 공주문화원, 2001), 고청봉 정기받은 마을 공암리(공암리지편찬위원회, 2005).

필자 | 강성복(姜成福)

웅상농청장원놀이(熊上農廳壯元-)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명곡마을 농청(農廳)에서 일년 중 봄부터 가을까지 행하던 농가의 농사일을 협동 작업, 농경의례, 민속놀이를 중심으로 시간대 순으로 구성하여 일관된 하나의 연희로 재현해 낸 놀이. 2002년 7월 1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경남 양산시 웅상읍은 우리나라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한시대에는 우산국, 신라시대에는 삽량주에 속했다. 회양강 상류 유역의 풍부한 물 자원과 넓게 형성된 비옥한 땅으로 삼한시대부터 이미 농경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놀이의 주 전승지인 명곡마을 뒤편에서 거대한 고분군이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출토된 토기 파편으로 보아 A.D. 5~6세기를 전후하여 마을이 생기고 집단 거주가 이루어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농경사회가 발달하면서 경작지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가족 단위 노동에서 마을 단위 협업노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집단노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후대에 와서 농청이라고 하는 조직체를 만들게 되었다. 농청의 구성원은 노동력을 가진 성인 남자로 이루어지는데, 각 농가마다 남자가 한 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농청에는 좌상, 행수, 들임사, 방목감독, 보감독, 수총각 같은 소임자가 있는데 소임은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여 운영하였다.

좌상은 농청의 고문역으로 마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어른이 맡고, 행수는 농청의 대표자이며, 들임사는 들의 모든 일을 농청원(農廳員)에 알리는 역할자이고 영각을 불어 농사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시각을 알리는 영각수 일을 겸한다. 수총각은 공동 작업을 통솔하고 진행하는 일을 맡으며 마을에서 가장 유능한 농사꾼으로 대개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못 간 총각이 맡는다. 방목감독은 가축의 방목을 감시, 감독할 뿐만 아니라 가축이 남의 집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조정하고 판결하는 일을 맡고, 보감독은 보의 보수 및 농업용수의 분배에 관한 일을 맡는다.

농청의 규율은 매우 엄격하여 소임자들의 지시에 불복할 수 없는 것이 불문율로 여겨져왔다. 만약

농청원이 규율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곤장으로 다스리거나 심할 경우는 마을에서 추방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관원이라 하더라도 이곳 농청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인사를 해야 했고, 관원이 무례를 하여 봉변을 당해도 관가에서 농청원을 벌하는 예가 거의 없을 정도로 농청의 권위를 인정해주었다.

농청원들의 농사 과정을 논농사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리타작과 모심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아시(초벌)논매기와 두벌논매기 사이의 음력 6월 초순에 하루 휴일을 정하여 '나다리먹기(다른 지역의 세사연과 유사한 행사)'를 행한다.

이날은 당산을 깨끗이 청소하고 농청원들이 모두 모여 생장기 의례인 농신제(農神祭)를 먼저 올린 뒤 좌상이 회의를 주관하여 행수, 들임사, 방목감독 등의 농청 간부를 선출하고, 농청원들의 논매기 공동작업 순서, 가축의 방목 방법 등을 결정한다. 특히 16~17세에 이르는 청소년 중에서 평소에 들돌들기와 농사일에 어느 정도 익숙한 자를 골라 새 품앗이꾼으로 인정하는 '주먹돋움'을 한다. 이것은 농청원의 입문례로서 비로소, 온전한 장정으로 인정받은 자는 술 한 동이와 안주를 마련하여 농청원들한테 대접하는 예(禮)를 갖춘다. 이때에 타지에서 이사온 사람들도 술과 안주를 내어 농청 가입을 허락받는다.

농청에서는 원래 모심기, 논매기, 길쌈 같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능률이 오르는 일을 골라 협업 작업을 하였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대부분 품앗이로 일하게 되었고 망시논매기만 농청에서 협동사업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망시논매기를 해보면 그 농가의 풍흉작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때 일부러 농사가 잘된 대농(大農)의 논을 맨 뒤로 미루었다가 망시논매기를 한다. 망시논매기를 마치고 나서 그 집의 상머슴을 소 또는 목마에 태우고 영각을 불며 풍물을 치면서 주인집으로 간다. 주인은 술과 안주로 농군들을 대접하는데, 술과 음식을 온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한해 농사일의 힘겨움을 풀고 풍년을 구가하는 놀이를 며칠 동안 연이어 행하며 벼의 생장기 의례를 마친다. 이 놀이를 '농사장원놀이'라고 한다.

이러한 농청의 공동 작업과 의례는 산업 기술의 발달에 따른 영농기계화, 제초제 사용의 일반화 등으로 점차 사라졌으며 농청 조직은 보의 공동 관리, 농업용수의 배분 같은 기능을 위해 196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어오다가 새마을운동으로 완전히 없어지고 근대적 마을 조직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그러나 예부터 마을 구성원의 단합이 강하고 전형적인 농촌 형태를 유지해온 명곡마을에서는 근년까지 농청이 존속되고 있으며, 남자들의 농업노동요와 비기능요의 전승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지역이 공장용지, 택지용지 조성으로 급속히 도시화되면서 노인들이 일손을 놓고 경로당에 모여 농요를 부르고 소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인들이 스스로 즐길 뿐 아니라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뜻이 모여서 60~80대 노인들이 주축이 되어 농청원의 공동 작업과 농경의례를 놀이화하여 '웅상농청장원놀이'라는 이름의 연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용 웅상농청장원놀이는 망시논매기(세벌논매기)를 마치는 백중(百中) 무렵에 일년 농사가 잘된 주인들이 농청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한 해 농사일의 힘겨움을 풀고 풍년을 구가하는 놀이이다. 놀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정네들이 모를 심을 논에서 거두어들인 보리를 타작하는 도리깨질을 하면서 보리타작소리를 선후창으로 부르고, 그와 동시에 마을 아낙네들은 구성지게 모찌는 소리를 하면서 모를 찌고, 이어서 교환창으로 모심기 노래를 부르면서 모를 심는다. 그러는 사이 남정네들은 타작한 보리를 소로 옮겨 싣기도 하고 써레질도 한다.

다음은 당산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다리먹기'를 하는데, 이때 제물을 차리고 농청의 임원들이 당산신(堂山神)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농신제(農神祭)를 올린다. 또 좌상을 중심으로 농청회의를 열어 행수, 들임사, 방목감독, 보감독, 수총각 등 소임을 선출하고 청소년 중에서 품앗이꾼으로 인정하는 들돌들기(주먹돋움)를 행하며, 외지에서 이사온 사람도 신입 농청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거친다. 농청원들은 품앗이꾼 입문자와 신입 농청원들이 준비한 술과 안주를 나누어 마시며 흥겹게 논다.

이어서 소서(小暑) 후 첫 용날[辰日]에 각 농가에서 아낙네들이 밀떡(또는 수수떡)을 논에 이고 가서

겨릅(삼대)에 꽂아 물꼬에 세우고 두 손을 비비며 풍재(風災), 수재(水災), 충재(蟲災)를 막아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간절히 비는 용신제(龍神祭)를 올린다. 그리고 남정네들이 모를 심어놓은 논으로 가서 망시논매기를 하는데 논매기 소리를 선후창으로 부른다. 끝으로, 망시논매기를 마지막으로 마친 농가를 장원농가로 선정하고 그 농가의 상머슴을 소에 태워 주인집 대문 앞으로 가서 지신밟기 형태의 문굿을 하면 주인은 농청원들을 반갑게 집안으로 안내하는데, 마당에서 마당밟기와 술귀풀이를 신명나게 하며 마지막으로 칭칭이풀이로 신명을 푼다.

현황 현재 이 놀이는 경남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교동마을의 노년층과 중년층 남녀가 중심이 되어 전승하고 있다. 민속놀이화 된 후에 1999년 6월 20일 제30회 경상남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을 받았고 1999년 9월 17일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민속관을 건립하여 놀이 재료와 악기를 보관하고 있으며, 연 4회 이상 연습하여 1997년부터 경남 양산시 삼량문화제와 읍민행사에서 매년 시연(試演)하고 있다.

의의 웅상농청장원놀이는 농사일의 고단함과 협업의 흥겨움, 의례의 엄숙함과 뒤풀이의 떠들썩함을 거쳐서 장원놀이에서 고된 노동의 결과에 대한 흐뭇함과 기쁨을 신명으로 풀어버리고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농청의 세시적 구조를 잘 표현하고 있다. 또한 놀이에 참가하는 구성원 모두가 명곡마을 주민이며, 한평생 농사일을 한 60~80대 노인층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고 놀이 진행이 자연스럽다. 놀이에 필요한 소품들은 거의 놀이에 참가한 놀이꾼들이 집에서 직접 쓰던 것을 가지고 나오거나 손수 만들어 나오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놀이꾼들은 정리된 장단과 가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경상도 메나리조의 민요를 부르는데, 특히 "오하 저리여" 하고 뒷소리를 받는 저리여소리는 다른 지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지역의 특징적인 논매기소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남무형문화재(경남은행, 1997), 경상남도의 민속예술(경상남도, 1998), 경상남도 문화재(무형문화재) 제23호-웅상농청장원놀이-(웅상향토문화보존회, 2002).

필자 | 박성석(朴性錫)

이리농악(裡里農樂)

⇨ 농악(農樂): 가을편

임실필봉농악(任實筆峯農樂)

⇨ 농악(農樂): 가을편

장원놀이(壯元-)

⇨ 백중놀이(百中-): 가을편

전주기접놀이(全州旗接-)

정의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의 여러 마을에서 농기(農旗)를 가지고 벌이던 민속놀이. 용기(龍旗)놀이라고도 부른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 무렵까지 성행하였으나 이후 간헐적으로 1956년까지 전승이 이루어지다가 중단되었다. 1974년 풍남제 행사 때 다시 재현되어 현재 매년 백중일에 기접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배경 전북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은 옛 전주부의 우림면, 난전면, 나중에는 우전면으로 불리던 곳으로, 현재는 전주시 삼천동 2가에 편입되어 있다. 기접놀이는 일제강점기 당시 탄압으로 소멸되었으나, 우림면 계룡리의 4개 마을(함띠, 용산, 비아, 정동) 일대는 당시 면장(面長)의 보호 아래 마지막까지 명맥을 이었다고 한다. 이곳은 모악산의 수려한 자연 속에 광활하고 비옥한 농토가 있으며, 후덕한 인심과 더불어 전북을 대표하는 농심(農心)의 고장이기도 하다.

고증에 의하면 기접놀이는 난전면 중평, 산정, 학전 같은 마을과 우림면의 계룡리 4개 함띠, 용산, 비아, 정동마을 주민들이 칠월 칠석이나 백중에 다른 마을의 초청에 의하여 술맥이굿을 벌이며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민중 행사이자 각 마을의 단결을 다짐하며 열리던 백중날 일꾼 중심의 축제였다.

1974년 제16회 풍남제 민속놀이 재현 자료에 의하면, 가장 오래된 용기(龍旗)는 평화동 중평마을의 용기로 고종 31년(1895) 8월 15일에 제작되었다. 당시 상좌 임성숙과 회원 윤공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용 그림은 1936에년 벽곡이 그렸다고 되어 있다. 현재에도 1930년대에 제작된 비아마을의 용기와 1940년대에 제작된 정동마을 용기가 전해지고 있다. 여러 곳이 찢기고 헐어 긴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기에는 용을 비롯하여 거북이와 잉어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농경문화에서 용신을 섬기는 전통적인 공동체 신앙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원래 각 마을은 똑같은 크기의 용기와 백기(白旗)를 가지고 있었으며, 백기는 남성기(男性旗)라고 하여 마을 공동 작업인 두레와 마을 주민의 행사에 등장하였고, 용기는 여성기(女性旗)라고 하여 합굿놀이 때만 등장하였다.

내용 한여름 모내기를 끝내고 두세 차례의 김매기를 마치면 칠월 칠석이나 백중 무렵이 된다. 이때에 합굿놀이를 주최하고자 하는 마을이 마을 총회를 열어 합굿 일정을 결정한 후 이웃 형제마을을 초청한다. 기접놀이 인적 구성은 좌상 4명(4개 마을 각 한 명씩), 공원 4명(4개 마을 각 한 명씩), 기재사 4명(4개 마을 각 한 명씩), 농기수 4명(4개 마을 각 한 명씩), 영기수 8명(4개 마을 각 두 명씩), 사동 4명(4개 마을







〈전주기접놀이〉
1 고사지내기
2 용기이어달리기
3 기펄치기
경기도 포천시 공설운동장
국립민속박물관







〈전주기접놀이〉
1 용기이동
2 용기부딪치기
3 용기부딪치기
4 합굿
5 합굿
경기도 포천시 공설운동장
국립민속박물관

각 한 명씩), 나팔수 4명(4개 마을 각 한 명씩), 풍물패 44명(4개 마을 각 열 한명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용기의 크기는 폭 3미터, 길이 5미터이다. 흰 광목에 용을 그렸으며 기주(旗柱)와 접촉 부분에는 제작연월일을 기록했다. 기주의 길이는 8미터, 지름은 15~20센티미터의 대나무를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영구 보존을 위해 대나무 속에 나무를 깎아 채워서 만들었으나, 현재는 대나무만 사용한다. 전주기접놀이의 연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접놀이 결정: 비아마을 모정(茅亭) 앞 광장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마을의 좌상을 비롯한 유지들이 모정에 모여 기접놀이에 관해 논의한다. 좌상의 주도로 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좌상의 지시로 알림판을 들고 영기(令旗)를 든 채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마을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리고 풍물패는 한바탕 흥겨운 굿판을 벌인다.

풍물굿이 끝나면 좌상은 모든 마을사람들에게 백중날 이루어질 행사에 대해 소상히 설명한다. 설명을 들은 마을사람들은 "야---" 하는 함성으로 답한다. 백중날 기접놀이를 하기로 결정하고 주변의 마을을 모두 초청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마을회의에서 결정된 문제는 공원(公員)을 통해 잔치를 준비하고, 마을 전령은 다른 마을사람들에게 잔치의 날짜를 알리며 참석 여부를 묻는 전령을 보낸다. 전령은 영기를 앞세우고 정동마을, 용산마을, 함띠마을을 차례로 돌며 기접놀이를 알린다. 전령을 맞이한 마을에서 입구 오른쪽에 영기를 꽂으면 초청에 응한다는 표시이며, 입구 양편에 영기를 꽂아놓으면 불참하겠다는 표시가 된다.

② 마을회의: 초청된 마을의 좌상들이 사동(使童)을 앞세우고 등장하여 모정 위에 자리를 잡는다. 이때 사동은 마을 이름이 쓰인 간판을 들고 어른들 뒤에 서 있으면 회의가 시작된다. 백중날 아침에는 각 마을의 좌상과 유지들이 모여 농사철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점과 송사(訟事)를 처리하고, 마을의 공동사업인 보를 막거나 용배수로의 위치를 변경하는 일, 도수로를 개설하는 일 같은 공동의 연중 사업 규모를 서로 토론하여 결정짓는다.

마을회의는 마을 간에 서로의 친목은 물론이려니와 마을 공동체 구성원의 결속력을 다지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행위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는 전통 사회의 지역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본적 토대가 된다.

③ 이웃마을 손님 접대: 비아마을 풍물패는 두 패로 나뉘어 한 패는 영기를 앞세우고, 다른 한 패는 정동마을로 마중을 나간다. 이때 정동마을 풍물패와 중간 지점에서 만나 서로 인사하고 약속 장소인 삼천천변으로 모인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용산마을, 함띠마을 풍물패를 맞이한다. 중간 지점에서 만난 풍물패와 마을사람들은 영기를 서로 교환한 후 한바탕 흥겨운 풍물을 치고 이동한다. 초청한 마을사람들은 초청에 응하는 마을 사람들을 마중하여 손님 접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④ 판굿: 천변에 집결한 4개 마을 풍물패와 마을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정렬한다. 이때 4개 마을 어른들이 모인 모정을 향해 한 마을씩 인사굿을 한다. 어른들에 대한 인사가 끝나면 비아마을은 동쪽에, 정동마을은 남쪽에, 용산마을은 북쪽에, 함띠마을은 서쪽에 진을 쳐 자리를 잡는다. 각각 자리를 잡은 풍물패들은 흥겨운 풍물굿을 치며 흥을 돋운다. 흥겨운 풍물판이 끝나면 각 마을들은 자신들의 풍물굿 솜씨를 자랑하기 위하여 한 마을씩 중앙으로 나와 풍물굿판을 벌인다. 마을 대항 풍물경연대회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때 마을 좌상들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가장 잘한 마을에 상을 내린다.

⑤ 용기이어달리기: 마을 이름의 간판을 든 사람들이 백여 미터 지점에 십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반환점을 세운다. 비아마을 공원의 지시에 따라 용기를 든 첫 장정이 출발 지점에 서고 용기이어달리기를 하기 위해 차례로 경주 대형으로 도열한다. 첫 번째 주자가 용기를 들고 뛰다가 중간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는 두 번째 주자에게 넘겨주고, 두 번째 주자는 반환점을 돌아 세 번째 주자에게 용기를 넘겨주고, 세 번째 주자는 중간 지점에서 네 번째 주자에게 용기를 넘겨준다. 이렇게 하여 가장 먼저 도착한 마을이 우승하는 것이다. 이긴 마을의 장정들은 진 마을의 고삐를 잡은 채 마을 전체의 풍물소리에 맞춰 춤을 춘다. 원래 농기달리기는 릴레이 계주 식으로 여러 장정들이 모악산 중턱을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현재는 모악산까지는 가지 못하고 일부 거리를 정하여 행하고 있다. 승리한 마을과 패배한 마을의 목마놀이는 승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마을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⑥ 용기놀이: 용기이어달리기가 끝나고 흥겨운 놀이판이 끝나면 우승한 마을부터 풍물소리에 맞춰 곱게 단장한 마을의 기재사(旗才士)가 용기를 높이 들고 의기양양하게 등장한다. 중앙에 등장한 기재사는 둥그렇게 늘어선 풍물패 속에서 용기놀이를 벌인다. 마을의 힘센 장정이 벌이는 용기놀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볼 만한 거리를 제공한다. 힘과 기(氣) 그리고 예(禮)가 곁들여진 용기놀이는 오랜 기간의 훈련과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용기

놀이를 통해 마을 장정들이 힘을 드러내고, 용기놀이를 가장 잘한 장정은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였다고 한다. 용기놀이에는 기펼치기, 기높이들기, 내려깔기, 파도타기, 마당쓸기, 고네받기, 이마놀이, 어깨놀이, 기나발, 용기춤이 있다.

⑦ 용기부딪치기: 용기놀이가 절정에 달하여 마을사람들의 흥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개의 용기가 한데 뭉치는데, 이를 용기부딪치기라고 한다. 서로 기를 맞대놓고 높이 뛴다. 깃봉이 땅에 떨어진 마을은 곧 기의 제작연도를 현재로 바꾸며 마을 주민들은 모두 상위의 마을에 인사를 한다.

⑧ 합굿: 기세배가 끝나면 네 개 마을 주민 모두가 합세하여 합굿놀이를 한다. 네 개 마을 주민과 풍물패가 하나로 어울려 대동굿판이 벌어진다. 각 마을 주민은 물론 인근 마을에서 구경나온 사람들까지 하나로 어울려 굿판을 벌인다. 합굿이 끝나면 초청한 마을인 비아마을이 각 마을의 중간 지점까지 환송한다.

참고문헌 | 전주기접놀이(풍남제 행사팸플릿, 문치상, 1974).
필자 | 이종진(李鍾振)

진주삼천포농악(晋州三千浦農樂)

⇨ 농악(農樂): 가을편

질먹기놀이

⇨ 백중놀이(百中-): 가을편

초군놀이(樵軍-)

정의 풀이나 나무를 베기 위하여 농군[樵軍, 草軍]들이 두레 형식으로 산이나 들에서 좌상(座上)의 지시에 따라 무리지어 일하면서 노는 놀이. 대개 6월 유두(流頭)에서 8월 추석(秋夕) 사이에 놀지만, 음력 7월 15일 백중(百中)을 즈음하여 노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백중두레놀이'라고도 한다.

유래 초군놀이는 풀꾼이나 나무꾼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의 능률을 올리고 심심함을 이기기 위해 소규모, 비체계적으로 놀던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두레 또는 농청(農廳) 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면서 상하 구분의 엄한 체계에 따라 협동 단결하여 집단 경쟁 놀이를 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내용 초군놀이는 마을 공동체의 농군들이 모여 편을 가르고 좌상의 지시 아래 풀베기 두레를 하고 작업량을 재서 상벌을 내리는 놀이이다. 초군놀이는 초군들이 신성한 공간에서 제사를 올리며 한 해 풍년을 빌고 무사태평하기를 비는 의식을 치르는 과정, 풀을 다 한 후 낫치기나 공치기 놀이를 하며 거름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하산하여 풀을 내려놓고 좌상의 지시에 따라 우위를 정하고 상과 벌을 내린 후 징과 북, 꽹과리를 치면서 신명나게 노는 마무리 과정으로 구성된다. 마을에 따라서는 깃발 빼앗기 싸움을 하기도 한다. 보통 세벌논매기 작업이 끝난 후 호미씻기를 정점으로 놀이를 벌인다.

초군놀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경남 마산시 내서면의 초군놀이를 들 수 있다. 내서의 초군놀이는 두레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전부 세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마당은 두레풀베기놀이이고, 둘째마당은 나무꾼일놀이이며, 셋째마당은 배꾸마당 한판놀이이다. 두레풀베기놀이는 마을의 북촌과 남촌 농군들이 모여 성신선고(聖神宣告)를 한 후에 좌상의 지시에 따라 영기(令旗)를 지게에 꽂고 고동소리를 신호로 두레풀자리를 향하면서 시작된다. 고동소리를 신호로 등지소리를 하고 반고동이 울리면 휴식을 취하고 온고동이 울리면 하산하여 모인다. 등지소리는 다음과 같다. "봄철아 일뜨지마라 첩첩산중 고드름은 봄비가 잦아 다 녹는다, 저 건네 내리석 바구우에 행주적삼 널렸는데, 새바람이 불어올까 거들치리까 염려로세(후략)."

다시 배꾸마당으로 모인 후 영기를 중심으로 한판 기굿을 펼치고 일의 결과에 대한 상벌을 내린 다음, 낫치기놀이나 공치기놀이를 재미있게 한 후에 비거름을 만든다. 이어서 둘째마당인 나무꾼일놀이가 이어진다. 초군들은 지게목발을 두드리며 나무꾼 일소리를 부른다. 나무할 때 부르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저 건네라 남산 밑에 나무비는 남도룽아, 온갖 나무는 다 비어도 오죽설대는 비지마오, 올키우고 내년을 키워 낙수대를 호아가니, 들창밑이 강이라면 옥당처녀를 낙갈간데, 낙가며는 열녀로다 못낙거면



풀베기
경북 예천 서헌강

상사로다, 열녀상사 고를 매어 고풀리도록 살아보자." 그리고 나무 한 짐을 짊어지고 산에서 동네로 내려오면서 소리를 한다. "어뚜구야 이후후후후, 에---, 불같이 더분말에 태산같은 짐을 지고 베럭방 같은 대로 내려가니, 구슬같은 땀방울이 내 눈 앞에 쏟아지네, 어뚜구야 이후후후후후."

셋째마당놀이인 배꾸마당 한판놀이는 좌상이 지시한다. 좌상이 "남촌, 북촌 초군들아 묵은 시름, 묵은 액운 다 잊어버리고 동네굿이나 벌여서 한마당 놀아보세."라고 한다. 소리를 마치고는 '고시네'를 하고 농주를 마시며 모두 어울려 논다. 이때 개인 장기 자랑 놀이가 펼쳐지기도 하는데, 들돌들기놀이, 엉덩춤놀이, 고동띄움, 병신춤, 북놀이, 벅구춤놀이, 농부춤놀이, 지게목발치면서 노랫가락 부르기, 윷놀이 등이 연행된다.

지역사례 전남 장흥군 장동면에서도 1980년대까지 풀베기 모의놀이가 성행하였다. 이 지역에서도 퇴비 증산을 위해 풀두레가 성행하였는데, 풀베기를 위한 두레 형식으로 좌상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풀이 적으면 벌을 받기도 하였다.

경기도 연천의 나무베는소리인 울어리소리도 두레 형식으로 풋나무를 베고 노는 초군놀이의 일종이다. 연천군 미산면 일대에는 음력 7~8월에 땔나무용 풋나무를 깎는데 두레 형식으로 작업을 하였다. 나무를 할 때는 울어리소리를 하며, 나무를 한 뒤 마을로 돌아올 때는 남여(藍輿)행차, 등게타령 등을 불렀다. 울어리소리는 상중하계리 세 부분에서 각각 선창자가 있어 번갈아 가며 소리를 메겼다. 소리는 다음과 같다. "올라가네 오---, 거기서 올라가면 중계리에서도 올라가네 오---(이하 생략)."

연천의 남여행차는 좌상(양반행세를 함)을 가마에 태우고 산을 내려오며 노래하는 놀이이다. 이때 울어리 기(旗)를 선두로 선소리꾼, 좌상의 차례로 행진한다. 이 형상이 기러기 형상을 닮았다 하여 뒷소리가 "에- 끼루끼루"이다. 남여행차 소리는 다음과 같다. "에 헤루 끼루끼루 고이 모셔라, 에 끼루끼루(후렴), 에리 이놈 물렀거라 칠렀거라 (중략) 에 송악산 꼭대기 단풍이 누렇게 들었구나 (중략) 에 선죽교를 건너니 마음이 후련하구나(이하 생략)."

그리고 둥게소리는 뒷소리로 "둥게야 둥게야 울어리소리에 둥게야"를 사용하고 노랫말은 월령체 형식으로 구성된다. "정월이라 대보름 월출동녘 둥게야"와 같은 형식이다. 둥게는 둥어리 같은 닭이라고 해석하지만 아기어르는소리(둥기소리)와 그 기능이 같다.

의의 초군놀이는 초군들이 모여 대풍년이 들고 집안이 태평하고 자손 창성하며 전염병을 없애줄 것을 비는 성신선고를 올린 후 두레 풀베기 시합을 하는 것으로, 공동 노동 조직을 통한 집단 연대의 생산과 유희가 결합된 형태이다. 초군들의 사기 진작과 협동 단합 그리고 좌상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이기심을 배제하고 집단적 일놀이 문화를 지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고즐고을 장흥(장흥군, 1982), 한국민요대전 경기도 편(문화방송, 1996), 영남의 소리13-마산 내서 초군놀이-(권오경, 대구·경북 지역동향, 대구사회연구소, 통권62, 1997).

필자 | 권오경(權五慶)

평택농악(平澤農樂)

⇨ 농악(農樂): 가을편

현천소동패놀이(玄川少童牌-)

정의 풀베기, 김매기 같은 공동 작업에서 노동력의 능률을 높이고 일꾼들의 피로를 덜기 위해 하는 민속놀이.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 놀이는 두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놀이로서 두레놀이라고도 부른다. 두레놀이는 한강이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행해졌으며, 농사일을 전제로 한 놀이인 까닭에 풍농을 기원하고 노동 공동체의 유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호남에서는 두레놀이가 널리 행해졌다. 198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두레놀이라 함은 두레에서 유래한 것이다. 전남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에서는 두레를 대동패와 소동패로 나누어 조직하였는데, 대동패는 일정한 노동력을 가진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소동패는 16세 이상 19세 이하 남자로 조직하였다. 특히 소동패는 가입절차와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두레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서로 협력하여 하기 위한 마을 단위의 공동 농업 노동 조직을 말한다. 두레는 주로 농번기의 모내기에서 모를 심고 나서 김매기를 마칠 때까지 이루어진다. 두레는 마을 단위로 10명에서 크게는 50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주로 두레꾼이나 두레패라고 부르며, 좌상(座上), 곤장쇠, 공원, 영쇠, 풍물패, 일꾼으로 구성된다. 좌상은 두레꾼들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곤장쇠는 좌상의 지시에 따라 규율을 위반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태장(笞杖)하여 모욕감을 주는 역할을 하며, 공원은 사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영쇠는 영기를 들고 다닌다.

한 마을에 두레가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 규모에 따라 둘 이상이 되기도 한다. 두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대개 16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두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성인 남자로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졌는지를 시험받아 통과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두레는 주로 모심기, 논매기, 수로 정비나 보수, 풀베기에 활용되는데, 일감에 따라 풀두레, 길쌈두레, 모내기두레, 김매기두레 등으로 나누고, 규모에 따라 합두레와 소두레 등으로 나누며, 보통 두레라고 하면 농사두레를 의미한다.

두레의 결성과 해체는 주로 모정(茅亭)에서 이루어지는데, 모정은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된 마루로 된 정자로서 남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농경 문화 유산이다. 모정은 마을사람들이 여름철의 더위를 피하여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자, 다양한 농사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교류의 공간이다. 또 마을 대소사를 논의하는 대화의 공간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곳이면서 때로는 고담(古談)을 나누고 민요를 부르기도 하는 곳으로서 정치·사회·문화·예술의 교류공간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들에게 노동공동체로서 의식을 갖게 해주었던 두레는 한국 농촌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화폐경제 체제로 들어서면서 서서히 쇠퇴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농촌 말살 정책으로 완전히 사라지기에 이르렀다.

내용 현천소동패놀이는 전갈(傳喝)이란 엄격한 형식을 통하여 자치 의식과 단합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며, 네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첫째마당: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기 위해 조반(朝飯)을 재촉하는 조반소고(朝飯小鼓)를 치고, 동구마당에 영기를 세워놓고 공원의 지시에 따라 소고수가 일터로 빨리 모이라는 모임소고를 치면, 소동패들이 영문(營門) 앞에 줄을 맞춰 서서 공원으로부터 인원 점검과 그날 할 작업의 지시를 받고 길소고를 치면서 들로 나간다. ② 둘째마당: 들로 나간 소동패는 논두렁에 영기를 꽂고 김을 매는데, 논매기노래를 하면서 초벌논매기, 두벌논매기, 세벌논매기를 한다. ③ 셋째마당: 오후가 되어 일이 끝날 무렵에 이웃마을인 오용마을의 소동패가 소동길굿을 치면서 나타나 전갈을 청하는 전갈청하기를 하면 이들의 요청에 따라 현천리의 소동패가 기세를 올려 전갈을 올리는 전갈올리기를 한다. 즉, 오룡마을 소동패로부터 "녹포 은갑은 상사로 조련하고 기치 창검은 일월을 희롱하고 영은 군중지영이요, 문은 장군지문이라. 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소동 공좌승 모시고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영문전갈(營門傳喝)이 오면 영쇠와 소고수가 소동패 좌상에게 정중하게 전갈을 올린다. 그러면 현천 소동패는 길을 열어 주지 않고, 한량(閑良)으로 놀 것인가, 힘겨루기로 놀 것인가를 결정한다. 한량은 노래와 춤추기이고, 힘겨루기는 씨름, 패싸움, 이어달리기,

허리잡기, 밀치기이다. 두 소동패가 서로 겨룬 뒤 패자가 승자 편에 정중하게 영문전갈을 올려야 한다. ④ 넷째마당: 전갈 의식이 끝나면 양편 소동패가 하나가 되어 풍물을 치면서 어울림굿을 하는데, 어울림굿은 유산굿, 소고놀이, 자진 유산굿, 구정놀이 같은 다양한 민속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소동패놀이에는 풍물과 상사소리(모심기노래), 어기야소리(초벌논매기), 방아소리(두벌논매기), 개구리타령(세벌논매기), 등화타령(화합의 노래)과 같은 민요 및 춤이 곁들여져 있으며, 1980년 광주에서 열린 제11회 남도문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1982년 인천에서 열린 제2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이로 인해 1982년 10월 15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지역사례 두레놀이로 전남 강진의 땅뺏기놀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풍장놀이, 전남 여수시 여천의 만경놀이, 나주의 풍장굿, 순천 낙안의 두레놀이, 전북 전주의 기접놀이, 익산의 기세배, 함렬의 기뺏기놀이, 옥구의 기맞이와 완주 봉동의 기세배가 있다.

전남 강진의 땅뺏기놀이는 전남 내륙 지역의 장원질놀이와 전북지방의 기세배 및 기뺏기놀이가 복합된 놀이이다. 놀이 방법은 그해의 마지막 논매기인 만두레가 끝나고 마을에서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농장원했다고 하여 어사화로 곱게 꾸민 패랭이를 씌워 소 위에 태우고 농악에 맞추어 장원질노래를 부르면서 마을로 돌아온다. 이 행렬의 맨 앞에는 용이 그려진 덕석기를 두세 사람이 들고 행진한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마을 농장원의 행렬을 만나면 서로 길을 비켜달라고 다투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이윽고 두 마을의 두레꾼 대표자들이 나와 힘겨루기를 하기로 합의한다. 힘겨루기는 상대방의 농기인 덕석기를 넘어뜨려 땅에 닿게 하면 이기는 놀이이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풍장놀이는 대개 굼벌맬 때 한다. 풍장할 것을 예고하면 다른 날보다 일찍 논을 매고 풍장할 장소에 일꾼들이 모인다. 풍장할 집의 머슴이나 주인을 소 위에 태운다. 소를 탄 사람의 얼굴에는 솥검정을 칠하고 삽을 어깨에 걸치고 양산을 받쳐 든다. 소를 탄 행렬이 농악대의 뒤를 따르고 그 뒤를 마을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주인집에 도착하면 안주인은 명주 수건과 비누를 주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닭죽과 마른명태로 죽을 쑤어서 술과 함께 일꾼들을 대접하며 한바탕 논다.

전북 지역에서 칠월 백중에 행하는 머슴놀이, 호미씻기, 술멕이는 한 해의 농사일이 마무리되어가는 시기, 즉 벼를 심고 만드리 논매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머슴들을 중심으로, 그해의 논농사가 잘 된 집이나, 논농사가 많은 집에서 술과 음식을 내놓아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춤을 추고 농악을 치면서 즐겁게 논다.

의의 현천소동패놀이는 일이 놀이화되고 놀이가 의례화된 두레놀이로서, 풍농을 기원하는 것은 물론 노동의 능률을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집단적인 세시놀이이다.

참고문헌 | 文化財圖錄(全羅南道, 1988), 全羅南道誌(全羅南道, 1993), 남도민속학 개설(지춘상 외, 태학사, 1998),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전통문화예술(표인주, 민속원, 2004).
필자 | 표인주(表仁柱)

백중날은 논두렁 보러 안 간다

정의 농사일이 거의 끝나가는 백중날의 한가함을 나타내는 뜻의 속담. 큰 일들이 거의 마무리되어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내용 백중날은 음력 7월 보름으로 큰 농사일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해당하기에, 일꾼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날을 쉬게 했다는 데에서 비롯된 농사속담이다. 백중날에는 그해 농사가 잘된 집의 머슴을 뽑아 소에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닭이나 개를 잡아 마을잔치를 벌여 일꾼들을 잘 먹였다. 따라서 이날은 일꾼들이 일을 하지 않았고 들에 나가지도 않았다.

이설(異說)에 의하면 백중 때는 산신들이 한창 곡식의 수확을 마련하고 있을 때이므로, 사람들이 논에 있으면 오히려 산신의 일에 방해가 되어 작황을 망치게 된다는 속신(俗信)이 있어 일꾼들이 들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도 한다.

참고문헌 | 農事俗談(農村振興廳, 1989).
필자 | 권태효(權泰孝)

백중 무수기에는 메밀농사 끝에 늘어진 불 보려고 구멍에 든 소라 다 나온다 (백중 물찌엔 모밀농ᄉᆞ 끝듸 늘어진 불 보젱 고망에 든 구젱기 다 나온다)

정의 백중날은 물이 잘 써서 돌 틈에 숨은 소라가 잘 보여 손쉽게 잡히는 시기임을 나타낸 말.

내용 백중(百中)은 음력 7월 15일이다. 제주도에서는 보통 백중을 맞이하여 음력 7월 14일 자시(子時)에 목장이나 한라산에 올라가서 마불림제를 하여 죽은 테우리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말과 소의 생육과 번식 풍요를 기원한다. 해안 지역의 바다도 칠월 보름은 일곱 혹은 여덟 물때여서 물이 아주 잘 썰어 바다밭이 육지처럼 나앉게 되고, 어린아이나 노인들은 바구니를 들고 소라나 보말고둥을 잡는다. 마을 아낙들이 온통 바다로 나온 바람에 바다는 인해를 이룬다.

모든 농사가 거의 이루어진다고 하는 백중 무렵에는 한 해의 가장 마지막에 농사짓는 메밀농사도 마무리를 하게 된다. 메밀농사가 끝나면 들에는 땔감으로 이용하기 위해 걷어들이다 남은 것과 마른 짚들을 모아 태우게 되는데, 불이 지펴서 타오르는 정경은 마치 화염이 온 들판을 야금야금 먹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저녁에 억새의 미를 이용하여 만든 화심을 들고 바다로 나가면, 그 불빛을 쫓아 소라와 보말 같은 갖가지 고둥들이 물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서 바구니에 주워담기만 하면 된다. 마치 소라들 또한 들판의 불을 보려고 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비유적인 표현을 했다.

참고문헌 |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필자 | 좌혜경(左惠景)

백중에 물없는 나락 가을할 것 없다

정의 벼농사에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백중에 제대로 물을 얻지 못하면 농사를 망친다는 뜻의 속담.

내용 백중은 음력 7월 15일로 이 시기는 벼이삭이 한창 패기 시작하는 때로, 벼의 생육과정에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뭄이 들어 논에 물을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곧 비가 철에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풍농을 거두기 어렵다는 뜻을 담은 속담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는 "초벌논 매고 가물면 수확을 할 수 있어도 만논 매고 가물면 수확도 못한다.", "유월 가뭄에는 먹을 게 있어도 7월 가뭄은 쭉정이도 못 찾는다."가 있다.

참고문헌 | 農事俗談(農村振興廳, 1989).
필자 | 권태효(權泰孝)

백중에 바다 미역하면 물귀신 된다

정의 백중날인 음력 칠월 보름날 바다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죽는다는 말로 백중 때가 되면 해수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내용 백중(百中)은 음력 칠월 보름날로 명절의 하나지만, 여기서는 백중사리를 일컫고, 미역은 냇물이나 바닷물 같은 곳에 들어가 몸을 씻는 일로 바다 미역은 해수욕을 말하며, 물귀신은 민속에서 물에 있다는 잡귀(雜鬼)를 이르는 말로 '물귀신이 된다'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다.

백중사리(음력 7월 15일을 전후한 사리) 때는 조류가 매우 빠르고 수온이 급격히 떨어져 바다에 잘못 들어가면 심장마비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익사하는 경우가 많다. 백중사리는 태양계의 운행(運行) 중 지구 - 달 - 태양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고,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는 때로서 달의 인력에다가 태양의 인력까지 더해져 조고차(潮高差)가 일년 중 최고로 높아진다. 따라서 백중사리에는 해수면도 일년 중 최고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이 갑작스럽게 차가워지고 물살도 빨라지기 때문에 바다에 나아가 목욕을 하면 위험하다.

이 속담은 서해안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속담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서해안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백중사리에 조수가 밀려올 때 바닷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세차짐을 나타내는 속담으로는 "칠월 백중 사리에 오리 다리 부러진다."가 있다.

참고문헌 | 漁村俗談集(全羅南道, 1980).
필자 | 강재철(姜在哲)

칠월 백중사리에 오리 다리 부러진다

정의 7월 백중사리에 조수가 밀려오는 시각이 되면, 오리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바닷물의 흐름이 빨라지고 세차진다는 말.

내용 백중사리는 일년 중 조고차(潮高差)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음력 7월 15일을 전후한 시기의 사리를 말한다.

사리는 음력 그믐과 보름 전후 두 차례 드는데 백중사리는 태양계의 운행(運行) 중 지구 - 달 - 태양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고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는 때로서, 달의 인력에다 태양의 인력까지 더해져 조고차가 일년 중 최고로 높아지며 파도가 마치 용왕이 노한 것처럼 거세게 밀려와 물살이 매우 빠르고 세차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오리의 다리가 부러진다는 다소 과장된 속담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한편 백중 때 바다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죽기 쉽기 때문에 해수욕을 하지 말라는 뜻의 속담으로는 "백중에 바다 미역하면 물귀신 된다."가 있다.

참고문헌 |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필자 | 강재철(姜在哲)

멍에놀날

정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일대에서 큰 파도가 쳐서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음력 7월 20일을 가리키는 말.

유래 '멍에'란 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소 목에 얹어놓고 쟁기와 멍에를 굵은 밧줄이나 긴나무 장대로 연결시키고 멍에는 소 목 아래 양쪽으로 끈을 메어 힘주어 끌어도 벗어지지 않게 만들은 형의 나무로 깎아 만든 농기구의 한 부품으로 나무막대이다. 멍에 모양은 산등성이 같이 높고 크다. '놀'이란 큰 파도 혹은 높은 파도를 뜻한다. 즉, '멍에놀'이란 산더미와 같은 큰 파도가 치는 것을 뜻하며, 음력 7월 20일을 즈음하여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안에서 이러한 자연현상이 자주 나타나 이날을 '멍에놀날'이라 부른다.





1~2 백중 무렵의 파도
제주도 서귀포 김상수

내용 우리나라 서해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하고 있는 서해 5도서(島嶼) 중의 3개 섬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예부터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여러 가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섬으로서 현재도 많은 유적 유물이 현존하고 있어 문헌이나 전설 등으로 전해지고 있는 곳이다.

이 섬들은 다른 곳보다 더 강한 태풍때문에 수시로 큰 피해를 입는 곳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음력 칠월 칠석이 지나고 약 보름 후인 음력 7월 20일경(양력 8월말~9월 2일경)에는 멍에놀이라는 큰 파도가 쳐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이때를 즈음하여 크고 작은 태풍들이 서해 쪽으로 오기 때문이다. 백령도에서는 이날을 멍에놀날이라고 하여 해마다 이때가 되면 기상 상태를 보아 배를 뭍으로 끌어 올리는가 하면 간척지와 논밭 두렁을 정비하여 태풍과 높은 파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한편, 태풍으로 인한 멍에놀이 지나가면 백령도에서는 "가을도 봄이다."라는 말을 한다. 이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왔지만, 멍에놀로 인한 피해로 봄철 보릿고개와 같이 곡식이 없다는 뜻이다.

참고문헌 | 甕津郡誌(甕津郡, 1989).
필자 | 이세희(李世熹)





節氣

절기

입추가 지난 뒤에는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가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이때에 김장용 무와 배추를 심어
김장에 대비한다.
이 무렵에는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한다.



입추 풍경 이억영

입추(立秋)

정의 태양의 황도(黃道)상의 위치로 정한 24절기 중 열세 번째 절기. 양력으로는 8월 8일 무렵이고, 음력으로는 7월인데, 태양의 황경(黃經)이 135도에 있을 때이다. 대서(大暑)와 처서(處暑)의 사이에 들어 있으며,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후이다. 이날부터 입동(立冬)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한다.

유래 『고려사(高麗史)』 권50 「지(志)」4 역(曆) 선명력(宣明曆) 상(上)에 "입추는 7월의 절기이다. 괘(卦)는 리(離) 구사(九四)이다. 초후(初候)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 차후(次候)에 흰 이슬이 내린다. 말후(末候)에 쓰르라미[寒蟬]가 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입추가 지난 후의 계절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고려사』 권6 「세가(世家)」6 정종(正宗) 병자(丙子) 2년(1036)에는 "입하(立夏)부터 입추까지 백성들이 조정에 얼음을 진상하면 이를 대궐에서 쓰고, 조정 대신들에게도 나눠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입추까지는 날씨가 무척 더웠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려사』 권84 「지(志)」38에 "입추에는 관리에게 하루 휴가를 준다."라고 하였다.

내용 입추 무렵은 벼가 한창 익어가는 때여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입추가 지나서 비가 닷새 이상 계속되면 조정이나 각 고을에서는 비를 멎게 해달라는 기청제(祈晴祭)를 올렸다 한다.

입추는 곡식이 여무는 시기이므로 이날 날씨를 보고 점친다. 입추에 하늘이 청명하면 만곡(萬穀)이 풍년이라고 여기고, 이날 비가 조금만 내리면 길하고 많이 내리면 벼가 상한다고 여긴다. 또한 천둥이 치면 벼의 수확량이 적고 지진이 있으면 다음해 봄에 소와 염소가 죽는다고 점친다.

입추가 지난 뒤에는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가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이때에 김장용 무와 배추를 심어 김장에 대비한다. 이 무렵에는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거의 전국적으로 전해진다. 이 말은 5월이 모내기와 보리 수확으로 매우 바쁜 달임을 표현하는 "발등에 오줌 싼다."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 말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8(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최운식(崔雲植)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정의 양력으로 8월 8일 무렵인 입추(立秋) 때는 벼가 한창 자랄 때라 벼의 자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는 뜻을 지닌 속담.

내용 장마가 끝나고 입추 무렵이 되면 날씨가 좋고 일조시수가 많아 벼의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생장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귀가 밝은 개는 벼가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는 좀 과장된 표현이 생겼다. 벼가 쑥쑥 자라기를 바라는 농사꾼들의 마음도 벼 자라는 소리에는 집약되어 있다. "말복 나락 크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라는 속담도 같다. 입추와 말복은 대개 비슷한 시기에 돌아오기 때문에 넘나드는 것이다.



벌써 立秋
한국일보 1955년 8월 8일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조현설(趙顯卨)

처서(處暑)

정의 태양의 황도(黃道)상의 위치로 정한 24절기 중 열네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처서(處暑)는 입추(立秋)와 백로(白露) 사이에 들며, 태양이 황경 150도에 달한 시점으로 양력 8월 23일 무렵, 음력 7월 15일 무렵 이후에 든다.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로, 더위가 그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음력 7월을 가리키는 중기(中期)이기도 하다.

내용 흔히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고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계절의 엄연한 순행을 드러내는 때이다. 이러한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고려사(高麗史)』 권50 「지(志)」4 역(曆) 선명력(宣明歷) 상(上)에는 "처서의 15일 간을 5일씩 3분하는데, 첫 5일 간인 초후(初候)에는 매가 새를 잡아 제를 지내고, 둘째 5일 간인 차후(次候)에는 천지에 가을 기운이 돌며, 셋째 5일간인 말후에는 곡식이 익어간다."라고 하였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의 풀을 깎거나 산소를 찾아 벌초한다. 예전의 부인들과 선비들은 여름 동안 장마에 젖은 옷이나 책을 음지(陰地)에 말리는 음건(陰乾)이나 햇볕에 말리는 포쇄[曝曬]를 이 무렵에 했다.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고 한다. 이 속담처럼 처서의 서늘함 때문에 파리, 모기의 극성도 사라져가고, 귀뚜라미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 또 이 무렵은 음력 7월 7일 백중(百中)의 호미씻이[洗鋤宴]도 끝나는 시기여서 농사철 중에 비교적 한가한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정 칠월 건들 팔월"이란 말을 하기도 한다. 어정거리면서 칠월을 보내고 건들거리면서 팔월을 보낸다는 말인데, 다른 때보다 그만큼 한가한 농사철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다.

처서 무렵의 날씨는 한 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비록 가을의 기운이 왔다고는 하지만 햇살은 여전히 왕성해야 하고 날씨는 쾌청해야 한다. 처서 무렵이면 벼의 이삭이 패는 때이고, 이때 강한 햇살을 받아야만 벼가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한꺼번에 성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처서에 장벼(이삭이 팰 정도로 다 자란 벼) 패듯"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처서 무렵의 벼가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속담이다.

농사의 풍흉에 대한 농부의 관심은 크기 때문에 처서의 날씨에 대한 관심도 컸고, 이에 따른 농점(農占)도 다양했다. 처서에 비가 오면 독의 곡식도 준다고 한다. 처서에 오는 비를 '처서비[處暑雨]'라고 하는데, 처서비에 '십리에 천석 감한다.'라고

하거나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의 든 쌀이 줄어든다.'라고 한다. 처서에 비가 오면 그동안 잘 자라던 곡식도 흉작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맑은 바람과 왕성한 햇살을 받아야만 나락이 입을 벌려 꽃을 올리고 나불거려야 하는데, 비가 내리면 나락에 빗물이 들어가고 결국 제대로 자라지 못해 썩기 때문이다. 이는 처서 무렵의 날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체득적(體得的)인 삶의 지혜가 반영된 말들이다.

이와 같은 관념은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경남 통영에서는 '처서에 비가 오면 십리 천석을 감하고, 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 백석을 감한다.'라고 한다. 전북 부안과 청산에서는 '처서날 비가 오면 큰 애기들이 울고 간다.'라고 한다. 예부터 부안과 청산은 대추농사로 유명한데, 대추가 맺히기 시작하는 처서를 전후하여 비가 내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혼사를 앞둔 큰 애기들의 혼수장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처서비는 농사에 유익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처서비를 몹시 꺼리고 이날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濟州道誌3(濟州道, 1993),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세시풍속 I-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장장식(張長植)

처서 풍경 이억영



처서비[處暑雨]

⇨ 처서(處暑): 가을편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정의 처서(處暑)가 지나면 더위도 고비를 넘어 날씨가 선선해지므로 극성을 부리던 모기도 기세가 약해지는 현상을 이르는 속담.

내용 24절기의 하나인 처서는 양력 8월 23일 무렵이다. 이때가 되면 한 여름철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여 누그러진다. 그러면 저온에 약한 모기들도 사람의 피를 빨려고 극성을 부리던 육칠월에 비해 기세가 많이 꺾인다. 파리도 마찬가지다. 그 꺾이는 기세를 모기의 입이 삐뚤어지는 것으로 형상화한 감각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이즈음 도시의 모기들은 형세가 다르다. 처서가 지나도 입이 비뚤어지기는커녕 건물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 밤이면 나와 도시인들을 괴롭힌다.

모기가 사라지는 시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속담으로는 "모기는 중양절 떡 먹고 죽는다."가 있다.

참고문헌 | 속담풀이사전(한국고전신서편찬회, 홍신문화사, 1991),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조현설(趙顯卨)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

정의 처서(處暑)가 지나가면 모든 식물은 생육(生育)이 정지되어 시들기 시작한다는 데서 유래한 속담.

내용 처서는 입추(立秋)와 백로(白露) 사이에 끼어 있는 24절기 중 하나로 8월 23일 무렵이다. 이때가 지나면 들에 있는 풀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자란다 해도 그 정도가 미약하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이 시기가 지나면 사료용으로 목초를 베어 말리기 시작한다. 또 논둑의 풀도 깎아주고 산소의 벌초도 한다. 여름내 매만지던 쟁기와 호미도 깨끗이 씻어 갈무리한다. 제주도에는 "처서 넘으면 풀 더 안 큰다."라는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속담치고는 직설적인 표현이다. 그에 비하면 풀이 시들고 말라 몸이 꼬이는 것을 '울며 돌아간다'라고 표현한 쪽이 훨씬 미감이 풍부하다.





1 장벼
경북 예천 서헌강

2 오늘 處暑
조선일보 1961년 8월 23일

참고문헌 | 濟州道俗談辭典(제주교육대학교, 제주도, 1999),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조현설(趙顯卨)

처서에 장벼 패듯

정의 처서(處暑)에 벼가 패듯이 무엇인가 한꺼번에 사방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비유하여 이르는 속담.

내용 "입추(立秋)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한여름에 벼는 쑥쑥 자라난다. 그리고 보름 정도 지나 처서(양력 8월 23일 무렵)가 되면 벼가 패서 올라오기 시작한다. 처서 무렵이 되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벼 이삭이 길게 올라온다. 벼농사에 바탕을 둔 이와 같은 생활 체험에서 일이 사방에서 한꺼번에 터져 경황이 없는 상태를 비유하는 속담이 빚어졌다. 장벼라는 말의 '장'은 길다[長]라는 뜻을 지닌다.

농사일에 바탕을 둔 비슷한 속담으로 "장마에 논둑 터지듯 한다."라는 표현이 있다.

참고문헌 |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필자 | 조현설(趙顯卨)





月內 월내

칠월 이슬은
몸에 좋다고 하여
제주도와 경상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더위를 예방하고
더위 먹은 사람이나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벼와 상추 그리고 콩잎 따위에 배달된
이슬(이슬)을 새벽에 받아먹는다.

농포제(農酺祭)

정의 제주도에서 음력 7월에 지내는 마을제사. 그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제사이다. 마을에 따라 음력 정월과 6월에 지내기도 한다. 제신(祭神)은 포신, 토신, 마을신으로 어느 포제나 같다. 포제의 전통적 명칭은 이삿제, 거릿제, 천제, 산천제, 건성제가 있는데, 모두 '마을의 제사'라는 뜻이다.

내용 제주도 전래의 마을 제사인 포제에는 객신제와 농포제, 별포제가 있다. 객신제는 주로 정월에 마을의 평안과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며, 별포제는 그 밖의 전염병과 화재 따위의 환란이 발생했을 때 택일을 받아 지내는 부정기적인 제사이다. 농포제는 객신제나 별포제와 달리 여름 농사의 씨앗을 뿌린 후에 지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농포제의 목적은 전염병과 화재와 같은 마을의 환란을 예방하고 오곡풍농과 가축의 번성을 기원하는 것이므로, 해마다 마을에서 행하는 이 제의에 주민들은 특별한 정성을 쏟는다. 제삿날은 좋은 날을 택일하여 정하는데, 만약 마을에 갑자기 장사(葬事)와 같은 부정한 일이 있으면 연기한다.

제관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있으며, 그 밖에 집례, 도예차, 전사관, 대축, 찬자, 알자, 봉향, 봉로, 봉작, 전작, 사존, 예체헌관(헌관 유사시 교체할 제관)으로 구성된다. 제물과 희생은 집집마다 쌀 한 되씩 모은 성미(誠米)로 충당한다. 메밥은 도량서직(稻粱黍稷)으로 하고, 각각 한 그릇씩 올리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 형편상 쌀밥, 조밥 따위로 대신한다. 그리고 녹포녹해(鹿脯鹿醢, 사슴고기와 젓갈), 어수어해(魚膞魚醢, 바닷고기 말린 것과 젓갈), 청저근저(靑菹芹菹, 무채와 미나리채), 율황형염(栗黃鉶鹽, 생율과 소금), 폐백(幣帛, 창호지 백지)을 올린다.

제물은 보통 이장 집에서 만드는 것이 상례이며, 제관은 '일회정성'이라 해서 7일간 근신하고 제를 맞게 되는데, 제 지낼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제청(제사 장소)으로 나아간다. 마을제의 때는 희생으로 돼지를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잡는다. 이때 돼지의 수는 대개 마을 주민들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희생될 돼지는 제사 장소에까지 몰고 가서 잡아 내장만 빼고 통째로 상에 올려 제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개, 돼지 소리가 나지 않는 때'이며 제관들이 엄숙하게 제사를 지낸다. 우선 제관이 향을 피우고 잔을 올린 후 축문을 고한다. 마을에 돗당(돼지 또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차려 제를 지내는 마을의 신당)이 있는 경우 유교식 제사가 끝나면 제관이 제사 장소에서 음복을 하지 않고, 이튿날 제물을 돗당에 가지고 가서 당제(본향당제)를 지낸 다음 음복을 한다.

농포제의 제물에서 술과 돼지를 잡아 통째 올리는 제사 형식은 탐라시조(耽羅始祖) 고량부(高良夫) 삼성혈(三姓穴)의 제사와 같고, 향교의 석전제와도 같다. 특히 제일(祭日)에 마을 사람이 죽거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날짜를 연기하는 풍습은 기우제와 같다.

참고문헌 | 南國의 歲時風俗-濟州島民俗誌-(秦聖麒, 濟州民俗文化硏究所, 1969), 濟州道의 儒式部落祭(玄容駿, 濟州島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2002).

필자 | 진성기(秦聖麒)

⇨ 포제(酺祭): 정월편

문소전제(文昭殿祭)

⇨ 문소전제(文昭殿祭): 봄편

영녕전제(永寧殿祭)

정의 종묘의 정전(正殿: 太廟)에 봉안되지 않은 조선 역대 왕과 그 비(妃)의 신위(神位)를 모신 영녕전(永寧殿)에서 춘추(春秋)로 올리는 제의. 영녕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종묘에 있는 사당으로 정면 16칸, 측면 4칸의 고설집이다. 건물은 정전 서쪽에 남향으로 세워졌다.

내용 영녕전에는 태조 선대의 사조(四祖)인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를 비롯하여 정종(定宗), 문종(文宗), 단종(端宗), 예종(睿宗), 인종(仁宗), 명종(明宗), 경종(景宗)과 추존된 왕인 덕종(德宗), 원종(元宗), 진종(眞宗), 익종(翼宗), 장종(莊宗)과 의민황태자와 왕비까지 모두 32위의 위패를 16실에 봉안하고 있다.

영녕전은 세종 3년(1421) 7월에 "송(宋)나라에서 희조(僖祖), 순조(順祖), 익조(翼祖), 선조(宣祖)의 사조(四祖)를 추숭(追崇)하여 별묘(別廟)에 봉사(奉

祀)한 예에 의거하여, 유사(有司)로 하여금 별도로 조묘(祧廟)를 세워 봉사하도록 하자."라고 하여, 10월 9일에 정전 4칸, 협실 동서 2칸씩으로 건립되었다. 그해 12월 정종을 종묘에 모시면서 목조의 신주가 제1실에 옮겨진 이래, 정전에 익조, 도조, 환조가 차례로 모셔지고, 익실에 정종, 문종, 예종, 덕종이 차례로 모셔졌다. 태종과 세종처럼 세실(世室)로 된 임금은 종묘에 그대로 남고, 정종과 문종처럼 세실이 되지 못한 임금은 4대가 지나면 영녕전으로 옮겨 모시게 되었다.

영녕전은 임진왜란 때 종묘 정전과 함께 소실되어 광해군 즉위년(1608)에 중건되었다. 이때 정전 4칸, 동서협실 3칸씩으로 늘렸다. 그리고 현종 8년(1667) 7월 4일에 동서 1실을 늘려 동서협실 4칸씩으로 늘렸다. 그리고 헌종 2년(1836)에 경종을 영녕전으로 조천하기 위해 다시 동서 익실 2칸씩을 늘렸다. 그래서 태실 4칸, 좌우익실 각 6칸으로 모두 16칸 건물이 되었으며, 이 규모가 현재 영녕전의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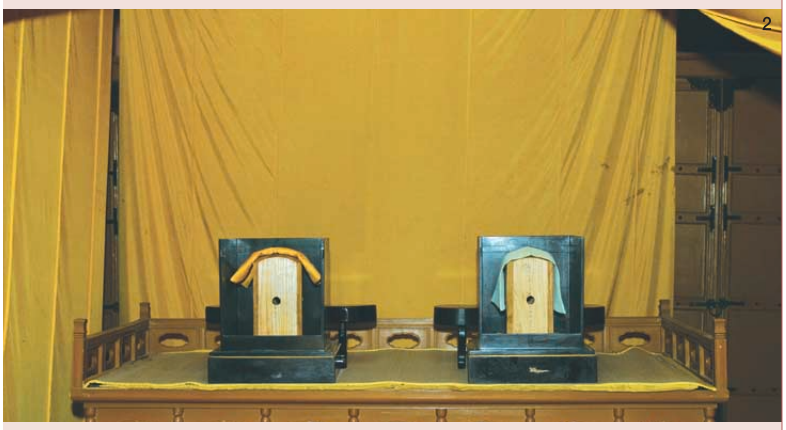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승하하면 종묘 정전에 모셨다가 4대가 지나면 영녕전으로 옮겨 모시는데, 영녕전을 천묘(遷廟)한다는 뜻의 조묘(祧廟)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영녕전에서 매년 조상에 제사를 지내게 되니, 제후가 조상들을 모셔놓고 3년에 한 번 지내던 협제(祫祭)는 없어지게 된다.

종묘대제가 사시(四時)와 납일(臘日)에 5번 제사를 지내는 데 비해, 영녕전제는 봄과 가을 맹월(孟月) 상순(上旬)에 두 번만 제사를 지낸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춘추향영녕전의(春秋享永寧殿儀: 춘추에 영녕전에 향사하는 의식)가 있다.

국조오례의의 영녕전 제사 의식은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황제가 지내는 영녕전 제사 의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대한예전(大韓禮典)』에 춘추향영녕전의로 되어 있다.

제의절차 『국조오례의』에 있는 영녕전제 의식은 다음과 같다. ① 시일(時日): 봄가을의 맹월(孟月)의 상순(上旬)에 지낸다. ② 재계(齋戒): 4일 동안 별전에서 산재(散齋)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齋)하되 2일 동안은 정전(正殿)에서 하고 1일 동안은 재궁(齋宮)에서 한다. ③ 진설(陳設): 제사 지내기 2일 전부터 소제하고 1일 전에 향관(享官)과 예(禮)를 집행하는


1


2


3


4


5


6


7


8


9


10

〈영녕전제〉
1 제관입장
2 영녕전제 신위
3 초헌관재배
4 신관례
5 전폐례
6 천조례
7 독축
8 아헌례
9 종헌례
10 음복례
11 납주
12 망예례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영녕전 국립민속박물관


11


12

관원의 위차(位次)와 등가(登歌) 헌가(軒架)를 설치하고, 당일에는 제사에 필요한 제기(祭器)와 여러 기물들을 설치한다. ④ 전향축(傳香祝): 향과 축을 전한다. ⑤ 성생기(省牲器): 미시(未時) 후 2각부터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를 살펴보고, 신시(申時) 후 1각에 희생을 잡고 삶아 그릇에 담는다. ⑥ 거가출궁(車駕出宮): 임금이 대가(大駕)를 타고 궁(宮)을 나와 종묘로 온다. ⑦ 영신(迎神) 사배(四拜): 신을 맞이하여 네 번 절을 한다. ⑧ 신관(晨祼): 세 번 향을 피어올리고 신령의 강림을 바라며, 검은 기장으로 만든 울창(鬱鬯)이라는 술을 당에 뿌리고 폐백을 올린다. ⑨ 궤식(饋食) ⑩ 진찬(進饌): 비(匕)로써 가마솥의 우육(牛肉)을 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은 양육(羊肉)과 시육(豕肉)을 올려 각각 생갑(牲匣)에 담아(매실에 우육 · 양육 · 시육 각 1갑으로 한다)놓으면 천조관(薦俎官)이 가져다 신위(神位) 전에 올린다. ⑪ 초헌(初獻): 첫 번째 술을 올린다. ⑫ 독축(讀祝): 축문을 읽는다. ⑬ 아헌(亞獻): 두 번째 술을 올린다. ⑭ 종헌(終獻): 마지막 술을 올린다. ⑮ 음복(飮福) 수조(受胙): 대축(大祝)이 제1실의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술잔에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대축(大祝)은 조(俎)를 가지고 신위 앞의 조육(胙肉)을 덜어 와서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먹는다. ⑯ 송신(送神) 사배(四拜): 신을 보내면서 네 번 절을 한다. ⑰ 철변두(撤邊豆): 제사 음식을 철수하는 것인데, 실제는 변 · 두 각 1개를 조금씩 옮겨놓는다. ⑱ 망예(望瘞): 모든 대축(大祝)은 서직반(黍稷飯)을 취하여 백모(白茅)로 묶고, 광우리로 축판과 폐백을 담아 서쪽 계단으로 내려서 구덩이에 넣어 묻는다. ⑲ 예필(禮畢): 예가 모든 끝났음을 초헌관에게 보고한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大韓禮典, 世宗實錄, 宗廟儀軌, 세계문화유산 종묘이야기(지두환, 집문당, 2005).
필자 | 지두환(池斗煥)

영성제(靈星祭)

정의 입추(立秋) 후 진일(辰日)에 영성(靈星)에게 한 해의 농사가 잘 된 것을 감사하며 지내는 제사. 영성은 세성(歲星) 또는 방성(房星)으로 간주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천전성(天田星)을 가리킨다. 천전성은 28수 가운데 동방 창룡(蒼龍)의 왼편에 있는 각수(角宿)로서 농사일을 주관하는 신이라 믿어 농상(農祥)이라 부르기도 한다.

내용 영성제(靈星祭)는 중국 고대 주(周)나라 때부터 있었다. 『시경(詩經)』「주송(周頌)」에 나오는 '사의(絲衣)'라는 시는 영성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읊은 것이다. 영성제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록은 『한서(漢書)』「교사지(郊祀志)」에 나온다. 한(漢)나라 고조가 즉위 8년(B.C. 199)에 영을 내려 천하에 영성사(靈星祠)를 세워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것은 주나라에서 농사를 주관하였던 후직(后稷)에게 제사하던 것을 본받은 것이었다. 이후 영성제는 다른 성신(星辰)과 함께 사전(祀典)에 포함되어 농경 관련 세시의례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당(唐)나라의 예를 들면 입춘(立春) 후 축일(丑日)에는 국성 동북쪽에서 풍사(風師)에게 제사하고, 입하(立夏) 후 신일(申日)에는 국성 서남쪽에서 우사(雨師)에게 제사하고, 입추 후 진일에는 국성 동남쪽에서 영성에게 제사하고, 입동(立冬) 후 해일(亥日)에는 국성 서북쪽에서 사중(司中), 사명(司命), 사인(司人), 사록(司祿)에게 제사하였다. 이렇게 입춘, 입하, 입추, 입동에 성신을 제사하는 방식은 송대(宋代)까지 이어지다 명대(明代)에 이르러 경칩(驚蟄)과 추분(秋分)에 풍사, 우사, 뇌사(雷師), 운사(雲師)를 합제(合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반면 영성은 이전대로 입추 후 진일에 제사를 지내다 홍무 3년에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영성제는 삼국시대 초기부터 거행되었던 대표적인 농경의례였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高句麗條)에는 고구려인들이 사직과 더불어 영성에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제사지(祭祀志)」에는 "입추 뒤 진일(辰日)에 본피촌(本彼村)에서 영성을 제사지낸다."라고 하였다. 영성제는 그 대상에서 알 수 있듯이 28수를 기본으로 하는 천문학적 지식과 농경세시에 대한 지식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 성신 관련 제향은 송대를 모방하여 입춘 후 축일에 풍사를 제사하고 입하 후 신일에는 우사와 뇌사를 제사하고, 입추 후 진일에는 영성을 제사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명대를

모방하여 풍우뇌우단이 조성되고 영성은 별도의 단에서 제사를 받았다. 영성제에 대한 의절과 규식은 태종대에 만들어져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의(五禮儀)」에 실리고 다시 성종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등재되었다. 영성제는 소사로서,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제품(祭品)은 8변(籩) 8두(豆), 2보(簠) 2궤(簋), 1조(俎)로 구성되어 있다. 제사일은 입추 후 진일이었으며, 헌관은 3품관이다. 축판에는 "삼가 생각건대 말없이 자연의 조화를 관리하시어 삼농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정갈한 제사에 감통하시어 온갖 복을 많이 내려주셨기에 삼가 생폐, 예제, 자성 등의 조촐한 제품으로 정갈히 차려 올리는 바입니다. 굽어 흠향하소서."라고 써서 가을걷이가 끝난 후 감사의 뜻을 담았다.

그러나 조선시대 영성제는 지속되지 못하고 중종 이후 폐지되었다. 폐지의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성수(星宿) 신앙이 매우 약해진 데다 영성 외에 사직과 선농 같이 농업 관련 신들이 존재하였던 점 등이 영성의 지위를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한다.

한편 조선 후기 정조대에 수성(壽星: 노인성)과 더불어 제사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정조 21년(1797)에 예조판서 민종현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복원을 주장하였고, 정조가 이를 받아들여 영성과 수성에 관한 의식인 「성단향의(星壇享儀)」를 직접 지었다. 여기서 정조는 영성과 수성이 천신(天神)에 속하므로 남교에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중국 고대 예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례(周禮)』에 의거하여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영성제는 끝내 복원되지 못하였다.

의의 농경사회에서 농사의 시기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시기를 예측하는 데는 별의 역할이 매우 컸다. 고대로 갈수록 성수에 대한 신앙과 제례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점차 천문학이 발달하여 별들을 신격화하여 의존하는 경향은 줄어들었다. 조선 전기까지만 거행되었던 영성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성신에 대한 기대와 감사 그리고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세시의례 중 하나이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文獻通考, 三國史記, 詩經, 五禮通考, 周禮, 漢書,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임미선 외, 문헌과해석사, 2000).

필자 | 이욱(李煜)

영제(禜祭)

정의 장마철과 같이 오랫동안 비가 내릴 때 성문(城門)에서 거행하였던 기청제(祈晴祭). 조선시대 국가에서 거행하던 기청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강무(講武), 발인(發靷) 같이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날씨가 맑기를 비는 것으로 주로 종묘나 사직에 빌었다. 또 하나는 수재(水災)를 당하였을 때 이를 기양하기 위해서 거행하는 기청제이다. 영제(禜祭)는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양의례(祈禳儀禮)이지만 계속 비가 올 경우엔 이와 별개로 산천, 사직, 종묘 등에서도 기청제를 올렸다. 기청제로서의 영제는 제사 대상보다 제사를 거행하는 제장(祭場)이 성문(城門)이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내용 영제는 중국 고대 기양의례 중 하나이지만, 애초부터 기청제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주례(周禮)』 춘관조(春官條)에 나오는 영제는 대축(大祝)이 관장하는 여섯 가지 기양의례 중 하나였으며, 『춘추좌전(春秋左傳)』에서는 "수한(水旱)과 여역(癘疫)의 재난에는 산천신에게 영제를 지내고, 눈, 서리, 바람, 비가 때에 맞지 않으면 일월성신(日月星辰)에게 영제를 지낸다."라고 하였다. 또한 영제는 향촌에서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지내는 공동 제사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매우 포괄적이었던 영제가 가뭄 때의 우사(雩祀)와 대비되는 기청제로 간주되기 시작한 것은 한(漢)나라 때부터였다. 하지만 국가제례에서 우사가 상제(上帝)를 대상으로 한 정기제였던 반면 영제는 정기제가 없이 수재 때에만 지냈으며, 대사(大祀)인 우사에 비해 소사(小祀)로 간주되어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고대 영제의 독특성은 제장의 공간성에 있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영(禜)'은 '영(營)'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營)은 '두르다[圍繞]'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하여 영제의 본래적인 형태를 일식이 발생하였을 때에 '붉은 끈으로 사직단을 두르고' 북을 치며 위협하는 의식으로 보기도 한다.



『국조오례』 서례 도설편
국립중앙도서관

붉은 끈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은 사특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벽사(辟邪)의 의미가 강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독특성은 사방의 대문(大門)에서 제의를 거행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영제를 문에서 거행하는 까닭을 주석가들은 문이 가진 소통의 기능과 방어의 기능으로 설명하였다. 소통의 기능이란 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왕래하는 것처럼 인사(人事)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재난을 물리치고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반면 방어적 기능이란 문이 외부의 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기능에서 유추한 것으로, 영제를 재난을 막는 의례로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사성문제(四城門祭)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시기에도 영제를 거행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고려시대부터는 확실히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영제국문의(禁祭國門儀)'가 실려 있으며,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고려시대 국가의례집인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 장마가 그치지 않으면 경성(京城)의 여러 문에서 영제를 지내는데, 문별로 3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지낸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영제에 관한 기록을 실록에서 찾으면 태종 8년(1408)부터 나온다. 그리고 태종 14년(1414)에 영제에 관한 의주가 만들어졌으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소사(小祀)로서 비정기적인 의례로 실렸다.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한성부 영제는 숭례문, 흥인문, 돈의문, 숙정문의 사대문에서 지냈다. 애초 성문 내에서 영제를 거행하였다가 동문이 물에 침수한 후 문루에서 거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영제는 연사흘 동안 지냈는데 그래도 비가 그치지 않으면 3차에 걸쳐 다시 행하였다. 제의는 '청행(請行) - 사배(四拜) - 삼상향(三上香) - 전작(奠爵) - 독축(讀祝) - 철변두(徹籩豆) - 사배(四拜) - 예필(禮畢) - 예감(瘞坎)'의 순서로 진행한다. 이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영제는 그 양식이나 절차에서 기청을 위한 독특한 요소를 찾아보긴 어렵다. 한편, 영제의 제사 대상은 산천신으로 문루에 각 방위의 산천신을 모시고 거행하였다. 이것은 기우와 기청 모두를 포괄하여 비를 조절하는 것이 산천신의 주요한 기능이었기 때문이다.

의의 영제는 기청제로서 농경과 매우 밀접한 의례였다. 농경세시적인 흐름에서 보면 영제는 입추 이후에 주로 거행하였다. 봄과 여름에는 가뭄을 주로 걱정하였지만 입추 후 벼가 여물 시기에 계속 비가 내리면 농작물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입추 전에도 계속 비가 내리면 국가에서 기청제를 지냈지만 가뭄을 두려워하여 신중하게 논의한 후 거행하였다. 반대로 입추 이후엔 기우제 지내는 것을 꺼렸다. 영제는 국가나 민간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기우제보다 단순하고 시행의 건수도 적었지만 농경을 기반으로 하였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세시의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三國史記, 詳定古今禮, 說文解字, 五禮通考, 朝鮮王朝實錄, 周禮, 春官通考, 春秋左傳, 中國古代宗教史研究-制度と思想-(池田末利, 東海大學出版會, 1981).

필자 | 이욱(李煜)

종묘대제(宗廟大祭)

☞ 종묘대제(宗廟大祭): 정월편

개똥물

정의 병의 치료를 위해 7월에 개똥물을 만들어 먹는 제주 지역의 풍속.

내용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병의 치료를 위해

7월이 되면 개똥물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많았다. 개똥물을 얻는 방법으로는 개똥을 주워 그대로 굽거나, 황토로 개똥을 싼 후 굽는 경우가 있다. 개똥을 장작불 같은 강한 불에 태우고 이를 꺼내 찬물에 담근다. 그러면 이때 찬물이 뜨거운 개똥에 의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이러한 물을 개똥물이라 한다.

개똥물은 뼈아플 때, 신경통이 있거나 허리 아플 때에 먹는다. 먹을 때는 그 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슬에 축여 먹기도 하지만, 저녁에 개똥물을 먹고 술을 마신 후 따뜻한 방에 눕는다. 이는 술로 인한 체온 상승을 통해 혈액 순환을 빠르게 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한 번 구운 개똥은 재활용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 다른 개똥을 구워서 사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 濟州道誌3(濟州道, 1993).
필자 | 강권용(康權用)

도토리점

정의 대표적인 구황작물인 도토리의 생산량으로 그해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 도토리는 들판을 바라보고 열매를 맺는데 도토리 흉년이 드는 해에는 풍년이 들고, 도토리 풍년이 드는 해에는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유래 도토리는 일찍부터 식용되어 왔으며, 특히 구황식으로 각광을 받았다. 고려의 충선왕은 흉년이 들자 백성을 생각하여 반찬의 수를 줄이고 도토리를 맛보았다고 하며, 조선의 숙종은 심한 흉년이 들자, 도토리 스무 말을 흉년을 당하여 가난한 백성에게 보내면서 "흉년에는 도토리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도토리는 흉년에 귀중한 양식이었으므로 그 양과 풍흉을 관련짓게 된 것이다.

내용 도토리는 4~5월에 개화하여, 8~9월에 열매가 맺고, 이듬해 10월에 결실을 맺는다. 과거에는 마을 주변에 조림했던 나무가 바로 도토리였으므로 그 성장에 대한 관찰이 용이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7월과 열매가 성장을 시작하는 이듬해 봄은 그 양을 관찰하기에 적당하다. 이에 음력 3월과 7월이 되면 도토리의 열매를 보고 풍흉을 점쳤다.

속담에 "도토리는 산에서 들을 내다보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있다. 들판을 내다보고 있다가 흉년이 들 것 같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 굶는 사람이 도토리라도 먹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표적인 구황식인 도토리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풍년이 들면 도토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개밥의 도토리'라는 말처럼 개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음식이 되고 만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 부족한 식량을 대용하기 위해 도토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의의 그해의 풍흉에 따라 달라지는 도토리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도토리가 농사의 풍흉을 알아 열매를 맺게 한다는 식의 관념을 만들었고, 농사의 풍흉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인식되게 하였다. 빈궁한 시기에 유용한 구황작물인 도토리에 대한 관심의 표현인 것이다.

참고문헌 |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김효경(金孝慶)

도토리 심디스마



옥수수알보기

정의 초가을에 옥수수 알갱이의 여문 정도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는 농점(農占). 주로 남부지방에서 행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옥수수에는 이른 것과 늦은 것이 있다. 전남 무안에서는 7월 무렵이면 옥수수의 알이 여물어 빽빽해진다. 이때 옥수수의 알을 보아 그해의 시절(時節)에 대한 점(占)을 친다. 이른 옥수수가 잘



옥수수 김진열

여물고 그 알이 빽빽하게 들면 그해 이른 곡식이 잘 되고, 늦은 옥수수가 이와 같으면 그해 늦은 곡식이 풍작(豊作)일 것이라 믿는다.

부산에서는 7월에 밭곡식인 옥수수가 영글기 시작하는데, 동래지방에서는 이 옥수수를 까 보아 옥수수의 알이 빽빽하게 들어 있으면 풍년이고 드문드문 박혀 있으면 흉년이라고 믿는다. 경남 의령과 양산에서도 7월에 열린 옥수수의 알을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옥수수의 알이 빽빽이 들어차면 농사가 잘 되고, 옥수수의 알이 드문드문 들어 있으면 흉년이 된다고 한다.

의의 대부분의 농사점이 정초나 앞선 해에 행해지나 옥수수점은 일년 농사를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시기에 앞서 음력 7월 무렵 옥수수 알갱이가 여물 때에 행해진다. 곧 이때 옥수수 알갱이가 여문 정도를 보고 다른 작물의 풍흉을 예측해 보는 풍속이다. 이는 가을 수확에 대한 한 발 앞선 예상과 풍년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김도현(金道賢)

이실먹기

정의 7월의 이슬은 몸에 좋다고 하여, 제주도와 경상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더위를 예방하고 더위 먹은 사람이나 배앓이를 하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벼, 상추, 콩잎 따위에 매달린 이실(이슬)을 새벽에 받아먹는 풍속.

내용 및 지역사례 새벽에 이슬을 훑어서 받아먹으면 더위를 예방하고, 더위 먹은 사람이나 배앓이를 하는 사람은 병이 치료된다고 믿는 속신(俗信)이다. 피부의 버짐을 예방하거나 산모들의 순산 그리고 저장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슬을 적절히 이용한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7월 중 아침에 이슬을 먹으면 속병에 좋다고 하여 새벽에 논에 나가 볏잎에 매달린 이슬을 손으로 받아먹으며, 띠밭에 있는 이슬에 다리를 적시면 각기병(脚氣病)에 좋다고 하여 일부러 아침 일찍 일어나 띠밭에 나가 걸어 다니기도 한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7월 중에 볏잎에 매달린 이슬을 손으로 받아먹으며, 경상도 지역에서는 8월 중순 콩잎에 매달린 이슬을 손바닥으로 훑어먹음으로써 속병도 치료하고 여름에 더위도 먹지 않는다고 여긴다. 부산에서도 칠월과 팔월에 벼나 콩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먹거나 장독 위에 바가지를 얹어 이슬을 받아먹으면 숨이 가쁘고 더위 먹은 데 좋다고 한다. 부산의 산성마을에서는 8월 중순 무렵 콩잎에 맺힌 이슬을 새벽에 손으로 훑어 먹는다. 이를 먹으면 황달병이나 더위먹은 사람에게 좋다고 한다.

이 밖에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서 더위나 배앓이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6월에는 주로 상추, 풀, 나락의 이슬을 새벽에 훑어먹고, 7월이나 8월에는 벼나 콩밭의 이슬을 주로 이용한다.

이슬은 위에서 언급한 용도 외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첫째, 얼굴의 버짐 등 피부병 치료에도 사용되는데, 경남 지역의 거창, 창녕, 함안과 충남 지역에서는 5월에 주로 상추잎의 이슬을 얼굴에 발라줌으로써 피부를 매끈하게 하고, 버짐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여겼다. 경남 밀양 지역에서는 8월에 버짐을 방지하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 벼의 이슬을 담아와서 얼굴에 바른다고 한다.



벼잎의 이슬 김진열

둘째, 순창 고추장을 담글 때 메주나 고춧가루를 손질한 후 이슬을 2~3일 맞힌 후 담금으로써 맛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충남 지역에서는 계란 세 개를 식초에 담가 하루나 이틀 정도 밤이슬을 맞힌 후, 먹으면 이질이 낫는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산월(産月)에 산모(産母)가 아침 이슬을 논에 가서 받아먹거나, 버선에 새벽이슬을 맞혀서 임산부의 배를 문질러 주면 순산한다고 믿었다.

의의 이실먹기 풍속은 벼농사를 주로 하는 남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는 새벽에 일어나서 논물을 조절하여야 하는 벼농사의 특성과 여름의 무더위에 이슬을 이용하여 체내 수분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더운 여름에 건강을 지키려 한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 있는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濟州道誌3(濟州道, 1993),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필자 | 김도현(金道賢)

석탄병(惜呑餠)

정의 감가루를 많이 넣고 향이 좋은 계피, 생강, 귤병(橘餠)을 넣고 보슬보슬하게 쪄낸 진한 자줏빛의 메시루떡. 석탄병(惜呑餠)은 삼키기가 아까운 떡이라는 뜻이다. 잣과 꿀이 들어가 달콤하고 고소하며, 계피와 생강의 매운 맛이 은은한 감맛과 어우러져 다른 떡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맛과 질감을 가진 떡이다.

유래 석탄병은 이름에 재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름으로는 어떤 떡인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한문 해자로 보면 향과 맛이 너무나 좋아 삼키기가 아까울 정도라는 뜻을 가진 멋스러운 떡이다.

『거가필용(居家必用)』에 여진(女眞) 음식으로 '시고(柿糕)'가 나오는데 여진을 고구려의 후예로 본다면 고려 때 만들어진 떡으로 볼 수 있으며, 조리법은 "찹쌀과 말린 감을 함께 찧어서 가루를 만들고 다시 대추를 삶아 으깨어 진흙같이 만들어 섞어 체에 쳐서 시루에 찐다."라고 되어 있으니 감설기라 말할 수 있다. 그 이후 감을 넣는 떡은 문헌에 나타나지 않고, 처음으로 석탄병이 『규합총서(閨閤叢書)』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 말기에는 조리가공법이 다양해지고 제례(祭禮), 빈례(殯禮), 혼례(婚禮) 같은 의례문화가 발달하면서 반가의 식생활도 사치스럽게 변하였다. 떡도 빛깔과 모양이 다양해지고 향약(香藥)을 넣은 약떡이 다양하게 발전한 이 시기에, 감설기도 고급떡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규합총서』 이후에 나온 조리서인 『시의전서(是議全書)』, 『부인필지(婦人必知)』, 『간편조선요리제법(簡便朝鮮料理製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계속 언급된다.

내용 감이 흔한 가을철에 그대로 감을 두면 물러져서 쓸 수 없게 되니, 미리 떫고 단단한 감을 얇게 벗겨 말려두었다가 쓴다. 감은 시간이 지나면 물러져 진이 생기므로 가루로 만들기가 어려워지므로 단단할 때 말려야 한다. 감이 처음에는 카로티노이드(carotinoid)색소를 지닌 진노란 빛을 띠지만, 말리면 검은 자줏빛인 팥색이 난다. 처음에는 떫지만 말리는 동안에 떫은맛은 가시고 단맛이 생긴다.

『규합총서』에 조리법이 잘 나타나 있다. "수시(水柹)가 익고 단단한 것을 껍질 벗겨 한 접을 생률 치듯 깎아 널어 말려 가루로 만든다. 멥쌀가루를 반반 섞고 사탕가루나 많이 섞어라. 맛보아 만일 덜 달거든 좋은 꿀 더 섞어 치고, 귤병과 민강 얇게 저며 무떡 섞듯 섞어라. 안칠 적에 잣가루, 계피가루



섞어 안치고 대추와 황률 삶은 것을 가늘게 채쳐 잣가루를 섞어 위에 가득히 흩고, 백지로 씻은 후에 또 종이를 덮고 다른 가루로 위에 덮어 찌면 감열한 맛이 차마 삼키기 아까운 고로 석탄병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부인필지』나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 등에서는 모두 아주 얇게 감을 쳐서 말리기를 당부하고 멥쌀가루에 섞는 것으로 되어 있다. 쌀가루와 감가루가 같은 분량으로 들어가는 것도 특이하다. 멥쌀가루와 섞어 켜켜로 고물을 하여 찌므로 설기떡이라 할 수 있으며, 찹쌀에 섞는다면 감가루에서 진이 많이 나와 안 익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간간이 밤, 대추를 섞는 것은 떡의 모양이나 맛을 위해서다. 삼키기 아까운 너무나 맛있는 떡이라 모든 책이 칭찬하였다. 고물은 흰빛의 팥고물이나 노란빛의 녹두고물이 자줏빛 떡에 잘 나타난다. 이후의 문헌을 살펴보면 귀한 민강(閩薑)이나 귤병은 안 들어간다.

지역사례 감이 많이 나오는 전라도나 경상도 산지에서는 곶감을 말리면서 생겨나는 감껍질을 말렸다가 시루떡으로 해먹는 풍속이 아직 남아 있으며, 감고지떡, 감인절미, 감단자, 감고지도 해먹는다. 감시리(감시루떡)는 감껍질을 말려서 가루를 내고 설탕물을 주어 내린 쌀가루와 섞어 고물을 한 켜씩 놓아 찌며, 감고지떡은 감을 말려 설탕물을 내린 쌀가루에 섞어 켜마다 거피팥고물을 뿌려서 찐다. 감인절미는 찹쌀밥에 감고지를 바싹 말려 가루를 내어 떡에 넣고 절구에 찧어서 거피팥고물을 묻힌 떡이다.

참고문헌 | 簡便朝鮮料理製法, 居家必用, 閨閣叢書, 婦人必知, 是議全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방신영, 靑丘文化史, 1954), 한국의 떡과 과줄(강인희, 대한교과서, 1997), 쉽게 맛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떡(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1999).

필자 | 한복려(韓福麗)

석탄병 궁중음식원구원

꽈리불기

정의 초가을 여자아이들이 꽈리 열매를 놀잇감으로 해서 즐기는 놀이. 지역에 따라서 꽈리는 꾸아리, 꼬아리, 푸께, 푸께기, 산꽈리, 고아리 등으로 불린다. 한자어로는 산장(酸漿), 홍고낭(紅姑娘), 등롱초(登籠草), 왕모주(王母珠) 등으로 쓰인다.

내용 여자아이들이 언제부터 꽈리를 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李圭景)이 저술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만물편(萬物篇)」 초목류(草木類) 과종(果種) 금려기의 남변증설(錦荔芰宜男辨證說)에 "고깔 같은 주머니가 있는데 가운데에는 커다란 구슬처럼 씨가 달려 있다. 열매는 파랗다가 익으면 붉어지며 맛은 달고 시며 먹을 만하다. 여자 아이들이 안에 있는 씨를 빼낸 뒤 입에 물고 공기를 넣어 공처럼 부풀어오르게 하여 이로 누르면 "삑삑"소리가 나서 놀이가 된다. 우리나라 풍속에 고아리(꽈리)라고 한다(有囊如弁中藏指頂巨珠 實生靑熟紅 味甘酸可餐 兒女輩挖去內瓤 口含轉氣 膨脹如毬 齒按有聲腷膊 以爲戱 我東俗名古兒里)."라는 내용이 있다. 이로 보아 적어도 18세기 후반에 여자아이들이 꽈리 열매를 놀잇감으로 삼아 즐겼을 것으로 보인다.

꽈리를 놀잇감으로 즐겼음을 일제강점기의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아이가 고무꽈리를 불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으며, 또 꽈리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이가 꽈리 한 개를 훔쳤다고 감금했다는 내용이 있다.

최근에 조사된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꽈리를 부는 방법은 18세기 후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꽈리는 초가을에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꽈리불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매를 따서 껍질이 상하지 않도록 손으로 살며시 눌러 물렁하게 한 후, 속에 든 씨를 바늘이나 가시를 이용하여 꺼낸다. 그런 후에 속이 빈 껍질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물고 공기를 넣어



꽈리 심디스마



꽈리장사
기산풍속도 모사도 국립민속박물관

누르면 "삑삑" 소리가 나는데, 이를 '꽈리분다'고 한다. 여자아이들이 부는 꽈리소리는 마치 '뱀이 개구리를 삼키는 소리와 흡사하다.'고 하여 어른들이 주의를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꽈리소리를 듣고 뱀이 출몰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여자아이들에게 꽈리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즐거운 놀잇감이었다. 꽈리는 꽈리식물에서 추출한 '천연꽈리'와 고무로 만든 '고무꽈리'가 있다. 고무꽈리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주변의 문방구에서 팔던 장난감이다. 천연꽈리는 가을철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으나, 고무꽈리는 언제든 생산이 가능해 사시사철 꽈리불기가 가능하다.

의의 오늘날에는 컴퓨터게임, 모바일게임 같은 다양한 놀잇감이 있어서 꽈리불기가 잊혀지고 있지만,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었던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아이들은 공기놀이, 풀각시놀이 같이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여가를 즐겼다.

참고문헌 | 五洲衍文長箋散稿, 동아일보(1923년 5월 7일), 동아일보(1925년 9월 18일), 우리나라세시기(李尤熙, 金龍圖書株式會社, 1948),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弘人文化社, 1960), 全南의 歲時風俗(全羅南道 鄕土文化叢書29, 全羅南道, 1988), 歲時風俗(江華文化院, 1990).

필자 | 장상교(張庠敎)

하회선유줄불놀이(河回船遊 -)

⇨ 줄불놀이: 여름편

가거도멸치잡이노래(可居島-)

정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可居島)에서 멸치 잡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배를 타고 포구를 떠나서 멸치를 잡아 싣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 과정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멸치를 잡아 배에 실어 올리면서 부르는 노래를 술배소리 또는 술비소리라고 한다. 가거도멸치잡이노래는 1988년 12월 21일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었다. 멸치를 잡는 어로행위는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나, 멸치잡이노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내용 멸치잡이는 음력 6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9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어부들은 대개 초저녁에 배를 타고 멸치어장으로 나가서 동틀녘에 돌아온다. 멸치잡이소리는 일의 순서에 따라 '놋소리 - 멜모는소리 - 그물넣는소리 - 술배소리 - 그물올리는소리 - 긴소리 - 잦은놋소리 - 역수타는소리 - 긴놋소리 - 잦은놋소리 - 풍장소리'로 이어진다. 멸치떼를 찾아 노를 저어가면서 부르는 놋소리, 멸치떼를 발견하면 횃불을 들고 멸치를 갯창(섬 둘레 움푹 들어간 곳)으로 몰면서 부르는 멜모는소리, 그물을 바다 속에 넣으면서 부르는 그물넣는소리, 그물에 담긴 멸치를 배에 퍼 실으면서 부르는 술배소리,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부르는 그물올리는소리, 멸치를 배에 퍼 실은 후 뱃머리를 돌려 잠깐 안정을 취하면서 부르는 긴소리, 멸치를 배에 싣고 포구로 빨리 돌아오면서 부르는 잦은놋소리, 거슬러 흐르는 조류를 만났을 때 힘을 모아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역수타는소리, 멸치를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풍장소리를 차례로 부르는 것이다.

이 노래는 다른 지방 민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창형태를 가지고 있다. 멸치잡이를 나갈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놋소리는 삼중창으로 불려진다. 설소리(앞소리, 메김소리)와 뒷소리 사이에 구음으로 된 샛소리가 어우러져 절묘한 다성(heterophony) 선율을 이룬다. 이는 호남지방의 무당굿에서 당골이

무가를 부를 때 반주를 하는 잽이들이 사이사이에 구음을 넣는 형태와 흡사하다. 이와 같이 가거도멸치잡이소리는 가락이 시나위조로 불리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무악과 깊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의 우리나라의 민요 가락 가운데 부조화 속의 조화를 이루는 다성 선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노래 외에 진도의 나배도뱃노래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락은 호남지방 세습무인 당골의 살풀이 무가와 시나위 합주와 깊은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남지방 민요의 바탕가락이 시나위조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 편(문화방송, 1993), 文化財圖錄-文化財資料 篇-(전라남도, 1998),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전라남도·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태학사, 2002).
필자 | 이현수(李鉉洙)

고흥풍장소리(高興-)

정의 전라남도 고흥 지역에 전승되는 구전민요의 한 종류로서, 농민들이 마지막 논매기를 마치고 풍물을 치면서 마을로 행진해 들어오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풍습을 장원례(壯元禮)라 하며, 이때 부르는 노래를 흔히 장원질소리라 하는데, 전남 지역의 농민들은 이를 대개 풍장소리라 일컫는다. 어원은 풍장(풍물)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다. 따라서 풍장소리는 장원질소리의 다른 말이다.

내용 풍장소리를 하는 시기는 논매기를 모두 마치는 시기인 양력 8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음력으로는 7월 백중(百中), 절기로는 입추(立秋), 처서(處暑) 무렵이다. 전남에서는 보통 일년에 세 번쯤 논을 맸는데, 풍장소리는 마지막 논매기(이를 만드레 또는 만드리라고 한다)를 마친 뒤에 불렀다.

고흥 지역의 풍장소리는 질가락이라고 하는데, 이는 행진 음악을 뜻하는 길군악에서 파생된 말이지만 '길을 가면서 하는 가락'이라는 순수 우리말로도 뜻이 통한다. 고흥 지역의 질가락은 마을에 따라 후렴구의 형태와 곡조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나 대체로 비슷하다.

고흥 풍장소리 - 질가락의 노랫말은 대체로 행진할 당시의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상투적인 표현으로서 행진곡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흥풍장소리의 장단은 춤추는 데 어울리는 3분박의 세마치장단이다.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 편에 수록된 고흥군 도양읍 관리의 풍장소리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헤헤헤에허야에헤야 허어리시구나 헤
어리시구나 지화자자자 나헤헤야 좋다
온디 간데다 정들여 놓고
헤헤헤에허야에헤야 허어리시구나 헤
어리시구나 지화자자자 나헤헤야 좋다
이별이 잦아해 내가 못 살겠네
헤헤헤에허야에헤야 허어리시구나 헤
어리시구나 지화자자자 나헤헤야 좋다
일락은 서산에 해 떨어지고
헤헤헤에허야에헤야 허어리시구나 헤
어리시구나 지화자자자 나헤헤야 좋다
월출야 동넝에 달이 무서온단다
헤헤헤에허야에헤야 허어리시구나 헤
어리시구나 지화자자자 나헤헤야 좋다
이웃집 큰 아기가 시집을 가고
헤헤헤에허야에헤야 허어리시구나 헤
어리시구나 지화자자자 나헤헤야 좋다
총각 저놈이 날 반했든가
헤헤헤에허야에헤야 허어리시구나 헤
어리시구나 지화자자자 나헤헤야 좋다
목매러 간다 목매러 간다
헤헤헤에허야에헤야 허어리시구나 헤
어리시구나 지화자자자 나헤헤야 좋다
…… (후략)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된 고흥군 도양읍 용동리 한적마을의 한적들노래에도 질가락이 포함돼 있다. 곡조는 위 마을의 질가락과 거의 같고,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연풍 대가락으로만
헤이 헤에에야 에 어리수야 헤
저리시구나 자회자자자 아 에 좋소
이리갈게 저리갈게 갈길을 조심해서 갈길을 가세
헤이 헤에에야 에 어리수야 헤
저리시구나 자회자자자 아 에 좋소
일락 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 동강에 달이 막 솟아오르네
에에 야하 에어리수야에 허리시구나

지화자자자 아 좋소
그만 저만 파양궁을 허고
각각 집으로만 돌아를 가세
헤이 헤에에야 에 어리수야 헤
저리시구나 자회자자자 아 에 좋소

변천 및 현황 대부분의 민요와 마찬가지로 풍장소리는 현지에서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일꾼들이 집단을 이루어 논을 매는 농사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에 예시한 전남 고흥군 도양읍 관리에서는 이런 행사가 일제강점기 때 소멸되었다가 해방 후 잠시 부활했으나 6·25 이후에 다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의의 고흥지방의 풍장소리는 한 해의 논매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장원례를 행하면서 하는 장원질소리의 하나로, 전라남도 다른 지역의 장원질소리인 애롱대롱류나 질꼬내기류와는 전혀 다른 곡조를 가지고 있는 노래로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농요2(이소라, 현암사 1986), 全南의 農謠(池春相, 全羅南道, 1987),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 편(문화방송, 1993).

필자 | 최상일(崔相一)

멸치후리는소리

정의 모래사장이 발달한 바닷가에서 후리질로 멸치를 잡으면서 부르는 노래. 후리질이란 긴 그물로 고기떼를 둘러친 다음, 뭍에서 그물 양끝을 끌어당겨 잡는 방법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멜후리는소리 또는 멸후리는소리라고도 한다. 현재 제주 동김녕리의 멸치후리는소리가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0호로, 부산 다대포후리소리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내용 멸치는 회유성 어종으로서 봄에 남해에서 출발해 동서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8월에 평안도, 함경도 해안에 이른 후 다시 남하하기 시작하여 겨울에 남해로 되돌아온다. 멸치 후리질은 멸치의 회유 경로를 따라 지역별로 시기가 달라지는데, 남해안 일대는 대개 3~4월, 중부 동해안은 5~7월, 북부 동해안은 9~10월에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멸치후리는소리로는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의 멸치후리는소리, 부산 다대포후리소리,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의 멸치후리는소리가 있다.

멸치후리는소리에는 배내리는소리, 노젓는소리, 그물당기는소리, 고기푸는소리가 모두 포함되나, 제주 지역에서는 주로 그물을 당길 때 소리를 한다. 후리질은 대개 반복적인 동작이어서 소리도 한 사람이 앞소리를 메기고 여럿이 후렴을 받는 선후창 방식이 대부분이다. 노랫말에는 앞소리꾼이 일을 지휘하는 내용, 고기잡이의 상황 묘사, 어민들의 애환이 포함된다.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동김녕리의 멸치후리는소리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1~2 멸치후리기
경북 영덕 심디스마


1


2

엉허야 뒤야	엉허야 뒤야
어기여뒤여 방애여	엉허야 뒤야
동깨코라근 등곱은 여로	엉허야 뒤에야
서깨코라근 소여콧들로	엉허야 뒤야
당선에서 멜발을 보고	엉허야 뒤야
망선에서 후림을 노라	엉허야 뒤야
닷배에서 진을 재왕	엉허야 뒤야
추ᄌᆞ안골 사수안골 궤긴	엉허야 뒤야
농궹이와당에 다 몰려 놓고	엉허야 뒤야
앞궤기랑 선진을 놓고	엉허야 뒤야
뒷궤기랑 후진을 노라	엉허야 뒤야
배에터위 놈덜은	엉허야 뒤야
웃베리를 실작 들르라	엉허야 뒤야
한불로 멜 나간다	엉허야 뒤야
그물코의 삼천코라도	엉허야 뒤야
베릿배가 주장이여	엉허야 뒤야

이 노래는 후릿그물을 당기면서 하는 소리로, 노랫말에는 멸치 후리는 과정과 작업 실태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끝부분에 서우젯소리로 연결되어 축제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변천 및 현황 멸치 후리질은 멸치가 회유하는 길목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던 멸치잡이 방식이었으나, 근대에 들어 현대적인 어로방식이 도입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다만 강원도 양양 바닷가의 몇몇 마을에서는 농업을 위주로 하면서 부업으로 멸치를 잡았기 때문에 큰 자본의 투입 없이 1990년대 중반까지도 전통적인 후리질로 멸치를 잡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근대에 들어서는 노젓는 배가 아니라 작은 동력선을 타고 나가 조업을 하기 시작했다.

의의 멸치잡이소리는 동해바다의 명태잡이소리, 서해바다의 조기잡이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어업노동요로 꼽힌다. 후리질소리는 수많은 마을사람들이 협동작업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요로서, 노랫말을 통해 후리질의 원리와 현장의 분위기, 어민들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편(문화방송, 1992), 한국민요대전 강원도 편(문화방송, 1996).

필자 | 최상일(崔相一)

삼삼는소리

정의 길쌈요의 일종으로서 삼을 삼으면서 부르는 민요.

유래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1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 때는 추석 한 달 전부터 부녀자들이 편을 갈라 길쌈대회를 열었다고 한다. 이긴 편은 술과 음식을 대접받았으며, 진 편에서는 회소곡(會蘇曲)이라는 민요를 불렀다고 한다. 회소곡의 사설과 곡조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삼베길쌈의 전통과 그에 따른 민요가 삼국시대 초기부터 이미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용 베 짜는 데 필요한 섬유질은 삼 껍질에서 나온다. 삼은 대략 3월에 씨를 뿌리며 7월 하순이면 다 자란다. 7월 하순이면 삼을 베어 삼굿을 한다. 삼굿을 한 후 껍질을 벗겨 짼 삼을 집으로 가져와 물에 담가두었다가 삼훑기를 한다. 훑은 삼은 햇빛에 말려 색을 바랜 다음 가늘게 짼다. 삼삼기는 가늘게 짼 삼실의 끝을 이어서 긴 삼실로 만드는 일이다. 표백을 한 삼을 삼뚝가지(정방형의 묵직한 나무토막 위에 가는 나뭇가지를 세워서 끝에 홈을 낸 것)에 걸어 잇기도 하고, 삼뚝가지를 이용하지 않고 짼 삼의 한쪽을 입에 물고 다른 한쪽은 무릎에 대고 비벼서 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삼을 삼기도 한다.

삼삼기는 늦은 여름부터 시작하여 주로 가을과 겨울에 행하는데, 삼삼기를 할 때에는 개인의 집에서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고, 여럿이 한 집에 모여서 품앗이를 하거나 두레를 조직해 두레삼을 하기도 했다. 삼삼기는 고되기도 하지만 줄곧 앉아서 하는 일이어서 다른 일보다 훨씬 지루하기 때문에 이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 재미난 이야기를 하거나 노래를 했다.

삼삼는소리는 삼을 삼으면서 부르는 민요로서 기능에 의한 분류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정해진 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 어떤 노래든지 불릴 수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삼삼는 모습을 담은 민요와 여성들의 심정을 토로하는 서사민요를 많이 불렀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안동편에 수록된 삼삼는소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삼기
경남 고성 주병수

진보청송 진삼가리 영해영덕 걸어놓고
비비치랑 나리치랑 밤새도록 삼구나니
우리님이 밤참하고 우리어메 나리치고
우리아배 관솔놓고 울올아배 관솔패고
밤새도록 삼은샘이 정날질도 못갈레레이
……(후략)……

전라남도 곡성군의 돌실나이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삼베짜기인데,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편에 실린 삼삼는소리는 다음과 같다.

남산선수 관솔가지 앞마당에 피어놓고
곡성석곡 진삼가리 어서삼고 바삐삼세
붕에눈을 부릅뜨고 송곳니를 악무르고
곤배팔을 바삐놀려 어서삼고 바삐삼세
올라간다 올라간다 땅떨어지가 올라간다
거는것이 장원인가 삼는것이 장원이제
어서삼고 바삐삼세 임의품으로 잠자러가세
……(후략)……

의의 삼삼는소리는 길쌈노래의 일종으로서 삼국시대부터 연원이 시작되는 민요이다.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삼두레가 조직되었을 만큼 삼삼기는 여성들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이었다. 삼삼기의 고단함과 지루함을 잊기 위해 불렀던 삼삼는소리에는 여성들의 애환과 바람이 진솔하게 반영되어 있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조선민요연구(고정옥, 수선사, 1948), 韓國口碑文學大系 8-6(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韓國口碑文學大系 7-9(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2), 한국민요대전(문화방송, 1993-1996), 노래를 지키는 사람들(나승만 · 고혜경, 문예공론사, 1995),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1(최상일, 돌베개, 2002), 여성농업인의 삶과 전통문화(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심미안, 2005).
필자 | 이옥희(李玉姬)

장원질소리

정의 농민들이 한 해의 논매기를 모두 마치고 나서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일꾼을 농사장원으로 뽑아 소에 태우고 삿갓을 거꾸로 씌우고 풍물을 치고 춤추며 주인집으로 행진해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내용 일꾼들이 농사장원을 뽑아 그 집으로 가서 주인이 내는 술과 음식을 먹고 노는 풍습을 장원례(壯元禮)라 한다. 이 풍속은 옛날 과거(科擧)에 급제한 선비들이 금의환향할 때 말을 타고 삼현육각을 울리면서 행진하는 행사를 모방하여 생겼다. 장원례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한 호미씻이 풍습의 하나로서, 호미씻이가 일반적인 농민 위로잔치를 일컫는 데 비해, 장원례는 농사장원을 뽑아 그를 주인공으로 하여 특정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장원례와 비슷한 것으로 두레패가 날마다 논을 매러 오고 가면서 풍물에 맞춰 소리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농사장원을 뽑는 의례와 관계가 없으므로 장원질소리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원례를 행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장원례소리가 적절하나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하는 장원질소리라는 말이 일찍이 학계에 통용되면서 이런 종류의 민요를 일컫는 관용적인 용어가 되었다.

호미씻이는 논매기를 모두 마치는 시기인 양력 8월 중순에서 하순, 음력으로는 7월 백중(百中), 절기로는 입추(立秋), 처서(處暑) 무렵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원례도 이와 같다.

지역사례 장원례는 전라도 지역에서 유난히 많이 행해졌고, 경북 지역에서도 꽤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에서는 장원질소리를 흔히 풍장소리라 하며, 구체적인 악곡으로는 서부 평야지역의 애롱대롱류, 서남 해안지역의 질꼬내기와

질가락, 동부 산간지역의 산아지타령, 매화타령, 양산도 등이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장원질소리로 섬마타령, 뚜름박소리, 방개타령, 질꼬내기 등을 불렀고, 경북 지역에서는 칭칭이소리, 캥마쿵쿵노세, 방아소리, 거화야 등을 불렀다.

장원질소리의 내용은 장원례를 행하는 날의 흥겨운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남과 전북의 대표적인 장원질소리를 한 곡씩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애롱 대롱 지화자좋네 애롱대롱 지화자좋네
풍년새 운다네 풍년새 울어 애롱대롱 지화자좋네
금년년도에 풍년새 울어 애롱대롱 지화자좋네
여보소 선일꾼은 애롱대롱 지화자좋네
…… (중략) ……
소도 타고 말도 타고 애롱대롱 지화자좋네
여보소 대문을 열어라 애롱대롱 지화자좋네
…… (중략) ……
홍이로구나 홍이 났네 애롱대롱 지화자좋네
우리 농군을 홍이 났어 애롱대롱 지화자좋네
여보소 수머심은 애롱대롱 지화자좋네
달구장테 닭을 잡어내소 애롱대롱 지화자좋네
좀도 좋구나 좀도나 좋네 애롱대롱 지화자좋네

(전남 나주군 다시면 동당리)

노세노세 젊어노세 두룸바허 우여우여 우여노세
늙어지면 못노니라 두룸바허 우여우여 우여노세
가세가세 어서가세 두룸바허 우여우여 우여노세
이수건너 백로가세 두룸바허 우여우여 우여노세
산천초목 젊어온디 두룸바허 우여우여 우여노세
우리인생 늙어오네 두룸바허 우여우여 우여노세
이거이거 어느땐가 두룸바허 우여우여 우여노세
남방유월 농방땔세 두룸바허 우여우여 우여노세

(전북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



장원례
경북 고성 주병수

변천 및 현황 장원질소리는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의 행렬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조선시대부터 생긴 민요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농요들과 마찬가지로 해방 후부터는 장원질소리도 현장에서 사라졌다. 현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된 진도의 남도들노래와 제84호-2(나)호로 지정된 예천통명농요의 일부로서 전승되고 있으며, 각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요 속에도 간간이 포함되어 있다.

의의 장원질소리는 농민들이 집단을 이루어 힘든 노동을 마치고 해방감에 젖어 흥겨운 길놀이와 잔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생긴 민요로서, 전통 농촌공동체 사회에서의 일과 놀이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농요(이소라, 현암사, 1985~1992), 全南의 農謠(池春相, 全羅南道, 1987),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 편(문화방송, 1993),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필자 | 최상일(崔相一)

게으른 놈 7월에 후회한다

정의 일을 제때에 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뜻의 속담.

내용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른 봄부터 시기에 적절히 맞추어 빈틈없이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농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결실을 눈앞에 둔 7월에 이르면 그제야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농사는 보통 7월이면 그 해의 작황이 어느 정도인지 가시화되는데, 이때에 이르러서야 수확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고는 뒤늦게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고 때 맞추어 일하지 않았음을 후회하게 된다는 뜻이다. 곧 때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할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는 "게으름뱅이 칠팔월에 애달프다.", "게으른 머슴은 칠월이 바쁘다.", "게으른 머슴은 저녁나절이 바쁘다."가 있다.

참고문헌 | 農事俗談(農村振興廳, 1989),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필자 | 권태효(權泰孝)

밤송이 맺을 때 모 심어도 반밥 더 먹는다

정의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만 작업을 해주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는 뜻의 속담. 때가 늦었다고 손놓지 말고 열심히 일하기를 권할 때 사용된다.

내용 밤송이는 대체로 음력 7월 초순까지는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도 찔려서 아프지 않을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극심한 조발(早發)로 이앙 시기를 놓쳤더라도 7월 초순까지만 적묘(適苗)로 모를 제대로 심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속담을 통해 농부들이 이앙의 최종 시기를 밤송이에 가시가 돋기 전까지로 여겼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속담으로는 "상강(霜降) 90일 앞두고 모 심어도 잡곡보다는 낫다.", "7월 그믐에 모내기를 하더라도 바로만 심어주라.", "애밤송이를 겨드랑이에 끼워 따갑지 않으면 모 심어도 먹는다.", "애밤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심어도 먹는다.", "늦모라도 겨드랑이에 밤송이 끼고 낼 수만 있다면 먹는다.", "늦모는 밤송이를 겨드랑이에 넣어가며 심는다.", "늦모는 밤꽃 질 때까지 심는다.", "늦모는 대추를 코에 넣어가며 심는다.", "늦모는 감 우려먹으며 심는다."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農事俗談(農村振興廳, 1989),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권태효(權泰孝)

칠월 개우랑 해에 황소뿔이 녹는다

정의 선선해야 할 음력 칠월 저녁이지만 너무도 더워서 소의 뿔이 빠질 지경이라는 의미의 속담.

내용 개우랑개우랑은 작은 물체가 이리저리 자꾸 기울어지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저녁 어스름 넘어가는 해를 가리킨다. 더위가 끝나는 늦여름이지만, 농사일에 바쁜 농부들은 항상 들판에서 날을 보내기 마련이다. 바람은 살랑살랑 불고 있지만, 햇볕은 더욱 내리쬐고 있어 농부들은 한여름보다 더 덥게 느낀다. 더위에 기진맥진한 농부의 모습을 황소의 뿔이 녹는다는 것으로 표현한 속담이다.

유사속담 농부들에게 소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어서 소가 더위에 지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내리쬐는 폭염에 분신과도 같은 소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육칠월 더위에 암소뿔이 빠진다.", "칠월 저녁 해에 암소뿔이 빠진다.", "칠월 저녁 해에 황소뿔이 녹는다.", "칠월 더위에 황소뿔이 녹는다.", "음력 칠월 기우는 해에 검정 소뿔이 빠진다."와 같은 속담이 생겨났다. "오뉴월 더위에는 암소뿔이 물러 빠진다."라는 속담도 시기는 다르지만, 소를 걱정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一潮閣, 1986), 속담풀이사전(한국고전신서편찬회, 홍신문화사, 1991),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우리말 속담 큰 사전(송재선 엮음, 교육출판공사, 1993),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필자 | 정병헌(鄭炳憲)

칠월 귀뚜라미가 가을 알듯 한다

정의 음력 칠월이 되면 어김없이 귀뚜라미가 울듯이 어떤 일의 시기를 정확하게 잘 안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아직은 더워 언제 가을이 올지 모르지만, 귀뚜라미는 어김없이 나타나 가을의 전령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시기를 잃지 않고 정확하게 일깨워줄 때 이런 속담을 사용한다. 본래는 시절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의미로 사용하였지만, 모든 일을 다 안다는 듯이 지식을 과장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유사속담 귀뚜라미가 정확하게 시절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칠월 귀뚜라미만큼 잘 안다.", "알기는 칠월 귀뚜라미다.", "알기는 칠월 귀뚜라미일세.", "지식은 칠월 실솔(蟋蟀)일세."와 같은 속담이 널리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朝鮮俚諺(최원식, 新文館, 1913),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교육출판공사, 1993), 동물속담사전(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7).
필자 | 정병헌(鄭炳憲)

칠월 높새바람에 볏잎 마르듯 한다

정의 고온 건조한 바람에 볏잎이 바짝 마르듯이 순식간에 말라비틀어진다는 의미의 속담. 순식간에 말라버려 못 쓰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
내용 태백산맥을 넘어온 일종의 국지풍(局地風)인 높새바람은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중북부지방에서 부는 온도가 높고 건조한 북동풍으로, 이 바람이 불면 이상 건조 현상이 나타나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특히 동쪽을 산맥이 막고 있는 경기지방에서는 이 바람이 농작물에 아주 크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 심할 때는 논밭의 물고랑이 모두 말라버리고 벼 이삭들이 다 타들어가서 농사를 망치게 된다. 피해가 적을 경우에도 볏잎과 이삭을 빨리 마르게 하기 때문에 벼이삭이 트자마자 오그라들어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벼꽃이 한창 피는 7월 백중에 이런 건조풍이 불면 벼가 말라붙어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고 흉작이 된다는 말이다.
유사속담 유사한 속담으로 "7월 백중에 바람이 세면 흉년 든다.", "높새가 불면 볏잎이 겉마른다.", "동북풍에 곡식 병난다"가 있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권태효(權泰孝)

칠월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정의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주제넘게 나서서 간섭을 한다는 의미의 속담. 자신의 처지는 알지 못하고 쓸데없이 나서서 걱정을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내용 칠월은 농번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때에 더부살이로 들어온 신출내기 주제에 자신의 처지는 알지 못하면서 자신과는 별로 관계도 없는 일에 주제넘게 나서서 참견을 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이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나서거나 쓸데없이 남의 걱정을 하는 것을 두고 일컫는 속담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상황에서 "셋방살이가 주인집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더부살이 환자(還子) 걱정" 등의 속담들이 사용된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권태효(權泰孝)

칠월 사돈은 꿈에 볼까 무섭다

정의 햇벼가 나오지 않아 굶주리는 음력 칠월에 사돈처럼 어려운 손님이 오면 반가움보다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든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간직한 아름다운 마음씨이다. 특히 농촌은 더욱 인심이 넉넉한 곳이어서, 지나가는 손님도 불러 같이 식사하고 잠을 재워주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었다. 특히 사돈은 서로 인척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서 가장 극진하게 모셔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보리도 다 떨어지고 아직 햇벼가 나오지 않아 식량이 모자랄 때, 사돈과 같은 어려운 손님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농촌의 넉넉한 인심과 먹을 것이 모자라 고단할 수밖에 없는 생활상을 함께 담은 속담이다.
유사속담 먹을 것은 부족하고 대접은 잘 해야 하는 농민들의 마음은 "칠월 손님은 범보다 무섭다."라는 속담으로도 표현된다. 오죽하면 사람을 잡아먹는 범보다도 무섭다고 할 만큼 알뜰한 일전과 고달픈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보릿고개를 넘는 농촌의 모습도 마찬가지여서 "봄 사돈은 꿈에도 보기 무섭다."라는 속담이 있다.

참고문헌 | 속담풀이사전(한국고전신서편찬회, 홍신문화사, 1991), 상말속담사전(宋在璇 편, 東文選, 1993),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교육출판공사, 1993),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돈속담사전(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8).
필자 | 정병헌(鄭炳憲)

칠월에 나락 검은 집에는 손노릇 가지 말랬다

정의 흉작이 들 것 같은 집에 가면 제대로 손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음력 칠월 벼이삭이 팰 무렵이면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병충해를 입어 벼의 잎과 줄기가 검고 무성하게 되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년 농사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한숨만 짓는 집에서는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 해도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리를 가려서 가거나, 할 일도 가려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속담을 사용한다.
유사속담 행동이나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조록싸리 피거든 남의 집에 가지 마라.", "누울 자리보고 발 뻗는다.", "새도 가지를 가려 앉는다."와 같은 속담이 있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정병헌(鄭炳憲)

칠월 장마는 꾸어서 해도 한다

정의 칠월에는 으레 장마가 있게 마련이라는 의미의 속담. 그러므로 장마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말며 장마가 올 것을 대비하라는 말이다.
내용 이 말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비유한다면, 어려운 여건만 탓하지 말고 으레 닥칠 일에 각오를 다짐하라는 것이다. 일년 중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머지않아 곡식이 무르익는 팔월이 올 테니 희망을 가지고 칠월 장마를 무사히 이겨내라는 말이 된다.

권벽(權擘)의 『습재집(習齋集)』 권4에는 "때는 바야흐로 7월 가을이니, 비는 천 줄기 눈물이라네. …… 처음에는 실처럼 가늘게 와서 만물을 적시며 소생하게 하네. 점점 퍼부어 항아리에 넘치니 깜깜하게 어두워 사방을 볼 수가 없네. …… 뇌백(雷伯)이 운사(雲師)를 몰아내니 모두가 용왕이 시킨 것이네. 온 천지에 비가 넘쳐서 찌는 더위를 모두 씻어내었네. 우두커니 백곡이 익은 것을 보니, 예부터 땅에 상서가 있다고 하였네."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옛 선비들도 칠월 장마에 대하여 근심은 하나 백곡이 익을 것을 보아 상서로움을 노래했다.

참고문헌 |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인학(崔仁鶴)

칠팔월 건들바람이다

정의 초가을에 건들건들 부는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 칠월과 팔월이 어정어정 또는 건들건들 하는 사이에 지나가버린다는 의미를 지닌 속담.

내용 칠월은 김이나 매면서 어정거리는 동안에 지나가고 팔월이 되니 건들바람이 분다는 것이다. 호미씻이도 끝나고 이제 추수할 일만 남았으므로 이 무렵이 되면 농촌이 한가해진다는 것을 빗대어 이른 말이다. 마땅히 할 일은 안 하고 어정거리는 모습을 비유하기도 한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계절이다. 농부들은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며 농쟁기를 씻고 닦아서 둘 채비를 한다. 옛 조상들은 처서(處暑)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밭 두렁의 풀을 베고 산소의 벌초를 한다. 입추(立秋)와 처서가 든 칠월은 "지심 맨다" 하여 세벌김매기를 한다. 피 뽑기, 논두렁 풀베기를 하고 참깨를 털고 옥수수를 수확한다. 또 김장용 무배추 갈기, 논밭 웃비료주기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된 속담으로 "어정 칠월, 동동 팔월"이 있다. 칠월은 한가해 어정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팔월은 추수하느라 일손이 바빠 발을 구르며 지낸다는 말이다. 그러나 칠월도 생각보다는 일거리가 많다. 특히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면 농민의 일거리는 그만큼 늘어난다. 논물도 조정해야 하고 장마 후에는 더 극성을 부리는 벼 병충해 방제도 빠뜨릴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칠팔월도 건들바람처럼 건들거리지 말고 앞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이다.

필자 | 최인학(崔仁鶴)

칠팔월 수숫잎

정의 성질이 약하여 번복을 잘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의미의 속담. 수확기의 수숫잎은 건드리기만 해도 부서지기 쉽다. 그래서 마음이 약하여 어떤 일을 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용 한국에는 수수가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함북 회령군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수수가 발견된 일이 있으며, 경기도 여주군 흔암리 선사시대 주거지에서도 탄화미(炭化米)와 함께 수수껍질이 출토되어, 아주 오래 전부터 심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는 잡곡의 하나로 여기고 있으며, 한때는 수수의 재배 면적이 일만오천 헥타르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개화기는 8월이고 결실은 10월이다. 높이는 2미터 안팎이며 옥수수처럼 키가 높아 바람에 흔들거린다. 수수의 흔들리는 모습을 마음이 약한 사람에 비유하여 이르는 속담이다.

"칠팔월 수숫잎 마르듯 한다.", "칠팔월 수숫잎 흔들리듯 한다."와 같은 비슷한 속담들이 있다. 이 속담들도 변덕이 많은 또는 성미가 경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곧은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살라는 교훈이다. "꼬이기는 칠팔월 수숫잎 꼬이듯 한다."는 속담도 있다. 무슨 말이고 솔직히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꼬아 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필자 | 최인학(崔仁鶴)

칠팔월 은어(銀魚) 곯듯

정의 줄어든 가을 물에 은어가 배를 굶주리듯이 갑작스럽게 수입이 줄어들어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다는 뜻으로 쓰이는 속담.

내용 은어는 오뉴월이 한창 팔팔하게 활동하는 시기이며, 칠팔월이 되면 먹이를 못 얻어먹어 살이 곯게 된다. 이 속담은 칠팔월의 은어처럼 음식을 양껏 먹지 못하고 늘 굶주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곧 하던 일을 졸지에 그만두어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졌음을 빗대어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수입이 줄어들어 먹고 살기 어려워졌을 때나 배를 곯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俗談事典(李基文, 一潮閣, 1962),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동물속담사전(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7),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한국속담·성어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권태효(權泰孝)





生業

생업

책이나 옷 따위를 볕에 쬐이고
바람에 쐬는 일을 줄여서
포쇄라고도 하며
바람을 쐰다 하여
거풍(擧風)이라고도 한다.
책에 대해서는
포서[曝書]라는 말도 많이 썼다.
책이나 옷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이 풍습은 습기를 제거함으로써
부식과 충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일년중 햇볕이
좋은 시기를 정해서 이루어졌다.

가을누에치기

⇨ 누에치기: 봄편

갈갈이

⇨ 논갈이: 봄편

기장수확[黍收穫]

⇨ 기장파종[黍播種]: 봄편

밭벼수확[山稻收穫]

⇨ 밭벼파종[山稻播種]: 봄편

수박따기

⇨ 수박재배: 여름편

퇴비장만(堆肥-)

⇨ 거름내기: 정월편

낙지잡이[石距-]

정의 조간대(潮間帶)나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횃불, 가래, 낚시, 맨손을 이용해 낙지를 잡는 행위.

내용 『자산어보(玆山魚譜)』 권2 무인류(無鱗類) 석거조(石距條)에는 낙지를 가리켜 "큰 놈은 4~5자 정도이고 모양은 문어를 닮았으나 발이 더 길고, 머리는 둥글고 길다. 즐겨 진흙탕 구멍 속에 들고 …… 겨울에는 틀어박혀 구멍 속에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어미를 먹는다(大者四五尺狀類章魚而脚尤長頭圓而長好入泥穴…… 冬則蟄穴産子子食其母)."라고 했다.

낙지는 봄과 가을에 산란을 하고 겨울에는 펄 속에 박혀 겨울잠을 잔다. 봄에 산란을 해 낙지발이 가는 5~6월의 낙지를 무안과 목포에서는 세발낙지라고 하며, 태안에서는 '밀낙'이라고 부르며, 낙지를 보성과 장흥 등 남쪽에서는 '낙자'라고 부른다.

낙지는 통발, 낚시, 맨손, 횃불, 가래 등을 이용해서 잡는데, 이를 각각 통발낙지, 낙지주낙, 손낙지, 홰낙지, 가래낙지 등으로 부른다. 통발낙지는 수심이 깊은 곳에 칠게 같은 미끼를 넣은 통발을 넣어 낙지를 유인해서 잡는 방법으로 경남 남해, 전남 여수·고흥·해남·완도 같은 남해안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낚시로 낙지를 잡는 방법을 '낙지주낙'이라고 한다. 이것은 주로 전남 여수·해남·신안·무안·함평 같은 전남 서남해역의 갯벌이 발달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전남의 무안·신안·함평의 낙지주낙은 200~300미터의 모릿줄에 낚시가 달린 1~2미터의 아릿줄을 1~2미터 간격으로 달아서 낙지를 잡는 방법이다. 미끼로는 칠게를 사용하며 여름과 겨울을 제외하고 물때에 맞춰 조업을 한다.

낙지는 야행성이어서 낙지주낙은 밤에 이루어지는데 물살이 센 사리철을 제외한 물때에 이루어진다.


1


2


3


4


5

〈낙지잡이〉
1 가래낙지잡이
2 가래낙지
3 낙지잡이
4 낙지연승
5 낙지연승
전남 무안 김상수

이들 지역의 낙지잡이는 하루물때에 이루어진다. 반면에 여수와 해남 지역의 낙지잡이는 3~5톤의 낙지잡이배를 타고 며칠씩 바다에 나가 하며, 시기도 10월부터 4월까지로 겨울철에 한다. 이 지역은 겨울에도 수온이 높아 낙지잡이가 가능하다. 해남과 신안, 무안, 영암에서는 밤에 횃불을 들고 조간대를 다니면서 낙지를 잡는 해낙지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서치라이트를 이용해서 낙지를 잡고 있다.

낙지를 잡는 방법 중 기술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삽(호미)을 이용해서 잡는 가래낙지잡이와 맨손낙지잡이다. 가래낙지는 갯벌을 1~1.5미터를 파서 잡는 맨손어업에 속하는 어법으로 강화도 갯벌, 안면도 갯벌, 무안 함평만, 영산강 일대의 갯벌에서 이루어진다. 맨손낙지잡이는 낙지 구멍 주위에 어느 정도 깊이로 구멍을 파고 약간의 둔덕을 만들어 물을 넣어두면, 낙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순식간에 낙지를 낚아채서 잡는 방법이다.

낙지는 기본적으로 펄 구멍을 손으로 헤집어서 잡는다. 낙지구멍은 낙지가 펄 속에서 숨을 쉬면서 불어 내놓는 물 때문에 뽀얗게 솟아올라 있다. 이것을 '부럿'이라고 하는데, 부럿 주위에는 위장을 하기 위한 구멍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 부럿을 잘못 건드리면 연결되어 있는 구멍 속으로 숨어버린다. 그러기에 낙지 잡는 것도 상당한 기술을 요한다. 맨손으로 잡은 낙지는 다른 낙지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다. 지금은 간척으로 낙지의 서식지가 사라졌지만

해남군 황산면, 송지면, 북일면 일부 지역의 갯벌에서 손으로 낙지를 잡고 있다. 가는 펄이라 허리까지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갯벌을 헤치고 다닐 수 있는 '뻘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잡는다. 시화호 방조제로 갯벌이 사라졌지만 시화호 갯벌과 인근 오이도, 대부도 갯벌은 인천 지역에서 알아주는 낙지밭이었다.

기타 낙지잡이가 가장 활발한 지역은 전남 무안군 일대의 갯벌로 '낙지축제'를 열기도 하는데, 2000년대 초반 연간 40만 접(1접 20마리)을 잡았다. 800여 척의 어선이 낙지잡이에 종사하고 상당수 주민이 직접 개펄에서 낙지를 잡아 연간 소득이 160억 원대에 이른다.

낙지요리는 산낙지로 먹는 것 외에 국, 포 같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무안의 기절낙지, 태안의 박속낙지, 전남 서해안에서 다리가 가늘고 긴 작은 낙지를 나무젓가락에 감아 먹는 세발낙지가 유명하다. 충남 태안군 이원반도 일대는 박속밀국낙지탕이라는 독특한 낙지 요리법을 자랑한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밀과 보리를 갈아 칼국수와 수제비를 뜨고 낙지 몇 마리를 넣어 먹었던 밀국낙지탕을 상품화한 것으로 현재 원북면과 이원면 일대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듯이 한여름 충분한 먹이를 먹어 몸속에 맛과 영양분을 듬뿍 담은 가을 낙지를 최고로 친다. 낙지는 사람이 먹으면 원기를 돋우며, 쟁기질이나 힘든 일로 지친 소에게 서너 마리를 먹이면 원기를 회복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 玆山魚譜, 한국동물도감(鄭文基 編, 문교부, 1961), 漁村俗談集(全羅南道, 1980), 漁具(고광민,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현산어보를 찾아서 3(이태원, 청어람미디어, 2002), 갯벌을 가다(김준, 한얼미디어, 2004).
필자 | 김준(金準)

가을케메기

⇨ 케메기: 봄편

삼삼기[績麻]

정의 삼베를 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짼 삼을 한 올 한 올 이어 실을 만드는 작업.

내용 삼삼기는 삼베를 짜는 과정의 대표적인 작업으로 음력 7월을 전후하여 이루어진다. 삼째기를 마친 삼올의 머리 쪽을 묶어 일정한 크기의 묶음으로 보관하는데, 이를 '가래'라고 한다. 삼삼기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량만큼의 가래를 물에 적시어 짜서 눅눅한 상태로 만든다. 한 가래를 풀어 양끝을 대나무로 만든 전지다리(견지다리, 삼톱가지)에 걸쳐놓고 작업을 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1


2

하기도 한다. 우선 삼실의 꼬리 부분을 앞니와 손을 이용하여 두 가닥으로 쪼갠 후 침을 바른다. 몸쪽 가닥에 또 다른 삼실의 머리를 대어 안으로 비빈 다음에 다른 한 가닥을 밖으로 비벼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연결 부분이 풀리지 않고 매듭이 생기지 않는다. 주로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비비지만 아프면 왼쪽 허벅지에 대고 비빈다. 삼삼기가 끝나면 광주리에 가지런히 담는다.


3


4

〈삼삼기〉
1 널어 놓은 삼
2 삼째기
3 삼삼기
4 들게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황현만

삼베 한 필(20자)을 짜는데 약 100가래가 필요한데, 보통 한 사람이 하루 동안 15가래를 삼을 수 있으니 한 필을 짜려면 밤낮으로 약 7일을 삼아야 한다. 이렇게 삼삼기 작업은 시간과 공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두레의 형태인 '들게'를 만들어 공동작업을 한다. 삼들게는 20~30명 정도로 구성하는데, 규모가 큰 마을에서는 여러 개의 들게가 구성되기도 한다. 낮에 작업하는 낮들게와 밤에 작업하는 밤들게로 나뉘는데, 밤들게가 많이 이루어진다. 들게꾼들은 저녁을 먹은 후 일할 집으로 이동하는데, 삼을 걸어야 하는 전지다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집의 것을 꼭 들고 가야 한다. 작업은 안방과 마루 그리고 마당에 멍석을 깔고 하며 등잔과 모깃불은 필수이다.

들게가 이루어지는 집은 시끌벅적하다. 작업을 하는 동안 무료함과 잠을 쫓기 위한 이야기와 노래, 갖가지 놀이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의 피로를 잊고 작업의 능률을 높이며, 상호 유대와 일체감을 조성한다. 이로써 들게는 부녀자들 사이의 정신문화 전승과 교육 창조의 장으로서의 기능도 컸다.

참고문헌 | 韓國의 鄕村民俗誌(Ⅰ)-慶尙北道 篇-(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2), 길쌈두레의 구성과 기능(이경엽, 韓國民俗學 25, 民俗學會, 1993), 한국 민속의 세계3(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주인택(朱仁鐸)

쇄서포의[曬書曝衣]

정의 책이나 옷 따위를 볕에 쪼이고 바람에 쐬는 일. 줄여서 포쇄[曝曬]라고도 하며, 바람을 쐰다 하여 거풍(擧風)이라고도 한다. 책에 대해서는 포서[曝書]라는 말도 많이 썼다.

내용 책이나 옷을 오래 보존하기 위한 이 풍습은 습기를 제거함으로써 부식과 충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일년 중 햇볕이 좋은 시기를 정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칠석과 연결한 것은 후한(後漢)의 최식(崔寔)이 지은 『사민월령(四民月令)』에 "7월 7일에 경서(經書)와 의상(衣裳)을 햇볕에 쪼이면 좀이 슬지 않는다(七月七日 曝經書及衣裳不蠹)."라는 기록이 최초이다. 한편 남조(南朝) 송(宋)나라의 유의경(劉義慶)이 편집한 『세설신어(世說新語)』「배조(排調)」에

〈영정포쇄차례〉
1 영정과 차례준비
2 진설
3 진설
4 헌작
5 재배
6 음복
경기도 여주시 전동면 사곡리 차정환








"7월 7일 한낮에 해를 보고 누웠기에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답하기를 나는 뱃속의 책을 말리고 있소(七月七日 出日中仰臥 人問其故 答曰 我曬書)."라는 학륭(郝隆)의 고사가 전한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장마가 지난 후 볕이 좋은 칠석에 포쇄하는 풍습이 일반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록을 보면,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칠석조에 "인가에서 옷을 햇볕에 말리는데 이는 옛날 풍속이다(人家曬衣裳蓋古俗也)."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7월령에도 "장마를 겪었으니 집안을 돌아보아 곡식도 거풍(擧風)하고, 의복도 포쇄[曝曬]하소."라고 하였으며,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 7월에는 "장마 지난 집안엔 곰팡내 가득하니 비 갠 저녁이라도 찌든 옷을 말리네. 부유한 집에 걸린 비단 어찌 부러워하리. 학륭(郝隆)이 책 대신 뱃속 말린 것이 더 낫네(經霖堵內盡饐臭 晩晴猶曬黴敝服 何羨富家掛錦綉 勝似郝隆代書腹)."라고 하였다. 한편 임춘(林椿) 등이 칠석에 지은 시 가운데 포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들이 적지 않게 전해지고 있어 이러한 풍속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7년 8월 12일자 조선일보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으며, 1970년대의 현지 조사에서도 밀양 등지에서 칠석의 세시풍속으로 보고되었다.

서적의 포쇄는 국가적인 관심거리였다. 고려 공민왕 11년(1362) 8월에 실록(實錄)의 사고(史藁)를 포쇄한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엄격하게 실록의 포쇄를 실시하였다. 실록 포쇄는 3년마다 진술축미년(辰戌丑未年)에 시행하도록 규정되었고, 포쇄하면서 실록을 점검하고 그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실록포쇄형지안(實錄曝曬形止案)』이다. 봄과 가을의 청명한 길일(吉日)을 택하여 포쇄하였는데, 장마철이 지난 가을에 많았다.

서적과 의복 외에도 경기도 여주의 해평 윤씨 집안



1 옷 말리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송봉화



2 쇄서포의
『조선의 연중행사』 조선총독부

에서는 영정을 포쇄하고 차례를 지내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7월 14일에 당신(堂神)의 옷[神衣]을 볕에 말려 곰팡이를 풀어내는 마불림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農家月令歌, 農家十二月俗詩, 世說新語, 칠석날(조선일보 1937년 8월 12일자),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濟州 篇-(文化財管理局, 1974), 朝鮮朝 史庫의 藏書管理(裵賢淑, 奎章閣2, 1978).
필자 | 이문현(李文鉉)

집장담그기[汁醬-]

정의 절인 가지, 오이 같은 채소류를 장, 밀기울과 합장하여 말똥열을 이용하여 숙성시키는 작업.

내용 집장은 16세기 말엽의 『주방문(酒方文)』에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먹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고, 널리 해먹던 장임을 알 수 있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는 집장 만드는 법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밀 2말, 콩 2말을 물에 담갔다가 함께 빻아서 익혀 둥글게 만들어 닥나무 잎에 띄워 메주를 만든다. 집장용 메주 한 말에 물 서 되, 소금 세 홉의 비례로 섞어서 항아리에 담고 이것을 말똥 속에 7일간 익혀 만든다."라고 되어 있다.

집장은 경상도와 충청도, 전라도 같은 중부 이남에서 즐겨 먹던 별미의 장으로 지방마다 제조법이 조금씩 다르다. 경북 안동에서는 쌀을 불려서 찌고 엿기름물에 5~6시간 삭힌다. 삭힌 밥알을 건져 곱게 갈아 밀과 콩 띄운 것을 합하여 엿기름 삭힌 물과 반죽하여 다시 삭힌다. 소금에 절인 무나 말린 가지, 말린 고춧잎 따위를 골고루 섞어서 중탕한 후 한 달 동안 숙성시킨 후 먹는다. 옛날에는 퇴비 속에 넣어 삭힌다 하여 거름장이라 하였으나, 현대는 퇴비가 귀하여 끓는 물 속에 용기를 넣고 중탕하여 삭힌다. 충남 예산에서는 보리쌀을 불려서 찌고 콩도 불려 삶는다. 절구에 삶은 콩과 보리쌀을 찧어서 둥글게 메주를 만들어 짚과 메주를 켜켜이 놓고 메주에 노란 곰팡이가 피면 말려 곱게 빻는다. 찹쌀로 무르게 밥을 지어 메주가루를 섞는다. 소금으로 간을 하고, 된 경우에는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끓인 물을 넣는다. 집장에 넣을 오이, 무 등을 절여 수분을 제거한 후 항아리에 장과 절인 채소를 켜켜이 넣은 다음 감잎을 두껍게 덮는다. 물속에 항아리를 3분의 2 정도 잠기게 한 후 사흘 정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킨다. 이를 다시 3~4일 후 완전히 식힌 후 먹는다.

의의 집장은 채소류를 침장(沈醬)하는 방법으로 채소류를 장과 밀기울과 합장하여 말똥을 이용하여 숙성시키는 것으로 오늘날 가지, 오이 등을 소금에 절이고 탈수하여 고추장, 된장에 넣는 법과 비교하면 근본적으로 다르다. 집장은 여름철에 콩, 밀의 곡류와 더불어 채소류를 함께 넣어 말똥 속에 묻어 그 열로 발효시킨 것으로 겨우내 부족하기 쉬운 무기질, 비타민, 단백질의 급원이 될 뿐 아니라 소화도 잘 되어 밑반찬이나 쌈장, 찌개 등으로 이용된다.

참고문헌 | 酒方文, 增補山林經濟,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한국 전래 발효식품사 연구(장지현, 수학사, 1996),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식 백가지1, 2(한복진, 현암사, 1998), 안동음식여행(안동시농업기술센터, 2002).
필자 | 임희수(林姬洙)





陽曆歲時

양력세시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을 기념하여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 기념식 충북 청주

제헌절(制憲節)

정의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 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매년 7월 17일에 해당한다.

내용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에 국경일로 정해졌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제헌절의 법률적 근거는 1949년에 제정된 '국경일에관한법률(법률53호)'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헌절과 함께 국경일로 지정된 것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이며, 이 네 개의 국경일을 통칭하여 4대 국경일이라고 불렀으며, 2006년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국경일들은 모두 공휴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는 제헌절은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는 제외된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다면, 제헌절은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포한 헌법)이 공포된 1919년 4월 11일을 기준삼아 제헌절을 4월 11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정체(政體)의 변화를 최초로 명확하게 표명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공포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률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1960년 4·19혁명 뒤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 그해 5·16군사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18 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으로 모두 아홉 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60여 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으나, 1960년 4·19혁명 이후의 개정과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 이후의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는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만약 남북의 통일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의 헌법도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일 방식이나 통일 과정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하여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이렇게 10장으로 나뉜 본문(本文) 130조와 부칙(附則)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관에 의해 진행되며,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른다. 각 가정에서는 국기(國旗)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 김민환(金玟煥)

링데이(Ring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실버데이(Silver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금강민속축제(錦江民俗祝祭)

정의 1992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금산물페기농요와 2000년에 제32호로 지정된 금산농바우끄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금강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민속축제. 금산문화원이 주최가 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뜻을 살려 이 두 무형문화재의 보존회와 함께 다양한 민속 프로그램으로 꾸려가고 있다.

내용 축제가 진행되는 곳은 충남 금산군 남동쪽에 위치한 부리면 평촌이지만, 이미 금산인삼제로 탄탄한 기반을 이룬 전 금산민의 축제이다. 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7월 말 토요일과 일요일을 택해 행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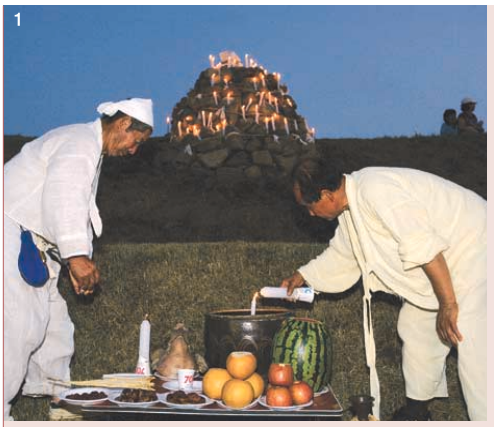
평촌의 금강은 금강의 발원천 중에 하나인 봉황천을 이은 곳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금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금강은 수로가 401킬로미터로 남한에서는 한강과 낙동강 다음으로 큰 강이다. 이 강은 장수읍의 수분리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섬진강과 갈라져 발원지를 형성하여 진안고원과 덕유산 지역의 남대천을 지나 금산의 봉황천과 합류하고 충북 옥천·영동·갑천·부강을 지나고 이어 충남의 공주·부여·강경 같은 백제의 고도(古都)와 강경평야를 지나 서해로 흘러들어간다.

지난 2~3년의 프로그램을 보면 민속적인 것뿐 아니라 가족과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였다. 뗏목타기체험, 통발심기, 오리쓸이, 전통 물고기잡이 같은 놀이형 금강 체험과 그 연장선에 있는 물고기 전시회, 즉 금강 상류에서 서식하는 감돌고기, 쉬리 같은 물고기 전시 및 사진 전시회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손색이 없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낮에 체험과 관광을 주로 했다면 저녁에는 공연을 주로 한다. 2005년 경우 파랑새 공연, 새 생명 기리는 탑제, 풍각쟁이의 생명의 소리판, 생명을 부르는 산이야 소리판, 강변음악회, 물과 불 그리고 사람(캠프파이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민속행사로는 들독(들돌)장사 선발대회, 청소년 토리풍물단의 공연, 이 지역의 전통 기우제인 농바우끄시기 등이 펼쳐진다. 들독은 15~20킬로그램 정도의 둥근 돌을 들어올려 등 뒤로 멀리 던지기 시합이다. 충남 무형문화재 제16호인 금산물페기농요는 충남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에서 전승되는 민요다. 전승 지역이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평야지대와 산악지대의 소리가 결합되어 독특한 음색을 낸다.



금강민속축제 개막식
충남 금산군 부리면 국립민속박물관











〈금강민속축제〉
1 금강물페기농요(토신고사 준비)
2 금강물페기농요(토신고사)
3 금강물페기농요(모심기)
4 금강물페기농요(김매기)
5 금강물페기농요(용두레질)
6 금강물페기농요(물푸기)
7 금강물페기농요(장원놀이)
8 모형 농바우
9 금산농바우끄시기(용줄매기)
10 금산농바우끄시기(용줄매기와 산제)
11 금산농바우끄시기(비오기 기원 산제)
12 금산농바우끄시기(소지)
13 금산농바우끄시기(키까부르기)
14 금산농바우끄시기(물뿌리기)
충남 금산군 부리면 국립민속박물관





4


11


14

금산물페기농요는 비가 조금만 와도 심하게 물에 잠겨 물페기라고 부른 데서 연유한 것이다. 충남에서는 드물게 전승되어오는 소리로 평야지대와 산악지대의 소리가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용은 토신고사(土神告祀), 모심는소리, 두렁밟기, 아시매기, 두렁고치기, 재벌매기, 방아소리, 쌈싸는 소리, 장원놀이로 구성된다

금산농바우끄시기는 금강변의 어재리 느재마을을 중심으로 인근 마을과 제원면 일대 마을에서 치러지는 기우제이다. 농바우끄시기는 '농(籠)바위끌기'라는 뜻의 방언인데, 농바우는 이 마을에 있는 장롱 모양의 바위에서 유래했다. 이 놀이는 기우제로 주로 여성들이 용신을 놀라게 하기 위해 괴이한 일을 벌여 비를 오게 하는 행위이면서 제의다. 농바우 아래 계곡물에 여인네들이 알몸으로 떼 지어 들어가 바가지로 물을 퍼 끼얹으며 물장난을 치고 놀면 이를 본 하늘이 비를 내려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놀이는 비를 기원하며 병에 소나무 가지를 꽂아 거꾸로 매다는 물병매기, 집집마다 추렴한 짚으로 지름 20센티미터, 길이 200미터의 동아줄을 꼬아 농바우에 거는 용줄매기, 마을 아낙들이 농바우에 도착하여 비오기를 기원하는 산제, 농바우 아래 계곡물에 아낙들이 옷을 벗고 떼 지어 들어가 키로 물을 까부는 날궂이로 구성된다.

의의 금강민속축제는 금강 변에서 행하던 전통문화를 한 자리에 모아 여름 휴가와 결합하여 여름 관광문화를 만들고 생태체험과 관광문화의 결합으로 자연친화적인 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忠南傳說의 特性硏究(韓相壽, 牧園大學 論文集3, 1980), 우리고장 忠南(忠淸南道敎育委員會 編, 忠淸南道敎育委員會, 1988), 錦江流域의 傳統文化1, 2(大田大學校 附設 地域社會開發硏究所, 大田大學校 地域社會開發硏究所, 1991), 錦江誌上,下(忠淸南道·韓南大學校, 1993), 금강유역 민담의 특성(강현모, 比較民俗學15, 比較民俗學會, 1998), 집단신명 창출, 내일의 삶을 전망하게 하는 힘!: 진정한 지역 축제(유영대, 文化藝術25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0).
필자 | 이정재(李丁宰)





八月

팔월

추석은 수확이 끝난 후에
행해지는 수확의 례의
속성을 지닌다.
조상에게 햅쌀과 햇과일로
천신을 하는 차례가 행해진다.
추석에는 성묘를
꼭 해야만 한다는 관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설날 차례가
일년이 시작되는 것을
고한다는 의미가 강한 반면
추석날의 차례는
조상의 도움으로 일년 농사가
잘 마무리되였음을
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秋

8월(八月)

이칭 8월(八月)은 가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달이라고 하여 중추(仲秋), 달빛이 고울 때라고 하여 가월(佳月), 십이지로 따져서 유월(酉月), 추천(秋天) 또는 장월(壯月)이라 일컬어진다. 이칭에서도 나타나듯이 8월은 달빛이 곱고 놀기도 좋은 때이다.

내용 8월은 논밭의 작물들을 수확하는 때이다. 한편으로 보면 작물의 수확 때문에 매우 바쁜 철이지만, 동시에 수확이 끝난다는 점에서 풍요와 여유를 갖게 되는 시기이다. 김형수(金逈洙)의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에 "기러기가 오고 제비가 오며, 뭇새들이 먹이 저장하고 천둥소리 걷히며 벌레는 집 입구를 막고 물은 마르기 시작하니"라는 기록이 있으며, 사람보다 새나 벌레들이 먼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로 묘사된다. 이와 달리 사람들은 "시골 늙은이 어깨 붉도록 일하며"라는 표현처럼 수확한 곡식들을 널고 타작을 하는 시기이기에 바쁜 철이기도 하다.

절기 8월에는 절기상 백로(白露)와 추분(秋分)이 있으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秋夕)이 든 달이기도 하다. 백로는 처서와 추분 사이에 들며 양력으로는 대개 9월 9일 무렵이다. 밤의 기온이 내려가고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여 가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이때는 장마가 끝나서 맑은 날씨가 계속되어 논밭의 작물들이 잘 영그는 때이기도 하다. 백로가 빨라 음력 7월에 드는 경우가 있는데, 전라도와 제주도에서는 그 해에 오이농사가 잘 된다고 믿는다. 전남지방에서는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시절이 나쁘다고 하며, 백로 무렵에 바람이 많이 불면 벼농사가 좋지 않다고 한다. 경상도에서는 "8월 백로 날에 비가 오면 십리 천석을 늘린다."라고 할 정도로 대풍이 든다고 한다.

추분은 백로와 한로 사이에 들며, 양력 9월 23일 무렵이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로, 그 이후로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노인성제(老人星祭)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행해지던 풍속으로 수명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노인성에 드리는 제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정종 때 처음으로 제사가 시작되었으며, 주로 왕실에서 행해졌다고 한다. 특히 고려 의종은 직접 내전에서 초제(醮祭)를 드릴 정도 로 열성적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춘분과 추분에 지냈으나, 조선 태종은 추분에만 올렸다. 이런 경향은 고려시대에는 도교 계통이, 조선시대에는 교사 계통(郊社系統)이 중시된 까닭이다. 민간에서는 이때 특별한 풍속을 행하지는 않고, 계절적으로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 뿐이다. 따라서 가을걷이가 한창이며, 산채나 각종 나물 등을 말려 겨울에 먹을 준비를 한다.

추석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의 2대 명절로 현재 정착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설과 추석이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에 포함된 결과이다. 추석은 한가위, 중추절, 가배(嘉俳) 등으로 부른다. 한가위나 중추절이라는 표현 그대로 가을의 가운데에 위치한 날이다. 이때는 춥거나 덥지도 않으며, 풍성한 과일과 곡식으로 마음까지 여유로운 때이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속담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음력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추석을 맞아 한식 이후 온갖 풀들로 무성한 조상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한다. 벌초와 성묘를 하는 관행은 오랜 전통을 유지하였으며, 만약 벌초를 하지 않으면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였다. 특히 추석에는 햅쌀이나 햇과일을 천신하는 때이기에 추석 차례를 지낸 후에 성묘를 한다.

추석은 일반적으로 수확이 끝난 후에 행해지는 수확의례의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조상에게 햅쌀과



송편
충남 연기 국립민속박물관



성묘
충남 연기 국립민속박물관

햇과일로 천신을 하는 차례가 행해진다. 이러한 사정으로 추석에는 성묘를 꼭 해야만 한다는 관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설날 차례가 일년이 시작되는 것을 고한다는 의미가 강한 반면 추석날의 차례는 조상의 도움으로 일년 농사가 잘 마무리되었음을 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추석은 동남아시아권이나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의미 있는 명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추석과 관련된 기록을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조 가위[嘉俳]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유리왕 때 경주의 부녀자를 두 패로 나누어 칠월 보름부터 팔월 보름까지 길쌈을 하여 패한 쪽에서 음식과 술을 마련해서 놀았으며, 이때 부른 노래가 '회소곡(會蘇曲)'이다.

추석의 음식으로는 송편과 토란국을 들 수 있다. 송편의 모양이 달의 형상을 따왔다고도 하며, 송편에는 밤이나 깨 같은 여러 가지의 소를 넣어 맛을 낸다. 송편을 잘 빚는 총각과 처녀들은 좋은 배필을 만난다고 하는 속신도 있다. 임산부는 솔잎이나 바늘을 넣어 만든 송편으로 태아의 성별을 점치기도 한다. 추석에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과식을 할 수 있는데, 토란국은 이를 소화시켜주는 음식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율단자나 인병, 송이적, 인절미 등이 이때 만들어 먹는 음식이다. 술로는 가배주가 있다.

의례 전북지방에서는 곡식이 잘 익었을 때 첫 나락을 한 되 정도만큼 베어 방문 위쪽에 걸어둔다. 이를 올게심니라고 하는데, 대개 추석에 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올게심니는 이듬해에 그 곡식의 농사가 풍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풍속으로, 이때 닭이나 떡과 같은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하기도 한다. 걸려있던 이삭은 이듬해에 거둔 이삭으로 교체할 때 떡을 해먹기도 한다. 경상도지방의 풋바심도 이와 유사한 풍속이다.

시집을 온 며느리는 집안일이 바쁘기도 하고,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친정 식구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농사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8월쯤 서로에게 통문을 보내거나 연락을 하여 만날 날짜와 중간에 만날 장소를 정하여 만나는데, 이를 '반보기'라고 한다. 이때 서로가 싸온 음식을 먹고 그간의 소식도 들으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낸다.



소싸움
부산시 중구 용두산공원 국립민속박물관

서로의 중간지점에서 본다는 의미에서 반보기 라고 하며, 이를 한자어로 중로상봉(中路相逢)이라고도 한다.

추계석전(秋季釋奠)이 8월 상정일(上丁日)에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봉행된다. 원래는 산천이나 묘사에 올리던 제사였으나, 유교의 영향으로 인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을 모신 제의로 변화되었다. 현재도 성균관과 각 지역의 향교에서 봄과 가을에 봉행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사직대제(社稷大祭)와 마사제(馬社祭), 악해독제(嶽海瀆祭), 명산대천제(名山大川祭), 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올벼가 처음 나면 종묘에 천신하였다. 사대부가에서도 추석 무렵이면 사당에 올벼를 천신하였다.

놀이 추석에 행해지는 대표적인 놀이로는 호남지방의 강강술래, 경기도와 충청도의 소놀이와 거북놀이, 경상도의 소싸움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평야지대에서는 추석에 줄다리기와 씨름판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놀이들은 바쁜 농사철이 어느 정도 끝난 시점에서 행해지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로움과 흥겨움이 강하다.

호남지방의 강강술래는 추석날 밤에 마을 공터에서 부녀자들이 모여 노는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놀이이다. 특히 일년 동안 농사일로 고생한 부녀자들에게 놀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름달의 정기를 받아들여 여성들이 자신들의 생산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도 찾아진다. 강강술래의 전승 지역을 보면 현재는 전남의 해안지방인 진도와 해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의 향토락(朝鮮の鄕土娛樂)』을 보면 해안지방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활발하게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군에게 병력이 많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강술래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는 설도 있다.

경기도와 황해도에서 행해졌던 소놀이와 거북놀이는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소놀이는 짚과 가마니로 소의 형상을 만든 후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민속놀이로 대개 정월대보름과 추석을 즈음한 가을에 행해진다. 집집마다 찾아가 소의 울음소리를 내며 싸리꼬챙이와 쌀뜨물이 먹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말한다. 그 집에서는 각종 음식과 술로 이들을 접대하며, 찾아온 사람들은 농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논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된 양주소놀이굿과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된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이 오늘까지 전한다. 이처럼 소가 등장하는 놀이는 단순히 수확의례적인 속성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재수굿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놀이는 황해도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영서지방 등 중부 지역에서 주로 행해졌다.

거북놀이도 역시 소놀이권과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전승되었으며, 청소년들이 거북의 형상을 만들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노는 놀이이다. 거북을 앞세워 집을 찾아가 거북이 동해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집주인이 맞이한다. 집에 들어가 우물굿과 마당굿을 하고 한바탕 춤을 춘다. 놀다가 거북이 쓰러져 움직이지 않으면 거북이가 힘에 지쳤기 때문이니 먹을 것을 내오라고 한다. 주인이 술과 음식을 내어놓으면 이를 먹고 부엌과 대청에서도 조왕과 성주를 위해 굿을 쳐준다. 거북놀이는 거북의 상징처럼 오래 살라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집안의 우환을 없애기 위한 의례 행위를 담고 있다.

현재 재연하여 전승되고 있는 의성가마싸움도 있다. 가마싸움은 경북 의성 지역에서 추석에 서당이 쉬는 동안 학동들이 두 패로 나뉘어 나무로 만든

가마를 부딪쳐서 승패를 가르는 놀이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제주도에서 줄다리기가 행해졌다고 하는데, 이를 조리희(照里戱)라고 하였다.

금기 중부지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안을 청소하고, 창문이나 방문의 창호지를 새로 바르는 풍속이 있다. 하지만 영남과 호남 같은 남부지방에서는 8월에 문을 바르지 않고 7월에 문을 바른다. 8월에 문을 바를 경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도둑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추운 겨울 동안 찬 바람이 불어 감기로 고생한다고 믿는다. 만약 7월에 창문을 바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놔두었다가 9월이 되어야 바른다.

점복 8월의 점복은 대개 보름달[滿月]과 관련이 있다. 추석 달마중을 하러 동산에 오를 때 가장 먼저 올라 달을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도 보름달과 관련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 전남지방에서는 달을 먼저 보는 여성은 첫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한다.

추석의 달을 통해서 풍흉을 점치는 농점(農占)도 여러 지역에서 전승하는데, 대부분 추석날 달이 밝아야 좋다고 한다. 경남지방에서는 추석에 비가 내리면 보리 흉년이 든다고 하며, 추석날 달이 없으면 토끼가 새끼를 배지 못하고, 메밀은 결실이 어렵다고 점을 친다.

이와 달리 전남의 어촌지방에서는 보름날 조류의 양을 보고 어업의 풍흉을 점친다. 예를 들어 밀물의 양이 다른 때보다 많을 경우 일년 운세가 좋다고 한다.

속신 경남지방에서는 8월 14일 어린이들을 발가벗겨 나이 수만큼 콩밭의 이랑을 기어다니게 하는 풍속이 있다. 이렇게 해야만 몸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는다. 또 콩밭의 잎에 맺힌 이슬을 손으로 훑어서 먹는데, 이렇게 하면 속병이 낫는다고 한다. 전남지방에서는 가을에 독에 담겨진 쌀의 모양이나 양을 보고 집안의 길흉을 판단한다. 예컨대 쌀이 변색되어 있거나 양이 줄어들면 흉조, 그대로 있다면 길조로 생각하는 것이다.

현대세시풍속 추석의 절기적 속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예컨대 경북 안동에서는 추석에 차례를 지내기보다는 중구절에 차례를 지낸다.



강강술래(덕석말이)
전남 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것은 추석이 빨리 들면 햇곡을 수확할 수가 없어서 햅쌀을 차례상에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추석이 중요한 명절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추석을 전후하여 연휴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농촌에서는 현재와 같은 주일(週日) 중심이 아니라, 명절을 중심으로 하여 휴식기가 주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말이라는 일정한 휴식기가 있어 명절은 예전에 비해 세시적 의미가 적다. 그런 과정에서 설과 추석은 국가가 명절 연휴로 공인했기 때문에 현재는 설과 추석을 2대 명절로 인식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명절들이 과거와 같은 조상에게 차례를 드린다는 의례보다는 점차 휴가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에는 귀향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는 반면에, 국제공항은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거린다. 이런 극명한 대립은 앞으로 점점 명절의 개념이 사라지고 휴가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조선의 민속전통5-민속명절과 놀이-(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서울·세시·한시(洪錫謨 編箸·秦京煥 譯註, 보고사, 2003),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김종대(金宗大)

계월(桂月)

정의 낙엽활엽 관목인 계수나무의 꽃이 음력 8월에 피는 데에서 온 말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계추(桂秋)라고도 한다.

내용 『세시광기(歲時廣記)』 권3에 『제요록(提要錄)』을 재인용하여 "8월을 계월(桂月)이라고 한다(八月爲桂月)."라고 한 기록이 있다. 속설에 의하면, 달 속에 계수나무가 있다고 하여 달을 계월(桂月)이라고도 하지만 8월을 달리 일컫는 말인 계월(桂月)은 계수나무 꽃이 피는 시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歲時廣記, 大漢和辭典(諸橋轍次, 大修館書店, 1956).
필자 | 장재한(張在鈐)

계추(桂秋)

정의 낙엽 활엽 관목인 계수나무의 꽃이 음력 8월에 피는 데에서 온 말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계월(桂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전당시(全唐詩)』 권629에 수록된 중국 당(唐)나라 때 시인(詩人) 육구몽(陸龜蒙)의 '한궁사(漢宮詞)' 시에 "한적한 36궁 밤이 깊어가니 옥쟁반에 이슬 맺히는 맑은 계추(桂秋)가 되었네(一身三十六宮夜 露滴玉盤淸桂秋)."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全唐詩.
필자 | 장재한(張在鈐)

고추(高秋)

정의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라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추고(秋高)라고도 한다.

내용 『집천가주두공부시집(集千家註杜工部詩集)』 권4에 실린 중국 당(唐)나라 시인인 두보(杜甫)의 '최씨동산초당(崔氏東山草堂)' 시에 "그대의 옥산초당의 고요함을 사랑하나니 고추(高秋)의 상쾌한 기운이 곱고 새롭네(愛汝玉山草堂靜 高秋爽氣相鮮新)."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集千家註杜工部詩集.
필자 | 장재한(張在鈐)

관월(觀月)

정의 관괘(觀卦; ䷓)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관괘는 상괘(上卦)가 손괘(巽卦; ☴)이고 하괘(下卦)가 곤괘(坤卦; ☷)로 이루어진 괘이다. 『주역(周易)』의 64괘(卦) 중 12괘를 택하여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동짓달부터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난다고 하여 양효(陽爻)가 아래에서 처음 생겨나는 복괘(復卦; ䷗)를 음력 11월에 배속시켰으므로, 관괘(觀卦; ䷓)는 음력 8월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장재한(張在鈐)

남려(南呂)

정의 동양 음악의 십이율(十二律) 중에서 열 번째인 남려(南呂)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십이율은 낮은 음부터 황종(黃鐘),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鐘),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鐘),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鐘)의 순으로 되어 있다. 중국 고대 역법에서는 십이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첫 음인 황종을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열 번째인 남려는 8월에 해당한다. 중국 후한(後漢) 시대의 반고(班固)가 편찬한 『백호통의(白虎通義)』「오행편(五行篇)」에 "8월을 남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남(南)은 맡는다는 것으로, 양(陽)의 기운이 여전히 냉이와 보리가 생겨나는 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음(陰)의 기운이 이를 막는다는 의미이다(八月謂之南呂何 南者任也 言陽氣尙有任生薺麥 故陰拒之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虎通義.
필자 | 홍성훈(洪性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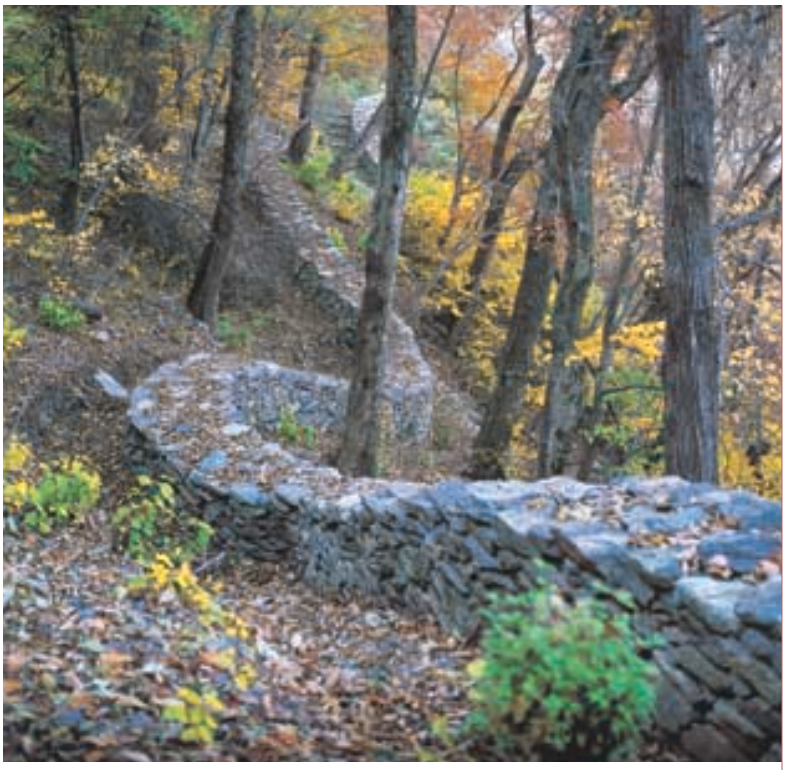
노냉(露冷)

정의 이 시기가 되면 이슬이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노한냉(露寒冷)이라고도 한다.
내용 『집천가주두공부시집(集千家註杜工部詩集)』 권15에 수록된 중국 당(唐)나라의 시인인 두보(杜甫)의 '추흥 8수(秋興八首)' 중 일곱 번째 시에 "물결 위에 떠 있는 줄풀 열매 검은 구름 드리우고 차가운 이슬 맺힌 연꽃에 붉은 가루 떨어지네(波漂菰米沈雲黑 露冷蓮房墜粉紅)."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集千家註杜工部詩集.
필자 | 장재한(張在鈐)

엽월(葉月)

정의 잎이 지는 가을이라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문록(文錄)』에 당인(唐人)의 시를 인용하여 "산 속의 스님은 날짜 세는 법을 모르니 잎 하나 지는 것을 보고 천하에 가을이 왔음을 알도다(山僧不解數甲子 一葉落知天下秋)."라고 하였고, 『회남자(淮南子)』「설산훈(說山訓)」에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아나니 잎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세월이 장차 저묾을 알고 병 속의 물이 어는 것을 보고 천하가 추워짐을 안다(以小明大 見一葉落而知歲之將暮 覩瓶中之氷而知天下之寒)."라고 하여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달이라는 뜻이다.


낙엽길 김진열

참고문헌 | 文錄, 淮南子, 中文大辭典(中國學術院, 1962), 故事成語辭典(學園社, 1972),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필자 | 임동석(林東錫)

영한(迎寒)

정의 차고 서늘한 계절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 8월에는 일교차가 심해지는데, 낮 동안은 여름의 무더위가 남아서 여름을 방불케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차가운 기운이 감돈다.
내용 『주례(周禮)』「춘관(春官)」 약장(籥章)에 "중춘(仲春)의 낮에 토고(土鼓)를 치고 피리로 빈시(豳詩)를 불어서 더위를 맞이하며, 중추(仲秋)의 밤에 추위를 맞이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中春晝

서리 김진열



擊土鼓吹豳詩以逆暑 中秋夜迎寒 亦如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周禮.
필자 | 장재한(張在鈐)

유월(酉月)

정의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유(酉)는 십이지(十二支) 중 열 번째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음력은 중국 하(夏)나라에서 십이지(十二支)의 세 번째인 인(寅)을 정월로 삼았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월(酉月)은 8월에 해당한다.

내용 중국 전한(前漢) 역사가인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권25 「율서(律書)」에 "8월은 십이지(十二支)의 유(酉)에 해당한다. 유(酉)는 만물이 익어간다는 의미이다(八月也 其於十二子爲酉 酉者 萬物之老也)."라는 구절이 있다. 중국 전한(前漢) 유안(劉安)의 『회남자(淮南子)』 「시칙훈(時則訓)」에 "8월은 초요성(招搖星)이 유(酉)의 방향을 가리킨다(仲秋之月 招搖指酉)."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史記, 淮南子.
필자 | 김정석(金正錫)

장월(壯月)

정의 장(壯)은 음(陰)의 기운이 성하다는 뜻에서 온 말로 장월(壯月)은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주역(周易)의 관괘(觀卦; ䷓)에 해당한다. 관괘는 상괘(上卦)가 손괘(巽卦; ☴)이고 하괘(下卦)가 곤괘(坤卦; ☷)로 구성된 괘로, 아래로부터 음(陰)의 기운이 점점 자라 상괘에까지 이르게 되는 괘이다.

내용 『이아(爾雅)』 「석천편(釋天篇)」 월명조(月名條)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寎),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寎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라고 한 구절이 있고, 그 소(疏)에 "장(壯)은 크다는 뜻이니, 8월은 음(陰)이 크게 왕성한 달이다(壯者大也 八月陰大盛)."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爾雅, 周易.
필자 | 장재한(張在鈐)

정추(正秋)

정의 음력 8월의 이칭이며 중추(仲秋)의 다른 말.

내용 『주역(周易)』 「설괘전(說卦傳)」에 "태는 정추이다. 만물이 즐거워하는 바이다(兌正秋也 萬物之所說也)."라고 하였고,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의 소(疏)에 "북두칠성의 자루 부분이 서쪽을 가리키며 이때가 정추 8월이다(斗柄指西是正秋八月也)."라고 하였다. 당(唐)나라 허혼(許渾)의 『정묘시집(丁卯詩集)』 권상(卷上) '중유비천관제고량도사숙룡지(重游飛泉觀題故梁道士宿龍池)' 시에 "솔잎이 정추를 만나니 거문고 소리가 나고, 마름꽃 피어난 새벽 거울 빛이 차도다(松葉正秋琴韻響 菱花初曉鏡光寒)."라고 하였으며, 원(元)나라 마진(馬臻)의 『하외시집(霞外詩集)』 권1 '추견월(秋見月)'이라는 시에는 "정추 15일 달이 가득 차니, 만리에 미세한 때까지 깨끗이 씻어주네(正秋三五滿 萬里絶纖垢)."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丁卯詩集, 周易, 霞外詩集, 中文大辭典(中國學術院, 1980),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필자 | 임동석(林東錫)



대추나무 심디스마

조월(棗月)

정의 대추나무 열매가 빨갛게 익는다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대추나무는 음력 5월에 옅은 황록색 꽃이 피고 8월에 빨갛게 열매가 익는 데에서 온 말이다.

내용 『시경(詩經)』「빈풍(豳風)」 '7월(七月)' 시에 "8월에는 대추를 털고 10월이면 벼를 수확하네(八月剝棗 十月穫稻)."라고 한 구절이 있어 8월을 대추와 관련시켜 조월이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장재한(張在鈐)

중상(仲商)

정의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이며 중추(仲秋)의 다른 말.

내용 『초학기(初學記)』 권3에 인용된 남조(南朝) 양(梁)나라 원제(元帝)의 『찬요(纂要)』에 "8월 중추를 중상(仲商)이라고도 한다(八月仲秋 亦曰仲商)."라고 하였다. 중(仲)은 맹(孟)·중(仲)·계(季)의 가운데를 뜻하며, 상(商)은 오행(五行)과 연관 지은 오음(五音)의 하나로 가을을 상징한다.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의 '추성부(秋聲賦)'에 "가을은 형관(刑官)이며 시기로는 음(陰), 오행으로는 금(金)이다. 그러므로 음악에서는 상성(商聲)이니, 상(商)은 상(傷)이라는 뜻이다(秋刑官也 於時爲陰於行爲金……故其在樂也商聲……商傷也)."라고 하였다. 오행(五行)과 오음(五音), 계절(季節), 오색(五色), 방위(方位), 오상(五常) 등의 관계는 목[木; 각(角), 춘(春), 청(靑), 동(東), 인(仁)], 화[火; 징(徵), 하(夏), 적(赤), 남(南), 예(禮)], 토[土; 우(羽), 계하(季夏), 황(黃), 중(中), 신(信)], 금[金; 상(商), 추(秋), 백(白), 서(西), 의(義)], 수[水; 궁(宮), 동(東), 흑(黑), 북(北), 지(智)]이다.

참고문헌 | 初學記, 中文大辭典(中國學術院, 1980), 漢語大詞典(한어대사전출판사, 1994), 中國學術概論(林東錫, 전통문화연구회, 2002).
필자 | 임동석(林東錫)

중추(仲秋)

정의 가을에 해당하는 7, 8, 9월 중에서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의미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 8월을 가리켜 장월(壯月), 계월(桂月), 소월(素月), 한단(寒旦), 교월(巧月), 가월(佳月), 안월(雁月), 백로(白露), 남려(南呂), 유월(酉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서경(書經)』「요전(堯典)」에 "밤의 길이가 알맞고 허수(虛宿)가 남중하는 때로 중추를 정하라. 그리하면 백성들은 편안해지고 짐승들은 털갈이를 할 것이다(宵中星虛 以殷仲秋 厥民夷 鳥獸毛)."라고 하였다. 『예기(禮記)』「월령(月令)」에 "중추의 달에 해는 각수(角宿)에 있으며, 저녁에는 견우[牽牛, 牛宿]가 남중하고 새벽에는 자휴[觜觿, 觜宿]가 남중한다.……거센 바람이 불고 기러기가 오며 제비는 돌아가고 새들은 좋은 먹이를 갈무리한다(仲秋之月 日在角 昏牽牛中 旦觜觿中……盲風至 鴻雁來 玄鳥歸 群鳥養羞)."라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의 「시칙훈(時則訓)」, 『여씨춘추(呂氏春秋)』의 「중추기(仲秋紀)」에도 「월령」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 書經, 呂氏春秋, 禮記, 淮南子.
필자 | 신하령(申河令)

청추(淸秋)

정의 맑고 깨끗한 가을이라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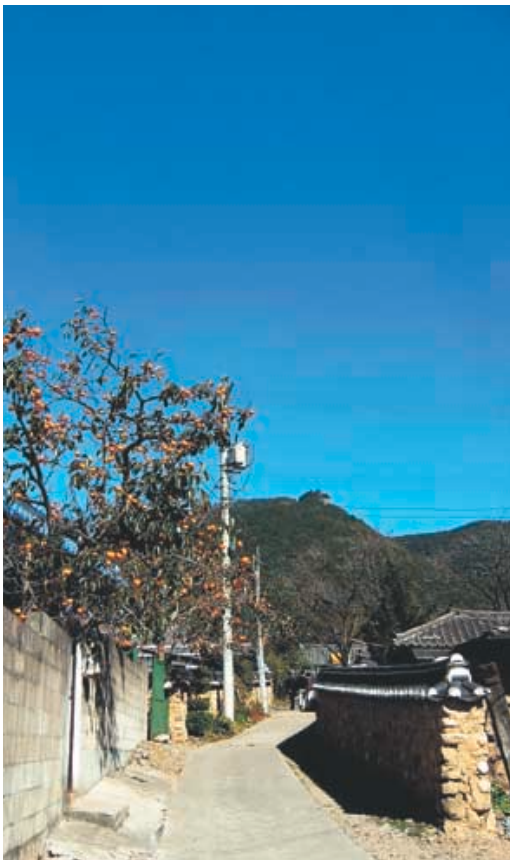
내용 『문선주(文選註)』 권22에 실린 진(晉)나라 은중문(殷仲文)의 '남주환공구정작(南州桓公九井作)' 시에 "홀로 8월을 맞으니 능히 즐거움도 실컷 맛보게 하네(獨有淸秋日 能使高興盡)."라는 구절이 있으며, 『집천가주두공부시집(集千家註杜工部詩集)』 권11에 수록된 당(唐)나라 두보(杜甫)의 '숙부(宿府)'라는 시에는 "8월 막부의 우물가 오동나무 시린데 홀로 강성의 밤잠에 촛불조차 삭아드네(淸秋幕府井梧寒 獨宿江城蠟炬殘)."라는 구절이 있다. 『취리시계(檇李詩繫)』 권26에 실린 청(淸)나라 오겸목(吳謙牧)의 '곡수가(谷水歌)'에는 "빌어 묻건대 8월의 달이여, 제 먼저 제기봉에 매달렸구나(借問淸秋月 先懸第幾峰)."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杜詩諺解, 文選註, 集千家註杜工部詩集, 檇李詩繫, 中文大辭典(中國學術院, 1980), 漢語大詞典(한어대사전출판사, 1994).
필자 | 임동석(林東錫)

추고(秋高)

정의 하늘이 높다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이 시기가 되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맑고 높으며 날씨는 화창하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의미에서 추고마비(秋高馬肥) 또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내용 『집천가주두공부시집(集千家註杜工部詩集)』 권12에 실린 중국 당(唐)나라 때 시인(詩人) 두보(杜甫)의 '모옥위추풍소파가(茅屋爲秋風所破歌)' 시에 "8월에 높은 가을 하늘 성난 바람이 나의 3중 띠풀 지붕을 말아 가버렸네(八月秋高風怒號 卷我屋上三重茅)."라고 한 구절이 있다. 『전당시(全唐詩)』 권62에 수록된 중국 당(唐)나라 때 시인(詩人) 두심언(杜審言)의 '증소미도(贈蘇味道)' 시에 "구름 깨끗하니 별똥별 떨어지고 가을 하늘 높으니 변방의 말이 살찌네(雲淨妖星落 秋高塞馬肥)."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全唐詩, 集千家註杜工部詩集.
필자 | 장재한(張在鈐)

추양(秋陽)

정의 가을철에 내리쬐는 햇볕이 맑고 신선하다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중국 북송(北宋) 시대 시인(詩人) 소동파(蘇東坡)의 『동파전집(東坡全集)』 권33 '추양부(秋陽賦)'에 "내 마음의 밝음이 가을볕의 밝음과 같고 내 마음의 엄숙함이 가을볕의 깨끗함과 같네(吾心皎然如秋陽之明 吾氣肅然 如秋陽之淸)."라고 한 구절이 있다. 증자(曾子)가 공자(孔子)의 도덕(道德)과 인품(人品)이 환하고 깨끗함을 표현하여 『맹자(孟子)』 「등문공상(滕文公上)」에 "강수(江水)와 한수(漢水)로 씻은 것과 같으며, 가을볕으로 쪼이는 것과 같다(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東坡全集, 孟子.
필자 | 장재한(張在鈐)

추은(秋殷)

정의 오곡백과(五穀百果)가 풍성한 가을이라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이 시기가 되면 화창한 가을 햇살을 받아 햇곡식과 햇과일이 나오기 시작한다. 은(殷)은 성대(盛大)하다는 뜻으로, 『주역(周易)』「예괘(豫卦)」의 상사(象辭)에 "성대하게 상제(上帝)께 바친다(殷薦之上帝)."라고 한 구절이 있고, 그 전(傳)에 "은(殷)은 성(盛)함이다."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장재한(張在鈐)





추천(秋天)

정의 높고 맑게 갠 음력 8월의 가을 하늘이라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추청(秋晴) 또는 추공(秋空)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 시기의 하늘이 사계절 중 가장 으뜸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는 대기의 대류(對流)가 여름보다 약해서 먼지가 고공(高空)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쉽게 비에 씻겨 내려오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깨끗한 하늘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집천가주두공부시집(集千家註杜工部詩集)』 권3에 수록된 중국 당(唐)나라 때 시인(詩人) 두보(杜甫)의 '봉증엄팔각노(奉贈嚴八閣老)' 시에 "교룡은 구름을 얻어 비를 내리고 수리는 높은 가을 하늘에 있네(蛟龍得雲雨 鵰鶚在秋天)."라고 한 구절이 있다.

『서경(書經)』「주서(周書) 다사편(多士篇)」에 "너 은(殷)나라의 남은 다사(多士)들아! 하늘에게 가엾게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하늘이 크게 은(殷)나라에 망함을 내리시니라(爾殷遺多士 弗弔 旻天大降喪于殷)."라고 하였고, 그 주(註)에 "민천(旻天)은 추천(秋天)이다(旻天 秋天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書經, 集千家註杜工部詩集.

필자 | 장재한(張在鈐)

1 벼
경북 김제시 봉남면 평사리 황현만

2 단감 수확
경남 진해시 진영읍 주병수





正日

정일

추석은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로서
이날 명절식으로 송편을 빚어
조상에게 올려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것이 중요한 행사다.
추석 전에 조상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여
여름 동안 묘소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준다.
추석날 아침에는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추석(秋夕)

정의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 명절이다. 가배(嘉俳), 가배일(嘉俳日), 가위, 한가위, 중추(仲秋), 중추절(仲秋節),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도 한다. 가위나 한가위는 순수한 우리말이며 가배는 가위를 이두식의 한자로 쓰는 말이다.

어원 추석(秋夕)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니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추석'이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라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추석 무렵을 중추(中秋) 또는 월석(月夕)이라 하는데, 『예기(禮記)』에 나오는 조춘일(朝春日), 추석월(秋夕月)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추석날 밤에는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하여 월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중엽 이후 한자가 성행하게 된 뒤 중국인이 사용하던 중추니 월석이니 하는 말을 합해서 축약하여 추석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중추절이라 하는 것은 가을을 초추(初秋), 중추(中秋), 종추(終秋)로 나누었을 때 추석이 음력 8월 중추에 해당하므로 붙은 이름이다.

유래 추석의 시원(始原)이나 유래에 대한 명확한 문헌 자료는 없다. 중국의 『수서(隋書)』「동이전(東夷傳)」 신라조(新羅條)에는 "8월 15일이면 왕이 풍류를 베풀고 관리들을 시켜 활을 쏘게 하여 잘 쏜 자에게는 상으로 말이나 포목을 준다."라고 했다. 『구당서(舊唐書)』「동이전(東夷傳)」 신라조(新羅條)에도 "해마다 정월 초하룻날이면 서로 하례하는 예식을 여는데 왕이 잔치를 베풀고 또 해와 달의 신에게 절을 한다. 팔월 보름이면 풍류를 베풀고 관리들을 시켜 활을 쏜 자에게는 상으로 포목을 준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인들은 산신(山神)에 제사 지내기를 좋아하며 8월 보름날이면 크게 잔치를 베풀고 관리들이 모여서 활을 잘 쏜다."라고 하였다.

우리 문헌에는 12세기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추석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지만 그 시원을 밝히는 내용은 아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추석이 신라 초기에 이미 자리 잡았으며,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명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1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조에 기록된 추석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왕이 육부(六部)를 정한 후 이를 두 패로 나누어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편을 짜고, 7월 16일부터 날마다



송편만들기
충남 연기 국립민속박물관

육부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했는데 밤늦게야 일을 파하게 하고 8월 보름에 이르러 그 공(功)의 다소를 살펴 지는 편은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 사례하고 모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하였으니 이를 가배라 한다. 이때 진 편의 여자들이 일어나 춤추며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 하였는데 그 소리가 구슬프면서 아름다웠으므로 뒷사람들이 그 소리를 인연으로 노래를 지어 회소곡(會蘇曲)이라 하였다."

특히 여자들이 패를 나누어 길쌈을 했다는 것은 두레길쌈의 효시로 볼 수 있는데, 당시 길쌈이 이미 보편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추석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의 의복을 장만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옷감을 짜는 풍속은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시대부터 있었는데 세시명절은 농경에 적응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시명절인 한가위는 고대 농경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신라시대에는 이미 일반화된 명절로 자리 잡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규경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추석의 관습이 가락국에서 왔다고 했다. 일본인 승려 원인(圓仁)은 그의 저서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당시 산동(山東) 근방에서 살던 신라인들이 절에서 가배명절을 즐겼던 사실을 기록했다. 특히 그는 신라인들이 발해와 싸워 이긴 기념으로 추석을 명절로 즐겼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기록된 육부(六部)를 방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발굴되기도 했다. 신라가 육부였음은 1988년 4월 15일 경북 울진군 죽변면(竹邊面) 봉평리(鳳坪里)에서 출토된 신라 비석의 내용으로 확인된다. 비석은 법흥왕 11년(524)에 세워진 것으로, 육부 중의 하나인 탁부 출신의 박사가 건립하였다고 하여 가배풍속과 관련된 육부의 존재가 분명해졌다.

이처럼 신라시대에 이미 세시명절로 자리 잡던 추석은 고려에 와서도 큰 명절로 여겨져 9대 속절(俗節)에 포함되었다. 고려 9대 속절은 원정(元正, 설날)·상원(上元, 정월대보름)·상사(上巳)·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중구(重九)·팔관(八關)·동지(冬至)였다. 이 명절들은 조선시대로 이어졌고 조선시대에 추석은 설날,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의 하나로 꼽혔다.



추석성묘
충남 연기 국립민속박물관

우리나라에서 추석 명절을 비롯한 세시명절의 위상은 근래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우리 세시풍속이 농경의례로서 농사라는 생업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만큼 산업사회 이후 공업이 생업의 중심이 되면서 농촌사회가 변화하여 세시명절이 약화하기 시작했다. 추석 또한 전통적인 성격이 퇴색하여 차례와 성묘하는 날로 축소되었지만, 국가 차원의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서 큰 명절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개관 추석은 중추절(仲秋節) 또는 중추가절(仲秋佳節)이라고 하며, 가을의 한가운데, 곧 가을 중의 가을인 명절이다. 추석 무렵은 좋은 계절이어서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5월은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땀을 흘리면서 등거리가 마를 날이 없지만 8월은 한 해 농사가 다 마무리된 때여서 봄철 농사일보다 힘을 덜 들이고 일을 해도 신선처럼 지낼 수 있다는 말이니 그만큼 추석은 좋은 날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석은 연중 으뜸 명절이다. 특히 농촌에서 가장 큰 명절이니 이때는 오곡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내므로,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새삼 간절해진다.

달의 명절로도 일컬어지는 추석에는 풍요를 기리는 각종 세시풍속이 행해진다.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차례와 같이 엄숙한 세시풍속이 있는가 하면 한

바탕 흐드러지게 노는 세시놀이 역시 풍성하게 행해진다.

추석은 애초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로서 이날 명절식으로 송편을 빚어 조상에게 올려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것이 중요한 행사다. 추석 전에 조상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하여 여름 동안 묘소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베어준다. 추석날 아침에는 햇곡으로 빚은 송편과 각종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차례는 대체로 4대 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부터의 관행이다.

의례 추석에 행하는 의례로 올베심리와 풋바심이 있다. 올베심리란 주로 호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올벼 천신(薦新)을 말한다. 올기심리, 올계심리, 오리심리, 올비신미라고 부른다. 올벼란 '일찍 수확한 벼'를 일컫는 것으로, 벼가 다 여문 무렵 혹은 채 여물기 전에 여문 부분을 골라 찧은 쌀이다. 벼가 덜 여물면 미리 솥에 볶아서 말려두었다가 밥을 짓는다. 술과 조기, 햇병아리, 햇무 같은 것들을 상에 차려 조상에게 바치고 온 집안 식구가 모여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미리 베어온 벼포기는 안방 윗목 벽에 가로 묶어 두기도 한다. 호남지방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집에서도 벼포기를 사다 걸어둘 정도로 이 풍속은 일반화되어 있다. 올벼심리는 대개 추석 무렵에 올리지만 벼가 익을 무렵에 올리므로 그 시기는 일정치 않다.

벼뿐만 아니라 다른 곡식을 함께 걸어두기도 한다. 추석을 전후해서 잘 익은 벼, 수수, 조 같은 곡식의 이삭을 한 줌 베어다가 묶어 기둥이나 문설주에 걸어두는데 이것을 올게심니라고도 한다. 올게심니를 할 때에는 술과 음식을 차리고 이웃을 청해서 주연을 베풀기도 한다. 올게심니한 곡식은 다음해에 씨로 사용하거나 떡을 해서 사당에 천신하거나 터주를 비롯한 가신(家神)에게 올렸다가 먹는다. 올게심니는 이듬해 풍년이 들게 해달라는 기원의 뜻과 풍농을 예축하는 의미가 있다.

경북 안동을 비롯한 영남에서는 올베심리와 비슷한 것으로 풋바심이 전한다. 논 가운데 누렇게 잘 익은 부분을 지게로 한 짐 정도, 벼로는 두 말 정도, 쌀로는 한 말 정도 미리 베어서 탈곡한다. 이 쌀로 밥을 짓고 제물을 갖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올베심리와 같다.

또다른 추석의 풍속으로 반보기와 근친(覲親)이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추석 무렵에 반보기를 하는데 이는 반나절 동안 만나는 것을 말한다. 늦여름이 다가도록 농사에 바빴던 일가 친척들이 추석 무렵이면



추석차례
충남 연기 국립민속박물관

서로 약속하여, 양편의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 이것이 반보기인데 중간지점에서 만난다 하여 중로상봉(中路相逢) 또는 중로보기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특히 시집간 딸이 이 반보기를 통해 친정식구와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 추석 전후가 되면 이런 반보기가 아니라 '온보기'로 새색시들이 근친 가는 일이 많았다.

절식 설날의 명절식이 떡국인 반면 추석의 명절식은 송편이다. 명절식은 차례상에 올려 조상에게 제를 지내고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이 나누어 먹는다. 송편은 지역에 따라 음력 이월 초하루인 머슴날 또는 설날에도 만들어 먹지만 역시 가을을 상징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가을 맛은 송편에서 오고 송편 맛은 솔내에서 온다는 말도 있다.

우리나라의 음식은 원래 계절에 유난히 민감하여 제철음식이란 말이 있다. 많은 떡 가운데 개피떡과 송편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아니한 봄과 가을의 음식이지만 그 중에서도 개피떡은 따뜻한 편에 가깝고 송편은 서늘한 편에 가깝다. 그래서 봄에는 송편이 먼저 나온 뒤 개피떡이 등장하며 가을에는 개피떡이 먼저 나오고 송편이 뒤에 등장한다. 봄 송편은 햇솔로 묵은 쌀의 향기를 새롭게 하지만 가을 송편은 햅쌀로 솔내를 맑게 해준다. 그래서 추석에는 올벼로 만든 오려송편이 제격이다. 웃기로 쓰는 송편은 삼각형의 작은 골무만한 것으로 이를 골무송편이라 한다.

송편은 쌀가루를 익반죽하여 햇녹두, 청태콩, 동부, 깨, 밤, 대추, 고구마, 곶감, 계피가루 같은 것을 소로 넣어 둥글게 빚는다. 송편이란 이름은 송편을 찔 때에 켜마다 솔잎을 깔기 때문에 붙여졌다. 쌀가루를 익반죽할 때 쑥이나 송기를 넣어 쑥송편이나 붉은 색의 송기송편을 만들기도 한다. 한가위 때 햅쌀로 빚은 송편은 각별히 오려송편이라고 한다. 오려란 올벼를 뜻하는 말이다.

추석의 명절식으로 송편과 함께 토란국을 차례상에 올리기도 한다. 토란국은 다시마와 쇠고기를 섞어서 끓인다. 화양적과 누름적도 명절식인데 화양적은 햇버섯, 도라지, 쇠고기에 갖은 양념을 하여 볶아 꼬챙이에 끼운 음식이다. 누름적은 화양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밀가루나 달걀을 묻혀 지진 음식이다. 이 음식들 역시 차례상에 올린다. 또 닭이 살이 올라 가장 맛있는 계절이므로 추석의 절식으로 닭찜을 한다. 찹쌀가루를 쪄서 계란같이 둥근 떡을 만들고 삶은 밤을 꿀에 개어 붙이는 율단자도 추석의 명절식이다. 밤 대신 토란을 사용한 토란단자도 이때 먹는다.



추석 풍경
충남 연기 국립민속박물관

추석 무렵에는 송이버섯의 향기가 유난히 좋다. 송이회, 송이전, 송이전골이 일품이며 음식의 고명으로도 송이버섯을 많이 사용한다. 한편 추석 무렵은 앞으로 다가올 겨울의 저장용 반찬거리를 마련할 시기여서 박고지, 호박고지, 호박순, 고구마순도 거두어 말리고 산채를 말려 묵은나물을 준비한다.

놀이 추석에는 강강술래, 줄다리기, 가마싸움, 소놀이, 거북놀이, 소싸움, 닭싸움 같은 놀이를 한다. 특히 추석과 같은 보름 명절에는 강강술래와 같은 원무(圓舞)가 중심을 이룬다. 한가윗날 보름달 아래서 노는 원무는 한층 운치가 있다. 추석놀이들은 단순한 놀이일 뿐만 아니라 풍농을 기원하고 예축하는 신앙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①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풍요를 상징하는 달에 비유되는 놀이이다. 농경사회에서 보름달은 풍요를 상징하며 이는 여성과도 관련된다. 여성은 생산의 주체이므로 여성 자체가 풍요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정월대보름의 만월(滿月)은 만삭의 여성으로 비유된다. 따라서 대보름날의 강강술래놀이는 여성들이 풍요의 달아래에서 논다는 의미에서 풍요의 극치를 의미한다.

강강술래는 여러 형태의 놀이로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원무는 보름달의 형상을 상징하여 한층 중요하다. 강강술래는 원무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고사리껑자(꺽자), 덕석몰이, 청어영짝(엮자), 문열어라, 기와밟기, 가마등, 닭살이, 남생이놀아라 같은 여러 놀이가 있다. 이것을 모두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씩 어울려서 한 놀이를 이룬다. 하지만 놀이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은 역시 원무이다.

노래는 목청 좋은 사람이 선소리[선창(先唱)]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뒷소리[합창(合唱)]로 받는다. 가사는 시집살이 노래건 베틀가건 전해 내려오는 민요나 즉흥적인 작사를 하면 후렴을 '강강술래'라는 합창으로 받는다. 처음에는 느린 가락의 진양조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점점 빠른 가락인 중머리, 중중머리, 잦은머리로 바뀌어가고 동작도 빨라진다. 이것을 '뛴다'라고 한다. 이렇게 뛰다가 지치면 쉬고, 쉬었다가 뛰고 하며 즐긴다. 둥글게 원을 그리며 뛰고 노는 늦은 강강술래가 잦은 강강술래로 바뀌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고사리꺾기가 시작된다.

고사리꺾기는 손을 맞잡고 일렬로 서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다음 사람의 오른손과 맞잡은 왼손 밑으로 차례차례 꿰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덕석몰이는 일렬로 서서 가장 끝에 선 사람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큰 원을 그리며 도는 놀이다. 이렇게 몇 번이고 계속하면 한 덩어리로 뭉치게 되는데 이때 "몰이몰이 덕석몰이 늦인늦인 뱅애몰이"라며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풀이해서 덕석을 다 몰면 반대로 해서 풀기 시작한다. 이때에는 "벗겨라 덕석몰이 늦인늦인 뱅애몰이"라며 노래를 부른다. 덕석이 다 풀리면 다시 일렬로 서게 된다.

청어엮기의 놀이방법은 고사리꺾기와 거의 같고 노래만 다를 뿐이다. 문열기놀이(문열어라)는 우선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손을 맞잡고 서 있으면, 다른 일렬로 선 사람들이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약간 구부린다. 그리고 일렬로 문을 꿰어간다. 문지기인 두 사람은 맨 끝 사람이 문 속을 꿰어 가려는 순간 손을 내민다. 그때 잡히면 문지기가 되고 문지기였던 한 사람은 맨 앞에 가서 선다. 그러나 끝 사람이 날쌔게 뛰어 나가면 다시 문지기를 해야 한다. 이때에는 "문지기야 문지기야 문열어라(여러 사람) 열쇠없어 못열겠네(문지기)"라며 노래를 부른다.

기와밟기는 놀이꾼들이 허리를 굽혀 앞 사람의 허리를 두 팔로 감아 기와처럼 엮으면 맨 끝 사람이 엎드린 사람들의 등 위를 밟고 가는 놀이이다. 이렇게 하여 앞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 다시 맨 끝의 사람이 올라가 밟고 지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놀이가

이어진다. 가마등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서서 양팔로 가마를 만들고 그 위에 한 사람을 올려 앉히고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며 노는 것이다. 남생이 놀아라는 남생이의 흉내를 내며 노는 놀이다. 놀이꾼 중에서 춤을 잘 추고 사람들을 웃기는 몸짓을 잘 하는 두세 사람이 원 안으로 들어가서 온갖 몸짓을 하며 논다. 이때 몸짓은 곱사춤, 궁둥이춤, 아장거리는 춤 등 다양하다.

닭살이는 살쾡이가 닭을 잡아가는 시늉을 하는 놀이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꼴찌가 된 사람이 살쾡이가 되고 그 다음 사람이 닭이 된다. 나머지 놀이꾼들은 손과 손을 잡고 원을 그린다. 이때 닭은 원 안에 있고 살쾡이는 원 밖에 서성이면서 닭을 잡는 것이다.

강강술래가 주로 전라도에서 즐기는 놀이인 반면, 경상도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의 놀이로 월월이청청, 놋다리밟기가 있다. 또 이 놀이들이 여성원무 중심의 놀이인 반면 남자들이 원무를 중심으로 노는 놀이로 쾌지나칭칭이 있다.

② 소놀이와 거북놀이: 소놀이는 멍석을 쓰고 소 모양으로 가장하여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즐겁게 놀아주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년 기원 놀이이다.

두 사람이 서로 궁둥이를 맞대고 엎드린 후 그 위에 멍석을 씌운다. 앞사람은 멍석 밑에서 잘 깎은 막대기 두 개를 내밀어 마치 뿔처럼 보이게 하고 뒷사람은 동아줄을 한 가닥 늘어뜨려 마치 쇠꼬리처럼 보이게 한다. 이때 농부 한 사람이 앞에서 소의 고삐를 잡고 끌고 간다. 소 뒤에는 풍물패가 따르며 흥을 돋운다. 소를 앞세운 일행은 부자집을 찾아간다. 대문 앞에서 쇠고삐를 잡은 사람이 "소가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여물과 뜨물을 주시오."라고 소리치면 주인은 음식을 차려 대접한다. 이렇게 여러 집을 찾아다니며 마을 사람 모두가 즐겁게 보낸다. 거북놀이는 소 대신 거북으로 가장하여 노는 것이다.

소는 농부와 마찬가지로 농사일을 하는 존재로서 생구(生口)라 할 정도로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다. 거북은 십장생에도 등장하는 영물로서 수신(水神)과 농경신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 놀이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농경의례의 성격을 지닌다.

③ 가마싸움과 원놀이: 가마싸움은 1900년대 초까지 경북 의성 지역에서 전해오던 서당 학동들의 놀이다. 추석 때 훈장이 차례를 지내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서당을 비우면 놀이가 시작된다. 모처럼 글공부에서 해방된 학동들이 모여서 나무로 가마를 만들며 놀이를 만끽하는 것이다.

옛날 의성에는 남부에 넷, 북부에 하나로 모두 다섯 곳의 서당이 있었다. 이 서당의 학생들이 남북으로 편을 가른 후 가마를 제작한다. 가마는 나무로 높이 1미터, 길이 1.7미터, 가로 1.2미터의 크기이며 바퀴 4개가 달려 있다. 가마 안에는 애호박을 따서 먹으로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원님이라 불렀다. 각각 선두에 사령기를 비롯한 깃발들을 선두에 세우고 공격대와 수비대의 순서로 서서 싸움을 벌인다. 힘센 공격대원들이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 기를 뺏고, 가마를 발길로 차고 혼전을 벌여 가마와 가마끼리 부딪쳐 부서지는 쪽이 지는 것으로 한다. 이긴 편의 서당에서 과거 급제자가 많이 나온다고 여긴다.

④ 씨름: 추석날 남자들이 힘을 자랑하는 놀이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씨름이다. 씨름은 5월 단오, 음력 7월 백중에도 하지만 추석놀이로도 많이 즐긴다. 한 마을에서 힘깨나 쓴다는 씨름꾼들이 체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여들면 이들을 마을의 대표 선수로 삼아 다른 마을 사람들과 겨루게 된다. 진짜 장사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도전자가 없을 때까지 겨루어 뽑는데, 이기게 되면 '판막음했다'고 한다. 마을과 마을의 대항인지라 그 치열함이 상상을 뛰어넘는다. 힘겨루기는 추석 무렵 알찬 수확을 과시하는 놀이임에 틀림없다. 겨루기 싸움에서 이기는 편은



강강술래 송석하

그해 혹은 이듬해의 풍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씨름판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진다.

⑤ 소싸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힘겨루기를 하는 날이 또한 추석이다. 봄부터 여름내 소먹이는 머슴들이 산등성이와 강변에서 소싸움을 붙여 그 마을에서 가장 힘센 소를 뽑는다. 이렇게 뽑힌 소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하는데 심지어 보약까지 먹인다.

상머슴이 고삐를 잡고 싸움판에 소를 끌고 들어가 싸움을 붙인 한쪽 소가 밀리거나 달아나면 지는 것으로 정한다. 만약 소가 다칠 염려가 있으면 중도에 싸움을 그치게 한다. 소싸움은 주로 마을과 마을의 경계 또는 넓은 강변에서 벌인다. 넓고 튼튼한 우리를 만들어서 황소 두 마리를 풀어두면 싸움이 시작된다. 앞발로 땅을 긁어 흙을 파헤치면 화가 났다는 표시인데 이 신호를 시작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뿔로 밀고 받치며 열을 올린다. 힘이 모자란 놈은 한쪽 구석으로 몰려 "쿵" 하고 나가떨어지거나 슬금슬금 도망가게 되어 승부가 난다. 소끼리의 싸움이지만 주위의 열기도 만만치 않다.

소싸움은 여름내 어느 집 머슴이 소를 잘 먹이고 건강하게 하였는가를 가리는 싸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긴 소는 목과 뿔을 비단과 종이꽃으로 장식하고, 그 위에 머슴이 타고 마을로 돌아온다. 그러면 주인집에서 거나하게 술을 한잔 대접한다. 근래에는 경북 청도의 소싸움이 유명하다.

⑥ 조리희(照里戱): 줄다리기는 정월대보름에도 많이 하지만 지역에 따라 추석에 하기도 한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제주도 풍속에 매년 8월 보름날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좌우로 편을 갈라 큰 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겨 승부를 가린다. 줄이 만약 중간에서 끊어지면 양편이 모두 땅에 자빠진다. 구경꾼들이 크게 웃는다. 이를 조리지희(照里之戱)라 한다." 이는 우리 줄다리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줄이 끊어지도록 만들어서 노는 데에 조상의 익살이 보인다.

속신 전남 진도에서는 추석 전날 저녁에 아이들이 밭에 가서 벌거벗고 나이수대로 밭고랑을 기어간다. 이때 음식을 장만하여 밭둑에 놓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밭농사도 잘 된다고 한다.

설날과 정월대보름에 날씨를 보고 농사점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석 때에도 그날의 날씨와 사정을 보아 점을 친다. 8월 초순이면 대개 백로(白露)가 들고 곧 서리가 내리는 중추(中秋)이다. 만일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그해는 시절이 나쁘다. 그래서 백로를 전후하여 날씨를 보고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만약 백로에 바람이 불면 벼가 검은 빛으로 여물게 되어 흉년이다. 논의 나락은 늦어도 백로 전에 피어야 하며 백로를 지나서 핀 나락은 결실하기 어렵다.

추석에 비가 내려도 흉년이 든다. 특히 이듬해 보리농사가 흉작이 된다. 또 추석에 달이 보이지 않으면 개구리가 알을 배지 못하고, 토끼도 새끼를 배지 못한다. 메밀을 비롯한 곡식도 흉작이다. 추석에 구름이 너무 많거나 구름이 한 점도 없으면 그해 보리농사가 흉년이다. 구름이 적당히 떠서 벌어져 있어야 풍년이라고 한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에서는 중추를 한식이나 단오에 비하여 그렇게 중요한 명절로 여기지는 않았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도 추석은 축일이 아니었으며, 중국의 대표적인 세시기로 알려진 종름의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도 중추나 월석이란 말은 없다. 『여씨춘추(呂氏春秋)』에는 중추의 행사에 대하여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월석에 대한 기록은 없다. 월병(月餠)이 중추 명절식이 된 시기가 명나라대이니 중국에서 중추를 오늘날과 같은 명절로 여긴 것은 후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은 팔월 보름을 월석이라 하여 달구경을 하는 절일(節日)로 삼고 달과 관련된 시와 노래를 짓곤 했다. 그날 시식하는 절식(節食)이 중추월병(中秋月餠)인데 월병은 이름도 달떡인데다 모양 역시 달처럼 동그랗게 만든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금두꺼비와 옥토끼 무늬를 넣는다. 중국인들은 예부터 두꺼비가 달의 정령으로 토끼와 함께 달에 사는 동물로 믿어왔다. 이러한 영향인지 우리나라에서도 달 속에 토끼가 있다고 믿는다.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공유하는 문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월병은 그 맛이 달고 기름진데 특히 중추월병은 단원(團圓) 또는 원만(圓滿)의 뜻을 지닌다고 하며, 추석날 저녁에는 월병을 만들어 조상에게 제사하는 배월랑(拜月娘)을 하고 달을 감상한다.

우리의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증장(增長)과 발전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중국인들은 월병을 각별히 좋아하는데 주나라 때 이미 병식(餠食)이 있었으며 한대(漢代)에 들어 증병, 호병(胡餠)이 보이고 원대(元代)에 월병이 있었다. 그러나 정식으로 중추 명절식이 된 시기는 명대(明代)로 보고 있다.

의의 추석은 정월대보름, 6월 유두, 7월 백중과 함께 보름명절이다. 보름명절 가운데서도 정월대보름과 추석은 가장 큰 명절이다. 대보름은 신년에 처음 맞는 명절이어서 중시되는 반면 추석은 수확기가 시작되는 시기의 보름명절이어서 중시된다. 추석은 그동안 농사를 잘 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이며 농사의 결실을 보는 절일이다. 아울러 한 해 농사의 마무리를 하는 시기로서, 또 이듬해의 풍농을 기리는 시기로서 깊은 의미가 있다.

농경사회에서 보름의 만월은 농사의 풍작을 비롯하여 풍요다산을 상징하여 대단히 중시된다. 추석은 만월이 뜨는 보름날이다. 만월인 보름달은 곡물로 치면 수확 직전의 알이 꽉 찬 모습이다. 그래서 추석을 달의 명절이라 한다.

곡물 농사는 싹이 돋아 만개하여 열매를 맺으면 거두어들인다. 이는 한 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 순환한다. 말하자면 재생을 하는 것인데 이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달의 속성과도 같다. 초승에 소생한 달은 보름에 생명력의 극치를 보여주다가 그믐 무렵이면 소멸하고 이어서 다시 초승에 소생하여 '차고 기움'이라는 순환을 반복한다. 이는 죽음과 삶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곧 재생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농경사회에서는 이러한 달의 재생과 농사의 재생적인 속성을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달의 형상 가운데서도 풍요를 상징하는 만월은 중요하며 만월명절은 당연히 중시된다.

참고문헌 | 舊唐書,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隋書, 呂氏春秋, 洌陽歲時記, 禮記, 五洲衍文長箋散稿, 入唐求法巡禮行記, 荊楚歲時記, 朝鮮史外史1(車相瓚, 明星社, 1947),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硏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歲時風俗의 機能과 그 變化(金明子, 民俗硏究2,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필자 | 김명자(金明子)

가배(嘉俳)

정의 추석(秋夕)을 일컫는 고어(古語). '가위'라는 우리말을 이두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가배(嘉俳)의 변형 표기로는 가우(嘉優)가 있다. 가배의 어원은 가운데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가배(嘉俳)는 원래 순우리말로 그 옛 어형은 'ᄀᆞᄇᆡ'였고 이것을 분철하면 'ᄀᆞᄇᆞᆫ(中央)+ᄋᆡ(日)'가 되며 이는 '가운뎃날'이라는 뜻이다. 8월 보름을 오늘날에는 한자어로 중추절(仲秋節) 또는 추석이라고 한다. 중추절의 중(仲)은 가운데를 뜻하는 중(中)과 같은 뜻으로 가을의 한가운데 명절이라는 의미이다. 가을이라 하면 삼추(三秋)라 하여 음력 7월과 8월 그리고 9월을 꼽는다. 이 중 가운데 달은 8월이고, 가운데 날은 보름이다. 가배는 바로 가을의 가운데 달의 가운데 날로 만월(滿月) 명절 가운데서도 으뜸의 날이 된다. 곧 가배는 가운데 날이라는 뜻이며 실제로 가윗날은 가을의 가운데 달인 8월, 그 중에서도 가운데 날인 보름인 것이다.

내용 가배라는 말이 등장하는 첫 문헌은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1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조이다. 유리왕 9년 이래 7월 16일부터 8월 보름까지 한 달에 걸쳐 온 나라 안의 6부의 여성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길쌈내기를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진 편은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대접하였다. 이때 가무와 온갖 놀이로 한바탕 흐드러지게 놀았는데, 이를 가배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실려 있는 고려시대의 달거리[月令禮] 노래인 속요 「동동(動動)」의 8월 노랫말에 다시 등장한다. "팔월 보름날은 가배(嘉俳)날이지만 님을 뫼시고 함께 지내면서 맞을 수 있다면야 오늘이 참 가배다울 텐데"라는 구절이 나온다. 가배의 어원에 대한 또 다른 설도 있다. 신라시대 길쌈대회에서, 진 편은 이긴 편에게 잔치를 베풀게 되므로 '갚는다'는 뜻에서 나왔을 것으로 유추하기도 한다. 진 편이 이긴 편에 베푸는 잔치나 놀이로서 갚는다는 뜻에서 '갑다(보=報, 가=價)'의 전성명사(轉成名詞)인 '가뵈'가 '가위'로 된 것이라는 설이다. 가배라는 말이 신라시대 이후 고려속요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말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樂學軌範, 朝鮮史外史1(車相瓚, 明星社, 1947), 嘉俳攷(徐在克, 論文集1, 대구교육대학교, 1965), 아름다운 민속어원(최창렬, 新亞出版社, 1989).
필자 | 김명자(金明子)

가윗날

정의 추석(秋夕)을 일컫는 옛 우리말. 가위라고도 하고 이두음으로 가배(嘉俳)라고도 한다.
내용 가위란 한가운데를 가리킨다. 음력 8월 보름은 가을의 한가운데이면서 달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이므로 가윗날이라고 한다. 추석은 대표적인 만월명절로 이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위를 추석 또는 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한다. 중추(仲秋)와 월석(月夕)을 축약하여 추석(秋夕)이라 한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朝鮮史外史1(車相瓚, 明星社, 1947),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研究(張正龍, 集文堂, 1988), 아름다운 민속어원(최창렬, 新亞出版社, 1989).
필자 | 김명자(金明子)

완월(玩月)

정의 달을 완상(玩賞)한다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추석날 저녁에 달을 완상하며 소원을 비는 달맞이 풍속이 있는데 이 풍속에서 유래되었다.
내용 『전당시(全唐詩)』 권186에 실린 당(唐)나라 위응물(韋應物)의 '월하회서십일초당(月下會徐十一草堂)' 시에 "잠시 보던 책을 덮어두고 도리어 달을 감상하는 시를 짓도다(暫輟觀書夜 還題玩月詩)."라고 하였고, 금(金)나라 원호문(元好問) '만정방(滿庭芳)' 사(詞)에 "붉은 대궐에 바람이 넘지르고 요지에서는 달구경을 하네. 많은 신선들이 청반에 모시고 섰더라(絳闕淩風 瑤池玩月 衆仙侍立淸班)."라고 하였다. 주정의(朱靜宜)의 '중추무월감부(中秋無月感賦)' 시에 "금년에는 장사에서 달구경을 하게 되어 높은 누각에 술자리를 벌여놓고 밝은 달 떠오르기를 기다리네(今年玩月長沙城 置酒高樓待明月)."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全唐詩, 中文大辭典(中國學術院, 1980), 漢語大詞典(한어대사전출판사, 1994).
필자 | 임동석(林東錫)

월석(月夕)

정의 달이 밝은 저녁이라는 뜻으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음력 8월 한가윗날의 보름달은 여느 때에 비해 유난히 밝고 둥글다. 농경을 기본으로 했던 전통사회에서 일년에 열두 번의 보름 중에 정월대보름과 8월 한가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정월대보름에 농사를 시작하여 8월 한가위에 마무리짓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이 지닌 지모신(地母神)으로서의 출산력에 농사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구당서(舊唐書)』 권181 「나위전(羅威傳)」에 "꽃핀 아침과 달 밝은 저녁이면 손님과 어울려 시를 지었다(每花朝月夕 與賓佐賦詠)."라고 한 구절이 있다. 『제요록(提要錄)』에 "2월 15일은 화조(花朝)이고, 8월 15일은 월석(月夕)이다(二月十五日爲花朝 八月十五日爲月夕)."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舊唐書, 提要錄.
필자 | 장재한(張在鈐)

중추절(仲秋節)

정의 중추(仲秋)는 가을 석 달 중에 중간 달을 의미하고 절(節)은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인 한가위를 이르는 말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일년 열두 달을 사계절로 나누어 1~3월을 춘(春), 4~6월을 하(夏), 7~9월을 추(秋), 10~12월을 동(冬)이라 하고, 각 계절에 속한 석 달을 나누어 첫 달을 초(初) 혹은 맹(孟), 두 번째 달을 중(仲), 마지막 달을 모(暮) 또는 만(晩), 계(季)라고 한다.
내용 『여씨춘추(呂氏春秋)』 「중추기(仲秋紀)」에 "중추의 달에 해는 각수(角宿)에 있으며, 저녁에는 견우[牽牛, 牛宿]가 남중하고 새벽에는 자휴[觜觿, 觜宿]가 남중한다.……거센 바람이 불고 기러기가 오며 제비는 돌아가고 새들은 좋은 먹이를 갈무리한다(仲秋之月 日在角 昏牽牛中 旦觜觿中……盲風至 鴻雁來 玄鳥歸 群鳥養羞……)."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呂氏春秋.
필자 | 장재한(張在鈐)

한가위

정의 한가위는 가배, 가위, 가윗날과 함께 추석을 일컫는 말.

내용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하며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이다. 크다는 말과 가운데라는 말이 합해진 것으로, 한가위란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란 뜻이다.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가위란 큰 날 또는 큰 명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음력 8월을 중추지월(中秋之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자음에 따른 것으로 가위는 곧 가을의 가운데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월석은 달빛이 가장 좋다고 하여 붙여진 말이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朝鮮史外史1(車相瓚, 明星社, 1947),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張正龍, 集文堂, 1988), 아름다운 민속어원(최창렬, 新亞出版社, 1989).

필자 | 김명자(金明子)

귀성(歸省)

정의 객지에서 사는 자녀가 부모를 만나러 고향을 찾는 것. 귀령(歸寧)이라고도 한다. 다만 일부 문헌에서는 귀령이 시집간 여성이 친정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귀성은 아들이 고향의 부모와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하였다. 귀성의 의미에는 고향과 부모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 그리고 개인이 탄생하여 성장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그 바탕에 있다. 따라서 귀성은 지연과 혈연에 대한 그리움의 문화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해방 이후이다. 해방 이후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 집에 가는 수많은 인파를 가리켜 신문에서 귀성행렬 혹은 귀성열차라고 표현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전통적 유교식 교육 내용과 방법이 실효성을 잃었고, 이를 인식한 부모들은 자식들을 대도시에 설립된 새로운 교육 기관인 학교에 보냈다. 따라서 도시로 유학 온 농촌 출신 학생들은 명절이나 방학마다 농촌의 고향집을 방문하였다. 1945년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 귀성행렬은 주로 학생들이어서 '학생귀성열차'라는 말도 등장하였다.

귀성행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1960년대에 급속히 불어나 학생보다 일반인들이 점차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인구는 1959년 200만 명에서 1967년까지 매년 100만 명씩 증가를 하게 된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군사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조국근대화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중점적으로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 서울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던 사람들은 적은 여가시간과 불편한 교통 시설로 대부분 명절에만 고향을 찾았다. 당시 귀성의 수단은 1960년대까지는 기차 그리고 1970년대에는 기차와 고속버스였다. 이른바 민족대이동이라 불리는 귀성행렬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지속되어 설날과 추석 무렵 대중 매체가 가장 크게 다루는 소재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농촌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명절에 귀성객이 증가하면서 농촌 사회도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세시풍속이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되는 명절도 달랐다. 이러한 명절의 다양성도 대도시의 자녀들이나 친지들이 내려오는 공휴일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변화하였다. 예를 들면 경북 안동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추석 대신 중구절(重九節)이 큰 명절로서 인식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추석이 중요한 명절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의미 양력이라는 새로운 시간 주기와 2·3차 산업의 증가로 대표되는 산업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세시풍속이 소멸되었어도 설날과 추석이 아직도 중요한



귀성 환영 풍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 3리 김영광

명절로 인식되어 민족대이동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인구가 귀성을 하는 배경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간적 인간으로서 제 영토와 남의 영토를 구분하고 제 영토에는 다양한 상징을 동원하여 제 것임을 표시한다. 또 공간적 인간은 자기 영토를 떠날 경우에 그 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죽어서 그곳에 묻히기를 원하며 타향에서의 죽음을 가장 불행한 죽음의 하나로 인식한다. 따라서 귀성은 인간이 공간적 인간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귀성을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사회적 유대 관계의 강화로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사회 연결망의 구성 요소는 혈연적 요소와 지연적 요소이다. 따라서 명절에 귀성한 사람들은 고향의 부모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사회 연결망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詩經, 中文大辭典(台北: 中華學術院, 1982),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한국민속과 오늘의 문화(임재해, 지식산업사, 1994).
필자 | 이상현(李相賢)

문소전제(文昭殿祭)

⇨ 문소전제(文昭殿祭): 봄편

추석성묘(秋夕省墓)

정의 추석에 조상의 묘소에 가서 절하고 살펴보는 예(禮). 묘소가 잘 있는지 살펴보러 간다고 하여 전묘(展墓), 상묘(上墓), 상분(上墳), 상총(上塚), 배분(拜墳), 배소례(拜掃禮), 소묘(掃墓), 전소례(展掃禮)라고 하며, 묘제(墓祭) 또는 성묘(省墓)의 의미로 통용되었다. 또한 묘소에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산소차례라고도 한다. 성묘는 송시열(宋時烈)이 "성묘 때 처음에 재배하며, 다시 재배하고 물러서는 것은 예의가 더욱 갖추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듯이, 추석에 조상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묘소에 절하고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조상의 체백(體魄)이 있는 묘소를 중시하여 고려 때부터 추석 같은 명절에 상분하는 풍속이 있었고, 고려말에 『가례(家禮)』를 수용한 이후에도 묘제를 허락하였다. 특히 이이(李珥)가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한식과 추석에 『가례』에 의해 묘제를 지내게 하여, 조선 후기까지 절사로서 묘소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사명일(四名日)의 절사 가운데 춘추절사(한식과 추석)만 지내거나, 시제로서 한식 및 10월의 묘제가 성행하면서 추석에는 사당에서 차례만을 지냈다. 또는 추석 대신에 중양절에 절사를 지내거나 10월의 시제(묘제)를 대사(大祀)로 여겨 추석에는 성묘만 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가정의례준칙'으로 추석이 명절로 정해져 차례 또는 성묘를 하게 하였다. 오늘날에는 추석이 명절로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주로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한다.

참고문헌 | 家禮增解, 擊蒙要訣, 東國歲時記, 奉先雜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常元出版社, 1969),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순권(崔順權)

추석절사(秋夕節祀)

정의 추석에 조상의 묘소에 가서 지내는 제사. 추석에 지내는 제사라 하여 추석제사(秋夕祭祀), 추석성묘(秋夕省墓)라고도 한다.

유래 추석은 한식과 함께 절기상으로 계절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추석절사(秋夕節祀)를 대표적인 절사로 여겼다. 특히 율곡 이이(李珥)가 가묘에서의 8월 사시제(四時祭)와 사명일(四名日)의 절사를 조정하면서, 한식과 추석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 묘제에 따라 제사 음식을 갖추어 축문을 읽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낼 것을 주장하여, 조선 후기에는 추석에 사당에서 차례를 지내고, 묘소에서 절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에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집안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한식과 추석에 절사가 가장 성행한다고 하였다.






〈추석절사〉
1 준비
2 진설
3 헌작
4 음복
충남 연기 국립민속박물관

내용 추석절사는 원칙적으로 묘에서 지내나, 요즘에 와서는 재실이나 사당에서 지내기도 한다. 일산 율곡 종가에서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따라 추석에 율곡 선생의 묘소가 있는 자운서원(紫雲書院)에서 절사를 지낸다. 추석절사의 절차는 『주자가례』 묘제에 준하여, 4대친의 묘소에서 진설(陳設), 강신(降神), 참신(參神),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사신(辭神), 철상(撤床) 순으로 진행하며 산신제도 지낸다. 추석절사의 경우 축문에는 '白露旣降(계절이 바뀌어 서리에 이미 젖었고)'이라 쓴다. 서리가 내리는 것으로 기후가 변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추모의 정을 펼치고자 절사를 지내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추석에 대부분 차례와 성묘를 하기 때문에 묘제로서의 추석절사는 거의 지내지 않는다.

참고문헌 | 家禮增解, 擊蒙要訣, 東國歲時記, 奉先雜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常元出版社, 1969),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순권(崔順權)

추석차례(秋夕茶禮)

정의 추석에 사당에서 사대조(四代祖)의 조상에게 지내는 예(禮). 추석제사, 추석다례, 추석차사, 중추차례, 중추다례라고도 한다.

역사 차례(茶禮)는 원래 차를 올리는 예를 말한다. 신라시대에 충담사가 매년 중삼(重三)과 중구(重九)에 차를 끓여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彌勒世尊)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팔관회 연회나, 경령전(景靈殿)에서 설, 단오, 추석, 중구에 차를 올렸으며,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종의선사(鍾義禪師)의 제사에 차와 과일을 올렸다."라고 한다. 그러나 『삼국사기(三國史記)』 및 『고려사(高麗史)』 같은 역사서와 『주자가례(朱子家禮)』,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 같은 예서에도 '차례'라고 명명된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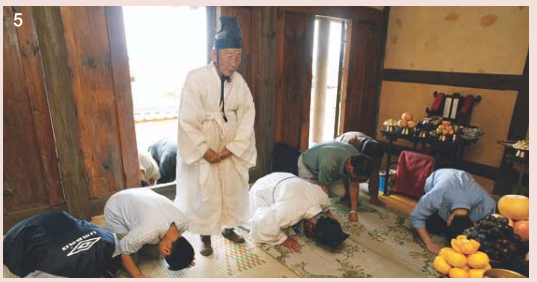
그러나 『주자가례』 망참의(望參儀)에 보름에는


1


2


3


4


5


6


7

〈추석차례〉
1 개독
2 분향
3 침주
4 헌작
5 사신재배
6 합독
7 철찬
경북 성주군 월향면 대산리
국립민속박물관

사당에 술을 쓰지 않고 차만 올리는 예가 있다. 이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주자가례』를 널리 쓰면서 사당 또는 영당(影堂)에서 차를 올리며 행하는 예를 차례라고 명명한 것이 나타난다. 권문해(權文海)의 『초간일기(草澗日記)』 같은 문헌 자료에 매월 초하루나 보름, 명절에 사당에서 차례를 지낸 행차례(行茶禮)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이때 새벽 사당에 단지 국수와 떡을 차려놓고서 술 한 잔을 올렸다고 한다.

조선 후기에 오면 기제(忌祭)와 묘제(墓祭)가 사시제(四時祭)보다 중시되고, 차례가 사시제를 대신해서 사당에서 설과 추석, 동지, 단오 등에 행해짐에 따라 차례상도 기제상에 준하여 차리되 밥과 국[飯羹] 대신에 시절음식을 올렸다. 곽종석(郭鍾錫)의 『육례홀기(六禮笏記)』에 의하면, 차례가 육례(六禮)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정조(설), 추석, 동지, 단오에 주인(主人) 이하 사당에 나가 분향재배(焚香再拜)하고서 참신(參神)하며, 각 신위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서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하여 재배하였다가 사신(辭神)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박문호(朴文鎬)의 『사례집의(四禮集儀)』에는 차례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차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삭참의(朔參儀)」에는 주인 이하 각 신위(神位)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서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바르게 한 다음에 독축을 한다. 독축 후에 재배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사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밥이 있으면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리는 진다(進茶)에 차를 올리는 의미를 부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의례준칙(儀禮準則)에 의해 단지 조(祖), 부(父) 2대에만 한하여 기일에 지내는 기제와 일년에 한 번 지내는 묘제만 제례로 통일되었고, 1939년에는 오랜 차례 관행에 의해 기제와 묘제 이외에 정월 원조(元朝) 및 팔월 추석에만 차례를 지내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때 차례의 절차는 신주 또는 지방을 봉안하고서 강신(降神), 진찬(進饌), 단헌(單獻), 사신(辭神), 철찬(撤饌)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도 의례준칙에 의해 2대를 봉사하는 기제와 함께 차례는 그 대상과 장소와 참례자의 범위를 기제에 준하게 하되, 양력 1월 1일 아침에 떡국으로 밥을 대신할 수 있게 한 연시제(年始祭)와 추석에 떡(송편)으로 지내는 절사(節祀)로 통일되었다. 1999년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의해 설(음력 1월 1일)과 추석(음력 8월 15일)이 명절차례로 정해졌고, 성묘는 제수를 마련하지 않거나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현재 차례 관행은 설과 추석에 성묘와 함께 행해지고 있으나, 지역과 가문의 전통에 따라 정월대보름, 단오, 중구, 동지에 약밥, 팥죽과 같은 시절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하고 있다. 옛날처럼 매달 초하루와 보름,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이 항상 집에 계신 듯 계절의 변화와 함께 집안의 일상사를 고하는 마음자세로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의 은덕을 되새겨보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내용 추석에는 차례도 지내고 절사도 지낸다. 추석은 보름의 뜻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삭망제의 예에 따라 찬을 준비하여 참례를 하는 것이다. 추석은 속절로서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인절미를 시식으로, 고상안(高尙顔)의 『태촌집(泰村集)』에는 떡과 면, 어적과 육적 가운데 한 가지를 쓰고 탕은 두 가지를 쓴다고 하였다. 황종해(黃宗海)는 추석은 가을 시제를 행하는 달이기 때문에 사당에서 차례를 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율곡 이이는 가을은 계절의 끝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사로서 삼헌에 축문을 읽고 산신제도 지낸다고 하였다.

추석에는 설차례와 달리 흰 떡국 대신에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으며,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낸다. 가을 수확을 하면 햇곡식을 조상에게 먼저 천신한 다음에 먹는데, 추석차례의 경우 천신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차례상의 경우 햅쌀로 밥을 지어 토란국과 함께 올리고, 떡 대신에 송편을 올리기도 하며, 쌀가루에 콩, 밤, 대추 등을 넣고 찐 모듬떡을 놓기도 한다. 밥 대신에 송편을 주식으로 올려놓기도 한다. 그리고 추석이 너무 빨라 곡식이 수확되지 않으면 한 줌의 벼를 베어 밥 대신에 놓기도 하며, 추석차례 대신에 중구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추석차례는 설과 비슷하나 밥을 올릴 경우에는 헌작 후에 진다의 절차가 있으며, 송편으로 밥을 대신할 경우에는 진다의 절차가 생략된다.

차례가 모두 끝나면 가까운 집안끼리 모여 조상의 묘소를 찾아 절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한다. 추석절사에는 한식과 같이 축문을 읽고 산신제를 지냈는데,

추석이 8월의 시제와 겹쳐서 대체로 8월에는 가묘(家廟)의 시제보다는 묘소의 절사를 지냈다. 오늘날에는 절사를 대신하여 성묘를 하며, 추석을 전후로 하여 벌초를 하면서 성묘를 하거나 묘제(시제 관행)를 지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 家禮增解, 擊蒙要訣, 東國歲時記, 奉先雜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常元出版社, 1969),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순권(崔順權)

추석천신굿(秋夕薦新-)

정의 추석을 맞이하여 신(神)을 강림하게 한 후, 그 음덕에 감사드리는 무속적 의례. 가을철에 풍성한 햇곡식과 햇과일을 차려놓고, 강림한 천신(天神)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 굿은 햇곡맞이굿이라고도 한다. 이 굿을 행할 때가 마침 단풍이 드는 시기이므로 단풍맞이굿이라고도 부른다. 추석천신굿의 이칭으로는 천신굿, 햇곡맞이굿, 단풍맞이굿이 있다.

유래 천신(薦新)문화는 동양문화권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중국 문헌 『예기(禮記)』「제편(諸篇)」의 단궁(檀弓)에 보면, 천신을 초하룻날 지내는 삭전(朔奠)과 동일하게 다룰 것을 지시하고 있으며, 『대청통례(大淸通禮)』에는 해의 명절을 만나면 반드시 새로운 산물을 천신하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사(高麗史)』에 예종 때 종묘에 천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문헌에 보이는 천신이란 사직천신(社稷薦新)과 조상천신(祖上薦新)을 말한다. 사직천신은 임금이 백성을 위하여 토신(土神)과 곡신(穀神)에게 드리는 것이며, 조상천신은 국가가 주관하여 역대 제왕을 위해 드리는 종묘천신(宗廟薦新)과 일반 사가(私家)에서 각자의 조상들에게 행하는 가묘천신(家廟薦新)이 있다. 그러나 무속신앙에서의 천신은 큰 굿으로 치러지는데 이는 하늘의 신령을 강림케 하여 그 은덕에 보답하는 감사제로서 일종의 철맞이굿 형식이다.

내용 추석천신굿은 매년 행하는데 기자(祈子)가 자체적으로 행하는 것과 기자를 따르는 재가집 요청에 의해 행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신을 따르는 기자의 몸이 건강하고 무업이 번창함에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가내평안에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경우 모두가 명분상 햇곡식과 햇과일을 풍성하게 거두어 신에게 감사드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무사태평과 무병장수, 부귀공명 등의 소원성취를 비는 기복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일년 동안 거두어들인 햇곡식과 햇과일로 음식을 장만하여 신령님께 대접하는 철맞이굿 형태의 추석천신굿은 오랜 전통에 의한다. 이 굿은 병굿이나 진오기굿 또는 재수굿 같은 특정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것을 기원하고자 할 때 행하는 비정기적인 굿과는 다르다. 이 굿은 일년 내내 신령의 덕택으로 무사태평하게 잘 지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치르는 일종의 감사제이다. 그렇지만 이 굿도 무속이 지닌 기복적 신앙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병이나 무사태평을 바라고 풍농이나 풍어를 기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복적 내용을 목적으로 상정해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 후 바라는 바를 기원하는 것이다.

추석천신굿은 꽃피는 봄철에 이루어지는 꽃맞이굿과 같은 철맞이굿으로서 두 가지가 구성 요소나 짜임새 그리고 진행절차가 대동소이하다. 다만 추석천신굿에서는 일년 동안 가꾸어 거둔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빚고 온갖 햇과일로 제물을 준비하는 점이 다르다. 추석천신굿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굿을 주관하게 되는 기자(무당)의 생기복덕을 가려내어 길한 날을 고른다. 날이 잡히면 신당에 고하고 그때부터 굿 준비에 들어간다. 신령님 물건들을 새롭게 장만하기도 하고 신복을 새롭게 꾸미기도 한다. 무당 자신의 것은 물론 제자들의 옷도 새롭게 장만하여 입힌다. 새롭게 모셔야 할 신령이 있으면 신도(神圖)를 꾸며 신당 벽에 맨다. 진설할 굿 음식 또는 굿에 쓸 물건을 장만할 때는 최상품으로 고르되 흥정하지 않는다. 음식은 굿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나눠서 가져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장만한다. 주위의 많은 선후배 무당과 유명한 잽이를 부르고 재가집(단골집)과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려 많은 사람이 굿에 참관하도록 한다.

굿을 주관할 기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재계















〈추석천신굿〉
1 불사거리(용궁타기)
2 불사거리(바라팔기)
3 신장거리
4 신장거리(공수내림)
5 신장거리
6 호구거리
7 뒷전
서울시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한 후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굿을 하는 동안에는 정갈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관한다. 굿은 사흘 간 진행하는데, 굿이 드는 날(시작하는 날)과 묵는 날(굿을 하는 날) 그리고 나는 날(굿을 끝내는 날)로 구분한다. 추석천신굿은 신당이 모셔져 있는 기자 집안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래에는 공공 굿당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울 지역의 추석천신굿은 부정 · 가망청배와 진적, 불사거리, 호구거리, 본향(산신)거리, 조상거리, 대신할머니거리, 전안거리, 신장거리, 상산거리, 별상 · 대감거리, 제석 · 호구거리, 성주 · 군웅거리, 창부 · 계면거리, 뒷전거리의 14거리로 짜여진다.

풍성하게 차려놓고 흥겹고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별상 · 대감거리와 제석 · 호구거리 사이에 참관자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무감서기가 곁들여진다. 황해도 지역의 추석천신굿은 봄에 치루는 꽃맞이굿과 같다. 그 내용은 당울림을 시작으로 부정거리, 산천거리, 초감흥거리, 소대감거리, 칠성거리, 영전거리, 군웅거리, 타살거리, 성주거리, 대감거리, 신장거리, 장군거리(작두거리), 조상거리, 뒷전 등 총 15거리로 이루어진다. 서울 지역과 같이 굿거리 중간중간에는 참석한 사람들의 신명을 돋우기 위해 무감서기를 한다.

의의 추석은 일년 동안 가장 마음이 한가로울 때이다. 이때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자연 환경과 더불어 일년 중 가장 큰 만월을 맞게 된다. 봄과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하기 때문에 음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수확의 풍성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추석천신굿은 신령께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이러한 때에 베풀어지는 추석천신굿은 사회생활의 구심점이 되게 하는 집단적인 공동체 모색과 그들의 동일성 확인 그리고 일체감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 高麗史, 大淸通禮, 三國遺事, 三國志, 禮記,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柳東植, 延世大學校出版部, 1975), 韓國巫俗論(崔吉城, 螢雪出版社, 1981), 韓國巫俗思想研究(金仁會, 集文堂, 19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샤머니즘(조흥윤,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한국의 굿(하효길 외, 民俗苑, 2002).

필자 | 양종승(梁鍾承)

구름보기

정의 추석날 구름의 형태를 살펴보아 한 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예측하는 농점(豊占)의 하나.

내용 구름은 농경사회에서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紀異)」 고조선 왕검조선조(古朝鮮王儉朝鮮條)에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穀), 명(命), 병(病), 형(刑), 선(善), 악(惡) 등 무릇 인간(人間)의 삼백육십여사(三百六十餘事)를 맡아서 인세(人世)에 있어 다스리고 교화(敎化)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때의 바람[風伯]과 비[雨師]와 구름[雲師]을 다스렸다는 것은 자연의 조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농경사회에서 풍요로운 힘을 상징한다.

구름은 앞일을 예지하는 상징으로도 해석되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紀異)」 처용랑 망해사조(處容郎望海寺條)에 신라 헌강왕(憲康王)이 개운포(開雲浦)에서 처용(處容)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홀연 구름과 안개가 캄캄하게 끼어 길을 잃었을' 때, 일관(日官)은 이것을 '동해용의 변(變)'으로 해석한다. 곧, 짙은 먹구름을 안개와 함께 흉변의 징조라고 보았고 이러한 구름이 걷힌 곳을 개운포라 명명한 것이다.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 9년 7월조에 "장의사(壯義寺)에 거둥하여 사리 분신(舍利分身)을 하였더니, 오색(五色) 구름이 나타나 백관(百官)이 전(箋)을 올려 경사스러운 구름(慶雲)을 하례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오색구름을 좋은 징조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도 구름의 모양으로 나라의 미래를 점치고,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여 나라의 정책을 논한 일들이 보인다.

이처럼 구름은 농경사회에서 자연의 조화로움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며, 미래의 일을 예지(豫知)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다.

구름보기는 8월 14일 저녁이나 8월 15일 추석의 날씨를 보아 한 해 농사의 풍흉을 미리 점쳐보는 행위로, 구름의 형태를 살펴서 이를 근거로 농사 풍흉을 알아보는 풍속이다. 추석에는 보통 일기(日氣)가 청명해서 맑아야 좋다고 여겼으며, 밤에 구름이 끼어 달빛을 볼 수 없으면 흉년이 든다고 생각하였다.

전남 지역에서는 14일 저녁 구름이 끼었을때, 흰

구름이 많이 떠서 여름에 보리를 베어 늘어 놓은 것처럼 "깍지깍지" 벌어져 있으면 그해 보리농사의 풍작을 말해주고, 떠 있는 구름덩이가 너무 많거나 하늘에 구름이 한 점도 없으면 보리농사가 흉년이 들 징조라고 판단하였다.

의의 구름보기 풍속은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날씨에 관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구름은 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는 농사짓기에 적당한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기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예부터 구름은 미래를 예지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이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농사점(農事占)의 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史記, 三國遺事, 世祖實錄,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필자 | 박종오(朴宗吾)

달맞이

정의 추석날 저녁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거나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풍속.

내용 추석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름달을 보면 좋다고 하여 마을 뒷산이나 높은 곳에 오르기도 하고 혹은 마당에서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며 달의 모양을 봐서 풍흉을 점친다. 중국 남송(南宋) 시대 맹원로(孟元老)의 저서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는 "중추날 밤에는 대문을 장식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달맞이를 하는데 풍악소리가 밤새도록 끊이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3 「열전(列傳)」 김유신조(金庾信條)에 "8월 보름에 왕이 월성(月城) 산 위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며 시종관들과 함께 주연을 베풀고 즐겼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20년(1489) 8월조에 "옛 사람들이 추석에 달구경한 것이 어찌 황음(荒淫)하여 그러하였겠는가? 오늘 저녁에 경연 당상(經筵堂上)과 출직(出直)한 승지(承旨)·주서(注書)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에게 주악(酒樂)을 내려 청량(淸凉)한 곳을 가려서 태평의 날을 즐기게 하려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조재삼(趙在三)의 저서 『송남잡지(松南雜識)』 「세시류(歲時類)」 시월잉태조(視月孕胎條)에는 "쇄쇄록(瑣碎錄)에 이르기를, 날이 흐리거나 구름이 있어 추석 달이 보이지 않으면 토끼가 새끼를 배지 못하고 개구리가 알을 낳지 못하며 또 메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지역사례 추석날 달맞이는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풍속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달을 보고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남보다 먼저 달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여 아들이 없는 집의 사람이 먼저



경직도 국립민속박물관

달을 보도록 양보하기도 한다. 충남 지역에서는 추석날 달이 잘 보여야 보리농사가 잘 된다고 여기며, 횃불과 짚을 준비하여 달이 떠오르면 짚에 불을 붙여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 해안 지역에서는 달이 밝고 둥글면 가을 어장이 좋다고 여긴다. 부산 지역에서는 추석날 보름달이 희고 밝으면 이듬해 물이 흔해 풍년이 들고, 달이 붉으면 가물어서 이듬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한 달의 서쪽이 이지러져 있으면 서쪽에 있는 마을에 흉년이 들고, 동쪽이 이지러져 있으면 동쪽에 있는 마을에 흉년이 든다고 한다. 서울 지역에서는 추석에 달이 보이지 않으면 개구리가 알을 배지 못하고 토끼도 새끼를 배지 못하며, 메밀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속신이 있다. 또 이날 높은 산에 올라가 달에 절을 하고 남보다 먼저 달을 보면 첫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도 한다.

의의 추석에 달맞이를 하는 행위는 달을 소생의 상징물 또는 생명력의 상징물로 여기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정월대보름과 더불어 일년 중 가장 밝고 둥근 달이 뜨는 추석에 달맞이를 함으로써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고, 내년 농사의 풍작과 못다 이룬 소망을 기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東京夢華錄, 三國史記, 成宗實錄, 松南雜識,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全南의 歲時風俗(全羅南道 鄕土文化叢書29, 全羅南道, 1988), 서울六百年史-民俗 篇-(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90),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박종오(朴宗吾)

☞ 달맞이: 정월편

밀물보기

정의 음력 8월 보름에 밀물의 많고 적음을 보고 그 해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치는 풍속.

내용 및 지역사례 해안가에서 추석날 간조(干潮)에서 만조(滿潮)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밀려드는 밀물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를 보고 한 해의 풍흉을 점쳤다. 물은 창조의 원천이며 생산적 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밀물의 양이 많을수록 그 생산력 또한 크다고 믿는 데서 기인한다. 바닷물의 양이 많고 활동이 활발할수록 생산력이 높아져서 바다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날 바닷물이 가득 차면 시절(時節)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8월 보름에 바닷물의 많고 적음으로 그해의 풍흉을 점친다. 이날 밀물의 양이 평상시에 비하여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여긴다. 부산 지역에서는 추석날 바닷물이 해변을 꽉 찰 정도로 만조가 되면 그해 시절이 좋다고 여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필자 | 박종오(朴宗吾)

밭고랑기기

정의 추석 전날인 음력 8월 14일 밤에 아이들의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 밭고랑을 기는 풍속. 주로 전남지방에서 많이 행했다. 이날 아이들이 밭에 나가 발가벗고 자기 나이 수만큼 밭고랑을 기는데, 이때 간단한 보름 음식을 장만해 밭둑에 놓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평소 아이의 몸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내용 우리 세시풍속에서 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보름은 바로 그 대표이며 상징적인 날이다. 추석 역시 달의 크기가 가장 커지는 보름에 속한다. 농경을 기본으로 한 우리 문화의 상징체계 속에서 달은 여성이나 출산, 불사(不死) 등과 연관되어 달과 관련된 기원들도 주로 풍요나 재생의 목적이 많다.

추석 전날 달빛 아래에서 발가벗고 밭고랑을 기도록 함으로써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풍속은 정월대보름에 몸의 병을 막기 위해 행하는 부럼 풍속과도 상통한다. 이들은 모두 재생과 생산이라는 달에 대한 속신관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례 전남 진도(珍島)에서는 음력 8월 14일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콩밭에 가서 아이들을 발가벗기고 나이 수만큼 밭고랑을 기도록 한다. 이때 밭둑에 보름 음식을 따로 장만해놓고 이 일을 아이들에게

시키는데, 기어야 할 밭고랑의 수는 때에 따라 적당히 헤아려 나이 수와 꼭 맞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한다.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하면 평소 몸에 부스럼 따위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의의 일반적으로 추석이 있는 8월의 농촌은 모든 것이 풍성하며 한가한 편이다. 그러나 이달 이후 9~10월에는 콩과 팥, 조와 같은 각종 작물을 수확해야 한다. 특히 삼남지방에서는 벼의 추수를 끝내고 곧바로 가을보리를 심게 되므로 더 바빠지는 일이 많다. 따라서 밭고랑기기와 같은 풍속은 병으로 인한 노동력의 손실을 막고 풍요를 비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남도민속학 개설(지춘상 외, 태학사, 1998).

필자 | 박기현(朴起賢)

추석비[秋夕雨]

정의 추석날 비가 오는 정도를 보고, 다음해 보리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쳐보는 풍속.

내용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는 적당할 때는 풍요와 생명력을 가져다주지만, 넘칠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짓기가 힘든 경우에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를 지내지만,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올 경우에는 그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祈晴祭)를 지내기도 한다.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라는 속담도 추석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들어 시집을 못 가게 돼 슬퍼서 운다는 뜻으로 수확이 시작되는 추석은 맑아야 좋다고 여긴다.

지역사례 전남 지역에서는 추석에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다음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만일 이때 비가 내리면 흉년이 든다고 여겼는데, 특히 보리농사가 좋지 않다고 여긴다. 경남 지역에서도 추석날 비가 오면 보리 흉년이 든다고 생각하여 날이 맑아야 좋다고 여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경상남도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박종오(朴宗吾)

추석빔(秋夕-)

정의 음력 8월 15일 추석(秋夕)을 맞아 새로이 장만하거나 깨끗이 세탁하여 입을 수 있도록 마련한 옷과 치장물. 비슷한 말로는 설빔이나 단오장(端午粧)이 있다. 추석빔의 '빔'은 보임, 뵘 그리고 비음이라고도 발음된다. 특히 비음이라는 기록은 조선조 말의 연대가 확실하지 않은 궁중 발기[件記]에서 확인된다. 비음 곧 빔이란 명사 뒤에 쓰이며 명절이나 잔치 때 새옷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 또는 그 옷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추석빔의 유래는 추석이라는 속절(俗節)의 생성 역사와 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추석이라는 명절이 우리 세시풍속에서 중요한 속절로 자리잡은 이후에 추석빔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되었다. 추석은 고려시대 이후 정조(正朝)나 단오절(端午節), 유두절(流頭節)과 함께 제례(祭禮)와 관련된 속절이었다. 조선시대, 특히 19세기 이후로는 단오나 유두의 절일(節日)로서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가묘(家廟)를 두지 않은 일반 서민 계층에게는 추석의 묘제(墓祭)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추석빔 풍속의 계층적 확대 현상도 함께 수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새로운 시간대로 진입하는 통합의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새해 아침인 설날이 한 해의 시작 의례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석 역시 햇곡식을 먹게 되는 수확의 시작의례라는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시간대로 진입하는 통합의례에서는 모임이 수반된다. 또 설날 아침에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어른들께 설빔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석빔 입기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김영광

추석 때 역시 차례를 올리고 문중의 구성원들이 만나 인사를 나누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설보다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모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정갈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요구된다. 그러한 모임을 위해서는 옷치장이 필수적이다. 또한 무더웠던 여름을 접고 겨울을 준비해가는 시점에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포근한 옷 한 벌도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석빔 풍속은 설빔과 마찬가지로 사교적 필요성과 더불어 기후 환경적 필요성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 추석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새로운 옷을 장만하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이다.

전통사회에서의 아이들의 추석빔이란 설빔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말 이후의 경우를 살펴보면 남아는 바지, 저고리, 배자나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색동두루마기, 까치두루마기, 오방장두루마기), 전복 그리고 복건으로 추석빔을 갖추었으며, 여아들은 색동저고리에 다홍치마 그리고 두루마기를 덧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절기, 계절에 관계없이 비슷했지만 소재는 차이가 있었다. 가을이라는 계절에 적합한 소재 이를테면 숙고사나 관사, 도류사 같은 비단과 명주를 사용하였으며, 서민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무명 같은 소재에 곱게 염색하여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 農家月令歌, 설 민속의 형성근거와 '시작'의 시간인식(임재해, 韓國民俗學報7, 韓國民俗學會, 1996), 전통 아기 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박성실,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歲時關聯 記錄들을 통해 본 조선시기 歲時風俗의 變化(정승모, 역사민속학1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朝鮮時代 服飾用語 硏究 I (김진구, 服飾文化硏究 제9-3, 服飾文化學會, 2001).
필자 | 이은주(李恩珠)

가배주(嘉俳酒)

정의 음력 8월 15일 한가위에 가무백희(歌舞百戱)를 하면서 마시던 술.

내용 가배(嘉俳)란 가위의 옛 말로서 팔월 한가위의 어원이 되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1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조에 "7월 보름부터 길쌈매기를 하여 팔월 한가위에 그 승부를 가려, 진 편이 주식(酒食)을 갖추어 이긴 편을 대접하는데, 가무백희를 행한다고 하고, 이를 가배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가배주는 신라시대부터 추석 때 즐겼던 절기주(節氣酒)로서, 특별한 제조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나 놀이에 여럿이 나누어 마시는 술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궁중과 사대부에서는 추석 때 햅쌀로 빚은 신도주(新稻酒)를, 일반 서민층과 농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가전비법(家傳秘法)으로 빚은 농주(農酒)를 가배주로 즐겼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是議全書, 韓國歲時風俗(任東權, 瑞文堂, 1973), 高麗以前의 韓國食生活史硏究(李盛雨, 鄕文社, 1978), 韓國食生活變遷史(姜仁姬, 한국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 1988),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名家銘酒(박록담, 효일문화사, 1999), 우리술 빚는 법(박록담, 도서출판 오상, 2002).
필자 | 박록담(朴碌潭)

노티

정의 익반죽한 찹쌀가루를 엿기름가루에 삭혀서 5센티미터 크기로 동글납작하게 빚어 참기름에 노릇노릇하게 지진 떡. 완전히 식혀 사기항아리에 설탕이나 꿀을 뿌리면서 차곡차곡 담아두고 먹는 독특한 떡으로 놋티, 놋치라고도 한다. 평안도의 향토음식이며, 평양지방의 이름난 음식이다.

내용 평안도는 우리나라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로 서쪽을 제외하고는 산세가 험한 편이다. 농산물은 쌀을 비롯하여 조, 수수, 기장, 옥수수, 감자, 대두, 보리, 팥, 녹두 같은 잡곡과 사과, 밤과 같은



과일이다. 떡은 주로 이 농산물들을 재료로 하여 만드는데 대륙적이고 진취적인 이 지방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대체로 매우 크고 소담스럽다.

노티는 찹쌀 대신 평안도에서 산출되는 찰기장가루, 찰수수가루만으로 만들기도 하고, 찹쌀가루를 섞어서 만들기도 한다. 달콤새콤하면서도 쫄깃쫄깃한 맛이 특징으로 과자에 가까운 독특한 음식이다. 노티 반죽을 삭힐 때 여러 번 반죽해서 잘 섞어야 딱딱한 멍울이 생기지 않는다.

추석에 만들어 성묘 때도 쓰고 다음해 여름철까지 그대로 두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이다. 평안도 사람들은 이 노티를 명절 때 많이 만들어 명절 음식상에 푸짐하게 놓는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자랑스런 민족음식(최필승, 한마당, 1989), 한국의 떡과 과줄(강인희, 대한교과서, 1997), 한국음식대관3-떡·과정·음청-(강인희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필자 | 윤덕인(尹德仁)

누름적(-炙)

정의 채소, 고기 따위를 너비 1센티미터, 길이 8~10센티미터 정도로 가늘고 길게 저며, 꼬챙이에 색을 맞추어 꿰어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을 풀어 씌워 번철에서 전 부치듯이 지진 요리의 총칭. 일명 누르미 또는 간납(肝納)이라고 한다. 또는 밀가루 갠 것만 묻혀서 부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을 누르미라고도 한다. 추석(秋夕)의 절식에 해당한다.

내용 누르미는 『음식지미방』에 녹말을 넣어서 걸쭉하게 만든 즙액을 붓거나 섞어 만든 요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즙액에는 생치(꿩)즙, 간장, 막장, 기름, 후추, 천초가 조미료로 쓰였다. 19세기 이후로 누르미는 도라지, 버섯, 고기를 갸름하고 좁게 간추려 꼬챙이에 꿰어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것을 이르게 되었고, 일상음식으로 많이 이용되나 특히 추석절식으로 이용도가 높았다.

누름적의 일종으로 추석 무렵에 많이 만드는 화양적(華陽炙)은 쇠고기, 도라지, 당근, 파를 볶아서 꼬치에 꿰어 다시 한번 번철에 참기름을 두르고 앞뒤를 익혀 내는 것이며, 화양누름적은 재료를 볶아서 꼬치에 꿰어 번철에 익힐 때 밀가루, 달걀옷을



누름적 궁중음식연구원

입혀서 지져낸 것이다. 화양은 도라지를 의미한다. 더덕, 고기, 파 등을 꼬치에 꿰어 밀가루, 달걀을 씌워 넓적하게 기름에 지진 것을 간납이라 하며 제물(祭物)로 이용되었다.

서울 지역의 진누르미는 고기, 도라지, 파를 꿰어 밀가루, 달걀을 묻혀 부친 간납의 일종으로 제사상에 쓰인다고 하였다. 강원도 지역의 느리미는 쇠고기, 도라지, 배추, 다시마, 파, 고비(고사리)를 각각 양념하고 색을 맞추어 꼬지에 꿰어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지져내고, 느리미 위에 간장, 설탕, 파, 마늘, 물을 섞어서 잠깐 끓인 장물을 끼얹어 지져 낸다. 이처럼 즙액을 끼얹는 누르미는 점차 사라지고 현재에는 누름적의 형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1670년의 『음식지미방』에 기록되어 있는 가지누르미는 가지에 밀가루, 간장, 기름을 발라서 구운 것에 즙을 얹은 것이고, 개장국누르미는 개를 삶아서 뼈를 발라내고 다시 솥에 넣어 참깨를 볶아 찧어 넣고 간장을 넣어 삶은 뒤 썰어 밀가루와 기름간장, 천초 등으로 만든 즙을 얹은 것이다. 대구껍질누르미는 마른 대구 껍질을 물에 담갔다가 빨아서 비늘을 없애고 약과(옛날의 네모진 약과)만큼씩 썰어서 석이, 표고, 진이(참버섯), 송이, 생치(꿩)를 아주 잘게 다진 것과 호초(후추)와 천초가루로 양념하여 대구껍질에 싸서 밀가루를 물에 풀어 가장자리를 붙여 삶는다. 생치즙(꿩 삶은 물)에 밀가루를 타고 골파를 넣어 맛나게 해서 느름하게 즙을 하여 얹으면 가장 맛있다고 하였다. 또한 동아누르미는 다진 고기, 채소류를 동아 저민 것을 말아 꼬챙이에 꿰어 중탕하여 찌거나 기름에 지져 즙액을 끼얹어 만든 것 등이 기록되었다.

『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廷料理通攷)』에서 박누르미는 박을 삶아 양념하고 쇠고기, 느타리를 꼬챙이에 번갈아 꿰어서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번철에 지진 것이라 하였고, 『주방문(酒方文)』의 석화누르미는 석화(굴)에 기름장, 소금, 후추를 넣고 구워서 그 위에 즙을 얹은 것이며, 적란(炙卵)누르미는 달걀에 후추, 천초, 간장, 기름, 소금을 섞어 대나무 통에 넣어 구운 후 즙을 얹은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가지누름적은 데친 가지를 잘게 쪼개어 양념에 주무른 뒤 꼬챙이에 꿰어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을 씌워 지진 것이고, 박누름적은 박, 쇠고기, 느타리버섯을 각각 같은 크기로 썰어 양념하여 꼬치에 꿰어 밀가루와 달걀을 씌워 지진 것이다. 풋고추누름적은 풋고추의 씨를 발라내고 간장과 기름에 버무려 꼬챙이에 꿰어서 밀가루와 달걀을 묻혀 지진 것이다.

버섯누름적은 마른 버섯을 물에 불려 꼬챙이에 꿰어 만든 누름적이고, 송이누름적은 송이버섯을 적당한 길이로 도독하게 썰어서 장, 기름, 후춧가루에 양념하여 꼬챙이에 꿰고 밀가루 갠 것을 살짝 묻혀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것이다. 돼지고기누름적은 제육 삶은 것과 파 데친 것을 대꼬챙이에 번갈아 꿰어서 녹말 앙금에 달걀 푼 것을 부어 누름적을 부친 것이다. 상에 놓을 때에는 꼬챙이를 빼고 적당히 썰어서 초장에 찍어 먹게 하였다.

잡누름적(잡누르미)은 쇠고기, 양, 등골, 전복, 도라지, 당근, 표고버섯 등을 각각 같은 크기로 썰어 조미하여 볶아 색을 맞추어 꼬챙이에 끼운 것으로 주로 왕가에서 해 먹던 음식인데 임금의 탄신일 때 주안상에 올랐다고 한다. 이와 같이 누름적은 계절에 따라 산출되는 식품재료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酒方文, 李朝宮廷料理通攷(韓熙順 외, 學叢社, 1957), 韓國料理百科事典(黃慧性, 三中堂, 1976), 규곤시의방(황혜성 편저, 韓國印書出版社, 198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韓國의 맛(姜仁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7), 韓國飮食(尹瑞石, 修學社, 1988).

필자 | 윤덕인(尹德仁)

닭찜

정의 닭을 잘 손질하여 갖은 양념을 넣고 푹 삶은 음식. 추석 차례에 올리는 제물로 장만하거나 절식으로 먹었다. 계증(鷄蒸)이라 한다.

내용 양계를 하지 않던 때, 추석 즈음이 되면 햇닭이 살이 올라서 그 맛이 좋다. 그래서 이때 햇닭을 잡아서 닭찜을 만든다.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경상도에서 주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통닭 한 마리를 잘 씻어 물기를 뺀 다음에 통째로 기름을 두른 번철에 올려놓고 지진다. 이것을 냄비에 넣고 닭고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여기에 북어, 마른오징어, 홍합 같은 어패류와 다시마, 두부, 무를 넣는다. 약한 불에 국물이 절반 이상 졸도록 끓인다. 이것을 차례상에 올리거나 절식으로 먹는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서는 추석이 되면, "아무리 벽촌의 가난한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을 만들며,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린다."라고 했다. 조선시대 궁중의 각종 제물 단자(單子)에도 연계증(軟鷄蒸) 한 마리가 반드시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제사 음식에서 중요한 제물이었음은 분명하다. 오늘날 강원도 강릉시 교동의 유씨 집안에서도 차례상 제3열에 초간장, 육전, 육적, 소적, 어적, 어전과 함께 닭찜을 올린다.

참고문헌 | 洌陽歲時記, 江陵地域 일부 가정의 秋夕 茶禮 상차림과 祭禮飮食에 관한 연구(1)(尹德仁, 關東民俗學 10·11, 關東大學校 江原無形文化硏究所, 1995), 한국음식론(이지호, 光文閣, 2002).

필자 | 주영하(周永河)





박나물 궁중음식연구원

박나물

정의 가을에 덜 여문 박을 따서 껍질을 벗기고 반을 갈라서 속을 긁어낸 다음에 얇게 저미거나 굵게 채 쳐서 무친 음식. 포채(匏菜)라고도 한다.

내용 추석 무렵에 덜 여문 박을 껍질을 벗기고 속을 긁어낸 다음, 얇게 저민 것을 양념한 쇠고기와 볶다가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맨 나중에 참기름을 떨어뜨려 다시 무친다. 다른 방법은 덜 여문 박을 골라 껍질을 벗기고 속을 긁어낸 다음, 굵게 채 썰거나 저며서 소금물에 데쳐서 물기를 꼭 짠 다음 간장,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고 무쳐 박에 간이 고루 배면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고 한 번 더 무친다.

강원도에서는 추석 무렵의 별식으로 덜 여문 박을 반으로 갈라 껍질을 벗기고 속을 깨끗이 파낸 다음에 얇게 썰어 소금물에 절여둔다. 송이버섯은 밑동을 깎아내고 껍질을 살살 벗겨 씻은 다음에 세로로 얇게 썬다. 절여두었던 박을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박을 볶다가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고 썰어둔 송이를 넣고 잠깐 더 볶아 물을 자작하게 붓고 끓인 다음 간을 맞춘다.

참고문헌 | 우리말 조리어 사전(윤숙경, 신광출판사, 1996), 한국의 나물(한국의 맛 연구회, 북폴리오, 2004).
필자 | 서혜경(徐惠卿)

배숙[梨熟]

정의 배를 통째로 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삶아 꿀물이나 설탕물에 담근 것. 곶감 대신 배를 넣었다 하여 배수정과, 익힌 배라 하여 이숙(梨熟)이라고도 한다. 작은 배를 통째로 후추를 박아서 끓인 것은 향설고(香雪膏)라고도 한다.

내용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씻어 얇게 저미고 여기에 물을 붓고 생강차를 끓인다. 배는 껍질을 벗긴 다음 4쪽으로 갈라 속을 뺀다. 까만 통후추를 배의 등 쪽에 서너댓 개씩 박아 끓여 둔 생강차에 넣고 설탕도 함께 넣어 배가 투명할 때까지 끓인다. 먹을 때 그릇에 국물을 뜨고 배 조각을 한 개씩 넣고 실백을 몇 알씩 띄워 낸다. 까만 통후추가 구미를 돋우게 하는 시원한 화채다.

배는 예로부터 변비에 좋고 이뇨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왔는데, 변비에 좋은 것은 소화가 안 되는 석세포 때문이다. "배먹고 이 닦기"는 이 석세포를 이용하여 이를 닦는 것으로 일석이조와 비슷한 표현이다. 고기 등 평소보다 과식하게 되는 추석에 배의 효소작용과 석세포의 효능이 고기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 조선요리법(조자호, 대동출판사, 1939), 명절음식(한복선, 대원사, 1993), 전통건강음료(한국의 맛 연구회, 대원사, 1996), 음식족보(유태종, 아카데미북, 1998), 조선왕조 궁중음식(한복진, 화산문화, 2002).
필자 | 윤덕인(尹德仁)



배숙 궁중음식연구원

송편[松餠]

정의 멥쌀가루를 익반죽하고 풋콩, 깨, 밤 같은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서 시루에 솔잎을 켜켜로 놓고 찐 떡. 송병(松餠) 또는 송엽병(松葉餠)이라고도 부르며 모든 지방에서 만드는 떡으로, 추석 때 햇곡식으로 빚는 명절떡이기도 하다. 특히 추석 때 먹는 송편은 올벼를 수확한 쌀로 빚어 오려송편이라 하며,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조상께 감사하는 뜻으로 조상의 차례상과 묘소에 올린다.

내용 송편은 17세기부터 기록에 보이는데 1680년 『요록(要錄)』에 송편은 "백미가루로 떡을 만들어 솔잎과 켜켜로 쪄서 물에 씻어낸다."고 하였으며, 『성호사설(星湖僿說)』 권4 「만물문(萬物門)」에는 "떡 속에 콩가루 소를 넣고 솔잎으로 쪄서 만드는데 이는 송병이라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쌀가루를 곱게 하여 흰 떡을 골무떡보다 눅게 하여 쪄서 꽤 쳐 굵은 수단처럼 가루 묻히지 말고 비벼 그릇에 서려 담고 떼어 얇게 소가 비치게 파고, 거피팥꿀 달게 섞고 계피, 후추, 건강가루 넣어 빚는다. 너무 잘고 동글면 야하니 크기를 맞추어 버들잎같이 빚어 솔잎 격지 놓아 찌면 맛이 유난히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편 속에 들어가는 재료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콩, 검정콩, 팥, 꿀, 대추, 미나리를 들었고, 『부인필지(婦人必知)』에는 팥, 잣, 호두, 생강, 계피를,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거피팥가루, 거피녹두고물, 대추, 꿀, 팥, 계피, 밤을 들었다.

송편은 흰 떡 속에 솔잎에서 발산되는 소나무의 정기(精氣)를 침투시킨 떡으로, 이것을 먹게 되면 솔의 정기를 체내에 받아들임으로써 소나무처럼 건강해진다고 여겼다.

송편은 쌀가루에 무엇을 첨가하느냐 또는 소로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멥쌀가루에 모시잎 찧은 것을 섞어 반죽한 모시잎송편, 송기를 넣어 빚는 송기송편 이외에도 도토리가루와 칡가루, 호박가루를 섞어 빚는 도토리, 칡, 호박송편이 있다. 또한 흰 송편에 여러 가지 색으로 꽃모양을 내어 화려하게 빚은 송편을 꽃송편이라 하며, 매화꽃과 같이 꽃의 모양을 본떠 만든 매화송편이 있다.

송편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감자녹말을 찬물에 반죽하여 빚은 쫄깃쫄깃한 감자송편과 송편 속에 무생채가 들어간 무송편을 먹는다. 무송편은 무를 채쳐서 소금에 절이고 물기를 제거하여 좀 맵게 갖은 양념을 하여 보통 송편보다 크게 빚는데 송편속이 얼큰한 것이 특징이다. 감자송편은 감자가루를 만들어 송편을 만드는데, 손가락 네 개를 꽉 눌러 박은 손가락자국이 특색이다. 감자송편은 경상도, 충청도와 함경도에서도 먹으며, 함경도에서는 언감자로 언감자송편을 만들어 먹는다. 전라도에서는 삐삐떡(삘기송편)이라 하여, 띠의 어린 새순을 훑어서 맵쌀가루에 섞어 질기고 맛있는 송편을 해 먹는다. 경상도에서는 모시잎을 뜯어 잿물을 조금 넣어 삶아 멥쌀가루에 섞어 반죽하여 밤, 콩, 대추 등을 꿀에 재었다가 송편소를 넣고 빚어 쪄 내어 참기름에 발라 감잎에 싸서 내놓는 모시잎송편이 대표적이다. 황해도에서는 송편을 빚을 때 얄밉다는 서울 송편과는 다르게 크기가 5배 정도로 손바닥에 가득하게 빚어 먹음직하게 소도 많이 넣고 넓적하게 반달형으로 만들어 손가락자국을 내어 찐다. 평안도에서는 깨를 볶아서 찧어 설탕, 간장으로 버무려서 소를 만들어 넣고 조개모양으로 예쁘게 빚는 조개송편이 있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북쪽지방은 송편을 크게 만들며, 서울이나 경기지방은 작게 빚는 특색이 있다.

예부터 처녀들이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좋은 신랑을 만나고, 임산부가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고 하여 송편 빚기에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덜 익은 송편을 깨물면 딸을 낳고 잘 익은 송편을 깨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임산부들이 찐 송편을 일부러 씹어보기도 하였다. 또 송편 속에



송편 궁중음식연구원

솔잎을 가로로 넣고 찐 다음 한쪽을 깨물어서 솔잎의 귀쪽이면 딸이고, 뾰족한 끝쪽이 오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다.

송편은 추석을 앞두고 여러 날 전에 연한 솔잎을 뜯어 깨끗이 손질해 두었다가 갈피갈피 솔잎을 깔아 찌기 때문에 떡에서 은은한 솔내음이 나게 된다. 또한 솔잎 자국이 자연스럽게 얹혀져 무늬가 멋스럽고, 멥쌀떡의 쫄깃쫄깃한 맛과 각색으로 넣은 소의 맛이 어울려 한국떡의 맛을 대표한다 하겠다.

참고문헌 | 閨閣叢書, 東國歲時記, 婦人必知, 星湖僿說, 是議全書, 要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식 백가지1(한복진, 현암사, 1998), 한국의 떡·한과·음청류(윤숙자, 지구문화사, 1998), 한국음식대관3-떡·과정·음청-(강인희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세시풍속과 우리음식(조후종, 한림출판사, 2002).
필자 | 윤숙자(尹淑子)

숙주나물

정의 콩나물 기르듯이 녹두의 싹을 틔워 기른 것을 데쳐서 무친 나물. 녹두나물이라고도 하며 특히 추석의 절식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 성삼문(成三問)과 신숙주(申叔舟)는 조선조 세종 때 집현전에서 여러 학자들과 학문을 닦았으며 훈민정음(訓民正音) 연구도 도왔다. 세종이 승하하자 문종이 즉위하였으나 문종은 몸이 허약하여 39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그러자 단종이 왕위에 올랐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켜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빼앗았다. 성삼문은 원손(元孫)을 보호하기 위해 사육신들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꾀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하고 처형되었다. 반면 신숙주는 계유정난에 세조를 도와 세조 즉위 후에는 영의정에까지 오르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신숙주의 절개가 녹두나물처럼 잘 변한다고 하여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숙주는 녹두를 콩나물처럼 시루에 담고 물을 주어 싹을 틔워 기른다. 숙주나물은 숙주의 꼬리를 자르고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치고 데친 다음, 냉수에 헹구어 알맞게 짠 후 갖은 양념을 넣고 무쳐서 만든다.


숙주나물 궁중음식연구원

참고문헌 | 한국의 나물(한국의 맛 연구회, 북폴리오, 2004).
필자 | 서혜경(徐惠卿)

신도주(新稻酒)

정의 햅쌀로 빚은 술. 백주(白酒)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술빚기는 연중 첫 수확물인 햅쌀을 이용한 이 신도주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내용 과거 농경사회부터 그해 처음 거둬들인 햇물을 반드시 천신(薦新)하는 풍속이 전해오는데, 이때 오려송편과 함께 햅쌀로 빚은 술을 차례상에 올린다. 따라서 신도주는 추석 때 마시는 절기주(節氣酒)로서 접빈객(接賓客)은 물론, 추석의 놀이행사에도 사용된다. 추석 때 빚는 술은 특히 많은 양이 필요한데, 술을 빚어두고 소놀이패나 거북놀이패가 마을에 왔을 때 후하게 대접하며 잔치를 벌이는 우리 고유의 습속으로 미루어 신도주는 제주(祭酒)이자 잔치술이라 할 수 있다.

추석명절에는 수확을 앞두고 인심도 넉넉해져 친척을 비롯하여 이웃 사이에 서로 청하여 음식을 나누고, 특히 술대접을 후하게 하는 것이 우리네 인정이므로, 신도주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자면 차례상에 올릴 청주를 뜨고 남은 술은 희뿌연 빛깔의 탁주로 걸러야만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다. 추석 때 마시는 술을 백주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편, 신도주에 대한 기록은 조선 후기의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처음 소개되는데, 술 이름만 수록되어 있을 뿐 제조 방법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앞서는 문헌













〈햅쌀술(신도주)〉
1 백설기 풀기
2 누룩 섞기
3 술밑 빚기
4 술밑 안치기
5 밑술
6 덧술용 고두밥
7 밑술과 고두밥 섞기
8 고두밥에 물 섞기
9 술밑 빚기(덧술용)
10 술밑 안치기(덧술용)
11 발효중인 신도주
한국전통주연구소

『양주방(釀酒方)』에는 신도주의 한글 표기인 '햅쌀술'이라 하여, "햅쌀 한 말을 가루 내어 흰무리떡을 찌고 끓인 물 두 말을 독에 붓고, 흰무리 찐 것을 독에 넣어 더울 때 고루 풀고, 다음 날 햇누룩가루 서 되와 밀가루 세 홉을 섞어 버무려두었다가, 사흘 후에 햅쌀 두 말을 쪄서 식힌 후에 끓인 물 한 말과 함께 밑술과 합하여 열흘 후에 맑게 익으면 마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근대에 이르러 가정에서의 술빚기가 금지되고, 식량의 절대부족으로 신도주를 빚어 마시던 풍속까지도 사라지게 되었지만, 위의 기록에서 보듯 신도주는 그 맛이 매우 깨끗하고 맑으며, 알코올 도수도 높다. 또한 막걸리로 걸러도 순후한 맛과 함께 사과 향기와 같은 방향(芳香)을 느낄 수 있다.

참고문헌 | 釀酒方,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韓國食品史硏究(尹瑞石, 新光出版社, 1974), 高麗以前의 韓國食生活史硏究(李盛雨, 鄕文社, 1978), 韓國民俗大觀2-日常生活·衣食住-(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名家銘酒(박록담, 효일문화사, 1999), 우리 술 빚는 법(박록담, 도서출판 오상, 2002).
필자 | 박록담(朴碌潭)

양애간무침

정의 양애는 양하(蘘荷)의 제주도 사투리로 양하의 꽃줄기(꽃봉오리)인 양하근(蘘荷根)을 양념장에 무친 나물. 양하는 뿌리줄기[근경(根莖)] 끝에서 나오고, 양하근은 비늘 조각 모양의 잎에 싸여 나오는 꽃줄기(꽃봉오리)이다. 제주도에서는 추석 음식의 하나로 양애간무침이라 부르며 차례상에 올린다.

이칭 양애의 학명은 양하(*Zingiber mioga (Thunb.) Roscoe*)이다. 양하는 가초(嘉草), 산강, 야생강이라고도 하며, 지역에 따라 양해, 양아, 양왜, 양외라 불린다. 양하근은 양하의 꽃이 피기 전 음력 8월에서 10월 사이 추석을 전후하여 나오는 자줏빛 꽃줄기로, 길이는 5~7센티미터이다. 양하근은 지역에 따라 양하, 양하끈, 양애끈, 양해깐, 양하간, 양애간, 양애떼로 부른다. 경남 남해 지역에서는 양깡, 양아깔이라 하고, 거제에서는 양애갓 또는 양외갓이라 한다.

내용 양하의 원산지는 아시아 열대지방으로 생강과 생강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독특한 향과 맛이 있으며, 식용, 약용, 향신료로 많이 이용된다. 특히 제주에서는 양하를 낙숫물받이로 이용할 만큼 주변에 많이 심었으며, 추석 차례상에 꼭 올리는 음식으로 양하근을 나물로 만든 양외채를 들고 있다. 꽃으로 만든 나물이어서 특이하고, 보기 드문 특미를 지녔다. 양애간무침은 양하의 껍질을 벗기고 살짝 데쳐 2~4등분한 다음 간장, 참기름, 마늘, 깻가루로 양념을 해서 낸다.

양하는 양하김치, 양하장아찌, 양하누름적, 양하탕, 양하산적, 양하녹두나물, 양하가지나물, 양하회로도 이용된다. 특히 양하적(蘘荷炙)은 1600년대 말엽의 고조리서 『주방문(酒方文)』에도 기록이 나오며, 오늘날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양하적을 만들어 차례상에 올리기도 한다.

양하는 익을수록 둥글어지므로 불룩한 것, 적자색을 띠고 광택이 나는 것, 꽃이 피어 있지 않은 것이 맛있으며, 지나치게 큰 것은 단단하고 꽃이 피어 있는 것은 공동(空洞)이 생겨 있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의 부드러운 꽃줄기를 식용으로 한다.

참고문헌 | 酒方文, 南國의 鄕土飮食(秦聖麒, 濟州民俗硏究所, 1985), 韓國料理文化史(李盛雨, 敎文社, 1985), 지역산물을 이용한 향토요리·개발요리(남해군농촌지도소, 1997).
필자 | 정현미(鄭賢美)



양하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강권용

율단자(栗團子)

정의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반대기를 지어 찐 다음 꽈리가 일도록 쳐서 소를 넣고 둥글게 빚어 꿀을 바르고 밤고물을 묻힌 떡. 밤단자라고도 한다. 추석 즈음에 나오는 햇밤을 사용하여 만들어 추석차례에도 사용한다.

내용 밤은 삶거나 쪄서 껍질을 벗긴 뒤 찧어서 어레미에 거른다. 소로는 유자청건지, 소금, 설탕, 계피가루를 섞어 사용한다. 밤고물을 묻힐 때에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밤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 예부터 설사나 이질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왔다. 영양이 풍부해서 어린아이들이 먹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해서 '토실토실 밤토실'이라는 표현도 있다. 몸이 쇠약한 사람이나 밥맛을 잃은 사람이 밤을 먹으면 식욕이 나고 혈색이 좋아져 건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밤은 머리 부분이 좁고 껍질에 윤이 나며 무거운 것이 좋은 것이다.

『해동역사(海東繹史)』 권26에 "밤을 그늘에서 말려 껍질을 제거하고 가루로 한다. 멥쌀을 물에 담갔다가 가루로 빻는다. 밤가루와 쌀가루를 2 : 1의 비례로 고루 섞어서 꿀물로 적시고 시루에 찐다. 백설탕이면 더욱 맛이 좋다."라고 그 만드는 법을 기록하였다. 이것이 원나라의 조리서인 『거가필용사류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에도 율단자가 우리 음식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어 고려시대에 밤을 사용한 떡이 널리 이용되었음을 알게 한다.

참고문헌 | 居家必用事類全集, 農家月令歌, 增補山林經濟, 海東繹史,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한국의 떡과 과줄(강인희, 대한교과서, 1997),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역사(윤서석, 신광, 1999).

필자 | 윤덕인(尹德仁)

토란국(土卵-)

정의 쇠고기 양지머리 육수에 토란(土卵)을 넣고 끓인 국. 추석 전후로 먹는 절식으로 토란탕 또는 토란곰국이라고도 한다.

유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시골에서 토란국을 끓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고려시대 때 이미 토란국을 널리 먹은 것으로 보인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8월령에 "북어쾌 젓조기로 추석 명절 쉬어보세, 신도주, 올벼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에 제물하고 이웃집 나눠 먹세."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조선시대 때는 이미 추석 절식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란은 추석 무렵이 가장 맛있는 시절음식으로 꼽혀 제사상에 올렸다. 『시의전서(是議全書)』에는 "닭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토란은 추석 전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영양이 가장 많고 맛도 좋다. 흙 속의 알이라는 뜻으로 토란(土卵)이라 하며 연잎같이 잎이 퍼졌다 하여 토련(土蓮)이라고도 한다. 토란을 그대로 국에 넣으면 색이 파래지고 미끈거려 좋지 않기 때문에 소금이나 쌀뜨물에 삶아낸 후 사용한다. 한방에서는 토란국이 뱃속의 열을 내리게 하고 위(胃)와 장(腸)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1 율단자
2 토란국
궁중음식연구원

토란국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토란은 껍질을 벗겨 큰 것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쌀뜨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살짝 삶아 찬물에 씻어 놓는다. 쇠고기는 채로 썰어서 양념하여 볶다가 물을 붓고 맑은 장국을 끓인 후 다시마와 토란을 넣어 끓인다. 장국이 끓으면 다시마를 건져서 완자형이나 골패 모양으로 썰어놓고, 파를 채 썰어 넣어 간을 맞춘다.

참고문헌 | 東國李相國集, 是議全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세시풍속과 우리음식(조후종, 한림출판사, 2002), 한국음식(장명숙 외, 효일문화사, 2003).
필자 | 윤숙자(尹淑子)

토란단자(土卵團子)

⇨ 율단자(栗團子): 가을편

화양적(華陽炙)

⇨ 누름적(-炙): 가을편

가마등

정의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서로 손목을 잡아 정(井)자형을 만들고 위에 한 사람을 태워서 놀거나 목표물을 정해 목표물까지 달리는 놀이. 전남 지역에서는 가마등, 가마타기놀이, 전북 지역에서는 가마태기라고 부른다.

내용 가마등은 강강술래의 여흥놀이 가운데 하나이다. 강강술래의 주 놀이인 원무놀이가 끝나면 여러 여흥놀이를 즐기며 어울리게 된다. 여흥놀이는 가마등과 함께 남생이놀이, 기와밟기, 도굿대당기기, 문지기놀이 등으로 서로 손목을 잡거나 허리를 잡으면서 어울려서 노는 놀이이다. 대개 원무와 나선무 형태의 다리밟기와 겨루기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가마등은 가마 타는 것을 본떠서 생긴 놀이인데 먼저 패를 두 편으로 갈라 편마다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오른손으로 자기편 왼 팔목을 잡고 왼손으로 오른 팔목을 꽉 잡아 정(井)자 모양의 네모난 가마를 만든다. 그렇게 만든 가마에 한 사람을 태우고 두 편으로 나뉘어 목표물까지 정해 돌아오게 하는데, 목표물을 돌아오면 다음 차례에 넘긴다.





1~2 가마등
경기도 포천시 공설운동장
국립민속박물관

이와 같이 이어달리기를 되풀이하여 먼저 끝난 편이 이기게 된다. 이어달리기를 할 때 한편에서는 장가 간다고 외치고, 다른 한편에는 시집 간다고 답하여 서로 홍을 돋운다. 전남 지역에서는 "권이권이 되었능가 장닭국권이 되었네 권이권이 되었능가 장닭국권이 되었네"라는 노래 사설이 전한다. 이러한 가마등은 강강술래의 여흥놀이로 서남해 지역에서 성행하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놀이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독놀이 형태로서 아이들 놀이, 부녀자들 놀이로 행해졌으며, 근래에는 초등학교 체육대회에서 협동심과 경쟁심을 북돋는 놀이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강강술래를 찾아서(나승만, 보림,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 강강술래: 가을편

강강술래

정의 음력 8월 한가윗날 밤에 호남 지역에서 널리 놀았던 여성 집단놀이.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 놀이가 확산되어 굳이 호남 지역의 민속놀이라기보다는 전국화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강강술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놀이로서 가장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율동미가 넘치는 민속놀이요 민속춤이요 또한 민요이다. 가무악(歌舞樂)이 일체화된 강강술래는 주로 추석날 밤에 행해지며,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대보름 밤에 하기도 한다. 1966년 2월 15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강강술래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李舜臣)이 전술의 하나로 만들었다는 구전이 있는가 하면 민간어원적으로 해석해서 오랑캐 또는 왜구의 내침(來侵)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강강술래는 전승 현장에 따라 강강수월래, 광광술래, 광광수월래로도 부르는데, 그 중 강강수월래라고 부르는 것을 취해서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는 뜻으로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라고 풀이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한문의 기본적인 문법마저도 어기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강강월수래(强羌越水來)가 아닌 다음에는 믿을 바가 못 되는 것이다. 또는 고대의 국중대회나 마한의 농공시필기에 집단적으로 추었던 원시가무(原始歌舞, ballad dance)와 연계시키기도 하고, 생성과 번식을 위한 짝짓기의 구혼 행위로서 남녀가 공동으로 연희하는 공동의례의 굿판에서 추는 춤이라는 사람도 있다.

대개 민속은 자연발생적이거나 또는 문화 전파에 의해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연대기적 편년을 제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오랜 전승 과정을 겪는 사이, 기능이나 성격의 복합 또는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발생론적 기원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내용 강강술래는 전승 지역으로 보면 호남 일원이요, 연행 시기로 보면 8월 한가위가 일반적이며, 연행 주체는 주로 마을의 여자들이다. 호남 일원에서 줄다리기가 주로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는 것에 반해 강강술래는 추석의 대표적인 놀이인 셈이다. 때로는 정월대보름에 강강술래를 하기도 하지만, 한가위만큼은 아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남자들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

춤은 노래에 맞춰 율동적으로 추는데 늦은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잦은강강술래로 나뉜다. 이는 노래나 춤의 빠르기에 따른 분류이기도 하지만, 한편 진행의 순서로 볼 수도 있다. 동산에 보름달이 떠오르면 마을의 넓은 마당으로 모인 여자들이 느린 가락에 맞춰 늦은강강술래를 추다가 흥이 점점 더해감에 따라 속도가 빨라져서 마침내 잦은강강술래로 이어진다.

그러나 강강술래는 윤무(輪舞) 형태 말고도 많은 부수적인 놀이와 노래가 있다. 따라서 강강술래는 협의와 광의의 강강술래로 나눌 수 있다. 강강술래라는 무요(舞謠)에 맞춰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려 돌며 추는 춤은 협의의 강강술래요, 여기에 부수된 여러 가지 놀이가 첨가되어 광의의 강강술래가 된다. 원래의 강강술래는 구성진 가락의 노래와 손과 손을 잡고 뛰고 춤추며 판을 빙빙 도는 원무였다.

강강술래는 1961년, 1964년, 1965년, 1966년에 연이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했으나 큰 상을 받지 못하였다. 1966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고 그 후 1975년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1976년에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대통령상을 받았다. 1966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당시에는 원무가 기본이고 구성진 노래를 몇 시간을 불러도 흥이 나서 쉬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였다. 추수도 거의 끝이 나고 춥지도 덥지도 아니하며 달이 휘영청 밝았으니, 저절로 흥이 솟고 신바람이 나서 밤이 깊어가는 것을 잊고 순수하고 소박하게 놀 수 있었다.

1975년과 1976년에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면서부터 강강술래 놀이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경연대회는 입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하게 된다. 강강술래도 연출을 맡은 유능한 지도자에 의해서 첨가 과장하여 화려하게 꾸며졌다. 원래는 원무가 주였던 것이 남생이놀이,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지와밟기, 꼬리따기, 덕석말이, 쥐새끼놀이, 가마등, 문지기놀이, 실바늘꿰기, 수건돌리기, 발치기, 외따기, 춘향각시놀이 같은 여성들이 하는 놀이를 모두 참여시켜 놀이의 종합체를 만들었다.


1


2


3


4


5

〈강강술래〉
1 원무
2 청어엮기
3 지와밟기
4 문지기놀이
5 꼬리따기
전남 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강강술래〉
1 남생이놀이
2 고사리꺾기
3 덕석풀이
전남 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지금까지 강강술래의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가락과 놀이도 그렇지만, 강강술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불렀던 노래인 만큼 민중의 애창시로서 그 가사 속에는 민중의 삶에서 빚어질 수 있는 온갖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이 용해되어 있다. 그 노래 가사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님 성님 사촌성님, 강강술래, 시집살이 어떱디까, 강강술래, 고초장초 맵다해도, 강강술래, 시집살이 더맵더라, 강강술래" 이처럼 선후창의 형태로 한 사람이 설소리(앞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이 매김소리(뒷소리)를 받는 형식으로 춤과 더불어 불리게 된다.

전승되어온 일정한 가사도 있지만, 놀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어 불리는 가사도 있다. 곡의 빠르고 늦음이 있을 수 있지만, 시적 형식은 이것만이다. 그러나 형식은 그렇지만 가사는 계속 바뀌 부르기 때문에 단조로움에서 벗어난다. 곡과 그 형식은 고정적인 데 반해서 가사는 가변적인 것이다. 따라서 고정소와 가변소가 한 틀을 이루면서 강강술래를 지탱하는 문예적 형식미를 완성하고 있다.

한편 강강술래는 여성의 민속놀이나 단순한 민요의 차원에서만 놀고 불렀던 것은 아니다. 그것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연행되었던 것은 나름대로 심층적 의미와 기능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강강술래를 지탱해온 그 원형적 심층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강강술래를 구성하고 있는 내외적인 상황적 문맥과 요소들을 분석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강강술래와 관련되는 제반 요소를 추출하면 추석, 보름달, 밤, 부녀자, 윤무, 집단 등이 있다.

첫째, 추석의 세시적 의미는 무엇보다도 풍년감사절이라는 것이다. 정월대보름이 농경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추석은 수확의 시작이라 하겠다. 농사가

시작되는 정월대보름에 농경과 밀접한 놀이로 줄다리기를 한 것과 대칭선상에서 8월 한가윗날 밤에는 강강술래를 한다. 대보름에 하는 줄다리기가 기풍(祈豊)을 목적으로 한다면, 추석에 하는 강강술래는 분명 기풍을 위한 것으로 보겠다. 추석을 즈음하여 수확되는 것은 주곡(主穀)인 쌀이다. 따라서 벼농사가 많은 호남 지역에서 추석은 가장 큰 명절이며 추석 행사로 노는 강강술래는 벼농사와 관련된 세시놀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달은 생성력을 상징하는 구상물이며, 신화원형의 하나이다. 더구나 보름달은 가장 왕성한 기운을 가졌다. 특히 태음력을 농사력으로 사용해온 우리 민족은 농사와 관련된 명절로 보름을 중시하였다. 정월대보름은 말할 것도 없고, 6월 보름인 유두와 7월 보름인 백중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8월 보름인 추석이 역시 농사와 직결된다.

셋째, 밤은 낮과 구별되는 시간대이다. 낮이 세속적인 시간대라면 밤은 성스러운 시간대요, 낮이 남성의 시간이라면 밤은 여성의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낮이 인간의 시간이라면 밤은 신들의 시간이다. 보름달이 훤히 밝은 가을밤, 밤하늘에 울려퍼지는 강강술래 소리가 맑고 곱다. 밤은 추(醜)를 감추고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 신들이 나와 활동하고 세속보다는 성스럽고 신비감 넘치는 밤무대에서 추는 강강술래는 여성적 아름다움을 극치로 몰고 가는 한편 금빛 달을 닮아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저 들녘의 나락을 한껏 영글게 할 수 있는 주문과도 같다.

넷째, 부녀자는 생산의 기능을 가졌다. 여자와 생산의 관계는 특히 농경민족에게는 절대적이다. 세속적으로는 재수가 없고, 부정을 탈 수 있어 경계의 대상이 되지만, 농경문화의 종교주술적 믿음 체계 속에서 여성은 생산성을 가진 존재로 우대된다. 아기를 낳는다는 생산성이 농경의 생산성과 유감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음력 8월 한가위가 절일로 이야기된 것은 신라에 와서부터이다. 신라 3대 유리이사금 때 궁성의 여자들이 좌우로 편을 갈라 한 달간 길쌈을 해서 한가위 때 승패를 가리는 행사가 있었다. 여성 위주의 놀이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추석과 여성의 상관성이 이미 신라시대의 한 세시풍속에서 찾아지는 예다.

다섯째, 윤무(輪舞)는 원형을 그리며 춤추는 것으로, 달을 모방한 주술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유감주술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모방적이거나 유사해야 한다. 알곡은 크고 둥글수록 알찬 것이며 풍요다산으로 이어진다. 추석과 알곡 그리고 풍요다산을 이어주는 기하학적 원리는 원형이다. 알곡과 같은 구체물이든, 추석의 밤하늘에 뜬 둥근 보름달이든, 소망을 담은 풍요다산이든 모두 둥근 원으로 관통된다.

여섯째, 집단은 개별자의 집합이지만, 전체가 하나이기도 하다. 마치 구슬이 하나하나 따로 있지만 꿰어놓으면 하나의 목걸이인 것과 같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중구삭금(衆口鑠金)'이라 하여 "여러 사람의 한 목소리는 쇠도 녹인다."라는 말이 있다. 강력한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다.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보듯 '구지가(龜旨歌)'나 '해가사(海歌詞)'를 부르던 상황도 많은 사람, 곧 집단이 한 목소리로 노래했던 상황이었다. 집단은 신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신을 위압할 수도 있다.

엘리아데(M. Eliade)는 달 상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체의 형태는 달 - 비 - 풍요 - 여성 - 뱀 - 죽음으로 얽어지지만, 이들 중 일부만 묶이는 형태 곧 뱀 - 여성 - 풍요, 뱀 - 비 - 풍, 여성 - 뱀 - 주술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말은 추석 - 보름달 - 밤 - 부녀자 - 윤무(輪舞) - 집단의 연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강강술래가 둥글게 원을 그려 춤추는 형태는 이들과 모두 연관된다. 때로는 감겼다 풀렸다 하기도 하지만, 모두 원형을 기본으로 하여 운용되는 것이다. 비록 나선형으로 추는 잡희(雜戱)들조차도 결국은 원형으로 되돌아오곤 한다. 집단을 이루어 윤무를 하는 강강술래는 원형 지향, 곧 살찐 알곡에 대한 기대나 감사가 알알이 배어 있는 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의 가무로서의 강강술래는 신에게 바치는 공물이고, 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며, 신을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행사이다.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은 폐백(幣帛)이나 희생(犧牲)도 있지만 놀이도 그 일종이다. 강강술래가 농경의례의 하나요, 특히 도작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추석이라는 본격적인 추수를 앞둔 풍년감사제의 기간에 행해진다는 것은 결국 세속적인 기능 이전에 이미 그것은 종교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인간은 신에게 미래를 기대하기도 하고 과거를 감사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믿던 사고양식은 고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강하다. 시원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세시풍속이 생겼고, 또 그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고 있는 의식적 지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본래의 의미가 잊혀진 가운데 잔존문화로 전승되던 사이, 기능을 상실하고 형태만 남았다. 또 성스러운 의미가 잊혀지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만다. 결국 강강술래도 지금에 와서 여성의 민속놀이요 민요요 예능 정도로 생각된다. 비록 지금 어느 한 곳에도 자연적인 연행 현장을 찾아볼 수 없는 잔존문화가 되고 말았지만, 그 본의와 기능은 바로 절실한 삶을 위한 기도로 부르고 노는 데 있었다.

참고문헌 | 史記, 三國遺事, 강강술래놀이(지춘상, 韓國의 民俗藝術1,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78), 韓國詩歌文學論考(정익섭, 전남대학교출판부, 1989), 南道民俗考(崔德源, 삼성출판사, 1990), 광주·전남의 민속연구(나경수, 민속원, 1998).
필자 | 나경수(羅景洙)

거북놀이

정의 음력 8월 15일 한가윗날에 수숫잎으로 거북 모양을 만들어 쓰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는 민속놀이.



거북놀이 『조선의 연중행사』 조선총독부

유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속놀이가 그렇듯이 거북놀이의 유래도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전해오는 구전(口傳)에 의하면, 신라(新羅) 문무왕(文武王) 때 공주가 병이 나자 소년들에게 수숫잎으로 거북의 탈을 만들어 쓰고 놀게 했더니 공주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거북놀이가 신라 문무왕 때 발생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거북놀이에 나오는 대사 중에 "거북이가 압록강을 건너 백두산을 넘어 이천까지 오느라고 배가 고파서 쓰러졌다."라는 내용이 있어 중국에서 전래한 민속놀이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신라 문무왕 때의 발생설(發生說)이나 중국으로부터의 전래설(傳來說)이 모두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거북놀이의 정확한 유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앞에서 서술한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거북놀이는 거북 숭배의 제의적인 무속 신앙에서 유래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집단놀이로서의 성격이 더해져서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놀이 형태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북놀이는 경기도 이천을 비롯한 한강 이남의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연희되었다가 점차 쇠퇴해 음력 8월 한가윗날 어린이들의 유희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이처럼 1960년대에 와서 소멸되었던 것을 1970년대 초에 당시 이천의 대월초등학교 김종린 교감이 민속학자 심우성의 고증을 받아 이를 발굴하여 재현하였다. 그 후 이천문화원장을 중심으로 거북놀이보존회가 구성되어 조사보고서가 나왔고, 경기도 전통 민속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내용 거북은 바다 동물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고, 또 병이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 십장생(十長生) 중의 하나이다. 거북놀이는 거북처럼 마을 주민들의 무병장수(無病長壽)를 빌고 마을의 잡귀, 잡신을 쫓는 데서 발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거북놀이는 경기지방의 무속이 지닌 굿의 방식과 풍물이 함께 어우러진 집단놀이로서, 단순히 오락이나 놀이기능만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성격을 지니며, 놀이를 통해 걸립한 모곡(募穀)은 마을 주민들의 공익(公益)을 위해 사용되었다. 과거 거북놀이가 충청도, 경기도에서 연희되어오긴 했지만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기물(器物)이나 놀이 과정의 구체적인 형태가 복원되어 전해 오는 것은 경기도 이천지방의 거북놀이다.

거북놀이는 수숫대를 벗겨 거북 모양을 만들어 그 속에 두 명이 들어가서 마치 거북이처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논다. 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북몰이가 거북의 목에 줄을 매어 앞장서 끌고 가고, 그 뒤에는 풍물패가 꽹과리, 북, 소고, 징, 장구를 치면서 따르며 행렬은 마을을 한 바퀴 돈다. 그 다음에 놀이패들은 비교적 부유한 집을 찾아가는데, 대문 앞에서 풍물을 친 다음 거북몰이가 "이 동해 거북이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면, 주인이 나와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집 마당에서 한바탕 춤을 추면서 논다.

이때 일행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 이 집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사이다, 이 마을에 사는 사람 무병장수 하사이다."라고 축원하는데,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꽹과리를 친다. 그렇게 한바탕 놀다가 거북이 땅바닥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거북몰이가 "쉬이 쉬이" 하고 손을 저어 춤과 음악을 중단시키고 주인을 향하여, "이 거북이 동해 바다를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쳐 누웠으니,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집 주인은 떡, 과일, 술 같은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 낸다. 놀이패 일행은 음식을 먹은 뒤 잠시 쉬었다가 거북몰이가 거북을 보고, "거북아, 음식도 먹었으니 인사나 하고 가자."라고 하면, 거북이 집주인을 향하여 넙죽 절을 한 후 한바탕 뛰어놀다가 다른 집으로 간다. 이렇게 차례대로 마을의 집들을 돌아다니며 즐겁게 보낸다.

거북놀이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거북이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집주인이 보면 거북몰이가 배가 고파 떡이 먹고 싶어 그런다고 말한다. 그러면 집주인이 음식을 차려 내놓는다. 그리고 거북을 만드는 재료로 수숫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왕골이나 나뭇잎도 사용한다.

구성 및 과정 경기도 이천에서 연희(演戱)되고 있는 거북놀이의 구성은 거북이, 새끼 거북이(남생이), 각종 깃대잡이, 질라아비, 풍물패, 양반, 머슴, 여종, 기타 역할로 이루어지며, 그 인원은 40명 정도이다. 거북놀이의 상징물인 거북이의 형태는 머리, 몸체, 꼬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목은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길게 뺄 수도 있게 만든다. 거북이 안에는 두 사람이 들어가며, 앞사람은 머리의 움직임을, 뒷사람은 꼬리의 움직임을 담당한다. 거북이가 추는 춤은 앞사람이 주가 되고 뒷사람은 보조 역할을 한다. 거북놀이의 연희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거북놀이 국립민속박물관

① 길놀이: 길놀이는 거북놀이의 시작으로 특별한 형식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며 길을 가기 위한 것이다. 길군악 가락에 맞춰 동구 밖에서 마을로 각각 자연스러운 춤사위로 흥을 돋으며 행진한다.

② 승굿: 놀이패들이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 앞에 도착하면 장승굿판을 벌이면서 상쇠의 고사담이 펼쳐진다.

③ 우물굿: 우물굿은 마을의 공동 우물에 항상 맑은 물이 넘치기를 기원하는 놀이과정이다.

④ 마을판굿: 우물굿을 끝내고 마을로 들어오던 거북놀이의 놀이패 일행이 마을의 넓은 공터에서 한바탕 놀이마당을 벌이고 신명을 돋운다.

⑤ 문굿: 만복과 재화가 대문을 통해 꾸역꾸역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문굿은 "들어가오 들어가오. 만인간 들어가오. 문여시오 문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갑니다." 하는 상쇠의 문굿풀이에 이어 거북이를

앞세운 놀이패 일행이 춤을 추며 문안으로 들어가면 주인이 나와 반갑게 맞이한다.

⑥ 터주굿: 터주굿은 뒤안굿이라고도 하며 대개 장독대 옆에 있는 터주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터주가리 앞에서 농악을 치다가 그치면 놀이패 일동이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 누르세." 하고 외치며 땅을 밟아준다.

⑦ 조왕굿: 터주굿을 끝낸 거북놀이의 놀이패가 뒤뜰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온다. 부엌에 들어선 일행은 "누르세 누르세. 조왕지신 누르세."를 반복하며 돌다가 대청으로 나온다.

⑧ 대청굿: 대청굿이 시작되기 전에 집주인은 미리 상 위에 쌀을 가득 부어놓고, 그 위에 북어와 실타래를 올려놓은 고사상을 준비한다. 옛날부터 대청마루의 대들보 위에는 '업'이라고 부르는 큰 구렁이가 있어 집을 수호한다고 믿어왔다. 업은 집을 수호하며 집안에 복을 주고 액운도 가져다주는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청굿은 전체 연희 과정 중 가장 의식성(儀式性)이 짙은 대목이 된다. 대청굿이 시작되면 상쇠가 태평성대, 홍수풀이, 농사풀이, 달거리 순으로 고사창을 부르는 동안 거북이와 놀이패들은 함께 복을 기원해준다.

⑨ 마당놀이: 마당놀이는 일년 농사를 무사히 끝내고 풍요로움 속에 한가위를 맞는 즐거움과 거북놀이를 통해 집안에 복을 빌고 액운을 막았다는 안도감이 한데 어울려 마음껏 뛰고 즐기는 가장 신명나는 대목이다. 홍겨운 가락과 거북의 춤사위가 모든 사람들의 춤과 어울려 신명나게 놀다가 상쇠의 신호에 맞추어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석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라고 힘껏 소리치면서 놀이패 일행은 다음 집으로 떠난다. 이렇게 하면서 놀이패들은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라고 소리치며 온 마을을 누비고 다닌다.

의의 거북놀이는 처음에는 거북을 신성시하는 토속신앙에서 유래되어 각 마을로 보급되었으며, 점차 제의적(祭儀的)인 성격이 강한 마을 공동의 집단놀이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거북놀이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집단 놀이로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대동(大同)놀이이다. 각 가정을 방문하여 굿판을 벌리고 곡식과 돈을 거두는데, 이때 거두어진 전곡(錢穀)은 마을 공동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집단 놀이의 연희(演戲)를 통해 주민들은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고, 서로 협동하는 집단의식으로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 왔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京畿道 篇-(文化財管理局, 1978), 利川郡鄕土文化資料總攬2-민속놀이·민속신앙편-(利川文化院, 1983), 利川郡誌(利川郡誌編纂委員會 編著, 利川郡, 1984), 朝鮮의 鄕土娛樂(村山智順 著·朴銓烈 譯, 集文堂, 1992), 이천시 장호원읍 민속자료조사보고서(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이천시문화원, 1999), 경기민속지 III(경기도박물관, 2000), 利川市誌3-민속과 구비전승-(이천시지편찬위원회, 2001).
필자 | 조승연(趙承衍)

고사리꺾기

정의 고사리를 꺾는 행위를 모사(模寫)하여 만든 놀이. 고사리꺾기는 여흥놀이로 노는 가무놀이의 일종으로, 강강술래에 포함된다. 유사한 명칭으로는 고사리껑기, 고사리따기, 달넘기, 담넘는놀이, 고사리껑자, 고사리꺾자 등이 있다.

유래 고사리꺾기 놀이는 산에서 고사리를 꺾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꿇어 앉아 선두가 일어나서 각 사람들의 팔 위를 넘어가면, 차례대로 손을 놓으면서 원무(圓舞)를 진행시키는 놀이다. 꿇어앉은 모습은 고사리를 흉내낸 것이며, 차례로 팔 위를 넘어가는 것은 고사리를 하나씩 꺾어가는 모양을 흉내낸 것이다. 넘을 때는 실수한 척 옆 사람을 건드리기도 한다.

강강술래 속에 포함되어 연행되기 때문에 강강술래의 일부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강강술래 자체가 여러 가지 놀이들을 모아서 구성한 놀이인 까닭에, 원무라는 광의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면과 놀이의 유형이라는 협의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면이 다르다고 하겠다.

사실 고대의 강강술래가 복합적 기능을 가진 종합적 놀이임에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놀이들을 통해서 연행되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대개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마한조(馬韓條)와 『양서(梁書)』「열전(列傳)」 등의 기록을 근거로 한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뒤를 따르며 높이 뛴다는 점, 손을 잡고 높이 뛴다는 점, 원무 형식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점, 남녀가 서로 유인할 수 있는 일정한 놀이 형태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 정도이다. 그러나 이 놀이의 형태를 오늘의 고사리꺾기 같은 놀이에 직접 대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현 상황에 맞춰 확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고대의 강강술래 형태가 원무 형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녀가 유인하는 어떤 형태의 놀이가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사리꺾기가 강강술래의 여흥놀이라는 점 때문에 강강술래의 유래설에 빗대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다만 고사리꺾기를 비롯한 강강술래의 여흥놀이들이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 행해져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이를테면 『조선의 향토오락(朝鮮의 鄕土娛樂)』에 따르면, 충북 음성에서는 강강술래가 따로 있고 고개 넘기, 동아따기, 고사리따기, 닭잡이, 덕석말이, 남대문 같은 놀이가 연행되고 있고, 전남 해남의 경우도



1~5 고사리꺾기
전남 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강강술래 외에, 기와밟기, 고사리따기, 덕석말이, 청어엮기 같은 놀이가 연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 노래는 자진모리 또는 빠른 중중모리 장단으로 부른다. '남생아 놀아라'를 부르며 놀다가 설소리꾼이 "고사리 대사리 껑자 나무 대사리 껑자"를 부르면 다른 놀이꾼들은 "유자콩콩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요"로 받아 부르면서 원무 형태 그대로 앉아 어깨만 들썩 움직인다. 그러면 선두가 일어서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왼쪽으로 돌아 다음 사람과 맞잡은 팔 위를 넘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넘어간다. 인원이 많을 때는 군데군데 끊어서 동시에 넘을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씩 끝까지 넘고 나면 다시 둥근 원(圓)이 된다.

지역사례 고사리꺾기는 광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든 협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든 강강술래의 여흥놀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이 놀이는 강강술래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는 서남해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므로, 강강술래가 연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조선의 향토오락』의 기록에 의하면, 강강술래와 꼭 연관 짓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동일한 놀이의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놀이 형태가 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원무형이라는 광의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름이 강강술래라고 해서 동일한 강강술래인 것은 아니다. 『조선의 향토오락』에서 전북 정읍의 강강술래는 강강술래와 제목은 같지만, 세 사람이 한편이 되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한 사람이 그 위에 타고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놀이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때 탄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강술래 놀이와 차이가 있다.

유형별 놀이라는 협의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경우에도, 전북 남원의 고사리따기는 고사리꺾기와 제목은 유사하지만, 두 사람이 양손을 잡고 양쪽 발끝을 축으로 해서 "고사리 캐자 끽끽 여기도 저기도 많이 있구나"라고 노래 부르며 빙빙 도는 놀이이므로 오히려 오늘의 '남생아 놀아라' 놀이의 한 부분과 흡사하다. 경북 선산의 고사리따기는 고사리꺾기와 이름이 유사하지만, 산놀이를 한 후 고사리를 뜯는 것으로 일종의 화전놀이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강강술래하고는 상관이 없다. 경남의 의령, 함안, 밀양, 함양, 거창과 황해도 평산의 고사리따기도 대개 봄과 여름철에 여자와 농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봐서 경북 선산의 경우처럼 화전놀이형 고사리따기로 판단된다. 서남해 도서 지역에서 불리는 고사리꺾기의 대표적인 가사는 다음과 같다.

고사리 대사리 껑자 나무 대사리 껑자
유자꽁꽁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요
껑자 껑자 고사리 대사리 껑자
한라산 고사리 껑꺾다가 우리 아배 반찬하세
껑자 껑자 망부 대사리 껑자
고사리 껑꺾 바구리 담고 아산이나 넘자
껑자 껑자 망부 대사리 껑자
송쿠 껑꺾 웃짐 영고 태산이나 넘자
껑자 껑자 고사리 대사리 껑자
수양산 고사리 껑꺾다가 선영봉대를 하여 보세
껑자 껑자 고사리 대사리 껑자
수양산 고사리 껑꺾다가 우리아베 반찬하세

참고문헌 | 三國志, 梁書, 朝鮮의 鄕土娛樂(村山智順 著·朴銓烈 譯, 集文堂, 1992), 강강술래를 찾아서(나승만, 보림, 2003), 강강술래(나승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강강술래의 역사와 놀이구성에 관한 고찰(이윤선, 韓國民俗學40, 한국민속학회, 2004).

필자 | 나승만(羅承晩)

⇨ 강강술래: 가을편

관조(觀潮)

정의 고려시대에 서해안지방에서 주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강이나 바다로 물이 밀려오는 것을 구경하는 일.

내용 관조(觀潮)는 조수 간만(干滿)의 차가 심한 지역에서 주로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중추절 무렵에 전당강(錢塘江)을 거슬러오르는 밀물을 보는 것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기록에서만 나타난다. 『고려사(高麗史)』「세가(世家)」14 예종(睿宗) 경자(庚子) 15년(1120) 8월조에 보면 "정유일에 왕이 흥복사(興福寺)와 영명사(永明寺)에 가서 조수를 구경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영명사는 평양의 금수산 부벽루 서쪽에 있는데, 예종 등 여러 왕들이 대동강에서

용선놀이를 하다가 이 절에서 휴식을 취하며 헌향하였을 정도로 유명한 절이다.

이 기록을 근거로 삼는다면 관조는 주로 왕이나 귀족 계급이 즐겼던 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바닷가에서 즐기기보다는 밀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큰 강에서 구경하였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중국의 기록처럼 중추절에 관조를 하는 이유는 사리 때 밀물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高麗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김종대(金宗大)

기러기놀이

⇨ 꼬리따기: 가을편

길쌈놀이

정의 부녀자들이 음력 7월부터 8월 추석(秋夕)에 이르는 동안 공동으로 길쌈을 하면서 혹은 길쌈을 끝낸 다음에 옛날이야기와 담소나 가무를 즐기거나 또는 편을 갈라서 경쟁하고 승부를 가리며 놀았던 풍습. 두레삼, 두레길쌈, 공동적마(共同績麻), 들게라고도 부른다.

유래 길쌈을 공동으로 하는 전통은 매우 오래되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1 유리이사금(儒理尼師今) 9년조에는 당시의 길쌈놀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은 육부(六部)를 정한 후,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를 거느리어 편을 짜고 패를 나누어 추칠월(秋七月) 16일부터 날마다 일찍이 큰 부(部)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시작하여 을야(乙夜: 밤 10시경)에 끝내게 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의 다소를 심사하여 지는 편은 주식(酒食)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한다. 이어서 가무(歌舞)와 백희(百戱)가 벌어졌으니 이를 가배(嘉俳)라고 한다. 이때 진 편의 한 여자가 일어나 춤추며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라 하여 그 음조가 슬프고 아름답거늘 후인(後人)이 그 소리로 인하여 노래를 지어 이름을 회소곡(會蘇曲)이라 했다."

이미 1세기 초에 신라에서는 가배 곧, 추석(秋夕) 한가위에 길쌈놀이를 했던 것이다. 이때 불려진 회소곡도 길쌈과 관련된 민요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16세기 초반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 경주부 풍속조(慶州部風俗條)에는 『삼국사기』의 '가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국속지금행지(國俗至今行之)'라 하여, 추석의 길쌈놀이가 국속(國俗)으로서 당대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홍석모(洪錫謨)는 이 기사를 19세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추석조(秋夕條)에서 동일하게 재인용하였다. 20세기 초엽에 민속학자 송석하(宋錫夏)는 경북 경주(慶州)와 그 인근 지역에서도 두레길쌈이라는 적마(績麻) 작업 제도가 전승된다고 하였다.

옛문헌 자료가 달리 더 없어서 추석 길쌈놀이의 지속과 변화를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 물론 신라와 그 이후의 두레길쌈에는 차이가 있고 그 성격도 다르다. 그러나 이미 1세기에 신라에서는 두레삼을 두 편으로 나누어 서로 경쟁하였고, 이때 온갖 가무와 백희가 뒤따른 길쌈놀이가 흥겹게 행해졌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길쌈놀이의 전통은 16세기를 거쳐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도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전승되고 있었다. 다만 각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길쌈놀이의 세부 모습과 성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길쌈놀이
경남 고성 주병수



내용 길쌈이란 각종 섬유 재료에서 실을 뽑고 이를 가공하여 삼베, 모시, 명주, 무명 같은 피륙을 짜는 일련의 수공업 작업을 일컫는다.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여 지방에 따라 또는 옷감의 종류에 따라 직조(織造)의 시기와 규모가 다르다. 그러나 길쌈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모여 놀이를 하는 점은 공통적이다. 특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삼남지방에서는 대개 음력 7월부터 8월 추석에 걸쳐 온 마을의 부녀자들이 두레와 같은 공동체를 조직하고 길쌈을 하였다.

길쌈을 해야 하는 마을 부녀자들은 길쌈두레를 조직하여 매일 저녁 길쌈두레에 가입한 부녀자들의 집을 차례로 돌면서 공동으로 길쌈을 해준다. 이렇게 번갈아서 둘레둘레 돌아가면서 삼을 삼아준다고 하여 '두레삼[공동 또는 협동마적(協同麻績)]' 또는 '두루삼'이라고 한다.

만일 길쌈두레로 길쌈을 하지 않고, 개인이 혼자서 하면 힘이 들기도 하겠지만 시일이 오래 걸려서 매우 비효율적인 노동이 된다. 그러나 두레삼으로 길쌈을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작업량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수십 명으로 구성된 길쌈두레가 공동작업을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옛날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즐기며 노래도 불러가면서 지루하고 고된 반복적인 노동에 활력과 재미를 불어넣었다. 전남지방에서는 다른 들게(길쌈두레)들 사이에 부부놀이, 귀신놀이, 전짓다리홈치기도 하며 놀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편을 갈라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길쌈을 하기도 하였다.

길쌈을 공동으로 하는 기간에는 항상 흥겹게 놀지만, 이를 전부 끝내고 결산을 한 다음에는 더 크게 놀았다. 특히 8월 15일 밤에는 그동안의 노고를 털어버리기 위하여 많은 음식을 장만하고 담소와 가무로써 한껏 즐겼다. 이때 편을 두 패로 나누고 경쟁을 하여 승패를 가리고, 진 편이 이긴 편에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기도 하였다.

한편 길쌈노래를 즐겨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부녀자들이 자신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가락에 담아 노래한 것이다. 4·4조로 이루어져 있는 긴 가사에는 고부간의 갈등, 고된 노동, 근면성, 남편에 대한 애정이 주로 담겨 있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는 서사민요로서의 독특한 민요들을 많이 불렀다.

지역사례 길쌈놀이는 삼남지방에서 특히 성행하였다. 충남 연기에서는 마을의 부녀자들이 뜰에 모여 편을 갈라 길쌈을 하는데 노래를 불러 가면서 일을 하였다. 추석이 되면 길쌈의 양을 심사하여 진 편에서는 음식을 장만한다. 음식이 마련되면 추석의 달밝은 밤에 위로연을 베푼다.

전남 곡성에서는 젊은 처녀들이 7월부터 시작한 공동적마를 8월 보름에 끝내고, 각자 가져온 팥과

쌀을 거둔 것으로 반달 모양의 떡을 빚어 부모에게 먼저 드리고, 남은 것을 먹으며 밝은 달 아래 춤추며 놀았다고 한다. 이를 월병연(月餠宴)이라고 한다.

전북 정읍에서는 마을 부녀자들이 모여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당번 집의 삼을 공평하게 나누고 길쌈을 삼아준다. 이때 재미있는 이야기와 흥겨운 노래를 해가면서 일을 한다. 8월 추석에 떡을 해서 위로연을 베푼다.

경남에서는 백중 무렵에 친한 부녀자들끼리 품앗이로 한 집씩 돌려가며 삼을 삼는 풍속이 전역에 분포하였다. 이를 두레삼이라고 한다. 이때 주인집에서는 찐 옥수수 같은 음식으로 대접을 한다. 또 편을 나누어 어느 편이 많이 삼는지 내기를 하고, 진 편이 이긴 편에 음식을 해준다. 경남에서는 봄에도 길쌈내기를 한다. 경북 문경에서는 삼뿐만 아니라 무명두레도 하였고, 충남 일부에서는 모시두레도 하였다.

한편 길쌈은 품앗이로도 하였다. 전남 고흥의 물레질품앗이에는 반드시 자기의 물레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황해도와 평안도지방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물레질을 공동으로 하였는데, 10~15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다.

의의 벼농사를 위한 남성의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와 더불어 직조를 위한 여성의 공동 노동 조직인 길쌈두레는 식생활과 의생활의 근간을 이루었던 매우 중요한 공동노동 풍속이다. 특히, 길쌈두레와 그에 수반되는 여러 놀이와 노래에는 당대의 여성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한편 신라의 가배와 공동적마 그리고 가무와 백희는 그 후의 길쌈두레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7월부터 8월 15일 추석에 이르는 기간의 공동적마와 그에 수반되는 여러 길쌈놀이의 기본 형태는 오랜 세월 지속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겠다. 길쌈이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길쌈놀이는 과거의 직조와 그것을 담당한 여성의 노동과 문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세시 자료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韓國의 歲時風俗(崔常壽, 弘人文化社, 1960),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길쌈문화의 전통과 두레공동체(임재해,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길쌈두레의 구성과 기능(이경엽, 韓國民俗學25, 民俗學會, 1993).

필자 | 이필영(李弼泳)

까막잡기

☞ 판수놀이: 가을편

꼬리따기

정의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일렬로 늘어선 대열의 맨 끝 사람을 술래나 상대편이 떼어내는 아이들 놀이로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전해오는 놀이이다. 꼬리따기 놀이는 지역에 따라 명칭과 놀이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닭살이, 쥔쥐새끼놀이, 족제비놀이, 매지따는놀이(망아지놀이), 청애[靑魚]따기, 동애[童瓜]따기, 계포(鷄捕), 백족유(百足遊), 허리잡기, 수박따기, 호박따기, 꽁댕이잡기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으며, 제주 지역에서는 기러기놀이, 줄ᄃᆞ래기라고도 부른다.

내용 꼬리따기 놀이가 각 지역별로 행해진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여러 아이들이 앞사람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고 허리를 굽히고 있을 때, 살쾡이나 귀신을 맡은 아이가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맨 끝에 있는 아이를 떼려 하고, 이에 맞서 선두에 있는 아이가 두 팔을 벌려 이를 방어하는 형식이다. 끝에 아이가 떼어졌을 때 선두인 어미닭이나 어미기러기가 새끼들을 잘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문책으로 다음 놀이에서 살쾡이나 귀신을 맡아야 하고, 귀신이 전원을 잡아떼면 용맹함을 과시한다. 이 유형은 선두에 있는 아이가 움직이는 형태의 놀이와 선두의 아이가 고정된 물체를 잡고 있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경북 영덕에서 월월이청청의 부수적인 놀이로서 행해지는 산지띠기(송아지떼기)는 전자의 예이고, 동애따기는 후자의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유형은 앞 사람의 허리를 껴안고 구부린 채 일렬로 늘어선 놀이 대열에서 맨 앞 사람이 맨 끝 아이를 잡아떼어 내는 형식이다. 전남 해남이나 진도에 쥔쥐새끼놀이라 부르는 놀이가 있는데, 이는 강강술래의 부수적인 놀이로 행해지기 때문에 노래가 따르고, 또 잡는 사람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목마를 태워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면서 위의 방법에 의해 행해진 대표적인 놀이의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유형은 아이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서 한 패의 선두 아이가 상대 패 대열의 맨 끝 사람을 잡는

형식이다. 이를 흔히 수박따기라고 한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윗마을, 아랫마을로 구분하여 두 편으로 나누는데, 편이 정해지면 아이들은 선두로 정해진 아이 뒤에 키 순서대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한 줄로 늘어서서 놀이를 한다. 이때 양편은 선두에 선 아이가 인솔하는대로 아리랑이나 강강술래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마당이나 공터를 몇 바퀴 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마당을 돌다가, 양편의 선두 아이가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여 어느 편이 먼저 수박을 딸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때 이긴 편의 선두 아이는 할아버지가 되어 진 편의 선두에 선 아이(할머니) 앞으로 가서 수박을 따자고 졸라댄다. 진 편의 선두에 선 아이는 좀처럼 수박 따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에 따라 양편의 선두는 열매가 크는 과정을 일일이 말하면서 문답을 주고받는다. 결국 진 편의 선두 아이가 수박 따는 것을 허락하면 공격하는 편의 선두에 선 아이는 수박을 따기 위해 꼬리를 뒤쫓아 다니고, 진 편의 선두에 선 아이는 두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상대편 선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자세를 취한다. 이때 막는 쪽의 선두에 선 아이는 자기 대열을 잘 이끌어야 하지만 긴 대열이 한 번에 움직이기 어려우므로 꼬리는 꼬리대로 미리 짐작해서 피해 다녀야 한다. 선두에 선 아이는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고 자기 쪽의 꼬리가 어디로 가리라는 것도 예측해야 한다. 이때 행동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잡으면 그만큼 반대쪽으로 피하기 어려워 대열의 균형이 무너지므로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다가 상대가 수박을 따거나 막는 쪽의 줄이 끊어지면 놀이를 다시 시작한다.

지역사례 명칭은 다르지만 꼬리따기놀이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명칭이 수박따기인데, 지역에 따라 위에서 소개한 첫째 유형이나 셋째 유형으로 행해진다. 첫째 유형에 속하는 수박따기 놀이로, 경기도 이천의 수박따기 놀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에서는 정월이나 추석에 주로 여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놀이 방법은 이러하다. 여러 사람이 서로 앞사람의 허리띠를 잡고 한 줄로 늘어선다. 줄의 맨 앞사람이 할아버지가 되고, 그 뒷사람 모두는 수박이 된다. 이 줄에 들어가지 않은 한 사람이 할머니가 되어, 할아버지를 향해 "수박을 따고 싶다."라고 하면 할아버지는 "수박은 아직 꽃도 피지 않았어." 또는 "아직 익지 않았어."라고 대답하며 좀처럼 수박따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답이 오가는 와중에 할머니가 무리해서라도 수박을 따려고 하면 할아버지는 줄을 이끌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닌다.

셋째 유형에 속하는 수박따기 놀이로 충남 금산의 수박따기[꼬리따기] 놀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편을 최소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편 구성은 가위바위보를 하여 나눈다. 편이 정해지면 아이들은 양편의 선두 뒤에 허리를 잡고 일렬로 늘어선다. 그리고 양편은 대장이 인솔하는 대로 노래를 부르며 마당이나 공터를 몇 바퀴 돈다. 이렇게 얼마 동안 마당을 돌다가 중지하고 양편의 대장은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여 어느 편이 먼저 수박을 딸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긴 편의 대장은 할아버지가 되어 진 편의 대장(할머니) 앞으로 가서 수박을 따자고 다음과 같이 졸라댄다.

할아버지: 할멈 계신가?

할 머 니: 무슨 일로 오셨는가?

할아버지: 아 일은 무슨 일 수박 따러 왔지.

할 머 니: 엊그제 씨를 뿌려 아직 꽃도 피지 않았는걸.

이와 같이 진 편의 대장은 좀처럼 수박 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긴 편의 대장은 자기편으로 갔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수박을 따자고 조른다. 이때 할머니는 "겨우 꽃이 피었는 걸", "이제 주먹만 해", "내일 모레쯤이면 다 익겠는데"와 같이 씨를 뿌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크는 과정을 일일이 말하면서 문답을 주고받는다.

진 편의 대장은 이렇게 몇 번이고 퇴짜를 놓으며 약을 올리다가 다시 할아버지가 와서 "수박 다 익었소" 하고 물으면 "먹을만합니다", "그러면 하나 주소", "직접 따가시오" 하고는 결국은 수박 따는 것을 허락한다. 일단 허락이 떨어지면 공격하는 편의 대장은 수박을 따기 위해 꼬리를 뒤쫓아 다니고 진 편의 대장은 두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상대편의 대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 자세를 취한다. 또한 뒤에 매달린 아이들도 잡히지 않기 위해 자기편의 대장을 따라 부산하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도중에 허리가 끊어지거나 상대편의 대장이 꼬리를 따면 진다.

매지따는 놀이(망아지놀이)도 꼬리따기놀이의

하나로서,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에서 전승되고 있다. 이 놀이는 삼월 삼짇날을 비롯하여 연중 동네 친구들끼리 모이면 마당이나 야외에서 하는 놀이로서, 술래 한 명을 정한 후 나머지 사람들은 앞사람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고 허리를 굽히면서 도망 다닐 때, 술래로 정해진 아이가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맨 끝에 있는 아이를 떼려 하고, 선두에 있는 아이가 두 팔을 벌려 이를 방위하는 놀이이다. 이때 꼬리를 떼면 술래가 바뀐다.

이 놀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아지놀음이라고도 불렀다. 놀이는 여자 아이들이 술래를 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술래가 정해지면 앞사람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고 허리를 굽혀 술래가 줄의 선두에 선다. 어미 개를 맡은 아이의 방해를 피해 다니면서 꼬리를 차례로 다 떼고, 떼어진 아이들이 어미 개를 맡은 선두 아이를 원망하면서 강아지 울음소리를 내며 놀이를 끝낸다. 이와 같은 놀이는 그 놀이 방법과 명칭을 조금 달리 하여 지금도 이 지역에서 행하고 있다.

기러기놀이는 제주도에서 전해져오는 놀이이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키순으로 일렬로 서서 앞사람의 허리띠를 잡고 늘어선다. 한 귀신이 나타나서 맨 끝의 아이를 잡으려고 하면 그것을 못 잡게 피해서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 놀이를 한다. 주로 팔월 한가위 달 밝은 밤에 마을 놀이터의 넓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기러기처럼 열을 지어 한다. 귀신이 끝의 아이부터 차례로 어미 혼자 남을 때까지 잡으려고 애를 쓴다. 만일 어미가 새끼를 다 잃으면 귀신역을 맡은 어린이가 이기게 된다.

전남 해남이나 진도에서 발견되는 쥔쥐새끼놀이도 꼬리따기놀이의 하나이다. 이는 들쥐들의 모의 행렬희이다. 쥔쥐란 들쥐의 전라도 방언인데, 이 들쥐가 논두렁을 기어갈 때 반드시 어미가 앞에 서고 새끼들은 그 뒤에 꼬리를 문 듯 일렬로 뒤따르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월월이청청 노래를 부르며 월월이청청 놀이를 할 때 행하는 부수적인 놀이 중 꼬리따기에 속하는 산지띠기(송아지떼기)와 동애따기(청애따기)놀이가 있다. 산지띠기의 놀이 방식은 다음과 같다.

술래가 정해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앞장군 선두의 뒤로 앞사람의 허리나 치마꼬리를 잡고 차례대로 늘어선다. 대개 앞장군은 신체가 건장하여 힘깨나 쓰는 이가 맡고 꼬리는 재빠른 사람이 맡는다. 놀이를 시작하면 교환창으로 노래를 주고받은 뒤에 술래가 꼬리를 잡으려고 한다. 앞장군은 술래의 앞을 가로막고 술래는 앞장군을 뿌리치면서 꼬리를 떼려 한다. 이 과정에서 앞장군의 뒤로 늘어선 줄은 심하게 요동치고 특히 줄의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움직임이 크다. 이런 과정을 거쳐 앞장군의 뒤에 달렸던 이들이 다 떨어지면 다시 술래를 바꿔 놀이를 계속한다. 놀이의 초두에는


1


2

1~2 꼬리따기
전남 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느린 교환창을 부르지만 술래의 꼬리따기가 시작되면 노래 없이 매우 빠른 동작으로 움직이면서 술래를 피하는 역동적인 움직임만 남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편을 나누어 각 편의 술래가 나서서 상대편의 송아지를 떼는데 먼저 다 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동애따기의 형식은 산지띠기와 유사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동애따기는 서서 하기도 하나 앉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술래를 정하고 선두가 나무나 기둥 또는 바위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안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선두의 뒤에 차례대로 줄을 만들어 앞사람의 허리를 껴안고 깍지를 낀다. 준비가 끝나면 교환창 형식의 노래를 주고받은 뒤에 "동애따세, 동애따세"라고 하면서 술래가 맨 뒤의 사람부터 차례대로 떼낸다. 다 떨어지면 술래를 바꾸어 다시 놀거나 다른 놀이를 한다. 산지띠기의 선두는 움직이지만 동애따기의 선두는 고정된 물체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인접국가사례 일본에서 1431년 쓰여진 『삼국전기(三國傳記)』에 비구녀(比丘女)놀이라고 전해진 것이 후에 와서 친포(親捕), 자포(子捕) 같은 놀이로 변화한 것이 있다. 여러 아이들이 앞사람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고 허리를 굽히고 있을 때, 술래를 맡은 아이가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맨 끝에 있는 아이를 떼려 하고, 이에 선두에 있는 아이가 두 팔을 벌려 이를 방어하는 놀이이다.

의의 꼬리따기는 주로 아이들 사이에서 하는 놀이로서, 그 명칭과 놀이 방법이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전국에 걸쳐 하는 놀이의 하나로, 지금도 계승되는 놀이이다. 놀이 도구가 많지 않던 시절에 폭넓게 행해진 또래 집단의 단합을 다지는 협동 놀이의 하나이며 어린이들의 민첩성을 기르는 데 유익한 놀이이다.

참고문헌 | 三國傳記,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남국의 민속놀이(진성기, 홍인문화사, 1975), 한국의 민속놀이(김광언, 仁荷大學校出版部, 1982), 금산의 민속놀이(강성복, 금산문화원, 1994), 韓國의 歲時風俗 I (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 (국립민속박물관, 1998), 우리나라 민속놀이(沈雨晟, 東文選, 2000),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조선의 민속놀이(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민속학연구실편, 민속원, 2001),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세시풍속사전-정월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영덕 월월이청청의 성격과 의미(한양명, 民俗學硏究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 김도현(金道賢)

⇨ 강강술래: 가을편

남생이놀이

정의 남생이 몸짓을 흉내 내며 노는 강강술래 놀이의 하나.

내용 남생이는 거북이나 자라와 비슷하게 생긴 우리나라에만 있는 민물 거북인데 남생이놀이는 이러한 남생이의 몸짓을 흉내 내며 노는 놀이이다. 남생이놀이는 강강술래놀이 가운데 동물을 흉내 내는 유일한 놀이로서 특히 남생이를 남성의 성적(性的) 상징으로 본다면 남생이놀이는 성행위를 모방한 주술모의적인 모의희(模擬戱)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성은 풍요다산을 상징하지만 혼자서는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남성이 있어야 여성으로서 생산력을


1


2

1~2 남생이놀이
전남 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발휘할 수 있다. 강강술래를 비롯한 여흥놀이는 여성들에 의한 놀이인데, 특히 남생이놀이에서는 남생이의 남성성과 놀이 주체인 여성성이 결합된 행위를 놀이화한 것이며, 놀이 요소가 갖는 흥미성이 과장되게 표현되면서 오늘에까지 전승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놀이 방식은 다음과 같다. 추석날 강강술래에 참여한 놀이꾼들이 자진 강강술래를 하다가 지칠 때가 되면 선소리꾼이 중중모리 가락의 '남생아 놀아라'를 부르게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를 받아 '남생아 놀아라'를 부르면서 발길을 늦추게 되고, 이어서 놀이꾼 중에서 춤을 잘 추고 남을 웃기는 동작을 잘하는 사람이 원 속으로 뛰어들어 "절래 절래 잘 논다"를 부르면서 갖가지 개인 춤을 춘다. 주로 곱사춤과 궁둥이춤을 추는데, 이를 본 놀이꾼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다같이 다시 원무(圓舞)를 한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강강술래의 생성배경과 기능(서해숙, 남도민속연구3, 남도민속학회, 1995), 강강술래를 찾아서(나승만, 보림,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 강강술래: 가을편

닭잡기놀이

정의 닭과 닭을 잡는 동물을 설정하여 닭을 쫓는 과정을 흉내 내는 놀이. 주로 원무(圓舞)를 중심으로 정해진 술래가 쫓고 쫓기면서 잡는 놀이를 말한다. 지역에 따라 닭잡이, 닭살이, 닭잽이, 널, 닭잡기, 닭잡이, 말놀이, 짚신뺏기, 도둑잡기, 통닭으로도 부른다. 한 발을 무릎 위쪽으로 올려서 손으로 잡고 서로 넘어뜨리기 시합을 하는 닭싸움과는 전혀 다른 놀이이다.

유래 닭잡기놀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놀이 형식으로 보자면 우리 민속놀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놀이의 하나가 아닌가 여겨진다. 무라야마지준의 『조선의 향토오락(朝鮮의 鄕土娛樂)』에 나타난 강강술래 여흥놀이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07년에 쓰여진 무정(茂亭) 정만조(鄭萬朝)의 『은파유필(恩波濡筆)』에는 전남 진도 지역의 강강술래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긴강강술래,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외땀놀이 같은 놀이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의 외땀놀이가 닭잡기놀이와 비슷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닭잡기놀이는 강강술래의 여흥놀이로 연행되는 경우와 독립된 놀이로 연행되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서는 말놀이라고 부르는 놀이나, 전남 무안 지역에서 짚신뺏기라고 부르는 놀이, 황해도 연백 지역에서 닭잡기 혹은 도둑잡기라고 부르는 놀이들이 모두 닭잡기놀이와 동일한 유형의 놀이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모두 닭잡기라고 부르는데, 강강술래의 여흥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놀이에 비교해도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닭잡기놀이는 원 안에 너구리를 정하고 원 밖에 닭을 정해서 잡는 유형도 있고, 각각 닭과 범을 정해서 놀이를 하기도 한다. 대개 원무의 형식을 띠고 있는 점에서 강강술래의 여흥놀이로 분류하지만, 해당되는 노래나 가사가 전승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의 강강술래가 여러 가지 놀이를 종합하여 만든 작품임을 전제한다면, 1900년 초까지 오히려 현행 강강술래에 포함된 놀이보다 우선적으로 포함되었던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노래 구성이 없는 탓인지 닭잡기놀이는 현행 강강술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닭잡기놀이의 한 유형을 보면 이러하다. 가위바위보로 너구리와 닭을 뽑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원무 형식의 강강술래 대형으로 늘어서는데, 이것을 울타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너구리는 원 안에 있고 닭은 원 밖에서 기다린다. 너구리는 "달걀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고 말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원 안으로 들어가서 닭을 잡는다. 또 한 유형을 예로 들면 어린이들이 실내에 둘러서서 두 명을 각각 닭과 범으로 정한다. 원 안에 닭이 들어가고 원 밖에 범이 위치한다. 놀이가 시작되면 원을 구성한 아이들은 닭의 편이 되어 범이 원 안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범이 닭을 잡으면 잡힌 닭은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벌을 서게 된다. 전남 진도에서 전해오는 강강술래 여흥놀이의 일종인 외땀놀이는 대형이 늘어서 있고, 술래 한 사람이 대형에 속한 사람들을 잡는 놀이다.

또 다른 형태를 보면 이러하다. 일렬로 늘어서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구부린다. 이때 제일 뒷사람이 닭이 된다. 앞의 사람이 뒤의 닭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닭은 잡히지 않으려고 꿈틀거리면서 피한다. 만약 잡히면 하기 힘든 닭이 되어야 하므로 필사적으로 도망간다. 이를 진도에서는 솔개병아리 채기라고 한다. 놀이꾼들이 앞사람 허리를 잡고 세로 한 줄 늘어앉았고 놀이꾼 하나가 소리개 구실을 맡아 한쪽에 선다. 한쪽에 있던 소리개 구실의 놀이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제히 "소리개 떴다, 병아리 감춰라" 하고 일어선다. 맨 앞에 선 앞잽이가 암탉 구실을 하고 소리개는 그 암탉이 가는 데마다 막아서 붙잡으려고 한다. 나머지 놀이꾼은 병아리 구실을 하며 앞사람의 허리를 붙잡고 한 줄로 늘어서서 따라가 소리개의 옆 반대편으로 옆걸음질로 피한다. 소리개가 꼬리 부분의 병아리를 잡으면 놀이가 끝난다.

지역사례 충북 음성에서는 강강술래 이 외에도 고개넘기, 동아따기, 고사리따기, 닭잡이, 덕석말이, 남대문 같은 놀이가 연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닭잡기 놀이를 포함한 원무 파생형의 여흥놀이들이 강강술래와는 별도로 연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강술래와 별도로 닭잡기놀이가 연행되었던 지역을 『조선의 향토오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 안성, 진위(말놀이)와 인천광역시의 강화, 충북에서는 보은, 음성, 충남에서는 부여, 서천, 보령, 홍성, 천안, 전북에서는 전주, 완주, 금산, 장수, 남원, 고창, 김제, 전남에서는 곡성, 구례, 보성, 화순, 무안(짚신뺏기), 영광, 경북에서는 고령, 경남에서는 통영, 부산광역시 동래, 황해도에서는 연백(닭잡기 또는 도둑잡기), 강원도에서는 인제, 회양이 이에 해당한다. 전남 진도의 닭잡기놀이는 외땀놀이라고도 부르는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닭잡기놀이의 일종이다. 여러 처녀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잇대어 서있고, 한 여자가 앞에 나와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여러 처녀들이 피하여 달아나다가 잡히는 놀이이기 때문이다. 『은파유필』에는 "외땀놀이 만들어 외땀질 하여보세. 출렁출렁 열린 오이 낙화처럼 떨어지네. 이런 놀이 저런 놀이 어느 누가 잘할까. 벼슬은 첨지이고 성씨는 차가라네."라는 기록이 있다. 전북지방에서는 '널'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이 죽 돌아서서 손을 잡고, 하나가 가운데서 노래하며 마당을 도는 놀이를 말한다. 낮에는 안 하고 달밤에만 하는 놀이로서 남자들은 못 보게 한다.

참고문헌 | 三國志, 恩波漫筆, 朝鮮의 鄕土娛樂(村山智順 著·朴銓烈 譯, 集文堂, 1992), 강강술래를 찾아서(나승만, 보림, 2003), 강강술래(나승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강강술래의 역사와 놀이구성에 관한 고찰(이윤선, 韓國民俗學40, 韓國民俗學會, 2004).

필자 | 나승만(羅承晩)

대문놀이

☞ 문지기놀이[關守遊]: 가을편

덕석말이[筵卷遊]

정의 농촌에서 곡식을 말리는 데 쓰이는 멍석을 말았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흉내 낸 놀이. 농악을 중심으로 한 풍물놀이와 강강술래에 포함된 놀이 구성을 전제하는 용어이다. 멍석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덕석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이 놀이의 기원 지역을 추정할 수 있다. 비슷한 명칭으로 덕석몰이, 덕석몰자 등이 있다.

유래 덕석말이 놀이는 강강술래의 부속놀이와 여흥놀이에서 연행되므로, 강강술래와 동일한 기원론을 얘기할 수는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강강술래가 기본적으로는 원무(圓舞)를 중심으로 하는 놀이이고, 이 놀이의 형태들이 나선형, 달팽이형, 태극형 같이 다양한 대형으로 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강강술래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내용 덕석말이 놀이의 형식에는 덕석몰기와 덕석풀기가 있다. 덕석몰기와 덕석풀기는 덕석을 말고 푸는 동작을 흉내 낸 동작으로, 전자는 원무 대형을 감아나가는 동작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감았던 원무 대형을 풀어나가는 동작을 말한다.

노래는 자진모리 또는 빠른 중중모리 장단으로 부른다. 멍석을 말고 푸는 것처럼 대형을 좁혀나간다. 풀 때는 뒤쪽부터 풀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앞 사람이 말뚝처럼 박히고 맨 끝 사람부터 실타래 감듯 말아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자진모리 가락에 맞춰 놀이꾼 전원이 흥겨운 가운데






서로의 몸을 부딪치며 하나의 덕석을 말아감으로써 친밀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농악의 진법과도 비슷하며, 강강술래 놀이 중에서는 제일 역동적인 놀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농악에서는 달팽이처럼 말아 들어간다고 해서 달팽이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강강술래 놀이 중에 청어풀기가 끝나면 다시 원형을 만든다. 이때 설소리꾼이 "몰자몰자 덕석몰자"라는 노래를 시작하면 이것을 신호로 덕석몰이 대형으로 몰아간다. 선두로 지정된 사람은 오른쪽 사람과 잡은 손을 놓고 왼쪽으로 원을 그리고 돌면서 중심을 잡아간다. 다른 놀이꾼들은 노래를 받아 부르며 선두를 따라 차례로 멍석을 말듯 돌돌 말아간다. 덕석이 다 말아지면 설소리꾼이 "풀자풀자 덕석풀자"라는 노래를 시작하고 이것을 신호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대형을 풀어간다. 말 때와는 반대로 외곽 사람이 돌면서 풀어간다. 덕석말이의 대표적인 가사는 다음과 같다.

몰자몰자 덕석몰자 비온다 덕석몰자
비야비야 오지마라 딸밭에 장구친다
몰자몰자 덕석몰자 비온다 덕석몰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비갠다 덕석풀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볕난다 덕석풀자

참고문헌 | 朝鮮의 鄕土娛樂(村山智順 著·朴銓烈 譯, 集文堂, 1992), 강강술래를 찾아서(나승만, 보림, 2003), 강강술래(나승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강강술래의 역사와 놀이구성에 관한 고찰(이윤선, 韓國民俗學40, 韓國民俗學會, 2004).
필자 | 나승만(羅承晩)

▷ 강강술래: 가을편

덕석풀이

▷ 덕석말이[筵卷遊]: 가을편

두레길쌈[共同績麻]

▷ 길쌈놀이: 가을편

문열기

▷ 문지기놀이[關守遊]: 가을편

1~2 덕석말이
3~4 덕석풀이
전남 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문지기놀이[關守遊]

정의 두 어린이가 양팔을 뻗쳐 서로 잡아 문같이 만들고 그 밑을 어린이들이 꿰어가는 놀이. 문지기놀이는 지역에 따라 문열어라놀이, 대문열기, 문열기, 대문놀이, 남대문놀이라고도 한다.

내용 추석날 하는 강강술래 놀이에서 문열어라놀이라고도 하여 남생아놀아라, 지와밟기, 도깃대당기기 등의 여흥놀이와 함께 어울려 놀아지는 한편,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확산된 놀이이기도 하다.

먼저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팔을 벌려 문을 만든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일렬로 서서 앞사람의 허리를 두 팔로 껴안고 구부린 채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주소"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문 밑을 꿰어간다. 이때 문지기가 된 두 사람은 "열쇠없어 못열겠네"라고 대답한다. 아이들 전원이 꿰어 가면 그 다음 사람이 문지기가 되어 놀이가 계속된다.

그러나 전남 진도에서는 약간 다르게 한다. 허리를 잡은 놀이꾼들이 문을 꿰어갈 때 급히 두 팔을 내려서 못 지나가게 막는다. 이때 앞사람의 허리를 껴안은 손을 놓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이 문지기가 된다. 그러므로 문지기가 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문지기놀이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기를 상징하는 사물로서,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성행위의 상징이며, 남녀의 결합으로 풍요로운 생산을 기대하는 풍요 기원의 유감주술적인 성 행위 굿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2 문지기놀이
전남 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참고문헌 | 놋다리밟기 춤의 유형과 풍농기원의 의미(임재해,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1),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강강술래를 찾아서(나승만, 보림,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봉사놀이

⇨ 판수놀이: 가을편

서산박첨지놀이(瑞山朴僉知-)

정의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탑곡 4리에서 전승되는 인형극. 마을 입구 안내판에는 '서산 박첨지 인형극 놀이'라고 쓰여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산박첨지놀이'라 부른다. 매년 추석(秋夕)을 전후해 마을에서 연행되는 추석놀이의 하나로, 현전하는 유일한 토박이 광대패 인형극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산박첨지놀이는 2000년 1월 11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박첨지놀이보존회를 중심으로 그 연행과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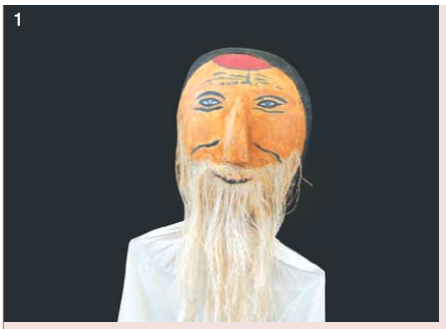
유래 서산박첨지놀이는 1920년대 후반부터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 4리 마을 토박이들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왔다. 서산박첨지놀이 전승에는 유영춘과 주연산이라는 인물이 그 중심에 있다. 탑곡 4리 출신인 주연산이 20세 때 운산면 신창리에 나가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강원도에서 이사와 그 마을에 살았던 유영춘에게서 인형 제작법, 놀이 방법, 재담을 배우면서 전승이 시작되었다. 남사당패 출신이라 전해지는 유영춘에게서 3년 동안 인형극 연행 방식을 배우고 익힌 주연산은 이후 고향인 탑곡 4리로 돌아와 마을의 젊은이들과 함께 주로 명절 때 연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 연행은 탑곡마을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인근 마을까지 나가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서산박첨지놀이의 연행은



〈서산박첨지놀이〉
1 박첨지
2 박첨지동생
3 명노
4 스님
5 소경
6 작은마누라
7 큰마누라
8 평양감사
9 홍동지
10 만장꾼
11 목수
12 상제
13 공중사
14 구렁이
15 상여
16 매와 홍새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 4리
국립민속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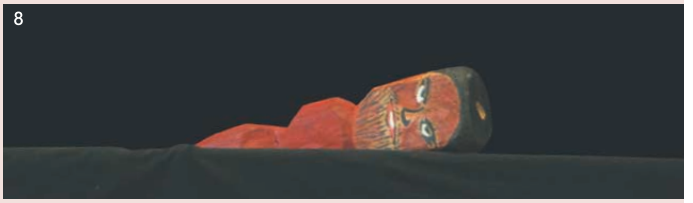

1


2


3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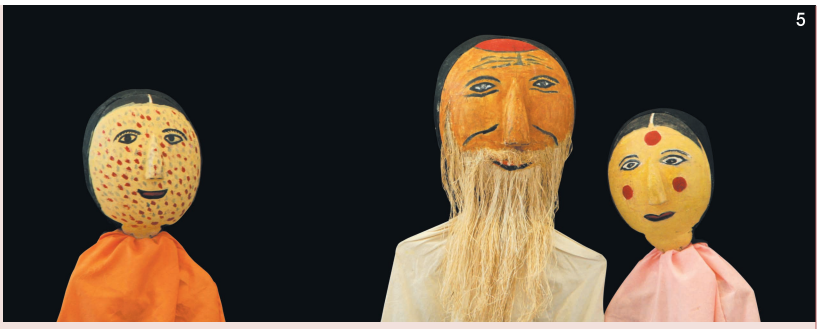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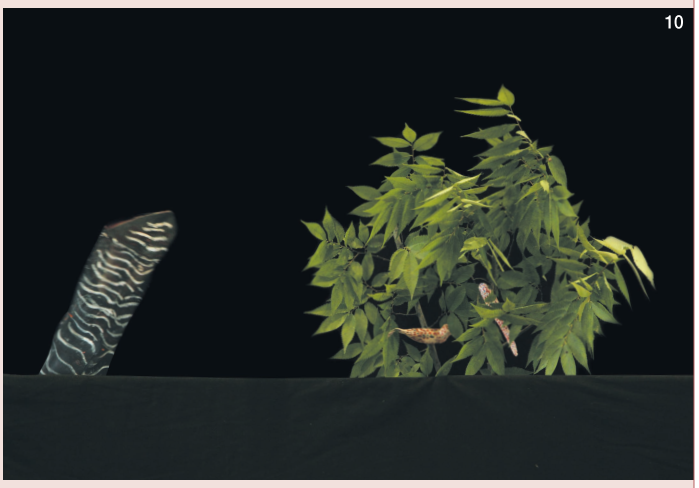

14


15













〈서산박첨지놀이〉
1 박첨지 등장
2 박첨지 작은마누라의 인사
3 박첨지동생 등장
4 박첨지와 박첨지동생의 만남과 다툼
5 박첨지의 편파적 재산 분배
6 큰마누라와 작은마누라의 싸움
7 박첨지와 홍동지
8 평양감사의 꿩사냥을 위한 홍동지의 길닦기
9 평양감사의 꿩사냥
10 구렁이가 홍새를 잡아먹는 장면
11 평양감사의 장례식
12 상제(평양감사 아들)가 장례행렬을 놓쳐서 물어보는 장면
13 공중사 짓기
14 소경이 눈뜬다는 소식
15 소경 눈뜨는 장면
16 등장인물 인사하고 퇴장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 4리
국립민속박물관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1953년까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일시 중단된다. 이후 1954년부터 다시 연행이 이루어져, 거의 매년 추석을 전후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바탕 노는 마을의 오락거리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다가 1989년을 기점으로 서산박첨지놀이는 전국적으로 소개되어 주목을 받게 되었고, 여러 지역 행사에 초청을 받아 그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행 양상이 추석을 전후해서 마을 사랑방이나 공터에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점차 마을을 벗어나 초청 공연이나 행사 참여가 주가 되고 있다.

내용 장면 전환의 지표로 기능하는 악사들의 "떼루떼루아 떼루야"라는 구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산박첨지놀이는 대략 20장면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누어진 장면과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박첨지의 팔도 유람 ② 박첨지 작은마누라의 인사 ③ 박첨지 동생과 박첨지의 만남과 다툼 ④ 박첨지 큰마누라와 박첨지의 만남과 다툼 ⑤ 박첨지 처남 명노와 박첨지의 만남과 다툼 ⑥ 재산 분배를 결심하는 박첨지와 악사의 조언 ⑦ 박첨지의 편파적 재산 분배와 큰마누라와 작은마누라의 싸움 ⑧ 평양감사의 꿩사냥을 위한 홍동지의 길 닦기 ⑨ 박첨지의 홍동지 길 닦기 평가 ⑩ 평양감사의 꿩사냥 ⑪ 평양감사의 병환 소식과 악사의 치료 방법 조언 ⑫ 구렁이가 병 치료에 쓰일 홍새를 잡아먹음 ⑬ 평양감사의 장례 소식 ⑭ 평양감사의 장례식 ⑮ 절을 짓기 위한 시주 소식 ⑯ 절을 짓기 위한 스님의 시주 부탁 ⑰ 공중사 짓기 ⑱ 소경이 눈 뜬다는 소식 ⑲ 소경 눈뜨기 ⑳ 등장 인물들이 모두 나와서 춤추며 놀기

20장면으로 이루어진 서산박첨지놀이의 내용은 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음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유사하여 동일 계통의 인형극이라 말할 수 있다. 남과 여, 상층과 하층, 종교인과 세속인 등으로 정리되는 각 장면 속 등장 인물 간의 역학 관계 역시 유사하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산박첨지놀이만이 지닌 독특함이 나타난다.

장면 ①에서 장면 ⑦까지는 집안을 돌보지 않고 축첩을 일삼는 박첨지에 대한 다른 가족들의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큰마누라는 물론이고 처남, 동생이 박첨지의 무책임과 축첩을 비판하고 웃음거리로 만든다. 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음에서처럼 남성 횡포의 비판이 큰마누라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박첨지 가족 모두가 박첨지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는 축첩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며, 집안이 어지럽게 된다는 마을 공동체의 의식이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

장면 ⑧에서 장면 ⑭까지는 벼슬아치와 일반 평민의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분적 특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꼭두각시놀음에 비해 홍동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어, 상층 계급에 대한 풍자의 정도가 감소되기는 하지만, 하층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평양감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 의식은 그대로 살아 있다.

서산박첨지놀이의 내용이 지닌 독특함은 장면 ⑮에서 장면 ⑳까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배층인 평양감사의 횡포로 시력을 잃게 된 소경이 불공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된다는 내용 전개는 종교인과 세속인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고통받는 민중에 대한 불교적 해원(解寃)이라는 주제를 만들어낸다. 이는 종교인과 세속인의 갈등을 통해서 관념적 허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꼭두각시놀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서산박첨지놀이는 불교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기보다는 불교적 기적 혹은 불교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산박첨지놀이 전승 공동체의 불교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을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서산박첨지놀이는 떠돌이 광대패인 남사당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지만, 남사당패의 인형극 꼭두각시놀음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다. 인형극을 배워 전승하는 과정에서는 서산박첨지놀이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된다. 바가지, 소나무 껍질, 칡넝쿨 속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든 소박한 인형들, 독특한 주머니 인형 형태와 주머니 인형 조종 방식, 서산 방언의 사용, 소경 눈뜨기와 같은 독특한 연행술, 열린 연행자 수급과 여성 연행자의 참여, 목소리 변조기의 소멸, 인형 목소리 연기의 일인일역적 경향, 전승 공동체의 성격에 맞게 변형된 연행 내용은 서산박첨지놀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붙박이로 살고 있는 토박이 광대패의

속성에서 나온 토착화된 특성들인 것이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솜씨를 다하여 소박한 인형들을 제작하고, 자신들의 말투에 맞게 인형들의 목소리 연기를 하며, 소박하지만 독특한 연행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계관에 따라 연행 내용을 만들어 나간 것이 서산박첨지놀이다. 또한 남사당패처럼 연행 참여에 일정한 제약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중에서 연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약 없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외부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와 어우러지면서 여성 연행자 역시 생겨나 연행자 수가 증가했다. 연행자 수의 증가는 결국 목소리 연기의 일인일역적 경향성을 낳게 하였다. 이러한 일인일역적 경향성은 이제 굳이 목소리를 변성할 필요를 못 느끼게 하였고, 이에 따라 종이를 댄 참빗이나 죽통 같은 목소리 변조기도 사라졌다. 목소리 변조기라는 전문 광대패적 특성이 토박이 광대패의 전승이 갖는 특성에 의해 대체된 것이다.

지역사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박첨지놀이 또는 홍동지놀이라 부르는 민속인형극들이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이천·장단·개풍(현재는 황해북도에 속함), 충청도 영동·음성·제천·논산·아산, 강원도 강릉·울진(현재는 경북에 속함)·정선·영월·원주·홍천·철원·평강·춘천, 황해도 연백·금천·평산·옹진·송화·안악·재령·황주·수안·장연, 평안도 용강, 함경도 고원·홍원·성진·무산·종성이 그 전승 지역들이다. 이러한 조사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인형극 역시 가면극 못지않게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전승되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상의 사례들은 그저 기록상으로만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음처럼 현재까지 연행되면서, 그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양한 양상의 인형극과 연행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추론만이 가능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산박첨지놀이의 존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의 민속인형극이 더 이상 유일하지 않으며, 유랑광대패의 전유물이 아님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사례로 서산박첨지놀이가 있는 것이다.

의의 서산박첨지놀이는 남사당패라는 전문적인 떠돌이 광대패 연행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지만, 일정한 지역에 근거를 둔 토박이 광대패에 의한 연행과 전승이라는 특징에 따라 독특한 면모를 가지게 되었다. 그 기원이 외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전승 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독특하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서산박첨지놀이는 인형극과 마을 공동체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흔치않은 대상이다. 우리의 민속인형극이 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음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며, 떠돌이 광대패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소중한 대상이 바로 서산박첨지놀이다.

참고문헌 |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신명나는 서산 박첨지 놀이(서연호, 문화예술11·12월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서산 박첨지 놀이 연구(허용호, ㅁ碑文學硏究10, 한국구비문학회, 2000), 서산박첨지놀이의 전승 양상(허용호, 民俗學硏究13, 국립민속박물관, 2003), 토박이 광대패 인형극의 전승 양상(허용호, ㅁ碑文學硏究20, 韓國ㅁ碑文學會, 2005).

필자 | 허용호(許龍鎬)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 (舒川苧山八邑-)

정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일원에서 전승되는 한산(韓山) 모시짜기 풍속을 저산팔읍(苧山八邑) 중에서도 특히 서천(舒川)을 중심으로 여섯 마당으로 재구성하여 만든 놀이. 1991년 7월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예전에는 음력 7월에서 8월 중순까지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공동으로 길쌈을 하였으나, 현재는 매년 5월 초에 개최되는 한산모시문화제의 행사에서 시연되고 있다.

유래 한산은 모시와 관련된 문화가 그 기반을 이루는 모시의 본고장이다. 한산모시는 이미 조선 후기에 상품 작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정약용(丁若鏞)은 『경세유표(經世遺表)』 권8 「지관수제(地官修制)」 전제(田制)11 정전의(井田議)3에서 "서도(西道)지방의 연초(煙草), 북도의 삼밭, 한산(韓山)지방의 모시, 전주(全州)지방의 생강, 강진(康津)지방의 고구마, 황주(黃州)지방의 지황(地黃) 등 밭농사의 수입이 논농사의 열 배 이상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춘향전(春香傳)』에도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입던

비단 장옷 봉장 안에 들었으니 그 옷 내어 팔아다가 한산 모시[韓山細苧] 바꾸어서 물색 곱게 도포 짓고, 백방수주(白紡水紬)진 치마를 되는대로 팔아다가 관망(冠網), 신발 사드리고 절병 천은(天銀) 비녀, 밀화장도, 옥지환이 함 속에 들었으니……."라고 하여 한산 모시가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특산물임을 알게 한다. 또한 18세기 후반 정조(正祖) 대에 작성된 서천지방의 한 건의문(建議文)에는 저방(苧房)을 크게 열어 누천량(屢千兩)을 거래하고 있는 부자(富者)에 대한 언급도 있다.

모시의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의 남서부 일대이다. 이 일대는 모시의 생산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저산팔읍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저산팔읍은 모시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충남 한산, 서천, 비인, 남포, 홍산, 정산, 부여, 임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저산팔읍은 상품 유통에서 모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다. 모시를 중심으로 하는 저산팔읍 보부상들은 한산 읍내장을 기점으로 충남 서천, 비인, 남포, 은산, 홍산, 정산, 부여, 임천 지역을 하나의 유통 시장권으로 연결하였다.

조선시대에 상거래가 성행하면서 보부상 조직이 전국 각지에 있게 되었고, 모시의 유통이 이러한 조직 아래 이루어졌다. 오늘날 한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시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닷새 마다 모시시장을 형성, 전국 각처에 공급하고 있다.

저산팔읍은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서로 독립된 군현이었으나 1914년 지방행정 구역 개편에 의해 서천군, 부여군, 보령시, 청양군에 편입되었다. 현재 서천군의 경우 한산장, 서천장, 판교장에서 태모시(모시의 원료)가 거래되고 있으며, 주로 한산장에서는 모시굿, 필모시가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한산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한산 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와 관련한 민속놀이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저산팔읍(苧山八邑)길쌈놀이라는 이름으로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82)에 충남 대표로 참가하였다. 여기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이어서 1986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그 후 수상 경력에 힘입어 1991년 7월 9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고, 매년 한산모시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행사시 시연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저산팔읍길쌈놀이는 현재 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는 한산모시관이 있다.

내용 한산 길쌈놀이는 저산팔읍 주민들이 서로 길쌈짜기를 경쟁하여 잘 짠 모시를 가려내는 놀이이다. 1982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놀이 부문에 출품하면서 모두 여섯 마당으로 재구성하였다.

한산 길쌈놀이 참가 인원은 남자 13명, 여자 72명으로 전체 8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쌈놀이를 할 때는 베틀 8대, 맴틀 8대, 날틀 2대, 쩐지 32개, 생모시다발 8개, 모시필육 8개, 끌개 8개, 삼불 상자 8개가 필요하다. 저산팔읍 중에서 모시를 가장 잘 짠 고을은 언제나 한산으로 귀결된다. 결국 놀이를 통해 한산 사람들의 귀속의식을 강화하고 한산에 대한 자긍심을 키운다.

첫째 마당은 모시풀베기와 모시삼기이다. 모시껍질을 벗겨서 모시톱으로 외피를 벗긴 내피를 물에 적신다. 이후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거듭하여 표백시키면 바탕색이 깨끗한 태모시가 된다. 이것을 쪼개어 모시올의 굵기를 일정하게 한 후 쩐지라는 버팀목에 걸어놓고, 한 올씩 빼어 양쪽 끝을 무릎 위에 놓고 침질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균일한 저마 섬유를 만든다. 이런 공정을 하면서 다음의 노래를 부른다.

금 강 산 저고대야 옥 단 편 깃을달아
두재고름 깊이달아 맵시있게 잘파입고
삼선버선 겹버선에 아기자기 모아신고
닥쳤구나 닥쳤구나 안오시네 안오시네
수자씨가 안오시네 강남땅의 강수자는
글이좋아 소문나고 한산땅의 이수자는
솜씨좋아 이름났네

둘째 마당은 모시날기와 모시매기이다. 10개의 모시 굿에서 젓을대의 구멍으로 실끝을 통과시켜 한 묶음으로 날틀에 건 후, 한 필의 길이에 맞추어서 날실의 길이로 날고 새 수에 맞추어 날실의 올수를 맞춘다. 모시 날기가 끝난 날실 다발은 고리 모양으로 연철하여 날틀에서 빼어 뭉치로 만든다. 모시 날기가 끝난 날실을 바디에 끼워 한쪽 끝은 도투마리에 매고 또 한쪽은 끌개에 말아 팽팽하게 한 뒤, 풀을 먹여 도투마리에 감아 모시 짜기에 알맞게 한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강실강실 강실도령 강실말을 올라타고
강실책을 옆에끼고 한모퉁이 돌아드니

김창봉네 새악씨가 삼 베 를 짜드란다
그베짜서 무할나낭 울어머니 생일날에
모시치마 하여가지 그나머지 무할나낭
우리동생 시집갈때 모시적삼 하여가지

셋째 마당은 모시 굿을 씨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맞게 감는 꾸리감기마당이다. 꾸리감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추야공산 긴긴밤을 전지바탕 마주보며
무릎비벼 삼은모시 서울님을 줄것인가
오동잎이 우러댈때 감골낭군 줄것인가
편지왔네 편지왔네 강남낭군 편지왔네
한손으로 받아들고 두손으로 펼쳐보니
씨앗죽은 편지여라 올타고년 잘죽었다
고기반찬 비리드니 소금반찬 고솝구나
꾸리꾸리 모시꾸리 박달나무 쇠망친가
오미상큼 감긴꾸리 삼천리를 열번간다

넷째 마당은 모시짜기이다. 날실이 감긴 도투마리를 베틀의 누운다리 위에 올리고, 바디에 끼운 날실을 긴장시켜 놓는다. 그리고 베틀의 쇠꼬리채를 발로 잡아당겨서 날실을 벌려 손으로 준비된 씨실 꾸리가 담긴 북을 좌우로 엮어 짜 한 필의 모시를 생산한다. 모시를 짤 때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하늘에다 베를놓고 주름잡아 잉아걸고
항배나무 바디집에 목배나무 북에다가
윗다리는 돋아놓고 앞다리는 낮춰놓고
옹골졸공 짜노라니 조그마는 시누이가
올케올케 우리올케 그베짜고 무할라나
서울가신 자네오빠 강남도포 해줄라네
진주댁에 두루마리 이슬밤에 내널어서
은다리미 놋다리미 요모조모 싹다려서
괴송남게 걸어놓고 올라가는 시선비야
우리선비 아니오나 오 기 는 오네마는
중당집구 하강잃고 고돌목지 실려오네

다섯째 마당은 모시등급심사이다. 씨앗과 날이 고르며 빛깔이 좋은 한산 모시를 짠 마을을 장원으로 선정한다.

여섯째 마당은 우승자 축하 마당이다. 한산 모시가 일등을 하여 한산 사람들이 풍물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우승한 한산 모시를 칭송하며 노는 마당이다.

의의 마을의 부녀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길쌈하는 전통적인 풍속을 현대 사회에서 축제로 재구성한 길쌈놀이이다. 한산을 중심으로 하여 저산팔읍의 길쌈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經世遺表, 春香傳, 韓山모시(石宙善,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20號, 文化財管理局, 1966), 公州 公山城 修築建議文(徐奉植, 鄕土硏究6, 忠南鄕土硏究會, 1989), 한산모시짜기(권영숙,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舒川苧山八邑길쌈놀이(유승광, 서천군지6-민속편-, 서천군, 2006).
필자 | 이필영(李弼泳)

석사놀이(石射-)

정의 남해안 지역의 해안 마을이나 도서지방에서 추석에 통나무 원목을 세우고, 돌멩이를 던져서 그 기둥을 맞히는 민속놀이. 지역에 따라서는 석전(石箭)이라 하기도 한다. 경상남도 남해에서는 지금도 이 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내용 석사놀이는 추석에 해변이나 개천가의 공터에서 마을 대항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전으로 하기도 한다. 이 놀이를 위해 높이 3미터, 지름 15센티미터 정도 되는 곧은 소나무나 참나무 원목 그리고 손에 들고 던지기에 용이한 몽돌(둥근 돌멩이의 방언)을 준비한다. 돌멩이의 숫자는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당 5개, 10개, 15개 같이 5의 배수로 하며,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변적이다. 자기가 던질 돌은 자기가 주워와 곁에 모아놓고 던진다. 통나무 원목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껍질은 남기고 중간부분만 껍질을 벗기는데, 시합에 들어가면 껍질 벗긴 부분만 맞혀야 득점으로 인정한다. 때로는 새끼줄로 상단부와 하단부를 묶어서 득점 부분을 표시하기도 한다. 통나무 원목을 땅속에 단단히 박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열다섯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사선(射線)을 길게 표시하여 사수(射手)들이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을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두서너 개 설치하여, 시합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즐기면서 하루를 보낸다.

놀이는 대개 마을 대항으로 이루어지고 같은 마을인 경우 윗담과 아랫담, 양지담과 음지담으로 구분하여 단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에 따라 개인전을 벌리기도 한다. 경기 인원은 하나의 사선에

5~10명 정도가 나란히 서서 돌멩이를 하나씩 차례대로 던져 목표물을 맞혀 자기편에서 적중시킨 개수를 모두 합산하여 등위를 정한다. 이때 구경꾼들은 자기 마을을 위하여 풍물을 울리면서 응원을 펼치기도 하는데, 돌멩이가 목표물에 적중하면 "지화자 좋다"라고 창을 하기도 한다.

의의 석사놀이의 유래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석전(石戰)과 마찬가지로 들짐승을 사냥하거나 적을 물리치기 위해 돌팔매를 익히면서부터 생겼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러나 석전은 마을끼리 편을 나누어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놀이여서 사상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석사는 위험성이 완전히 배제된 민속놀이라는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박성석(朴性錫)

소놀이

정의 추석 때에 소를 중심으로 놀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한 해 농사의 풍요를 마음껏 즐기는 세시놀이. 농경사회의 필수 구성 요소인 일꾼과 소의 노고를 위로하는 놀이이다. 이를 달리 소먹이놀이라고도 일컫는다.

내용 소놀이는 우리나라 농경 사회의 전통 속에서 생긴 놀이이다. 놀이의 중심인 소와 상일꾼의 노고를 위로하는 놀이로 추수를 앞두고 소를 기리고 사람들의 놀이를 위해서 행한 의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놀이 『조선의 연중행사』 조선총독부

소놀이는 농악대와 소로 가장(假裝)한 사람들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농악대를 구성해서 농악놀이를 한 뒤에 모이면 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남자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소놀이를 한다. 두 사람에게 멍석으로 만든 소를 씌우면 앞사람은 막대기로 뿔을 만들어 소의 머리를 구성하고, 뒷사람은 새끼를 꼬아서 꼬리를 만들어 소 시늉을 한다. 이처럼 소놀이 도구가 만들어지면 소놀이를 벌일 수 있는 준비가 끝난다. 그리고 한 해에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이나 마을의 부농(富農)에게 가장한 소를 데리고 가서 소놀이를 행한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소놀이를 하는데 내용은 문놀이, 소맞이놀이, 끝막음놀이로 구성된다. 문놀이는 문굿 가락을 치고 가서 일단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놀이의 서두에 해당한다. 대문 앞에서 "소가 배가 고프고 구정물을 먹고 싶어 왔으니 달라"라고 놀이패의 상쇠가 외치면, 집 주인이 나와서 일행을 맞이하고 마당에서 한바탕 놀이를 벌인다. 소를 앞세우고 일행들이 앞마당으로 들어가서 농악을 치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놀이를 벌이면 집주인은 술, 떡, 찬을 차려서 이들을 대접한다. 주인과 한바탕 어울려서 놀이를 한껏 한 뒤에 소놀이를 마친다. 다른 집에 가서도 이 놀이를 반복하며, 해가 지도록 논다.

한편 이 놀이의 마지막 부분에 그해 가장 일을 잘한 상머슴을 뽑아 소에 태우는 놀이를 한다. 이 놀이를 상머슴놀이라고 하는데, 마을을 돌면서 자랑을 하고 뽑힌 사람을 높이 내세운다. 소 등에 상일꾼을 태우고 그의 공적을 치하하는 것이다. 아울러서 상일꾼만이 아니라 소에게도 영광을 돌려서 이를 기념하는 놀이를 벌이는 것이 이 놀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듬해 머슴의 새경을 정할 때 상일꾼은 일정한 우대를 받는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忠淸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5),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忠淸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6),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京畿道 篇-(文化財管理局, 1978),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필자 | 김헌선(金憲宣)

소먹이놀이

⇨ 소놀이: 가을편

소싸움

정의 두 마리 황소를 맞붙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 소를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여겼던 전통사회에서 소싸움은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임시로 벌이는 소싸움이 아니라 두 마을 또는 여러 마을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소를 끌고 나와 연례적으로 벌인 소싸움은 경상남도 일원과 경상북도 청도 지역 등 이른바 가야문화권에서만 전승되어 있다.

내용 연례적으로 벌어진 놀이로서 소싸움은 주로 추석(秋夕) 무렵에 행해졌다. "정월 씨름, 팔월 소싸움"이라는 경북 청도 지역의 향언(鄕言)은 이를 말해준다. 이 시기는 수도재배의 힘든 노동이 일단락되는 농한기이다. 이 기간 중에 직접 농업생산에 종사한 일꾼들이 주도한 놀이가 바로 소싸움이었다. 현재까지도 소싸움이 강성한 경남 진주 지역에서 "소싸움 날은 상머슴의 날이다."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추석이 되면 인접한 두 마을에서는 자연스레 소싸움 이야기가 나오고 각 마을에서는 싸움에 나설 소를 가린다. 싸움소는 평소 초동(樵童)들의 소싸움 등을 통해서 마을에서 가장 강하다고 공인된 소로서, 싸움에 대비하여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싸움 장소는 통상 두 마을의 경계지역에 있는 개천이나 논밭이다. 개천에서 싸울 경우, 소들은 하상(河床)에서 싸우고 사람들은 개천 둑에서 응원한다. 소싸움에 참여하는 마을사람들은 그 싸움을 자기 마을의 위신이 걸린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마을 대항전으로 벌어진 소싸움의 사례이다.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대 현리의 소싸움을 보면, 인접한 두 마을인 봉기리와 현리에서는 1930년대 중반까지 매년 추석 뒷날이나 그 다음 날에 두 마을 사이에 있는 개울에서 소싸움을 벌였다. 각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황소 한 마리씩 출전하는데 소의 목에는 적·청·황의 세 천을 엮은 '이남기(끈)'를 둘러주었다. 소를 앞세우고 마을의 남녀노소가 함께 싸움터에 나가며 이때 풍물패를 꾸려 자기 마을 소를 응원하였다. 워낙 싸움이 거칠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망라한 마을사람들은 개울의 둑 위에서 열렬히 응원하였고, 소들은 하상(河床)에서 싸움을 벌였다. 이때 소를 몰고 나온 머슴이나 소 주인은 싸움소를 따라 움직이며 싸움을 독려하였다.

승부는 머리를 맞대고 싸우다가 먼저 도망가는 쪽이 패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대개 단판으로 결정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패한 마을에서 다른 소를 끌고 나와서 이긴 마을의 소와 한 번 더 싸움을 붙인 적도 있다. 이 싸움에는 어떤 상품도 걸려 있지 않으며, '싱벽[勝負慾]'과 마을의 '세도'때문에 싸웠다고 한다. 싸움에서 이기면 풍물패를 앞세우고, 머슴이 소를 타고 마을로 돌아오며 소의 주인집에서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아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인접한 두 마을 간의 대항전이 아니라 근동(近洞), 혹은 관내의 다수 마을이 참여하는 보다 큰 규모의 소싸움 역시 추석 무렵에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경남 의령의 경우, 20세기 초엽에 적어도 수십 개 마을의 소들이 출전하고 난장이 서는 대규모 소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1909년,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 선생이 진양잡영(晉陽雜詠) 12수를 발표하면서 소싸움을 평하기를 "당지(當地)의 투우(鬪牛)가 심히 성하여 천백(千百)명의 같은 무리들이 크게 충돌을 벌이면 그 등약(騰躍)하고 포효하는 모습이 진실로 일대 장관이더라."라고 한 것도, '수무바다'라고 일컫던 남강 백사장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소싸움을 본 소감을 피력한 것이다. 다음은 여러 마을의 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싸움의 사례이다.

경북 의령의 소싸움을 보면, 소싸움은 바쁜 논농사일이 한풀 끝난 칠월 백중이나 팔월 한가위 무렵에 행해졌다. 싸움은 넓은 모래사장이나 풀밭에서 이루어졌는데, 의령읍의 남산천과 정암진의 모래사장, 가례면의 한내변, 유곡면의 세간천변, 부림천변 등이 소싸움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싸움의 장소가 정해지면 음식장사들이 미리 몰려들어 일대 난장을 이룬다. 고삐와 코뚜레를 푼 싸움소들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상머슴이나 주인에게 이끌려 싸움터의 이곳, 저곳을 돌면서 자기편 관중들로부터 열렬한 격려와 쓰다듬을 받는다. 싸움터에 나간 싸움소가 잠깐 동안 상대를 응시하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허를 찔러 급소를 공격해 들어가면 모래사장, 혹은 풀밭은 격투장으로 변한다.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소들은 '뿔걸이', '옆목치기',



청도소싸움놀이
경북 청도 주병수

'들치기' 등의 공격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밀어붙인다. 이때 주인은 채찍으로 소를 때리면서 '받아라', '찍어라', '이러이러' 하고 외치면서 소를 독려한다. 약한 쪽이 싸움을 포기하고 달아날 때까지는 보통 몇 분이 소요되지만 길게는 수십 분이 소요될 경우도 있다. 싸움의 결과는 소의 동작을 보면 미리 알 수 있다. 달아날 방향을 찾는 듯이 눈동자를 옆으로 굴리거나 꼬리를 흔들고, 뒷배가 들쭉날쭉하면서 똥을 싸거나 입에 흰 거품을 내뿜으면 이미 자신을 잃었다는 표시이다. 싸움에서 이긴 소는 목과 뿔을 비단과 들꽃으로 장식하기도 하며 소등에는 상머슴이나 주인이 올라타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풍물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개선하는 군사들처럼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로 들어오면 소의 주인집에서 마련한 음식으로 밤늦도록 잔치를 즐긴다.

이와 같이 보다 큰 규모의 소싸움, 즉 청도의 풍각면이나 이서면처럼 이름난 우시장을 중심으로 면 관내의 각 마을들이 참여하던 소싸움이나 의령, 진주, 김해 등지에서 행해진 고을 규모의 초대형 소싸움이 역사상 어떠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보면 이앙법(移秧法)이 널리 퍼짐으로써 집약적인 노동력 투입이 요청되고 그에 따라 두레 등의 협업관행이 활성화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집락(集落)이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고 축력의 이용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조선 후기의 말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처럼 범공동체적인 소싸움이 등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소싸움의 주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두 마을 간의 소싸움일 경우, 싸움에 참여하는 각 마을에서 가장 세다고 공인된 소를 싸움소로 내세운 점, 그 소가 지게 되면 마을의 다른 소를 데리고 와서라도 이기려고 했다는 점, 풍물패가 함께 했다는 점, 소싸움을 마을 간의 '세도(세력)싸움'으로 인식하고 자기 마을 소의 승리를 마을의 승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은 소싸움이 단순히 소 주인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 소가 속해 있는 마을 간의 싸움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은 성격은 여러 마을들이 참여하는 보다 큰 규모의 소싸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싸움에 참여하는 소가 있으면 마을의 풍물패들이 그 소와 함께 싸움터로 나아가서 열렬히 응원할 뿐만 아니라 몸소 싸움에 참여한다. 마을 사람들이 싸움에 참여하는 방식은 대단히 직접적이다. 자기 마을의 소가 불리하면 상대편 소의 꼬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상대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면 소싸움판은 난장판이 되게 마련이다. "센 소도 그 마을의 세력이 없으면 진다."라는 말이 통용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싸움이 끝나면 마을사람들은 소를 앞세우고 풍물을 잡히며 함께 돌아온다. 승리하였을 경우 마을은 온통 잔치판이 되고 대개 부농인 소 주인은 음주가무가 따르는 뒤풀이를 주선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각 수준의 소싸움이 공동체의 참여와 후원 아래 행해졌고, 그 승패를 마을의 승패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소싸움은 줄당기기, 동채싸움, 팔매싸움 등과 마찬가지로 대동놀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동체 → 소 주인 → 소 ↔ 소 ← 소 주인 ← 공동체

소싸움은 외형상 소들의 싸움이지만 그 배후에는 우선 소 주인이 있고 다음으로 그 소가 속한 공동체가 있다. 이 싸움에는 일차적으로 소 주인의 명예와 위신이 걸려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속 공동체의 위신과 명예가 걸려 있다. 따라서 '소 - 소 주인 -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싸움의 주체를 이루게 된다.

전통적 소싸움에는 이렇다 할 물질적 유인(誘因)이 없다. 두 마을 간의 싸움인 경우에는 상품이 전혀 없었다. 이길 경우 소 주인이 마을사람들에게 한턱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손해였다. 여러 마을이 참여하는 보다 큰 규모의 소싸움에서는 우승한 소에게 '광목필' 정도를 걸어주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보다 후대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처럼 특별한 물질적 유인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싸움이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된 것은 무언가 다른 유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보자들은 이것을 흔히 '싱벽' 즉 싸움에 이기고자 하는 욕구, 혹은 '세도' 즉 마을의 힘 내지는 위세의 과시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소싸움은 물질적 유인 때문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소 주인, 보다 깊게는 해당 지연공동체의 명예, 혹은 위신의 과시라는 비물질적 유인 때문에 행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싸움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속에서 소와 싸움의 의미는 어떠할까? 우선 싸움소는 소 주인,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대리하는 존재이다. 소는 곧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싸우는 존재로서 마을사람들은 그들의 싸움을 소에게 위임한다. 이러한 위임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 싸움소와 그들을 동일시하며 그러한 동일시는 소의 수성(獸性)에 대한 인간의 참여와 소에 대한 인성(人性)의 부여라는 교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마치 소가 말귀를 알아듣는 듯 싸움의 요령을 알려주고 격려와 응원의 고함을 쉴 새 없이 내지르는 소 주인과 마을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싸움소는 소속 지연공동체의 모든 소를 대리하는 존재이자 소와 함께 농업생산을 주도하는 일꾼들, 즉 마을사람들의 대리자라는 점에서 마을의 모든 남성, 나아가서는 모든 마을사람들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마을의 소들 그리고 마을 일꾼들의 힘의 총합은 곧 해당 지연공동체의 현재의 생산력 및 미래의 생산력을 표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마을을 대표하여 소싸움에 나서는 황소는 곧 그 마을의 생산력 그리고 생산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소싸움은 각 마을 간의 생산력의 경합이라는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던 전통적 소싸움은 1970년대에 이르러 경남 진주를 시작으로 이른바 투우대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되면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우선 전통적 소싸움의 주체였던 마을공동체가 뒤로 물러나고 소 주인이 싸움의 주체가 되었으며 엄격한 경기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소싸움에는 없던 체급 구분이 이루어지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각 체급의 우승 소를 가리게 되었다. 또한 우승 소에게는 거액의 상금을 주고, 그 소의 몸값도 몇 배나 오름으로써 물질적 유인이 소싸움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현재 소싸움은 대구, 경북 청도, 경남 의령·진주·김해·창원, 전북 정읍 등에서 연중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청도에서는 대규모 실내 투우장을 건설하여 소싸움을 상설화하고 우권(牛券)을 발행하여,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소싸움 도박을 양성화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참고문헌 | 소싸움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고찰-마을공동체적 성격과 놀이 원리를 중심으로-(한양명, 민속학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필자 | 한양명(韓陽明)

수건돌리기

정의 사람들이 원의 형태로 둥글게 안쪽을 보고 앉은 상태에서 술래가 수건을 사람들의 등 뒤로 돌리는 놀이. 주로 소녀들이나 어린이들이 하는데 수건 찾기라고도 한다.

내용 수건돌리기는 달이 밝은 밤에 넓은 공터에 모여서 노는 것인데, 주로 추석(秋夕)이나 그 밖의 명절에 행한다. 이 놀이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가장 일반적인 놀이로서 뒤로 수건돌리기이다. 먼저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둥글게 원을 그린 상태로 안을 보고 앉는다. 그런 후 술래는 사람들 주위를 맴돌다가 몰래 수건을 떨어뜨린다. 자신의 등 뒤에 수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채지 못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수건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일어나 수건을 잡고 술래를 쫓아가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술래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어 수건을 돌려야 한다. 수건이 자신의 뒤에 떨어진 것도 모른 상태에서 술래가 한 바퀴 돌아와 그 사람의 등을 치면 그 사람은 원 가운데로 나와 벌칙을 받는다. 벌칙은 사람들이 요구한 행동이나

춤을 추는 방식이다.

둘째는 술래를 가운데 세우고 원의 형태로 앉은 사람들은 무릎을 세우고 하는 놀이이다. 이 무릎 사이로 수건을 돌리는데, 술래는 수건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 방식이다. 이때는 수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벌칙을 받는다. 셋째는 무릎 사이로 돌리는 대신에 등 뒤로 수건을 돌리는 방식이며, 술래가 수건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역시 이때도 수건을 가진 사람이 벌칙을 받는다.

전라도에서는 수건 대신에 '깍쟁이'라고 하는 주머니, 간장종지 그리고 '성춘향'이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종지를 돌릴 때는 놀이에 맞춰 동요를 부르기도 한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종지종지 돌아간다
종지종지 돌 리 자
오 종 지 돌 리 자
찾 았 네 찾 았 네
오 종 지 찾 았 네

수건돌리기와 비슷한 비녀돌리기가 젊은 부녀자들 사이에서 전승되기도 하였다. 노는 방식은 수건돌리기와 비슷하나 수건 대신에 비녀를 돌리는 것이다. 또한 무릎을 세워 그 사이로 돌리는 것처럼 치마 사이로 돌리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이때는 치마 자락에 가려서 비녀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忠淸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3(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의 민속전통5-민속 명절과 놀이-(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김종대(金宗大)

수박따기

⇨ 꼬리따기: 가을편

양양패다리놓기(襄陽–)

정의 강원도 양양군 원일전리 마을 주민들이 매년 추석(秋夕) 전날에 양지마을과 음지마을로 패를 갈라 서로 나무다리 빨리 놓기를 경쟁하는 민속놀이.

유래 패다리는 편을 나누어 다리를 놓는 것으로, 계곡을 사이에 둔 두 마을 주민들이 여름철에 장마로 떠내려간 나무다리를 추수기에 앞서 명절놀이로 다시 놓는 것이다. 이 패다리놓기는 고려 중기부터 1910년대까지 매우 성행하였다. 이후로 계속 중단되었다가 1980년 현산문화제 때 처음으로 재현되었다. 1983년 5월 19일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10월 20일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여 장관상을 받았다.

내용 강원도 양양 지역의 산간 마을에는 계곡에 다리가 많은데, 원일전리마을에도 계곡을 가로 지르는 하천에 다리를 놓고 왕래하였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일만봉 삼천 계곡'이라는 말이 전하듯이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산세(山勢)로 고산준봉(高山峻峰)에서 발원한 물길이 급류를 형성하고 있다. 또 산악과 바다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심하여 장마가 수시로 나타나는데 여름철에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때에 떠내려간 다리를 다시 놓는 일은 마을의 중대사이다. 대체로 가을 명절인 추석날 하루 전에는 멀리 나갔던 친인척들이 귀향하므로 주민들이 모여서 새롭게 다리를 놓고 풍년을 기원한다. 따라서 패다리놓기는 촌장을 중심으로 편을 갈라 서로 경합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명절놀이로 '놓기'와 '밟기'가 결합된 방식이다. 여러 지역에서 행하는 정월대보름의 다리밟기는 기존의 다리를 밟는 방식이지만, 양양 지역의 패다리놓기는 다리를 다시 놓고 밟으면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놀이이다.

패다리놓기의 내용은 네 마당으로 구성된다. 첫째 마당은 다리놓기꾼 입장과 다리터 지신제이다. 둘째 마당은 다리놓기 경기, 셋째 마당은 이긴 마을 촌장 다리 건너기, 넷째 마당은 양마을 한마당놀이이다. 내용을 보면 먼저 농기와 마을기, 촌장가마, 농악대의 순서로 두 마을에서는 다리를 놓기 위해 다리판과 다리발을 메고 들어와 지신제(地神祭)를 지낸다. 지신제는 다리터에 자리를 깔고 주과포를 차리고 두 마을 촌장이 잔을 올리고 배례한 후 상견례를 한다. 다음은 다리를 놓기 위해 두 패로 나뉘어 각기 다리발을 세우고, 모래와 자갈을 운반하여 동여매기 경쟁을 한다. 한쪽에는 산에서 원목을 운반하고 목도소리를 부르며 다리판을 옮긴 다음, 다리판

뺏기도 하고, 다리발을 먼저 박고 묶어서 세우는데 이때 다리를 빨리 놓는 편이 이긴다. 따라서 아낙네들도 자기편 일꾼들에게 술을 권하며 농악가락에 맞추어 응원을 하여 힘을 돋운다. 다리를 빨리 놓아서 이긴 마을은 함성을 지르고 촌장은 가마를 타고 완성된 다리를 건넌다. 이긴 마을의 촌장이 통과하는 동안 진 마을에서는 엎드려 예(禮)를 올린다. 이어서 팔목도꾼이 원목을 목도로 다리를 지나가고, 지게꾼, 나그네, 아낙네들이 통행한다. 이긴 마을은 풍년과 마을의 번영이 온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끝으로 이긴 마을 주민들은 진 마을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함께 마당놀이를 하자고 권하고, 양지마을과 음지마을의 남녀노소가 어울려 흥겨운 놀이마당을 펼친다.

의의 양양패다리놓기는 마을의 통행로인 다리가 유실된 것을 힘을 합쳐 울력으로 새롭게 다리를 놓는 풍속이다. 두 마을의 경쟁을 통해 일의 능률을 올리고 화합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패다리놓기는 마을 공동사를 처리하는 형태에서 나온 집단놀이이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鄕土誌(襄陽郡敎育廳, 1968), 襄州誌(양주지 편찬위원회, 1990), 강원전통문화총서-민속-(김의숙 외, 國學資料院, 1997), 양양군민속지(장정룡·양언석, 양양군, 2001).

필자 | 장정룡(張正龍)

의성가마싸움(義城-)

정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에서 가마를 이용하여 벌이는 민속놀이. 매년 추석에 하는 놀이로 가메쌈, 자매(姉妹)쌈, 가마(가메)놀이라고도 한다. 의성가마싸움은 경북 의성(義城)에서만 전해온 민속놀이이다.

유래 의성 읍내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아사거랑[衙舍川]을 경계로 남부에 봉강서당(鳳岡書堂), 성무청서당(盛武廳書堂), 삼일재서당(三一齋書堂), 향청서당(鄕廳書堂), 북부에 규모가 큰 덕록서당(德麓書堂)이 있었다. 마침내 남과 북 양편으로 가른 학동(學童)들이 교각과 난간이 없는 널찍한 구름다리 형태의 의성읍 유다리 위에서 서로 가마를 비키지 않으려고 공격함으로써 싸움이 시작된다. 의성가마싸움은 읍내 북촌에서는 가마싸움 또는 가매쌈이라 불렀고, 남촌 오씨(의성읍 남부의 해주 오씨)들은 가마놀이라고 했다. 수기(帥旗)로 보아 대도독(大都督), 절도사(節度使), 어사(御使)들이 가마를 타고 출현하는 것을 모의(模疑)한 것이라 하여 붙은 명칭인 듯하다.

언제부터 전승된 놀이인지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1906년 무렵에 마지막으로 중단된 놀이를 1974년에 복원하였고, 1983년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2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

한편 이 놀이와 관련하여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동의 각시당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에 안동과 의성을 잇는 길은 갈라산 길이 가장 가까웠다고 한다.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의 안동과 의성은 흔히 안의지방으로 묶어서 불리며, 빈번한 교류와 혼맥이 연결된 동일 소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다녔는데, 어느 날 의성에서 안동으로 시집오는 색시를 태운 가마와 안동에서 의성으로 시집가는 색시를 태운 가마가 갈라산 중턱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한 쪽은 험한 산이고 다른 쪽은 높은 낭떠러지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서로 비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옛날에는 초행길 가마가 물러서면 재수가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물러서지 않고 대치를 하였는데, 결국 비켜갈 수가 없어서 양측 가마꾼들이 힘으로 맞부딪치게 되었다. 가마를 맨 채 가마꾼들이 밀고 당기는 가마싸움이 벌어졌는데, 힘이 약한 쪽의 가마가 차츰 밀리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가마 속에 타고 있던 색시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후 갈라산 중턱에 이날 죽은 각시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각시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내용 의성가마싸움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전승되는 대표적인 가마싸움놀이로 매년 음력 8월 15일 경북 의성읍 일원의 읍내를 남북으로 가르는 유다리에서 서당학동들이 편을 갈라 노는 놀이이다. 해마다 추석을 즈음해서 서당이 잠시 쉬는 틈을 타서 이웃마을 또는 이웃 서당의 학동들끼리 힘과 지혜를 겨룬다.

학동들은 추석을 앞둔 장날을 전후로 본격적인 놀이 준비에 들어간다. 대장격인 접장을 뽑는가 하면

〈의성가마싸움〉
1 입장대형 - 남군
2 입장대형 - 북군
3 미지기 놀이
4 석전놀이
5 가마 부딪치기
6 미지기진
7 승자 퇴장 모습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문화원









전략을 세우고 싸움에 필요한 도구 곧 가마와 기치(旗幟) 등을 준비한다. 추석을 전후로 각 서당의 학동들은 준비한 가마와 기를 들고 마을의 골목을 누비면서 위풍당당한 기세(氣勢)를 울린다. 그리고 마을의 가장 넓은 장소로 모여든다. 각 서당의 학동들은 최고 수장 역할을 맡은 접장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서고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빙빙 돌면서 상대 진영의 허점을 노려 돌격한다. 가마끼리 심하게 부딪치게 하거나 발로 가마를 차고 부수며, 상대편의 기(旗)를 많이 뺏으려고 전력을 다한다. 이때 상대편의 가마를 먼저 부수거나 기를 많이 빼앗은 편이 승리하게 된다. 진법은 장사진(長蛇陣), 개문진(開門陣), 통짜기진, 멍석말이를 임기응변으로 적용한다. 이 광경을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은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싸우는 학동들을 격려한다. 가마싸움에 이긴 서당에서는 그해 과거시험에 급제하는 학동이 많이 나온다는 속신이 있어 서당에 다니는 학동의 부모들은 더욱 열렬히 응원한다.

싸움에서 이긴 편은 빼앗은 기를 하늘 높이 쳐들고 기세등등하게 마을을 누비고 다니는데, 그 승리의 행렬이 자신의 서당 앞에 이르러서야 가마싸움 놀이는 끝이 난다. 이처럼 가마싸움은 청소년들의 단순한 민속놀이라기보다는 과거 합격에 대한 주술적 기원과 신체단련의 가치가 담긴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돋보이는 놀이이다.

현재 경북 의성에서는 가마싸움을 매년 문화재 행사 때에 의성중학교 학생들에 의해 재연하여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의성중학교 학생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는 의성가마싸움의 구성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풍악을 울리며 학동들이 싸움에 합세할 것을 유도하는 동리(洞里) 주행 ② 어깨를 맞대고 상대방

을 밀어내는 식의 미지기 놀이 ③ 지금은 돌 대신 콩주머니를 상대편에 던지는 석전놀이 ④ 상대 가마를 부딪쳐서 가마의 튼튼함을 자랑하는 가마부딪치기 ⑤ 양쪽 팀이 각 접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진법놀이 ⑥ 상대 수비군의 주변을 뛰면서 빙빙 돌다가 농악에 맞추어 일제히 공격하는 멍석말이(이때 상대편의 가마머리를 들고 나오면 이긴다.) ⑦ 이긴 편은 상대로부터 빼앗은 가마와 기를 들고 덩실덩실 춤추며 동리를 주행하지만, 진 편은 땅을 치고 짚신을 던지고 통곡을 하며 놀이는 끝난다.

의성가마싸움과 유사한 놀이로 가마타기가 있다. 가마타기는 가마 타는 것을 본떠서 만든 아이들 놀이로, 어린이 세 명 이상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가마를 타는 놀이이다. 가마는 두 어린이가 각각 자신의 오른손을 왼팔의 상부에 놓고 왼손으로 상대방 오른팔의 상부를 붙잡아 만든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어린이나, 다른 놀이에서 이긴 어린이가 진 어린이 두 명이 만든 손가마를 타고 정한 거리를 왕복하면서 즐긴다. 가마 타는 어린이는 가마 위에 걸터앉거나 손목에 두 다리를 끼우고 앉는다. 차례를 바꾸어 가마를 타면서 "가마 가마 꽃가마" 같은 노래를 부르며 단순히 즐기기도 하고, 두 팀의 가마끼리 달리거나 가마 타고 싸우기와 같은 것으로도 응용한다.

참고문헌 | 한국의 축제(문화예술총서8,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87), 한국의 향토문화자원5(전국문화원연합회, 2000), 의성 가마싸움놀이(김종우, 강상문, 김영구 편저, 의성문화원, 2001).

필자 | 이원태(李源台)

조리희(照里戱)

⇨ 추석줄다리기: 가을편

쥔쥐새끼놀이

⇨ 꼬리따기: 가을편

지애밟기

⇨ 지와밟기: 가을편

지와밟기

정의 추석(秋夕)이나 정월대보름날 밤에 여자들이 등을 굽혀 지와(기와) 모양을 만들고 그 위를 밟아 가는 민속놀이. 강강술래의 부수 놀이의 하나로서, 전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와밟기라 하여 강강술래를 하는 도중에 놀며, 전북 남원에서는 지네밟기라고 한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독립된 놀이로서 지애밟기, 재밟기, 기와밟기, 놋다리밟기, 인다리, 동교라고 한다. 이 유사놀이들의 선후 관계나 발생 시기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내용 여자들이 줄지어 늘어서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등을 굽혀 엎드려 길을 만들면 그 위를 밟고 가면서 노래를 부른다. 놀이 형태는 유사하지만 놀이의 의미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사람들이 엎드린 모양이 기왓장을 엎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하여 기와라 하기도 하고, 지네를 닮았다고 하여 지네라 부르기도 하며, 물을 건너는 다리로 사용했다는 공민왕의 전설에 의하여 다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농경사회에서 물을 관장하는 용신(龍神) 곧 용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와밟기 놀이에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밟는 사람에 대한 의미 부여도 여러 가지이다. 전라도의 지와밟기에서는 놀이꾼 중에 한 사람이 올라가며 큰 의미는 없다. 반면 남원의 지네밟기에서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밟게 하고 지네밟기 자체가 밟는 아이의 무병장수와 출세를 의미한다. 경북 군위에서는 올라간 놀이꾼을 기와장이라고 부른다. 한편 놋다리밟기에서 다리를 밟는 이는 소녀들이며, 이들은 공주라고 부른다. 밟기를 할 경우 강강술래의 기와밟기와 놋다리밟기는 양쪽에서 손을 잡아주지만, 군위의 지애밟기와 남원의 지네밟기는 막대기를 이용한다.

놀이의 전반적인 구성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있다. 전북 남원과 경북 군위처럼 농악대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북 안동이나 의성과 같이 놀이꾼들만 행진하는 경우도 있다. 전라도의 강강술래와 경북 의성의 경우처럼 강강술래나 부수놀이들과 함께 노는가 하면, 놋다리밟기처럼 기와밟기만


1


2

1~2 지와밟기
전남 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독립적으로 노는 경우도 있다. 또 전라도와 전북 남원, 경북 안동의 놋다리밟기처럼 기와를 밟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북 군위와 의성에서처럼 두 팀을 나누어 서로 힘을 겨루어 승부를 내는 곳도 있다. 강강술래에서는 한번 굽힌 상태를 밟아 지나가면 끝이 나지만 경상도에서는 뒤에 섰던 사람이 다시 앞으로 가서 길을 만들어 준다.

지역사례 전라도의 지와밟기는 추석, 정월대보름, 백중, 유두와 같은 명절날 밤에 강강술래와 함께 논다. 여성들이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등을 굽혀 그 위를 한 사람이 걸어가는 놀이이다. "어딧골 지완가, 전라도 지왈세, 몇닷냥 줬는가, 스물닷냥 줬네" 또는 "어딧골 지완가, 장자장자골 지와세"와 같은 가사를 노래한다.

경북 군위군 의흥면의 지애밟기는 기와밟기라고도 하며, 음력 8월 16일 밤에 논다. 아랫마을과 윗마을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며 각각 자기 진지로 집결하여 일렬로 등을 굽히면 그 위를 기와장이가 막대기를 잡고 양편의 부축을 받으면서 밟는다. 양편의 기와장이가 대결하여 상대 기와장이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막대기를 빼앗으면 이긴다.

전북 남원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는데 이를 지네밟기라고 한다. 칠월 백중날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고 아이의 무병과 출세, 마을의 안녕과 주민 단합을 목적으로 삼동굿놀이와 지네밟기를 한다. 당산제를 지내고 우물굿을 친 후 마을의 공터로 모여 여자들이 등을 굽혀 길을 만들면 그 위에 마을의 어린 아이들을 올려 밟도록 한다. 아이를 지네에 올리기 전에 태어나는 과정을 모의하고, 성장하여 입신출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네밟기에서는 아이들을 대감이나 장군처럼 꾸민다. 그 밖에 안동의 놋다리밟기와 경북 의성의 기와밟기가 있으며 이는 정월대보름에 노는 놀이로 알려져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강강술래와 놋다리밟기의 지역적 전승양상과 문화적 상황(임재해, 민속연구2, 민속학연구소, 1992), 우리 몸에 새겨진 삶의 노래 강강술래(김혜정, 한얼미디어, 2004).

필자 | 김혜정(金惠貞)

⇨ 강강술래: 가을편

청어엮기(靑魚-)

정의 청어(靑魚)를 엮거나 풀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손 사이를 꿰어가거나 풀어가는 놀이. 강강술래 놀이의 하나이다.

내용 청어엮기는 청어를 엮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손 사이를 꿰어가는 놀이를 말하고, 청어풀기는 청어를 풀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손 사이를 풀어가는 놀이를 말하는데, 청어엮기와 청어풀기는 하나의 과정으로 묶여 있다.

강강술래 놀이인 고사리꺾기가 끝나면 또 다시 손과 손을 맞잡으며 둥근 원이 되는데, 이때 선소리꾼이 자진 중중모리 장단으로 "청청 청어엮자, 위도

군산 청어엮자, 엮자엮자 청어엮자, 위도군산 청어엮자"라는 노래를 부른다. 나머지 놀이꾼들은 이 노래를 되받으면서 원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청어엮기 준비를 한다. 그러면 각 부분의 선두가 오른손을 놓고 그 줄의 맨 끝의 사람과 끝에서 두 번째 사람의 맞잡은 손 밑을 꿰어가면 줄줄이 선두를 빠져나가면서 끝에서 두 번째 사람은 서서히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팔이 꼬이게 되는데, 왼팔이 오른쪽 어깨 위로 가게 된다. 선두는 다시 돌아와 다른 사람들 사이로 엮어 가는데 모두 엮어질 때까지 차례로 반복하게 된다. 이렇듯 노래를 부르면서 선도자에 의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손 사이를 꿰어가는 동작을 한다.

청어엮기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청어풀기를 하는데, 선두가 엮을 때와 반대 방향으로 꿰어가면 사람들의 어깨가 풀리며 본래 원대형으로 되돌아간다. 이때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청청 청어풀자, 위도군산 청어풀자, 풀자풀자 청어풀자, 위도군산 청어풀자"이다.

이러한 놀이를 널리 전승하는 지역은 서남 해안 지역으로서 어업이 주된 생업이다. 노래에 등장하는 부안 위도와 군산은 모두 어촌과 어항이 있는 섬과 해안 지역으로서 청어를 비롯한 수산물의 채취가 주요 생업이다. 청어는 많은 어란(魚卵)을 가지고 있는 번식력이 강한 어류로서, 주로 위도와 군산에서 많이 잡히는 중요한 어획물이며, 제상에 올리는 제수용으로 널리 쓰이는 어종이다.

청어엮기와 청어풀기는 위도와 군산의 청어를 엮고 푸는 행위를 단순한 사설의 반복을 통해 놀이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놀이는 원무의 변형 형태로서 실제 청어라는 수산물을 엮고 푸는 것을 춤으로 형상화한 모의희(模擬戱)이며, 풍어를 비는 모의주술희(模擬呪術戱)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어를 많이 수확하여 청어를 엮거나 풀 때의 기쁨을 춤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서해안 도서 지역에서 청어의 생산지답게 청어 건사하는 일을 반영한 청어엮기와 청어풀기를 한다면, 경북 안동에서는 이에 견줄만한 놀이로 청어장사를 전승한다. 청어장사 놀이는 부녀자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한 편은 장사꾼 노릇을 하고 한 편은 손님 노릇을 하는데, 옆으로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1 청어엮기
2 청어풀기
전남 진도 국립문화재연구소

마주 서서 노래를 주고받으며 앞뒤로 나아갔다 물러섰다 한다. 먼저 장사꾼이 "청어사소 청어사소" 하고 나아가면 손님들이 뒤로 물러선다. 이번에는 손님들이 나아가면서 "청어값이 몇냥이로" 하면 장사꾼이 물러서며 "은도닷냥 돈도닷냥" 하고 응답한다. 다시 손님들이 "연에닷냥 제값일세" 하며 나서면, 이에 장사꾼들은 청어 사라는 말을 되풀이 하며, 같은 방식의 놀이를 거듭한다. 이러한 놀이는 청어를 사고파는 거래 과정을 노래춤으로 형상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놀이 모두가 생산활동이나 생업의 특정 양식을 모의적으로 재현함으로써, 풍요로운 생산을 희구하는 모의적인 생산굿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놋다리밟기 춤의 유형과 풍농기원의 의미(임재해,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지식산업사, 1991),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강강술래를 찾아서(나승만, 보림, 2003).
필자 | 서해숙(徐海淑)

⇨ 강강술래: 가을편

청어풀기(靑魚-)

⇨ 청어엮기(靑魚-): 가을편

추석줄다리기(秋夕-)

정의 촌락사회에서 주민들이 편을 갈라 짚으로 만든 굵은 줄을 당겨서 승부를 가림으로써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세시 의례적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

내용 우리나라 각 지역의 줄다리기는 대부분 정월대보름에 그 시행 시기가 집중되어 있지만, 단오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혹은 기우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추석에 행한 줄다리기의 기록으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조리희(照里戱)가 있다. 조리희는 제주도 지역의 줄다리기라는 점에서 특이하다. 조리희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8월조에도 언급되는데, "제주도 풍속에 매년 음력 8월 보름에는 남녀가 모여 가무를 즐기고, 좌우로 편을 갈라 큰 줄을 잡아당겨서 승부를 겨룬다. 만약 줄이 중간에서 끊어지면 양편이 모두 땅에 넘어지게 되는데 이를 보고 구경꾼들이 크게 웃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주도 조리(照里) 지역의 놀이[戱]는 편을 갈라 큰 줄을 당겨 승부를 가린다는 점에서 줄다리기와 유사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록으로만 본다면 논농사가 발달하지 않은 제주도 지역에서 조리희가 육지의 줄다리기와 같은 세시의 성격을 가진 민속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추석에 행하는 줄다리기는 정월대보름의 줄다리기와 같이 만월(滿月)이라는 시점에서 행하는 점이 같지만, 절기상 정월처럼 농한기가 아니라 수확기에 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추석의 줄다리기는 수적 분포 면에서 예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풍속이라 하겠다. 비록 보름달이 풍요의 상징이고 월신(月神)이 여신이라는 점에서 풍요 기원의 풍속으로 평가되지만, 정월대보름이 농경의례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지연적 성격에 기반을 둔 명절인 반면, 추석은 조상숭배와 관련된 혈연적 명절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추석에 행하는 줄다리기의 시행 시점은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는 추석날이 아니라 8월 16일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으로 이어진다.

지역사례 경북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의 줄다리기는 추석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로 음력 8월 16일 모포리 뇌성산 밑에서 행해진다. 이곳의 줄은 순수한 짚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칡넝쿨과 구피나무 껍질을 짚과 섞어 만든다. 따라서 줄의 굵기도 짚으로 만든 줄과는 달리 원줄(몸줄)이 어른 허벅지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줄을 보관하여 해를 이어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편(여성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과 줄과 줄다리기와 관련된 주술적 상징은 대보름 줄다리기와 차별성을 찾기는 힘들지만 지역적 특수성은 존재한다. 대보름 줄다리기가 풍요 기원을 우선으로 하는 데 반해 울산 지역 줄다리기는 지역의 정기(正氣)가 바다로 함몰하는 것을 끌어올린다는 풍수지리적 의의를 우선으로 하며 포항 모포 줄다리기처럼 마을의 무사태평과 벽사를 주된 목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155호 牟浦줄다리기(文化財管理局, 1964).

필자 | 이장섭(李長燮)

⇨ 줄다리기: 정월편

판수놀이

정의 달 밝은 밤에 넓은 마당이나 잔디밭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판수가 된 술래가 다른 사람을 잡게 하는 여자아이들의 놀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추석 무렵 달이 밝은 밤에 노는 놀이이다. 판수란 점(占)을 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소경을 말한다. 『해동죽지(海東竹枝)』 엄목희조(掩目戱條)에서는 까막잡기라 부르며, 『조선의 향토오락(朝鮮の鄕土娛樂)』에서는 맹목유(盲目遊), 맹귀유(盲鬼遊), 맹유(盲遊)라고 부르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는 봉사놀이, 전남 지역에서는 판수놀이 또는 소경놀이, 충남에서는 장님놀이라 부른다.

내용 먼저 놀이판에 모인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맨 마지막에 진 아이가 판수가 된다. 판수로 뽑힌 아이는 수건으로 눈을 가려 앞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판수의 주위를 손뼉을 치고 돌면서 "날잡어라 날잡어라" 하고 놀려댄다. 여기서 손뼉을 치는 것은 아이들의 위치를 판수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때 판수가 손뼉소리 나는 곳을 향해 장님처럼 손발을 내저으며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나머지 아이들은 잡히지 않기 위해 손뼉을 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러다가 판수가 재빨리 두 팔을 벌려 한 아이를 붙잡으면 그 아이는 가만히 있어야 하고 절대로 웃거나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판수가 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쉽게 알아채기 때문이다. 판수가 아이를 잡고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판수는 그 아이의 얼굴이나 옷맵시를 더듬어 보고 이름을 맞혀야 한다. 판수가 이름을 맞히면 잡힌 아이가 판수가 되지만 맞히지 못하면 계속해서 판수 역할을 해야 한다.

판수놀이를 하는 두 번째 방법은 판수가 뽑혀 수건으로 두 눈을 가리면 다른 아이들은 판수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고 앉아 "박수박수 깽깽 누구 뒤에 숨었냐?"를 제창하며 앉은걸음으로 좌우로 이동한다. 그러면 판수가 그 소리들을 듣고 한 아이를 잡아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맞히면 판수를 면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판수 역할을 해야 한다.

세 번째 방법은 여러 아이들이 앉아서 원을 그리고 돌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원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판수가 "누가누가 보인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누가누가 보이냐?"라고 묻는다. 이때 판수가 원 밖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맞히면 아이들이 "누구뒤에 숨었냐?"라고 또 묻는다. 그러면 판수가 "누구뒤에 숨었다"라고 맞히면 아이들이 "맞었다 맞었다"라고 제창한다. 만약에 틀리면 "틀렸다 틀렸다"라고 제창한다. 이 방법은 원 밖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맞히고 또다시 앞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맞혀야 하기 때문에 판수를 면하기가 쉽지 않은 놀이이다.

네 번째 방법은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과 진 팀 두 팀으로 나눈다. 이들은 번갈아 끼어들며 원을 그리며 앉는다. 그리고 양 팀에서 똑똑하고 민첩한 아이 한 명씩을 선발해서 고양이와 쥐를 만든다. 고양이와 쥐의 역할은 두 아이로 하여금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한다. 고양이는 술래가 되어, 두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쥐를 잡으러 쫓아다닌다. 이때 쥐는 손뼉을 치며 이리저리 도망을 다닌다. 고양이와 쥐는 아이들이 앉아 있는 원 밖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으며, 만약에 쥐가 급하여 원 밖으로 나가면 고양이에게 잡힌 것으로 간주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한 판의 놀이가 끝나고, 쥐편이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편이 쥐가 되어 새로운 놀이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쥐를 어느 팀이 많이 잡았는가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의의 판수놀이는 특별한 놀이기구나 놀이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대중적으로 놀 수 있는 여자아이들의 놀이로서 아이들의 상상력, 집중력, 순발력, 판단력 등을 키워주는 놀이이다.

참고문헌 | 海東竹枝,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한국의 민속놀이(김광언, 仁荷大學校出版部, 1982), 금산의 민속놀이(강성복, 금산문화원, 1994), 光州의 民俗놀이(光州民俗博物館, 1995),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표인주(表仁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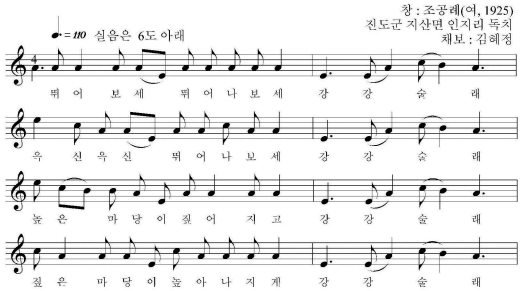
강강술래

정의 추석, 정월대보름, 백중, 유두와 같은 명절날 밤에 손을 잡고 둥글게 돌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 또는 그 노래. 강강술래는 1966년 2월 15일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명칭 강강술래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데, 전남 진도와 해남에서는 느리게 부를 때에는 강강수월래로, 빠르게 부를 때에는 강강술래로 받는다. 전남 담양에서는 광광술래로 받으면서 놀이의 명칭도 광광술래라고 부른다. 전남 고흥에서는 강강(갱)이나 수월래, 신안군 도초면 한발리는 가강강술래, 나주는 강강도술래, 영광은 우광광광수월래로 받는 소리를 부른다.

내용 강강술래는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협의의 강강술래는 원무(圓舞)를 추면서 강강술래라는 받는소리를 노래하는 것만을 지칭하며, 광의의 강강술래는 원무에 덧붙여서 노는 남생아놀아라, 청어엮기, 청어풀기, 고사리꺾기, 덕석몰기, 덕석풀기와 같은 부수놀이들과 그 노래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부수놀이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나 놀이

자진강강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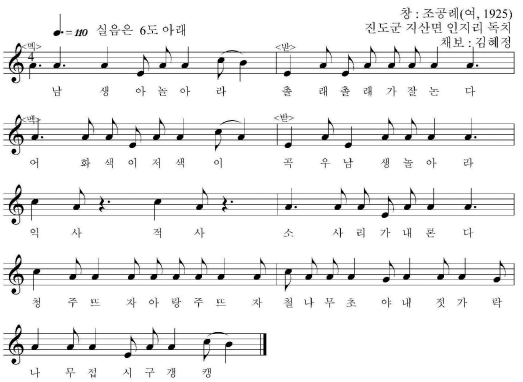


방식이 달라지는데, 각 지역의 개별놀이들이 강강술래와 함께 놀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부수놀이는 30여 가지가 넘는다.

강강술래의 놀이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밤을 새워가며 강강술래를 뛸 때에는, 강강술래를 뛰다가 힘이 들 때 뛰뛰기를 멈추고 온갖 놀이를 하게 된다. 이들을 부수 놀이라 한다. 강강술래의 부수 놀이들에는 각 지역에서 전승되는 개별 놀이들이 대부분 포함된다. 널리 알려진 남생아놀아라,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청어풀기, 덕석몰기, 덕석풀기, 대문열기, 기와밟기 이외에도 수건돌리기, 종지기돌리기, 도굿대당기기, 콩주머니던지기를 하고 벌칙으로 노래 경연도 벌인다.

무형문화재의 강강술래 공연은 부수 놀이 중 몇 종목을 선택하여 순서대로 엮어 연출한 것인데, 주로 진강강술래 - 중강강술래 - 자진강강술래 - 남생아놀아라 - 개고리타령 - 고사리꺾기 - 청어엮기, 청어풀기 - 덕석몰기, 덕석풀기 - 지와밟기 - 대문열기 - 꼬리따기 - 술래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 가운데 진강강술래 - 중강강술래 - 자진강강술래가 가장 기본적인 놀이이며, 뒷부분의 놀이들은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다른 놀이가 추가되거나 생략되기도 한다.

남생아 놀아라



음악적 특성 ① 음계: 강강술래는 주로 전남과 전북의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 지역은 '미라시도'음이 출현하는 육자배기토리(남도민요선법)를 사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강강술래도 미라시도의 육자배기토리를 사용한다. 육자배기토리는 음계의 가장 아래 음인 '미'음을 굵고 둥글게 떨고, '라'음을 평으로 내며 '도'음은 항상 '시'음으로 꺾어 내린다. 이러한 특징은 비교적 속도가 느린 진강강술래와 중강강술래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판소리꾼이 부르는 강강술래나, 문화재로 지정된 강강술래에서는 '미라시도레미'의 넓은 음역과 화려한 시김새를 사용한다. 그러나 곡의 속도가 빨라지면 미음을 굵게 떨기 어렵고, 도에서 시로 꺾어 내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를 생략하고 도만 사용하게 된다. 때문에 자진강강술래와 부수 놀이의 노래들은 미라도의 3음만을 주로 사용한다.

② 선율진행: 선율진행에서 강강술래의 받는 소리는 미에서 라음으로 4도를 올리는 상행형 구조로 되어 있다. 받는 소리와 함께 반복되는 4도 상행의 사용은 가창자들의 음 높이를 조금씩 올리게 만든다. 때문에 강강술래는 부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음 높이가 조금씩 상승하는 특성을 보인다. "땅은 점점 짚어지고 소리는 점점 높아만 간다."라는 노랫말은 바로 음 높이가 높아지고 놀이가 점점 격렬해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③ 장단: 강강술래는 본래 장구 장단을 연주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악기 반주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악기 반주를 할 경우 판소리 장단을 이용하는데, 음악적 구조가 같은 장단으로 반주한다. 진강강술래는 진양조장단(느린 6박) 또는 중모리장단(12박 또는 느린 4박)에 맞는데 전남 진도, 해남, 신안 일부 지역의 진강강술래는 진양조장단형이며, 나머지 전남 지역 전반에서는 중모리장단형을 사용한다. 중강강술래는 중중모리장단(중간속도의 4박)에 맞게, 자진강강술래는 자진모리장단(빠른 4박)에 맞게 부른다. 이후에 부르는 부수놀이요들도 대부분 자진모리장단에 맞는다. 부수 놀이 중 가마등은 느린 4박이며, 손치기발치기는 빠른 2소박 4박의 단모리

장단에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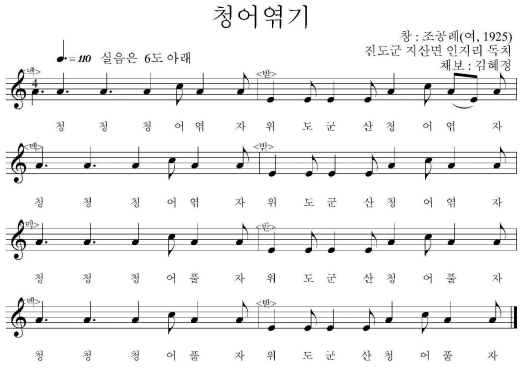
④ 가사붙임새: 강강술래의 메기는 소리 가사는 1장단에 4·4조 여덟 글자 정도가 붙는 것이 보통이다. 8글자의 가사는 1장단 4박에 붙여지는데, "달아 달아 밝은달아"의 모양처럼 1박에 1~3글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받는 소리는 1장단에 "강강술래"의 네 글자를 붙여 노래한다. 받는 소리는 메기는 소리보다 가사의 수가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소리의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강강술래는 점차 가속도가 붙는다. 또한 율동성이 강한 가사와 활발한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은 강강술래를 보다 리듬감 있게 만든다.

⑤ 가창방식: 강강술래는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가창한다. 메기는 소리의 내용은 유동적이어서 서사적인 내용을 담기도 하고 서정적인 가사를 담기도 한다. 반면 받는 소리는 강강술래를 반복한다. 부수 놀이의 경우에는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모두 동일한 것을 반복한다. 남생아놀아라,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청어풀기, 덕석몰기, 덕석풀기, 꼬리따기, 손치기발치기, 바늘귀꿰기 등의 노래는 "남생아놀아라 - 촐래촐래잘논다"와 같이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의 가사가 대구를 이룬다. 그리고 대문열기의 "문지기문지기 문열어주소 - 열쇠없어 못열겠네"와 밭갈이의 "어디만큼 강가 - 당당멀었네"는 문답형으로 주고받는다.

⑥ 음악적 유형: 강강술래는 진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의 세 가지, 또는 진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진·중·자진의 구분은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다. 진은 길다, 질다의 의미로 느리고 길게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강술래 중 가장 느린 것을 진강강술래라 한다. 중강강술래는 중간 속도를 의미하며, 가장 빠른 것을 자진강강술래라고 한다. 실제로 밤을 새워 강강술래를 뛸 때에는 점차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속도 변화 시점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공연되는 강강술래는 공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속도별 구분이 분명하다.

부수 놀이요의 음악적 특성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진강강술래의 음악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사만 바꾸어 부르는 경우이다. 받는 소리와 메기는 소리의 가사가 모두

청어엮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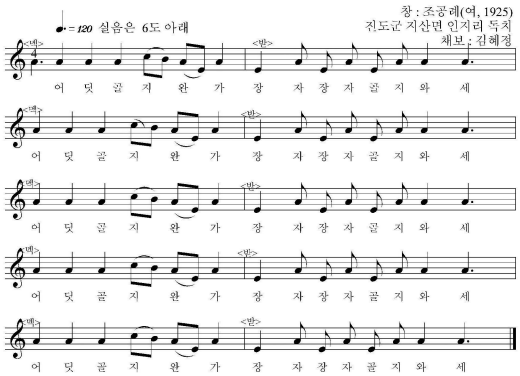
달라지지만 자진모리장단과 육자배기토리를 사용하는 음악적 모양새는 동일하다. 가사는 놀이 방식이나 내용을 담으며, 1장단을 메기고 1장단을 받는다.

남한산성 도적이야는 자진강강술래의 강강술래라는 받는 소리 대신 "남원산성 도적이야"로 노래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자진강강술래와 같은 음악적 특성을 지니면서 가사만 바뀐 경우에는 남생아놀아라,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청어풀기, 덕석몰기, 덕석풀기, 지와밟기, 꼬리따기, 남원산성도적이야, 대문열기, 바늘귀꿰기, 밭갈이, 굴렁테, 달넘기, 담장넘기가 있다.

부수 놀이의 두 번째 유형은 강강술래의 음악적 특성은 유지하지만 형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받는 소리를 생략하거나 길이를 바꾸는 경우, 또는 형식이 다른 악곡과 강강술래의 악곡을 섞는 경우이다. 흔히 뛰엄뛰는 노래로 알려진 기장떡, 감자순, 굴려라, 발자랑 등의 악곡은 받는 소리를 생략한 자진강강술래와 같다. 받는 소리의 길이를 바꾼 것으로는 술래가 대표적이다. 술래의 메기는 소리는 "술래/술래가/술래/야"와 같이 4박으로 메기고 받는 소리는 "술/래"의 2박으로 받는다. 또한 형식이 다른 두 개의 악곡을 섞어 놓은 것에는 비자나무, 장장짚세기 등이 있다. 비자나무는 사당패소리와 진도아리랑을 섞은 곡이며, 장장짚세기는 강강술래와 진도아리랑을 섞은 곡이다.

부수 놀이의 세 번째 유형은 다른 장르의 음악를 강강술래의 놀이요로 수용한 경우이다. 사당패소리를 수용한 개고리타령, 가마꾼의 권마성을 수용한 가마등이 대표적이다. 개고리타령은 사당패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본래는 경·서도의 음악이었으나 현재는 전라도 음악화되었다. 가마등은 가마꾼들이

지와밟기



부르던 권마성이라는 노래를 모방해 부른 것이다.

부수 놀이의 네 번째 유형은 가창유희요가 동작유희요로 기능이 변화한 경우이다. 둥당애타령, 진도아리랑은 본래 여성들이 여러 기능에 부르던 가창유희요이지만, 강강술래에 불리면서 동작유희요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전남 담양의 등단이야는 둥당애타령을 부르며 춤추는 놀이이며, 전남 진도나 신안은 강강술래의 끝부분에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춤을 춘다. 한편 손치기발치기, 기와밟기와 같이 자진강강술래와 음악적 특성이 다른 노래도 있다.

지역사례 일제강점기에 나온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향토오락(朝鮮의 鄕土娛樂)』에 의하면 강강술래는 전라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는 경상도 영일과 의성, 북쪽으로 황해도의 연백까지 분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조사된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강술래는 전남의 서남 해안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전라도와 경남의 서남부 지역, 충청도의 서부 지역에 걸쳐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강강술래의 놀이형태와 음악은 마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특히 문화재 지정 지역과 내륙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전남 진도와 해남의 문화재지정 강강술래는 강강술래 - 중강강술래 - 자진강강술래 - 남생아놀아라 - 개고리타령 - 고사리꺾기 - 청어엮기, 청어풀기 - 덕석몰기, 덕석풀기 - 지와밟기 - 대문열기 - 꼬리따기 - 술래와 같은 놀이를 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진도에 전승되는 강강술래에는 손치기발치기, 바늘귀꿰기, 밭갈이 등의 놀이가 더 전승되고 있으며 진도 조도에는 굴렁테와 같은 놀이도 전승되고 있다. 해남에는 가마등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전남 진도 의신면에는 '남한산성 도적이야'라는 놀이가 전승되고 있는데, 역시 강강술래와 같은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 원무와 집단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강강술래와 달리 남한산성 도적이야는 원무 속에서 2인 놀이가 주로 이루어진다.

전남 신안에서는 진도나 해남과 유사한 노래들이 전승되고 있으나 놀이방식은 약간씩 다르다. 강강술래가 끝나는 시점에 "으이샤 으이샤"와 같은 구호를 매우 빠른 장단에 맞추어 외치면서 난장 춤판을 만드는데, 이러한 춤판은 진도아리랑이나 유행가를 부르며 춤추는 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남 담양에서는 광광술래 - 자진광광술래 - 달넘자 - 기와자볾자 - 당그레춤 - 문열기 - 덕석몰기, 덕석풀기 - 남생아놀아라 - 개고리타령 - 청어엮기, 청어풀기 - 등단이야 - 돌아라돌아라 - 외따기가 전한다. 다른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달넘자와 당그레춤, 등단이야, 외따기와 같은 놀이가 있다.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의 강강술래는 진강강술래 - 자진강강술래 - 청어엮기, 청어풀기 - 고사리 - 덕석몰기, 덕석풀기 - 기와밟기 - 남생아 - 문열기 - 군사놀이이다. 고사리를 꺾을 때 담넘기를 함께 하며, 꼬리따기의 변형놀이인 군사놀이가 있다.

전남 장흥과 강진 지역에서는 중로(中路)보기에서 강강술래를 많이 놀았다. 중로보기란 길 가운데에서 보기라는 의미이다. 대개 추석 때 두 개 마을의 처녀들이 마을의 중간 쯤 되는 곳에서 만나서 먼저 정한 마을에서 밤새워 놀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마을에 가서 또 밤새워 노는데, 주로 노래로 경연을 벌리거나 강강술래를 한다.

전남 영암군 시종면 강강술래는 진도와 유사한 편이다. 영암의 강강술래에는 진강강술래 - 자진강강술래 - 고사리 - 남생아 - 청어엮기, 청어풀기 - 대문열기 - 지와자볾기 - 덕석몰기, 덕석풀기 - 꼬리따기 - 달줍기(달따기) - 바늘귀꿰기 등이 있다. 이 마을의 달줍기놀이는 콩주머니던지기와 같다.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는 강강술래 이외에 고사리꺽기, 청어엮기와 방석말기, 뛰엄뛰는 노래인 기장떡, 고창에서는 청어엮기와 덕석몰기가 조사된 바 있다. 남원에서는 대문열기, 담장넘기와 동아따기, 지네밟기 등이 조사된 바 있으며, 쾌지나칭칭나네의

노래로도 강강술래를 뛰었다고 한다.

충청도의 강강술래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강강술래류의 놀이노래로 너리기펀지기, 동아따기와 같은 자료들이 소개된 바 있을 뿐이다. 경남의 서남해안 일부에서도 강강술래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또한 경상도지역에서는 강강술래와 유사한 월월이청청과 놋다리밟기류의 놀이노래가 전승되고 있는데, 노래와 놀이 방식이 약간 다르지만 강강술래와 같은 유형의 놀이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全南의 民謠(池春相, 全羅南道, 1988), 朝鮮의 鄕土娛樂(村山智順 著·朴銓烈 譯, 集文堂, 1992), 줄다리기와 강강술래의 주술종교적 의미(나경수, 전남의 민속연구, 민속원, 1994), 우리 몸에 새겨진 삶의 노래 강강술래(김혜정, 한얼미디어, 2004).
필자 | 김혜정(金惠貞)

가마타기노래

⇨ 강강술래: 가을편

고사리꺾기노래

⇨ 강강술래: 가을편

기와밟기노래

⇨ 강강술래: 가을편

꼬리따기노래

⇨ 강강술래: 가을편

남생이노래

⇨ 강강술래: 가을편

대문놀이노래

⇨ 강강술래: 가을편

덕석몰이노래

⇨ 강강술래: 가을편

청어엮기노래

⇨ 강강술래: 가을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정의 팔월 추석 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밤낮을 즐겁게 놀듯이 한평생을 이와 같이 지내고 싶다는 뜻의 속담.

내용 김매순(金邁淳)의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8월 중추(中秋)에 보면, "가위란 명칭은 신라에서 비롯되었다. 이 달에는 만물이 다 성숙하고 중추는 또한 가절이라 하므로 민간에서는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리 가난한 벽촌의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며, 또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는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바란다(加也勿 減夜勿 但願長似嘉俳日)'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그러므로 일년 중 가장 먹을 것이 푸짐한 계절이다. 가윗날 곧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일년 중 가장 큰 명절의 하나다. 이때는 오곡백과가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다. 또 즐거운 놀이도 많고 과일도 풍성하고 각종 놀이도 있어 아이로부터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즐겁게 지낸다.

17세기 이안눌(李安訥)의 『동악선생집(東岳先生集)』 권18에 추석 달빛 아래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지었다는 한시 가운데 "작년에는 보리농사도 벼농사도 망쳤으니, 유랑하는 백성들 의지할 곳 없는 것이 불쌍하네. 가을걷이 풍성하여 이제야 집집마다 배부름을 알겠으니, 달 밝은 데 자주 길가의 노래 소리를 듣네(去年無麥又無禾 坐憫流氓失撫摩 秋熟始知盧舍飽 月明頻 聽路衢歌)."라고 하는 시가 있다. 추석은 만백성의 즐거움의 표상이다.

참고문헌 | 東岳先生集, 洌陽歲時記, 朝鮮歲時記(洪錫謨 外·李錫浩 譯註, 東文選, 1991),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인학(崔仁鶴)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정의 추수철인 가을에 비가 오는 것을 농가에서는 매우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뜻의 속담. 곡식이나 과일이 결실을 맺어 수확할 때인 추석 무렵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들어 혼수를 장만하지 못하게 되므로 시집을 가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예부터 대추의 고장으로 이름 난 보은(報恩)에서는 대추 흉년이 들면 보은의 아가씨가 시집가기 힘들어 눈물을 흘린다는 뜻의 속담이다.

내용 보은은 충북에 있는 고을의 이름이다. "삼복에 비가 오면 보은 처자 울겠다."라는 속담도 있을 만큼 보은과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다. 그리고 보은은 예부터 '보은 대추나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추로 이름나있는 고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비야비야 오지마라, 대추꽃이 떨어지면, 보은청산 시악시들, 시집못가 눈물난다."라는 타령조의 민요가 생겨났다.

대추나무는 초복 무렵에 첫 수정을 하고, 이때 실패하면 중복이나 말복에 또 수정을 하게 되나, 수정을 잘 했다 하더라도 추석 무렵에 비가 내리면 대추농사를 망치게 된다. 추석비는 대추나무에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해롭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때 내리는 비를 매우 꺼렸던 데에서 유래한 속담으로 볼 수 있고, 더 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대추의 고장인 보은을 인용하여 '보은 아가씨가 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속담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라는 속담처럼 흉년에 대한 경계와 풍년을 소망하는 뜻이 담긴 속담으로는 "처서에 비 오면 사방십리 천 석을 감한다.", "처서에 비가 오면 항아리의 쌀이 준다.", "팔월 보름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 "말복 지나 열흘 동안 뻐꾹새 울면 풍년 든다.", "삼복에 비가 오면 처녀가 운다."가 있다.

참고문헌 | 松南雜識, 耳談續纂,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속담이야기(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3),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우리속담연구(최창렬, 일지사, 1999), 한국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柳在福, 全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1).
필자 | 유재복(柳在福)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정의 옷은 시집갈 때 가장 아름답고 곱게 입을 수 있고, 음식은 한가위에 가장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는데, 이처럼 잘 입고 잘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속담.

내용 예로부터 시집가는 일은 인륜지대사라고 하여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로 여겼으며, 딸을 시집보내면 기둥뿌리가 흔들린다고 할 정도로 온 정성을 다하여 혼수를 장만하였다. 따라서 일생 동안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때는 바로 시집 갈 때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위가 되면 한해의 농사를 짓고 나서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햇곡식 중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사람이 가장 바라는 소망인 잘 입고 잘 먹고 싶다는 심정을 이 두 가지에 빗대어서 표현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의의 예부터 시집가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으며, 한가위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로 꼽혀왔다. "옷이 날개"라는 속담처럼 옷은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였다.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한가위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의 상징이었다. 또한 한가위는 오랜만에 일손을 놓고 온 가족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따뜻한 마음과 인정을 나누는 때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 잘 입고 잘 먹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이러한 속담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 東言解, 旬五志,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한국 민간 속신어사전(최래옥 편저, 집문당, 1995).
필자 | 유재복(柳在福)

푼주의 송편이 주발 뚜껑 송편 맛보다 못하다

정의 푼주와 같이 좋은 그릇에 담긴 맛좋은 송편이라 할지라도 정성과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값어치

없고 볼품없는 주발 뚜껑에 담긴 송편보다 맛이 좋을 리 없다는 뜻의 속담. 음식에는 무엇보다도 만든 사람의 정성과 따뜻한 사랑이 담겨야 하고 오붓한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내용 집안이 몹시도 가난하여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한 선비 내외가 있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송편을 만들었으나, 마땅히 담을만한 그릇이 없어 주발 뚜껑에 담아 놓은 채 입으로 송편을 주고받으며 맛있게 먹고 있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된 숙종은 이를 몹시도 부러워하며 왕후에게 송편이 먹고 싶다고 하였다. 얼마 후에 커다란 푼주(아가리가 넓고 밑이 좁은 사기그릇의 일종)에 맛깔스런 송편이 산같이 쌓인 수라상이 올라왔다. 그러나 숙종은 자꾸만 그 선비 내외의 다정스런 모습이 떠올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울화가 치밀어, 송편 상을 뒤엎어 버렸다는 데서 생겨난 속담이다.

의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가위가 되면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차례를 지내기 위하여 많은 음식을 장만하였다. 그리하여 한가위 음식은 시절식 가운데 음식 종류가 가장 많고 맛이 가장 뛰어나며 색상도 화려하다.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어 추수를 시작하는 때이므로 햇곡식이나 햇과일을 비롯하여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가족 간의 사랑과 정성이 깃든 음식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이 맛있고 풍요롭지만, 그러한 정과 사랑이 없는 음식은 아무리 진수성찬이고 좋은 그릇에 담겨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 간의 허물없는 사랑과 정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 간에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사람 사는 재미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깊은 뜻을 품고 있다.

참고문헌 | 耳談續纂,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속담이야기(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3),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우리속담연구(최창렬, 일지사, 1999).
필자 | 유재복(柳在福)

공자탄일(孔子誕日)

정의 공자(孔子)의 탄생일. 음력 8월 27일을 말한다.

내용 공자는 중국 고대 주(周)왕조의 제후국인 노(魯)나라 창평향(昌平鄕) 추읍(鄹邑)에서 태어났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산동성 곡부(曲阜)시에 해당한다. 공자의 선조는 중국 하남성에 자리 잡고 있던 송(宋)나라의 귀족이었으며, 그의 5대조인 목금보(木金父) 때에 송나라에서 노나라로 이주한 후 대대로 이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공자의 부친은 숙량흘(叔梁紇)로 노나라 귀족인 맹헌자(孟獻子)에게 소속된 무사였으며, 6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당시 10대 후반이었던 안징재(安徵在)라는 여자로부터 공자를 얻었다고 전해진다.

공자의 탄일과 관련해서 이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자의 일생을 연대기식으로 정리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권47 「공자세가(孔子世家)」17의 기록을 따르고 있다. 『사기』에 의하면 공자의 탄일은 주왕조 영왕(靈王) 21년[노나라 양공(襄公) 22년], 경술년(庚戌年) 11월 경자일(庚子日; 21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는 중국의 춘추시대로서 양력으로 환산할 경우 기원전 551년 9월 28일에 해당하며, 음력으로는 8월 27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유교문화권 국가들에서는 이날을 공식적인 공자탄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일시적으로 공자탄일에 제사를 지낸 적이 있으나, 전통적으로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의 석전대제(釋奠大祭) 때 성균관과 전국의 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공자탄일(孔子誕日)에는 기념강연이나 행사로 대신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날이 1989년에 국제공자문화절(國際孔子文化節)로 격상되었고, 2000년대 이후 공자의 고향인 곡부에서 공자탄일을 전후하여 국제공자문화절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자탄일인 양력 9월 28일에는 공자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참고문헌 | 論語, 史記, 論語新講義(金星元 譯著, 明文堂, 1993), 齊魯文化(郭墨蘭 외, 華藝出版社, 1997(중국)), 석전대제(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필자 | 최형식(崔亨植)





節氣 절기

추분을 즈음하여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목화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그 밖에도 잡다한 가을걷이 일이 있다.
호박고지, 박고지 깻잎, 고구마순도
이맘때 거두고
산채를 말려
묵나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추분에는
국가에서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노인성제(老人星祭)를 지냈다.



백로 풍경 이억영

백로(白露)

정의 처서(處暑)와 추분(秋分)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백로(白露)는 양력 9월 9일 무렵으로 대개 음력 8월에 들며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다.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이 황경 165도를 통과할 때이다.

내용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때쯤이면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한다.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나타나는 시기로 옛 중국 사람들은 백로부터 추분까지의 시기를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누어 특징을 말하였는데, 초후(初候)에는 기러기가 날아오고, 중후(中候)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며, 말후(末候)에는 뭇 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고 한다.

백로 무렵에는 장마가 걷힌 후여서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하지만 간혹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과 해일로 곡식의 피해를 겪기도 한다. 백로 다음에 오는 중추는 서리가 내리는 시기이다. 백로보기라 하여 전남에서는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한다. 볏논의 나락은 늦어도 백로가 되기 전에 여물어야 한다. 벼는 늦어도 백로 전에 패어야 하는데 서리가 내리면 찬바람이 불어 벼의 수확량이 줄어든다. 백로가 지나서 여문 나락은 결실하기 어렵다.

제주도 속담에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패지 못한 벼는 더 이상 크지 못한다고 전한다. 또한 백로 전에 서리가 오면 농작물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충남에서는 벼를 늦게 심었다면 백로 이전에 이삭이 패어야 그 벼를 먹을 수 있다고 하고, 백로가 지나도록 이삭이 패지 않으면 그 나락은 먹을 수 없다고 믿는다. 경남에서는 백로 전에 패는 벼는 잘 익고 그 후에 패는 것은 쭉정이가 된다고 알고 있으며, 백로에 벼 이삭을 유심히 살펴서 그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하기도 한다.

농가에서는 백로 전후에 부는 바람을 유심히 관찰하여 풍흉을 점친다. 이때 바람이 불면 벼농사에 해가 많다고 여기며, 비록 나락이 여물지라도 색깔이 검게 된다고 한다.

백로는 대개 음력 8월 초순에 들지만 간혹 7월 말에 들기도 한다. 7월에 든 백로는 계절이 빨라 참외나 오이가 잘 된다고 한다. 한편 8월 백로에 비가 오면 대풍이라고 생각한다. 경남의 섬지방에서는 "8월 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 천석을 늘린다."라는 말이 전하면서 비가 오는 것을 풍년의 징조로 생각한다. 또 백로 무렵이면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시작하고, 고된 여름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때까지 잠시 일손을 쉬는 때이므로 부녀자들은 근친을 가기도 한다.

참고문헌 | 四時纂要,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 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황루시(黃縷詩)

백로보기(白露-)

☞ 백로(白露): 가을편

칠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못 먹어도 팔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먹는다

정의 음력 칠월에 드는 백로(白露) 때까지 패지 않은 벼는 먹기 힘들지만, 음력 팔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먹을 수 있다는 뜻의 속담.

내용 백로는 24절기의 하나로, 양력으로는 9월 8일 무렵, 음력으로는 8월 절기이다. 이 시기에는 밤 동안 기온이 크게 떨어져 대기 중의 수증기가 엉켜서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 이때는 추석 무렵으로 만곡이 무르익는 시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조하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된다. 이처럼 백로는 이삭이 여물기에 좋은 철이므로, 백로 전에는 이삭이 생겨야 한다.

이삭이 생기는 것을 '패다'라고 말한다. 곧 백로 전까지는 벼가 패어야 한다. 만약 이때까지 벼가 패지 않으면 이삭 여물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그 벼는 먹을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백로는 음력 팔월에 드는 절기인데, 음력 칠월에 벌써 백로가 들었다면 이는 절기가 일찍 진행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때까지도 벼가 패지 않으면 이후 농경기 동안 벼가 여물어 추수할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상대적으로 팔월에 드는 백로는 칠월 백로에 비해 절기 진행이 늦은 편이므로 아직 기대해 볼만한 여유가 남아 있다. '패지 않다'라는 말을 한자어로 미발(未發)이라 하여, "팔월 백로 미발은 먹어도 칠월 백로 미발은 못 먹는다."라고도 한다.

유사속담 백로의 이삭 상태는 가을 농사의 성공을 가늠할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백로와 벼이삭을 관련짓는 속담들이 있다. 백로에는 이삭이 거의 결정되었으므로 논에 가볼 필요조차 없다는 뜻으로 "백로가 지나서는 논에 가볼 필요가 없다.", 백로 전에 벼이삭이 패어야 수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백로 전 미발이면 알곡 수확물이 없다.", "백로 미발은 먹지 못한다.", "백로 안에 벼 안 팬 집에는 가지도 말아라.", 벼가 여무는 데 백로가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뜻으로 "백로 아침에 팬 벼는 먹고 저녁에 팬 벼는 못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참고문헌 | 農事俗談(農村振興廳, 1989),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신경숙(愼慶淑)

추분(秋分)

정의 백로(白露)와 한로(寒露)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추분(秋分)은 양력 9월 23일 무렵으로, 음력으로는 대개 8월에 든다. 이날 추분점(秋分點)에 이르러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이 황경 180도의 추분점을 통과할 때를 말한다.



추분 풍경 이억영

내용 추분점은 황도와 적도의 교차점 안에 태양이 적도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가로지르는 점을 말한다. 곧 태양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으로 적경(赤經), 황경(黃經)이 모두 180도가 되고 적위(赤緯)와 황위(黃緯)가 모두 0도가 된다.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므로 이날을 계절의 분기점으로 의식한다. 곧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추분과 춘분은 모두 밤낮의 길이가 같은 시기이지만 기온을 비교해보면 추분이 약 10도 정도가 높다. 이는 여름의 더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추분에는 벼락이 사라지고 벌레는 땅속으로 숨고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 또 태풍이 부는 때이기도 하다.

추분을 즈음하여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목화를 따고 고추도 따서 말리며 그 밖에도 잡다한 가을걷이 일이 있다. 호박고지, 박고지, 깻잎, 고구마순도 이맘때 거두고 산채를 말려 묵나물을 준비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추분에는 국가에서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노인성제(老人星祭)를 지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소사(小祀)로 사전(祀典)에 등재되었다.

추분에 부는 바람을 보고 이듬해 농사를 점치는 풍속이 있다. 이날 건조한 바람이 불면 다음해 대풍이 든다고 생각한다. 만약 추분이 사일(社日) 앞에 있으면 쌀이 귀하고 뒤에 있으면 풍년이 든다고 생각한다. 바람이 건방이나 손방에서 불어오면 다음해에 큰 바람이 있고 감방에서 불어오면 겨울이 몹시 춥다고 생각한다. 또 작은 비가 내리면 길하고 날이 개면 흉년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四時纂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洪城의 民俗(洪城文化院, 1994).
필자 | 황루시(黃縷詩)

노인성제(老人星祭)

정의 추분(秋分)에 인간의 장수를 담당한다고 하는 노인성에 지내는 제사. 노인성이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여겨 고려시대에는 잡사(雜祀), 조선시대에는 소사(小祀)로 규정하여 국가에서 제사를 지냈다. 남극성(南極星),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수성(壽星), 남극수성(南極壽星)으로 부르는 노인성은 용골(龍骨)자리에 있는 카노푸스(Canopus)를 가리킨다. 이 별은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로서 남반구에서는 가장 밝다. 남반구의 별자리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평소 보기 어렵지만 남쪽 해안과 제주도에서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년 중 추분(秋分)에 나타났다가 춘분(春分)에 사라진다고 하여 추분에 제사를 지냈다.


壽星圖 국립민속박물관

노인성이 나타나면 세상이 태평해지고 군왕이 장수하는 반면 보이지 않으면 군주가 위험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노인성이 나타나면 백관(百官)이 왕에게 축하를 올렸다. 노인성은 비단 국가와 군왕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장수를 가져다주는 신앙 대상이었다. 작은 키, 흰 수염, 큰 머리, 튀어나온 이마의 형상을 하고 발끝까지 덮은 도의(道衣)를 입은 노인의 모습을 그린 노인성도(老人星圖)는 세화(歲畵)의 한 종류였다.

내용 『통전(通典)』에는 주나라에서 추분에 남교에서 수성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수성이 노인성이다. 『후한서(後漢書)』「예의지(禮儀志)」에 의하면 국도(國都)의 남교(南郊)에 노인성묘가 있어서 중추(中秋: 8월)의 달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렇게 애초 노인성묘에서 노인성을 제사지내던 것이 점차 제단의 형식으로 바뀌었다.

당나라 개원(開元) 24년(736)에 수성단(壽星壇)을 설치하고 천추절(千秋節: 중국 황태자의 생일)에 노인성과 각(角)·항(亢)·저(氐)·방(房)·심(心)·미(尾)·기(箕) 등 7수(宿)를 함께 제사지냈다. 7수 역시 수성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송대에도 이와 비슷하였는데 「희녕사의(熙寧祀儀)」에 의하면 단상에 노인성 일위(一位)를 남향으로 설치하고 단 아래 남쪽에 각, 항 등 일곱 신위를 동쪽으로 향하게 배설(配設)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원풍 연간(元豊年間: 1078~1085)에 변하여 단 아래의 7위를 제외하고 노인성만을 모셨다. 그리고 고종 소흥(紹興) 7년(1137)에는 태상박사 황적(黃積)의 건의에 따라 추분에 제사를 지냈다. 명나라에 들어와 홍무(洪武) 3년(1370)까지 지속되다 영성(靈星)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성제(老人星祭)가 가장 성행하던 때는 고려시대이다. 『고려사(高麗史)』「예지(禮志)」에 의하면 노인성제는 대·중·소사에 포함되지 않고 잡사에 속하였다. 이것은 노인성제가 유교식이라기보다 도교 또는 불교의 형식으로 제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개성 남교에서 노인성제를 지냈지만 그 외 내전(內殿), 복원궁(福源宮), 충주 죽장사(竹杖寺) 그리고 서경을 비롯한 노인당 등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향일도 추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2월, 4월, 8월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제사는 도교 초제(醮祭)의 형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송대의 영향으로 노인성과 더불어 각·항의 수성도 같이 제사를 지냈다.

조선시대 수성에 대한 제사는 태종과 세종대를 거치면서 정비되었다. 먼저 태종 11년(1411)에 수성에 대한 제사를 유교적 제향 방식에 따라 요단(燎壇)에서 희생(犧牲)을 태우는 방식으로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종 8년에는 원풍의 예제에 따라 각·항의 신위를 제외하고 노인성만을 모시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후 『세종실록(世宗實錄)』「오례의(五禮儀)」에서 이 노인성제는 제외되었다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소사로 실렸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노인성제는 지속되지 못하고 중종 이후 폐지된다. 폐지의 원인이나 시기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 정조대에 영성과 더불어 복원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정조 21년(1797)에 예조판서 민종현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복원을 주장하였고, 정조가 이를 받아들여 영성과 수성에 관한 의식인 「성단향의(星壇享儀)」를 직접 지었다. 여기서 정조는 영성과 수성이 천신(天神)에 속하므로 남교에 제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중국 고대의 예를 통해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조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성제는 다시 복원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文獻通考, 五禮通考, 通典, 後漢書,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임미선 외, 문헌과해석사, 2000).
필자 | 이욱(李煜)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이다 (덥곡 추운 것도 추분광 춘분끄진다)

정의 더위와 추위가 절기의 일정한 순환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뜻하는 속담.

내용 겨울에 추웠던 날씨도 춘분(春分)이 지나면서 따뜻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어느새 산에 얼음이 녹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봄이 돌아와 온 세상에 백화(百花)가 만발하고 춘색(春色)이 완연하다. 춘분은 24절기의 하나로 3월 21일 경이며, 경칩(驚蟄)과 청명(淸明)사이에 위치해 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고, 봄경치가 가장 좋은 철이어서 이때쯤을 춘삼월 호시절이라고 한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마음이 공연히 설레면서 춘정에 겨워 봄꽃놀이[春遊]를 가서 춘심(春心)을 달래기도 한다. 들판에 나가서 진달래술을 먹기도 하고, 화전(花煎)을 부치면서 겨울의 추위를 털어내기도 한다. 추분(秋分) 역시 24절기의 하나인데 9월 23일 경으로, 백로(白露)와 한로(寒露) 사이에 있다.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로 접어드는 날씨다. 곧 춘분과 추분은 추위와 더위가 변환하는 경계로서 관용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속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 제주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좌혜경(左惠景)

추분이 지나면 우렛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

정의 추분(秋分)이 지나면 천둥소리도 없어지고 벌레들도 월동할 곳으로 숨는다는 뜻의 속담.

내용 추분은 24절기의 하나로 양력으로는 9월 23일 경, 음력으로는 8월 절기이다. 이 시기부터 낮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밤의 길이는 점점 길어진다. 농사력에서는 추수기에 해당하며 백곡이 풍성한 때이다. 옛 문헌에는 이 시기의 징후를 셋으로 표현하여 우렛소리가 비로소 그치게 되고, 동면할 벌레가 흙으로 창을 막으며, 땅 위의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에 추분의 대표적인 징후로 앞의 두 가지를 말한 것이다. 추분부터 밤이 길어지면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천둥이 그치는 기상 변화가 오고, 벌레들은 이에 따라 둥지의 입구를 막아 작게 만들어 추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조선대세시기 I(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신경숙(愼慶淑)





月內 월내

한 해 동안 벼농사를 지어
일찍 수확한 벼를 가장 먼저
조상에게 바치고
제사 지내는 풍속을
올개심니라 한다.
올개심니는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추석에 주로 많이 한다.
햇곡식이 익으면 쌀 한 되 가량
장만할 만큼 벼를 베어내서
짚째로 설로 배어
밥은 앞에 달아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근친(覲親)

⇨ 반보기: 가을편

마사제(馬社祭)

정의 마구간 안에 있는 토신(土神) 즉, 처음 말을 탄 자를 신격화하여 드리는 제사. 조선시대 국가사전(國家祀典)에 소사(小祀)로 등재되었으며, 제사 시기는 중추(仲秋)의 중기(中氣) 후 강일(剛日)이었다.

내용 마사제는 중국 고대의 예서인 『주례(周禮)』 권4 하관사마조(夏官司馬條)에 이미 그 존재가 보여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려주는데, 당대(唐代) 이후 국가의 사전(祀典)에 소사(小祀)로 포함되어 제사가 행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는 그 명칭이 보이지 않다가 『고려사(高麗史)』 「예지(禮志)」에 처음 나온다. 그렇지만 이곳에는 제사의식만 있을 뿐 그 기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조선시대 『영조실록(英祖實錄)』 영조 25년(1749) 9월 12일조에 고려 의종대에 선목제(先牧祭)가 시작되었다는 기록에서 그와 유사한 마사제 역시 그때부터 시행되었으리라 추측된다. 『고려사』 「지(志)」17 예(禮)5 길례소사조(吉禮小祀條)에 따르면, 마사단은 넓이가 9보(步), 높이가 3척(尺)의 규모로 사방으로 섬돌계단이 있고[四出陛], 유(壝)가 25보(步)이며, 예감(瘞坎)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제사의 시기는 중동(仲冬: 11월) 길일(吉日)로 희생은 돼지 한 마리이며, 축판에는 고려국왕(高麗國王)이라고 표현하였다.

조선시대 마사제는 태종 13년에(1413) 소사로 설정되었고 제단의 규모는 고려와 동일하였다. 그렇지만 태종대 후반기에 넓이 2장 1척, 높이 2척 5촌, 사출폐(四出陛), 1유(壝)의 형태로 규모가 축소되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이르렀다. 한편 축문에는 '국왕(國王)'이라 칭하였고, 제사 시기는 중추의 중기 후 강일로 구체화되었다. 한편 국초에는 무격(巫覡)이 마사제를 주관했지만, 태종 13년부터 사복사(司僕寺) 관원이 향(香)을 받아 유교식으로 제사하도록 바꾸었다. 이 마보단은 전관목장(箭串牧場) 안에 위치하였다.

마보단의 제도와 의식은 성종대 『국조오례의』 편찬으로 완성되었지만 이후 실제 제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마보제 시행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정조대 편찬된 『춘관통고(春官通考)』에는 효종대 이후 마사제가 폐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 사전에도 반영되어 결국 영조대 찬정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와 그 서례(序例)에는 지금 마사제가 폐지되었다고 기술되기에 이르렀다.

의의 마사제는 전근대 주요한 교통 수단이자 전쟁 수단이었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를 유교적인 제사로 전환시킨 제사 중의 하나이다. 이 제사는 국가 체제의 주요 기반인 군사력, 특히 전마(戰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려와 조선 연간에 시행되었는데, 조선 후기 군사 관련 제사가 약화되면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 朝鮮王朝實錄, 周禮, 春官通考,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韓亨周, 一潮閣, 2002), 朝鮮時代 軍事關聯 국가제사의 정비와 그 운영(한형주, 東峰申千湜敎授停年記念史學論叢, 경인문화사, 2005).
필자 | 한형주(韓亨周)

명산대천제(名山大川祭)

⇨ 산천제(山川祭): 정월편

반보기

정의 8월 추석 이후 농한기에 여성들이 일가친척이나 친정집 가족들과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회포를 푸는 풍속. 원래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의 만남이 기원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반보기가 있다. 지역에 따라 중로보기(中路-), 중로상봉(中路相逢) 같은 한자식 용어를 사용한다. 용어에서 짐작되듯 당일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 경우 부득이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가 다시 그날 안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애틋한 풍속이다.

내용 "처가와 변소는 멀어야 좋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남녀를 불문하고 사돈 간의 교류가 거의 없던 전통사회에서 상호 방문 혹은 왕래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여성의 외출이 금기시되었던 전통사회에서 며느리의 외출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특히 농사를 주업으로 하던 전통사회에서 가사와 농업 노동을 병행했던 며느리들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는 쉽지 않았다. 농번기의 외출은 더더욱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이었다.

남자들은 다양한 외부 일로 사돈 간의 상호 교류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여자들은 한 번 시집간 딸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했을 정도로 평상시 친정과의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번기를 벗어나는 추석 무렵이 되면 하루 정도 짬을 내어 외출하는 것이 묵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룻밤 묵는 것은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가 멀 경우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반보기로 보인다. 약속한 날짜에 양쪽 집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회포를 풀고 그날 돌아오는 당일치기의 만남이었던 것이다.

반보기를 할 때는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회식하고 환담하며 하루를 즐긴다. 사돈 간의 관계가 돈독한 집안에서는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뿐만 아니라 사돈 부인들이 함께 만나는 경우도 많았고, 동년배들이 함께 참석하여 흥을 돋우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보기는 딸과 친정어머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돈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모녀 간의 상봉과 회포풀기가 사돈 간의 교류, 동년배 간의 교류, 지역 간의 공동체 교류로까지 이어지는 특성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반보기는 그리움의 해소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공동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기능과 특성이 있었다.

반보기는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의 비밀스런 만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사돈 간의 교류를 돈독히 하는 기제로 발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연비연사(聯臂聯査)', '사돈관계가 연 걸리듯 한다.', '겹사돈'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같은 지역에서 시집온 여자들이 많아 서로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반보기를 할 때면 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단체 유희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즉 좋은 날과 장소를 택하여 서로 음식을 장만하여 각종 놀이를 하면서 야외에서 하루를 보내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한 것이다. 전남 강진 송덕에서는 매년 추석 무렵 이웃 마을과 함께 큰 방죽가에서 회식을 하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하루를 즐기는 야유회로 발전된 것이 좋은 예다.

최근에는 사돈 간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며느리의 친정 나들이가 용인되는 데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더 이상 반보기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아울러 추석이 사흘 간의 연휴로 정착됨에 따라 추석 차례라든가 시댁의 중요한 일을 마치면 친정에 다니러 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자리 잡으면서 며느리의 친정나들이가 반보기를 대신하게 되었다.



노상의 회견
『조선의 연중행사』 조선총독부

또한 일가친척의 동년배나 같은 지역을 친정으로 하는 부인들의 모임으로서 반보기의 기능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른바 같은 지역과 집안을 친정으로 하는 부인들이 만든 '딸네들 모임'이 그것이다. 이는 친정과 시댁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년 일회의 모임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모임은 성별(性別)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향우회의 형태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같은 지역을 친정으로 하는 딸네들'이라는 구분이 있기 때문에 반보기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에서 자랐거나 같은 학교를 다니다가 혼인으로 인해 타지로 흩어진 동창생들의 모임을 위한 반보기가 있다.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동으로 쉽게 만나지 못하게 되자 서로의 중간 지점이나 교통의 요지를 택하여 만나는 반보기 형태도 등장하였는데, 이른바 동년배 모임이 그러한 것들이다. 동년배 모임은 중간 지점이라는 측면도 강하지만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를 만남의 장소로 하는 경우도 있어 동창회의 성격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만의 모임이라는 측면에서 반보기의 변형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모임화된 반보기는 교통의 발달로 인해 만나는 장소가 굳이 양가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경치 좋은 야외나 유원지로 변화하였고, 심지어는 관광으로 발달하기도 하였다. 시기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반보기는 친구들의 모임을 위한 하나의 구실이 되었고 공동체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세시풍속(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한국세시풍속 I-1970년대~1980년대 조사자료-(김명자, 민속원, 2005).
필자 | 김시덕(金時德)

벌초(伐草)

정의 음력 팔월 추석 이전에 조상의 묘에 자란 잡초를 베고 묘 주위를 정리하는 풍속. 주로 백중 이후인 7월 말부터 추석 이전에 이루어진다.

내용 벌초는 전국적으로 행하는 미풍양속으로 고향 근처에 사는 후손들이나 외지에 나간 후손들이 찾아와서 조상의 묘에 자란 풀을 제거하고 묘 주위를 정리한다. 일부 지역에선 금초(禁草)라 부르기도 한다. 백중이 지나 처서가 되면 풀의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이때 벌초를 하면 비교적 오랫동안 산소가 깨끗이 보전되며 추석에 성묘를 하기 위해선 추석 전에 반드시 벌초를 끝내야 한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음력 팔월이 되면 일가(一家)가 모여 벌초를 하는데 이를 "소분(掃墳)한다", "모듬벌초한다"라고 부른다. 모듬벌초는 음력 8월 초하루부터 왕래가 잦은 친족끼리 하나의 패를 형성하여 가제벌초를 하는데 보통 8촌 이내이다. 이는 혈족의 분파를 가지로 보고 동성(同姓) 마을에서도 패가 다르면 따로 벌초를 한다. 이 벌초가 실질적으로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친족 공동체의 소분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웃대벌초라 하여 문중(門中) 모듬벌초를 하는데 분파된 친족에서 몇 명의 어른들이 참석을 한다. 날짜가 일찍 정해져 있기에 정일벌초(定日伐草)라 부르기도 한다.

경기도에선 "8월에 벌초하는 사람은 자식으로 안 친다."라고 하여 추석 전에 벌초를 미리 해놓아야 하며, 제주도에선 "추석 전이 소분 안ᄒᆞ민 자왈 썽 멩질 먹으레 온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추석 전에 소분을 안 하면 조상이 덤불을 쓰고 명절 먹으러 온다."라는 말이다. 이 말들은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가장 중요한 명절인 추석 전에 벌초를 해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나온 말들이다.

참고문헌 | 濟州의 民俗 I(濟州文化資料叢書1, 濟州道, 1993), 濟州道民俗-歲時風俗-(진성기, 濟州民俗硏究所, 1997),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강권용(康權用)

1~2 모듬벌초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고경희


1


2

사직대제(社稷大祭)

정의 조선시대 사직단(社稷壇)에서 시행하는 여러 종류의 제사 중에 중춘(음력 2월)과 중추(음력 8월), 납일[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에 정기적으로 지낸 큰 규모의 제사. 사직단에서는 위의 제사 외에 기우(祈雨), 기청(祈晴), 치병(治病) 등을 위한 기고제(祈告祭)와 봉책(封冊), 관혼(冠婚) 같은 고유(告由)가 시행되었지만, 이 중 중춘, 중추, 납일의 제사를 중시하여 대제(大祭)로 정하였다.

사직대제는 A.D. 4세기 고구려에서 시작된 이래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중국 예제(禮制)의 영향을 받아 정착되었다. 고려에서는 성종 10년(991) 이후 당대(唐代)의 의례를 본받아 시행했는데 그 규모는 대사(大祀)였고, 제사 시기는 중춘, 중추, 납일이었다. 조선에서는 성종 5년(1474)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함으로써 제의(祭儀)가 완성되었다. 대체적인 내용은 고려와 비슷하지만 제의의 세부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내용 『국조오례의』에 따르면 사직대제는 국왕의 친제를 원칙으로 하되 섭제(攝祭)도 기재하였다. 여기서 친제시의 의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직대제는 제사의 선행절차(先行節次) → 거가출궁(車駕出宮) → 행례절차(行禮節次) → 거가환궁(車駕還宮)의 4단계로 구성된다. 준비 절차는 제사 8일 전에 헌관이 경건한 마음을 맹서하는 서계(誓戒)를 행하고, 7일 전부터는 경건한 몸가짐을 갖는 재계(齋戒)를 행한다. 3일 전부터 사직단에 제수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희생(犧牲)은 소 한 마리, 양 네 마리, 돼지 네 마리를 사용한다. 제일에 국왕의 어가가 왕궁을 떠나 사직단에 이르면 제사가 시작된다.

행례 절차는 폐백을 바치는 전폐(奠幣)와 삼헌(三獻)을 드리는 진숙(進熟)으로 구분된다. 전폐에서는 먼저 신을 부르기 위해[迎神] 모혈(毛血)을 묻는다. 다음에 폐백을 드리는데, 세 번 향을 올리고[三上香] 폐백을 드린 후[奠幣] 절을 하는[俯伏興平身] 순서이다. 폐백은 국사(國社) → 후토(后土) → 국직(國稷) → 후직(后稷)의 순서로 초헌관이 드린다. 다음에는 신위에 예찬(禮饌)을 드리고, 술잔을 올린다. 술은 세 차례 올린다. 먼저 초헌관이 국사(國社)의 신위에











〈사직대제〉
1 초헌관과 집사자
2 집사자
3 제관 재배
4 모혈반 묻기
5 분향례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국립민속박물관











〈사직대제〉
1 천조례
2 초헌
3 독축
4 아헌
5 음복례
6 폐독
7 망료례
8 망료례
9 퇴장하는 제관들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국립민속박물관

술잔을 올리고 엎드린 후 축문을 읽고 절을 한다. 그리고 후토 → 국직 → 후직의 순서로 같은 의식을 행한다. 초헌이 끝나면 아헌과 종헌을 차례로 행한다. 이상의 행례가 끝나면 음복(飮福)하고, 제기를 거둔 후 초헌관에게 의식의 종결을 아뢴다. 그리고 신위판(神位版)과 예찬을 정리하고, 제수를 구덩이에 파묻은 후 신주를 감실에 들인다. 제사의 과정이 끝나면 국왕의 행차가 궁으로 돌아간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 社稷署儀軌,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韓國中世 禮思想 硏究(李範稷, 一朝閣, 1991), 朝鮮 太宗·世宗代 社稷祭의 이해와 운영(한형주, 韓國史學報6, 1999),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韓亨周, 一潮閣, 2002).
필자 | 한형주(韓亨周)

⇨ 사직대제(社稷大祭): 봄편

성주단지갈기

정의 올벼를 추수할 즈음 익은 벼이삭을 제일 먼저 잘라 쌀이나 나락의 형태로 성주단지에 갈아 넣는 의례.

내용 성주는 집안의 가장 대표적인 가신으로 대주를 뜻하며, 가신 중 최고의 신으로 한지를 접어서 실과 함께 대들보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성주는 가옥의 수호신이며, '성조(成造)'라고도 한다. 그리고 가을에 처음 추수한 햅쌀을 단지에 넣어서 모신다.

성주는 봄가을의 안택이나 고사에서도 다른 가신들과 함께 모셔지지만, 상량식이나 낙성식 또는 이사하여 새로운 집을 마련했거나 새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흔히 단독으로 모셔지는 독자성을 보이기도 한다. 성주는 언제나 집의 중앙에 위치하고 어느 집에서나 대개 모시는 신이기 때문에 가신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시되는 존재이다.

지역에 따라서 충북의 성주신앙에는 조상과 관련된 양상이 있으며, 경북에서는 '부루독'이라는 명칭으로, 중부지방에서는 한지의 신체(神體) 형태로, 영남에서는 단지류, 호남지방에서는 단지 또는 특별한 형태 없이 나타나며, 영남의 도서지방에서는 한지와 성주독 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성주단지는 마루의 한쪽 구석에 위치하며, 보통



성주단지갈기 목포영산호박물관

본격적으로 추수하기 전에 그해 첫 벼나 쌀을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주단지의 벼는 가을에 추수를 하면 수지를 골라서 넣어두었다가 집안의 안택을 할 때 꺼내서 제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전남에서는 햇곡식이 나면 올개심니를 모신 다음 성주단지를 갈기도 했는데 아직 덜 익은 햇벼의 끝부분을 훑어 올개심니를 하고 성주단지의 곡식을 갈았다.

성주단지의 곡식을 갈 때는 단지 안의 쌀이 바깥으로 넘쳐흐르면 그해의 운수가 길하고, 쌀이 줄어들고 벌레가 먹으면 좋지 않다는 속설이 있다. 추석 때는 이 올개심니를 하고 나서 모신 성주단지에서 쌀 세 줌을 꺼내 그것을 섞어 메(밥)를 짓기도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大觀3-民間信仰·宗敎-(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家神信仰의 性格과 女性像(金明子, 女性問題硏究13, 曉星女子大學 韓國女性問題硏究所, 1984), 全南의 歲時風俗(全羅南道 鄕土文化叢書29, 全羅南道, 1988), 삼척민속지1~5(김진순, 삼척문화원, 1997~2002).
필자 | 김진순(金鎭順)

악해독제(嶽海瀆祭)

⇨ 악해독제(嶽海瀆祭): 봄편

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

⇨ 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 봄편

올개심니

정의 한 해 동안 벼농사를 지어 일찍 수확한 벼를 가장 먼저 조상에게 바치고 제사 지내는 풍속. 올개심니는 지역에 따라서 올계심리, 올게심리, 올기심니, 올이심리, 오리심리, 올베심리, 올비신미라고 하기도 한다. 올개는 일찍된 벼를 의미하고, 심니는 심례(心禮)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올개심니는 조상 숭배를 위한 신곡천신(新穀薦新)이라는 도미의례(稻米儀禮)적인 행사이다.

내용 올개심니는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추석에 주로 많이 하지만 추석을 전후하여 적당한 날을 받기도 하고, 철이 늦어 벼가 미처 여물지 못하는 경우는 9월 중구에 하기도 한다. 햇곡식이 익으면 쌀 한 되 가량 장만할 만큼 벼를 베어내서 짚째로 실로 매어 방문 앞에 달아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또 잘 익은 나락을 베어다가 선영에 제사지내고, 쪄 말려서 샘, 당산, 마당, 곳간 등에 받쳐 놓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추석을 전후해서 잘 익은 벼, 수수, 조 등의 이삭을 한줌 묶어 기둥이나 벽에 걸어두는 일을 올개심니라고도 한다. 올개심니를 할 때에 이웃을 청해서 주연(酒宴)을 베푸는 수도 있고, 떡을 사당에 천신(薦新)하고 터주에 올리는 일도 있다. 올개심니를 하면 풍년이 든다고 하며 또 이듬해에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신에게 비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례 올베심리는 전남 도처에서 행한 세시행사로서 구례에서는 올베심리라고 하여 큰집에서 먼저 하고, 작은집에서는 별도로 길일을 택일하여 한다. 그런가 하면 큰집에서 올베심리를 하는 날 작은집에서는 불을 켜두기도 한다. 벼가 채 여물기 전에 많이 여문 벼포기를 가려서 베어다가 안방 윗목 시렁 밑에 가로 두세 곳 묶어 붙이고 한 줌 내외의 벼는 따로 솥에 볶는다. 지난해의 짚은 마당에서 태우고 볶은 쌀은 묵은 쌀에 섞어서 밥을 짓고 제상을 차린다. 햇병아리, 조기, 술, 햇무와 같은 햇곡식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주인은 두루마기를 입고 다른 가족은 의관을 정제하여 함께 절을 하고, 제사가 끝나면 음복을 하는데, 집안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도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1


2


3

〈올개심니〉
1 벼베기
2 벼털기
3 벼털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국립민속박물관


4


5


6

전남 강진에서는 새밥이라고 해서 벼포기를 걸어서 모시는 경우는 없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에서는 큰집과 작은집에서 모두 행하기도 하지만 보통 큰집에서만 한다. 일시는 별로 가리지 않지만 좋은 날을 가려서 하고 소날, 닭날과 같은 무일(戊日)에 들에 나가 잘 여문 벼를 베어서 그날이나 그 다음날 탈곡하여 볕이 나는 날 벼를 쪄서 말리고, 잘 말린 다음 찧어서 밥을 짓는다. 그리고 채소, 고기, 미역국 등을 준비하여 제상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낸다. 제사의 대상은 조상이다. 제사지낼 무렵에 한 묶음 정도의 탈곡하지 않은 벼를 지붕 위에 던져놓기도 한다.

전북 남원에서는 대개 추석에 많이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길일을 받아서 하는데, 햇곡식이 익으면 쌀 한 되 가량 장만할 만큼 벼를 베어내서 짚째로 실로 매어 방문 앞에 달아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장만해서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그리고 익산에서는 잘 익은 나락을 베어다가 선영에 제사지내고, 쪄 말려서 샘, 당산, 마당, 곡간 등에 반쳐 놓기도 한다. 이 습속은 농사를 짓지 않는 가정에서도 벼를 사다가 집에서 하기도 한다.

충남 금산에서는 햇나락이 나면 그것을 말려서 찧어 밥을 짓는다. 이것을 햅밥이라 하며, 당내(堂內)의 집안 어른을 모셔서 모두 함께 먹는다. 일찍 나는 조생종을 올벼라 하는데, 이것을 타작하는 날 친지들이 와서 일도 거들고 밥도 함께 먹었다. 올벼는 솥에서 쪄내는데, 사람이 먹기 이전에 먼저 한 그릇 떠서 방의 윗목에 떠다 놓는다. 반찬은 평소보다 많이 마련하여 윗목의 조상상에도 올린다.

충남 홍성에서는 그해 처음으로 수확한 오려베로 밥을 지어 집안의 곳곳에 가져다 두고 정성을 드린다. 이를 천신한다고 한다. 오려베는 일반 벼보다 20일 정도 일찍 생산되는데, 첫 수확한 벼로 집안을 위하는 것이다. 밥이 마련되면 부엌의 조왕, 장광의 터주, 방의 성주, 쌀을 넣는 광에 각각 한 그릇씩 가져다 둔다. 밥을 상이나 짚 위에 올리지 않고 그릇째 땅바닥에 놓을 뿐이며,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 밥을 거두어들이면 친척과 이웃을 불러 함께 먹는다.

경북 안동에서는 올개심니와 유사한 풋바심이 있다. 풋바심이란 채 익기 전의 곡식을 미리 베어 떨거나 훑는 일을 말하는데, 이것도 천신을 목적으로 한 행사로서 추석 며칠 전에 하게 되지만 그때 벼가 채

〈올개심니〉
4 이삭묶음
5 이삭묶음
6 이삭걸기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송봉화

익지 않으면 9월 중구 때에 하기도 한다. 논 가운데서 누렇게 잘 익은 부분을 지게로 한 짐 정도, 벼로는 두 말 정도, 쌀로는 한 말 정도를 베어내어 탈곡을 하여 그 쌀로 밥을 짓고 떡을 만들어 차례를 지낸다. 이때 조율시이(棗栗柿梨)를 비롯하여 조기, 수박, 참외, 옥수수, 풋밤과 그 밖의 햇곡식, 햇과일이 함께 제물로 쓰인다. 동고조(同高祖) 8촌 이내 당내 모임이 있고, 3대도 2대도 또 각각 모이는데, 남자 제관들도 서로 왕래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부인들도 다같이 왕래한다. 음복은 제상에 놓았던 한 그릇의 밥을 솥의 남은 밥들과 고루 섞어서 주로 비빔밥으로 해서 제관이나 참석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와 같이 제상의 밥과 다 섞어 먹는 것은 제신(祭神)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그 덕을 이어받자는 것이다.

의미 올개심니는 조상숭배를 위한 신곡천신(新穀薦新)이라는 도미의례(稻米儀禮)적인 행사로서, 한해 동안 농사를 지어 가장 먼저 조상에게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추수감사 제의적인 성격을 지닌 세시행사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민속의 슬기(임동권, 민속원, 2000),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표인주(表仁柱)

중로보기(中路-)

⇨ 반보기: 가을편

추계석전(秋季釋奠)

정의 성균관과 향교의 대성전(문묘)에서 8월 첫째 정일[上丁日]에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 의식. 가을에 지내는 제사라 하여 '추계석전'이라 한다. 일년에 두 번, 2월과 8월의 첫째 정일(丁日)에 지내는 제사라고 하여, 상정제(上丁祭), 정제(丁祭)라 하며, 가을에 지내는 석전은 추정(秋丁)이라고도 한다.

내용 석전은 처음에는 단지 '채소[菜]를 놓고[釋] 폐백[幣]을 올린다[奠]' 라고 하여 석채(釋菜), 석전(釋奠)이라고 하였다. 특히 후대에 와서 채소 이외에 소나 양 같은 희생(犧牲)을 제물로 올리고 음악을 갖추어 제사를 지냄으로써 석전이라 하였다. 그리고 공자가 선성(先聖)으로 추대되면서 공자의 기일(2월 18일)과 탄신일(8월 27일)에 맞추어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석전을 봉행하게 되었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문선왕(文宣王: 공자)에 대한 제사의 예를 '석전'이라 규정하여, 국가제사 가운데 중사(中祀)로 분류하였고, 주현(州縣)마다 향교에 문묘를 설치하여 석전을 지내게 하였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도학이 확립되면서, 도통과 학통에 따라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등 동방오현(東方五賢)을 비롯하여 김인후(金麟厚), 이이(李珥), 성혼(成渾), 김장생(金長生), 조헌(趙憲),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박세채(朴世采) 등 동방 18현을 문묘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동·서무에 종사된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소옹(邵雍), 장재(張載), 주희(朱熹) 등 송조 6현(宋朝六賢)을 승격시켜 대성전에 배향하였다.

추계석전은 1937년부터는 태양력의 도입에 따라 양력 10월 15일에 봉행되었다가, 1949년 전국유림대회의 결의에 따라 춘추 석전을 폐지하고, 탄일(誕日)인 음력 8월 27일에만 기념 석전을 봉행하였다. 1953년에는 다시 춘추 석전이 환원되어, 현재도 음력 8월의 상정일에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에서 동시에 석전이 봉행하고 있다. 그 석전 의식은 춘계석전과 같이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분헌례(分獻禮), 음복례(飮福禮), 철변두(徹籩豆), 망료례(望燎禮) 순으로 진행하며, 절차에 따라 문무제례악을 연주한다.

추계석전은 공자와 선현에 대한 숭모의 예이자, 공자의 기일이 8월이기 때문에 추모의 예도 겸하는 의미가 크다.

참고문헌 | 高麗史, 國朝五禮儀, 文廟享祀錄, 俎豆錄, 文廟享祀制의 成立과 變遷(朴贊洙,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1984), 朝鮮後期 知性史(鄭玉子, 一志社, 1991), 朝鮮前期 儀禮硏究(池斗煥,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최순권(崔順權)

⇨ 석전대제(釋奠大祭): 봄편


1


2


3


4


5


6


7

〈추계석전〉
1 제관들
2 분향례
3 헌작
4 독축
5 제관재배
6 참례자재배
7 망료례
강원도 강릉시 교동 강릉향교
국립민속박물관

충렬사제향(忠烈祠祭享)

⇨ 충렬사제향(忠烈祠祭享): 봄편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봄편

쌀점[米占]

정의 쌀알의 숫자를 가지고 길흉을 판단하거나 또는 나락이나 현미, 흰쌀의 양과 질, 색깔, 상태 따위를 보고서 농사의 풍흉(豊凶)과 집안의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점법. 제주도에서는 솔황점 또는 쌀독점이라고도 한다.

내용 쌀점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풍요를 기원하고 예축하기 위한 농경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역사는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쌀점은 무녀나 보살 같은 전문 종교인이 하는 경우와 주로 주부들이 집안에서 하는 경우로 대별된다. 전자는 무녀나 보살 등이 점을 보러 온 이들에게 미래를 예언해주는 데 쓰인다. 또 신령들을 청해 기원을 하고나서 그 신의(神意)를 물을 때도 쓰인다. 탐지하고 싶은 사항을 신령에게 물으면서 제상(祭床)에 올려놓은 쌀을 조금 손가락으로 집어 공중으로 던져올린 다음, 손바닥에 잡힌 쌀알의 수를 세어 길흉을 판별한다. 또는 쌀을 한 움큼 쥐어 상위에 던져 그 숫자를 세어 길흉을 따지기도 한다.



쌀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립민속박물관

주부들이 하는 쌀점은 가신제(家神祭)와 관련이 있다. 예전에는 성주단지나 조상당세기, 부루독, 삼신바가지, 터주가리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신령들을 집안의 요소요소에서 위했다. 이 가신들에 대한 종합적, 정기적인 제사를 흔히 고사나 안택이라 한다. 대개 음력 8월에서 10월 사이 가을걷이 후에 길일(吉日)을 잡아 이를 행한다. 이 고사나 안택제의 중심은 ○○단지나 ○○당세기, ○○바가지 등에 햇곡식을 안치(安置)하고 햅쌀로 메를 지어 위하는 행사이다. 즉, 지난해에 정중하게 모신 나락이나 쌀을 올해 새로 거둬들인 햇곡으로 갈아 넣고 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사나 안택제는 일반적으로 집안의 주부들이 담당하는데, 구곡(舊穀)과 신곡(新穀)을 교체하기 직전에 쌀점을 행한다.

대개 지난해에 안치한 나락이나 쌀이 줄거나 빛이 바랜다든지 또는 곰팡이가 슬어 냄새가 나거나 썩으면 이듬해 흉년이 들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흉조라 여기고, 곡식이 늘거나 상태가 깨끗하면 풍년이 들고 가운(家運)이 형통할 길조라 여긴다. 쌀점의 대상이 되는 곡물 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금기나 속신이 따른다. 가령 ○○단지에서 꺼낸 지난해의 곡물은 절대 집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거나, 떡이나 메를 지어 집안 식구끼리만 먹는다. 또 제사 대상이 되는 곡물의 선택과 채취와 관련된 금기도 있고 그것을 안치하는 용기(容器)에 관한 속신도 있다.

지역사례 가신의 명칭과 제사방식은 지역과 집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쌀점의 방법과 해석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영남지방 같이 벼농사의 그루갈이로서 밀이나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던 곳에서는 ○○단지나 ○○당세기, ○○바가지 안에 나락과 보리를 번갈아 안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가을의 상달고사 때 나락이나 쌀을 안치하고, 이듬해 유두고사 때 보리나 밀로 교체하기도 했다.

또 제주도와 같은 밭농사 지역이나 한반도 동북부의 화전농경 지역에서는 조, 기장, 메밀, 콩, 팥과 같은 잡곡을 안치하고 이를 복합적으로 위하기도 했다. 이 지역들에서는 안치한 나락이나 쌀뿐만 아니라 보리, 밀, 잡곡의 상태를 가지고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의의 양호한 곡물 종자의 선별과 그 안전한 보관은 과거의 농경민들에게 생사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런 까닭에 가을의 수확에서부터 이듬해의 파종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곡물 종자에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단지 기술적 차원에서 종자의 안전을 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 곡령(穀靈)이 가지고 있는 풍양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농경민들에게는 벼가 종자화하고 있는 가을부터 봄까지의 기간은 그저 단순한 농한기가 아닌 곡물 종자를 제사하여 그 풍양성을 확보해야 하는 신성한 시간이었다. 위에서 말한 가을 고사와 안택이 그것에 다름 아니며, 그에 즈음한 쌀점은 이듬해의 풍년을 축원하기 위한 점세(占歲) 행위였다.

참고문헌 | 韓國農耕歲時의 硏究(金宅圭, 嶺南大學校出版部, 1985), 穀靈崇拜思想(남근우, 한국의 민속사상, 집문당, 1996).

필자 | 남근우(南根祐)

송이적(松栮炙)

정의 송이를 파, 마늘, 참기름, 간장으로 조미하여 숯불에 구운 것. 송이는 성인병 예방에 특효가 있는 신토불이 식품으로 항암 작용과 고혈압, 심장병 예방의 효능이 있다. 추석 전후 귀한 선물로 이용되며 귀한 손님이나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오면 송이버섯 요리를 내는 것을 으뜸으로 꼽고 있다.

내용 송이는 적송(赤松) 숲의 나무 밑에서 주로 자란다. 인공 재배가 불가능하고 생산 기간도 단기간인 무공해 임산물로 향미가 뛰어나 여러 가지 요리에 이용되며 매우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인식되어왔다.

8월이 제철인 송이버섯은 많은 식용버섯 중에서도 으뜸가는 것이며 제철에만 그 향미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흠이었으나, 근래에는 헝겊이나 한지에 낱개로 포장하여 냉장 보관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 저장법(냉동보관, 진공포장 후 냉동보관, 염장보관)의 발달로 철지난 후에도 생송이와 비슷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

조선왕조 궁중의 종묘 천신 품목과 진상 품목의 기록으로 보아 송이는 일찍부터 8월의 식품으로 빼놓을 수 없는 시식(時食)이었다. 『시의전서(是議全書)』,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서는 송이찜, 송이산적, 송이주(松栮酒) 등의 송이 음식들을 소개하였다. 이렇듯 예부터 각종 요리에 송이를 첨가함으로써 독특한 풍미의 계절음식으로 즐겨 먹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기록된 송이적(松栮炙)은 문헌상 가장 빠른 송이요리의 하나이다.



송이적 궁중음식연구원

송이버섯을 조리할 때는 짧은 시간 내에 씻어야 하며, 되도록 양념을 많이 쓰지 않고, 구울 때도 살짝 굽거나 익힐 때는 잠깐 끓여야 향기의 손실이 적다.

적(炙)은 구이의 일종으로 특히 음식 재료를 양념하여 꼬챙이에 꿰어서 군 것과 통으로 양념하여 군 것을 일컫는다. 송이적은 송이를 파, 마늘, 참기름, 간장으로 조미하여 숯불에 구운 것이고, 『시의전서』에 의하면 송이산적은 송이를 쪼개어 기름, 파, 마늘, 후춧가루로 양념한 것과 양념한 고기를 섞어 꼬챙이에 꿰어 구운 것이다. 또 송이누름적은 송이버섯을 적당한 길이로 썰어서 간장, 참기름, 후춧가루에 양념하여 꼬챙이에 꿰고 밀가루 갠 것을 살짝 묻혀 달걀을 씌워 기름에 지진 것이다. 경북 봉화에서는 은박지를 깔고 그 위에 송이버섯을 얇게 썰어 놓은 후 양념을 살짝 뿌려 다시 은박지를 덮어서 석쇠에 얹어 골고루 익혀 송이구이를 하기도 한다.

송이적 이 외에도 송이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다양

하다. 그 가운데 송이찜은 송이의 줄기 부분을 4센티미터 간격으로 칼집을 넣고 그 사이에 다져 양념한 쇠고기를 얄팍하게 끼운 다음 냄비에 무를 깔고 준비된 송이와 밤을 섞어 담고 잠길 정도의 물을 넣고 끓인 음식이고, 송이전골은 송이를 주재료로 하여 전골냄비에 송이, 양념한 쇠고기, 미나리 초대, 두부와 표고버섯 등을 담고 장국을 부어 끓인 것이다.

참고문헌 | 是議全書, 朝鮮料理製法, 增補山林經濟,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한국음식대관6-궁중의 식생활 · 사찰의 식생활-(황혜성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봉화의 맛을 찾아서(봉화군, 2002).
필자 | 윤숙경(尹淑璟)

인절미[引餠]

정의 찹쌀 고두밥을 시루에 쪄서 안반이나 절구에 친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갸름하거나 네모나게 썰어 고물을 묻힌 것. 인병(引餠)이라고도 한다. 차진 찰떡을 늘려 끊은 맛있는 떡이라는 데서 인절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내용 인절미는 어떠한 잔칫상에도 빠지지 않고 오르는 대표적인 떡이다. 특히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8월내에 "찹쌀가루를 쪄서 떡을 만들어 볶은 검은콩 혹은 누런 콩가루나 참깨를 묻힌다. 이것을 인절미[引餠]라 한다. 시장에서는 이 인절미를 판다. 옛날에는 자고(粢餻)라고 했으며 한(漢)시대 마병(麻餠)의 한 종류다."라고 하였다. 또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8월령(八月令)에 8월 근친할 때 떡과 인절미를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인절미는 추석을 전후한 음력 8월에 많이 해먹었음을 알 수 있다.


인절미 궁중음식연구원

『음식지미방』에는 인절미 속에 엿을 한 치만큼 꽂아 넣어 두었다가 만화로 엿이 녹게 구워서 아침으로 먹는다고 인절미 굽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는 "연안 것이 나라 안에서 제일이니, 그 법은 찹쌀을 멥쌀 하나 없이 가려서 더운 물에 담가 날마다 물 갈기를 사오일 한 후에 건져서 무르녹게 찐다. 쪄서 치기를 무수히 하여야 좋고 처음 쌀 쓿기를 옥같이 하고 씻기를 또 백세를 한다고 한다. 대추를 가늘게 두드려 떡 칠 때 넣어 볶은 팥 묻혀 굳으면 좋다."라고 하면서 연안인절미가 좋다고 하였다.

인절미는 찹쌀을 주재료로 한 대표적인 우리의 떡으로 찹쌀 외의 부재료에 따라 대추인절미, 깨인절미, 쑥인절미, 차조인절미, 동부인절미로 나눌 수 있으며, 추석 무렵에는 멥쌀송편과 함께 찰떡인 인절미로 동부인절미 등을 만들었다.

대추인절미를 한 말 하려면, 좋은 찹쌀을 담가 불린 후 건져 대추 한 말의 씨를 발라 지에밥을 찔 때 위에 얹어 한데 찌고, 거피 팥고물이나 콩가루를 묻힌다. 『부인필지(婦人必知)』에는 "찹쌀 좋은 것을 더운 물에 담가 날마다 물을 갈아 4~5일 후에 무르녹게 찌고 대추를 짓이겨 섞어 오래 쳐야 좋다. 또 찹쌀 한 말에 살이 두터운 대추 한 말의 씨를 바르고 밤 한 말의 껍질을 벗기고 쪼갠다. 쌀을 오래 담그면 밥이 질어 못 쓰니 반일(한나절)만 담갔다가 찌되, 쌀알만 익거든 꺼내 더울 때 대추와 밤을 섞고 꿀 한 주발, 참기름 한 되, 진한 간장을 한 탕기 정도 쳐서 고루 섞어 다시 시루에 안친다. 또 밤, 대추를 남겼다가 사이사이에 뿌리고 찰가루로 위를 덮어 찌되 대추 삶은 물을 조금 치고 건시(乾柹)를 넣으면 더욱 맛이 좋다."라고 하여, 떡을 만들 때 찹쌀을 씻어 불리는 방법이 다양하였음을 보여준다.

깨인절미는 깨를 실해서 볶아 찧어 체로 쳐서 고물을 묻히고, 작고 네모 반듯하게 하여 송편 위에 얹어 쓴다. 쑥인절미는 어린 쑥을 씻어서 살짝 데쳐서

물을 꼭 짜 찧어서 지에밥을 찔 때 한데 넣고 친다. 수리취 인절미는 오월 단오에 만드는 인절미로 수리취를 넣고 만든 것은 잘 쉬지를 않는다. 수리취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잎이 적고 솔이 포실한 것이고 떡취는 잎이 크고 넓적한 것이다. 황해도에서는 쑥은 잘 안 쓰고 수리취를 좋아한다.

각색차조인절미는 주로 강원도에서 만들어 먹는데, 불린 차조에 쑥을 삶아 말려 가루 해둔 것과 수리취를 삶아 말려 가루낸 것을 바싹 말린 감고지 가루와 섞어 쪄서 절구에 떡을 쳐서 준비한 고물에 묻혔다.

충북 중원군 엄정면 목계동에서는 인절미를 해장떡이라고 하였다. 이곳에서는 큰 나룻배가 왕래할 때 뱃사람들이 먹던 손바닥만한 큰 인절미에 붉은 팥고물을 두둑하게 묻혀 뼈로 국물을 내어 끓인 술국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속이 든든하다고 하여 붉은 팥고물 인절미 해장떡이 명물이었다.

감인절미는 주로 전라도에서 만들어 먹었다. 찹쌀을 불려 시루에 안쳐 밥을 찌고, 감은 고지로 말렸다가 바싹 마르면 가루를 내어 떡에 넣고 절구에 찧는다. 감색의 물이 골고루 들고 쌀알이 퍼지면 썰어 거피팥고물에 묻힌다. 특히 구례군 석곡의 감고장에서는 감가루를 섞지 않고 흰 인절미를 해서 먹을 때 그 위에 연시(홍시)를 깨뜨려 발라 먹는다고 하였다.

혼인인절미는 황해도에서 주로 만들어 먹는다. 배천평야 곡창에서 나오는 찹쌀은 기름지고 차진 매우 좋은 쌀이라고 한다. 또 곡창이라 곡식이 흔하여 떡을 해도 그 크기도 매우 크고 양도 많이 하는 것이 습관이라 한다. 인절미를 치는 것은 기본과 같으나 혼인에 사돈댁으로 보내는 떡은 '안반만하다'라는 표현처럼 크게 잘라 큰 고리짝에 담아 푸짐하게 이바지로 한다고 하니 이것이 유명한 연안인절미이다.

인절미는 찹쌀로 만든 대표적인 떡으로 전국적으로 떡의 이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閨閣叢書, 東國歲時記, 婦人必知, 규곤시의방(황혜성 편저, 韓國印書出版社, 1980),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鄕土飮食 篇-(文化財管理局, 1984),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필자 | 윤덕인(尹德仁)

호박떡

정의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늙은 호박을 생으로 또는 호박고지로 만들어 멥쌀가루나 찹쌀가루에 섞어 쪄낸 시루떡. 늙은 호박을 청둥호박 또는 맷돌호박이라 부른다. 늙은 호박은 껍질이 매우 단단하고 살은 노랗고 단맛이 많아 농가에서는 겨우내 저장하여 두고 떡, 범벅, 죽을 해먹는다. 날호박을 멥쌀가루에 섞어서 흰 팥고물을 켜켜로 안쳐 쪄낸 시루떡은 물호박떡이라 부르며, 찹쌀가루에 늙은 호박오가리와 팥, 풋콩을 섞어 찐 시루떡은 찰호박떡이라 부른다.

유래 호박은 토종작물이 아니다. 임진왜란 이후 고추와 함께 들어 왔다거나, 아시아 남부를 거쳐 당나라를 거쳐 들어왔다는 설이 있다. 호박은 애호박일 때 한여름 반찬으로 많이 쓰이며, 씨를 받을 용도로 몇 덩이 남겨두거나 소먹이로 쓸 것을 예상하여 누런 맷돌호박이 되도록 밭에 그대로 두었다가 늦가을에 추수한다. 최근에 늙은 호박이 건강식으로 대두되면서 많이 먹고 있으나, 옛날에는 팥시루떡처럼 대중적인 떡은 되지 못했다. 겨울철 간식으로 또는 추수를 한 후 여유를 가지고 한 번 해먹거나, 호박고지를 꾸들꾸들하게 말려 단맛이 나면 정월에 별미 찰떡으로 해먹었다. 호박으로 만드는 떡에는 시루떡 외에 송편과 단자도 있다.



호박떡 궁중음식연구원

내용 처음으로 호박떡이 등장하는 책은 1800년대 말의 『시의전서(是議全書)』인데, "달고 좋은 호박을 껍질을 벗겨 썰어 찰가루, 메가루를 각각 반씩 넣고 버무려 팥고물에 켜를 두껍게 하여 쪄서 쓴다. 찹쌀가루에 섞어서 찰떡을 만들면 더 맛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8월조에 보면 청근(菁根) 또는 남외증병[南瓜甑餠]이라 하여, 무와 호박을 섞어 시루떡을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는 시절별로 떡을 분류하면서 호박떡이 가을떡임을 기록하였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철을 찾아 만드는 것이니, 정월 이월은 송편을 만들고…… 팔월은 호박떡과 오려쌀송편을 만들고……", 또 호박떡은 "청둥호박을 얇게 썰어서 떡가루에 섞어 가지고 팥을 두되 설탕이나 대추 많이 두라. 호박을 썰어 볕을 헤다가 대강 말리면 호박이 더욱 단맛이 나니라. 호박오가리로 하려면 물에 불려서 한 치 길이씩 썰어 떡가루에 섞되 켜를 두껍게 할지니라."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에는 호박을 찰떡으로 만드는 법을 설명하였다. "찹쌀가루에 콩이나 대추나 밤이나 청둥호박이나 감 혹은 귤병이나 무엇이든지 가루에 섞어 떡켜를 안치고 팥을 뿌려서 찌는데, 이렇게 해서 콩을 둔 것을 콩찰떡이라 하고 호박을 넣어서 만든 것을 호박찰떡이라고 한다."

물호박떡은 흰떡 사이사이에 주황색의 호박이 부드럽게 익어서 녹아내리는 듯하여 흰팥고물과 어울려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다. 물호박떡은 호박에 물이 많아 멥쌀로 하여야 떡이 질지 않으며, 다른 떡에 비하여 떡가루에 물도 적게 주어야 한다. 호박고지로 할 때는 호박고지를 불려 짧게 썰어 콩이나 팥을 흑설탕과 같이 버무려, 찹쌀가루에 섞기보다는 위에 꿀이 흐르는 것처럼 얹어 찐다. 멥쌀가루에 섞을 때는 켜를 두텁게 하고 찹쌀에 섞을 때는 켜를 얇게 해야 떡이 익는다. 다른 떡보다 노란 호박의 빛이 더욱 식욕을 느끼게 해주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호박은 단맛이 은근하고 구수하며 소화가 잘 된다. 또 영양 가치가 높아 산후의 보양식, 환자의 회복식으로 이용되는데 당뇨나 비만에도 좋다고 하여 각광을 받고 있는 건강 기능성 식품이다.

호박떡은 모든 지방에서 만들어 먹지만 명칭과 종류는 각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충청도에는 호박떡이나 호박송편이 전해지고, 강원도에는 호박시루떡 혹은 호박삼색단자, 전라도에는 호박메시리떡, 호박고지차시루편, 풋호박떡, 경상도에는 호박범벅떡, 호박오가리찰편이 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호박조침떡(차좁쌀에 섞은 떡)을 만들어 먹는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是議全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우리나라 음식만드는법(방신영, 靑丘文化史, 1954),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鄕土飮食 編-(文化財管理局, 198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농작물 백가지 1,2(이철수, 현암사, 1998),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식 백가지1(한복진, 현암사, 1998), 쉽게 맛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떡(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1999).
필자 | 한복려(韓福麗)

유왕산놀이(留王山-)

정의 8월 17일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의 유왕산(留王山)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놀이. 유왕산의 '유'는 '유(遊)'로도 표기된다. 유왕산에 사람들이 모여 놀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당초에는 부녀자들만의 풍속이었다.

내용 신라군과 당나라군의 침공을 받아 웅진성으로 피신했던 의자왕은 660년 7월 18일에 태자 효(孝)와 함께 항복하였다. 8월 2일에 주연을 크게 베풀었는데, 신라 태종 무열왕과 소정방을 위시한 여러 장수들은 대청마루 위에 앉고, 의자왕과 그 아들 융(隆)은 마루 아래 앉혀서 의자왕으로 하여금 술을 따르게 하였다. 이에 백제의 좌평 등 여러 신하들이 목메어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전한다.

의자왕과 대신을 비롯한 1만 3천 명의 주민들은 망국의 한을 안고 660년 음력 8월 17일, 당나라에 강제로 끌려갔다. 이때 백제 사람들이 유왕산 마루턱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렸던 데에서 유왕산 놀이가 유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8월 17일이 되면 인근 주민들이 강가에 있는 유왕산에 모여 눈물을 흘렸다. 그 후에도 그날이 되면 옛일을 회상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므로 산에 올라가는 산놀이로 변했다.

유왕산은 선편으로 부여에서 강경을 거쳐 금강 하구인 군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유왕산의 이름은





〈유왕산놀이〉
1 유왕산 가는길
2 유왕산놀이
충남 부여군 양화면 임동권

옛적에 왕이 이곳에서 쉬어 놀았다거나 머물렀다고 해서 생긴 것이라 한다. 매년 음력 8월 17일이 되면 유왕산을 중심으로 1백리 이내의 부녀자들이 떡과 밥을 비롯한 음식을 준비해 와서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이처럼 유왕산 놀이는 원래 여성들만 모여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담소하던 놀이로, 이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하루 종일 유쾌하게 놀았다. 놀 기회가 적었던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은 이날을 기다렸다가 모여서 마음놓고 즐기는 자기 발산으로 하루를 만끽하였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화목을 다지고 농경사회에 필요한 일체감을 얻게 되었다.

참고문헌 | 유왕산놀이 발굴조사 보고서(임동권, 부여문화원, 1999).
필자 | 이도학(李道學)

차귀본향놀이(遮歸本鄕-)

정의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옛 이름 차귀) 마을에 전하는 민속놀이.

유래 차귀마을 본향당(本鄕堂)의 유래는 일찍이 법성이라는 목동이 바닷바람을 쐬러 갔다가 주워 온 상자 속의 사신(蛇神)을 모시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놀이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내용 차귀본향놀이는 음력 8월 16일 밤에 베풀어지는데, 마을의 수호신을 받들어 풍요를 기원하는 한편 마을 사람들도 즐기며 제액초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놀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횃불을 든 횃불잡이가 맨 앞에서 심방(무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고, 농기(農旗)와 영기(令旗)를 든 기수가 따르며, 그 뒤로 용과 거북 그리고 법성이라는 목동이 탈을 쓰고 따르고, 농악대가 줄지어 본향당에 이른다. 이들이 본향당에서 제의를 베푼 다음, 풍물을 치고 마을의 공터로 돌아오면서 놀이가 무르익게 된다.

놀이의 중심을 이루는 이들의 차림새를 보면, 대개 용은 꼬리를 드리운 모습의 가면을 쓰고, 거북은 그 모양을 만들어 등에 지며 탈을 쓴다. 그리고 목동은 농부 차림의 갈중이(갈옷), 갈적삼(갈옷), 정당벌립에 탈을 쓴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차림의 모습으로 등장한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로써 놀이는 흥미를 끌게 된다. 용, 거북, 목동 사이에 오고가는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북이가 용의 부탁을 받고 폭풍우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목동이 그 소리를 듣고 거북에게 애원하여 폭풍우를 몰아치지 못하게 한다. 곧 용이 거북을 향해서 "거북아!" 하고 부르면, 거북은 "예" 하고 앞으로 나선다. 목동은 무슨 일인가 싶어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다. 용은 거북에게 "거북아, 오늘 밤에 석 자 다섯 치의 비를 내리게 하고, 폭풍을 불게 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훨훨 날아오르는 시늉을 한다. 한편, 이 말을 엿들은 목동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석 자 다섯 치의 비와 폭풍이 불면 홍수가 날 것은 물론이고 가축과 곡식이 성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동은 거북을 설득하기로 하고 거북에게 말한다. "비는 다섯 치만 내리게 하고, 바람은 불지 않게 하라." 그러자 거북은 알았다는 듯이 껑충껑충 상하도약의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거북은 준비된 허벅(제주도에서 사용되는 식수 운반 도구)의 물을 바가지로 사방에 뿌린다. 법성의 말대로 비는 알맞게 내리고 바람은 불지 않은 것이다.

결국 용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크게 노하고 거북에게 화풀이를 한다. 거북과 목동은 한 패가 되어 용과 시비를 가리다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상태에서 다 함께 어울려 춤을 춘다.

용과 거북의 대화의 시작은 안정된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주고받는다. 그러나 거북이가 목동과 한 패가 되어 용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용이 알게 되면서 용의 노여움은 불같이 터져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여움도 가라앉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결국 모두가 다 마찬가지의 운명임을 깨달아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함께 더덩실 춤을 춘다. 평안과 위기, 폭풍 뒤의 고요, 결국은 미움도 고움도 없는 체념의 상태로 돌아가버리는 인생과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듯한 한 과정이 지나간다.

이러한 극적인 장면이 끝나면, 동네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며 심방이 나서서 긴 노끈으로 용을 매어 거북과 함께 목동을 대동하고 동네의 부잣집을 방문한다. 용, 목동, 거북 뒤에는 농악대의 북, 장고, 허벅장단 등의 악기들이 늘어서고 그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열을 지어 따라가면서 걸궁(걸립) 노래를 부른다. 부잣집을 방문한 심방은 용과 거북 그리고 목동을 앞세우고 "한집님이 이 주당을 도왜염시메 인정이나 겁서(수호신이 이 집을 돕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 하면서 덕담을 늘어놓는다. 그러면 집 주인은 안으로 들어가 돈이든 떡이든 술이든 쌀이든 무엇이든 들고 와서 내어준다.

마당에 모여든 농악대들이 춤을 추며 맴돌기를 계속하고, 목동이 그 집에서 내어준 인정을 받아들고 "예, 고맙수다. 얍!(예, 고맙습니다. 예)"이라고 하면, 거북과 용은 뒤따라 감사의 표시를 하며 그 집을 나온다. 이로써 그 집에서는 그해의 재액을 모두 이 용과 거북이 쓸어가버린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큰 집마다 돌면서 음식을 모으며, 넓은 공터에 모두들 모여 밤이 새도록 노래와 춤으로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

참고문헌 |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필자 | 진성기(秦聖麒)

나무꾼소리

정의 나무꾼이 산이나 들로 다니며 나무나 풀을 베면서 부르는 신세 한탄의 노래. 소리가 매우 구성지고 가락과 사설이 슬프다. 지게목발소리라고 하기도 한다. 초군놀이 할 때 집단으로 부르는 소리도 광의의 나무꾼소리에 해당하지만 대개 혼자 부르는 소리를 일컫는다. 그리고 영남 지역의 나무꾼소리를 어사용, 갈가마구소리라고 하는데 독특한 나무꾼소리에 해당한다.

유래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가서 부르는 노래로 땔감을 구하거나 퇴비용 풀을 베면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영남 지역의 어사용을 통하여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사용은 한반도 동부 지역의 토속적 가락인 메나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 민요로서, 원래는 신격(神格)인 까마귀를 영신(迎神)하고 송신(送神)하는 무속적 제의가(祭儀歌)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소리가 영남제 범패(梵唄)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불교 음악의 영향을 받았고 범패를 달리 어산(魚山)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장단이 없는 단성선률인 범패(범성)풍으로 부른 이 소리를 '어산영[魚山令, 魚山詠]'이라 하였다. 어산영은 민간에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와전되어 어사영, 어사랭이 등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제의성도 점차 없어졌다. 하지만 현재 불리는 어사용의 음악적 특징은 영제(嶺制) 범패와 일치한다. 이처럼 초기에는 제의성이 강했던 기원성의 소박한 노래가 불교 범패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서정의 노래로 정착하였다.

판소리 수궁가에도 초군신세타령이 나오는데, 현재 전라도에서 불려지는 나무꾼소리와 비교했을 때 곡조나 사설이 같다.

내용 전국의 나무꾼노래는 각 지역의 소리문화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전라도의 산떨이, 산야가 영남 지역의 어사용과 유사한 기능과 가락,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소리가 매우 슬프고 비밀스런 개인의 심회를 메나리조의 자유 리듬에 따라 독창 형식으로 풀어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산떨이는 전남 고흥에서 주로 불리는 소리로, 자유 리듬의 메나리조로 슬프게 부르는 소리이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올라간다 올라간다"로 시작하는 나무꾼소리가 판소리 곡조로 널리 불려진다. 산타령도 나무꾼소리로 불린다. 전북 서부 평야(익산, 옥구, 김제)의 나무꾼소리인 산야는 7~8월에 산에서 솔가지를 따거나 나무하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소리가 너무 슬퍼 산천의 풀잎이나 곡식이 모두 울 정도라고 하여 처서(處暑) 이전에 이 소리를 부르는 것을 관청에서 금지했다고 한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아리랑 혹은 정선아라리가 나무꾼노래로 두루 불렸다. 지역의 대표적 민요가 나무꾼소리로 불리는 사례는 문경의 문경아리랑, 경기도의 아리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노래는 주로 남녀 애정의 노랫말을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충북의 청원, 진천, 음성은 충남 및 경기도와 접하는 곳이어서 경기권에 속하기 때문에 나무꾼소리도 아리랑을 많이 쓴다. 그래서 강원도아리랑, 엮음아리랑, 잦은아리랑이 불린다. 충북의 지역적 특징을 지닌 나무꾼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충북 남부 지역은 어사용 전승권이다.

북한 지역에서 불리는 나무꾼노래는 대개 "올라가누나- 올라간다 이산 마루 꼭대기로 올라를 가누나"로 시작되는 노랫말을 가지며 자유 리듬에 유창하고 구성지게 부르는 특징을 지닌다.

나무꾼소리의 노랫말은 불우한 개인의 신세 한탄이 주류를 이룬다. 그 중에서 특히 일에 대한 고역(苦役), 신분 차이, 조실부모(早失父母)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자식이나 아내의 죽음, 득병(得病)과 늙음이 많다. 그리고 사랑을 꿈꾸는 내용도 많다. 익살스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봉덕이노래, 영감노래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사례 나무꾼소리로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유명한 것이 영남 지역의 어사용이다. 어사용은 고유 계열의 노래로 갈가마구소리가 있고, 삽입 계열의 노래로 봉덕이노래, 과부노래, 나물노래 등을 포함한다. 갈가마구소리는 노래의 첫마디에 "구야 구야 지리동산 가리 갈가마구야"라는 공식 어구를 동원한다. 봉덕이노래는 "열아홉 먹은 과부가 스물아홉 먹은 딸을 잃고 내 딸 봉덕아 내 딸 봉덕아 딸아 딸아 봉덕아 내 딸 봉덕아 어딜 갔나"라는 노랫말을 사용한다. 과부노래는 "영감아 영감아 우리 영감아"로 시작하여 어처구니없이 죽은 영감을 애도하는 내용이다. 노랫말이 익살스럽지만 가락은 슬프다. 영감이 죽은 원인이 "항글레 뒷다리에 채이 죽은 영감", "오뉴월 솔뱅이 그늘에 얼어죽은 영감", "오뉴월 배춧잎에 쌔여 밟혀 죽은 영감" 등으로, 하층민의 삶의 비극을 해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고유 계열과 삽입 계열의 노래들은 모두 자식의 부재, 남편의 부재, 연인의 부재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배경으로 한다. 그래서 노래가 슬프고 구성지다. 소리를 마칠 때는 "이후후후"라는 소리를 외친다.

나무꾼의 고된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전남 고흥의 나무꾼소리인 산떨이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개냐리고 어이여 생약한 요내 다리로 언제 걸어서 평지를 갈꼬 내려를 가네 짐을 지고 내려간디 발길은 첩첩 맥히여지고 심은 점점 까라를 지는디 산을 치면 평지가 난다더니 언제 걸어서 평지를 갈꺼나 오이-"

의의 나무꾼소리는 깊은 산속에서 주로 혼자 부르는 개인 독창 형식의 노래이다. 따라서 개인 서정형 노래문학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또 작업 장소가 산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에 대한 경외감과 현실적 삶의 불우함이 어우러져 산과 신(神)에 대한 제의적 기원이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노래이다. 그리고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나무꾼의 소리이기에 그 속에는 하층민의 의식구조, 즉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일정한 리듬도 없이 구성지게 부르는 나무꾼소리는 가장 인간적인 소리로서의 멋과 한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구전민요의 세계(김헌선, 지식산업사, 1996), 어사용의 유형과 사설구조 연구(權五慶, 慶北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7).

필자 | 권오경(權五慶)

등짐소리

정의 풀이나 나무, 볏단을 등이나 어깨 또는 지게에 지고 운반하며 부르는 노래.

내용 퇴비나 땔감용 풀이나 나무 혹은 볏단을 나르는 과정에서 부르는 것으로 보아 농경문화가 시작된 때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산간지역에서 풀짐이나 나무짐을 나르며 부르는 소리이다.

그리고 볏단을 나르는 벼등짐소리도 이에 해당한다. 주로 밭이 많은 산간지역이나 보리농사를 많이 짓는 남부 지역(전라도)에서 이 소리를 하였다. 초군놀이를 병행하는 지역도 있다. 등짐소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며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에 가락이 길고 구성지다. 사설은 무의미한 노랫말을 길게 뽑아 부르거나 신세 한탄하는 내용이 많다. 벼등짐소리는 어깨를 이용하여 볏단을 나르면서 부르는데, 일반 등짐소리로도 전용되어 불렸다. 『한국민요대전』에 소개된 전북 옥구의 등짐소리(교환창 형식)를 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 해에도 다 넘어갔네
북두나 칠성이 앵돌아졌네
아 헤에 어어 어 허 허 어허이 에헤야아
잘도나 허언다 잘도나 허어네
우리이 동무님네 썩 잘도 헌다
아 헤에 어어 어 허 허 어허이 에헤야아
가네에 가아안다 내갇도나 가는구나
아 헤에 어어 어 허 허 어허이 에헤야아
올라르으을 가아안다 또 한 다발이 올라가는구나
아 헤에 어어 어 허 허 어허이 에헤야아
인제으으 가아이면 언제나 오시랴오
아 헤에 어어 어 허 허 어허이 에헤야아
언제에 올 줄으으을 내가 자산히 모르것네
아 헤에 어어 어 허 허 어허이 에헤야아
도련님은 올라가시면으흔 귀가문으 장개들어
아 헤에 어어 어 허 허 어허이 에헤야아

지역사례 전북의 등짐소리는 지게 위에 풀이나 나무를 가득 짊어지고 돌아오며 중모리장단으로 부르고 "닭 잡고 술 내어라"라는 노랫말을 사용한다. 이처럼 닭과 관련된 놀이가 연관된 것은 경기도 연천의 남여(藍輿)행차 초군놀이와 비슷하다. 전남 장성, 담양 지역에서도 느리게 부르는 등짐소리가 있다. 강원도에서도 정선아리랑 형식으로 볏등짐소리를 부르는데 일종의 교환창이다. 강화도, 삼척의 볏단나르는소리는 지게 없이 볏단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며 부른다.

의의 등짐소리는 사람의 육체가 운반 수단이었던 시절, 짐을 지고 나르며 일의 고됨과 신세를 한탄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꾸밈이 없는 자연발생적 소리로서 한국 노래문화의 원시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전라북도 편(문화방송, 1995),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1(최상일, 돌베게, 2002).

필자 | 권오경(權五慶)

목화따는노래

정의 여성들이 가을에 하얗게 벌어진 목화를 따면서 부르는 민요.

유래 목화는 고려 공민왕 때 문익점(文益漸)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의복과 침구의 중요한 재료가 된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풍속화가인 김홍도(金弘道)의 작품 '행려풍속도병(行旅風俗圖屛)' 8폭 중에는 말을 타고 길을 가던 한 선비가 목화를 따고 있는 아낙네를 힐긋 쳐다보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풍속화의 사실성을 염두에 둘 때 18세기에 이미 목화 재배가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표지라고 하겠다.

목화농사와 관련된 세시풍속으로 정초에 목화농사의 풍년을 점치는 유모일보기(有毛日-), 삼묘일보기(三卯日-) 등과 정월대보름의 목화놀이, 이월 초하루의 목화풍년놀이가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목화 공출을 위해 목화농사를 강제적으로 장려하기도 했다. 목화농사가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목화농사와 관련된 민요가 활발하게 전승되었다.

내용 목화따는노래는 가을 추분(秋分) 무렵부터 초겨울까지 여성들이 하얗게 벌어진 목화열매를 따면서 부른 민요이다. 우리나라의 목화는 아시아 재래면으로서 늦봄에 심어 가을에 다래(열매)가 익어서 피어난 솜을 따다 방적하고 제직했다. 목화따는노래는 악곡이나 사설에 의한 분류라기보다는 목화를 따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에서 그 기능이 강조되는 분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집된 문헌에 수록된 목화따는노래는 실제로 목화를 따면서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목화따는 행위를 소재로 하는 노래까지 포함하고 있다. 목화를 따는 행위는 특별한 동작의 통일을 요구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목화를 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표출하거나 분위기를 살려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노래면 어떤 노래이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밭매기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목화를 따면서도 부를 수 있고, 목화를 따면서 부르는 노래를 밭매기를 하면서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조선민요연구』에 '목화따기노래'라는 이름으로 수록된 민요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뒤터에는 목화심어　송이송이 따벌적에
좋은송이 따로모아　부모옷에 많이두고
서리맞이 마고따서　우리옷에 놓아입자

이 노래와 거의 유사한 민요가『한국구비문학대계』예천군편에도 수록되어 있다. 한편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목화따는노래의 대표적인 사설은 다음과 같다. 이 민요는 일부 문헌에서는 밭매기노래로 소개되고 있다.

사래지고 장찬밭에　목화따는 저처녀야
부이부이 내따주까　송이송이 내따주까
송이송이 내사싫소　부이부이 내사싫소
질로가는 선비거든　질만보고 갈탓이지
내집물어 뭐하시오　내집일라 오실라만
구름서산 넘어서서　안개서산 내집이오

목화따는노래의 앞부분은 대개 "사래질고 장찬밭에 목화(미영)따는 저처자야"로 시작되며, 이후의 사설들은 지역에 따라, 가창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의의 값이 저렴한 서양면이 수입되면서 우리의 면화 농사는 급속히 쇠락하였다. 민요의 전승 현장이 사라지면서 민요의 전승 또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목화를 따는 작업은 지난 시간 여성들에게는 힘겨운 노동이면서 또한 가장 인상적인 노동이었다. 목화따는노래의 사설에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좋은 반려자를 만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심리가 진솔하게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목화따는노래는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던 민요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조선민요연구(고정옥, 首善社, 1948), 韓國口碑文學大系 8-3(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1), 韓國口碑文學大系 7-18(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8), 和順의 민요(강동원 編, 도서출판 民, 1993),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1(최상일, 돌베개, 2002),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 이옥희(李玉姬)



행려풍속도병 국립중앙박물관



경직도 국립민속박물관

벼베는소리

정의 벼를 낫으로 베어 볏단으로 묶어내며 부르는 소리.

내용 한반도 전역에서 논농사를 짓지만 벼베는소리를 활발하게 불러온 곳은 다음의 4개 지역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연백, 연안, 재령, 해주, 옹진 등 황해도 서부 지역과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삼척 등 강원도 영동 지역 그리고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 전라북도 서부 지역, 또 울진, 상주, 김천 등 경상북도 일부 지역이다. 그러므로 모심는소리와 논매는소리가 논농사를 짓는 거의 모든 곳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벼베는소리의 분포는 그다지 넓지 않다고 하겠다. 벼베기가 모심기 또는 논매기와 달리 적은 인원을 투입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하는 일이어서, 작업에 노래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그 이유가 있다.

벼베는소리로 널리 알려진 노래는 황해도 서부 지역의 베어라소리, 강원도 영동 지역의 한단소리, 전북 서부 지역의 산야소리, 경북 일부 지역의 어사용 등이 있다. 이 중에 베어라소리와 한단소리는 벼베기를 할 때만 부르는 노래이다. 한단소리가 모찌기할 때 부르는 한춤소리와 곡을 같이 하지만, 사설이 서로 달라서 둘은 별개의 노래로 여겨진다. 그런가하면 산야소리와 어사용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불려진다. 산야소리는 볏단나르는소리로도 많이 불리며, 또 나무하는소리와 논매는소리로도 불린다. 그리고 어사용은 나무하는소리로 많이 불리며, 역시 논매는소리로도 부른다. 베어라소리와 한단소리는 중부 지역의 것이며, 산야소리와 어사용은 남부 지역의 것이다. 즉, 중부 지역 벼베는소리는 그 쓰임새가 고정되어 있고, 남부 지역 벼베는소리는 그 쓰임새가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벼베는소리의 가창방식은 대부분 독창이다. 산야소리는 선후창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역시 선후창 못지않게 독창으로도 많이 부른다. 또한 벼베는소리는 리듬이 자유로운 노래여서, 곡이 엄격하게 틀이 잡혀 있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벼베는소리는 선율과 리듬 그리고 사설의 길이와 형식 또한 엄격하게 정해진 것이 없이 유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벼베는소리의 사설은 실무성이 지배하는 노래와 놀이성 또는 감성이 짙은 노래로 나눌 수 있다. 베어라소리, 한단소리 등 중부 지역의 노래가 전자에 해당하고, 산야소리, 어사용 등 남부 지역의 노래가 후자에 해당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노래로 『조선민족음악전집』1에 실린 베어라소리와 『한국민요대전』 강원 강릉 지역에서 전하는 한단소리는 다음과 같다.

〈베어라소리〉
부여라부여 부여부여 부여라
동남풍에 쓰러진벼대를
걷어잡아서막 부여라 부여부여라
〈한단소리〉
얼른 하더니 묶었네
얼른 한단을 묶었네
에헤 어어이 하더니 또 한단이라
니가 한단을 묶으면 나두 도 한단이라

앞의 베어라소리는 바람에 쓰러진 벼를 거둬 잡고서 막 베어나가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뒤의 한단소리는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모두 자신이 한 단을 묶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베어라소리와 한단소리의 사설은 거의 작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한단소리의 사설은 완전히 위와 같은 내용으로만 채워지며, 베어라소리의 사설은 다른 내용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위의 예처럼 작업을 독려하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산야소리와 어사용의 사설은 놀이성과 감성이 주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한국의 농요』3에 실린 산야소리와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에 실린 어사용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산야소리〉
선창: 영감아 영감아 우리 영감아
팔월열나흗날 송편 일곱 개만 먹으랑게
열일곱개 다먹고 배터져죽은 영감아
후창: 어우야 하고
〈어사용〉
구 시 월 새단풍으는 해마두루 드는데
내가슴에 속단풍으는 시시루마 든 다
……후략……

앞의 산야소리는 송편을 많이 먹고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마음을 장난스럽게 노래하고 있고, 뒤의 어사용은 근심(속단풍)이 수시로 드나드는 삶의 고달픔을 자연에 견주어 노래하고 있다. 산야소리의 경우 작업을 독려하는 내용의 사설이 불리기도 하지만,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실무 중심의 노래는 다룰 수 있는 소재가 주로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지만, 놀이성과 감성이 실린 노래는 원칙적으로 소재의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실무 중심의 벼베는소리 사설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거나, 내용이 단조롭게 구성된다. 그래서 벼베는소리의 사설은 남부 지역의 것이 중부 지역의 것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부 지역 벼베는소리는 그 쓰임새가 벼베는 일에만 고정되어 있기에 사설 또한 그 일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될 수 있었고, 남부 지역 벼베는소리는 쓰임새가 유동적이어서 다른 일에도 두루 통할 수 있도록 사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했던 것이다.

의의 농사는 곡식을 얻기 위해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벼 베기에는 수확의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벼베는소리의 현장에는 정서적 긴장이 자리잡기 어렵다. 막 베어나가라고 외치거나, 나도 한단 베었다고 외치는 소리에는 일을 독려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일년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보람된 마음이 더 크게 깃들어 있다. 요컨대 신명으로 외치는 함성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벼베는소리의 사설로 익살과 해학, 장난기 섞인 것들이 불리는 것도 같은 맥락 위에 놓여 있다. 이처럼 벼베는소리의 정서가 가벼움을 지향하기에 자신의 처지와 신세를 말하는 사설로 노래할 때도 진지함에 빠져들지 않는다. 노래를 통해 긴장을 가볍게 날려보내는 기분이다. 벼베는소리는 노동의 성격과 노래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재미있는 면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韓國의 農謠3(이소라, 民俗苑, 1993),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강원도 편(문화방송, 1996), 조선민족음악전집1(예술교육출판사, 1998), 조선민족음악전집2(예술교육출판사, 1998).
필자 | 강등학(姜騰鶴)



행려풍속도병 국립중앙박물관

벼타작소리

정의 벼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두며 부르는 소리.

내용 벼타작은 벼털기, 도리깨질하기, 검불날리기의 세 가지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먼저 통나무에 다리를 붙여놓은 개상[床] 또는 뉘여놓은 나무 절구통, 크고 널찍한 돌판 등에 볏단을 내리치면서 벼이삭을 털어낸 다음, 남아 있는 것들을 도리깨로 쳐서 마저 털어낸다. 그리고 털어낸 낟알들을 모아놓고 죽가래로 떠서 공중으로 퍼올리면 옆에서 여러 사람이 키로 바람을 일으켜 쭉정이와 검불을 날려보내는 것이다. 벼타작소리도 이러한 작업과정에 따라 벼터는소리, 도리깨질하는소리, 검불날리는소리로 구분된다.

벼터는소리는 개상질소리, 벼바숨소리, 자리개질소리라고도 한다. 개상질소리는 볏단을 내리치는 농기구를 개상이라고 하기에 붙은 이름이며, 벼바숨소리는 곡식의 이삭을 떨어내는 행위를 바순다고도 하기에 붙은 이름이다. 그리고 자리개질소리는 벼이삭을 털기 위해 볏단을 옭아매는 줄을 자리개라고 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벼터는소리를 가리키는 명칭은 다양하지만, 이 노래를 성하게 불러온 곳은 충남 서부 지역의 홍성, 청양, 부여, 논산, 서천 등이다. 나머지 지역은 강원 영동 지역, 충북, 경북, 전북 등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 드물게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벼터는소리의 대표적인 노래는 왔나소리이다. 이 노래는 충남 서부 지역 및 전북 익산에 분포하고 있는데, 처음에 선창자가 "왔나" 또는 "들왔나" 하고 묻는 것으로 노래를 시작하는 특징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맸나" 하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질문을 생략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왔나" 또는 "들왔나" 하며 묻는 것이 이 노래를 부르는 보편적인 방식이다. 『홍성의 노동요』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들왔나 에
어야 헤헤 어야 헤헤
꾸불퉁 꾸불퉁 어야 헤헤
저남산 보아라 어야 헤헤
우리도 늙으면 저모냥 되리라
(다같이) 헤헤 허이 헤헤야 헤이 나헤

도리깨질하는소리는 위로는 평남과 함북부터 아래로는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분포가 넓은 만큼 이 노래의 종류도 다양한데, 강원도 영동 지역의 마댕이소리, 경북의 옹헤야소리, 충남과 경남의 어화소리, 제주도의 어야홍소리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도리깨질하는소리는 벼 타작뿐만 아니라, 보리 타작할 때도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어야홍소리는 벼 타작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그것은 제주도에 논농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도리깨질하는소리 중에 분포가 가장 넓은 것은 옹헤야소리이다. 이 노래는 경북 전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면서, 경남의 여러 곳에 진출하였고, 전남 나주와 진도, 강원 영월, 경기 파주 등 거리가 먼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한국민요대전』에는 대구와 경북에서 전해지는 노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해는지고 옹헤야　저문날에 옹헤야
목도말라 옹헤야　숨도차고 옹헤야
한잔묵고 옹헤야　하여볼까 옹헤야
두잔묵고 옹헤야　하여보세 옹헤야

검불날리는소리는 죽가래질소리 또는 나비질소리라고도 한다. 죽가래질소리는 검불을 날리기 위해 털어낸 곡식 낟알을 공중으로 퍼 올릴 때 죽가래를 이용하기에 붙은 이름이며, 나비질소리는 곡식 낟알을 퍼올릴 때 옆에서 키로 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노래는 강원도 영동 지역의 속초, 양양과 충남 서부 지역의 서산, 홍성, 당진, 부여, 서천 등에서 발견되는데, 후자 지역이 중심 분포지이다. 그러므로 검불날리는소리의 종류도 충남 서부 지역에 보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의 오헤소리는 충남 서부 지역 검불날리는소리의 하나인데, 한마디 정도로 사설과 후렴을 짧게 주고받으며 노래하는 특징이 있다. 죽가래질의 호흡이 그만큼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노래 역시 같은 리듬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민요대전』에는 충남 서산에서 전해지는 노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어헤어헤　석양에 어헤
서릿바람 어헤　나오기 어헤
시작헌당 어헤　어헤어헤
벳무데기 어헤　큼직하게 어헤
잘던져 어헤　내놔라 어헤
어헤어헤　어헤어헤

의의 모심기나 논매기는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노동이다. 벼의 성장에 일정한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벼 타작은 투입되는 인력도 적고, 또 시기의 축박성도 비교적 크지 않은 노동이다. 그러므로 벼 타작은 모심기나 논매기에 비하면 주변적인 작업이라고 하겠다. 벼타작소리의 분포가 전국적이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도리깨질하는소리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모심는소리나 논매는소리에 비하면 분포의 밀도가 매우 성긴 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벼타작소리가 존재하는 곳은 농사의 주변 작업에까지 노래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洪城의 勞動謠(이소라, 홍성문화원, 1994),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충청남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학의 논리와 시각(강등학, 민속원, 2006).
필자 | 강등학(姜騰鶴)

새쫓는소리

정의 씨앗이나 이삭을 쪼아 먹으려고 날아드는 새를 쫓기 위해 부르는 소리. 또는 새가 날아들지 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르는 소리.

내용 새쫓는소리는 노동요와 의식요로 나눌 수 있다. 노동요로서 새쫓는소리는 씨앗이나 이삭을 쪼아 먹으려는 새를 쫓기 위해 부르는 소리이다. 씨뿌리기를 시작하는 봄부터 수확을 하는 가을까지 논이나 밭에는 으레 새떼가 날아든다. 허수아비를 세워 새를 쫓는 기발함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허수아비로만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때 긴 막대기나 깃발을 들고 논두렁을 뛰어다니거나, 소리가 나는 북이나 꽹과리를 두드리며 "훠이 훠이"로 시작하는 새쫓는소리를 한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농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여서 일손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새 쫓는 일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의식요로서의 새쫓는소리는 정월보름날 세시풍속의 하나로 자리 잡은 풍요기원요로서의 새쫓는

소리와 장례요인 묘를 다질 때 부르는 새쫓는소리가 보고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보름날 아침 일찍 아이들이 마당이나 들판에 서서 새 쫓는 흉내를 내면서 새쫓는소리를 부르는가 하면, 보름제사를 지낸 후 나무 막대기를 들고 집 마당에서 들을 바라보며 새쫓는소리를 부르기도 한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 지역에서 전해지는 풍속이다. 묘다지는 소리로 불리는 새쫓는소리는 회닫이를 모두 끝낸 다음 훨훨이(혹은 훨훨소리)라는 새쫓는 소리를 부르는데, 주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불렸다.

지역사례 실제로 새를 쫓기 위한 기능을 지닌 새쫓는소리와 풍요를 기원하는 세시풍속으로서 새쫓는소리는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전남 장흥에서처럼 새를 쫓을 때 논두렁에서 다리를 벌리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폈다를 하면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막대기나 소리가 나는 도구를 활용하여 새를 쫓는다.

경기도 양평, 고양, 파주 등지에서는 묘를 다질 때 새쫓는소리를 부르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하면 새가 망자(亡者)를 모시고 간다고 하여 부른다고 하나 새를 쫓는 내용의 노랫말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묘를 다질 때 새쫓는소리가 불리는 지역에서는 김을 매고 논에서 나오기 직전에 이 소리를 부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평에서는 "위--", "훠이--"라는 소리를 지르는 데 반해 고양 일대에서는 "훨훨이"라는 소리를 선후창으로 제대로 갖추어 부른다. 실제로 새가 날아드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른다. 새를 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매는 기능의 일환으로 새쫓는소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새 쫓는 행위로서 부를 경우는 "훠이훠이"라며 쫓는 명령형과 "구리이선배(구렁이선비) 장개(장가) 가는데 귀경(구경) 하러 간다."처럼 이곳보다 먹을 것이 더 많은 곳을 알려주는 상황제시형, "강릉 이통천 집에 가서 파먹어라.", "저 건너 장제 집에 가서 파먹어라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처럼 상황 제시와 명령이 모두 동원되는 노랫말이 불리기도 한다.

한편 실제로 이삭이 나지 않은 정월대보름이나 김매기를 할 때 새 쫓는 흉내를 내면서 소리를 하는 것은 풍요를 기원하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유사 행위를 통해 주술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농요1(이소라, 현암사, 1985),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 편(문화방송, 1993), 한국민요대전 경상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충청북도 편(문화방송, 1995), 한국민요대전 강원도 편(문화방송, 1996), 韓國의 歲時風俗 I(국립민속박물관, 1997), 韓國의 歲時風俗 II(국립민속박물관, 1998), 새쫓는 소리와 영노(이보형, 韓國民謠學6, 韓國民謠學會, 1999).
필자 | 한정미(韓靜媚)

어정 칠월 동동 팔월

정의 농가에서 칠월은 어정어정하는 사이에 대강 지나가고, 팔월은 추수한 곡식이 가득 채워져서 신선처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는 의미의 속담. 곡식이 결실을 맺고 추수를 하는 추석 무렵의 여유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유래 음력으로 칠월은 봄철에 심은 곡식과 과일이 한창 결실을 맺는 시기이며, 농가에서는 봄과 여름에 비해 별다른 할 일 없이 한가하게 지내는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농가에서는 어정어정하다 보면 칠월이 금방 지나가고, 팔월은 추수를 하는 때이므로 바쁘기는 하지만, 일단 추수가 끝나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한가해진다는 데에서 유래한 농촌 속담이다.

내용 우리나라는 예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하여 농사를 으뜸으로 삼아서 생활해왔다. 따라서 농사와 관련된 속담이나 행사가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어정 칠월, 팔월 신선"이라는 속담도 결국은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나 특용 작물 재배 또는 다른 부업들로 해서 농촌의 겨울이 바쁘고 일손도 부족한 경우가 있지만, 옛날에는 농사만 끝나면 이듬해 농사철까지는 한가하게 쉬는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이 속담은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농사철의 특징을 잘 나타내었고, 특히 추석이 있는 팔월에는 신선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수확의 기쁨과 여유 있고 한가로운 농촌의 모습을 표현한 것에 의의가 있다.

유사속담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는 "어정 칠월, 건들 팔월", "오월 농부, 팔월 신선" 등이 있다.

참고문헌 | 東言解, 松南雜識, 旬五志, 韓國文化상징사전1(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東亞出版社, 1992),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한국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柳在福, 全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1).
필자 | 유재복(柳在福)

육칠월에는 외서리 칠팔월에는 콩서리

정의 육칠월에는 참외서리, 칠팔월에서는 콩서리가 제격이라는 의미의 속담.

내용 서리는 여러 아이들이 무리지어 남의 곡식이나 과일을 몰래 훔쳐 먹는 장난으로 전통시대 풍습의 하나다. 서리는 먹을 것에 한정되었으며, 어른들은 그 행위에 대해 묵인해주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서리는 먹을 것이 가장 많이 나는 여름철에 주로 밭에서 한다. 육칠월의 참외, 칠팔월의 콩은 여름에 가장 흔한 작물로 서리에 알맞다. 그래서 음력 6, 7월에는 남의 참외밭에서 외서리를 하고, 7, 8월에는 남의 콩밭에서 콩서리를 한다는 뜻이다.



의의 서리는 먹을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배도 채우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애교스런 놀이이기에, 달마다 생산되는 것들이 서리의 대상이 된다. 서리 대상이 바뀌면 속담도 바뀌는데, 그 예가 "칠팔월에는 콩서리, 구시월에는 감서리"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신경숙(愼慶淑)

팔월 그믐에 마지막 쉰다

정의 가을인 음력 팔월에도 음식이 쉴 만큼 날씨가 덥다는 의미의 속담. 날씨가 선선할 때에도 음식은 쉴 수 있다는 뜻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은 금물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내용 팔월 그믐이면 추석도 훨씬 지난 때이므로 가을이 한창일 때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쉴 수 있으며, 또 날씨가 선선해졌다 하더라도 음식은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속담에는 항상 음식이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조상들의 생활지혜가 담겨 있다.

의의 음식물이 귀하고 요즘처럼 보관 방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음식물 보관에는 한계가 있어서 배탈이 나기 쉬웠으므로 음식의 보관과 관련된 속담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음식물 보관에 신경 써야 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었다. 이 속담은 일차적으로는 비록 날씨가 선선해지는 때라 할지라도 음식이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좀더 깊은 뜻을 음미해 보면, 무슨 일이든지 마지막에는 더 조심하고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경계와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東言解, 耳談續纂, 민족생활어사전(이훈종, 한길사, 1992),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우리속담연구(최창렬, 일지사, 1999).
필자 | 유재복(柳在福)

참외 김진열





生業

생업

가을걷이는
벼 종, 팥, 기장, 조, 옥수수, 수수, 메밀과 같이
가을에 여무는 곡식을
줄수 째 베거나 훑어서
이삭만을 따서 말린 다음
알곡을 내는 타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칭한다
보리와 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식을
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에 일이 많고
추분부터 시작해서 추위가 닥치기 전에
갈무리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재배 규모가 적은
작물이 아니면
가을걷이는 이웃과
품앗이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가을걷이[秋收]

정의 가을에 다 여문 곡식들을 거두어들이는 일. 추수(秋收)라고도 한다. 가을걷이는 곡식을 거두기 위해 이삭이나 열매만을 따거나 줄기까지 베는 일(작물에 따라 따기, 꺾기, 베기라고 함)과 이를 말리는 일 그리고 알곡을 떨어내는 타작(마당질이라고도 함)으로 구분한다.

내용 가을걷이는 벼, 콩, 팥, 기장, 조, 옥수수, 수수, 메밀과 같이 가을에 여무는 곡식을 줄기째 베거나 뽑아서 이삭만을 따서 말린 다음 알곡을 내는 타작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칭한다. 보리와 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식을 가을에 수확하기 때문에 일이 많고, 또 추분부터 시작해서 추위가 닥치기 전에 갈무리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재배 규모가 적은 작물이 아니면 가을걷이는 이웃과 품앗이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권2 「치농편(治農篇)」 조도조(早稻條)에는 벼 베는 길일(吉日)을 경오(庚午), 임신(壬申), 계유(癸酉), 기묘(己卯), 신사(辛巳), 임오(壬午), 계미(癸未), 갑오(甲午), 계묘(癸卯), 갑신(甲辰), 기유(己酉) 일로 적고 있으나, 파종할 때와는 달리 실제로 가을걷이에 날을 가리거나 하는 풍습은 볼 수 없다. 아마도 가을걷이의 특성상 때를 놓치면 일년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무엇을 가리고 말고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작물의 가을걷이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벼의 경우를 보면 예전에는 서리가 내린 다음에야 벼 베기를 시작했다. 나락이 제대로 여물고 볏짚도 잘 말라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 들어서 벼 베는 시기가 다소 빨라지기는 했지만, 중부지방에서는 한로(寒露)가 제철이고 남부지방에서는 이보다 열흘 가량 늦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부지방은 추분(秋分)에, 남부지방은 한로에 한창이다. 따라서 옛날보다는 40~50일이나 빨리 추수가 시작된다.

이처럼 벼 베기가 빨라진 이유는 기계화에 따라 모내기가 앞당겨진 데다가 품종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이삭이 패고 45일이 지나 나락이 90퍼센트 정도 여물었을 때 베어야 소출도 가장 많고 쌀의 품질이 좋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 베기는 낫으로 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면서 벼를 베어서 단으로 묶어내는 바인더(reaper binder)라는 수확기를 사용하였으며, 지금은 대부분이 벼를 베어 탈곡까지 하는 콤바인(combined harvester)을 쓴다.

낫으로 벼를 벨 때는 보통 네 줌(뭇)을 한 단으로 묶는데, 한 단은 쌀이 한 되 가량 나오는 분량이 된다. 그리고 논바닥에 볏단을 세워 말릴 때는 20단을 '한 가리' 또는 '한 광'이라고 하고, 이를 타작하면 쌀이 한 섬이 된다. 20단이 넘는 긴 가리를 '장광'이라 하고, 이때는 한 광마다 볏단을 거꾸로 세워 그 양을 표시한다. 이를 줄가리친다고 한다.

중부 이북지방에서는 벼를 베면 바로 단으로 묶어서 논바닥이나 논둑에 세워서 보통 20여 일 간 말린다. 그러나 충청도 일부와 남부지방, 특히 평야지역에서는 벼를 벤 즉시 단으로 묶지 않고 논바닥에 깔아 일주일 가량 말린 다음 단으로 묶는다. 그리고 묶은 단은 바로 논바닥이나 논둑에 쌓는데, 이삭이 안으로 가고 밑동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열십자(十)자 모양으로 쌓는다. 50단을 한 가리라 하고 이를 동가리친다라고 한다.

볏단이 다 마르면 타작할 곳으로 옮기는데, 보통 지게로 져 나르거나 발채나 달구지를 써서 소로 날랐는데, 달구지나 경운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옮긴 볏단은 마당이나 텃밭에 낟가리를 치는데, 바닥에 짚이나 거적을 깔고 밑동은 밖으로 이삭은 안으로 하여 동그랗게 쌓아 올리면서 위로 갈수록 넓혀서 배가 부르게 쌓는다. 그리고 낟가리의 꼭대기에는 이엉이나 거적을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였다. 보통 한 가리에 3~4백 단을 쌓지만 농사가 많은 곳에서는 5~7백 단을 쌓기도 했다.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기 때문에 마당질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서리가 내리는 상강(霜降) 무렵이면 타작이 끝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눈이 올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있었다. 타작은 양이 많지 않으면 탯돌이나 절구통을 쓰지만 많을 때는 개상을 썼다. 자리개를 두 손으로 쥐고 볏단을 감아 어깨 뒤로 돌려서 개상 위에 내려치면 나락이 떨린다. 덜 떨린 것은 도리깨로 마저 떨었다. 그리고 빗처럼 생긴 날 사이에 이삭을 먹여 나락을 훑어내는 그네도 사용했다.

근대적인 개념의 탈곡기가 도입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로 초기에는 사람이 발로 밟아 돌리는 족답탈곡기가 사용되었고, 뒤이어 발동기가 돌리는 동력탈곡기, 경운기가 돌리는 자동탈곡기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동력탈곡기가 사용되면서 낟가리나 전통적인 마당질은 사라졌으며, 지금은 콤바인이 벼를 벰과 동시에 탈곡까지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벼 베기나 탈곡하는 광경을 보기가 어렵다.

콩은 입하(立夏) 때 심으면 백로 전에 거두고 하지(夏至) 때 심으면 벼 베기를 할 무렵에 수확한다. 콩은 주로 손으로 뽑는데, 일부 지방에서는 낫이나 호미로 콩대를 꺾어서 수확하기도 한다. 수확한 콩은 반 아름 크기의 단으로 묶어서 세워 말리거나, 2~3미터 길이의 서까래 나무 6~8개를 위는 모아 묶고 아래는 벌려 원추 모양으로 만든 다음 중간에 두세 곳에 새끼로 테를 둘러 고정한 일종의 건조대인 얼루기에 콩 단을 걸쳐서 말린다. 얼루기 한 틀에는 열 짐 가량 말릴 수가 있다. 타작은 마당에 말린 콩대를 펴 널고 도리깨로 두드리거나 족답탈곡기로 벼처럼 떨었다. 최근에는 콩탈곡기를 사용한다.

팥도 콩과 마찬가지로 뽑아서 얼루기에 말리고 도리깨로 턴다. 팥은 덩굴식물이기 때문에 족답탈곡기는 쓸 수가 없고 줄기와 이삭(꼬투리)을 함께 넣는 콩탈곡기를 사용한다.

벼 베기가 끝날 때면 조를 수확한다. 다래끼를 허리에 차고 창칼로 이삭을 따서 담는다. 하루에 혼자서 다섯 섬쯤 딸 수 있다. 이삭은 중태에 담거나 발채를 얹은 지게에 담아 운반했다. 이삭을 멍석에 펴 널어 말린 다음 도리깨로 떨거나 절구에 넣고 찧어서 알곡을 냈다. 밭에 남은 줄기는 낫으로 베어서 땔감이나 소먹이로 썼다.

옥수수는 쪄서 먹는 것은 7월에 따지만 식량으로 쓸 것은 9월에나 수확한다. 옥수수자루를 먼저 따내고 낫으로 줄기를 베거나, 줄기를 벤 다음 옥수수자루를 따낸다. 따낸 옥수수는 손으로 겉껍질을 완전히 벗기거나 일부를 남겨서 4~6자루를 한 송이로 묶는데, 완전히 벗긴 옥수수는 멍석에 널어 말리고, 송이로 묶은 것은 사람 키 높이의 밧줄이나 장대에 걸어서 말린다.

완전히 마르면 도리깨로 떨거나 틈틈이 손으로 알곡을 따낸다. 근년에는 옥수수 탈립기를 쓰기도 하고 경운기 로타리를 이용하여 떨기도 한다. 최근에는 쪄먹는 옥수수만 재배하기 때문에 가을걷이를 보기가 어렵다.

1 가을걷이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황헌만

2 가을걷이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황헌만









1 가을걷이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주평수

2 가을걷이 무경

기장은 소출이 적고 수확하는 일이 까다로워 예전부터 많이 심지 않았다. 다만 알곡을 떨어내고 남은 이삭으로 빗자루를 매기 위해서 조금씩 심었다. 기장은 빗자루 크기를 고려하여 낫으로 대(줄기)를 베어 넉넉하게 단으로 묶은 다음 집으로 운반한다. 대에 달린 잎을 훑어내고 길이를 맞추어 가지런히 한 다음 한 줌씩 묶어서 작두로 이삭 목 아랫부분을 잘라버린다.

그리고 이삭에 달린 알곡은 발바닥으로 비벼 떨어내고 그래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은 호미날로 긁어서 떨었다. 알곡은 찧어서 양식으로 쓰고, 남은 이삭(빗목)은 시래기 엮듯 엮어서 그늘에 매달아 말린 다음 빗자루를 매는 데 썼다. 지금은 기장을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다.

메밀은 보리나 감자를 수확한 다음 후작(後作)으로 재배하거나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한 논 그리고 기온이 서늘한 산간지방에서 재배하는 소위 대파작물(代播作物)에 속한다. 그래서 메밀은 파종 시기가 아주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벼 베기 전에 수확하는 여름메밀과 서리올 때 수확하는 가을메밀로 구분한다.

메밀은 열매가 밑동 부분에 달린 것부터 익어 올라오며, 먼저 익은 것은 쉽게 낟알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검은 빛을 내면 낫으로 베고, 한 아름씩 묶어서 마당질할 곳으로 운반한다. 단을 세우거나 얼루기에 걸쳐서 말린 다음 도리깨로 떤다.

참고문헌 | 增補山林經濟, 作物學槪要(趙載英, 鄕文社, 196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在來農耕의 地域差(張籌根 외,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出版部,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 민속의 세계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의 농기구(박호석 · 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 박호석(朴虎錫)

가지수확

☞ 가지파종: 봄편

고추수확[苦椒收穫]

☞ 고추파종[苦椒播種]: 봄편

올벼수확[早稻收穫]

☞ 올벼심기[早稻-]: 봄편

조수확[粟收穫]

☞ 조파종[粟播種]: 여름편

참깨수확

☞ 참깨파종: 봄편

팥수확

☞ 팥파종: 여름편

방어잡이(魴魚-)

명칭 및 종류 방어는 농어목 전갱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 그리고 일본 근해를 포함한 북서태평양에 분포한다. 방어는 같은 속(genus)의 잿방어나 부시리와 모양이 매우 닮아 있다.

잿방어는 윗턱의 뒤끝이 동공의 중앙 아래에 달하고 눈이 위턱 선단부의 수평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는 점에서 방어 및 부시리와는 구분이 된다. 한편, 방어와 부시리는 외형적으로 거의 구분되지 않는데, 이들을 구분하려면 머리의 위턱 후단부의 각진 정도 그리고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의 길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즉, 위턱의 후단부가 네모나게 각이 져 있으면 방어, 둥근 형태를 취하면 부시리이다. 각진 정도가 애매한 경우에는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길이를 비교해보아야 한다. 두 지느러미 길이가 같으면 방어이고 가슴지느러미가 배지느러미보다 짧으면 부시리로 판정할 수 있다. 이 3종은 방어속에 속하며 체측 옆줄에 날카로운 모비늘이 없는 점에서 전갱이과의 나머지 종들과 잘 구분된다.

방어는 지역과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다. 강원도에서는 15센티미터 이내의 어린 개체를 떡마르미, 40센티미터 내외의 중간 개체를 이배기, 60센티미터 이상의 큰 개체를 사기라 부르고, 경북에서는 10센티미터 내외를 곤지메레미, 15센티미터 내외를 떡메레미, 30센티미터 내외를 메레기 혹은 되미, 60센티미터 이상을 방어라 부른다. 『전어지(佃漁志)』에 따르면, 방어(魴魚) 또는 무태방어(無泰魴魚)라고 부르는데 무태방어란 살에 지방이 많고 특히 큰 방어를 일컫는 말이었다. 영어로 amberjack이라 부르고, 일본어로는 ブリ(bu-ri)라고 부른다.

내용 방어는 온대성의 회유성 어종으로 봄에서 여름에는 북쪽으로 회유하고 가을에서 겨울에는 남쪽으로 내려온다. 방어의 산란기는 2~6월(주 산란기는 4~5월)로 알려져 있는데 남쪽일수록 산란기가 빠르고(일본의 경우 2~4월) 북쪽으로 갈수록 늦어진다. 부화된 방어의 치어는 전체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전후까지 표층에 떠다니는 해조류 밑에서 성장하여 난류를 따라 북상한다. 이때 어업인은 떠다니는 해조류 밑에 있는 방어와 치어를 생포하여 양식용 종묘로 판매하기도 한다. 방어는 성장이 매우 빨라 부화 후 4개월 만에 15~20센티미터까지 자라며 최대 몸 전체의 길이는 150센티미터, 최대 무게는 무려 40킬로그램에 달한다. 방어는 먹이로 어린 시기에 코페포다, 지각류 따위를 먹지만 성장하면서 정어리, 멸치, 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따위를 먹는다.

방어잡이 도구로 삼각망, 유자망, 낚시가 이용된다. 삼각망은 입구를 육지 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멍이나 닻으로 설치하고 하루 한 번 오전에 자루그물을 끌어올려 어획물을 거둔다. 1회 조업 시간은 30~40분 정도이고 주로 8~9월에 방어를 잡는다. 유자망은 어선 한 척이 20폭 내외의 어구를 오후 5~6시 무렵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전진하면서 투망한 다음, 배잡이줄을 잡고 대기하였다가 다음날 오전 4~5시경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양망한다. 투망에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1시간, 양망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내외이다. 유자망 어장은 경북 영일만내 수심 20~40미터, 바닥의 지질은 모래 또는 사니질인 곳이며 방어가 어획물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한다.

기타 방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된다. 주로 횟감으로 즐겨 이용되므로 어획 즉시 포를 떠서 먹기도 하고, 구이용으로 냉동시켜 놓았다가 천천히 해동해서 요리하여 먹는다. 횟감, 구이, 튀김, 산적 등으로 미식가의 입맛을 당기는데 4킬로그램 이상 되는 대형 개체는 뱃살이 최고급 횟감으로 각광받는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구이요리가 발달했는데, 소금구이, 조리구이, 버터구이 같은 구이요리를 최고로 친다. 방어의 맛은 겨울이 제철이다. 그 이유는 겨울에 독특한 향을 지닌 지방성분이 많을 뿐 아니라 히스티딘과 같은 엑기스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란 후에는 지방성분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여름에는 별로 인기가 없다.

방어는 단백질, 지질, 미네랄, 비타민이 매우 풍부한 영양만점의 식품이다. 기능성 물질인 DHA 및 EPA, 타우린 함량이 특히 많다. 따라서 혈액중의 중성지질과 LDL-콜레스테롤 함량을 저하시키고 HDL-콜레스테롤 함량을 증가시키므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혈전, 뇌졸중과 같은 순환기 계통의









〈방어잡이〉
1 방어외줄낚기
2 잡힌 방어들
3 방어 윗판
4 외줄낚시에 걸린 방어 양망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국립민속박물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방어나 삼치는 크면 클수록 영양이 많고 맛이 좋은 어종이다. 초밥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치에 필적하는 맛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어를 히라스라고도 부르는데 일본에서 부르는 사투리이다.

참고문헌 | 韓國魚圖譜(鄭文基, 一志社, 1977), 생태와 어장(국립수산과학원, 예문사, 2000), 생선회 100배 즐기기(조영제, 한글, 2001),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韓國沿近海 有用魚類圖鑑(國立水產科學院, 2004), Fish guidebook(Kagawa, A., Women' s Food Univ. Press, 1989), Marine Fishes of Japan(Okamura, O. and K. Amaoka, Yama-kei Pub. Co., 2004).
필자 | 김진구(金眞久)

땔감장만

정의 취사(炊事)와 난방(煖房)을 위해 일년 내내 사용할 땔감을 장만하는 일. 주로 남자들이 하며, 땔감 자체가 주로 나무이기에 나무한다라고 표현한다.

내용 화덕과 온돌(溫突)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고유의 취사와 난방 구조에서는 많은 땔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풍속에 '정월보름날 나무 아홉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부지런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점과 땔감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하겠다.

땔감장만은 농한기에 하였다. 만드리가 끝난 후 추석 때까지 잠깐의 농한기 때 하는데, 일년의 농사일이 거의 마무리되는 음력 9월말~10월초 이후에 하기도 한다. 이때는 겨우살이와 아울러 내년 농사일에 대비하는 시기로 대표적인 것이 땔감장만과 김장이었다. 농번기가 시작되면 땔감을 장만할 여유가 나지 않으므로 이듬해 이맘때까지 일년 동안 사용할 땔감을 장만하는 일은 남자들의 가장 큰 일이었다.

땔감의 종류로는 통나무를 쪼갠 장작, 솔가지나 잡목의 가지를 자른 가지나무, 풀이나 작은 관목들을 두루치기로 벤 풀나무, 소나무 등의 낙엽이나 검불 따위를 갈퀴로 긁어모은 갈퀴나무 등이 있다. 장작과 가지나무는 자기 산이 있는 집에서 산판을 벌여 확보하는데 이를 나무내린다고 한다.

산이 없는 집에서는 남의 산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장만하기도 하였지만, 집단을 이루어 풀나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무꾼들은 지게를 지고 일정한 장소(둑, 시냇가, 큰 나무 등)에 모여 산으로 가서 각자 흩어져 나무를 한 후, "우--" 하고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모은 다음 나무를 지고 내려갔다. 경기도 연천에서는 부잣집의 산을 통째로 깎아 풀나무를 베어 내려오는 나무두레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나무꾼들은 나무하러 가기 전에 마을의 공터에서 나무해내기 또는 산에서 나무짐을 걸고 짱치기를 하기도 하고, 나무따먹기 놀이인 갈퀴치기(갈퀴던지기) 등의 놀이를 한다. 또 나무하러 일렬로 걸어가면서 지게의 목발을 작대기로 치면서 부르는 지게목발소리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경기도 연천에서는 풋나무깍기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경기민속지III(경기도박물관, 2000), 한국의 농경문화1(국립민속박물관, 2000), 한국 민속의 세계2(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주인택(朱仁鐸)





1~2 땔감장만
강원도 태백 방상운





陽曆歲時

양력세시

광복절은 일천구백사십오년 팔월 십오일
한민족이 삼십육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광복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고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광복절은 민족의
분단된 상태를 의식하여
끊임없이 남북간에
민족 통일을 향한 회담이나 선언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다.

광복절(光復節)

정의 1945년 8월 15일, 한민족이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광복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 광복절은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광복 또는 독립을 기념하는 법정공휴일이다.

배경 국경일은 근대 국민국가의 보편적인 제도의 하나이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일제강점기의 경축일을 폐지하고 새롭게 축제일과 공휴일을 제정했다.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해방 3주년에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국경일을 제정했는데, 이때 8·15가 독립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1949년 10월 1일 법률 53호로 공포된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해 광복절로 명칭이 수정되었다. 이후 지금까지 매년 8월 15일은 광복절로서 기념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경일과 함께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1973년에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내용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1941년에는 미국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한국은 이를 통해 광복을 되찾았고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8·15의 의미는 해방, 독립, 광복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1946년 8월 15일은 해방 1주년으로 비록 좌익과 우익으로 갈려 기념식이 치러졌으나, 전민족적 기념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은 정부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이날의 역사적 의의를 드높였다. 1949년 이후 8·15는 광복과 정부 수립의 중첩적 의미를 지닌 날이 되었다.

광복의 개념은 국권 상실 직후에 결성된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나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와 협의를 거쳐 성립한 서간도의 광복군사령부(光復軍司令部), 철혈광복단(鐵血光復團), 1936년의 조국광복회, 1940년 임시정부가 재조직한 광복군 등을 통해 지속되었다. 해방 이전 광복이라는 개념과 가장 친숙한 존재는 임시정부 산하에 설치된 한국광복군과 이들이 발간한 『광복』이라는 기관지였다. 광복군은 1940년에 창설되었고, 『광복』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가 1941년에 창간한 광복군의 기관지였다.

광복절 기념 행사는 1970년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었으나, 1974년 기념식장에서 영부인 암살 사건이 발생하여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념식장소는 중앙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독립기념관 등으로 바뀌었다.

광복절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는 시간적 의례 장치라면, 이에 상응하는 공간적 기억 장치는 독립기념관으로 1987년 8월 15일 개관하였다. 이와는 달리 일제 지배를 상징하는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1995년 8월 15일 철거되었다.

한편 광복절은 민족의 분단된 상태를 의식하여 끊임없이 남북간에 민족 통일을 향한 회담이나 선언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다. 북한은 8·15를 조국해방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해왔는데, 최근에 광복이라는 용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15는 동아시아 현대사의 기점이다. 일본인에게 이날은 패전일 또는 종전일이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나 침략에 시달린 여러 민족들에게는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준 경축일이다. 동아시아는 제국, 식민지 체제에서 새로운 독립국가의 형성과 함께 냉전 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의의 광복절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고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광복절 기념행사 경기도청


기쁨에 찬 이날의 長安
光復의 祝典, 全國到處에 展開
三軍分列行進
地軸을 흔드는 듯
새 正·副統領, 感激의 빛滿面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일본제국주의 지배와 침략전쟁의 유산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광복 60주년이 지나도록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은 광복절을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점차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념일로서 의미가 커지고 있다.

참고문헌 | 독립기념관건립사(독립기념관건립사편찬위원회, 1988), 국경일 · 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한 · 중 · 일 3국의 8 · 15기억(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편, 역사비평사, 2005).
필자 | 정근식(鄭根埴)

그린데이(Green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껌데이(Gum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달데이(Doll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통영한산대첩축제(統營閑山大捷祝祭)

기쁨에 찬 이날의 長安
조선일보 1956년 8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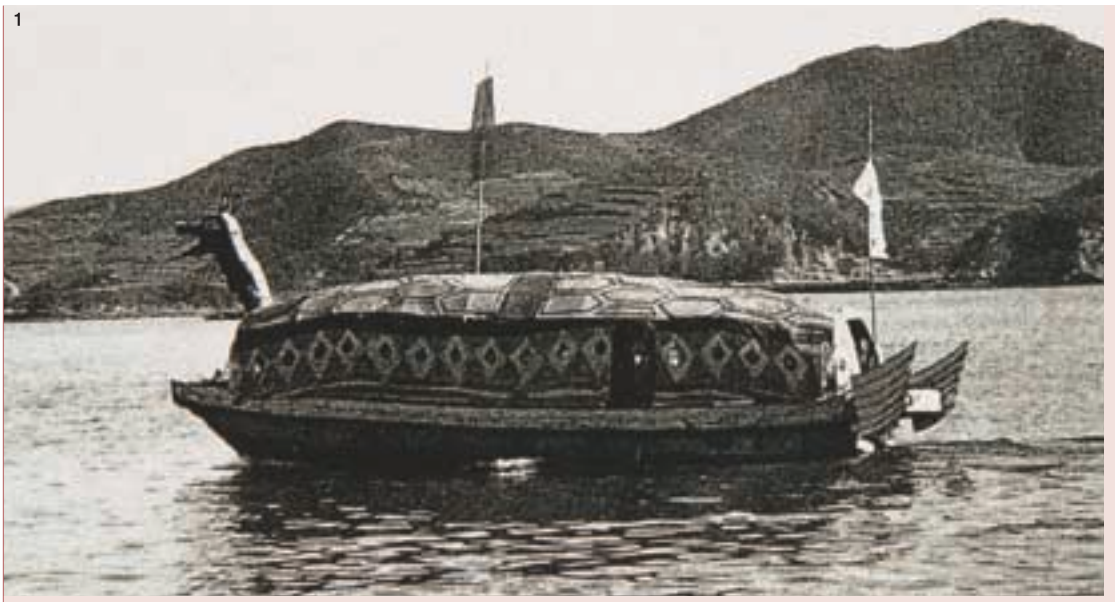
정의 선조 25년(1592) 충무공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의 수군장 와키사카를 격파하고 승리한 전투를 기념하고, 충무공의 정신을 받들기 위하여 만들어진 축제. 경상남도 통영 세병관(洗兵館), 충렬사(忠烈祠), 한산제승당(閑山制勝堂), 남망산(南望山)에서 매년 8월 중에 개최된다.

내용 한산도는 경남 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섬으로 추봉도(秋峰島) 북서쪽 0.5킬로미터 지점에 있으며, 통영시에서 남동쪽으로 약 2.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곳은 이순신의 최대 전승지인 한산도대첩(閑山島大捷)을 이룬 곳으로 현재 제승당유허비(制勝堂遺墟碑)를 비롯한 여러 유적들이 남아 있어 사적 제113호로 지정된 곳이다.

한산면 두억리에 있는 제승당(制勝堂)은 이순신이 직접 거처했던 곳이며 '노량해전도', '사천해전도', '한산대첩도'가 그려져 있다. 이순신의 영정을 모신 충무사와 충무문, 행적비, 한산정, 수루(한산도 이충무공유적)가 있고, 산봉우리에는 한산대첩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며, 그 앞에는 거북선을 본뜬 거북등대가 있다. 이곳에서 이순신의 정신을 받들어 해마다 8월에 한산대첩축제가 개최된다.

한산도대첩은 진주성대첩(1592년 10월 5~10일), 행주대첩(1593년 2월 12일)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로 불린다. 또한 한산도대첩은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480년의 살라미스해전, 1588년 영국이 세계해양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칼레해전과 1805년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를 괴멸시킨 트라팔카 해전과 함께 세계 4대 해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첩은 왜수군의 주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그동안 불리했던 임진왜란의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의미를 가진다.

일본 수군은 임진란의 우위를 잡고자 수군을 총결집하여 견내량에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순신은 선공을 하여 이들을 유인하여 전투를 하기로 한다. 이순신의 판단으로는 견내량의 해역이 좁고 암초가 많아서 조선수군 판옥선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이들을 한산섬 앞바다로 유인하여 격멸하기로 한다. 먼저 판옥선


1


2


3


4


5


6


7

〈통영한산대첩축제〉
1 거북선 모형
2 이순신장군 영정
3 한산해전 재현
4 남해안 별신굿 공연
5 남해안 별신굿 공연
6 창작무용 공연
7 총통발사 재현
경남 통영 김상수

5~6척으로 하여금 왜수군을 공격한 후 그들이 반격해올 때 한산섬으로 물러나면서 유인한다. 이때 이순신은 모든 전선으로 하여금 유명한 학익진(鶴翼陣)을 형성하여 공격한다. 학익진은 후퇴를 하다가 갑자기 기수를 돌려 학의 날개처럼 양쪽으로 포진하여 적을 둘러싸서 공격하는 형태다. 이 근처의 조류와 지형에 밝은 이순신은 당시의 자연적 조건과 그에 알맞은 학익진법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 작전으로 왜선 47척을 분파하고 12척을 나포하였다. 왜수군장 와키사카는 패잔선 14척을 이끌고 김해 쪽으로 도주한다. 조선 수군의 사상자는 미미했고 전선의 손실은 전혀 없었다.

한산대첩축제는 매년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다. 장소는 강구안 문화마당, 세병관, 충렬사, 시민문화회관, 도남동, 항남동화물선 부두 등 통영 일원이다. 이 축제는 재단법인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통영시청 문화체육과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행사는 명조팔품봉안(明朝八品奉安)과 성화대의 점화, 예포 발사로 시작된다. 행사의 내용은 군점(軍點), 문화부문 행사, 특수 행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군점은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 산하 장졸과 전함의 고대관병(古代觀兵) 관함식(觀艦式)과 통제사가 행차하는 의식이다. 문화 부문의 행사로는 백일장, 미술 실기대회, 대첩기념 촬영대회, 이충무공 유적사진전 등이 있다.

이 밖에 특수 행사로 가장행렬과 어촌계(契) 대항 해상 경기대회(돛달고 달리기, 노젓고 달리기)가 있고, 임진왜란 때 군신호(軍信號)와 축하에 쓴 풍등(風燈)띄우기, 유등(流燈)행사 등이 있다.

세부 행사는 예년의 경우, 이충무공정신 계승대회, 고유제봉행, 전야제 봉축식 및 한려수도 바다축제 개막공연, 축하불꽃놀이 등 한산대첩기념행사를 비롯해서 이충무공한산대첩기 전국 남녀궁도대회, 해양 레저스포츠체험, 유람선퍼레이드 등의 한려수도 바다축제와 무용 경연대회, 백일장대회, 한시대회 등의 각종 경연대회 및 전시가 행해졌다. 또 승전무 공연과 통영오광대 공연, 남해안별신굿 등의 민속관련 행사와 해군함정 공개 및 바다사진 전시회, 한산대첩 승전의 밤 해군 군악연주회 등의 해군 관련 행사도 병행되었다. 또 시민청소년축제마당으로 시민대동제, 길거리농구대회 등의 행사들이 이루어졌다.

의의 세계사적인 사건이 벌어진 이곳과 그 주역을 기리어 그 정신을 이어받고, 남해의 수려한 경치를 즐기며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과 현대문화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한산대첩축제는 그 규모만큼 역사도 깊어 앞으로 더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조직의 거대화로 인해 발생되는 경직화와 획일화 또는 관(官)의 무리한 개입 등이다. 축제와 민(民)의 거리는 가능한 좁혀야한다. 여기에 관이 개입하면 자연히 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축제는 주민과 방문객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일상의 일탈, 일상의 탈출 기능이 확보되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朝鮮水軍 統制營 연구-慶尙水營을 中心으로(朴春子, 忠南大學校 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2), 통영시의 문화관광 육성 방안(민말순, 문화도시문화복지49,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統營市誌上,下(統營市史編纂委員會, 1999), 한산대첩 기념제전(김흥우, 한국희곡 통권9, 한국희곡작가협회, 2002).

필자 | 이정재(李丁宰)



한산해전 재현
경남 통영 김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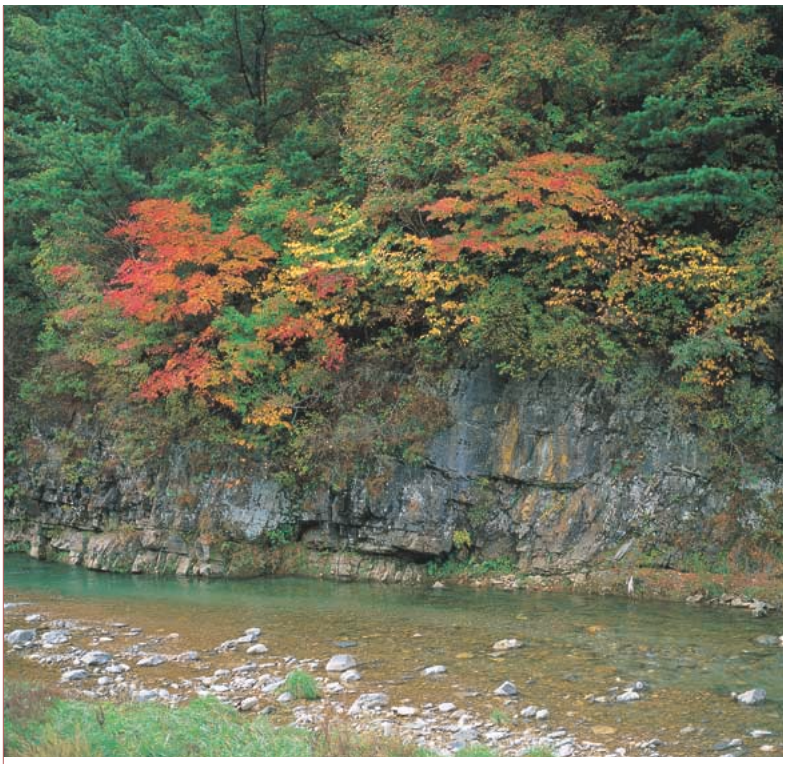




九月

구월

구월에는 단풍든 산을 찾거나
계곡을 찾아가서
시식(時食)을 배불리 먹고
술을 마시며 단풍놀을 즐겼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
지게를 가지고 놀기도 하며
갈퀴로 갈퀴치기를 하기도 한다.
추수가 끝난 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남사당패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줄타기와 꼭두각시놀음을 하였다.



가을 풍경 김진열

9월(九月)

이칭 음력 9월은 한 해의 아홉째 달로, 가을의 마지막 달이다. 9월의 이칭으로는 현월(玄月), 국월(菊月), 영월(詠月), 박월(剝月), 술월(戌月), 계추(季秋), 모추(暮秋), 잔추(殘秋), 만추(晩秋), 고추(高秋), 상신(霜辰), 수의(授衣), 무역(無射), 상후(霜候)가 있다. 9월에는 찬이슬과 서리가 내리며, 제비는 강남으로 돌아가고 기러기가 돌아온다. 9월은 산과 들에 국화꽃이 피며 단풍이 들어 가을이 무르익는 때이다.

절기 9월의 절기로는 한로(寒露)와 상강(霜降)이 있고, 대표적인 명절로는 중양절(重陽節)이 있다. 한로는 추분(秋分)과 상강 사이에 들며, 태양의 황경(黃經)이 195도인 날로 양력 10월 8일 무렵이다. 한로는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로 변하려고 하는 때로,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시작하고 단풍이 짙어지는 때이다. 『고려사(高麗史)』 권50 「지(志)」4 역(曆) 선명력(宣明曆) 상(上)2에 이 시기의 세 가지 징후를 들어 "기러기가 와서 머물고, 참새가 줄고 조개가 나돌며, 국화가 노랗게 핀다."라고 하였다.

상강은 한로와 입동(立冬) 사이에 들며, 태양의 황경이 210도인 날로 양력 10월 23일 무렵이다. 이때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며 밤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고, 겨울잠에 들어갈 동물들은 서서히 겨울잠을 준비한다. 『고려사』 권50 「지」4 역 선명력2에 이 시기의 세 가지 징후로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고, 초목이 누렇게 되며, 동면(冬眠)하는 벌레가 모두 땅에 숨는다."라고 하였다.

중양절 중양절은 음력 9월 9일을 이르는 말로 중구(重九)라고도 한다. 9는 양수(陽數)이기 때문에 양수가 겹쳤다는 뜻으로 중양(重陽)이라 한다. 9는 신성하게 여기는 3의 3배수로, 양수 중 가장 큰 수로 여겨 매우 신성시하였다. 이런 9가 두 번 겹친 9월 9일을 신성하게 여겨 명절로 지냈으며, 각 가정에서는 추석에 지내지 못한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국화전과 국화주를 마시며 놀기도 했다. 특히 이날은 조상 중에 객사하여 제삿날을 모르는 사람이나 후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중양절에 높은 산에 올라가 머리에 수유(茱萸)를 꽂고 국화주를 마시면 잡귀를 쫓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수유 열매가 붉은 색으로 벽사(辟邪)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대부들은 이날 산에 올라가는 등고(登高)의 풍속이 있었다. 9월 9일은 국화를 구경하며 즐겼다 하여 상국일(賞菊日)이라고도 한다.

의례 조선시대에는 중양절을 삼짇날과 함께 명절로 공인하여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70세 이상의 문신들을 위해 노인잔치[耆老宴]를 크게 베풀었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날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며 시제(時祭)를 지내기도 한다.

서울의 용산에서는 추석이 지난 다음 햇곡식이 날 때 고사를 지냈다. 햅쌀로 시루떡을 쪄서 성주, 조왕, 조상 등 가신에게 바쳤다. 영남 북부지방에서는 추석에 벼를 수확하여 차례를 지내지 못하면 이날 햇곡식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중구차례를 지냈다. 민속 마을로 정해진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에서는 요즈음도 중구차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9월 9일을 무당의 조상인 '명도'의 생일이라고 해서 심방들이 마당에 기를 세우고 큰굿을 한다. 이때 각 심방에 속해 있는 동네 단골들은 모두 시주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탈이

있을 때 심방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집안에 뒷할망 또는 밧칠성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는 햇곡을 수확하여 기왓장 안의 오곡 종자도 갈아주고 비가 새지 않도록 띠를 새로 엮어 덮어주는 철갈이를 한다. 철갈이는 마을사람들이 당신에게 햇곡을 바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출가한 자녀가 부모에게 새 곡식으로 새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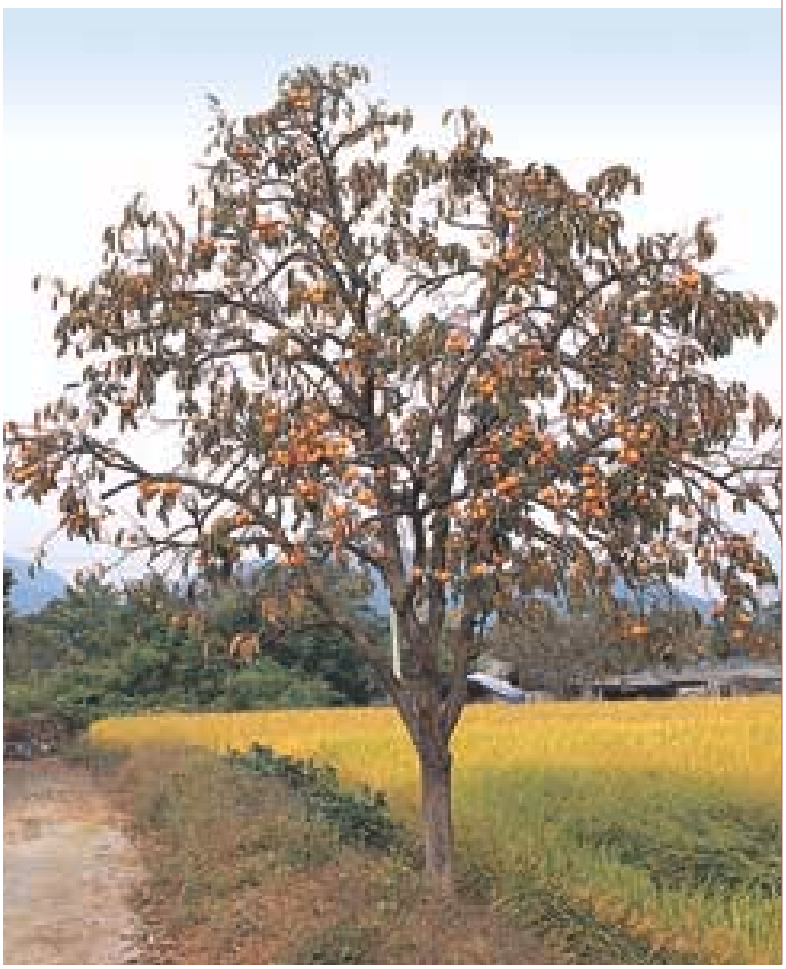
경남 지역 세시풍속에는 구월제(九月祭)라 하여 마을마다 부녀자들이 제수거리를 모으고, 9월 9일에 서낭당에 가서 마을의 평안을 빌기도 한다. 황해도에서는 9월 9일을 산신님의 탄신일이라 하여 당제(堂祭)를 지내는데, 집집마다 돈을 걷어 소를 잡는다. 제사 과정은 정월대보름의 당제와 같다. 특히 이날은 부정을 막고 정성을 드리기 위하여 일체의 살생(殺生)을 금하고, 어육(魚肉)을 먹지 않는다. 당제에서는 산신과 마을의 부군신(府君神)에게 제사를 지낸다. 당제를 지내고 나서 고기를 나누어 집집마다 돌린다.

생업 음력 9월 상강 무렵이 되면 성장기의 농사일은 마무리되고, 수확기에 접어들어 수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벼를 베어 타작하고, 콩, 고구마, 서속(黍粟), 메밀, 생강, 토란을 거둬들이고, 수확을 앞둔 김장용 무와 배추가 잘 자라도록 관리한다. 거둬들인 작물은 뒤주나 광에 잘 갈무리하여 이듬해 식량으로 이용한다. 서남해안에서는 이때 전어가 많이 잡히는데, 전어로 전어밤젓을 담기도 한다. 전어뿐 아니라 삼치와 민어, 볼락도 많이 잡힌다.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구월령(九月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들에는 조, 피 더미 집 근처 콩밭 가리 벼 타작 마친 후에 틈나거든 두드리세. 비단차조(조의 한 가지) 이부꾸리(동부의 한 가지) 매눈이콩(콩의 한 가지) 황부대(콩의 한 가지)를 이삭으로 먼저 갈라 후씨(뒤에 쓸 씨)로 따로 두소. 젊은이는 태질(볏단을 세게 메어침)이요 계집 사람 낫질이라. 아이는 소 몰리고 늙은이는 섬 우그리기 이웃집 울력하여 제 일 하듯 하는 것이 뒷목추기(타작할 때 벼를 털고 마당에 처진 곡식을 추어내는 일) 짚 널기와 마당 끝에 키질하기 일변으로 면화(棉花) 틀기 씨아 소리 요란하다. 틀 차려 기름 짜기 이웃끼리 합력하세." 이것은 9월에 해야 할 농사일과 농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절식 각 가정에서는 국화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둥근 떡을 만들고, 그것을 기름에 지져 먹는다. 이것을 국화전(菊花煎)이라 한다. 술에 국화를 넣어서 국화주를 빚어 마시기도 한다. 또 가을철에 많이 나는 배와 유자, 석류, 잣 같은 것을 잘게 썰어 꿀물에 탄 화채(花菜)를 만들어 마신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9월조에 "빛이 누런 국화를 따다가 찹쌀떡을 만든다. 방법은 3월 삼짇날의 진달래떡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 …… 배와 유자와 석류와 잣을 잘게 썰어 꿀물에 탄 화채를 마신다. 이것은 시절 음식으로 제사에 쓴다."라고 하였다.

놀이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중양절을 명절로 정하고 잔치를 베풀어 임금과 신하가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였다. 고려 때에는 9월 1일을 수의(授衣)라 하여 왕은 관리들을 하루 동안 쉬도록 하였다. 9월 9일에 왕은 경령전(景靈殿)을 배알하고,



감나무 심디스마





1 **코스모스** 김진열

2 **지게놀이**
경기도 포천시 공설운동장
국립민속박물관

신하들에게 중양잔치를 베풀어 중구시를 짓게 하였고, 관리들에게 휴가를 주었다. 9월 9일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 단풍과 국화를 즐기는 등고(登高)를 하였는데, 이때 국화꽃으로 술을 만들어 마시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여러 문집에는 나이 들어 등고에 참여하지 못한 신세나, 비가 와서 등고를 하지 못한 안타까움 그리고 노란 국화꽃잎을 띄워놓고 술을 마시던 취흥 등을 적은 시가 전한다.

조선시대에도 9월에는 단풍든 산을 찾거나 계곡을 찾아가서 시식(時食)을 배불리 먹고, 술을 마시며 단풍을 즐겼다. 문인들은 시를 짓고, 풍월을 읊어 취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동국세시기』 9월조에 "서울 풍속에 남산과 북악산에서 이날 마시고 먹으며 즐긴다. 이는 등고의 옛 풍속을 따른 것이다. 청풍계(淸風溪, 청운초등학교 뒤), 후조당(後凋堂), 남한산(南漢山), 북한산(北漢山), 도봉산(道峯山), 수락산(水落山)이 단풍 구경하는 데 좋다."라고 하였다. 요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을 가고, 각급 학교에서 가을 소풍을 가는데, 이것은 오랜 전승에서 유래한 것이다.

민간에서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 지게를 가지고 놀기도 하며, 갈퀴로 갈퀴치기를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추수가 끝난 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남사당패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줄타기, 꼭두각시놀음 같은 여러 가지 놀이를 하였다.

속신 및 금기 민간에서는 중양일을 여름에 있던 모기가 없어지고, 3월 삼짇날 강남에서 왔던 제비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고, 뱀과 개구리가 동면(冬眠)하러 땅속으로 들어가는 날로 믿고 있다.

9월에는 뱀이 동면을 준비하여 허물을 벗는다. 경남에서는 이때 뱀의 허물 중 머리 부분을 주워 쌀독 아래에 넣어두면 반드시 그 집은 부귀해진다는 말이 전해온다. 그러나 뱀은 허물을 벗은 뒤에 머리 부분은 자신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머리 부분을 구하기가 어렵다.

충남에서는 9월에 메주를 쑤지 않는 금기가 있다. 또 9월에 쑨 메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9월은 날씨가 푹하여 메주를 쑤어도 맛이 없기 때문에 주로 10월에 쑨다.

날씨점 9월은 점복 행위가 비교적 적은 달이지만, 날씨를 통해 이듬해 날씨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1일에 서리가 내리면 이듬해 여름에 수해가 있거나 백성이 손해를 본다고 여기며, 9월 초순에 비바람이 치면 이듬해 여름에 홍수가 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9월에 천둥이 치면 쌀이 귀하다고 여기는데, 이는 흉년이 든다는 뜻이다. 중구(重九)에 비가 오면 이듬해 농사가 잘 된다고 여긴다.

경남 창원에는 "9월 초하룻날 날씨가 따뜻하면 감태쟁이(방한모 장수) 울고 간다."라는 말이 전해온다. 전북 익산에는 "9월 초하룻날 날씨가 좋으면 겨우내 등짐장수가 옷을 벗고 살고, 추우면 등짐장수가 옷을 챙겨 입는다."라는 말이 전해온다. 이것은 이날 따뜻하면 그해 겨울이 따뜻하다고 여겨서 하는 말이다.

참고문헌 | 高麗史,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註解 歌辭文學全集(김성배 외, 集文堂, 1977),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研究(張正龍, 集文堂, 1988), 서울六百年史-民俗 篇-(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1990),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 編(서울特別市, 1993), 北韓民俗 綜合調査 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97),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전라북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민속학개론(최운식 외, 민속원, 2004).
필자 | 최운식(崔雲植)

계상(季商)

정의 가을의 마지막 달이라는 의미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어정패문재광군방보(御定佩文齋廣群芳譜)』「천시보(天時譜)」 9월조(九月條)에 양원제(梁元帝)의 『찬요(纂要)』를 재인용하여 "9월을 모추라고도 하고 말추, 모상, 계상, 초추(杪秋), 상신(霜辰)이라고도 한다(九月曰暮秋末秋暮商季商杪秋)."라고 하였다.

내용 계(季)는 끝이라는 뜻으로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을 가리키며, 상(商)은 오음(五音; 宮商角徵羽) 중의 하나로 사계절 중 가을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상(暮商)은 가을 석 달(7월, 8월, 9월) 중 마지막 달인 음력 9월에 해당한다. 『예기(禮記)』「월령편(月令篇)」에 "9월은 그 음(音)이 상성(商聲)이며, 율관(律管)은 무역(無射)에 해당한다(季秋之月 其音商 律中無射)."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御定佩文齋廣群芳譜, 禮記.
필자 | 김정석(金正錫)

계추(季秋)

정의 가을의 마지막 달이라는 의미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계(季)는 계절의 마지막을 가리키므로 계추(季秋)는 가을의 석 달(7월, 8월, 9월) 가운데 9월에 해당한다. 현월(玄月), 국월(菊月), 영월(詠月), 박월(剝月), 모추(暮秋), 잔추(殘秋), 만추(晩秋), 고추(高秋), 상신(霜辰), 무역(無射), 수의(授衣), 술월(戌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예기(禮記)』「월령편(月令篇)」에 "계추의 달에 해는 방수(房宿)에 있고, 저녁에는 허수(虛宿)가 남중하고 새벽에는 유수(柳宿)가 남중한다.……기러기가 오고, 참새가 바다로 들어가 조개로 변한다. 국화가 노랗게 피고, 승냥이는 짐승을 잡아 제사지내고 새를 잡아먹는다(季秋之月 日在房 昏虛中 旦柳中……鴻雁來賓 雀入大水爲蛤 菊有黃華 豺乃祭獸戮禽)."라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시칙훈(時則訓)」과 『여씨춘추(呂氏春秋)』「계추기(季秋紀)」에도 「월령」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참고문헌 | 呂氏春秋, 禮記, 淮南子.
필자 | 신하령(申河令)

국월(菊月)

정의 국화꽃이 피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국추(菊秋), 국령(菊令)이라고도 한다.

내용 음력 9월이 되면 서리가 내려 대부분의 초목들은 시들어 떨어지지만, 국화는 서리를 맞으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데에서 연유한 말이다. 『세시광기(歲時廣記)』에 "『제요록(提要錄)』에서 말하기를 구월(九月)을 국월(菊月)이라고 한다(提要錄曰九月爲菊月)."라는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歲時廣記.
필자 | 김한기(金漢基)



국화 심디스마



국화
충남 공주시 반포면 산학리 김영광

국추(菊秋)

정의 국화꽃이 피는 가을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국령(菊令), 국월(菊月)이라고도 한다.

내용 국월과 마찬가지로 음력 9월이 되면 서리가 내려 대부분의 초목들은 시들어 떨어지지만, 국화는 서리를 맞으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데에서 연유한 말이다. 국화는 그 둥근 모양과 밝은 색이 태양을 상징하고, 양(陽)의 숫자 중 가장 큰 수인 9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9월 9일인 중양절(重陽節)에 국화주를 마시면 무병장수(無病長壽)한다고 한다.

중국 전국(戰國) 시대 진(秦)나라 여불위(呂不韋)의 『여씨춘추(呂氏春秋)』「계추기편(季秋紀篇)」에 "9월은 12율(律)로는 무역(無射)에 속하고 숫자로는 9에 해당하며, 기러기가 날아오고 참새가 줄고 조개가 나돌며 국화가 노랗게 핀다(季秋之月 律中無射 其數九 候鴈來 賓爵入大水爲蛤 菊有黃華)."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呂氏春秋.
필자 | 김한기(金漢基)

궁추(窮秋)

정의 궁(窮)은 다했다는 뜻으로 궁추(窮秋)는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만추(晩秋), 노추(老秋)라고도 한다.

내용 궁추는 가을의 마지막 달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을의 석 달(7월, 8월, 9월) 중 마지막 달인 음력 9월에 해당한다. 중국 육조(六朝)시대 송(宋)나라의 시인 유견오(庾肩吾)의 '시연선유당상동왕응령(侍宴宣猷堂湘東王應令)' 시에 "계수나무 바위는 저물어가는 시절을 만나고 국화 핀 가을물은 궁추를 만났네(桂巖逢暮序 菊水値窮秋)."라고 하였고, 포조(鮑照)의 '대백저곡(代白紵曲)'에 "9월 궁추가 되니 연잎이 노랗게 변하고, 북풍이 기러기를 몰고 가니 하늘에는 서리가 내리네(窮秋九月荷葉黃 北風驅鴈天雨霜)."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古詩紀, 鮑明遠集.
필자 | 김정석(金正錫)

노추(老秋)

정의 노(老)는 노쇠하여 한 과정이 거의 끝나간다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만추(晩秋)라고도 한다.

내용 노추는 가을 석 달(7월, 8월, 9월) 중 마지막 달인 음력 9월에 해당한다. 중국 송나라 이지의(李之儀)의 『고계거사전집(姑溪居士前集)』 권22 「여공평국(與龔平國)」 글에 "노추의 때가 되었는데 기거하심에 만복을 누리시는지요(老秋日來 起居萬福)"라고 한 구절이 있고, 송나라 주부(周孚)의 『두재연도편(蠹齋鉛刀編)』 권5 '모추증단보(莫秋贈端甫)' 시에 "노추의 남은 날은 며칠인가 떨기 이룬 국화는 차가운 나비를 안고 있네(老秋餘幾日 叢菊抱寒蝶)."라고 한 구절이 있다. 송(宋)나라 양만리(楊萬里)의 『성재집(誠齋集)』 권17 '곡강중양(曲江重陽)' 시에 "연기가 그리고 물이 베낀 노추의 모습, 고개 너머 가을 모습은 저절로 짙네(烟描水寫老秋容 嶺外秋容也自濃)."라고 한 구절이 있고, 송(宋)나라 진순(陳淳)의 『북계대전집(北溪大全集)』 권2 '3월 11일야기후(三月十一夜紀候)' 시에 "백주대낮에는 담담하기가 한 여름 같더니 한밤중에는 처량하기가 노추와 같네(白晝炎炎若盛夏 半夜凄凄如老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姑溪居士前集, 蠹齋鉛刀編, 北溪大全集, 誠齋集.
필자 | 김정석(金正錫)

만추(晩秋)

정의 만(晩)은 그 계절의 마지막 달을 뜻하는 말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계추(季秋), 모추(暮秋)라고도 한다.

내용 만추(晩秋)는 가을 석 달(7월, 8월, 9월) 중 가을의 마지막 달인 9월을 가리킨다. 『남사(南史)』 권50 「유지린전(劉之遴傳)」에 "만추(晩秋)에는 해가 짧아지고 일이 한가하다(晩秋晷促 機事罕暇)."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南史.
필자 | 김한기(金漢基)

모상(暮商)

정의 저물어가는 가을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계상(季商)이라고도 한다.

내용 모(暮)는 저문다는 뜻으로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을 가리키며, 상(商)은 궁상각치우(宮商角徵羽) 오음(五音) 중의 하나로 사계절 중 가을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상(暮商)은 가을을 의미하는 석 달(7월, 8월, 9월) 중 마지막 달인 음력 9월에 해당한다. 중국 당(唐)나라 서견(徐堅)의 『초학기(初學記)』 권3 「세시부(歲時部)」에 "9월 계추(季秋)를 또한 모추(暮秋), 모상(暮商)이라고 한다(九月季秋 亦曰暮秋 暮商)."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禮記, 初學記.
필자 | 김정석(金正錫)

모추(暮秋)

정의 모(暮)는 저물어가는 것을 뜻하는 말로 가을이라는 계절이 저물어간다는 의미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계추(季秋), 만추(晩秋)라고도 한다.

내용 중국 당(唐)나라 때 시인(詩人) 두목(杜牧)의 '만박(晩泊)' 시에 "봉창에 내리는 비는 그리운 고향을 생각나게 하고 강가에 부는 바람은 저무는 가을[暮秋]을 막네(蓬雨延鄉夢 江風阻暮秋)."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樊川文集.
필자 | 김한기(金漢基)

무역(無射)

정의 동양 음악의 십이율(十二律) 중에서 열한 번째인 무역(無射)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십이율은 낮은 음에서부터 황종(黃鐘), 대려(大呂), 태주(太簇), 협종(夾鐘), 고선(姑洗), 중려(仲呂), 유빈(蕤賓), 임종(林鐘), 이칙(夷則), 남려(南呂), 무역(無射), 응종(應鐘)의 순으로 되어 있다. 중국 고대 역법에서는 십이율을 각각 일년 열두 달에 배속시켰는데, 첫 음인 황종(黃鐘)을 양(陽)의 기운이 처음 생기는 동짓달에 배속시켰기 때문에 열한 번째인 무역은 9월에 해당한다.

중국 후한(後漢) 시대의 반고(班固)가 편찬한 『백호통의(白虎通義)』 권상(卷上) 「덕론상(德論上)」 오행조(五行條)에 "9월을 무역(無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역(射)은 끝이라는 뜻으로 만물이 양(陽)의 기운을 따라 한 과정을 종료하지만 다시 음(陰)의 기운을 따라 일어나니 영원히 끝나는 일은 없다는 의미이다(九月謂之無射何 射者終也 言萬物隨陽而終也 當復隨陰起 無有終已)."라고 한 구절이 있다. 중국 전한(前漢) 시대 역사가인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권25 「율서(律書)」에 "9월은 십이율 중에서 무역에 해당한다. 무역이라는 것은 음의 기운이 왕성하여 일을 주관하므로 양의 기운은 여력이 없는 것이다(九月也 律中無射 無射者 陰氣盛用事 陽氣無餘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白虎通義, 史記.
필자 | 홍성훈(洪性薰)

박월(剝月)

정의 주역의 64괘(卦) 중 박괘(剝卦, ䷖)에 해당하는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박괘는 상괘(上卦)가 간괘(艮卦, ☶)이고, 하괘

(下卦)가 곤괘(坤卦, ☷)로 이루어진 괘이다. 동짓달부터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난다고 하여 양효(陽爻)가 아래에서 처음 생겨나는 복괘(復卦, ䷗)를 음력 11월에 배속시켰으므로, 박괘(剝卦, ䷖)는 음력 9월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周易.
필자 | 김한기(金漢基)

상냉(霜冷)

정의 찬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상강(霜降), 상후(霜候)라고도 한다. 음력 9월이 되면 밤 동안 기온이 떨어져 대기 중의 수증기가 엉겨서 이슬이 되었다가 점차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슬이 얼게 되고, 또 그 위에 부분적으로 수증기가 승화된 서리가 달라붙게 된다.
내용 『전당시(全唐詩)』 권25 「잡곡가사(雜曲歌辭)」에 실린 중국 당(唐)나라 호증(胡曾)의 '거요요(車遙遙)' 시에 "우거진 풀들이 시들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푸른 하늘 차가운 서리[霜冷] 내릴 때 의지할 곳 없네(芳草又衰還不至 碧天霜冷轉無慘)."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全唐詩.
필자 | 김한기(金漢基)

상신(霜辰)

정의 서리가 내리는 시기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상냉(霜冷), 상강(霜降)이라고도 한다.
내용 음력 9월이 되면 밤 동안 기온이 떨어져 대기 중의 수증기가 엉겨서 이슬이 되었다가 점차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슬이 얼게 되고, 또 그 위에 부분적으로 수증기가 승화된 서리가 달라붙게 된다. 『세시광기(歲時廣記)』 권3에 『찬요(纂要)』를 재인용하여 "9월을 모추, 말추, 모상, 계상, 초추, 상신이라고 한다(九月曰暮秋末秋暮商季商杪秋亦曰霜辰)."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歲時廣記.
필자 | 김한기(金漢基)

수의(授衣)

정의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필요한 겨우살이를 준비한다는 말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 9월이 되면 추운 겨울 동안 먹고 입고 지낼 옷가지나 양식을 준비하는데, 어느 지역 어느 가정에서나 필수적으로 땔감과 겨울옷을 준비하였다.
내용 『시경(詩經)』 「국풍(國風)」 빈풍(豳風) '7월(七月)' 시에 "7월에는 대화심성(大火心星)이 서쪽으로 내려가고, 9월에는 옷을 만들어 주네(七月流火 九月

1 서리 김진열

2 땔감준비
강원도 인제 방상운





授衣)."라고 한 구절이 있고, 그 주(註)에 "9월에는 서리가 내려 비로소 추워지고, 누에치고 길쌈하는 일이 또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식구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어 추위를 막게 하는 것이다(九月 霜降始寒 而蠶績之功亦成 故授人以衣 使禦寒也)."라고 하였다. 또 저승에 있는 혼령들에게 따뜻하게 입을 옷을 보낸다는 의미로 이 시기에 조상의 옷을 만들어 음력 10월 초하룻날 조상의 산소에 가서 태우는 '송한의(送寒衣)'라는 풍속이 있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김한기(金漢基)

술월(戌月)

정의 술(戌)은 십이지(十二支) 중 열한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지금의 음력은 중국 하(夏)나라에서 십이지의 세 번째인 인(寅)을 정월로 삼았던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술(戌)은 9월에 해당한다.
내용 중국 전한(前漢) 시대 역사가인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권25 「율서(律書)」에 "9월은 십이지 중에 술에 해당한다. 술이라는 것은 만물이 모두 시들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술이라고 한다(九月也 其於十二子爲戌 戌者 言萬物盡滅 故曰戌)."라고 한 구절이 있다. 중국 전한(前漢) 유안(劉安)의 『회남자(淮南子)』 「시칙훈(時則訓)」에 "9월은 초요성(招搖星)이 술(戌)의 방향을 가리킨다(季秋之月 招搖指戌)."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史記, 淮南子
필자 | 김정석(金正錫)

영월(詠月)

정의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을 읊조린다는 영월조풍(詠月嘲風)의 줄임말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음력 9월의 맑고 높은 가을 하늘에 떠 있는 달과 서늘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떨어지는 늦가을의 정취를 뜻하는 말이다. 중국 송(宋)나라 주숙진(朱淑眞)의 '자책(自責)' 시에 "여자가 글 짓는다고 탓한다 하여도 달을 노래하며 바람에 읊조리고 싶은 마음 견딜 수 없네(女子弄文誠可罪 那堪詠月更吟風)."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宋詩一百首.
필자 | 김한기(金漢基)

잔추(殘秋)

정의 잔(殘)은 그 계절의 마지막 달을 뜻하는 말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전당시(全唐詩)』 권329에 수록된 중국 당(唐)나라 권덕여(權德輿)의 '주행야박(舟行夜泊)' 시에 "쓸쓸히 떨어지는 낙엽은 늦가을[殘秋]을 전송하고 적막한 찬 물결은 고요히 흘러감을 생각하네(蕭蕭落葉送殘秋 寂寞寒波念暝流)."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全唐詩.
필자 | 김한기(金漢基)

중양(重陽)

정의 양수(陽數)인 9가 겹쳤다는 9월 9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중구(重九)라고도 한다.
내용 중양일에 시인묵객들은 술과 음식을 마련하고 국화를 술잔에 띄워 마시며 시를 읊거나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즐겼다. 중국 남조(南朝) 양(梁)나라의 소통(蕭統)이 엮은 『문선(文選)』 「위문제여종요서(魏文帝與鍾繇書)」에 "세월이 흘러 어느덧 9월 9일이 되었다. 9는 양수(陽數)로 해와 달이 나란히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중양(重陽)이라고 한다(歲往月來 忽九月九日 九爲陽數 而日月竝應 故曰重陽)."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文選.
필자 | 김한기(金漢基)

초추(杪秋)

정의 초(杪)는 나뭇가지의 끝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초라는 말은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을 가리킨다. 따라서 초추(杪秋)는 가을 석 달(7월,

8월, 9월) 가운데 가장 끝에 위치한 9월에 해당하며, 추심(秋深), 잔추(殘秋)라고도 한다. 또 이 시기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신(霜辰)이라 하고, 나뭇잎에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단풍이 들기 때문에 풍신(楓辰)이라고도 한다.

내용 『초사(楚辭)』「구변편(九辯篇)」에 "고요한 초추(**杪**秋)의 길고 긴 밤이여 마음속에 서러움이 쌓이고 슬픔에 겨워 탄식만 하네(**靚杪**秋之遙夜兮心**繚悷**而有哀)."라고 한 구절이 있고, 『삼조북맹회편(三朝北盟會編)』 권146「염흥하질(炎興下帙)」에 "바야흐로 길고 긴 밤 서글픔이 일어나니 홀연 초추(**杪**秋)의 절기가 이르렀네(方興長夜之哀 忽**屆杪**秋之序)."라고 한 구절이 있다. 그리고 『문선(文選)』 권25「증답하편(贈答下篇)」에 수록된 중국 진(晉)나라 시인인 사령운(謝靈運)의 '등림해교 초발강중작(登臨海嶠初發疆中作)' 시에 "초추(**杪**秋)에 먼 산을 찾아가니 산이 멀어 가도 가도 가까워지지 않네(**杪**秋尋遠山 山遠行不近)."라고 한 구절이 있다. 『열하지(熱河志)』 권33 '함수재(含粹齋)' 시에 "모든 풍류는 조용한 관조 속에 들어오고 앉아 있노라니 초추(**杪**秋)의 추위가 모두 잊혀지네(盡得風流入靜觀 坐來渾忘**杪**秋寒)."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文選, 謝靈運集, 三朝北盟會編, 熱河志, 楚辭.
필자 | 이창희(李昌熙)

추계(秋季)

정의 계(季)는 여럿 가운데 가장 끝이라는 뜻으로 가을의 끝이라는 의미에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계는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을 가리킨다. 따라서 추계(秋季)는 가을 석 달(7월, 8월, 9월)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9월에 해당하며, 계추(季秋), 만추(晩秋)라고도 한다. 또 이 시기는 나뭇잎에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단풍이 들기 때문에 풍신(楓辰)이라고도 하고, 다가올 겨울 추위를 대비하여 겨울옷을 준비하여 식구들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수의(授衣)라고도 한다.

내용 『육가시명물소(六家詩名物疏)』 권23「위풍(魏風)」 상조(霜條)에 "서리는 죽이고 베는 것의 징표이다. 추계(秋季)에는 서리가 비로소 내리고 사나운 매가 날개를 힘차게 친다(霜 殺伐之表 秋季 霜始降 鷹**隼**擊)."라고 하였고, 『예기집설(禮記集說)』 권37에 "(대지와 별자리의 움직임은)입추가 지나면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추분이 되면 동쪽 끝까지 움직여 오르고 내려감이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된 것이며, 추계(秋季)가 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立秋之後東遊 秋分東遊之極地 則升降正中 至秋季復正)."라고 하였다. 또 『변정제례통속보(辨定祭禮通俗譜)』 권2에 "지금 시제(時祭) 지내는 시기가 두 계절의 가운데 달에 있으니 묘제(墓祭)는 마땅히 두 계절의 마지막 달에 지내야 한다. 춘계(春季)에는 청명일에 지내니 추계(秋季)에는 당연히 상강일에 지내야 한다(今時祭在二仲則墓祭當在二季況春季在淸明日則秋季當在霜降日)."라고 하였고, 『춘추집전찬례(春秋集傳纂例)』 권2「혼인예편(婚姻例篇)」 내녀귀조(內女歸條)에 "희공(僖公) 15년 추계(秋季)에 희씨가 증나라로 시집갔다(僖十五年秋季姬歸于**鄫**)."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辨定祭禮通俗譜, 禮記集說, 六家詩名物疏, 春秋集傳纂例.
필자 | 이창희(李昌熙)

추말(秋末)

정의 마지막 가을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만추(晩秋), 잔추(殘秋)라고도 한다.

내용 말(末)은 어떤 단위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으로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을 가리킨다. 따라서 추말(秋末)은 가을 석 달(7월, 8월, 9월) 가운데 가장 끝에 위치한 9월에 해당한다. 또 이 시기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상신(霜辰)이라고도 하고, 다가올 겨울 추위를 대비하여 겨울옷을 준비하여 식구들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수의(授衣)라고도 한다.

『예기강목(禮記綱目)』 부록(附錄) 권중(卷中)「논금편(論琴篇)」 논범성응절기조(論泛聲應節氣條)에 "춘초(春初)에는 만물이 비로소 생겨나고 추말(秋末)에는 만물이 이미 완성되기 때문에 소리가 유독 많은 것이다(春初爲萬物之始生秋末爲萬物之已成故聲獨多也)."라고 하였고, 『육가시명물소(六家詩名物疏)』 권24「초료편(椒聊篇)」 초조(椒條)에 "진초

(秦椒)의 색은 황색과 흑색이 있으니 촉초(蜀椒)와 비슷한데 더 크다. 초추(初秋)에 꽃을 피우고 추말(秋末)에 열매를 맺는다(秦椒色黃黑似蜀椒而大 初秋生花 秋末結實)."라고 하였고, 『어찬 시의절중(御纂詩義折中)』 권10 「소아(小雅)」 녹명지십(小雅鹿鳴之什) 채미육장장팔구(采薇六章章八句) '채미(采薇)' 시의 주(註)에 "초추(初秋)에 수레를 타고 나간 뒤 추말(秋末)이 되어 그리워하는 것이며, 감히 돌아가기를 기대하지도 못하던 중에 곧 돌아갈 수 있게 되자 기뻐하는 것이다(初秋出車秋末相思不敢望歸而未幾卽歸故喜之也)."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御纂詩義折中, 禮記綱目, 六家詩名物疏.
필자 | 이창희(李昌熙)

추상(秋霜)

정의 서리가 내리는 가을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상냉(霜冷)이라고도 한다.
내용 이 시기가 되면 대기 중의 수증기가 엉겨서 이슬이 되었다가 점차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슬이 얼어 서리가 된다. 중국 전국(戰國) 시대 진(秦)나라 여불위(呂不韋)의 『여씨춘추(呂氏春秋)』 「효행람편(孝行覽篇)」에 "가을 서리가 이미 내림에 뭇 수풀들이 모두 시드네(秋霜旣下 衆林皆羸)."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呂氏春秋.
필자 | 김한기(金漢基)

추심(秋深)

정의 가을이 깊어졌음을 뜻하는 말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계추(季秋), 모추(暮秋)라고도 한다.
내용 『집천가주두공부시집(集千家註杜工部詩集)』 권9에 수록된 중국 당나라 시인(詩人) 두보(杜甫)의 '송원이적강좌(送元二適江左)' 시에 "전란이 일어난 후 이제 서로 만났건만 가을이 깊어진 때[秋深] 다시 멀리 떠나가네(亂後今相見 秋深復遠行)."라고 한 구절이 있다. 중국 당(唐)나라 유장경(劉長卿)의 『유수주집(劉隨州集)』 권3 '구일등이명부북루(九日登李明府北樓)' 시에 "서리가 내리니 기러기 울음소리 애절하고 가을이 깊어가니[秋深] 나그네 심사 혼미해지네(霜降鴻聲切 秋深客思迷)."라고 한 구절이 있다.

참고문헌 | 劉隨州集, 集千家註杜工部詩集.
필자 | 김한기(金漢基)

풍신(楓辰)

정의 단풍이 한창 물드는 시기인 늦가을을 뜻하는 말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단풍은 기온이 낮아진 음력 9월에 한랭한 자연환경에서 잎이 말라 떨어지기 직전 엽록체의 붕괴로 인해 세포 안에 축적된 아미노산이 홍색소의 생성을 촉진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신(辰)은 시기라는 의미로,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반(小弁)' 시에 "하늘이 나를 낳음이여 나의 좋았던 시기는 어디에 있는가(天之生我 我辰安在)."라고 한 구절이 있고, 그 주(註)에 "신(辰)은 시(時)와 같다(辰 猶時也)."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詩經.
필자 | 김한기(金漢基)

현월(玄月)

정의 현(玄)은 검다는 뜻으로 음력 9월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 9월이 되면 만물(萬物)이 모두 시들어 검게 변하는 데에서 온 말이다.
내용 『이아(爾雅)』 「석천편(釋天篇)」 월명조(月名條)에 "1월은 추(陬), 2월은 여(如), 3월은 병(寎), 4월은 여(余), 5월은 고(皐), 6월은 차(且), 7월은 상(相), 8월은 장(壯), 9월은 현(玄), 10월은 양(陽), 11월은 고(辜), 12월은 도(涂)이다(正月爲陬 二月爲如 三月爲寎 四月爲余 五月爲皐 六月爲且 七月爲相 八月爲壯 九月爲玄 十月爲陽 十一月爲辜 十二月爲涂)."라고 한 구절이 있고, 그 소(疏)에 "9월은 만물이 다 시들고 음기(陰氣)가 차가운 기운을 불러들여 그 색깔이 모두 검다(九月萬物畢盡 陰氣侵寒 其色皆黑)."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爾雅.
필자 | 김한기(金漢基)



正日

정일

중양절인 구화가 만발할 때이므로
국화주와 국화전을 만들어 먹는다.
국화주는 꽃송을 따서
술 한 말에 꽃 두 되 꼴로
베주머니에 넣어 술독에 담아
뚜껑을 덮어두다.
약주에 국화꽃을 띄워
국화주를 즐길 수도 있다.
화전과 화채와 술에 모두 쓰이는
국화는 재래종인 감국(甘菊)이어야
향기가 좋다.

중양절(重陽節)

정의 음력 9월 9일을 가리키는 날로 날짜와 달의 숫자가 같은 중일(重日) 명절(名節)의 하나. 중일 명절은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같이 홀수 곧 양수(陽數)가 겹치는 날에만 해당하므로 이 날들이 모두 중양(重陽)이지만 특히 9월 9일을 가리켜 중양이라고 하며 중구(重九)라고도 한다. 또 '귈'이라고 부르는 지방도 있다. 음력 삼월 삼짇날 강남에서 온 제비가 이때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 가을 하늘 높이 떠나가는 철새를 보며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유래 중양절은 중국에서 유래한 명절로 그곳에서도 매년 음력 9월 9일에 행하는 한족의 전통 절일이다. 중양절은 중국에서는 한나라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송(唐宋) 대에는 추석보다 더 큰 명절로 지켜졌다.

등고회(登高會)는 중양절의 중요한 행사인데 이날 우산(牛山)에 올라 눈물을 흘렸다는 제나라 경공(景公)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중국에서는 이미 전국시대부터 행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내려오는 전설에 동한(東漢) 때 앞날을 잘 맞추는 비장방(費長房)이라는 도인(道人)이 어느 날 학생인 항경[恒景, 桓景]에게 "자네 집은 9월 9일에 큰 난리를 만나게 될 터이니 집으로 돌아가 집사람들과 함께 수유(茱萸)를 담은 배낭을 메고 높은 산에 올라가 국화주(菊花酒)를 마시면 재난을 면할 수 있네."라고 하였다. 항경이 이날 그가 시킨 대로 가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집에 돌아오자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고 한다. 중양절에 수유 주머니를 차고 국화주를 마시며 높은 산에 올라가는 등고 풍속은 이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유 주머니를 차는 것은 나쁜 기운을 제거하기 위해서이고, 국화주를 마시는 것은 노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기능적인 해석도 있다.

내용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이래로 군신들의 연례 모임이 이날 행해졌으며, 특히 고려 때는 국가적인 향연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선 세종 때에는 중삼 곧 3월 3일과 중구를 명절로 공인하고 중구를 무척 중요하게 여겨 늙은 대신들을 위한 잔치인 기로연(耆老宴)을 추석에서 중구로 옮겼으며, 또 중양절에 특별히 과거시험을 실시하여 이날을 기리기도 하였다.

중양절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지는데, 국가에서는 고려 이래로 정조(正朝), 단오(端午), 추석(秋夕)과 함께 임금이 참석하는 제사를 올렸고, 사가(私家)에서도 제사를 지내거나 성묘(省墓)를 하였다. 또 양(陽)이 가득한 날이라고 하여 수유 주머니를 차고 국화주를 마시며 높은 산에 올라가 모자를 떨어뜨리는 등고의 풍속이 있었고 국화를 감상하는 상국(賞菊), 장수(長壽)에 좋다는 국화주를 마시거나 혹은 술잔에 국화를 띄우는 범국(泛菊) 또는 황화범주(黃花泛酒), 시를 짓고 술을 나누는 시주(詩酒)의 행사를 가졌다. 서울 사람들은 이날 남산과 북악에 올라가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있게 놀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등고하는 풍습을 따른 것이다.

중양절에는 이와 같이 제사, 성묘, 등고 또는 각종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리들에게 하루의 휴가를 허락하였다. 그래서 관리들이 자리에 없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양절을 명절로 인식하였고 이날은 형(刑) 집행을 금하는 금형(禁刑)의 날이기도 하였다.

한편 중양절은 농촌이 한창 바빠지는 때이기도 하다. 남자들은 그해 논농사를 결산하는 추수를 하고, 여자들은 마늘을 심거나 고구마를 수확한다. 퇴비만들기, 논물 빼기, 논 피사리 등은 남녀 공동작업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목화도 따야 하고, 또 콩, 팥, 조, 수수, 무, 배추 같은 밭작물의 파종과 수확이 겹친다. 그러므로 농촌에서는 중양절이라고 하여



황국 심디스마

특별한 행사를 벌이기보다는 평상시와 똑같이 보내는 곳이 더 많다. 그러나 양수가 겹친 길일(吉日)이므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이날을 즐겼다. 등고풍속이 그러하고 국화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국화전을 만들어 먹는 것도 그 예가 된다.

추석 때 햇곡식으로 제사를 올리지 못한 집안에서는 뒤늦게 조상에게 천신(薦新)을 한다. 떡을 하고 집안의 으뜸신인 성주신에게 밥을 올려 차례를 지내는 곳도 있다. 전남 고흥의 한 지역에서는 이때 시제(時祭)를 지내는데, 이를 '귈제'라고 한다.

과거에는 각 마을마다 또는 두세 개 마을에 한 명씩 동네 단골무당이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연말에 이장에게 이세(里稅)를 내듯이 중양절이 되면 이들에게 시주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탈이 있을 때 단골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중국 당나라에서는 중양절이 되면 나라에서 태학(太學)의 학생들에게 겨울옷을 하사하는 의식이 있었다. 중양절 무렵이 겨울을 준비하는 적절한 때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중구절의 국화술은 중국의 시인인 도연명(陶淵明)과도 관련이 있다. 그가 이날 국화밭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데 흰옷을 정갈하게 입은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도연명의 친구가 보낸 술을 가지고 온 것이다. 연명은 국화꽃과 함께 온종일 취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려 말의 학자 목은(牧隱) 이색(李穡)도 중양절에 술을 마시며 도연명의 운치를 깨달았는지 "우연히 울 밑의 국화를 대하니 낯이 붉어지네. 진짜 국화가 가짜 연명을 쏘아보는구나."라는 글귀를 남겼다. 두목(杜牧)이 남긴 취미(翠微)의 시구에도 이날 좋은 안주와 술을 마련해놓고 친구들을 불러서 실솔시(蟋蟀詩)를 노래하고 무황계(無荒戒)를 익혔다고 한다.

의례 『고려사(高麗史)』에는 이날 중구연(重九宴) 또는 중양연(重陽宴)을 열었다는 기사가 있다. 국가가 규례를 정하여 내외의 신하들과 송나라, 탐라(耽羅), 흑수(黑水)의 외객들까지 축하연에 초대하였다. 조선에 들어와서도 임금이 사신(使臣)들에게 특별히 주연을 베풀었다. 또 탁주(濁酒)와 풍악을 기로(耆老)와 재추(宰樞)에게 내리고 보제원(普濟院)에 모여서 연회하게 하였다.

선조(宣祖) 때 예조에서 제향 절차를 아뢰면서





1~2 중구차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국립민속박물관

중양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속절(俗節)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이날 시식(時食)으로써 천신하는 것이 고례(古禮)이므로 속절에 해당하는 제사가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언적(李彦迪)은 『봉선잡의(奉先雜儀)』에서 정조, 한식, 단오, 중추와 함께 중양을 속절로 여겨 아침 일찍 사당에 들러 천식(薦食)하고 이어 묘 앞에서 전배(奠拜)한다고 하였다. 이문건(李文楗)의 『묵재일기(默齋日記)』를 보면 조선 중기까지 사가(私家)에서는 중양절은 등고 외에 간혹 간단한 천주과지례(薦酒果之禮) 곧 천신례가 있을 뿐 묘제를 행하는 한식에 비하면 속절로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와 삼짇날과 중양일이 함께 또는 둘 중의 하나가 원래 중월(仲月)에 복일(卜日)하여 행하던 사시제(四時祭)의 한 축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조선 전기까지는 시제(時祭)보다 기제(忌祭)를 중요하게 여기다가 중엽에 이르러 사대부들이 시제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데, 일년 4회의 시제가 부담

되었으므로 이를 춘추(春秋) 2회로 줄여 봄에는 삼짇날에, 가을에는 중양절에 지내는 자가 많아졌다고 하였다.

중양절의 시제는 조선 후기 이후 특히 영남지방에서 부조묘(不祧廟)를 모신 집안들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다. 유교 제례에서는 사대봉사(四代奉祀)라고 하여 4대가 지나면 사당에 모시던 신주를 묘에 묻게 되어 있으며, 나라에서 부조(不祧), 즉 묘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있어야 사당에 신주를 두고 계속 기제사로 모실 수 있다. 이 부조가 인정된 조상에 대한 시제는 각별히 중일을 택하여 삼월 삼짇날이나 구월 중양절에 제사를 지내는데, 특히 중양 때가 되어야 햇곡을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첫 수확물을 조상에게 드린다는 의미도 지닌다. 영남지방에는 중양절에 불천위제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는 집안들이 간혹 있지만 날이 갈수록 더 귀해지고 있다.

절식 중양절은 국화가 만발할 때이므로 국화주, 국화전을 만들어 먹는다. 국화주는 꽃을 따서 술 한 말에 꽃 두 되 꼴로 베주머니에 넣어 술독에 담아 뚜껑을 덮어둔다. 약주에 국화꽃을 띄워 국화주를 즐길 수도 있다. 화전, 화채, 술에 모두 쓰이는 국화는 재래종인 감국(甘菊)이어야 향기도 좋고 오랫동안 싱싱하다.

국화전은 노란 국화꽃잎을 따서 국화 찹쌀떡을 만드는데, 그 방법은 삼월 삼짇날의 진달래떡을 만드는 방법과 같으며, 이름도 화전(花煎)이라고 한다. 봄의 진달래 화전은 율무를 많이 쓰는 반면 가을의 국화전은 찹쌀가루를 많이 쓴다. 중국 양나라 사람 오균(吳均)이 지은 『서경잡기(西京雜記)』에 "한나라 무제(武帝) 때 궁녀 가패란(賈佩蘭)이 9일에 이(餌) 떡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이(餌)란 경단[餻]을 말하는 것이다. 송나라 사람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는 "도시 사람들이 중구(重九)에 가루로 떡을 쪄서 서로 선물한다."라고 했다. 잘게 썬 배와 유자(柚子)와 석류(石榴)와 잣 등을 꿀물에 탄 것을 화채(花菜)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모두 중양절 음식으로 제사에 쓴다.

의의 추석이 햇곡으로 제사 지내기 이른 계절이 되어감에 따라 추수가 마무리되는 중양절에 중구차례를 지내는 등 논농사의 발전에 따라 조상을 위하는 날의 의미를 더해갔다. 조선시대에 이날 기로연을 베풀었다는 사실은 장수에 좋다는 국화주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는 물론 민간에서도 이날을 경로(敬老)의 날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擊蒙要訣, 京都雜志, 高麗史, 國朝五禮儀, 東京夢華錄, 東國歲時記, 默齋日記, 奉先雜儀, 西京雜記, 宣祖實錄, 成宗實錄, 世祖實錄, 世宗實錄, 洌陽歲時記, 朝鮮常識-風俗編-(崔南善, 東明社, 1948),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中國民族節日大全(高占祥 主編, 知識出版社, 1993), 歲時關聯 記錄들을 통해 본 조선시기 歲時風俗의 變化(鄭勝謨, 역사민속학1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필자 | 정승모(鄭勝謨)



국화전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송봉화

국화절(菊花節)

정의 국화(菊花)가 만발하는 시기라는 뜻으로 음력 9월 9일 중양절(重陽節)을 이르는 말.

내용 왕유(王維)가 '중양절에 천자의 장수를 기원하며 지은 응제시(重陽節宰臣及群官上壽應制詩)'에 "국화절은 다함이 없으니 언제나 백량체의 시를 바치네(無窮菊花節 常奉栢梁篇)."라는 시구가 있다. 또 『송서(宋書)』「도잠열전(陶潛列傳)」에는 "언젠가 9월 9일에 술이 떨어졌는데 도연명이 집 근처 국화꽃 속에 한참 앉아 있다가, 마침 왕홍(王弘)이 술을 보내왔는데 그 자리에서 마시고 취하고 나서야 집에 돌아갔다(嘗九月九日無酒 出宅邊菊叢中坐久 值弘送酒至 卽便就酌 醉而後歸)."라는 일화가 전하고

있다. 한편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秋齋集)』에도 9월 9일에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 모임을 하고 국화주를 마시는데 국화를 차는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人作登高會 飮菊花酒 謂之佩菊佳節)."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陶淵明全集, 宋書, 全唐詩, 秋齋集.
필자 | 김종태(金鍾泰)

망제일(忘祭日)

정의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는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는 날. 9월 9일 중양절에 제사를 지내준다.
내용 9월 9일 중양절에는 집을 나가 객사(客死)하여, 죽은 날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제사를 지내준다. 지역에 따라서는 죽은 사람의 생일이나 3월 3일 삼짇날, 7월 7일 칠석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지만 9월 9일에 지내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특별한 명칭은 없으나 이것을 제삿날 모르는 사람의 제사라고 하기도 하고 경남 합천에서는 무관제사라고 한다.
지역사례 충남 보령에서는 음력 9월 9일에 제사를 지내지 못한 조상이 있거나 집안에 연고가 있어 제사를 못 모신 분들을 제사지낸다. 또 추석 햅쌀이 나지 않아 차례를 모시지 못했을 때에도 이날 차례를 지낸다. 사당에 가서 특별히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다. 이를 구일차례라 한다. 아들을 두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딸이 조상의 제사를 모신다. 기제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사를 모시지만 집이 아니라 묘소에서 직접 올린다. 경기도 여주에서는 소작의 대가로 소작인이 집주인의 조상에게 구일차례를 지내주는 사례가 있다. 충남 논산에서는 음력 8월에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여 추석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 9월 9일 중양절에 구일차례를 지낸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경기민속지 I (경기도박물관, 1998), 경기민속지 III(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김지욱(金志昱)

산신의 탄신일(山神-誕辰日)

정의 북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9월 9일 중양절(重陽節)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9월 9일은 중양절로 황해도에서는 이날을 산신(山神)님의 탄신일(誕辰日)이라고 하여 마을 산신당(山神堂)에서 당제를 지냈다. 9월 1일부터 9일까지 온 마을사람들이 비린 것을 안 먹고 근신하며 정성을 드렸다. 집집마다 제비(祭費)를 거두어 제물을 장만하고 마을 노인들이 의관(衣冠)을 갖추고 제를 지냈다. 주요 제물로 소나 돼지를 잡아 올리고 가을 시식(時食)으로 논게와 숭어를 바쳤다. 제의 후에는 제물을 조금씩 나누어 온 마을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황해도에서는 정월에 지내는 대동(大同)굿과 쌍을 이루는 것이 유교식 산신제였다. 남쪽 지역에서 9월 9일에 지내는 산신제나 구월제(九月祭)와 같은 의례로 볼 수 있다.
지역사례 황해도에서는 9월 9일 중양절을 산신님의 탄신일이라고 하고, 경남에서는 구월제(九月祭)라고 하여 이날 마을을 수호하는 산신에 제를 지내며


산신도 무경

마을의 평안(平安)을 빈다. 경기도에서는 마을에 따라 산신제라고 하여 9월 9일에 화주를 뽑아서 소를 잡아 제물을 장만하고 제를 올린다. 또 황해도에서는 이날 친척 간에 무자식으로 죽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추석에 성묘(省墓)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날 성묘를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黃海·平安南北 篇-(文化財管理局, 1980), 경기민속지Ⅲ(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지욱(金志昱)

상국일(賞菊日)

정의 국화를 감상하기에 좋은 날이라는 뜻으로 음력 9월 9일을 달리 부르는 말.

내용 국화를 중양화(重陽花)라고도 하는데, 중양절 전후에 피는 까닭에 중양절의 국화 감상을 노래한 시가 많다. 도연명(陶淵明)의 '구일한거시서(九日閒居詩序)'에 "내가 한가로이 지내면서 중구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것은 가을 국화가 뜰에 가득 차고 술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余閒居 愛重九之名 秋菊盈園 而持醪靡由)."라고 하였다. 또 맹호연(孟浩然)은 '친구의 별장에 들르다(過故人莊)' 시에서 "중양일이 오기를 기다려 국화를 다시 와서 보리라(待到重陽日 還來就菊花)."라고 하였다.

한편,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는 "단풍이 들고 국화가 만발할 때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는데 봄에 꽃과 버들을 구경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秋菊時 士女遊賞 略似花柳)."라고 하여 봄에 꽃이나 버들을 감상하는 것과 대비하였다.



국화
충남 공주시 반포면 산학리 김영광

참고문헌 | 陶淵明全集, 孟浩然詩集, 洌陽歲時記.
필자 | 김종태(金鍾泰)

제비돌아가는날

정의 삼월 삼짇날 강남에서 돌아온 제비가 중양절인 9월 9일에 날씨가 따뜻한 강남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9월 9일을 이르는 말.

내용 속설(俗說)에 9월 9일은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뱀이 돌에 입을 닦고 땅속으로 들어가 동면(冬眠)하고, 모기도 들어가고 갈가마귀와 기러기가 오는 날이라고 한다. 이러한 속설은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중양(重陽)이라는 말은 9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가 겹친 것을 뜻한다. 9가 2번 겹치므로 중구(重九)라고도 한다. 절기로 보아 이날을 고비로 농작물을 수확하고 겨울로 넘어가게 된다. 3월 3일 삼짇날, 봄을 마감하고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에 날아온 제비가 9월 9일 중양절에 다시 날씨가 따뜻한 강남으로 돌아가고 이제 바야흐로 겨울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때 제비는 일정한 시기에 따뜻한 지역을 찾아 오가는 존재로 제비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상과 신에게 수확의례를 올리고 겨울을 맞이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사례 경북 상주, 영주, 대구에서는 이날 제비가 더운 지방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제비와 모기가 없어지는 날이라고 한다. 경기도 연천에서도 9월 9일 중양절에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중양절에 행하는 다양한 세시풍속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특별한 의례는 없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慶尙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4), 경기민속지Ⅰ(경기도박물관, 1998), 경기민속지Ⅲ(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필자 | 김지욱(金志昱)

중구(重九)

정의 9가 겹치는 날이어서 붙은 이름으로 중양절(重陽節)을 달리 부르는 말. 음력으로 9월 9일을 말한다.

내용 음양사상에 따르면 홀수[奇數]는 양(陽)에 속하며, 양수(陽數)가 겹치는 날을 길일로 여긴다. 위(魏)나라 문제(文帝)가 '9월 9일에 종요에게 주는 글(九日與鍾繇書)'에서 "세월이 흘러 9월 9일이 되었네. 9는 양수로 일월이 서로 어우러져 세상에서 그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네(歲往月來 忽復九月九日 九爲陽數 而日月並應 俗嘉其名)."라고 한 데서 이런 의미를 알 수 있다.

중구라는 이름은 도연명(陶淵明)이 '구일한거시서(九日閒居詩序)'에 "내가 한가로이 지내면서 중구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것은 가을 국화가 뜰에 가득 차고 술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余閒居 愛重九之名 秋菊盈園 而持醪靡由)."라고 한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문건(李文楗)이 쓴 『묵재일기(默齋日記)』를 보면 음력 9월 9일에 대해 '중양절'이라는 표현보다 '중구'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참고문헌 | 陶淵明全集, 默齋日記, 藝文類聚.
필자 | 김종태(金鍾泰)

기로연(耆老宴)

정의 조선시대 예조(禮曹)의 주관으로 기로소(耆老所)의 나이 많은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매년 봄 상사(上巳: 음력 3월 3일)와 가을 중양(重陽: 음력 9월 9일)에 베푼 나라 잔치.

시기 및 종류 조선 태조(太祖) 이후 기로회(耆老會), 기영회(耆英會), 기영연(耆英宴), 중구연(重九宴) 등 기로연과 유사한 형태를 갖춘 연회들이 열렸는데, 주로 삼월 삼짇날과 구월 중양절을 택해 열렸다.

원래 기로연에는 정2품 실직(實職)을 지낸 70세 이상의 문과 출신 관원만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70세 이상으로 2품 이상인 종친(宗親)을 위한 기영회와 구분된다. 기로연을 행하던 곳은 주로 보제루(普濟樓)였고, 기영회를 행하던 곳은 훈련원이나 반송정(盤松亭)이었다. 성종(成宗) 이후 명종(明宗) 때까지 기영회의 시행 날짜가 모두 중양절로 되어 있고, 후기의 기록에 성종 이후부터 매년 중구일(重九日)을 기로연의 잔칫날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어 동일한 행사였을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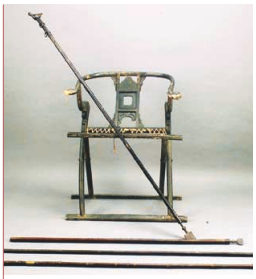
유래 조선시대와 달리 그 이전 시기의 기로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세조(世祖) 때 기로연이라는 연회 명칭이 등장한다. 고려시대에 기로연보다는 양로연에 가까운 형태의 노인사설의(老人賜設儀)가 행해져 임금이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특히 80세 이상의 전직 신료들에게는 그 자식이나 손자의 참석을 허용하였다. 권근(權近)의 '후기로회서(後耆老會序)'에 우리나라의 기영회는 고려시대 최당이 당(唐)의 백낙천과 송(宋)의 문로공의 모임을 본떠 조직한 기로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조선에 들어와 태조가 환갑이 되던 해인 태조 3년(1394)에 태조는 자신을 포함하여 나이가 많은 고관을 예우(禮遇)하기 위하여 기로소를 설치하였다. 기로연은 이때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기로연에 관한 자세한 상황은 세조 2년(1456) 3월 3일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기로회를 보제원에서 베풀고 승지 박원형에게 명하여 선온(宣醞; 임금이 내린 술)을 기로회에 보냈다."라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세조 때에 기로연에 대한 기록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행사일은 모두 상사일이거나 중양절이다. 기로(耆老)들에게 중구연을 내려 주었다는 기록들은 모두 기로연 잔치로 볼 수 있다. 성종 때도 몇몇 예외가 있지만 거의 모두 상사일 또는 중양절에 연회가 행해졌으며, 특히 성종 14년(1483) 이후로는 기로연이 모두 상사일에 있었다.

내용 기로연은 예조판서가 주관자가 되고 왕명을 받드는 승지가 특별히 파견되어 감독하였다. 본행사를 하기 하루 전부터 각 기관들은 행사를 준비한다. 당일 행사 준비가 끝나면 본행사로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한다.

임금이 행사장에 나아가려 하면 의장(儀仗)이 움직이고 음악이 연주되면서 행사가 시작된다. 임금이 어좌(御座)에 오르면 참석자 모두는 절하는 위치로 나아가 사배(四拜)의 예를 한다. 잔치에 참가한 문신들은 편을 갈라 투호(投壺)놀이를 한다. 이어 식사가 시작되며, 술은 1작(爵)부터 5작까지 마신다.



궤장 및 사궤장 연희도첩(보물930호)
경기도 박물관



이후 소선과 대선을 차례로 올린다. 대선을 베푼 뒤 연회는 끝난다. 왕세자 이하 신하들이 임금에게 다시 사배를 하고 임금은 내전으로 들어간다. 기록에 의하면 행사는 날이 저문 뒤에야 파했고 참가자들은 부축을 받아 행사장을 나올 정도로 모두 취했다고 한다.

이날 행사 때 임금은 술과 1등급 풍악 그리고 전답(田畓), 염전(鹽田), 어전(漁箭), 노비 등을 내렸고, 특별히 벼슬이 1품에 오르고 학덕이 높은 원로대신에게 궤장(几杖) 곧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는 일도 있었다.

변천 및 현황 광해군 2년(1610)의 기록을 보면 기로연이 정지된 지 이미 오래되어 전거로 삼을 만한 전례가 없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조선 전기 이후 기로연의 시행이 불규칙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광해군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기로연은 임진·병자 양란을 겪으면서 또는 재해나 흉년으로 행하지 못한 경우는 종종 있었다. 하지만 원로대신들에 대한 우대의 잔치는 계속 이어져왔다.

원래 기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처음에는 문무신을 가리지 않았으나, 중기 이후부터는 정경(正卿)으로서 70세 이상 되는 문신으로 국한하였다. 그러나 태조 이후 두 번째로 기로소에 들어간 숙종 때에 와서 나이가 많은 일반 백성들도 참여한 경우가 있었다. 임금 중 세 번째로 기로소에 들어간 영조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조 20년(1744) 10월 7일에 숭정전(崇政殿)에서 진연(進宴)을 열었는데, 70세 이상의 관원을 모두 참석시켰다. 또 영조 때에도 나이가 많은 일반 백성들이 참여한 기록이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때에 이러한 관행이 일반화한 것 같다. 영조 때에는 양로연과 기로연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의의 기로연은 임금이 원로대신을 위하는 잔치로서 임금과 신하의 의(義)를 다지고 경로사상을 고취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양수가 겹치는 삼짇날이나 중양절을 행사일로 택하여 이날의 민속 행사에도 영향을 준 바가 크다.

참고문헌 | 國朝耆老所題名記,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 耆社慶會曆, 成宗實錄, 世祖實錄, 陽村集, 燃藜室記述, 英祖實錄, 增補文獻備考, 太祖實錄, 朝鮮時代 耆老所의 敬老行事(朴尙煥, 弘大論叢XXI-人文社會科學編, 弘益大學校, 1990), 朝鮮時代 養老宴儀禮와 御宴儀禮의 硏究(文化財管理局 · 國民大學校 韓國學硏究所, 文化財管理局, 1997),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김종수, 민속원, 2001).

필자 | 정승모(鄭勝謨)

망제(忘祭)

정의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객사하여 제삿날을 모르는 조상이나 자손이 없는 사람에게 지내는 제사. 무후제(無後祭), 구일제(九日祭), 구일차례(九日茶禮)로도 불린다.

유래 망제(忘祭)는 연고가 없는 영혼을 위한 제사다.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 역사적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절기에 맞춰 실시되고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용 절일에 올리는 제사지만 일반적인 마을 제사나 집안 차례와 구별된다. 망제는 후손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나 제삿날을 모르는 경우에 지낸다. 추수가 늦은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추석차례를 못 지낸 경우 중구에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강원도 삼척과 태백 일대에서는 매년 음력 9월 9일이나 9월 초정일(初丁日)에 후사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후제를 지낸다. 예부터 탄광지대에는 떠돌아다니는 광부나 유랑민이 많았는데, 이들이 후사가 없이 죽은 경우 무후제를 지내준다. 자손을 못 남기고 죽은 사람은 대개 죽기 전에 자신의 전답이나 돈을 주변에 기탁해서 무후제를 부탁하기도 한다. 제의 방식은 유가식(儒家式)으로 진행한다. 주과포, 메, 떡 같은 제물을 차리고 홀기에 맞춰 삼헌관이 지낸다. 무후제는 탄광지대의 지역 특징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태백시 장성동에는 무후제비(無後祭碑)가 있다. 경남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에서는 제일(祭日)을 정확히 모르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준다. 객지에 나가 실종되었거나 객사한 경우, 배를 타고 나갔다가 난파당해 죽었을 경우에도 제사를 지내준다.

의의 망제는 방치되거나 소외되기 쉬운 영혼들을 위한 제사다. 이 제사의 이면에는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함으로써 살아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세주의적 심성도 깔려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江原道 篇-(文化財管理局, 1977), 韓國歲時風俗研究(任東權, 集文堂, 1985),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필자 | 이경엽(李京燁)

⇨ 무자후제사(無子后祭祀): 봄편

중구차례(重九茶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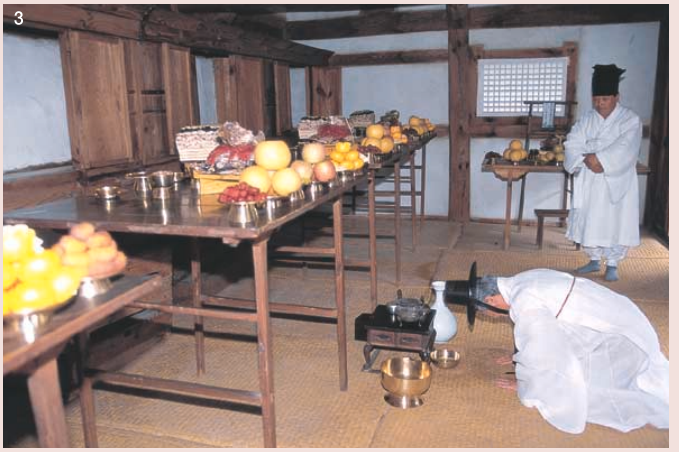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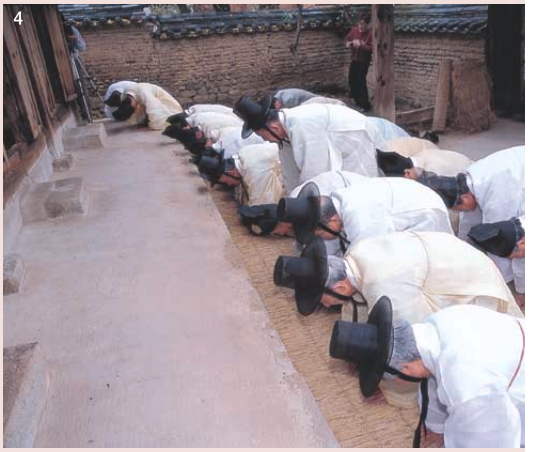
정의 추석 때 햇곡식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날짜를 미루어 9월 9일 중양절에 지내는 차례. 절기(節氣)가 늦어 8월 추석 무렵에 곡식이 익지 않을 경우 추석차례를 9월 9일로 미루어 지내는데, 이를 중구차례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 중양절을 중구일, 중구, 중기일, 중기라고 부르는데, 이날 지내는 차례라는 뜻으로 중구차례(重九茶禮), 중기차례, 구일차례, 중구차사(重九茶祀), 중귀차례(차사), 중기차사(차례)라고 한다. 중구차례는 설과 삭망에 올리는 참례(參禮)와 함께 속절이나 명절에 조상신에게 올리는 천신(薦新)의 하나이다. 특히 햇곡식이 나온 것을 감사하는 햇곡 천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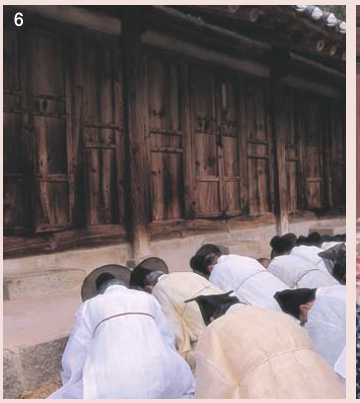
유래 및 변천 중구차례의 기록은 『고려사(高麗史)』 권61 「지(志)」15 예(禮)3 경령전조에 "경령전(景靈殿)에서는 정조, 단오, 추석, 중구에 친전의(親奠儀)를 올린다."라고 하였고, 명종 20년 9월조에는 "경신일이 중양절이므로 왕이 친히 경령전에서 제향을 올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중구차례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에 "9월 9일에는 사당에 국화떡을 바친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양절에 조상을 위한 천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구차례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참례와 천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자의 『가례(家禮)』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의하면 참례는 설, 동지, 초하루, 보름에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의 하나이다. 그리고 천신은 속절(俗節)이 되면 그 철에 새로 나오는 음식을 조상에게 올리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추석에 햇곡식이 나오지 않아 천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명절인 중구에 천신을 함으로써 중구차례의 문화적 전통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 의하면 9월 중양절에 "민간에서는 국화전(菊花煎), 화채(花菜) 등 시식(時食)으로 조상께 차례를 드리고"라는 구절이 있고, 정학유의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9월령에는 "화전을 부쳐 천신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중구차례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구차례〉
1 진설
2 분향
3 강신재배
4 참신재배
5 헌작
6 합문
7 합독
8 철찬
9 음복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황헌만

한편 중구차례에 사용되는 '차례'라는 용어는 이문건(李文楗)의 『묵재일기(默齋日記)』에 "안봉사 영전에 모신 조상들의 영정 앞에서 차례(茶禮)를 지냈다."라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올리는 풍속이 없었기 때문에 차를 올린다는 등의 내용을 삭제하였다."라는 『사례편람』 제사조의 설명처럼 조선시대 제사의 규범형에서는 차례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 근대의 의례문화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가정의례준칙'에서조차도 1988년까지는 설날에 지내는 차례를 연시제(年始祭)라고 하였고, 추석에 지내는 차례는 절사(節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차례라는 용어가 '가정의례준칙'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구차례라는 용어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의미상 차례라는 용어는 참례와 천신례를 통합하여 일컫는 말로 보인다. 왜냐하면 참례를 하는 시기와 천신을 하는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례』의 참례와 천신이 관행적으로 지내오던 차례(혹은 차사)에 흡수 통합되었고, 추석을 물려서 지냈던 중구의 천신도 이를 차례라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 중구에 차례를 지내는 사례 대부분은 추석에 햇곡식이 나오지 않아 차례를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지역은 햇곡식이 나오는 추석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추석에 햇곡식을 올리는 올개심니를 하는 것을 볼 때 추석은 천신하는 날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일반화된 추석의 기원설에도 불구하고 추석에 지내는 차례는 그해 처음으로 수확한 햇곡식을 조상에게 올리는 것에 의미를 둔 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9월 중구차례 역시 햇곡식을 조상에게 올리는 의례에 의미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별 중구차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중양절이 조상에게 햇곡식을 천신하는 명절이었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경북 상주시 함창에서는 중구차례를 구일차례라 하고 이날을 '9월 추석날'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시하고 있다. 경북 영양군에서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중구는 큰 명절이었다."라고 하며, 경북 칠곡군 왜관에서는 "중구에 신곡제(新穀祭), 시곡제(始穀祭)라고 부르는 구일차례를 지낸다."라고 이야기한다. 충북 단양군에서는 "추석이 너무 일찍 오면 햇곡식이 없기 때문에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9월차사라고 해서 9월에 차례를 지낸다.", 전남 목포에서는 "햅쌀로 첫 쌀밥을 지어 조상께 올린다.", 전남 곡성에서는 "농사를 잘 지었다고 조상께 고하는 '귀일차례'를 지내는데, 햇곡식과 햇과일을 풍성하게 차린다." 그리고 전남 장성이나 함평에서는 "추석에 못한 올게심니를 중구에 한다."라는 등의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구차례 역시 추석과 마찬가지로 햇곡식을 천신하는 의례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구차례 혹은 구일차례라는 이름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경기도 수원·김포·의왕, 전북 무주·장수·진안에서는 중양절을 자손이 없는 사람의 제사를 지내주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 강원도 원주·춘천, 전북 진안에서는 소작을 하는 사람이 그 대가로 위토를 맡긴 사람들의 조상제사를 지내주는 날로 생각하고 있다. 전남 목포·담양·보성·영암, 전북 순창·장수·정읍·남원에서는 중양절을 객사를 하거나 전쟁에 나가 전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제삿날을 모르는 사람의 제사를 올리는 날로 여긴다. 전남 순천이나 전북 완주에서는 조상 중에서 기일을 모르는 조상을 위한 날이라고 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전남 화순에서는 9월 9일이 양이 겹치는 길일이므로 상중으로 인해 차례를 지내지 못했을 경우 이날 상중에 차례를 지내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다가 다시 지낼 경우 9월 9일에 구일제를 지낸 후 조상의 기일에 기제사(忌祭祀)를 지낸다고 한다.

이처럼 중구차례는 추석차례를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쌍한 조상을 위한 제삿날의 의미도 강하게 나타난다. 객사한 사람, 후손이 없이 죽은 사람, 기일을 모르는 조상, 실종된 조상은 모두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은 조상의 범주에 속한다. 이런 조상들은 자손이나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굿거리에 조상거리가 반드시 있는 것도 조상이 자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

전통사회의 사대부 가정에서 지내던 제사의 종류로는 제사의 기본인 사계절의 중간에 지내는 사시제(四時祭), 기제사, 가을에 지내는 아버지의 제사 그리고 속절과 명절에 지내는 천신이 있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제사는 기제사와 명절에 지내는 차례뿐이다. 이는 사시제와 속절 천신이 명절의 참례로 흡수되고, 다시 설과 추석이 사흘 간의 연휴로 지정되어 명실 공히 명절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의 제사는 기제사와 차례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밤에 지내는 기제사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매우 불편해지면서 기제사를 통합하는 현상에서 보듯이 그 기능이 약해지는 반면에 가족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설과 추석의 차례가 더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1972년 통일벼가 보급되고 추석 즈음에 햅쌀과 햇과일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추석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추석차례보다 중요시했던 중구차례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의의 중구차례는 추석에 햇곡식으로 차례를 올리지 못하는 지역에서 중구일에 차례를 올리는 천신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중구차례를 지내는 지역은 경기도·강원도·충청도의 일부 지역, 경북, 전라도 북부이다. 이른바 김택규의 단오권(端午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벼의 생육이 늦어 8월 추석에 맞추어 수확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들에서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추석보다는 중구를 더 중요한 명절로 인식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家禮, 高麗史, 農家月令歌, 四禮便覽, 漢陽歲時記, 朝鮮常識-風俗 篇(崔南善, 東明社, 1948),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69~1981),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 외, 일조각, 1991),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1~2003), 서울·세시·한시(洪錫謨 編著·秦京煥 譯註, 보고사,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김시덕(金時德)

중양절사(重陽節祀)

정의 중양절(重陽節)에 묘소(墓所)에 가서 지내는 제사. 중양절에 지내는 제사라 하여, 중양제사(重陽祭祀), 중구제사(重九祭祀), 중구절사(重九節祀)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로 명절에 지내는 묘제와 차례를 총칭하기도 한다.


1


4


6

〈중양절사〉
1 진설
2 초헌
3 재배
4 종헌
5 독축
6 합문
7 사신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국립민속박물관


2


3


5


7

내용 추석이 일찍 드는 해에는 곡식이 아직 수확되지 않아 추석 대신 9월의 중양에 햇곡식과 햇과일 그리고 인절미나 국화주 같은 시절음식으로 사당에 차례를 지내고 묘소에 제사를 지냈다. 중양절은 3월 삼짇날과 같이 양수가 겹치는 길일(吉日)로 여겨졌고 또 절기상으로 만물을 수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부터 속절(俗節)의 하나였다. 그리고 10월의 시제(묘제)에는 5대조(五代祖) 이상 조상의 묘제를 지내기 때문에 중양을 전후하여 벌초도 하고 묘제도 지냈다.

오늘날은 추석을 전후하여 벌초와 성묘 그리고 차례를 같이 지내기 때문에 중양절의 절사 의미는 거의 사라졌다. 반면에 중양절에는 시조나 불천위의 선조를 모시는 시제 또는 향사를 지내기도 한다. 경북 봉화나 안동 일부 지역에서는 중양절에 차례와 성묘, 묘제를 지낸다. 1937년의 '가정의례준칙'에 묘제는 한식, 추석, 중양 또는 적당한 시기에 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다. 묘제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진설(陳設), 강신(降神), 참신(參神),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사신(辭神), 철상(撤床)으로 진행하며, 산신제도 지낸다. 중양절의 축문은 추석 절사의 예를 따라 '白露旣降(계절이 바뀌어 서리에 이미 젖었고)'이라 쓴다. 중양절을 기점으로 제비가 강남으로 가고, 국화꽃이 만발하듯이 시후가 변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에 추모의 정을 펼치고자 절사를 지내는 것이다.

참고문헌 | 家禮增解, 擊蒙要訣, 東國歲時記, 奉先雜儀, 四禮便覽, 喪禮備要, 朱子家禮, 가정의례준칙(常元出版社, 1969),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 · 잡지 편 1876~1945-(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의 제사(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최순권(崔順權)

구절초뜯기(九節草-)

정의 9월 9일 중양일(重陽日)에 뜯은 구절초(九節草)가 효험이 가장 좋다고 하여, 이날 구절초를 뜯는 풍속.

내용 구절초(*Chrysanthemum sibiricum Turcz*)는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 자생하는 국화과(菊花科)에





1 구절초
2 말린 구절초
김영광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쓰이고 재배도 하는데, 9~11월에 붉은 빛이나 흰빛 꽃이 가지 끝까지 핀다. 가을철에 뿌리째 캐어서 약으로 쓴다.

국화과에 속한 방초(芳草)들은 절기상으로 상강(霜降)이 지난 후에야 꽃의 아름다움과 약효가 좋아지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구절초를 서리 내리는 음력 9월에 채취한다 하여 절후(節候)를 나타내는 마디 '절(節)'자가 이름으로 쓰인 것이다. 별칭으로는 9월 9일에 뜯어야 약효가 좋다고 하여 구일초(九日草)라 하기도 하고, 9월에 꺾어 채취한다는 의미에서 구절초(九折草)라고도 한다. 그 밖에 고호(苦蒿), 고봉(苦蓬) 같은 이름도 갖고 있으며, 그 약효가 여자에게 좋다 하여 선모초(仙母草)라고 하기도 한다.

구절초는 산(山) 구절초와 바위[岩] 구절초로 분류하는데, 백두산과 같은 높은 산이나 고산지대의 능선에서도 군락을 이루며 자생한다. 또 화강암, 현무암 같은 바위가 많은 지역에서도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자란다.

구절초는 보통 50센티미터까지 자라지만, 높은 지대의 산에서는 20센티미터 정도로 키가 낮게 자란다. 꽃봉오리를 맺고 꽃이 펴서 꽃받기[花床]를 할 때까지 대개 연붉은색을 띈다. 꽃받기를 하고 난 후에는 꽃잎이 흰색으로 변하면서 색이 바뀌는 특색이 있다.

구절초는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쓰이지만, 민간에서는 대개 그 줄기와 잎을 고아 구절초고(九折草膏)를 만들어 먹기 편하도록 동그랗게 환약(丸藥)을 지어 건강식품으로 사용한다. 구절초는 건위(健胃), 보익(補益), 강장(强壯), 정혈(淨血)의 약효가 있다. 특히 자궁냉증, 생리불순, 불임증을 치료하는 데 효능이 뛰어나 여자들에게 영약(靈藥)으로 알려져 왔다.

지역사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저두마을에서 구일초는 9월 9일에 뜯어서 저녁에 서리를 맞추어야 약이 된다고 여긴다. 뱃속이 끓고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사람들에게 좋으며, 몸을 덥게 하므로 냉한 사람에게도 좋다고 한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윗남전마을에서도 9월 9일에는 구일초를 뜯어 말리거나 생즙을 내서 먹는다. 구일초즙을 마시면 속이 더워지므로 냉병이 있는 사람에게 좋고 해소병에도 좋다고 한다. 경북 달성군 하빈면 묘 2리에서는 9살, 19살, 29살처럼 9가 들어간 나이에 구절초를 뜯어야 약효가 좋다고 한다.

참고문헌 | 廣才物譜, 物名考, 松南雜識.
필자 | 최병일(崔炳一)

국화전(菊花煎)

정의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그랗게 만들어 그 위에 국화 꽃잎을 붙인 후 기름에 지져내는 음식. 주로 음력 9월 9일인 중양절(重陽節)에 절식으로 만들어 먹었다. 한자로는 국고(菊糕) 또는 국고(菊餻)라고 한다.

내용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빛이 누런 국화를 따다가 찹쌀떡을 만든다. 방법은 3월 삼짇날의 진달래떡을 만드는 방법과 같다. 이것을 화전(花煎)이라 부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문헌에서



국화전 궁중음식연구원

이 풍속의 기원을 찾았다. 한무제(漢武帝) 때 궁녀 가패란(賈佩蘭)이 9월 9일에 이(餌)를 먹었다는 『서경잡기(西京雜記)』의 기록이 그것이다. 또 중국 송나라의 문헌인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의 9월 9일에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쪄서 서로 나눈다는 기록을 들어, 당시의 국고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추정했다. 그러나 정약용(丁若鏞)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1집, 잡찬집(雜纂集) 권24 「아언각비(雅言覺非)」 권3 조고(棗糕)에서 "중국에서 중양절에 먹는 대추와 밤을 넣은 면병(麵餠)을 화고(花糕)라고 하는데, 이것은 증병(蒸餠)의 일종이다. 조선에서 이때 먹는 화고는 쌀가루를 익반죽한 것에 꽃을 붙여서 기름에 지져 먹는 유전(油煎)으로 중국의 것과 다르다."라고 했다. 이러한 기록들로 볼 때 적어도 18세기에는 중양절에 국화전을 널리 먹었다고 할 수 있다. 『경도잡지(京都雜志)』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영조 때의 학자 유척기(兪拓基)가 지은 『지수재집(知守齋集)』 권15 「잡저(雜著)」의 각 절일(節日)에 올리는 제물을 소개하는 유계(遺戒)란 글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중구에는 국고를 제물로 올리는데, 만약 국화가 피지 않았으면 다른 떡으로 대신한다." 한편 김정희(金正喜)의 『완당전집(阮堂全集)』 권10에는 '바닷가에서 중구에 국화가 없어 박떡을 만들다(海上重九無菊作瓜餠).'라는 시가 나온다. 이로 미루어 성리학적 예법이 일상 생활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의 중양절 면병이 국화전으로 정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서는 "화전은 전병 만드는 법과 같으나, 전병은 작게 부치는 것이고, 이 화전은 전병을 접시만큼 부쳐서 한 치(3센티미터) 길이와 다섯 분(5센티미터) 너비로 쓸어서 설탕을 묻힌다. 화전을 냉수에 반죽하면 빛이 좋지 못하고,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금물을 끓여 더운 김에 반죽하는 것이 좋다. 또 진달래나 장미는 많이 넣어도 좋지만 국화를 많이 넣으면 맛이 쓰다."라고 했다. 20세기 초반에도 국화전은 화전의 일종으로 많이 해 먹었다. 그러나 중양절이 세시풍속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1970년대 이후 국화전 역시 절식으로 먹는 가정이 드물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與猶堂全書, 阮堂全集, 知守齋集, 朝鮮料理製法(方信榮, 漢城圖書株式會社, 1942), 세시풍속의 변화를 통해 본 가족생활의 변화(박부진, 여성 · 가족생활연구 5, 2000).

필자 | 주영하(周永河)

⇨ 화전(花煎): 봄편

국화주(菊花酒)

정의 국화를 이용하여 빚은 술. 국화가 만발한 중양절(重陽節)에 국화전과 더불어 즐기는 절기주이다.

유래 국화주(菊花酒)가 절기주로 뿌리내리게 된 것은 등고(登高), 상국(賞菊)의 풍속에서 찾을 수 있다. 연중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에 높은 곳에 올라 양(陽)의 극치인 태양을 가까이 하면 일년 내내 건강해진다는 믿음에서 가을 중양절에 산을 오르는데, 이때 주변의 야산에 핀 감국(甘菊)을 따서 화전(花煎)과 차(茶)로 또 술에 띄워 마시는 풍류를 즐겼던 것이다.

내용 두견주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절기주 또는 가향주(佳香酒)가 국화주이다. 술이 상비식(常備食)으로 자리 잡으면서 평소에 빚어 마시는 가양주(家釀酒)에 감국을 드리워 그 향기와 가을의 계절감을 즐기는 절기주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풍류이다.

가향주는 선비들 사이에서 즐기던 풍습으로, 국화주는 '화향입주법(花香入酒法)'이라 하여 숙성된 술에 말린 국화를 넣어 그 향을 감상하는데, 민가에서는 술을 빚을 때 생화를 솔잎과 함께 직접 버무려



〈국화주〉
1 고두밥
2 누룩 첨가
3 술밑 빚기
4 술밑 안치기
5 발효된 밑술
6 국화, 지골피, 구기자, 지황
7 국화주의 주재료 달이기
8 덧술용 고두밥에 물 섞기
9 술거리 만들기
10 술밑 빚기(덧술용)
11 술밑 안치기(덧술용)
12 발효중인 국화주
한국전통주연구소

넣기도 하며, 국화 외에 숙지황, 구기자, 지골피를 함께 넣어 향기와 약효를 즐기기도 한다.

이러한 국화주는 향기도 으뜸이거니와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청혈해독(淸血解毒)과 말초 혈관 확장의 효능이 있어 예부터 장수주로 사랑받아왔다.

참고문헌 | 閨閣叢書, 金承旨宅酒方文, 是議全書, 高麗以前의 韓國食生活史硏究(李盛雨, 鄕文社, 1978), 韓國民俗大觀2(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1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名家銘酒(박록담, 효일문화사, 1999), 다시 쓰는 酒方文(박록담, 코리아쇼케이스, 2005).

필자 | 박록담(朴碌潭)

밤떡[栗糕]

정의 찹쌀가루에 삶아 으깬 밤을 넣어 버무린 후 잣을 고명으로 얹어 찐 떡으로 중양절의 절식. 율고(栗糕) 또는 밤가루 설기라고도 부른다.

유래 음력 9월 9일은 일년 중 양수가 겹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중양절이라 하여 명절로 지켜오고 있다. 중양절에는 국화주를 마시기도 하고 밤떡을 만들어 먹었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마한조(馬韓條), 『후한서(後漢書)』, 『수서(隋書)』, 『북사(北史)』 등의 문헌에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좋은 밤이 산출된다고 하였다. 고려에서는 밤을 도기에 넣어 흙 속에 묻어두고 여름에도 먹었다고 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처럼 밤을 저장하여 사철 여러 가지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거가필용(居家必用)』에 고려율고라는 떡이 나오고, 『해동역사(海東繹史)』에 고려인이 율고를 잘 만든다고 칭송한 견문이 소개되고 있다.

내용 밤떡 만드는 법은 찹쌀을 깨끗이 씻은 후 물에 불려서 건져 소금 간을 하여 곱게 빻은 찹쌀가루 세 컵을 준비한다. 밤 20개에 물을 붓고 푹 삶은 후 뜨거울 때 반으로 갈라 살을 수저로 떠낸 후 방망이로 으깨거나 체에 내린다. 찹쌀가루에 밤 으깬 것과 설탕 세 큰 술, 계핏가루를 섞어 찜기에 안쳐 윗면을 고르게 하고, 잣 두 큰 술을 고명으로 뿌린 후 김이 오른 찜통에서 30~40분 정도 쪄서 만든다. 고려의 밤떡은 밤 껍질을 벗겨서 그늘에서 말린 다음 빻아서 가루로 만든 밤가루 3분의 2에다가 찹쌀가루를





1 밤떡
2 유자화채
궁중음식연구원

넣어 반죽하고 꿀물을 바른 다음 쪄서 익혀 먹었다.

밤떡은 주로 찹쌀가루를 이용하나 찹쌀가루대신 멥쌀가루를 사용한 경우도 있고 고명으로 수박씨를 함께 쓰기도 한다. 밤은 곡식에 가까운 성분으로 당질이 주성분이며, 당질의 소화율도 높다. 비타민C, 베타카로틴, 칼슘, 철과 같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 있어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다.

참고문헌 | 居家必用, 北史, 三國志, 隋書, 海東繹史, 後漢書,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음식용어(尹瑞石, 民音社, 1991), 한국음식대관3-떡·과정·음청-(강인희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술과 전통음식(정영기 외, 세종출판사, 2004).
필자 | 이영옥(李永玉)

유자화채(柚子花菜)

정의 유자껍질을 까서 얇게 잘라 채 썰고 배도 채 썰어 넣은 것. 후식에서 빠지지 않던 전통음료이다. 화채는 오미자 국물이나 과즙 또는 꿀물이 기본이 되고 여기에 띄우는 과일이나 꽃잎에 따라 화채 이름이 달라진다.

내용 유자를 주재료로 한 음식에는 유자화채 외에도 유자청, 유자차, 유자정과, 유리류정과(柚梨榴正果), 유자단자, 유자된장이 있다. 유자화채 만드는 법은 『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廷料理通攷)』에 소개되어 있다.

유자화채는 유자 껍질을 4등분하여 속을 다치지 않게 껍질을 벗기고, 속 알맹이를 한 조각씩 떼어 흰 줄기는 떼어내고 씨를 빼낸다. 이것을 몇 개로 나누어 설탕에 재우고, 유자껍질은 흰 부분과 노란 부분으로 갈라 채로 썰고, 배는 얇게 저며 채로 썰어 설탕에 재운다. 화채그릇에 채 썬 유자와 배를 세 군데로 갈라 담고, 석류 알과 잣을 가운데 담아 설탕물을 붓는다. 석류 알과 잣이 보석처럼 떠 있어 매우 아름다우며 향기가 일품이며 맛도 있다.

의의 시원하고 깔끔한 맛과 더불어 유자는 피로 회복에 좋고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며,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 시켜주고 중풍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참고문헌 | 李朝宮廷料理通攷(韓熙順 외, 學叢社, 1957), 한국의 전통음식(황혜성 외, 敎文社, 1989), 韓國人의 保養食(姜仁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2), 한국음식대관6-궁중의 식생활·사찰의 식생활-(황혜성 외,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7), 한국의 떡·한과·음청류(윤숙자, 지구문화사, 1998).
필자 | 윤숙경(尹淑璟)

등고(登高)

정의 음력 9월 9일 중양절(重陽節)에 높은 곳에 올라 단풍이 든 풍경을 보고 즐기며 시와 술을 함께 나누는 풍속. 단풍놀이[楓菊]로서 국화놀이, 중양(重陽)놀이, 중양풍채유(重陽楓菜遊), 시회(詩會)라고도 한다.

유래 중국 남조(南朝)의 양(梁)나라 사람 오균(吳均)이 지은 『속제해기(續齊諧記)』에 따르면 등고의 풍속은 후한(後漢) 때 사람인 환경(桓景)의 고사에서 비롯되었다. "여남(汝南) 사람 환경이 은사(隱士)로 이름난 비장방(費長房)을 따라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하였는데, 비장방이 말하기를 '9월 9일에 너희 집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니, 어서 가서 집안 사람들에게 각각 붉은 주머니를 만들게 하고 수유(茱萸)를 가득 채워 팔에 메고, 높은 곳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면 이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환경이 비장방의 말대로 모든 가족을 이끌고 산에 올라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 보니 닭, 개, 소, 양 등이 모두 죽어 있었다. 비장방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그것들이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요즘 사람들이 9월 9일에 산에 올라 술을 마시고 여자들이 수유 넣은 주머니를 차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었다(汝南桓景 隨費長房遊學累年 長房謂曰 九月九日 汝家中當有災 宜急去 令家人各作絳囊 盛茱萸以繫臂 登高飮菊花酒 此禍可除 景如言齊家登山 夕還 見鷄犬牛羊一時暴死 長房聞之曰 此可代也 今世人九日登高飮酒 婦人帶茱萸囊 蓋始於此)."라고 한다.

경치가 좋은 때인 9월 9일에 높은 곳에 오르는 일은 이 고사보다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 여겨지며, 두보(杜甫)와 왕유(王維)를 비롯한 중국의 많은 시인묵객들이 등고와 관련된 시를 남겼다.

내용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서 "단풍이 들고 국화가 만발할 때 사람들이 놀고 즐기는 것이 봄에 꽃과 버들을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사대부 가운데 옛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개 중양일에 높은 곳에 올라 시를 짓는다(秋菊時 士女遊賞 略似花柳 而士大夫好古者 多以重陽日登高賦詩)."라고 하였다.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秋齋集)』에도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 모임을 하고 국화주를 마시는데 국화를 차는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人作登高會 飮菊花酒 謂之佩菊佳節)."라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때가 단풍이 드는 철이어서 산에 올라 단풍 구경하기에 좋다. 따라서 고려시대 이후의 많은 시에서 환경의 고사에 나오는 수유라든가 국화주, 등고하는 일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편 이문건(李文楗)이 쓴 『묵재일기(默齋日記)』에서도 중구일(重九日)에 감사(監司), 성주(城主)와 함께 북봉(北峰)에 올라 밤까지 술을 마셨다던가(1554년), 일가가 모두 모여 등고회를 벌였다는(1562년)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이날에 좋은 경치를 보며 시를 짓고 술을 마시던 일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김종직(金宗直)이 허학장(許學長)에게 답하는 시를 지어 "중구일에 제운루에서 멀리 바라보니, 동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술을 마시는데, 저 물녘에 이르니 혹은 앉았고 혹은 서 있고 혹은 부축하여 산을 내려오기도 하고 혹은 서로 베고 누워있기도 하여, 바라보기에 마치 그림 같구나(重九 齊雲樓 遙見 東山頂 野人登臨 飮酒 至薄暮 或坐或立 或扶携下山 或偃臥枕籍 望之如畫)."라고 하여 등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서울 풍속에 남산과 북산에 올라 먹고 마시며 즐기는데 이는 등고의 옛 풍속을 따른 것이다. 청풍계, 후조당, 남한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이 단풍 구경에 좋다(都俗登南北山 飮食以爲樂 蓋襲登高之古俗也 靑楓溪 後凋堂 南北漢 道峯 水落山 有賞楓之勝)."라고 하여, 서울의 단풍 구경에 좋은 산들을 소개하고 있다.

의의 높은 곳에 올라 가을을 즐기는 일은 환경의 고사와 함께 재액(災厄)을 피하고 장수(長壽)를 바라던 것으로 기억되어온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철 단풍 구경과 함께 시와 술을 즐기는 일로 전해져 왔다. 절일로서 중구의 의미는 점점 약해졌지만 이때의 풍습은 가을철의 단풍놀이로 이어져오고 있다.

참고문헌 | 東國歲時記, 默齋日記, 續齊諧記, 洌陽歲時記, 佔畢齋集, 秋齋集.

필자 | 김종태(金鍾泰)



등고 『조선의 연중행사』 조선총독부

벽골제쌍룡놀이(碧骨堤雙龍-)

정의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용골마을에서 전승되는 민속놀이. 자신을 희생하여 벽골제(碧骨堤)를 지키고자 했던 단야(丹若)낭자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놀이로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행해지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한국 최대(最大)이고 최고(最古)의 수리시설인 벽골제가 있는 김제는 우리나라 도작문화(稻作文化)의 발생지로 농경문화를 꽃 피워온 곳이다. 전북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용골마을에서 소박하게 전승되고 있던 벽골제쌍룡놀이는 김제문화원과 김제군이 1960년 음력 9월 9일 '김제군민의 날'에 개최한 향토축제에서 현지 마을의 전설과 놀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이 재현되었다. 이후 김제의 대표적인 놀이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현재는 김제지평선축제의 주요 행사로 전승되고 있다.

벽골제에 관한 전설을 놀이로 형상화한 쌍룡(雙龍)놀이가 김제지방의 특색 있는 민속놀이로 부각되어, 1975년 9월 제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민속놀이 부분 문공부장관상(지금의 문화관광부장관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에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되었다.

내용 쌍룡놀이의 모태가 되고 있는 단야낭자의 전설이 전해오는 벽골제는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 축조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저수지로, 충북 제천의 의림제(義林堤), 경남 밀양의 수산제(水山堤)와 함께 삼한시대의 3대 수리시설 중 하나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 「신라본기(新羅本紀)」2 흘해이사금(訖解尼師今) 21년조에, "처음으로 벽골지(碧骨池)를 개착(開鑿)하니 언덕 길이가 1,800보(步)이다(二十一年 始開碧骨池 岸長一千百步)."라고 하여 330년에 신라에서 만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벽골제의 축조는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인위적으로 가두어 두었다가 농번기에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짓기 위함으로, 그 방대한 규모는 당시의 토목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벽골제 전설에 의하면, 현재 전북 김제시 월촌동과 김제시 부량면의 경계를 이루는 원평천을 가로막은 벽골 제방에서 약 2백 미터 하류 지점의 신털미산[草鞋山] 북쪽 끝에 있는 커다란 웅덩이인 용추(龍湫)에 백룡(白龍)이 살면서 벽골제를 수호하였는데 사람들은 이 용을 벽골룡이라 불렀다. 한편 벽골제 중간 제방 약 1백 미터 하류지점인 부량면 용골마을 남단의 연포천(蓮浦川)에는 청룡(靑龍)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가리켜 쌍룡추(雙龍湫)라 하고 백룡과 청룡을 쌍룡이라고 불렀다.

백룡은 온후(溫厚)하여 인명을 수호하고 제방을 지켜주며 재난에서 인간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청룡은 본래 성질이 사납고 이따금 비바람에 의한 재난을 일으켜 제방과 가옥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명까지도 해치고 있었다. 이에 이웃에 살고 있는 백룡이 충고하였으나 청룡의 난폭한 행동은 계속되었고 끝내는 쌍룡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붕괴 직전에 놓인 벽골제 보수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청룡은 안전한 축제(築堤)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보장하며 김제태수(金堤太守)의 외동딸 단야의 목숨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결국 단야낭자는 수많은 장정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쌓은 벽골제를 지키고, 김제 만경평야의 풍년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게 되고, 이러한 단야의 거룩한 희생정신에 감복한 청룡은 물러나고 인신 제물의 악습도 없어지게 되어 평화를 찾게 되었다고 한다.

놀이의 내용을 보면, 쌍룡놀이는 벽골제에 전승되는 단야낭자의 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축제공사 현장 - 쌍룡놀이 - 단야의 희생 - 단야의 소생 순으로 전통 방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놀이에 등장하는 쌍룡 및 의상과 도구들 모두 전통 쌍룡놀이에 근거하여 그대로 제작하였다.

제1장 축제 공사 현장에서는 청룡의 심술로 어렵게 쌓아올린 벽골제가 무너져내린다. 이때 국가에서 기술자 원덕랑을 파견하여 김제태수와 인부를 동원하여 보수공사를 한다. 김제태수 유품(由品)은 원덕랑을 도와 인부들을 독려하고, 둑을 쌓기 위해 인부들은 토석을 운반하면서 말박기 노래를 부른다. 이때 부르는 말박기 노래는 다음과 같다.

어야라 동동 상사도야 들어라 동동 상사도야
얼럴럴 상사도야 얼럴럴 상사도야
삼백근 몽기가 상하를 물고
얼럴럴 상사도야 얼럴럴 상사도야
삼발대 밑에서 벌나듯 한다.
얼럴럴 상사도야 얼럴럴 상사도야
열두자 말을 박을라면
얼럴럴 상사도야 얼럴럴 상사도야
우리네 인부들 욕들보겠네. (후략)



쌍룡놀이
전북 김제 KOIS

제2장 쌍룡놀이는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 먹구름이 일고 천둥과 번갯불이 일며 비바람이 몰아닥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동편에서 청룡이 괴성을 지르며 공사장에 나타난다. 놀란 사람들이 원덕랑을 원망하면서 도망가고, 서편에서 백룡이 고갯짓을 하면서 청룡이 있는 곳으로 다가온다. 백룡은 둑을 수호하기 위해 몇 번인가 청룡을 달래보지만 포악한 청룡은 듣지 않고 둑을 무너뜨리려 한다. 결국 백룡과 청룡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끝내는 백룡이 당하지 못하여 패하고 다시 서편으로 사라진다.

제3장 단야의 희생에서는 승리한 청룡이 완공되어 가는 둑을 무너뜨린다. 이때 이속(吏屬)이 앞에서 지휘하며 교자상에 보쌈한 여인(월내)을 싣고 청룡 앞으로 다가온다. 청룡 앞에 여인을 내려놓고 이속들은 포대를 벗긴다. 이윽고 포대가 벗겨지는 순간 월내낭자가 아닌 태수의 딸 단야임을 알자 이속들은 놀라며 뒷걸음질로 도망친다. 이때 단야의 창이 나온다. 창이 끝날 무렵 단야는 먼저 부모님께 비통하게 고별 인사를 올린다. 원덕랑과 월내가 결혼하여 누대토록 영화를 누리라고 축원한 뒤 스스로 제물이 되고자 서서히 청룡 앞으로 다가가다 쓰러진다. 이러한 단야의 태도를 지켜보던 청룡은 단야의 의에 감화되어 머리를 끄덕이고 뒤로 사라진다.

마지막 제4장 단야의 소원무에서는 단야가 기절한 뒤 김제태수 유품이 뒤늦게 이속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달려온다. 다행히 단야가 죽지 않고 기절해 있음을 확인한 태수는 딸을 얼싸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단야의 거룩한 정성에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단야는 의식이 들자 아버지 품안에서 머리를 묻고 감회 어린 울음을 터뜨린다. 이때 이속들과 몸종 다복이 그리고 인근에 있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모여들어 단야의 의로운 치성에 천우신조가 있었다면서 감격한다. 잠시 후 이 고을은 경사를 맞은 듯 백성들이 농악을 치고 농부가를 부르며 군무로 막을 내린다.

의의 벽골제 주변에 전승되는 설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쌍룡놀이는 논농사 초기에 발생한 향토신사(鄕土神祀)로 생각된다. 수리관개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일로 전국에서 가장 기름지고 넓은 호남평야의 한가운데 있는 벽골제의 위상은 특히 높았다. 쌀을 많이 생산해야만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국가의 기틀이 튼튼해지므로 벽골제의 중요도는 매우 높았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던 벽골제를 둘러싸고 전승되던 제방공사와 용의 이야기에 후대에 와서 인간들의 애정 갈등이 추가되고 함께 얽혀지면서 놀이화한 것이다. 따라서 벽골제의 수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 여인의 정신을 기리는 제사를 모시고,

농사에서 중요한 비를 관장하는 신격(神格)인 용을 등장시켜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있는 쌍룡놀이가 9월 9일에 놀아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벽골제사(정진형, 대흥출판사, 198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4(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지역축제(문화체육부, 1996), 전라북도의 민속예술(전라북도, 1997).
필자 | 한미옥(韓美玉)

구월 군두 조금에 사돈네 빚 갚는다

정의 음력 9월 9일(중양절) 조금 무렵이면 낚시질로 고기를 많이 잡으므로 빚도 갚게 된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이 속담이 주로 통용되는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지방으로 어촌 지역에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구월 조금은 음력 9월 9일 물때가 조금인 날을 말한 것이지만, 군두의 어원과 뜻은 확실치 않다. 조금은 조석(潮汐)의 간만 차가 가장 적은 때로 소조(小潮)라고도 한다. 해수면의 조차(潮差)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음력 한 달을 주기로 달의 위치에 따라 매일 조금씩 달라진다. 조차는 초승달과 보름달일 때 최대가 되고, 달이 하현 또는 상현일 때 최소가 되는데, 조차가 가장 작을 때가 조금이며 가장 클 때가 사리이다. 그런데 음력 9월 9일은 물 수(數)로 조금 뒷날에 해당되므로 조석차(潮汐差)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된다.

의의 어류(魚類)는 일반적으로 해수의 조석차가 적은 물때에 연안(沿岸)에 내유(來游)하는 습성이 있어, 조금 무렵에는 낚시 어기(漁期)와 정치성(定置性) 어기(漁期)에 알맞으며, 특히 입조시(入潮時)의 어획(漁獲)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속담은 어업의 최적기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어촌에서 해야 할 일을 말한 것이다. 적기에 꼭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사돈의 빚까지 갚을 정도로 부유해질 수 있음을 강조한 속담이다.

참고문헌 | 漁村俗談集(全羅南道, 1980), 한국민속대사전1(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4), 한국속담·성어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김경섭(金鏡燮)

심방의 본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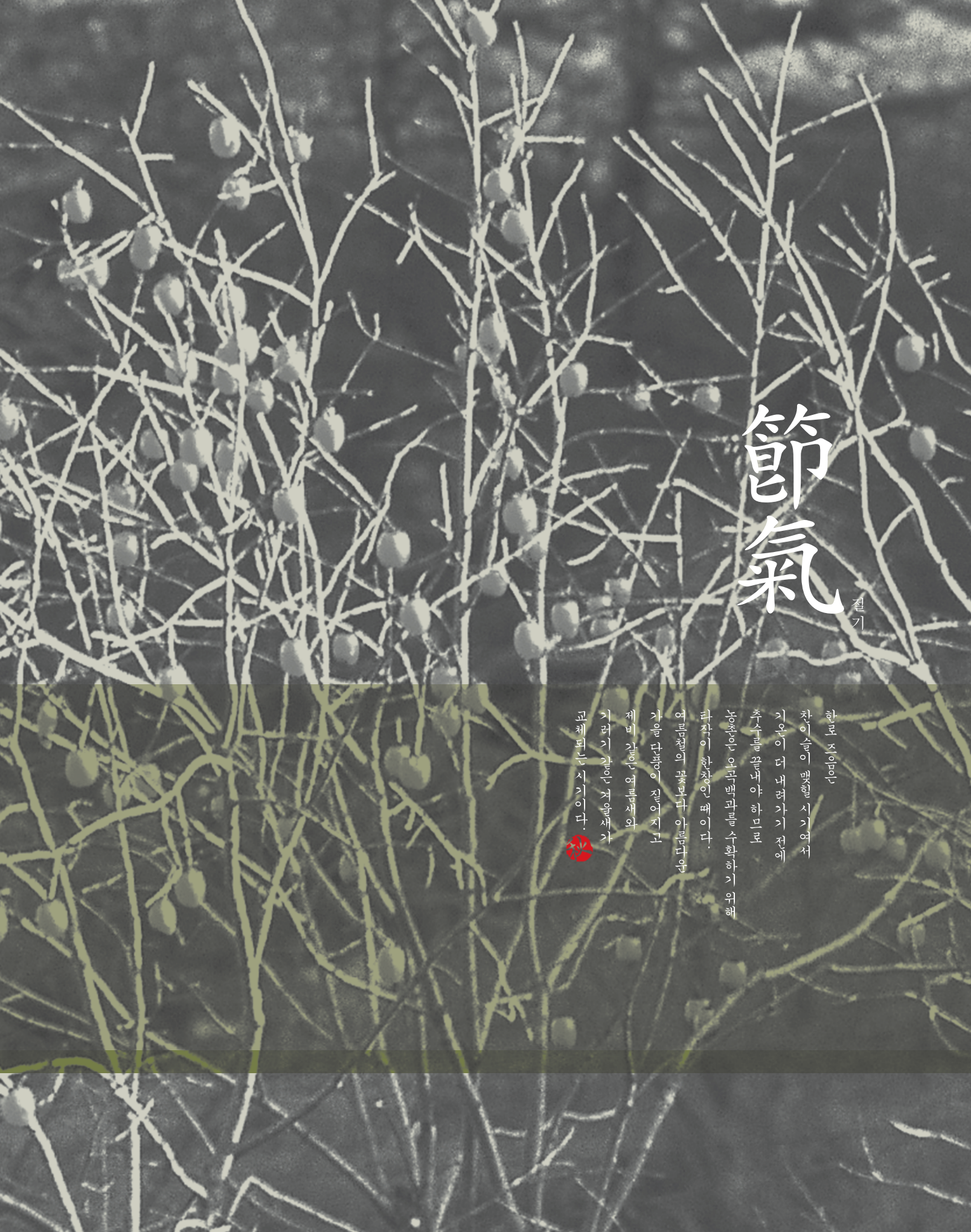
정의 제주도 심방의 시조신(始祖神)인 삼시왕(명도조상)의 탄생일. 음력 9월 28일로 정해져 있으며, 심방의 명절날이라고 한다.

유래 심방들은 본명일에 자신의 집에서 사흘 간의 큰굿을 하는데, 굿의 내용은 심방의 신화적 탄생담인 초공본풀이를 토대로 한다. 초공본풀이에서 자지명왕애기씨가 천하일색이라, 삼신산 주자선생인 대서중은 그 미모에 반하여 권제를 받으러 간다는 핑계를 하고 그에게 잉태시킨다. 그 후 애기씨는 음력 9월 8일과 18일, 28일에 오른쪽과 왼쪽, 앞가슴을 헤쳐서 각각 아들 삼형제를 보게 되었다. 이 삼형제는 나중에 저승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가 저마다 소임을 맡았는데 큰아들은 정시질[風水]을, 둘째아들은 축문질[祝文]을, 막내아들은 심방질[巫業]을 맡았다. 이들은 저승에 올라가 저승삼시왕의 신격이 된다. 이들을 또한 심방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심방의 집에 수호신을 모신 '당주'가 있는데 이들을 이 당주에 보관하고 있는 무구(巫具)인 명도의 수호신이며 조상으로 모시기 때문이다.

내용 음력 9월 8일과 18일에 심방들은 저녁에 자신의 집에 있는 당주에 술을 올리는 간소한 제의를 하고, 28일에는 이들 삼형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본격적인 큰굿으로 사흘 간 제의를 베푼다. 음력 9월 28일에 심방들은 망양대(대통기)라는 큰 깃대를 세워 놓는데, 동네 단골들은 전부 부조를 한다. 부조를 하고 굿을 구경하다가 떡도 얻어먹는다. 만약 이날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심방에게 부조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 집에 가환이 생겨 심방을 청하고 싶어도 청할 수 없게 된다. 이날의 심방굿은 심방이 거느린 단골의 규모를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또한 심방과 단골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이다. 본명일에 하는 심방굿은 또 다른 굿과 달리 심방이 마을 공동체에 소속된 세습무로서의 직분을 공공연하게 재천명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秋葉隆, 조선총독부, 1937), 南國의 民俗(진성기, 교학사, 1975), 濟州島巫俗資料事典(玄容駿, 新丘文化社, 1980).
필자 | 김성례(金成禮)





節氣 절기

한로 즈음은
찬이슬이 맺힐 시기여서
기운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므로
농촌은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타작이 한창인 때이다.
여름철의 꽃보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짙어지고
제비 같은 여름새와
기러기 같은 겨울새가
교체되는 시기이다.



한로 풍경 이억영

한로(寒露)

정의 24절기 가운데 17번째 절기로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의 절기. 한로(寒露)는 양력 10월 8~9일 무렵이 입기일(入氣日)이며 태양이 황경 195도의 위치에 올 때이다. 음력으로는 9월의 절기로서 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이슬(한로)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이다.

내용 중국 사람들은 한로 15일 간을 5일씩 끊어서 3후(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기러기가 초대를 받은 듯 모여들고, 중후(中候)에는 참새가 줄고 조개가 나오며, 말후(末候)에는 국화가 노랗게 핀다고 하였다.

『고려사(高麗史)』 권50 「지(志)」4 역(曆) 선명력(宣明曆) 상(上)2의 한로 관련 기록을 보면 "한로는 9월의 절기이다. 괘(卦)는 태(兌) 구삼(九三)이다. 초후에 기러기가 와서 머문다. 차후(次候)에 참새가 큰 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 말후에 국화꽃이 누렇게 핀다(寒露 九月節 兌九三 鴻鴈來賓 雀入大水化爲蛤 菊有黃華)."라고 하여 중국의 기록과 비슷하다.

한로 즈음은 찬이슬이 맺힐 시기여서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므로 농촌은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타작이 한창인 때이다. 한편 여름철의 꽃보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짙어지고, 제비 같은 여름새와 기러기 같은 겨울새가 교체되는 시기이다.

한로는 중양절과 비슷한 시기에 드는 때가 많아 중양절 풍속인 머리에 수유(茱萸)를 꽂거나, 높은 데 올라가 고향을 바라본다든지 하는 내용이 한시(漢詩)에 자주 나타난다. 높은 산에 올라가 머리에 수유를 꽂으면 잡귀를 쫓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수유열매가 붉은 자줏빛인데 붉은 색은 양(陽)색으로 벽사력(辟邪力)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로와 상강(霜降) 무렵에 서민들은 시식(時食)으로 추어탕(鰍魚湯)을 즐겼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미꾸라지가 양기(陽氣)를 돋우는 데 좋다고 하였다. 가을에 누렇게 살찌는 가을 고기라 하여 미꾸라지를 추어(鰍魚)라 한 듯하다.

의의 전통 농경사회에서 자연 현상에 의한 기후의 변화는 매년 농사에 매우 중요했으며 정확해야 했다. 그래서 태양력을 이용한 이른바 24절기가 활용되었다. 음력이 윤달을 두어서 한 달씩 날짜가 밀릴 수 있다는 점에 비해, 24절기는 계절의 추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농민으로서 이것을 아는 것을 "철을 안다"고 했고 "철을 안다"든가 "철이 났다"든가 하는 말은 소년이 성인이 되고, 또한 성숙한 농군이 됐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24절기를 많이 사용하였던 우리의 재래 역법은 순수한 음력이 아니라 이른바 태음태양력이다. 한로는 입추(立秋), 처서(處暑), 백로(白露), 추분(秋分), 상강과 함께 가을 절기에 해당되며, 세시명절이라기보다는 다만 기후의 변화를 읽는 절기로 유용했다.

참고문헌 | 高麗史, 本草綱目,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 편-(국립민속박물관, 2003).

필자 | 천진기(千鎭基)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

정의 제비가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뜻으로 한로(寒露)가 추워지는 기점임을 강조한 속담.

내용 제비는 음력 삼짇날(음력 3월 3일)에 강남에서 왔다가 한로(양력 10월 8일 무렵)가 지나 선선해지면 강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여기서 강남은 중국 양쯔강 남쪽을 말한다. 봄에 왔던 철새들이 돌아가는 기준 시점이 한로가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한편 제비가 청명(양력 4월 5일 무렵)에 왔다가 한로에 간다는 속담도 있다. 이 속담에서도 제비가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한로로 동일하다.

유사속담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 "한로가 지나면 제비는 강남으로 가고, 기러기는 북에서 온다.", "제비가 오면 기러기가 가고, 기러기가 오면 제비는 간다."가 있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동물속담사전(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7), 속담사전(임동권, 민속원, 2002).
필자 | 김경섭(金鏡燮)

상강(霜降)

정의 음력 9월에 드는 24절기의 하나로서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

내용 상강은 한로(寒露)와 입동(立冬) 사이에 들며, 태양의 황경이 210도에 이를 때로 양력으로 10월 23일 무렵이 된다. 이 시기는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에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는 때이다. 따라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한다.

이때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국화도 활짝 피는 늦가을의 계절이다. 중구일과 같이 국화주를 마시며 가을 나들이를 하는 이유도 이런 계절적 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상강에 국가의례인 둑제[纛祭]를 행하기도 했다. 특히 농사력으로는 이 시기에 추수가 마무리되는 때이기에 겨울맞이를 시작해야 한다. 권문해(權文海)의 『초간선생문집(草澗先生文集)』을 보면 상강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다.

"한밤중에 된서리가 팔방에 두루 내리니, 숙연히 천지가 한번 깨끗해지네. 바라보는 가운데 점점 산 모양이 파리해 보이고, 구름 끝에 처음 놀란 기러기가 나란히 가로질러 가네. 시냇가의 쇠잔한 버들은 잎에 병이 들어 시드는데, 울타리 아래에 이슬이 내려 찬 꽃부리가 빛나네. 도리어 근심이 되는 것은 노포(老圃)가 가을이 다 가면, 때로 서풍을 향해 깨진 술잔을 씻는 것이라네(半夜嚴霜遍八紘 肅然天地一番淸 望中漸覺山容瘦 雲外初驚雁陳橫 殘柳溪邊凋病葉 露叢籬下燦寒英 却愁老圃秋歸盡 時向西風洗破觥)."

중국에서는 상강부터 입동 사이를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누어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를테면 초후(初候)는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는 때, 중후(中候)는 초목이 누렇게 떨어지는 때이며, 말후(末候)는 겨울잠을 자는 벌레들이 모두 땅속에 숨는 때라고 한다. 김형수(金逈洙)의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에도 한로와 상강에 해당하는 절기의 모습을 "초목은 잎이 지고 국화 향기 퍼지며 승냥이는 제사하고 동면할 벌레는 굽히니"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 중국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菊花송이에 서리가…오늘 霜降
한국일보 1969년 10월 23일

菊花송이에 서리가…오늘霜降

23일은 霜降—국화송이에 서리가 맺혔다. 보름후면 입동(立冬), 주부들은 김장, 겨우살이 준비에 일손이 바빠진다. 중앙관상대는 앞으로 2, 3일 계속 맑은날씨를 보이다가 25일께부터 기압골의 통과로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예년과비슷한 최고20도, 최저 9도정도.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대세시기 I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 문집 편-(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 김종대(金宗大)

둑제[纛祭]

⇨ 둑제[纛祭]: 봄편


상강 풍경 이억영





月內

월내

구월에 갈가마귀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듬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암컷이 많이 날면
이듬해의 농사가 풍년이고
수컷이 많이 날면
이듬해의 농사가 흉년이라고 한다.

뒷할망제

⇨ 철갈이: 가을편

숭선전제례(崇善殿祭禮)

⇨ 숭선전제례(崇善殿祭禮): 봄편

이제(禰祭)

정의 음력 9월 중에 길일을 택하여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올리는 계절 제사. 아버지를 모신 가묘를 이(禰)라고 하는데, 가깝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禰者近也). 이(禰)는 '예'라고도 읽으므로 '예제'라고도 한다. 장자가 주제(主祭)하며 다른 형제나 자손들은 제사에 참여하기는 하나 제사를 주관하지 못한다.

유래 이제는 원래 돌아가신 부모의 생일에 지내는 제사이다. 정자(程子)에 의하면 이제를 계추(季秋) 곧 9월에 올리는 시제라고 한 것은 이때가 만물이 이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祭禰於季秋者 以其成物之始 而象其類之義也). 제일(祭日)은 9월 상정(上丁) 또는 중정(中丁)으로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느 특정한 날로 정해진 바는 없다. 주자(朱子)는 모씨가 자신의 생일인 9월 15일에 이제를 지냈던 것을 좇아 이때 지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9월 15일이 주자 자신의 생일이라는 기록도 있다.

내용 조선시대 내내 실제 관행으로는 거의 이행되지 않았고, 예서(禮書)에만 언급되어온 제례의 한 종류이다. 주자의 『가례(家禮)』에 따르면 사당제(祠堂祭), 사시제(四時祭), 이제(禰祭), 기일제(忌日祭), 묘제(墓祭) 같은 다섯 종류의 제례가 있는데, 이 중에 사시제, 이제, 기일제만 정침(正寢)에서 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시제와 기일제의 대상은 고조 곧 4대까지인 반면에 이제는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시제는 2, 5, 8, 11월에, 이제는 9월에 지내고 둘 다 고비합설(考妣合設)로 지낸다고 하였다. 제삿날을 따지지 않는다면 삼년상 기간에, 또는 그 이후 3년 간 관행으로 행해진 부모 생신에 지내는 생일제(生日祭)를 이제라고도 볼 수 있다.

예서에 나타난 이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를 지내기 한 달 전 하순에 날짜를 점쳐 제일을 정한다. 9월의 상순, 중순,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중 하루를 정한다. 사흘 전부터 재계하고 하루 전날 정침에 자리를 마련한다. 이튿날 해가 뜰 때 사당으로 가서 재배하고 안으로 들어가 분향한 다음 고사(告辭)를 한다. 이어 신주독을 정침으로 옮긴 다음 주인은 고위의 신주를, 주부는 비위의 신주를 내어 모신다. 그 다음은 일반적인 제사의 순서에 따라 참신(參神), 강신(降神), 진찬(進饌), 초헌(初獻), 고축(告祝), 아헌(亞獻), 종헌(終獻), 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수조(受胙), 사신(辭神), 납주(納主), 철상(撤床) 그리고 준(尊: 음복)의 절차를 따라 행한다.

이제축문(禰祭祝文)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을이 되어 만물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때를 맞아 추모하옵는 마음이 하늘과 같이 넓고 한없이 지극합니다(今以季秋 成物之始 適丁顯考 降生之辰 感時追慕 昊天罔極 敢以淸酌 庶羞祗薦歲事 尙 饗)."

변천 및 현황 택당(澤堂) 이식(李植)은 마음은 있으면서도 미처 행하지 못한 것은 9월의 이제라고 하였다. 도암(陶菴) 이재(李縡)는 주자의 예에 따라 자신도 이제를 지내야겠다고 하였다. 또한 어떤 이는 제사를 통해 부모를 한 번 더 기리는 의미로 이제를 지내고 싶었지만 선례가 없어 선뜻 지낼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 사대부들도 이제에 대해서는 실행에 옮길 만한 확고한 기준과 사례가 없어서 공식적인 제사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관습조사보고서(慣習調査報告書)』에도 이제 시행은 상류층에 간혹 보일 뿐 중류 이하 층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삼년상 기간 동안 부모 생일에 생일제를 지내는 관습이 있고, 간혹 3년을 더 연장하거나 자기 대(代) 내내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는 9월을 강조한 정자의 설과 다른 데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관행으로 이어져온 이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례의 간소화를 강요한 일제강점기와 이후의 근대화 추세를 반영하면서 거의 모든 가정에서 가례의 하나로 지내는 예를 찾기 힘들어졌다.

의의 이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강조하고 확대하던 조선시대에도 널리 행해지지 않았던 의례다. 이제가 그 기원부터 불분명하고 제사일도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 데다가 이전의 사례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애틋한 정때문에 이를 지내려고 시도한 자들도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같은 이유이다.

참고문헌 | 陶菴先生集, 同春堂先生文集, 澤堂集, 朽淺先生集, 慣習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編, 19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8(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정승모(鄭勝謨)

철갈이

정의 '철'은 계절이라는 뜻이요, '갈이'는 바뀌다는 뜻이니,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행하는 제의라는 의미. 이는 곧 계절이 바뀜에 따라 새 곡식으로 장만한 음식을 부모나 조상, 집안의 뒷할망, 당신(堂神)에게 올려 바치는 음식이자 제의라는 말이다. 집안의 뒷할망에게 제의를 지내는 경우 뒷할망제, 구월뒷할망제, 밧칠성제라고도 한다.

내용 철갈이는 집 울타리 안 뒤곁에 뒷할망 또는 밧칠성이라 부르는 뱀신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 지낸다. 뒷할망의 신체는 오곡의 씨를 넣은 기와 한 장을 지면에 놓고 그 위에 다시 기와 한 장을 덮은 후 띠를 엮은 칠성가리를 기와 위에 덮은 것이다. 9월 철갈이 때 칠성가리를 열고 기왓장 속 오곡의 씨를 새 곡식으로 갈아 넣고, 제물로 떡, 밥, 채소(콩나물), 감주나 술 한 병, 과실, 쌀과 서숙을 한 보시기씩 올린다. 그리고 문신이나 조왕과 같은 울타리 안의 여러 신들에게 문전철갈이 때와 같이 안전을 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하는 철갈이는 새 곡식을 수확하는 음력 5월과 9월 두 차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봄에는 보리쌀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하고 가을에는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철갈이를 한다.

5월의 철갈이 음식으로는 개역을 꼽을 수 있다. 개역이란 보리를 솥뚜껑에서 볶아 맷돌로 갈아 만든 가루로 볶은 보릿가루이다. 이는 미숫가루와 비슷하다. 며느리의 경우 자식된 도리로서 시부모님께 이러한 개역을 만들어 올리지 않으면 '보릿가루도 한 줌 안주는 며느리'라고 야단을 맞게 된다.

9월 본향당신에 바치는 철갈이로는 가을 추수의 햇곡식이 쓰인다.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 본향당에서는 11월에 철갈이를 한다.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의 큰물당은 철갈이 하는 방법이 다르다. 음식을 만들어가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논밭에서 수확한 이삭을 베어 묶은 채로 당신에게 올리는 것이다.

의의 철갈이는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새로운 곡물을 가지고 인간이 맛보기 전에 '고장쏠[米穀]'로 조상님께 올려 바치는 자손들의 정성이다.

참고문헌 |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秦聖麒, 민속원, 1991).
필자 | 진성기(秦聖麒)

철물이굿

☞ 철물이굿: 봄편

칠사(七祀)

☞ 칠사(七祀): 봄편

갈가마귀점

정의 9월에 갈가마귀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듬해의 풍흉을 점치는 것으로 암컷이 많이 날면 이듬해의 농사가 풍년이고 수컷이 많이 날면 이듬해의 농사가 흉년이 된다고 예언하는 새점[鳥占]의 하나.

내용 및 지역사례 갈가마귀는 참새목 까마귀과의 조류이다. 배가 흰 것이 암컷인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에서는 9월에 암컷이 많이 날면 이듬해 풍년이 들고, 수컷이 많이 날면 이듬해 흉년이 든다고 하며, 사하구 다대동에서는 중양절에 갈가마귀를 보아 흰털이 많으면 이듬해 풍년이 들고, 흰털이 적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경남 밀양에서는 갈가마귀의 배에 흰색 부분이 보이면 이듬해에 목화가 잘 된다고 여긴다.

의의 까마귀와 관련한 대부분의 농사점이 그해 농사의 풍흉에 대한 점인 데 반해, 9월에 보는 갈가마귀점은 이듬해 농사의 풍흉을 예측한다. 암컷이 많이 날면 이듬해에 풍년이 든다는 믿음은 암컷의 생산력을 풍년과 연결시키려는 기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부산의 민속문화(황경숙, 세종출판사, 2003), 한국세시풍속사전-봄편-(국립민속박물관, 2005).
필자 | 김도현(金道賢)

넌출물먹기

정의 넌출물이 속병이나 해수병(咳嗽病; 기침하는 병), 피부병에 약(藥)이 된다고 해서 받아 마시는 풍속. 주로 가을에 많이 한다.

내용 넌출이란 박, 수세미, 등(藤), 칡 등과 같이 길게 뻗어 늘어진 식물의 줄기를 말한다. 박이나 수세미를 딸 때 밭이나 담, 지붕에 있는 박넌출을 거둬버리고 넌출의 밑둥을 자르면 액이 흐른다. 이때 거기에 사발을 받치고 그 물을 받아먹으면 속병이나 해수에 약이 된다고 해서 마시는데 이를 넌출물먹기라고 한다. 이 물은 향료로도 쓰이고 해수병에 약이 된다고 해서 노인들이 즐겨 마시기도 한다.

지역사례 경남 양산시 증산리 상리마을에서는 박이나 수세미 물을 마신다. 박이나 수세미의 뿌리에 가까운 줄기를 끊어 그 물을 마시면 피부에 생긴 병과 위장병에 좋다고 전한다. 경남 함안군 칠북면 영동리 영동마을에서는 박이나 수세미의 뿌리 가까운 줄기에 있는 물을 받아 마시면 피부병이나 위장병에 좋다고 하여 마신다. 부산에서는 가을에 더위 먹은 사람이나 속병 있는 사람에게 박줄기의 물을 먹인다고 하며, 홍진(紅疹)을 하는 아이나 위장병 또는 천식을 앓는 어른들이 마시면 좋다고 한다. 또한 시든 박줄기를 뿌리로부터 가까운 데를 끊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먹으면 속앓이에 좋다고 한다.

의의 넌출물먹기 풍속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박과 수세미가 남방계 식물이기에 이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을에 박이나 수세미의 수확과 더불어 넌출물을 마시는 풍속이 민간의료적인 지식으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全羅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69),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임장혁(任章赫)


넌출물 김영광

뱀허물거두기

정의 뱀 허물의 머리 부분을 집안의 쌀독 아래에 두면 부귀해진다고 믿는 속신. 음력으로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9월에 행한다.

내용 뱀은 동면(冬眠)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허물을 벗는데, 이때 뱀의 허물 중 머리 부분을 주워 집안의 쌀독(혹은 쌀뒤주) 아래 넣어두면 반드시 그 집이 부귀해진다고 믿는다. 뱀은 허물을 벗은 뒤 머리 부분을 자신이 먹어 버리기 때문에 뱀 머리 허물은 구하기가 어렵다. 뱀이 부(富)의 가신(家神)인 업이고, 동면 이후에 먹이를 먹지 않아 그 허물을 쌀독 아래 두면 집안의 양식이 절약되어 부가 축적되리라는 주술에서 생긴 속신(俗信)이다.

또한 뱀은 동면하러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돌에 입을 닦는데, 사람이 뱀이 입을 닦은 돌을 찾아서 그 돌에 입을 대면 동면하는 뱀처럼 정월 설까지 겨우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른다고 여기고, 천석꾼이나 만석꾼의 부자가 된다고도 한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民俗大觀4-歲時風俗·傳承놀이-(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1), 부산지방의 세시풍속(김승찬, 세종출판사, 1999), 경상남도 세시풍속(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필자 | 정상박(鄭尙朴)

박속

정의 박의 속으로 만든 음식. 추수가 끝나가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박을 따다 그 속을 긁어내어 무쳐 먹는다.
내용 가을에 박이 잘 여물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바늘로 박을 찔러보아 바늘이 안 들어가면 잘 여문 것이고 잘 들어가면 덜 익은 것이다. 박속은 잘 여문 박이나 덜 여문 박 모두 먹을 수 있다.

박속을 만드는 방법은 덜 여문 박을 반으로 갈라서 수박 먹을 때처럼 숟가락으로 박속을 긁어낸 것에 소금을 살짝 뿌려 두면 물이 생기며 속살이 부드러워진다. 이것을 주물러서 씨를 빼내고 물기를 짜서 고추장, 다진 마늘, 깨소금 등을 넣고 생채로 무쳐 먹는다. 잘 여문 박을 가는 톱으로 반으로 갈라서 씨만 빼고 삶은 박속을 숟가락으로 긁어서 소쿠리에 건져서 물기를 뺀 다음 간장이나 고추장, 깨소금, 다진 마늘을 넣고 무쳐먹는 방법도 있다.

참고문헌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농작물 백가지(이철수, 현암사, 2000).
필자 | 서혜경(徐惠卿)

아욱국

정의 아욱을 넣고 끓인 토장국.
유래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자료인 『시경(詩經)』에서는 채소류 중에서 아욱을 가장 선호하여 그 밭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났을 정도라고 하였고, 후위(後魏)시대에 쓰인 『제민요술(齊民要術)』에 아욱절임[葵菹]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기록으로는 고려시대 이규보(李奎報)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후집(後集) 권4 '가포육영(家圃六詠)'에 나오지만, 그 이전부터 먹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욱국에 대한 기록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의 탕 중 규갱(葵羹)에 "아욱에 마른 새우를 넣고 장에 끓인다."라고 씌어 있다.


아욱국 궁중음식연구원

내용 아욱은 여름철부터 먹기 시작하여 가을까지 먹으며 주로 연한 줄기와 잎을 먹는다. 아욱국 만드는 법은 아욱 줄기를 꺾어 껍질을 벗기고 연한 것은 그대로 쓰고 굵은 것은 잎과 함께 바가지에 넣어 으깬 다음, 물에 씻어 푸른 물을 빼고 소쿠리에 건진다. 쇠고기는 얇게 썰어 양념하고 파도 채 썰어 놓는다. 쌀뜨물에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 걸러서 냄비에 붓고 쇠고기와 파를 넣고 끓이다가 아욱을 넣고 끓인다. 보통 가정에서는 쇠고기 대신에 마른 보리새우를 수염과 발을 떼어 넣고 아욱국을 끓이기도 한다.
의의 가을 아욱국에 관하여 "가을 아욱국은 막내 사위만 준다." 또는 "가을 아욱국은 자기 계집도 내쫓고 먹는다.", "가을 아욱국은 문 닫아 걸고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가을 아욱국은 한국인의 생활에 밀착된 음식이다.

참고문헌 | 東國李相國集, 詩經, 增補山林經濟, 韓國의 맛(姜仁姬,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8), 古代 韓國食生活史硏究(李盛雨, 鄕文社, 1992), 齊民要術-식품조리가공편 연구-(尹瑞石 共譯, 民音社, 1993),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역사(윤서석, 신광, 1999).
필자 | 서혜경(徐惠卿)

추어탕(鰍魚湯)

정의 미꾸라지[鰍魚]를 재료로 하여 끓인 국. 미꾸라지는 7월에서 11월까지가 제철로 이때가 가장 살이 찌고 맛이 좋아 가을철 시식으로 많이 이용한다.
내용 미꾸라지는 한자로 이추(泥鰌, 泥鰍) 또는 추어라고 한다. 니(泥)는 진흙 니로 진흙 속에 사는



물고기라는 의미가 있다. 『본초강목(本草綱目)』 권44 인부(鱗部)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추(泥鰍)는 못에 있다. 길이 3~4치[寸]로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 가늘고 길며, 몸의 등쪽은 청흑색이다. 비늘이 없고 미끄러워 잡기가 어렵다. 등골을 벗겨내고 국을 끓여 먹으면 맛이 있다. 본성(本性)이 상당히 강건하여 움직임이 대단히 활발하다. 추(酋)란 강하다는 뜻이 있으므로 이추(泥鰍)라고 한다. 미(味)는 감(甘)하고 성(性)은 평(平)하며, 비위(脾胃)를 따뜻하게 하여 기(氣)에 익(益)하다. 술[酒]를 깨게 하고, 당뇨병 등으로 입이 말라 물을 많이 마셔서 소변을 자주 보는 소갈(消渴)을 풀어준다. 또한 치질[痔]에 좋다."라고 하였다.

『동의보감(東醫寶鑑)』 권3 「탕액편(湯液篇)」2 어부(魚部)에도 추어(鰍魚, 鰍魚)로 기술하여, "성(性)이 온(溫)하고 미(味)가 감(甘)하며 속을 보하고[補中], 설사를 멎게 한다[止泄]."라고 함으로써, 미꾸라지가 가진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성질이 따뜻하고 몸을 보하는 미꾸라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 추어탕이 보양식의 하나로 널리 애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어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문헌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로서 「인사편(人事篇)」 복식류(服食類)에서 추두부탕(鰍豆腐湯)이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꾸라지를 물이 담긴 항아리에 넣고 하루에 3회 물을 바꾸어 준다. 이렇게 5~6일 계속하면 진흙을 다 토해낸다. 솥에다 두부 몇 모와 물을 넣고 여기에 미꾸라지 50~60마리를 넣어서 불을 때면 미꾸라지는 뜨거워서 두부 속으로 기어들어간다. 더 뜨거워지면 두부의 미꾸라지는 약이 바싹 오르면서 죽어간다. 이것을 참기름으로 지져 탕을 끓이는데, 이 탕은 경성의 관노(官奴)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음식으로 독특한 맛을 즐긴다."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19세기 중엽 추어탕은 상류 계층의 음식이라기보다는 중하류 계층의 음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추두부탕의 경우는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에 추탕(鰍湯), 별추탕(別鰍湯)이라 소개되고 있으며 그 요리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적고 있다. 추탕[미꾸라지국, 鰍湯]에 대해서는 "미꾸라지에 물을 붓고 소금을 뿌리면 대단히 요동을 친다. 2분 동안 두었다가 맹물을 두 번 부으면 진흙을 전부 토해낸다. 찬물에 업진육, 사태육을 넣어 무르도록 끓여서 고기는 꺼내고 국물은 식힌다. 국물이 더우면 밀가루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국물에 밀가루를 걸쭉하게 풀고 두부는 납작납작하게 썰어넣고 고비, 표고, 송이버섯, 삶은 소곱창과 소의 양도 썰어 넣는다. 여기에 생강 다진 것, 고추 다진 것, 파 다진 것을 넣고 불을 들여 타지 않게 휘저어가며 끓이는데, 한 소끔 끓으면 미꾸라지를 재빨리 쏟아부은 후 뚜껑을 닫는다. 미꾸라지가 어느 정도 익으면 뚜껑을 열고 저어가며 끓인다. 완전히 익으면 달걀로 줄알을 쳐서 그릇에 담는다. 먹을 때 후춧가루나 계핏가루를 넣어 국수를 말아 먹으면 좋다. 생강을 많이 넣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별추탕(別鰍湯)에 대해서는 "두부를 만들어 큰 보자기에 쌀 때 진흙 토해낸 미꾸라지를 넣고 두부와 함께 싸서 눌러놓는다. 이것을 굵게 썰어 위와 같이 만든 국에 넣고 휘저어가며 끓여 먹는다. 모르는 사람은 두부와 미꾸라지를 찬물에 넣고 불을 때면 미꾸라지가 차거운 두부 속으로 뚫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물이 더우면 미꾸라지는 이미 죽기 때문에 두부 속에 들어갈 수가 있으리요 참 웃으운 일이다. 또는 미꾸라지를 삶아서 얼망에 걸러내어 그 물에 밀가루를 풀고 여러 가지 재료를 위와 같이 넣어 끓여 먹기도 한다. 이것은 담백하다. 미꾸라지가 눈이

말똥말똥하면 먹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먹는 조리방법이다."라는 것이다.

가을에 미꾸라지가 가장 살이 찌고 맛이 좋으므로 추어탕은 가을철의 보양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조리법이 경상도식, 전라도식, 서울식으로 나뉘는데, 경상도와 전라도는 미꾸라지를 삶아서 얼망에 걸러내는 식은 비슷하나 들어가는 부재료가 다르다. 경상도식은 토란대, 고사리, 숙주나물이, 전라도식은 된장과 들깨즙이 들어간다. 서울식은 사골 삶아낸 국물에 두부, 버섯 등을 넣고 끓이며, 미꾸라지를 갈지 않고 통으로 넣는 것이 특징이다.

의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가을부터 맛이 나는 추어탕은 단백질, 칼슘, 무기질이 풍부하여, 여름내 더위로 잃은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보양식이다. 현재는 양식을 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먹는 음식이 되었으나, 예전에는 여름철 더위와 일에 지친 농촌 사람들에게 요긴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이용되었다.

참고문헌 | 東醫寶鑑, 本草綱目, 五洲衍文長箋散稿, 酒方文,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이용기, 永昌書館, 1924).

필자 | 김상보(金尙寶)

갈퀴치기

정의 나무꾼들이 갈퀴를 던져서 갈퀴의 상태를 보고 이기고 지는 것을 겨루는 놀이. 주로 가을철 농가의 청년들이 산에서 낙엽이나 솔가지를 긁어모은 나뭇단을 걸고 이긴 사람이 차지하는 놀이로 칼땅치기라고도 한다.

명칭 갈퀴는 낫과 더불어 나무를 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사람들은 나무를 하러 갈 때 "민다지 끓으러 간다", "낭구하러 간다"라고 말하고 풀 또는 나무를 전혀 베지 않은 곳을 숫거리라고도 하였다. 갈퀴는 자루와 갈퀴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의 거친 손은 갈퀴의 구부러진 발에 비유하여 갈퀴손이라고 불렀다.

갈퀴 명칭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역어유해(譯語類解)』에서는 '시파자(柴把子)', 『한한청문감(韓漢淸文鑑)』에는 '파자(爬子)'라고 적고 있다. 서호수(徐浩修)가 쓴 『해동농서(海東農書)』에는 '형파(荊杷)'로 표기하고, "벼 고갱이를 따로 모으는 연장이다. 싸리나무를 구부려 만든 것으로 타작마당에 긴요하며 큰 솔가리 나무를 할 때에도 쓴다(疏剔禾稭之器也揉荊編成列齒場圃間不可無者亦爲樵蘇所用)."라는 설명과 함께 그림을 덧붙여 놓았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 갈퀴를 비롯해서 싸리나무 갈퀴도 썼음을 알 수 있다. 싸리나무 갈퀴는 대를 구하기 어려운 산간지대에서 주로 썼으며, 대갈퀴는 만들기도 쉽고 간편하며 수명이 긴 장점이 있다. 『한국농업경영론(韓國農業經營論)』에는 "북방에서는 목제로 된 갈퀴를 사용한다."라는 설명이 보이는데, 당시에 철사로 만든 갈퀴를 썼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다. 근래에도 철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데, 대나무로 만든 것보다 폭이 좁고 곡식을 긁어모으는 데 효력이 떨어진다. 갈퀴의 발은 대개 열두 개이며, 길이는 45센티미터 정도이다.

내용 갈퀴치기는 갈퀴를 던지거나 세워 돌린 후 갈퀴가 엎어지면 승리하거나 지는 놀이이다. 강화도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갈퀴를 옆으로 혹은 뒤로 던지기도 하고, 무덤 뒤로 던져 승부를 내기도 한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갈퀴의 엎어진 후의 모양을 선택하여 결정한다.

놀이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5미터쯤 되는 거리에 갈퀴를 던질 지점을 정한 다음 선을 그어놓는다. 갈퀴가 선 안으로 떨어지면 실격하고, 선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갈퀴가 엎어져야만 이긴다. 만약 갈퀴를 던져 이긴 사람이 여럿이 나타나면 다시



갈퀴 국립민속박물관

던져서 한 사람의 승자가 나올 때까지 한다. 갈퀴를 던질 때는 갈퀴를 쥐고 돌리면서 힘껏 던진다. 내기에 거는 잎나무는 갈퀴와 한 손으로 껴안을 정도의 양으로 그것을 한 전이라고 말한다. 한 짐이 되려면 여덟 전이 모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한 짐이 되려면 다섯 깍지가 모여야 하고, 한 깍지가 갈퀴로 네 번 긁어모은 분량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갈퀴가 혼을 부르는 도구로 쓰인다. 아이가 정신을 잃었을 때 아이가 입었던 옷을 갈퀴에 걸어 아이가 놀던 곳의 땅을 긁으면서 "혼이여 돌아오라." 하고 세 번 외친다. 그 뒤 갈퀴에 걸었던 옷을 아이에게 입히면 혼이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믿는다. 갈퀴가 혼도 긁어모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의의 갈퀴치기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던 시절의 놀이였으나, 연료가 연탄이나 석유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놀이이다. 이처럼 마른풀을 긁어모으는 갈퀴는 복과 재물을 긁어모으는 도구로도 이용되었는데, 해마다 정초가 되면 갈퀴를 사다가 문에 걸어두고 그해 풍년이 들고 재물이 들어오기를 빌었다. 근래에는 상점이나 음식점에서 작은 갈퀴를 문에 걸어두기도 한다. 갈퀴가 긁어모으는 연장이듯 재물이 모이기를 바라는 주술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譯語類解, 韓漢淸文鑑, 海東農書, 韓國農業經營論(吉川祐輝, 大日本農會, 1904), 한국의 민속놀이(김광언, 仁荷大學校出版部, 1982), 韓國農器具攷(金光彦, 韓國農村經濟硏究院, 1986),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이강로, 세종 대왕 기념사업회, 1988), 歲時風俗(江華文化院, 1990), 光州의 民俗놀이(光州民俗博物館, 1995), 비교연구를 통한 한국민속과 동아시아(정연학, 민속원, 2004), 이천사람들의 생활과 의례(홍순석 · 정연학, 이천문화원, 2005).

필자 | 정연학(鄭然鶴)

꼭두각시놀음

정의 봄부터 가을까지 사당패와 같은 뜨내기 광대들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연행하는 전통 민속인형극. 포장으로 둘러친 무대 안에서 대잡이라고 하는 인형 조종사들이 몸을 숨긴 채 인형을 포장 위로 드러내서 놀리며, 사회 모순을 적나라하게 풍자하는 희극적 갈등구조를 이루고 있다. 탈춤의 극적 내용과 닮아서 민속극으로서 공통점을 지니되 연행 방식은 인형극으로서 독자성을 지닌다. 무대 안에서 등장인물 구실을 하는 인형들끼리 대사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 반주와 더불어 대사도 주고받는 구실을 하는 산받이와 인형이 대화를 하며 극을 진행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탈춤의 이름이 지명 중심으로 일컬어지는 데 비하여 꼭두각시놀음의 이름은 등장인물 중심으로 일컬어진다. 주요 등장인물에 따라 꼭두각시놀이 또는 박첨지놀음, 홍동지놀음이라고 한다. 채록자에 따라서 등장인물에 '놀음' 대신 '놀이' 또는 '극'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했다. 박첨지의 역할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박첨지놀음이라고 널리 일컬었다. 다만 남사당패들은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논다고 해서 '덜미'라 일컬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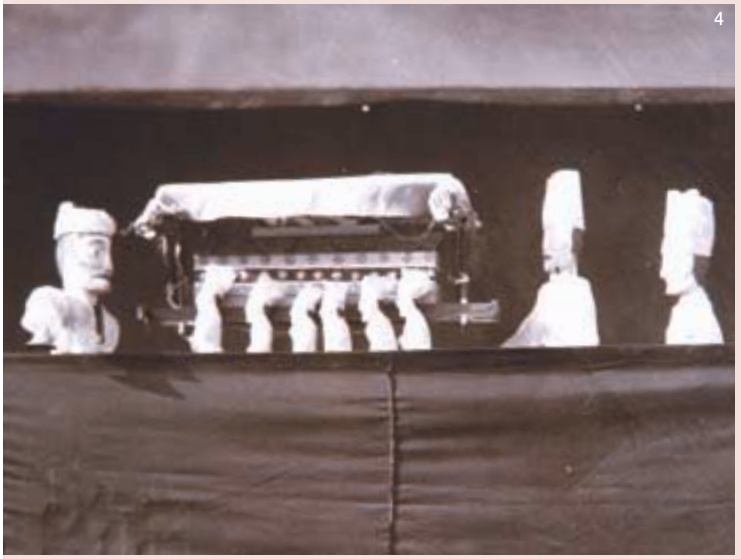
유래 꼭두각시놀음의 기원은 외래전래설이 주류를 이룬다. '꼭두'라는 말의 어원을 중국어의 '곽독(郭禿)', 몽골어 '고독고친', 집시어 '쿨리', 인도어 '쿠쿨라' 등과 연관 지어서 중국기원설과 서역기원설, 지중해기원설까지 펼치기도 하지만, 꼭두의 어원만으로는 그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꼭두는 으뜸을 나타내는 우리의 고유어로서 남사당패(男寺黨牌)에서도 우두머리를 '꼭두쇠'라 일컬으며 인형을 뜻하는 말로는 쓰지 않았다. 따라서 꼭두의 어원이 민속인형극의 기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고대부터 생활에 긴요하게 쓰였던 실용적 인형에서 자생한 것으로 추론된다.

처음에는 짐승을 사로잡는 수렵용 위장 인형이 긴요하게 쓰였다. 그러다가 적을 공격하기 위한 전투용 위장 인형이 등장했다. 신라 지증왕(智證王)이 이사부(異斯夫)를 보내 우산국(于山國)을 공격할 때 나무로 사자를 다듬어 위협했다는 내용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남아 있다. 제의용 신상(神像)으로 인형을 만들어 섬기는 전통은 고구려 때부터 비롯되었다.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과 『북사(北史)』「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高句麗條)에 의하면, 두 사당에 신상을 모셔두고 섬기는데, 한 사당에는 유화부인(柳花夫人)의 모습을 다른 사당에는 시조인 주몽의 모습을 나무인형으로 만들어 모셨다고 한다.


1


2


3


4


5


6


7

〈꼭두각시놀음〉 1 피조리거리 2 표생원거리 3 평양감사재상거리 4 평양감사재상거리 5 평양감사재상거리 6 건사거리(절 짓고 허는 모습) 7 인형조작하는 대잡이 1938년 5월 3일 창경궁 송석하

이처럼 신상 인형을 모셔놓고 제의를 올리는 단계에서 나아가 신격인 인형을 안고 다니며 놀리는 주술적 인형놀이를 하게 되었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高句麗條)에는 "해마다 시월 국중대회 때 수혈(隧穴)의 신을 맞이하여 나라 동쪽에 모시고 제사를 올리면서, 나무로 다듬은 신을 신좌에 모시는 의식을 했다."라고 하였다. 수혈의 신상을 맞이하여 동쪽의 신좌에 모시는 과정에 신상을 놀리는 놀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고대의 제의적 인형놀이가 중세에 들어오면 가무용(歌舞用) 인형으로 발전한다. 각종 연회와 잔치에서 음악에 맞추어 인형을 춤추게 하여 즐기는 인형놀이가 나타났다. 『해동역사(海東繹史)』 권22 악무조(樂舞條)에 "인형을 만들어서 놀리며 가무를 잘하도록 하는 것을 괴뢰자"라고 하였다. 인형을 음악에 맞추어 조종할 수 있는 악곡괴뢰(樂曲傀儡)가 형성된 것이다. 『문헌통고(文獻通考)』「악고(樂考)」에는 "괴뢰자가 인형을 만들어 놀리며 노래와 춤을 잘하였는데, 본디 상가에서 비롯되었으나 좋은 잔치에서도 놀았다."라고 전한다.

고려시대에는 인형 기술이 한층 발전하고 사회의식이 성장하여 삶의 갈등을 그럴듯하게 연출하는 극적 인형놀이가 전승되었다. 『지봉유설(芝峰類說)』 권18 잡기조(雜技條)에 오래 전부터 "괴뢰목우희(傀儡木偶戱)가 있었다."라고 하며, 이규보의 시 '부답병서(復答幷序)'에서도 이미 현존하는 꼭두각시놀음의 건사(建寺)거리에 해당하는 인형극을 노래했다. 고려 중기에는 마침내 '만석중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작품이 등장하며 불교문화의 타락상을 풍자하는 소박한 인형극이 사찰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4월 초파일 연등행사를 하면서 인형을 만들어 옷을 입히고 실을 매어 놀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인형에 옷을 입혀서 조종한 것을 보면 만석중놀이에서 진전된 꼭두각시놀음이 초파일의 연등회 때 전승된 것으로 짐작된다. 사찰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만석중놀이와 함께 불교적 인형놀이가 전승되는 가운데, 세간에서는 조선조의 세태를 다룬 상당히 발전된 인형놀이가 전승되었다.

꼭두각시놀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는 성현(成俔)의 '관괴뢰잡희시(觀傀儡雜戱詩)'인데, 인형들이 움직이는 동작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등장인물의 복색과 줄에 매여서 조종되는 상황도 잘 나타내고 있다. 송만재(宋晩載)의 시 '관우희(觀優戱)'에는 사당패들의 줄타기, 땅재주 묘사와 더불어 꼭두각시의 갖가지 재간을 노래하고 있다. 꼭두각시놀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식(羅植)의 '괴뢰부(傀儡賦)'에서 보인다. 광대들이 무대를 설치하고 인형놀이를 하면 구경꾼들이 다투어 환호하며 즐기는 상황과 더불어, 인형이 무대 위로 반쯤 모습을 드러냈다가 밑으로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이 지금의 꼭두각시놀음과 일치한다. 홍동지와 같은 인형의 등장은 내용까지 흡사하다. 강이천(姜彝天)의 시 '남성관희자(南城觀戱子)'에는 장두(杖頭)인형이 퇴장할 때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무대 아래로 사라지는 방식과 박첨지와 소무당녀와 같은 등장인물이 보인다.

지금과 같은 꼭두각시놀음을 소개하는 기록은 1930년대에 보고된 김재철(金在喆)의 채록본이 처음이다. 남사당패가 전승하는 꼭두각시놀음은 최상수, 이두현, 심우성, 서연호에 의해 차례로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꼭두각시놀음은 생업과 제의에서 만들어진 정적 인형에서 비롯되어 놀이 양식의 동적 인형, 예술 양식의 극적 인형으로 발전되어서 지금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내용 꼭두각시놀음의 내용은 탈춤의 갈등 구조와 비슷하나, 인형을 등장인물로 내세운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놀이 주체와 연행 시기, 전승 지역, 무대, 연행 방식이 독특하다. 탈춤과 달리 남사당패와 같은 전문적인 뜨내기 광대들이 풍물, 버나(접시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뵈기(탈춤)와 더불어 하는 놀이이다. 일정한 지역에서 토박이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붙박이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경기도 안성의 청룡사와 같은 사찰에 머물며 연습한 뒤에 봄부터 가을까지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시로 연행하는 까닭에 일정한 연행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인형의 조종은 대잡이들이 포장 아래 앉아 대사를 하면서 막대처럼 생긴 장두인형을 손에 잡고 움직인다. 무대 아래에서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위로

머리를 내민 뒤에 부채를 치우면서 등장하고,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무대 밑으로 내려가서 퇴장한다. 따라서 인형의 아랫도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인형은 나무와 털가죽, 옷감 등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얼굴 크기를 다르게 만들되 무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리는 만들지 않는다. 상좌처럼 작은 인형은 목 부분에 손을 넣어 조종하는 주머니 인형으로 만든다.

대본은 채록자에 따라 7거리에서 11거리로 구분되는데 극적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오래된 김재철 채록본은 8거리이다. 첫째, 곡예장거리는 박첨지유람거리라고 하는데 양반 행세하는 가짜 양반의 허위를 폭로하는 내용이다. 양반을 자처하는 박첨지가 양반이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양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남사당패의 놀이판에 자진 합류함으로써 역설적 풍자의 방법으로 양반의 허위를 보여준다.

둘째, 뒷절거리는 상좌와 소무당녀들의 춤을 통해서 놀이의 당위성을 나타낸다. 상좌들이 소무당녀들과 어울려 춤추는 것을 보고, 박첨지와 홍동지가 "중이 불도는 닦지 않고 미색놀음만 한다."라고 꾸짖다가 마침내 자기들도 함께 어울려 춤을 즐김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놀이야말로 건강하고 떳떳한 놀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셋째, 최영노(崔永老)의 집거리는 사람을 해치는 이심이의 퇴치를 통해서 지배층의 무능을 우회적으로 풍자하는 내용이다. 이심이가 나타나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먹자 박첨지는 홍동지의 힘을 빌어 이심이를 퇴치하려 한다. 그러나 공명심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가 홍동지의 구조로 간신히 살아난다. 명분만 앞세우다가 외세의 침략에 나라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넷째, 동방노인거리는 불교적 관념이 지닌 한계를 풍자하는 내용이다. 수도승을 자처하는 동방삭은 세속이 부정한 까닭에 눈을 감았다고 하면서 마침내 반주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까지 추며 놀이판에 동화되는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놀이 본능을 해학적으로 긍정한다.

다섯째, 표생원(表生員)거리는 흔히 박첨지거리라고도 하는데, 가부장적 권위의 모순을 비판한다. 박첨지가 첩을 데리고 본처 꼭두각시를 만나자 첩이 본처를 공격하고 영감마저 첩을 두둔하므로, 본처는 중이 되려고 가출해버린다. 처첩을 함께 데리고 살려는 남편의 가부장적 횡포를 풍자하는 내용이다.

여섯째, 매사냥거리는 평양감사의 사냥놀이를 통해서 관료의 전횡을 비판한다. 평양감사가 부임하자마자 관속과 포수를 동원하여 매사냥을 떠나는 과정을 통해서 민중의 불만과 고난을 여러모로 드러냄으로써 지배관료의 횡포를 간접적으로 풍자하는 것이다.

일곱째, 평양감사재상거리에서는 평양감사의 패륜을 한층 직접적으로 풍자한다. 어머니 상을 당한 평양감사가 양산도를 부르며 좋아하는가 하면, 홍동지는 벌거벗은 몸으로 상여를 메서 모욕을 주고 양반사회의 모순을 신랄하게 풍자한다.

마지막의 건사거리는 절을 짓고 허는 모습을 연출하고 시주를 받음으로써 구경꾼들의 행운을 빌어준다.

꼭두각시놀음은 박첨지놀음이라 일컬어질 만큼 점차 박첨지의 역할이 커진다. 각 거리마다 박첨지가 등장할뿐만 아니라 다음 거리를 설명해 주는 극의 진행자 구실까지 한다. 다음으로 홍동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홍동지는 벌거벗은 인물답게 무엇이든 저돌적으로 공격하여 기성의 고정관념과 지배질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민중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사례 광대들의 출신지가 주로 경기도와 충청도, 전라도이나 공연은 남한 일원에서 두루 행해졌다. 등장인물에 평안감사와 용강 이심이, 황해도 영노가 나오는 것을 볼 때, 해서지방이나 관서지방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춤 못지않게 이북 지역에서도 꼭두각시놀음이 성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북한의 연구 성과가 소개되면서 황해도 장연지방의 꼭두각시놀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사에 의하면 꼭두각시놀음이 강원도는 물론 북한에서도 널리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한에서도 최근까지 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음이 유일한 것처럼 인식되었으나, 충남 서산의 박첨지놀음이 서연호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서산박첨지놀음이 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음을 배워서 전승하다가 내용이 축소된 것이라면, 장연꼭두각시극은 토박이 광대들이 만들어 전승하던 내용에 남사당패들의 영향을 받아 풍부하게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산에서는 3개 거리로 구성될 뿐 아니라 내용도 아주 간략하지만, 장연에서는 춤추는 거리가 더 풍부하며, 목랑청이나 장안왈자, 산몽혜, 현묵대사와 같은 개성적 인물이 별도로 있어서 지역적 독창성을 잘 드러낸다.

의의 탈춤이 지역마다 풍부하게 전승되며 문화재로 지정된 작품도 많은 데 비하여, 꼭두각시놀음은 남사당패에 의해 서울 지역에서만 전승될 뿐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탈과 더불어 우리 민속극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는 귀중한 연극사 자료이자 한국 인형극의 전통을 보여주는 희귀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탈춤의 내용과 풍자적 성격이 흡사하면서도 연행 방식과 구성 방식이 독특하여 연극미학으로서 가치가 크다.

연행 방식의 독자성은 '산받이'의 존재에서 비롯된다. 포장 밖의 반주석에 앉아서 무대 속의 인형들과 대사를 주고받는 산받이의 역할에 의해 극중 공간이 무대 밖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구경꾼들이 극적 환상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 그럼으로써 산받이는 구경꾼 중심으로 극을 진행하고 극중에서 창조된 사실과 생활 속의 현실을 일치시키는 구실을 한다. 그리고 각 거리별 구성이 극적 내용과 풍자의 방식에 따라 삽화적 구성과 연쇄적 구성, 유기적 구성의 다양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사실은 연극미학의 훌륭한 양식으로 주목할 만하다.

참고문헌 | 大東韻府群玉, 東國歲時記, 文獻通考, 北史, 三國史記, 三國志, 芝峰類說, 海東繹史, 朝鮮演劇史-朝鮮音樂小考-(金在喆, 朝鮮語文學會, 1933), 조선민간극(권택무,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출판사, 1965), 男寺黨牌研究(沈雨晟, 東文選, 1974), 꼭두각시놀음의 이해(임재해, 弘盛社, 1981), 꼭두각시놀이(徐淵昊, 悅話堂, 1990), 남북한 꼭두각시놀음의 전승양상과 해석의 비교연구(임재해, 口碑文學研究3, 韓國口碑文學會, 1996), 서산 박첨지 놀이 연구(허용호, 口碑文學研究10, 韓國口碑文學會, 2000), 꼭두각시놀음의 역사와 원리(서연호, 연극과 인간, 2001).

필자 | 임재해(林在海)

남사당놀이(男寺黨-)

정의 남사당패(男寺黨牌)가 주로 봄과 가을에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공연하던 풍물(농악), 버나(대접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뵈기(가면극), 덜미(꼭두각시놀음)로 구성된 놀이. 이 중에서 꼭두각시놀음이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에 남사당놀이 전체가 지정되었다.

유래 조선 태종 6년 불교의 사사혁파정책(寺社革罷政策)으로 사원이 혁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寺田)이 삭감되었고 승려의 환속이 있었으며, 사사노비(寺社奴婢)가 관아의 노비로 넘어갔고 도첩제(度牒制)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본래 재를 올리는 일과 다비를 치르는 데 뽑혀 다녔고, 범패, 염불, 법고, 바라 같은 가무희에 뛰어난 명수들이었던 재승(才僧)들은 그들끼리 어울려 살게 되었는데, 사설사암은 이런 재승들의 활동 장소였다. 그러다가 같은 소질과 재주를 가지고 그늘에서 사는 신세인 무당, 재인, 광대와 어울리게 되면서 조선 전기에 연희 담당층의 하나로 성립되었으니 그것이 사장(社長)이다. 다음 기록들을 통해서 사장으로부터 조선 후기의 유랑 예인 집단인 사당패나 남사당패가 사장에서 파생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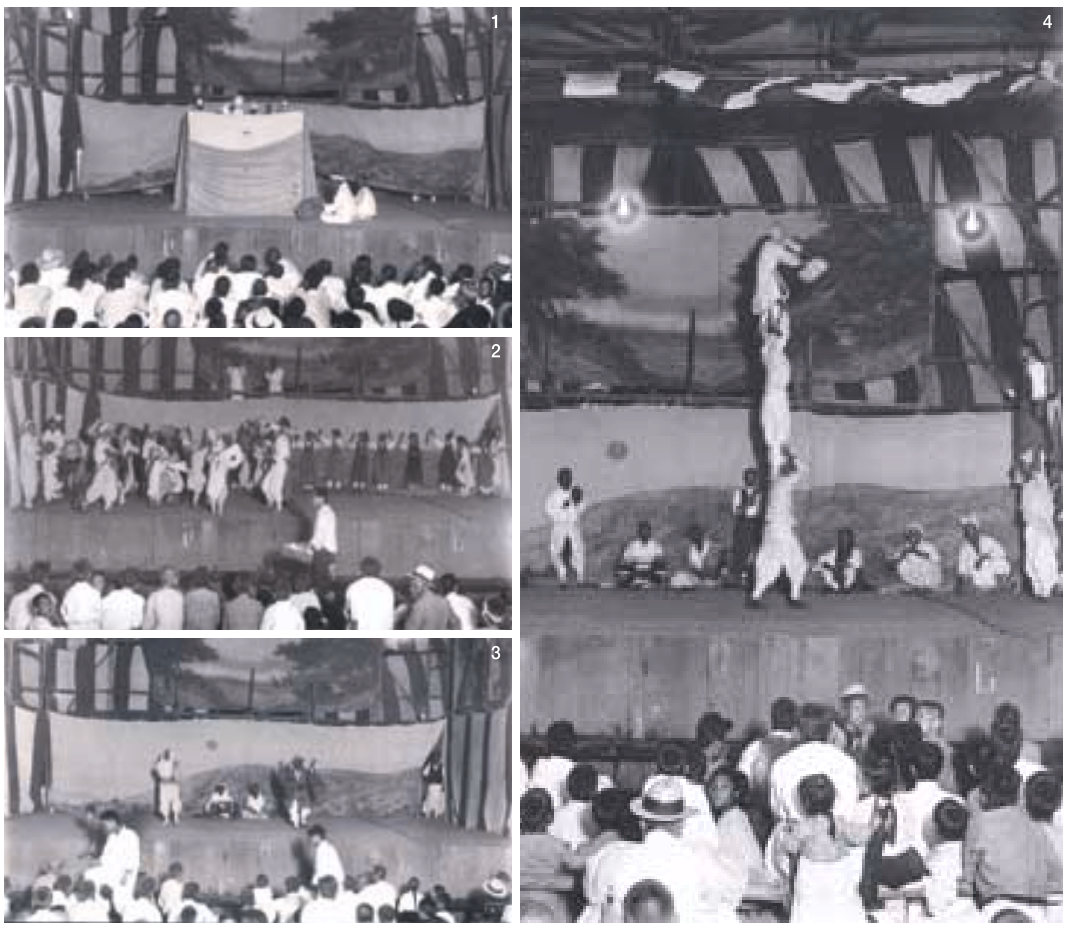
『세조실록(世祖實錄)』 14년(1468) 5월 6일조에 승인(僧人)의 사장이 원각사(圓覺寺)의 불유(佛油)를 모연한다고 일컫고 혹은 낙산사(洛山寺)를 짓는 화주승(化主僧)이라고 일컬으며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사당패나 남사당패가 일정한 절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불사(佛事)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연희를 하고 다닌 것과 일치하고 있다. 『예종실록(睿宗實錄)』 1년(1469) 5월 9일조는 재승 계통 연희자뿐만 아니라 향리, 군인, 공사(公私) 노비들도 사장의 무리에 참여했음을 전해준다. 원래 조선 초기에 도첩제를 만들어 백성들이 마음대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했으나, 승복을 입고 승려로 가장하여 국역(國役)을 피하는 유민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이다. 『성종실록(成宗實錄)』 2년(1471) 6월 8일조 한치형(韓致亨)의 상소문은 사장이 징과 북을 울리고 염불을 일삼고 범패를 하며 기이한 형태와 괴이한 형상으로 춤추고 뛰어

노는데, 시중의 아이나 부녀들이 이들의 연희를 쳐다보며 흠모하고 귀로 듣고 익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장패의 연희가 민간에서 매우 인기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조실록(宣祖實錄)』 40년(1607) 5월 4일조는 절과 관련을 맺고 연희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는 사당, 남자는 거사라고 부르는 구별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 임진왜란 이후 살기가 어려워진 백성들이 무리를 이루어 떠돌아다녔고, 일반 백성 가운데서도 사당이나 거사(居士)가 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전해 준다.

사당패의 공연 종목은 사당벅구(법고)춤, 소리판(주로 산타령 등 민요창), 줄타기(재담줄이라 해서 곡예보다는 재담과 노래가 우세하다)의 세 가지였다. 사당패에는 맨 위에 모갑(某甲)이라는 우두머리 남자가 있고, 그 밑으로 거사라는 사내들이 제각기 사당 하나씩과 짝을 맞추었다. 표면상으로 볼 때는 모갑이라 불리는 우두머리 남자가 이끄는 조직 같지만, 실제로는 모갑이 이하 거사들은 모두 사당에 붙어먹는 기생자들이었다. 이들의 주요 공연 종목은 사당들의 가무희였는데 사당들은 매음도 했다. 신재효본 '박타령', '변강쇠가'나 이능화(李能和)의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에 의하면 사당패는 주로 사당들의 가무희 곧 소리판만 공연하고 다닌 것으로 나타난다.

사당패가 인기를 끌면서 기예를 갖춘 사당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여장(女裝)한 남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남사당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남사당패는 수동모와 암동모라는 이름으로 남색(男色) 조직을 이루었는데, 암동모는 초입자인 삐리들이 감당했고, 삐리는 연희자인 가열이 되기까지 머리를 땋아서 길게 늘어뜨리고 여장을 했다.

내용 및 특성 남사당놀이는 남자들로만 구성된 유랑예인 집단인 남사당패에 의해 전승되며, 남사당패의 연희는 악기 연주인 풍물,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로 이루어졌다. 그 밖에 요술인 얼른도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전승되지 않는다. 이들은 일정한



〈남사당놀이〉
1 꼭두각시놀음(덜미)
2 농악(풍물)
3 가면극(덧뵈기)
4 무동놀이
서울대학교 박물관

보수 없이 숙식만 제공받으면 마을의 큰 마당이나 장터에서 밤새워 놀이판을 벌였다.

풍물은 경기도와 충청도의 농악인 웃다리 가락을 위주로 연주한다. 진풀이, 열두 발 상모돌리기, 무동 등 다양한 풍물놀이를 펼친다. 버나는 버나잡이(돌리는 사람)가 앵두나무막대기로 대접, 쳇바퀴, 대야 등을 돌리면서 매호씨(버나잡이의 재담 상대역)와 재담과 소리를 주고받는 연희이다. 살판은 땅재주로 살판쇠(땅재주꾼)가 매호씨와 재담을 주고받으면서 앞곤두, 뒷곤두, 번개곤두, 자반뒤지기, 팔걸음, 외팔걸음, 외팔곤두, 앉은뱅이팔걸음, 쑤세미트리, 앉은뱅이모말되기, 숭어뜀, 살판 같은 기교를 부린다. 어름은 줄타기로서 어름산이(줄꾼)가 앉아서 장구를 쳐주는 매호씨와 재담을 주고받으면서 꽹과리, 징, 북, 장구, 날라리의 반주에 맞춰 가새트림(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앞으로 가다가 두 발을 뛰어서 돌아앉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예를 행한다. 그리고 중의 모습을 흉내 내다가 신세 한탄을 하며 파계하는 모습을 희화적으로 표현하는 중놀이와 여러 계층의 인물들을 익살스럽게 흉내 내는 왈자놀이를 하면서, '중타령', '오봉산 타령', '풍년가', '돈타령' 등의 노래를 부른다.

가면극인 덧뵈기는 '덧(곱)본다'는 뜻으로 가면을 나타낸다. 춤보다는 재담과 연기가 더 우세한 풍자극으로 제1과장 마당씻이, 제2과장 옴탈잡이, 제3과장 샌님잡이, 제4과장 먹중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가면극에 반드시 나오는 벽사적인 의식무는 마당씻이의 고사문(告祀文)인 비나리로 대체되어 있다. 옴탈잡이, 샌님잡이, 먹중잡이는 각각 양주별산대놀이의 옴중·먹중놀이, 샌님놀이, 노장춤과 같은 내용이다. 등장인물과 내용에서 양주별산대놀이와 유사한 것이 많은 점으로 미루어볼 때 서울 본산대놀이의 영향 아래 생긴 것으로 보인다.

남사당패의 대표적인 연희는 꼭두각시놀음인데, 박첨지마당과 평안감사마당으로 나뉜다. 박첨지마당의 '박첨지유람거리'에서는 박첨지가 등장해 악사인 산받이와 대화를 나눈다. 이어서 익살스런 재담을 늘어놓고 '유람가(遊覽歌)'를 부른다. '피조리거리'에서는 두 명의 피조리 곧 박첨지의 딸과 며느리가 뒷산에 나물을 뜯으러 다니다가 상좌중들과 놀아난다. 이때 홍동지가 벌거벗고 등장해 모두 쫓아버린다. '꼭두각시거리'에서는 박첨지와 그의 처인 꼭두각시가 서로 찾아다니다가 만난다. 영감이 첩을 얻었음을 실토하고 꼭두각시에게 돌머리집을 상면시키면, 첩이 머리로 꼭두각시를 마구 들이받는다. 꼭두각시는 중이 되겠다며 금강산으로 떠나간다. '이시미거리'에서는 박첨지의 손자, 피조리, 박첨지의 동생, 꼭두각시, 홍백가, 영노, 표생원, 동방삭 같은 등장인물들이 반복적으로 산받이에 의해 정체가 확인된 후, 이시미에게 잡혀먹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박첨지도 이시미에게 물리면 홍동지가 나와 박첨지의 경솔함을 꾸짖으며 구출하고 이시미를 때려잡는다.

평안감사마당의 '매사냥거리'에서 홍동지는 평안감사의 부임, 평양감사의 매사냥, 평양감사의 장례 장면에서 길을 닦는 인부, 사냥몰이꾼, 상두꾼의 역할을 함으로써, 양반의 횡포에 시달리던 민중의 모습을 대변한다. '상여거리'에서는 박첨지가 등장해 평안감사가 매사냥에서 돌아가던 중 산고개에서 낮잠을 자다가 개미에게 불알 땡금줄을 물려 즉사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감사의 아들인 상주는 '장타령'을 부르기도 하며 경박한 행동을 한다. 상두꾼으로 뽑힌 홍동지는 벌거벗은 채 배(또는 성기)로 상여를 밀고 간다. '건사거리(절 짓고 허는 거리)'에서는 상좌중 둘이 나와 절에다 시주하면 자식을 많이 낳고 부귀공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면서 법당을 짓는다. 조립식의 법당이 다 완성되면 다시 그것을 헐어낸다.

사당패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찰에서 내준 부적을 가지고 다니며 팔고, 그 수입의 일부를 사찰에 바쳤다. 그래서 사당패들은 자기들의 수입으로 불사를 돕는다는 것을 내세웠다. 사당패나 걸립패의 구성원에 승려나 보살이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고, 그들의 수입이 사종[四種 혹은 아미타(阿彌陀)를 생각하여 떼어주는 공양물]이란 명목으로 사찰에 바쳐졌던 것은 현재 남아 있는 많은 시주질(施主秩)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이 중 건사거리에 절을 짓는 내용이 있는 것은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공연 목적과 일치한다. 그리고 꼭두각시놀이의 각 거리가 독립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맨 마지막 거리에서 절을 지어 그동안 진행되어온 갈등을

극적으로 승화시키며 화해를 이루고, 시주를 해준 관중들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 주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꼭두각시놀이는 몇 개의 과장(거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면은 가면극과 마찬가지로 서로 유기적인 연결성이 없는 독립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박첨지가 여러 과장에 걸쳐 계속 등장하며 극의 해설자 역할을 함으로써 각 장면을 연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꼭두각시놀이가 박첨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연희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연희자들은 이 연희를 흔히 박첨지놀이라고 부른다. 박첨지와 같은 일정한 주인공이 존재함으로써 극의 통일성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박첨지와 함께 꼭두각시놀이의 극적 진행에 중요한 존재가 산받이다. 산받이는 악사 중 한 명이 맡는데 인형과 대화를 주고받는다. 산받이는 등장인물이면서 관중과 같은 입장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무대와 관중 사이의 거리를 좁혀준다.

현재는 3평방미터 공간에 네 기둥을 세우고 관중석을 마주 보며 120센티미터 정도의 높이 위에 인형이 나와서 노는 가로 250센티미터, 세로 70센티미터 정도의 무대면만 남겨놓고 사방을 모두 포장으로 둘러친다. 그러나 다락을 만들고 그 위에 무대를 설치하거나 이층식의 무대를 설치하는 식으로 공중높이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인형사들은 포장 속에서 의자에 걸터앉아 인형을 손에 쥐고 조종한다.

도시의 장마당이나 농어촌 마을을 활동 무대로 삼고 순회공연을 하던 사당패들은 자기들의 집결처이며 새로운 공연 종목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지이고, 생활 본거지인 사찰을 본산으로 삼았다. 그러나 18~19세기에 사당패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본산 사찰뿐만 아니라 그 근처의 일부 마을에도 근거지를 두게 되었다. 그래서 사당골이란 이름을 가진 마을들이 생겨났다. 이 중 널리 알려진 본산과 사당골은 경기도 안성 청룡사와 그 부근의 청룡사당골, 황해도 문화 구월산의 패엽사와 그 부근의 사당골, 경상도 하동 쌍계사와 그 부근의 사당골, 전라도 강진 정수사와 그 부근의 사당골(사당리), 경남 남해의 화방사와 그 부근의 사당골을 들 수 있다. 그곳에서는 연희가 거의 없는 겨울철에 동면을 겸해서 초입자인 삐리들에게 기예를 가르쳤다.

인접국가사례 중국, 한국, 일본의 전통 인형극은 무대 구조, 연출 방식, 인형 조종법이 거의 같고, 인형극의 주역들이 모두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며 희극적인 성격의 인물이라는 공통점과 외양의 유사성이 있으며, 원시종교나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고, 유랑예인집단에 의해 공연된 점 등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일본 12세기 초 문헌인 『오에노마사후사(大江匡房)』의 '괴뢰자기(傀儡子記)'에서 괴뢰자(傀儡子, 쿠구츠시)라는 유랑 예인 집단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당패나 남사당패와 매우 흡사하다. 괴뢰자는 수초를 따라 유랑했고, 남자들은 활과 말로 수렵생활을 했으며, 쌍칼을 던졌다가 받기, 일곱 개의 방울 받기, 괴뢰희(인형극), 환술 등의 연희도 행했다. 여자들은 춤과 노래로 공연하고 몸을 팔았다. 이 괴뢰희가 발전하여 근세 닌교조루리(人形淨琉璃)와 오늘날 분라쿠(文樂)와 같은 일본 전통 인형극의 모태가 되었다.

의의 예전에 떠돌이 예인집단에는 남사당패를 비롯해 대광대패, 솟대쟁이패, 사당패, 걸립패, 중매구패가 있었다. 이 중에서 그 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남사당패가 한국을 대표하는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패의 연희 중 꼭두각시놀음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전통 인형극으로서 뛰어난 예술성을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 大江匡房, 宣祖實錄, 成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解語花史, 사당패들의 활동정형(박은용, 고고민속4,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 男寺黨牌研究(沈雨晟, 東文選, 1974), 한국인형극의 유래(유민영, 藝術論文集14, 藝術院, 1975), 山臺都監劇成立의 諸問題(崔正如, 韓國學論集1, 啓明大學校 韓國學研究院, 1980), 꼭두각시놀음의 역사와 원리(서연호, 연극과 인간, 2001), 한국의 전통연희(전경욱, 학고재, 2004).
필자 | 전경욱(田耕旭)

노적놀이(露積-)

정의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산 인근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속놀이.

내용 노적놀이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서남해 지역에서 활동했던 역사적 사실과 연결된다. 유달산 입구에 있는 노적봉(露積峰)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진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전남 진도 울돌목에서 왜군을 격파한 이후 목포 고하도(高下島)에 진을 치고 병력과 군량미를 비축했는데, 그때 유달산 입구 노적봉을 이엉으로 덮어 마치 군량미를 쌓아 놓은 노적처럼 위장하고, 노적봉 밑에서는 부녀자들이 강강술래를 해서 많은 군사들이 사열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한다. 그리고 영산강에 횃가루를 뿌려 많은 병력이 밥을 지어먹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왜적이 넘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열악한 군세로 왜군을 대적해야 했던 상황을 전해주는 역사적 전설이다.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고 관련 증거물이 남아 있어 실감나는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다.

노적놀이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놀이이다. 하지만 전승맥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절일과 관련된 정형화된 놀이가 아니고 놀이 내용에 인위성이 보이기 때문에 최근 성립된 놀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놀이는 가을 추수가 끝난 후 풍년을 감사하고 주민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호국놀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된다. 놀이의 내용은 농악대의 농악놀이와 부녀자들의 강강술래, 장정들의 노적쌓기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 노적놀이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노적봉 전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 및 설화와 관련된 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 한국의 축제(문화예술총서8, 韓國文化藝術振興院, 1987),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권(김용덕 편, 창솔, 2004).
필자 | 이경엽(李京燁)

대말타기

⇨ 죽마놀이[竹馬戱]: 가을편

마상재(馬上才)

정의 달리는 말 위에서 사람이 행하는 갖가지 재주. 마상재(馬上才)는 농마(弄馬), 희마(戱馬), 마희(馬戱), 곡마(曲馬), 원기(猿騎), 무마(舞馬), 표기희(驃騎戱), 마기(馬技), 마기(馬伎), 입마기(立馬技), 마술(馬術) 또는 말광대, 말놀음 같이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이들 용어 가운데 훈련된 말에게 여러 기예를 익히게 하는 무마(舞馬)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용어는 기수가 달리는 말 위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하여 재주를 부리는 기예를 뜻하는 말이다. 특히 마상재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붙여진 명칭으로 민간에서는 주로 마기(馬伎)라 불렀다. 하지만 마기가 아니라 희마(戱馬)가 옳다는 주장이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희마가 옳은 표현으로 보인다.

마상재는 기마술의 일종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때를 가리지는 않았다. 다만 조선 후기에 들어와 마상재가 관무재라는 무예 시험의 종목으로 시행되면서 봄과 가을에 주로 많이 행해졌다.

유래 기마술에서 비롯한 마상재는 중국의 전한 때(B.C. 74~B.C. 49) 환관(桓寬)이 편찬한 『염철론(鹽鐵論)』에 '마희(馬戱)'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당서(唐書)』의 「예악지(禮樂志)」와 『석호업중기(石虎鄴中記)』에도 마상재와 관련한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서도 삼국시대부터 마상재와 관련한 기록이 확인된다. 즉 고구려인이 말 타기에 능하고, 백제의 풍속에 "기사(騎射)를 중히 여긴다."(『후주서(後周書)』)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4 「열전(列傳)」4 이사부(異斯夫)에는 "신라의 거도가 마희(馬戱)에 유명하여 당시 사람들이 마숙(馬叔)이라 불렀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고려 의종 때에는 "왕이 부벽루에 나아가 신기군의 농마희(弄馬戱)를 관람하고 백금 2근을 내려주었다."라는 기록처럼 유희를 겸한 군사 훈련의 하나로 성행하였다. 당시 송나라의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 인마(引馬), 개도기(開道旗), 입마(立馬), 구마(驅馬), 도마(跳馬), 헌안(獻鞍), 도립(倒立), 타마(拖馬), 비선(飛仙), 박마(膊馬), 등리장신(鐙裏藏身), 간마(趕馬) 등 마기(馬伎)가 소개되는 것으로 볼 때, 마상재가 고려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 이어 조선에 들어와서도 농마희는 여전히 성행하였다. 다만 유교사회였던 조선왕조는 마상재를 무예보다는 놀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리하여 마상재 대신에 격구(擊毬), 기사(騎射),



〈마상재〉
1 주마입마상(走馬立馬上)
2 주마입마상(走馬立馬上)
3 좌우칠보(左右七步)
4 마상도립(馬上倒立)
5 횡와마상양사(橫臥馬上佯死)
6 좌등리장신(左鐙裏藏身)
7 우등리장신(右鐙裏藏身)
8 종와침마미(縱臥枕馬尾)
서울대학교 규장각

기창(騎槍), 사모구(射毛毬) 등 실전용 기마무예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마상재가 독자적인 무예로 발전하기보다는 기마술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중종 때 기마술을 권장하기 위해 마상재를 시험 보이자는 움직임이 잠시 있었으나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중 마상재가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하나의 무예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에 따르면, "조웅은 더욱 용감한 사람이다. 특히 말 위에 서서 달리기를 잘하여 적을 많이 죽였다."라고 한 것이 그 한 사례이다. 그리하여 선조 28년(1595)에는 아동들에게 마상재를 가르치고 시험 보아 뽑힌 자에게 상을 주었으며 그 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전란이 끝난 뒤에는 중국의 마상재가 조선군에게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마상재는 종래 유희(遊戱)를 겸한 군사 훈련의 수단에서 독자적인 무예로 발돋움하였다.

그 결과 광해군 11년(1619)부터는 마상재를 관무재의 시취과목으로 채택하였다. 그 후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때까지 마상재는 관무재를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는 물론이고 습진(習陣), 열무(閱武), 강무(講武) 등 기마술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마상재가 기병술을 전제로 행하는 기예인 만큼 기병들의 무예훈련에 기초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마상재가 실전에 대비한 무예로서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더구나 총포의 위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마상재의 군사적 기능은 점차 약해져갔다. 그러자 숙종 때에는 마상재가 유희 내지 희극(戱劇)과 같으니 시행하지 말자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18세기 말에는 무사들이 마상재를 유희와 같다 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자 정조는 마상재를 다시 강조하는 한편 이를 기피하는 군사들을 처벌하는 것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와 함께 정조 14년(1790)에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면서 마상재를 24반 무예 가운데 하나로 정비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장기로 일본에 알려지던 마상재는 그 체계적인 보급과 함께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었다.

당시 『무예도보통지』의 완성으로 특히 마상재 부분은 장용영을 비롯한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군사들의 군사교련서로 위치를 굳혀나갔다. 하지만 이후 마상재는 군사 무예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 중엽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거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마상재는 군사 훈련이 아닌 민간 유희의 형태로 곡마단에서 그 유제가 남게 되었다.

한편 마상재는 달리는 말 위에서 총포를 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하며 재주를 부림에 따라 일찍부터 관람용 유희로 발달해 왔다. 특히 임진왜란 중 조선의 마상재가 우수하다는 사실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마상재의 유희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광해군 때에 이르러 일본과의 교류가 재개되자, 조선의 마상재가 일본에 의해 요청되었다. 마상재는 인조 12년(1634)에 제4차 통신사를 파견할 때, 일본 관백의 요청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어 호응을 얻었다. 그 뒤로 마상재는 조선통신사의 일행에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일본 문헌인 『학산록(學山錄)』에는 "조선에는 말놀음 마희(馬戱) 일기(一技)가 있으니 빙사(聘使)가 동도(東都)에 올 적마다 반드시 그 기예를 어람(御覽)에 제공했는데, 그 재주가 가장 절묘하고 기이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의 군사 가운데는 마상재에 능한 인물들이 많이 양성되었다. 18세기 일본에 사신으로 간 박경행(朴敬行)이 "전쟁터에서 총, 칼, 창이 들어오고 깃발이 휘날리며 북소리가 요란할 때 말에 몸을 숨긴 채 적진에 돌입하여 적의 깃발을 빼앗거나 적군의 목을 베어올 수 있는 날랜 재주를 지닌 사람이 우리나라에 4~5백 명이나 된다."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당시 마상재에 뛰어난 인물로 인조 때에는 인문조, 이세번, 김정, 장효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명성을 날렸으며 영조 때에 지기택, 이두홍이 유명하였다. 마상재는 순조 10년(1810)에 통신사를 보내는 항목 가운데 빠짐으로써 공식적인 사행에서 제외되었다. 이로써 인조 대 이후 순조 대까지 약 200여 년간 지속되어오던 마상재가 더 이상 일본에서 공연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통신사 수행에서 마상재와 관련한 기록으로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하여 『통문관지(通文館志)』, 『학산록』, 『동사일기(東槎日記)』, 『태년

연표(泰年年表)』, 『해행총재(海行摠載)』가 있다.

내용 마상재는 조선의 기마술을 대표하는 무예이자 유희의 하나이다. 특히 마상재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소개되어 일본 마상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명서적(假名書籍) 『광문고(廣文庫)』에는 "조선군에는 마희(馬戱)의 일기(一技)가 있다. 초빙한 사신이 동쪽으로 건너와서 매번 반드시 그 기술을 선보여 국왕이 관람하였다. 세속에서 곡마(曲馬)라고 칭하는데, 그 기예가 매우 절묘하고 기이하다."라고 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의 마상재를 하늘이 내려준 기예라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였다. 『화한무가명수(和漢武家名數)』에 보면, "동경의 승마술은 조선법을 시조로 하여 정순친왕이 비로소 말에 올랐다."라고 적혀 있다. 그로부터 육손왕(六孫王), 경기(經基), 다전만중(多田滿仲) 등 제가(諸家)가 나옴으로써 소립원식(小笠源式), 대평식(大坪式), 팔견식(八見式) 등 일본의 승마술 유파가 발생하였다.

마상재에는 키가 크고 빛깔이 좋으며 훈련이 잘된 말을 골라서 썼으며, 암말보다도 수말이 적당하다고 했다. 특히 부루말(흰말)을 높이 쳤으며, 가라말(검정말) 중에도 네 발굽이 흰 것은 무방하게 여겼다. 이러한 말에 온갖 치레를 갖추었으며 마상재를 하는 사람은 전립 또는 투구를 썼다. 옷은 민소매로 만들어진 붉고 노란 호의(더그레)에 같은 색의 바지를 입었으며 목화나 짚신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말을 탔다.

『무예도보통지』에 의하면, 마상재의 기예는 말을 기준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말 한 마리로 재주를 부리는 단마식과 두 마리로 재주를 부리는 쌍마식이 있다. 단마식과 쌍마식의 기예는 각각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제1자세는 입마(立馬)로서 말 위에 선 채로 달리는 동작이다. 달리는 말 위에 서거나 혹 왼손으로 고삐를 잡고 오른손에 삼혈총을 높이 들어 공중을 향해 쏜다. 또 기수는 고삐를 약간 늦추고 몸을 공중으로 솟구쳐 체중을 조금 덜어주면서 말이 내닫는 속도를 빠르게 하다가 다시 고삐를 약간 당기고 체중을 더하면서 말의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이렇게 말의 달리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간다.

제2자세는 초마(超馬)로서 말의 등 넘나들기이다. 안장 앞쪽 언저리를 두 손으로 짚고 몸을 뒤로 쫙 펴서 말 등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한다. 배가 말 등이나 안장에 닿지 않게 하면서 몸을 말의 왼쪽으로 넘긴다. 이때 발은 땅에 닿을 듯 말 듯한 정도로 내려오며, 다시 몸을 들어 말 등을 닿지 않은 채 오른편으로 넘어간다. 오른편에서도 발이 땅에 닿을 듯하다가 다시 왼편으로 넘어가며 이러한 동작이 여러 번 반복된다. 이러한 동작을 좌우칠보(左右七步)라고도 한다.

제3자세는 도립(倒立)으로 말 위에서 거꾸로 서는 재주이다. 안장의 앞부분을 두 손으로 잡고 상반신을 말 왼쪽으로 떨어뜨린 채 하반신을 공중으로 쫙 편다. 이때 기수의 오른편 어깨는 말의 왼쪽 앞죽지에 닿을 듯 말 듯하게 내려오며 공중에 뻗친 다리가 휘청거리는 순간에 몸을 빠르게 돌려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간다.

제4자세는 횡와(橫臥)로서 말 위에 가로눕는 동작이다. 말을 가로타고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으며 두 손으로 안장의 앞뒤 쪽을 잡고 눕는데, 반듯하게 눕기도 하고 엎드려 눕기도 한다. 이것은 적탄에 맞아 죽은 것처럼 하여 상대를 속이기 위한 방법이다.

제5자세는 장신(藏身)으로 몸 숨기기이다. 오른편 오금을 안장에 걸치고 오른손으로 안장 뒤쪽을 잡고 몸을 말의 왼쪽으로 떨어뜨린다. 기수의 등이 말의 왼쪽 옆구리에 달라붙고, 왼다리는 말의 머리 쪽으로 뻗치므로 사람이 말의 옆구리에 달려서 거꾸로 끌려가는 자세가 된다. 이때에는 왼손으로 땅의 모래를 쥐어서 흩뿌리며 적진으로 들어간다. 몸을 말의 오른쪽으로 옮겨서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이러한 동작을 등리장신 또는 마협장신이라고 하는데, 모두 말 옆구리에 몸을 숨긴다는 뜻이다.

제6자세는 종와(縱臥)로서 뒤로 눕는 동작이다. 보통 때 말 타는 자세를 취하고 두 발을 등자에 건 채로 뒤로 누워 기수의 머리를 말의 엉덩이 쪽으로 가져간다. 이때 한 손으로는 말꼬리를 잡기도 한다. 앞의 여섯 동작 중에서 두 번째 동작인 말의 등 넘나들기와 다섯째 동작인 몸 숨기기를 좌우 각각 헤아려서 모두 여덟 동작으로 치기도 한다.

참고문헌 | 高麗史, 廣文庫, 唐書, 東京夢華錄, 東槎日記, 萬機要覽, 武藝圖譜通志, 三國史記, 三國志, 梁書, 鹽鐵論, 魏

書, 懲毖錄, 泰年年表, 通文館志, 學山錄, 海行摠載, 和漢武家名數, 後周書, 朝鮮武士英雄傳(安自山, 1940), 朝鮮常識問答(崔南善, 東明社, 1946), 韓國의 馬上武藝(임동권 · 정형호, 마사박물관, 1997), 朝鮮時代의 武藝史 硏究-毛毬를 중심으로-(沈勝求, 軍史38, 國防軍史硏究所, 1999), 조선무사영웅전(안확 지음 · 심승구 옮김, 한국국학진흥원, 2005).

필자 | 심승구(沈勝求)

박첨지놀음(朴僉知-)

⇨ 꼭두각시놀음: 가을편

비석치기(碑石-)

정의 일정한 거리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돌을 발로 차거나 던져서 상대의 비석을 쓰러뜨리는 놀이. 비석치기는 주로 봄과 가을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널리 행하는 놀이이다. 지역에 따라서 비사치기, 비석차기, 비석까기, 목자까기, 자까기, 비새치기, 비사색기, 자새치기, 마네치기, 망깨까기, 돌차기, 돌맞추기, 말차기, 강치기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유래 비석치기는 오랜 역사성을 지닌 전래놀이의 하나로 추정되지만 그 유래는 분명치 않다. 다만 민간에서 구전되는 유래담에 따르면 이 놀이가 형성된 배경에는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곧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는 비석거리 또는 비선거리로 불리는 곳이 유난히 많다. 이는 익히 알려진 대로 길 옆에 즐비하게 비석이 서 있기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다. 그런가 하면 비석과는 전혀 무관하게 놀이의 기원을 풀이하려는 견해도 있다. 즉 비석치기란 비석 모양의 돌을 세워놓고 이를 쳐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비석(碑石)치기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애당초 돌을 날려서 치는 놀이라는 뜻의 비석(飛石)치기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 이유로 이칭인 비사(飛砂)치기는 사기그릇 조각을 날려서 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비석치기 이서지



내용 비석치기는 비석으로 일컬어지는 작은 돌을 매개로 한 놀이이다. 상대의 비석을 쓰러뜨릴 때 사용되는 이 돌은 흔히 막자, 목자, 말, 망이라 부르며, 그 형태는 비석 모양이나 장방형의 넓적한 돌이 적당하다.

이 놀이는 두 명이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두 패로 편을 나누어서 해야 재미가 크다. 놀이의 방법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어느 편이 먼저 비석치기를 할 것인지를 정한다. 선후(先後)가 결정되면 진 편은 바닥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비석을 세운다. 그러면 이긴 편은 3~4미터쯤 떨어진 전방에 출발선을 긋고, 이곳에서 차례로 자신의 비석을 던져서 상대의 비석(말)을 맞혀 쓰러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겨룬다. 이때 놀이를 하는 편에서 정해진 순서의 비석을 모두 넘어뜨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계속 비석치기를 할 수 있지만, 도중에 실패하면 상대편에게 기회를 넘겨주게 된다. 비석을 맞히는 방법은 각 지방마다 수십 가지가 전해질 정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가장 일반적인 비석치기의 동작과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손으로 던지기: 비석을 손으로 던져서 상대편의 말을 쓰러뜨리는 동작이다. 마치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듯이 비석을 위로 던져서 맞히는 동작과 밑으로 던지기 두 가지가 있다. ② 발밑으로 던지기: 출발선에서 한쪽 발을 든 다음 그 밑으로 비석을 던져서 목표물을 맞히는 동작이다. 흔히 오른발과 왼발로 구분되는데, 왼발인 경우에는 반드시 왼손으로 비석을 잡고 던져야 한다. ③ 앙감질 자세로 맞히기: 출발선에서 적당한 거리에 자신의 비석을 던져놓고 앙감질(깨금발)로 뛰어서 한쪽 발로 비석을 밟는다. 그런 다음 앙감질로 물러나서 손으로 비석을 잡고 목표물을 향해 던진다. 이때 앙감질로 발짝을

때는 횟수에 따라 보통 세 가지 단계가 있다. ④ 발로 차서 맞히기: 놀이의 요령은 위의 앙감질 자세와 동일하다. 다만 손으로 비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앙감질을 한 상태에서 땅에 디딘 발로 자신의 비석을 밀어차서 상대의 말을 쓰러뜨려야 한다. ⑤ 구두: 출발선에서 발등에 비석을 얹어놓고 정해진 발짝 수를 뗀 다음 그 탄력을 이용하여 상대의 비석을 맞히는 동작이다. 역시 한 발에서 세 발까지 있는데, 걷는 도중에 발등에서 비석이 떨어지거나 발짝 수를 어기면 탈락한다. ⑥ 토끼: 양쪽 발 사이에 비석을 끼운 다음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가서 자신의 비석을 날려 상대의 말을 맞히는 동작이다. ⑦ 무릎: 무릎에 비석을 끼운 채 종종걸음으로 걸어가서 상대의 말을 맞히는 동작이다. 가는 도중에 비석이 빠지면 탈락한다. ⑧ 가랑이: 무릎과 동일한 요령으로 허벅지 사이에 비석을 끼우고 걸어가서 쓰러뜨리는 동작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비석을 음부 부분에 끼우고 앞으로 걸어가서 맞히거나 항문 부분에 비석을 끼우고 뒷걸음질로 가는 동작이 있다. ⑨ 배꼽(배사장): 비석을 배꼽 위에 올려놓고 앞으로 가서 상대의 말을 맞히는 동작이다. ⑩ 목: 목 위에 비석을 얹은 다음 앞으로 걸어가서 상대의 말을 맞히는 동작이다. ⑪ 신문(신문팔이): 겨드랑이 사이에 비석을 끼우고 가서 상대의 말을 쓰러뜨리는 동작이다. 오른쪽과 왼쪽을 모두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⑫ 견장(장군): 왼쪽이나 오른쪽 어깨 위에 비석을 올려놓고 앞으로 가서 상대의 말을 쓰러뜨리는 동작이다. ⑬ 이목구비: 입, 코, 눈, 귀의 순서로 각각 비석을 얹고 가서 상대의 말을 넘어뜨리는 동작이다. 이때 눈과 귀는 좌우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⑭ 이마: 이마에 비석을 얹고 걸어간 다음 인사를 하듯이 머리를 숙여서 상대의 말을 맞히는 동작이다. ⑮ 떡장수: 머리에 비석을 이고 가서 상대의 말을 맞히는 동작이다. 비석을 떨어뜨리기 전에 "떡 사세요?" 하고 상대에게 흥정을 벌여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 밖에도 상대편의 비석을 쓰러뜨리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가령 곱사는 비석을 등에 얹고 곱사처럼 엉금엉금 기어가서 상대의 말을 맞히는 것이고, 불덩어리는 자신의 비석을 들고 "앗 뜨거! 앗 뜨거!" 하고 마치 불덩이를 손에 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가서 상대의 말을 내려치는 동작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눈 감고 던지기, 뒤로 던지기 같은 까다롭고 어려운 동작을 맨 끝에 배치하여 놀이의 흥미를 더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놀이의 과정에는 공격하는 편의 실수를 유도하는 갖가지 재미있는 몸짓과 언행이 부가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배꼽에 비석을 얹고 엉거주춤 걸어가는 아이에게, "사장님, 웬 배가 그렇게 불러요?"라고 상대를 웃겨서 비석을 떨어뜨리게 하거나, "떡 사세요?" 하고 물으면, "비싸서 안 사요." 하고 몇 번씩 퇴짜를 놓아 김을 빼기도 한다.


1


2

1~2 비석치기
심디스마

의의 비석치기의 각 단계에는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동 원리가 담겨 있다. 손끝이나 발끝에서 무릎 - 가슴 - 어깨 - 머리로 비석을 옮겨가는 과정에는 신체의 상하좌우의 균형이 치밀하게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난이도에 따른 익살스런 동작이 적절히 안배되었기 때문에 시종 즐겁고 유쾌하게 놀이에 빠져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비석을 맞히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 유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어린이들의 심신을 단련시키는 데 매우 유익한 놀이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 朝鮮の鄕土娛樂(村山智順, 朝鮮總督府, 1941), 韓國 民俗놀이의 硏究(崔常壽, 成文閣, 1985), 비사치기(리운경, 조선의 민속놀이, 푸른숲, 1988), 한국전래 어린이놀이(최상수, 웅진출판, 1989), 아이들 민속놀이 백가지(김종만, 우리교육, 1993), 금산의 민속놀이(강성복, 금산문화원, 1994), 부여의 민속놀이(강성복, 부여문화원, 1994), 민속놀이와 명절 상 · 하(대산출판사, 2000), 우리나라 민속놀이(沈雨晟, 東文選, 2000), 놀이와 풍속의 사회사(이이화, 한길사, 2001).
필자 | 강성복(姜成福)

수수깡안경놀이

정의 아이들이 가을에 수숫대를 이용하여 장난감 안경을 만들어 노는 놀이.

내용 가을에 벼과에 속하는 일년생 작물인 수수를 수확하고 나서 남은 수수깡(수숫대)을 이용해 아이들이 안경을 만들어 쓰고 노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안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많은 어른들로 주로 돋보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 앞에서 안경을 쓰는 것은 큰 실례가 되었다. 또 안경이 상용화된 이후에도 안경을 쓰지 않는 아이들은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여 장난감으로 안경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수수깡안경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수숫대의 껍질을 벗겨낸 후 부드러운 대를 잘 다듬어서 동그란 안경의 테를 두 개 만든다. 안경의 동그란 테를 잇기 위해 수숫대를 테의 너비에 맞게 토막 내어 이음쇠를 만든 후 안경의 테를 연결하여 완성한다. 아이들은 이렇게 완성된 안경을 쓰고 어른 흉내를 내면서 놀기도 한다. 현재에도 어린아이들은 수숫대를 사용하는 대신 공작용 수수깡으로 장난감 안경을 만들어 쓰고 놀기도 한다.

참고문헌 | 내고장 우리향토(김천시, 1983), 한국민속대사전 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한국민속문화대사전 상 · 하권(김용덕 편, 창솔, 2004).
필자 | 김지현(金智賢)

안성남사당풍물놀이(安城男寺黨風物-)

정의 경기도 안성(安城) 일대에 전승되는 풍물놀이. 안성남사당풍물놀이(安城男寺黨風物-)는 붙박이로 하는 농악이라기보다는 안성 일대에 근거지를 두고 전국적인 유랑을 하는 농악 연희패의 연희를 일컫는다. 유랑 연예인 풍물놀이패라고 보는 편이 적절하며, 세시절기에 따라 풍물놀이를 연행하면서 걸립과 판굿놀이를 행하였다. 1997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다.

유래 경기도 안성의 풍물놀이가 남사당패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안성 청룡사(靑龍寺) 때문이다. 안성시 서운면 산중에 자리 잡은 청룡사가 남사당패의 본거지가 되었는데, 이는 청룡사가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안성에 있어 걸립꾼들이 쉽사리 갈라지고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걸립꾼들은 안성 청룡사의 신표를 받아야 걸립을 다닐 수 있었다.

안성남사당패의 실질적인 기원은 청룡사의 후원을 받은 불당골 사당패로서 이는 중시조격에 해당한다. 흥선대원군이 고종 2년(1865)에 경복궁을 중건하고 일꾼들을 위무하고 놀릴 생각으로 전국의 놀이패를 초청해서 연행하게 한 바 있다. 이때에 농악놀이를 가장 잘 놀았다는 이유로 옥관자(玉貫子)를 하사받은 패거리가 곧 안성바우덕이패이다. 바우덕이패는 안성개다리패라고도 했다. 현재 바우덕이의 무덤이 불당골 근처에 남아 있어서 바우덕이가 실제 인물이었음이 확인된다. 옥관자를 두레기 위에 달고 그 깃발의 아랫부분에 오색삼기(五色三旗)를 달고서 위세를 자랑하게 되었다. 다른 농악대의 두레기가 이 깃발을 만나면 기절[旗歲拜]을 하고 예우를 갖추었으며, 이때문에 안성농악이 영좌농악(領座農樂)으로 지칭되었다. 그러나 농악이 발달한 고장에서는 널리 확인되며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기절을 받는 영좌기가 있게 마련이므로 그같은 전통이 확대되고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안성남사당패의 중시조에 이어서 여러 놀이패가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하였음이 확인되는데, 1930년대까지 개다리패, 오명선패, 심선옥패, 안성복만이패, 원육덕패, 이원보패 등 여섯 패 정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현재 남사당패의 실질적 기원을 이어 온 계보가 있으니, 곧 '바우덕이 -김복만 - 원육덕 - 이원보 - 김기복'으로 이어지는 꼭두쇠의 계보이다. 꼭두쇠는 패거리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데, 이 패거리의 전승 계보가 곧 남사당 풍물놀이의 전승과 내력을 밝히는 증거가 된다.

안성남사당풍물패의 활동 범위는 광범위하여 경기도 안성 일대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북부 지역은 물론 멀리 북간도, 일본의 대마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대체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걸립을 다녔으며 이원보패가 마지막까지 안성 일대에서 활약을 하였다. 이원보 행중의 뒤를 이은 상쇠는 김기복(金起福)으로 현재 전승되는 안성남사당풍물놀이의 주체(主體)이다. 안성남사당보존회는 1982년 4월에 오함헌을 회장으로 하고, 김기복 상쇠를 주축으로 결성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어서 1989년 9월 제3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그 이름을 널리 알렸다.

내용 남사당패는 우두머리인 꼭두쇠를 중심으로 그 아래에 뜬쇠라고 부르는 4~5명의 연희자가 있는 놀이 집단으로 일정한 거처가 없는 유랑 연예인 집단이며 남색(男色)을 파는 독신 남자만의 사회집단이기도 하다. 꼭두쇠는 패거리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그 밑의 곰뱅이쇠는 꼭두쇠의 보좌로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놀이마당을 열어도 좋다는 승낙을 미리 받는 일을 맡는다. 뜬쇠는 실제 남사당놀이의 기능자 가운데 각 연희 분야의 선임자(先任者)를 일컫고, 그 아래로 가열이 있으니 일종의 뜬쇠의 보조자이다. 가열 아래에 삐리를 두는데, 기예를 익히기 위하여 가열 밑에 있는 초입자를 이른다. 이 밖에도 저승패와 등짐꾼을 포함하여 40~50여 명으로 구성된다.

안성남사당놀이풍물패는 남사당패 일반의 조직과 예능을 보존하려고 힘쓴다. 안성남사당풍물놀이는 풍물놀이를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기예능을 곁들이기도 한다. 남사당패에는 여섯 가지 기예능이 있는데 풍물놀이,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가 그것이다. 풍물놀이는 농악놀이를 말하고, 버나는 접시돌리기 따위를 말하며, 살판은 땅재주 넘기, 덧뵈기는 탈놀이, 어름은 줄타기, 덜미는 꼭두각시놀음을 지칭한다. 남사당패는 각각의 놀이가 독자적으로 전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집단으로 결성하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구경거리의 밑천으로 삼았다. 현재 안성남사당풍물놀이에서는 남사당패만의 본질적인 기예능을 모두 전승하지 못하고, 풍물놀이와 버나만을 전승하고 있다.

풍물놀이는 가락, 진풀이, 법구와 무동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가락은 안성의 토박이 가락에 기초하고 있는데, 안성 가락은 크게 보면 안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농악 가락에 준거한다. 이른바 남사당패의 지역 분류로 웃다리 가락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적으로 가다듬어진 것으로 세부적이고 변화무쌍한 가락과 여러 부침새가 붙는 이른바 사치스러운 가락이 아니라 안성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토박이 가락이 있었음을 무시할 수 없다. 토박이 가락을 근간으로 해서 떠돌이 가락의 사치스러운 면모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 점을 중심으로 논의해야만 안성남사당풍물놀이 가락의 정체성을 논의할 수 있다.

웃다리 가락은 길군악 7채, 동리 3채 또는 쩍쩍이 가락, 마당굿 1채, 굿거리 탈춤가락이 다채롭게 쓰이면서도 소박한 것이 특징이다. 웃다리 가락은 남사당패의 은어로 쓰는 말로 아랫다리와 대응이 되는 가락이다. 웃다리 가락에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가락이 있는데, 첫째는 2소박 3소박이



버나돌리기
경기도 안성 바우덕이축제위원회



줄타기
경기도 안성 국립민속박물관

혼합되어 있는 혼소박의 가락이다. 길군악 7채와 마당굿 1채의 가락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다르게 3소박 4박자의 복합가락이 있는데 쩍쩍이 가락, 굿거리 탈춤가락이다. 또 2소박 4박자 유형으로 된 단순 박자의 가락은 안성남사당풍물 가락의 주된 가락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 가운데서도 경기도 안성 쇠가락의 진면목은 길군악 7채와 6채 가락 또는 마당굿 1채에서 발견된다.

안성남사당풍물놀이의 특색은 판굿에서의 진풀이에 따른 무동놀이와 벅구놀이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무동놀이나 벅구놀이는 안성남사당풍물놀이에서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벅구놀이는 당산벌림을 한 뒤에 치배, 무동, 벅구잽이들이 'ㄷ'자형으로 서고 상쇠가 나와서 벅구잽이들을 이끌고 노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벅구잽이와 상쇠가 서로 어울려 농사 짓는 흉내를 하면서 춤사위를 한다. 벅구잽이들이 늘어서는 대형이나 상징적인 행렬은 모의농경의례로서 속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안성남사당풍물놀이의 벅구놀이가 가지는 중요성을 일깨운다.

남사당풍물놀이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동놀이이다. 무동은 새미라고도 한다. 단순한 춤사위의 반복을 피하고 벅구잽이들의 어깨를 딛고 그 위에서 가락에 맞춰서 나풀거리는 춤사위를 무동들이 추게 하여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게 하는 아름다움을 고조시켰다. 또한 단무동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삼무동, 사무동, 오무동, 동고리, 곡마단 같은 입체적인 놀이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칠무동을 세우고 그 위에서 새미를 던지거나 만경창파 돛대사위를 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구성했다. 그런데 문제는 새미받는 행위를 무동놀이로 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무동을 올리는 행위는 근본적 이치가 주술적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아이가 곧 성인이 되어서 남녀가 결합하여 아이를 낳듯이 농사의 풍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거나 거둔 곡식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적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안성남사당풍물놀이는 주로 가을걷이 무렵을 중심으로 걸립을 많이 다닌 농악이다. 안성 현지를 조사하면 붙박이로 머물면서 토박이 가락을 연주하는 집단이 있고, 이와 달리 마을의 연희자 가운데 가락이 뛰어나고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결성된 남사당풍물놀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들과 다르게 전문적인 연희 활동을 하면서 전국을 유랑한 집단이 있다. 기반을 이루는 토박이 가락과 지역적 정체성을 지닌 농악은 안성 일대에 마을마다 있는 농악이다. 소박한 가락에 재주와 사치를 더한 농악이 안성남사당풍물놀이이다.

참고문헌 | 男寺黨牌研究(沈雨晟, 同和出版公社, 1974), 김헌선의 사물놀이 이야기(김헌선, 풀빛, 1995).
필자 | 김헌선(金憲宣)

양주소놀이굿(楊州-)

정의 경기도 양주(楊州) 지역에서 전승되는 소놀이굿. 주로 음력 8~9월에 소놀이굿의 형태로 전하는 것이 이 놀이굿의 세시절기 의례를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양주소놀이굿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현지 조사자들이 소놀이굿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놀이는 양주지방에서 신산(神山)으로 여기는 감악산(紺岳山)의 감악사(紺岳祠)에서 나왔다. 비뚤대왕을 위하는 감악산신의 위무 절차로 이 놀이가 발생했다고 하는 설이다. 둘째, 농경의례의 하나로 풍년을 빌던 의례에서 유래했다. 주술적인 풍농을 기원하는 의례로 본다면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소놀이굿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순전히 기원적인 의례보다는 실용적인 목적 아래에서 소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던 데에서 나왔다는 설이다. 넷째, 이와는 다르게 궁중의례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도 있다. 다섯째, 순전히 놀이패를 위하여 굿의 여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동네 놀이패들이 있어서 이들을 위해 놀이하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 가설은 모두 양주소놀이굿 기원의 배경은 될 수 있겠으나 직접적인 발생의 근거는 아니다. 현재 양주 일대에 전승되어 오는 소놀이굿은 다른 지방에서 배워온 것인지 양주지방의 무속에서 형성된 것인지도 불명확한 채 소놀이굿 보유자들이 팽수천(彭壽天)으로부터 배워 전하고 있다.

다른 고장의 사례를 참고해서 보면 이 소놀이굿의 발생과 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 없고, 다만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우마숭배와 농경의례인 소멕이놀이에 그 기원을 두고, 무속의 제석거리와 마마배송굿의 마부타령의 자극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내용 농경사회에서 소를 위하고 풍농을 기원하며 풍농에 감사드리는 전통은 소를 위하는 굿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전통이 소놀이굿의 형태로 전하는 것을 우리나라 여러 고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놀이굿은 제석거리에서 멍석으로 소를 꾸며 만들고 제석거리의 주관자인 무녀와 마부가 재담과 소리를 주고받는 놀이로, 경사(慶事)굿의 연장선에서 굿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석굿에 이어서 노는 것이 현재 전승되는 소놀이굿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렇듯 소놀이굿이 굿이라고 하는 측면은 제석굿의 연장선에서 놀기 때문이다. 소놀이굿은 대체로 풍농을 기원하는 주술적 목적 아래 제석굿의 일환에서 행해지므로 제의적 성격이 뚜렷하다. 제석굿은 생명을 진작하고 인간에게 복록(福祿)을 가져다주는 신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제석굿의 무녀는 사제자이다. 복색을 보면 고깔에 흰 장삼을 입고 붉은 띠를 맸으므로 전형적인 사제자임이 확인된다. 반면 소놀이굿의 마부는 전립에 청쾌자를 걸치고 있으며 사제자가 아니고 단순한 놀이꾼이라는 점에서 둘의 성격에 차별성이 있다. 무녀와 마부의 합작에 의해서 소놀이굿이 완성되는 것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다. 두 인물의 성격상 사제자와 놀이꾼이 합쳐서 연행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제석굿 말미에 연행하는 소놀이굿의 본질을 재론하는 데 요긴한 단서가 된다.

소놀이굿은 소를 꾸며서 만들어 굿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희적 성격이 부각된 놀이적 성격이 강한 굿이다. 소는 흔히 어미소와 새끼소 또는 큰소와 작은소라고 해서 두 마리를 만들어 사용한다. 소머리와 몸체를 강조해서 만들어 실제 연행에서 구체적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굿에서 동물을 구체적 형상을 꾸며서 놀이하는 다른 고장의 사례로는 황해도평산소놀음굿과 동해안 지역의 범굿이 있다.

범굿은 호식(虎食)을 당할 팔자를 면하거나 흔히 바닷가의 풍어를 비는 굿인데, 이 과정에서 범의 실제 모습을 실감나게 꾸며서 연행한다. 범과 포수가 남무인 양중이 사제하는 굿에 등장해서 포수가 닭을 물고 달아나려고 하는 범을 쏘아 죽이고 범의 가죽을 벗겨서 굿당 밖에서 태우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 이러한 모습은 범굿이 범의 환난 가운데 하나인 호식을 면하자는 뜻도 있으나, 바닷가에서 놀기때문에 풍어를 비는 뜻도 있다. 그 과정에서 소놀이굿의 소와 범굿의 범은 굿에서 꾸며지는 구체적 대상으로 상징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놀이굿은 무녀와 마부의 재담과 소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춤, 노래, 음악, 연희의 네 가지 측면이 총괄적으로 운용되는 민속극과 민속놀이의 연행 방식과 상통한다. 재담과 소리를 적절하게 배합하고 교체하면서 연행하기 때문에 이완과 긴장의 묘미가 청중에게 감동을 준다.

소놀이굿은 놀이와 굿이 합쳐진다. 소놀이굿의 직접적인 기원을 이루는 것은 소놀이이며 그 중에서도 소멕이놀이이다. 소멕이놀이는 민속놀이의 일환으로 노는 것으로 정월대보름과 추석에 흔히

행하였다. 소멕이놀이의 핵심은 장정 두 사람이 멍석을 뒤집어쓰고 머리와 꼬리를 만들어, 주인과 머슴 네 사람이 소를 몰고 부잣집에 가서 소 울음을 울고 "옆집 소가 평생 즐기는 싸리꼬챙이와 뜸물을 먹고 싶어서 찾아왔다."라고 하면 주인이 산적과 술을 내놓아 대접한다. 이때 농악대가 뒤따르면서 놀이를 한다.

소멕이놀이가 변형된 사례로 기호(畿湖)지방에서 노는 거북놀이가 있다. 거북놀이는 소놀이와 흡사하나, 다만 소의 멍석 대신에 수숫대 잎이나 짚을 써서 거북의 모양을 만든 것이 특징이며, 풍농을 기원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였다. 거북이 지니는 신령한 동물의 영험성으로 해서 거북놀이를 소놀이와 함께 놀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와 관련된 민속놀이로 영산쇠머리대기도 있다. 이 놀이는 소싸움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며, 쇠머리 두 개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 전체가 가지고 노는 것이 곧 쇠머리대기이다. 쇠머리대기의 핵심은 소머리 두 개를 가지고 싸워서 풍농을 기원하는 풍농의례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소멕이놀이, 거북놀이, 쇠머리대기는 소를 가장해서 놀았거나 소 대신에 거북을 사용하거나 더 나아가서 쇠머리를 꾸며서 격렬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놀이의 방식 자체가 화합하는 것과 갈등하는 것으로 양분되는데, 이 두 가지 놀이 방식이 소를 두고 공존한다.

소놀이굿에는 화합하는 방식은 잘 드러나지만 소싸움과 같은 격렬한 형태는 등장하지 않는다. 굿이 지닌 성격 자체가 화합의 주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놀이굿은 소를 잘 위하자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를 잘 위하게 되면 명(命)과 복(福)이 깃든다고 하는 사고(思考)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멕이놀이와 같은 형태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놀이굿의 또 다른 측면은 굿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굿은 무엇이 잘 되자고 기원하는 것이다. 무당이 사제자가 되어서 무당굿놀이의 일환으로 노는 것이 그러한 단적인 사례이고, 실제로 소놀이굿이라는 말 속에 그러한 현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석굿의 마지막에 소놀이굿을 달아짓기로 하는 것은 이러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소놀이굿에서 굿과 관련이 있는 요소 가운데 마부와 무녀가 함께 놀이를 하는 형식에서는 마마배송굿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 소놀이굿과 마마배송굿 및 범굿의 굿으로서의 성격을 비교하는 데 훌륭한 비교거리가 된다. 무녀와 마부가 상대역을 하는 굿거리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장문잡기, 군웅노정기, 뒷전이 이에 해당한다. 이 굿거리들에서 무녀와 남무(男巫)의 대화에 의해서 일부 굿거리가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나 소놀이굿에서는 마부 노릇을 하는 인물이 무당과 관련이 없다.

마마배송굿 역시 마부 구실을 하는 인물이 무당이다. 마부가 마마배송을 위한 제차를 진행하고 마지막에 잡귀를 축출하는 대목이 있어서 대결 방식으로 축출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소놀이굿에서는 마부가 축원과 덕담을 하면서 끝을 맺는다. 마마배송굿은 위협적인 진언으로 마마를 배송하는데 소놀이굿에서는 화합하자는 주술적 의도가 훨씬 강화되어 있다.

마마배송굿의 극단화된 대결 형식이 곧 범굿이다. 범굿은 포수와 범이 직접적인 대결 형태로 발전하였다. 자연의 대표자인 범과 자연의 재앙을 물리치는 포수가 대결하는 것이 범굿이다. 마마배송굿에서는 마마를 쫓아내기는 하되, 잘 위하는 동시에 마지막 대목에서 육갑과 진언을 해서 쫓아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결말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세 가지 굿은 대상에 대한 접근 방식과 어떠한 대결의 방식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소놀이굿에서는 마부와 무녀가 재담과 소리로 대화하고 소를 잘 위하자는 생각이 결말에 나타난다. 그러나 마마배송굿에서는 무녀와 마부가 재담과 소리를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잡귀 따위를 진언과 육갑으로 축출한다. 이와는 다르게 범굿에서는 행위와 극적 연출을 통해서 범을 퇴치하자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본디 행위로 연출되던 것이 재담과 소리로 변질되고, 잡귀나 재앙을 물리치던 것에서 오히려 대상을 기리고 축원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놀이굿은 소를 위하자는 굿이지 소를 협박해서 물리치자는 굿은 아니다. 소를 위하는 굿이므로 소의 내력을 높이 내세우고 소의 여러 모습을 거듭 칭송하여 사설로 늘어놓는 특징이 있다. 소를 위하는






〈양주소놀이굿〉
1 무녀와 마부의 만남
2 소 팔고 사는 흥정
3 소놀이굿
4 큰 소 행렬
경기도 양주 김영한

굿이 아니면 소를 제물로 삼고 범굿에서처럼 소머리를 땅에 묻어서 범을 위로하는 굿 대목이 첨가되게 마련이다.

요컨대 소놀이굿은 민속놀이와 굿이 합쳐져서 파생된 독자적인 무당 굿놀이이다. 굿놀이는 무녀와 마부가 서로 재담과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소놀이굿은 농경의례의 일환으로 놀아지면서 마을 사람이 무당굿에 참여하여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무당굿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놀이굿이 전승된 고장은 옛 기록에서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 전승되는 자료는 다음의 네 가지만 있을 따름이다. 경기도 양주, 황해도 평산과 연백, 우옥주 무당의 자료는 소놀이굿의 존재 의의를 밝혀주는 요긴한 자료가 된다. 소놀이굿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굿의 일환으로 놀아졌다는 것이 명백하다.

굿에서 무당이 굿놀이를 벌이는 사례는 소놀이굿 외에도 많다. 이를테면 경기도 도당굿의 군웅노정기나 뒷전은 소놀이굿에 못지않게 확장되어 있는 사례이다. 이 밖에 동해안 지역에 전승되는 범굿 역시 무당굿놀이와 비교될 수 있는 적절한 사례이고, 제주도지방의 '맞이'와 같은 사례는 다양한 제주도 굿놀이를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다.

소놀이굿은 다른 지역의 무당굿놀이와 차별된다. 우선 마을의 놀이패가 소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점이 중요하다. 무당 자신이 놀이의 주체가 되고 상대역이 되는 것이 명백히 다르다. 마을의 놀이꾼과 무당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이 소놀이굿이다.

경기도 도당굿의 뒷전이나 군웅노정기가 참여하여 굿을 확장해 놀이하는 것이 일치되나, 이들의 참여는 무녀의 남편인 화랭이놀이 방식이라는 점에서 소놀이굿과 구별된다. 소놀이굿은 무녀가 매개하여 마을의 놀이패와 더불어 노는 것이므로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놀이굿은 제석굿과 관련되어 노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제석굿과 소놀이굿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은 고찰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경기도 북부의 제석굿은 제석본풀이 없이 진행되고 오히려 이 대목에서 소놀이굿이 부가되는 점이다. 제석본풀이의 전국적 분포 가운데 공백을 보이는 지역이 경기도 북부와 해서(海西) 지역이다. 제석굿에 소놀이굿이 부가되면서 놀이적 형식이 강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놀이굿이 있으면 제석본풀이가 없는 사실은 분명하다.

두 곳의 소놀이굿은 무당굿놀이가 주술적 의례에서 예술적 놀이로 발전하는 다각도의 사례를 응집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한 시사가 긴요하다. 소놀이굿 자체에 기본적 유형과 이질적인 확대·발전형의 두 가지 사례가 있어서 소놀이굿의 의의가 여러 차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놀이굿은 신화에서 연극으로 또 의례에서 놀이로 발전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다양한 굿과 놀이가 복합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소놀이굿으로 분화되고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소놀이굿과 비교되는 거북놀이와 게줄다리기가 있어서 좋은 대조가 된다. 거북놀이와 게줄다리기 역시 풍농을 기원하는 점에서 소놀이굿과 비교되지만 결정적으로 무녀의 참여가 있다는 점에서 소놀이굿과 차별성을 가진다. 예사 사람들의 민속놀이이기 때문이다.

소놀이굿은 무당굿놀이의 전반적인 갈래와 다르고, 민속놀이와도 차이가 있는 민속놀이와 무당굿놀이의 중간적 구실을 하고 있다. 소놀이굿은 경기도 북부와 해서 지역의 독자적인 무당굿놀이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의의 역시 이 점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참고문헌 | 續人間文化財3(芮庸海, 韓國日報, 1964. 4. 2.), 楊州소놀이굿(李杜鉉, 國語國文學39·40, 國語國文學會, 1968),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忠淸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6), 靈山줄다리기·쇠머리대기(曺星國, 素民苑, 1978), 양주소놀이굿(이두현, 韓國民俗學論考, 學硏社, 1984), 양주경사굿과 소놀이굿(李杜鉉, 悅話堂, 1989), 양주소놀이굿(김헌선, 화산문화, 2001).
필자 | 김헌선(金憲宣)

오룡쟁주놀이(五龍爭珠-)

정의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각 동(洞)의 지세(地勢)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축제 형식의 놀이. 이 놀이는 천안이 오룡쟁주(五龍爭珠) 형국(形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다섯 마리 용이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하여 자웅(雌雄)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래 오룡쟁주놀이의 유래는 서기 936년 9월 후백제의 신검(神劍)과 용검(龍劍)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치기 위해 8만 7천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천안에 주둔했을 때, 이 지역이 하나의 여의주를 놓고 다섯 마리 용이 싸우는 지세임을 알아냈다. 이후부터 천안은 오룡쟁주의 지세라고 불렸으며 오룡쟁주놀이의 기원 역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유래담은 놀이의 역사성을 왕건과 연계시키기 위한 허구일 뿐이다. 천안이 오룡쟁주 혹은 구룡쟁주의 지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왕건과는 무관하게 근래에 향토사가들이 명명한 풍수상의 용어인 것이다. 더군다나 이 놀이는 오랜 역사성을 지닌 전승놀이가 아니라 30여 년 전에 천안시민의 화합을 도모할 목적으로 연출된 것이다. 증언에 따르면 1970년대 후반에 천안의 향토사가였던 고(故) 오수창 선생이 천안의 지리적 특징과 왕건 설화를 배경으로 오룡쟁주놀이를 창안하여 시민의 날 행사에 선을 보인 것이 그 효시라고 한다. 당시 천안여상 학생들이 이 작품에 출연한 바 있으며, 이후 2~3년 간 천안시의 문화체육 행사에서 연출되었으나 별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내용 오룡쟁주놀이에 등장하는 다섯 마리 용은 동청룡, 남적룡, 서백룡, 북흑룡, 중앙황룡으로 오행(五行)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를 천안의 지세에 적용하면, 남산은 여의주를 뜻하고, 동청룡은 장대산, 서백룡은 일봉산, 남적룡은 청수동의 수도산, 북흑룡은 천안초등학교의 정봉을 각각 일컫는다. 그리고 중앙의 황룡은 지금의 천안시청에서 중앙초등학교로 뻗은 산맥을 지칭한다.

이러한 지세에 착안하여 남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마을이 오룡(五龍)에 비정되어 여의주를 다툰다. 경쾌한 농악에 맞춰 놀이가 시작되면 다섯 마리

용들은 붉은색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입에서 불을 내뿜고 몸과 꼬리를 마구 흔들면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인다. 오룡의 다툼이 점점 격해지면 구경하는 주민들도 자기 마을의 용이 여의주를 빼앗도록 응원에 열을 올리는데, 그 함성과 풍물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바야흐로 오룡쟁주놀이는 절정에 이른다. 이렇게 몇 차례의 세찬 싸움 끝에 상처를 입었거나 지쳐버린 용은 모두 그 자리에 쓰러지고, 오직 쟁탈전에서 이긴 최후의 용 한 마리가 여의주를 입에 물고 당당하게 운동장을 돌며 승리를 과시한다.

참고문헌 | 내고장 전통가꾸기(천안시, 1981), 한국민속대사전2(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1), 충남의 민속예술(한상수, 충청남도, 1995).
필자 | 강성복(姜成福)

죽마놀이[竹馬戱]

정의 대나무로 말을 만들어 타고 노는 남자 아이들의 놀이. 죽마(竹馬)타기, 죽족(竹足)이라고도 부르며 북한지방에서는 대말[竹馬]타기라고도 한다.

유래 죽마놀이와 관련하여 죽마고우(竹馬故友)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것은 중국 진(晉)나라 때의 인물인 은호(殷浩)가 전쟁에서 대패(大敗)한 책임을 묻는 환온(桓溫)의 상소문에 나오는 표현이다. 죽마놀이는 당나라의 덕연(德延)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 고안하였다는 기록이 『잠확거유서(潛確居類書)』에 나온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죽마놀이가 남자아이들을 중심으로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잡언봉화(雜言奉和)』를 비롯한 여러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탑상편(塔像篇)」에 죽마를 타고 피리를 불면서 놀았다는 기록이 있고, 고구려 고분인 강서(江西) 수산리(修山里)나 팔청리(八淸里) 고분벽화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에는 죽마놀이가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고려시대의 『목은집(牧隱集)』이나 조선시대 임제(林悌)의 글에서도 '죽마'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전승했음을 알 수 있다.

내용 죽마놀이는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 첫째는 긴 작대기나 대나무를 가랑이 사이에 끼고 뛰어다니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목마라고 하는 세워진 작대기를 타고 뛰는 방식이다. 작대기를 가랑이에 낄 경우에는 손으로 잡을 만한 굵기로, 뒤쪽은 땅에 끌릴 정도의 길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머리부분에는 말의 형상을 다는데, 옥수수의 대를 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회초리를 준비해서 말을 달릴 때 채찍질하는 시늉을 내기도 한다.

목마는 자신의 키보다 큰 참나무를 이용하며, 발받침대로서 아랫부분에 나무토막을 붙여 그 위에 발을 올려 타고서 뛰면서 돌아다닌다. 북한에서는 발 받침대를 층층이 만들어 맨 아래부터 시작하여 점차 익숙해지면 더 높은 받침대로 오르는 형태도 있다. 놀이 방법으로는 일정한 지점을 정해놓고 릴레이식으로 갔다 오는 방법이 있으며, 목마의 경우에는 서로 부딪쳐서 땅에 발이 닿으면 지는 것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방법도 있다.

죽마놀이를 할 때 부르는 동요는 전국적으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라 말아 지라 말아, 찍찍 말아라
조금 가다 죽 주마, 방귀 찍찍 뀌지 말아(황해도)
이랴말아 상사말라, 이홍씨홍 하지마라
조곰가면 여물줄라(충북 제천)
이랴 말아, 굽 다칠라
용사가 나가신다(경북)

이들 동요는 대개 말이 달리는 모습을 그리는 식으로 간단하다.


죽마놀이 이서지

참고문헌 | 三國遺事, 潛確居類書, 雜言奉和, 남국의 민속놀이(진성기, 흥인문화사, 1975), 韓國民謠集 V(任東權 編, 集文堂, 198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조선의 민속전통5-민속놀이와 명절-(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光州의 民俗놀이(光州民俗博物館, 1995), 조선의 민속놀이(문화출판사 편, 민속원, 1997), 한국민속의 세계5(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필자 | 김종대(金宗大)

줄타기

정의 줄광대가 줄 아래에 어릿광대와 삼현육각을 대동하고 줄 위에서 여러 가지 기예, 재담, 가요를 연행하는 전통연희. 줄타기는 답삭희(踏索戱), 이승(履繩), 주삭(走索), 보삭(步索), 주승(走繩), 사연삭(躍輦索), 무환(舞紈), 승희(繩戱), 답연삭(踏連索), 답삭(踏索), 삭상재(索上才), 긍희(絙戱), 환희(紈戱), 희승(戱繩), 고환(高紈), 고조(高組), 승기(繩伎), 승도(繩渡), 도백삭(渡白索), 주질(注叱; 줄질의 이두식 표기) 같은 한자 표현들이 있다. 줄타기는 중요무형문화제 제58호로 지정되어 있다.

유래 줄타기가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산악(散樂), 백희(百戱)가 중국과 서역에서 전래되었을 때, 줄타기도 함께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악, 백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백희, 가무백희, 잡희, 산대잡극(山臺雜劇), 산대희(山臺戱), 나례(儺禮), 나희(儺戱), 나(儺) 같은 용어 아래 행해졌는데, 이때 줄타기는 반드시 포함되는 중요한 연희였다.

줄타기에 대한 이른 시기의 기록은 이규보(李奎報)가 오세문의 '삼백운시(三百韻詩)'에 답한 시 가운데 "놀이 줄은 높아서 은하수에 닿았고"라는 내용, 이규보가 임금의 행차를 맞이할 때 연행한 놀이를 묘사한 시 '진강후 저택에서 임금의 행차를 맞이하며 올린 서문과 송시(晉康侯 邸迎 聖駕次敎坊致語口號)'에 나오는 "번쩍이는 비단옷은 안개 속에 벌려 있고 산들은 울긋불긋 구름은 뭉게뭉게, 줄타기도 아슬아슬 하늘중천 건너가고 둥당둥당 풍악소리 온 거리에 울려가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례, 중국 사신 영접 행사, 관아 행사, 문희연, 동제와 같은 행사에서 줄타기를 연행했다. 성현(成俔)이 나례에서 연행된 방울받기, 줄타기, 꼭두각시놀이, 솟대타기를 보고 지은 '관나희(觀儺戱)'에서 "줄 타는 모습은 조비연처럼 날렵하네."라는 내용이 있고, 성현이 중국 사신 영접 행사에서 연행된 땅재주, 줄타기, 방울받기, 인형극을 보고 지은 '관괴뢰잡희시(觀傀儡雜戱詩)'에서 "줄타기 방울받기 기술도 많은데"라는 내용이 있고, 『문종실록(文宗實錄)』 즉위년(1450) 6월 10일조에서는

1~2 줄타기
국립민속박물관


1


2


1


2


3

1~3 줄타기
송석하

중국 사신 영접 행사에서 연행하는 곡예 종목으로 주질(줄질, 줄타기), 농령(방울받기), 근두(땅재주)를 들었다. 조선에 사신으로 왔던 아극돈(阿克敦)의 '봉사도(奉使圖)' 중 제7폭에는 모화관 마당에서 사신을 위해 공연한 연희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산대(소형 산대) 앞에서 연행되는 탈춤, 대접돌리기, 땅재주, 줄타기가 보인다.

유득공(柳得恭)의 『경도잡지(京都雜志)』 유가조(遊街條)에서는 유가와 문희연에서 연행했던 골계희, 땅재주, 줄타기를 살펴볼 수 있다. 송만재의 '관우희(觀優戱)'는 문희연에서 연행한 영산회상(靈山會相), 가곡, 12가사, 어룡만연지희(魚龍曼衍之戱), 불토해내기, 포구락, 사자무, 처용무, 요요기(拗腰技), 판소리단가, 판소리, 땅재주, 검무, 솟대타기, 홍패고사와 함께 줄타기의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조선 후기 줄타기는 세습무계의 재인에 의한 광대줄타기, 재인촌 재인들의 재인줄타기, 유랑 예인 집단의 어름줄타기로 전승되었다.

광대줄타기는 주로 한강 이남 지역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의 재인청(才人廳)에 소속되었던 무부(巫夫) 출신의 재인들이 나례, 중국사신 영접 행사, 관아 행사, 문희연과 같은 양반이나 부잣집의 각종 잔치와 경기도도당굿과 같은 동제에서 연행한 것이다. 광대줄 계열의 김상봉은 200여 년 전의 인물이다. 그에 의해 광대줄의 계보가 최상천, 김관보, 김영철 그리고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의 예능보유자인 김대균으로 이어진다. 김관보를 통해 김봉업, 임상문, 이일문, 이정업, 오돌끈, 이동안, 김영철과 여류 줄꾼인 임명옥, 임명심, 정유색, 전봉선, 한농선이 배출되었다.

재인줄타기는 주로 한강 이북 지역인 황해도와 평안도의 재인촌에 살면서 관아의 악사청에 속해 있던 재인들이 연행한 것이다. 재인촌 사람들은 삼현육각의 악기 연주는 물론 줄타기와 땅재주 같은 기예도 연행했다. 19세기 초에 그려진 작자 미상의 '평안감사환영도(平安監司歡迎圖)'에 여러 연희와 함께 줄타기도 보이는데, 이는 바로 평안도 재인촌의 재인들이 연행했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국가의 공식 행사가 위축됨에 따라 민간을 떠돌면서 연희를 공연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유랑 예인 집단들이 속출했다. 이들 가운데 사당패, 남사당패, 솟대쟁이패, 광대패, 걸립패가 마을, 장터, 파시를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연희 가운데 하나로 줄타기를 공연했다. 이를 어름줄타기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남사당패의 풍물, 대접돌리기, 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뵈기 가면극, 꼭두각시놀음은 남사당놀이로서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수락산 홍국사의 '감로탱'에 쌍줄타기가 보인다. 남사당패 출신인 이수영 옹에 의하면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쌍줄타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전승되지 않는다.

내용 광대줄타기와 어름줄타기는 관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놀이판, 놀이 시간, 놀이 내용도 달랐다. 광대줄의 줄판은 궁궐이나 관아, 양반들의 집에서

벌어지므로 울안 마당에 차려진다. 광대줄은 대개 낮에 놀며 보통 4~5시간 이상 논다. 도중에 줄광대가 쉬는 막간에는 어릿광대가 나와서 논다. 반면에 어름의 줄판은 민간 마을의 넓은 마당에 차려지며 밤에 시작해서 밤새 논다. 따라서 놀이판에는 장작불이나 횃불을 밝힌다. 어름은 남사당패의 연희 가운데 하나로 한 시간 반 정도 논다.

줄판에 설치하는 줄은 삼 껍질로 꼰 지름 3센티미터 정도의 녹밧줄을 쓴다. 광대줄은 높이가 3미터에 길이는 10미터 정도이고, 어름줄은 높이 3미터에 길이가 5~6미터이다. 광대줄을 놀 때는 삼현육각이, 어름에는 꽹과리, 징, 북, 장구, 날라리가 음악을 반주한다.

광대줄타기와 어름줄타기 모두 줄타기에 앞서 줄고사를 지낸다. 줄고사의 고사문은 줄광대(어름산이)가 읊는데, 돌아가신 스승, 선배 또는 줄할머니, 줄할아버지에게 사고 없이 줄을 타게 해달라고 비는 내용이다. 줄고사가 끝나면 연희자들은 배례하고 나서 올렸던 술을 양쪽 줄기둥과 줄에 붓고 줄에 오른다.

줄고사에 이어서 중놀이와 왈자놀이 같은 흉내내기 연기를 한다. 중놀이는 줄광대가 줄 위에서 재주를 하다가 고깔 장삼과 다홍띠를 입고 난 뒤에 중타령을 부르며, 중이 내려오는 몸짓과 얼굴 표정, 걸음걸이, 염불하는 모습을 줄 위에서 표현하며, 뒤에 이어지는 왈자와 중의 파자놀이, 팔선녀와 희롱하다가 양반에게 몰매를 맞고 신세한탄을 하며 파계하는 모습 등 중의 모습을 희화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상황의 전개와 관련하여 중타령, 오봉산타령, 풍년가, 새타령, 팔선녀 타령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각종 줄타기 기예(잔놀음)를 보여준다.

광대줄의 연희자는 줄광대와 어릿광대가 있다. 어릿광대는 줄광대가 줄을 탈 때 땅 위에 서서 같이 뛰놀며 익살을 부린다. 어름 연희자는 어름산이와 매호씨가 있다. 매호씨는 앉아서 장구를 쳐주며 어름산이와 재담을 주고받는다. 줄광대와 어름산이는 줄타기를 할 때 단순히 줄만 타는 것이 아니라 재담과 노래까지 곁들인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줄타기를 판줄이라고 하며, 그러한 줄광대를 판줄광대라고 부른다.

전반적으로 광대줄타기는 줄을 타는 기술의 종류나 솜씨가 뛰어나다. 반면에 어름줄타기는 재담과 오락성이 더 발달했다. 광대줄타기의 줄연기는 줄 위에서 한 발이 내려왔다가 줄의 탄력에 의하여 다시 올라가 딛는 외홍잽이를 비롯해 20여 가지가 있다. 어름줄타기의 줄연기는 양반집 아들의 병신걸음걸이 흉내 내기인 참봉댁 맏아들 등 17가지가 있다.

인접국가사례 중국의 줄타기는 한대(漢代) 장형(張衡)의 '서경부(西京賦)'에 산악, 백희의 한 종목으로 묘사되어 있고, 약 2000여 년 전 축조된 한나라 무덤의 화상석(畵像石)에 매우 풍부하고 다채로운 연희 장면과 함께 줄타기가 묘사되어 있다. 중국 줄타기는 지금도 잡기단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데 서커스의 줄타기처럼 묘기 위주이다.

일본의 줄타기는 12세기 말에 그려진 '신서고악도(信西古樂圖)'에 처음 보인다. 15세기 이후에는 구모마이(蜘舞)라고 불렸다. 에도시대에 들어서는 가부키(歌舞伎)의 한 기술로 발전했다. 18세기 무렵 줄타기는 일본 곡예술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때까지는 쌍줄타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737년 구메노스케라는 연희자가 한 줄 위에서 칼을 사용한 연희를 한 후에 쌍줄타기는 점차 사라졌다. 1864년에 서양의 줄타기가 일본에 들어와서 요코하마에서 흥행했고, 현재는 민속 연희의 현장이나 서커스에서 연행되고 있다.

의의 줄타기는 예부터 각종 국가 행사, 관아 행사에서는 물론 민간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 전통연희의 하나이다. 한국의 줄타기는 다양하고 유연한 기예를 갖추고 있으며, 줄꾼과 어릿광대가 각 장면에 어울리는 삽입가요와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재담을 구사하는 수준 높은 공연물로서, 묘기를 위주로 하는 외국의 줄타기와 차별성을 지닌다.

참고문헌 | 京都雜志, 文宗實錄, 줄타기(심우성, 화산문화, 2000), 한국 줄타기의 역사와 연행 원리(이호승,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한국의 전통연희(전경욱, 학고재, 2004).

필자 | 전경욱(田耕旭)

⇨ 남사당놀이(男寺黨-): 가을편

지게놀이

정의 봄이나 가을철에 장정들이 산에 땔나무를 하러 다니면서 지게를 가지고 놀던 민속놀이. 지역에 따라 지게행상(行喪)놀이, 지게생이놀이, 지게싸움놀이, 지게춤물박장단놀이로도 불린다.

유래 지게놀이는 전국적으로 널리 전해지고 있고 일상적으로 펼쳐진 놀이이므로 연원이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게라는 생활 도구를 놀이 기구로 삼은 데서 보듯이 오래되고 보편화된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및 지역사례 마을 장정들이 무리를 지어 나무를 하거나 풀을 베러 다니면서 지게를 활용해 놀이를 했다. 지역에 따라 놀이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의 창죽과 전각마을 장정들은 퇴비와 땔감을 위해 두 마을 사이에 있는 구봉산에 올라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 힘겨루기와 재주겨루기를 했다. 놀이 내용은 양쪽으로 갈라서서 지게 가지 잡고 뛰어넘기, 지게 목발 잡고 들기, 지게 작대기 잡고 들기, 지게 타고 걷기, 물지게 돌리기가 있다.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지게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미는 집단놀이를 했다. 양구 대암산의 바랑골 사람들은 화전을 일구거나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자주 산에 갔다. 산에 갈 때는 일의 고통을 잊기 위해 무리를 지어 지게놀이를 즐겼는데, 그 과정을 재현하여 돌산령지게놀이로 전승하고 있다. 지게걸음놀이, 지게상여놀이, 회다지놀이, 지게싸움놀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게걸음놀이는 서로 편을 나누어 지게걸음으로 상대편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최후까지 남는 쪽이 이긴다. 지게상여놀이는 지게로 상여를 만들어 상여소리에 맞춰 이동하는 것이며, 회다지놀이는 상여를 내려놓고 회를 밟으며 노는 것이다. 지게싸움놀이는 지게상여를 들어서 상대편을 밀어 넘어뜨리는 놀이다.

정선의 지게춤물박장단놀이는 본래 남정네들이 산에 오를 때 지게 장단을 치며 아라리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마을 두레나 호미씻이와 같은 마을 행사에서 남녀가 어울려 노는 놀이로 발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게춤, 물박장단, 한마당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화천에서는 농한기에 땔나무를







〈지게놀이〉
1 바랑골지게소리
2 지게상여 이동
3 지게상여놀이
경기도 포천시 공설운동장
국립민속박물관









〈지게놀이〉
1 지게걸음놀이
2 지게싸움놀이
3 지게싸움놀이
4 지게싸움놀이
5 지게싸움놀이
6 짱치기놀이
7 짱치기놀이
경기도 포천시 공설운동장
국립민속박물관

하러 다니면서 지게행상놀이를 했다. 지게로 행상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짓궂은 장난과 익살스런 선소리 가락으로 노자를 얻어내는 놀이이다. 본격적인 지게행상싸움을 해서 승수를 겨루는데, 패자는 승자의 나무까지 두 짐을 해주어야 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에서는 봄이나 가을철에 나무하러 간 젊은이들이 지게를 포개 얹어 행상(行喪)같이 꾸며놓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지게놀이를 했다. 한 사람을 상주 행색으로 꾸미고 한 사람이 지게 위에 올라가 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다. 또 광산구, 동구, 북구에서도 지게들기로 힘겨루기를 했다. 마을 장정들이 산에서 나무하다가 잠시 쉴 때나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한가할 때 지게들기를 한다. 지게들기는 힘과 기술 및 노련미를 요구하는 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뭇단을 걸고 갈퀴치기와 같은 놀이를 했다.

의의 지게놀이는 산에 일을 하러 가거나 쉴 참에 흥을 돋우고 활기를 회복하기 위해 하는 놀이다. 노동의 현장에서 생활 도구를 이용해 펼치는 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산악을 끼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 폭넓게 전승되고 있다.

참고문헌 | 光州의 民俗놀이(光州民俗博物館, 1995), 강원전통문화총서-민속-(김의숙 외, 國學資料院, 1997).
필자 | 이경엽(李京燁)

홍동지놀음(洪同知-)

⇨ 꼭두각시놀음: 가을편

황해도평산소놀음굿(黃海道平山—)

정의 황해도 평산(平山)지방에서 전승되던 놀음굿.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농사나 사업, 장사의 번영을 빌거나 자손의 번창을 비는 뜻에서 경사(慶事)굿에서 놀았다. 이때는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가 되어 이 굿을 통해 마을의 협동과 화합을 다지고 개인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놀이이다.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1988년 8월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로 지정되었으며, 보유자는 마부역인 이선비(李先妣)이고, 조교는 이창호(악사), 윤정화(무녀), 안금순(지정닦기)이다. 이들은 인천광역시에 황해도평산소놀음굿보존회를 두고 전수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소놀음굿은 현재 황해도평산소놀음굿과 함께 경기도의 양주소놀음굿(중요무형문화재 제70호)이 전승되고 있다.

내용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경사굿에서 제석(帝釋)거리에 이어 소놀음굿으로 행해지는데, 굿판이 집 안마루에서 마당으로 옮겨진다. 마당에서는 먼저 팔선녀(八仙女)놀이를 벌이는데 팔선녀가 타고 내려오는 여덟 개의 무지개를 나타내는 천을 늘어뜨려놓고, 그 밑에는 팔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는 곳이라 하여 큰 물동이에 물을 담고 바가지 여덟 개를 띄운다. 이것은 팔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승천하는 것을 상징한다.

소놀음굿이 시작되면 먼저 옥황상제(玉皇上帝)에게서 전갈이 왔다고 하며 백지를 제석님에게 갖다준다. 제석님이 그것을 읽고 타령조로 사설을 부르면 나졸들이 끝머리 사설을 만수받이로 받는다. 사설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지상에 강림하여 인간을 탄생시키고 조선국을 개국한 내력을 타령으로 부른다. 제석님은 지상춤을 추며 재배하고 옥황상제에게 조선국에 무사히 나왔음을 알린다. 이렇게 해서 천상놀이가 끝나고 지상에서의 놀이가 시작된다.

이때 바지저고리에 벙거지를 쓴 마부가 어미소를 끌고 들어오면 송아지가 뒤따른다. 제석님은 마부와 재담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농신(農神)이며 산신(産神)이고 수신(壽神)을 겸한 제석님이 중심이 되어 마부는 소를 끌고 다니면서 밭갈이를 하고, 애미보살(愛味菩薩)은 씨를 뿌리고 지장보살(地藏菩薩)은 김매기를 하며 신농씨(神農氏)는 농사일을 감독하는 동작을 놀이로 한다. 소를 길들여 부리는 요령과 쟁기에 보습을 맞추는 법을 가르치는 대목이 있는 농경의례의 굿일 뿐더러, 제석님이 인간들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방아를 찧고, 그 집의 재수와 복을 주기 위하여 집터의 지경을 다지는 놀이가 있다. 또 산신으로서 아기도 점지해준다. 미개한 인간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치고 복을 내려준 다음, 하늘에서 데리고 온 나졸들을 데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와 같이 이 놀이는 농경의례인 굿에서 놀이로의 이행을 보여준다.


1


2


5


6


9


10


3


4


7


8


11


12

〈평산소놀음굿〉
1 소 제작하기
2 칠성거리
3 제석거리
4 소놀음굿
5 소놀음굿
6 소놀음굿
7 장수거리
8 장수거리(쌍작두 그네타기)
9 타살거리
10 타살거리
11 대감거리
12 터주거리

문화재청

평산소놀음굿은 모두 열다섯 거리로 짜여져 있는 큰굿의 중간 부분인 제석거리 말미에 이어서 행해진다. 굿의 순서는 신청울림 - 당산(堂山)맞이와 성수거리 - 초가망(초부정)거리 - 칠성거리 - 제석거리 - 소놀음굿 - 성주굿 - 장수거리(쌍작두타고 그네뛰기) - 타살거리 - 대감거리 - 조상거리 - 터주거리 - 말명거리 - 사냥거리 - 마당굿의 순서이다.(1987년 4월 19일에 실시한 순서임) 이 소놀음굿의 순서는 황해도평산소놀음굿에도 해당된다.

배역들의 복색을 보면 제석은 가사를 메고 염주를 걸고 마부는 바지저고리에 벙거지를 쓰며, 애미보살은 치마저고리에 수건을 쓰고 허리에는 바구니를 찬다. 지장보살은 치마저고리에 호미를 든다. 신농씨는 갓 쓰고 도포를 입고 책을 든다. 어미소와 송아지는 종이로 만든 소머리를 잡고 덕석을 뒤집어 쓴다.

동원되는 만신은 6명이나 그 밖에 팔선녀, 지정닦는 사람 6명, 방아 찧는 사람 7명 등 모두 33명이 등장한다. 음악은 무악(巫樂)으로 장구, 징, 저(젓대)의 셋이다. 보통 이 굿은 해가 질 무렵에 시작하여 동이 트는 새벽까지 계속된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소놀음굿이 끝나고 나서 장수거리에서 모든 잡귀를 쫓는다는 뜻에서 쌍작두를 타고 그네뛰기를 행하는 일이다. 작두날 위에 서서 그네를 타는 것은 현재 전국에서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보유자인 이선비 만신뿐이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學論考(李杜鉉, 學硏社, 1984), 양주 경사굿 소놀이굿(李杜鉉, 悅話堂, 1989), 韓國巫俗과 演戱(李杜鉉,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필자 | 이두현(李杜鉉)

갈치낚는소리

정의 밤바다에서 낚싯줄을 드리우고 갈치가 잡히기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 갈치나끄는소리라고도 한다.

내용 갈치는 상강(霜降)을 넘어서면 수심 1킬로미터 이상 되는 곳에서 월동하다가 5월부터 9월 사이에 산란한다. 갈치는 산란기에 여럿이 무리지어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성격의 고기를 제주에서는 걸물궤기라 한다. 바로 이때가 어획 시기로서 제주도에서는 음력 3월부터 5월 사이에 낚는 봄갈치, 음력 7월부터 9월 상강 사이에 낚는 ᄀᆞ실갈치(가을갈치)가 있다. 갈치낚기는 물때를 안 가리고 먼 바다로 나가 닻을 내리고 낚는 수가 많은데, 배를 고정시키다시피 하여 낚는 묻음갈치술과 배를 이동해가며 낚는 흘림갈치술이 있다. 전자는 밤과 낮에도 가능하나 후자는 밤에만 행한다. 대체로 봄갈치는 아침 일찍 먼 바다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낚고 ᄀᆞ실갈치는 주로 밤에 낚는다.

달밤에 배를 흘려가며 낚싯줄을 당기고 들어올리는 어로 작업은 힘든 노동을 요구한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상당한 피로감에 휩싸일 수 있고 지루해지기 쉽다. 이때 갈치나끄는소리를 부른다. 이 소리는 갈치를 의인화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바다생활이나 어로작업, 갈치 낚는 노동 관행, 뱃동서에게 갈치낚는 법을 일러주는 사설을 가지고 노래한다. 또한 남성들의 생활 감정, 즉흥적인 서정이나 신세 타령을 흥얼거림 비슷하게 소리한다 하여 갈치나끄는흥셍이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노동요가 사설이나 후렴을 주고받는 것과는 달리 이 소리는 여럿이 있는 경우에도 주로 혼자서 소리하는 경향이 있어 사설운용의 가변성이 높은 편이다.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편에 실린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에서 전승되는 갈치낚는소리 사설은 다음과 같다.

하이고 갈치도 아니 물고 에~
물도 쎄여지고 궤기도 아니 물고~
강남서 들어온 궤기야, 갈치는 ᄌᆞ박 아구리 닮은 갈치야
이영 들러근 요니껍 들어가거들라그네 에이야~
종끗종끗 물어당기는 에이에~
쌍알술 물게시리 해여도라~
요놈으 갈치야 헤에야~ 어딜가서 아니무느냐
하~ 허리는 늘쑥하고 보기는 좋고 혜뜩혜뜩ᄒᆞᆫ 갈치야
어딜 가서 아니 오느냐
[어이차! 엇다. 하나 물엇다, 물엇다! 땡기라!]

갈치낚는소리는 어부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불리며 공감대를 형성한 소리로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와 삼달리,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와 같은 어촌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

의의 남성들이 부른 어업노동요로서 소리의 전승

양상이나 전승자가 드문 소리이다. 특히 어로 관행과 개인적 서정이 잘 어우러져 뛰어난 연희성과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 한국민요대전 제주도 편(문화방송, 1992), 韓國의 歲時風俗 II(국립민속박물관, 1998).
필자 | 양영자(梁永子)

사천마도갈방아소리(泗川馬島-)

정의 경상남도 사천시 서남편에 위치한 섬인 마도(馬島)에서 전어잡이를 위해 불려지던 어로노동요. 마도갈방아소리는 사천시 동서동에 딸린 작은 섬인 마도에서 불려진 것으로 면사(綿絲)로 만들어진 전통적 그물에 '갈'을 먹이기 위하여 소나무 껍질에 방아질을 할 때 부르던 노래이다. 마도갈방아소리는 2004년 3월 18일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가 되었으며, 현재는 마도 주민들의 민속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유래 마도는 본섬과 딱섬[楮島], 두웅도와 박등도 같은 여러 부속 섬들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마도 앞바다는 옛날부터 전어(錢魚)가 많이 잡히고 전어잡이 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한다. 이 섬에는 370여 년 전 전주 이씨가 최초로 정착하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전어 '뚜뜨름' 배라고 하는 방법으로 전어잡이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방법은 주로 밤에 전어가 노는 바다를 찾아 어군(魚群)이 발견되면 갑자기 뱃전을 두들겨 놀란 전어를 잡는 원시적인 방법이다. 그 후 전어잡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면사 그물에 갈을 먹이게 되었는데, 갈을 먹이면서 부른 어업노동요가 바로 마도갈방아소리이다.

갈방아소리의 갈이란 떡갈나무[綱木]나 소나무 껍질, 풋감 속에 있는 타닌(tannin) 성분을 말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갈을 전어잡이 그물에 스며들게 해야만 그물의 수명이 길어지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면사 그물이 나일론 그물로 대체되면서 갈을 먹일 필요가 없어졌고, 전어잡이 그물 자체도 제망회사에서 대량생산하는 것을 사용하므로, 갈방아소리는 노동요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노래로만 남아 있다.

내용 약 60년 전만 해도 전어잡이에 사용되는 면사 어망에는 소나무 껍질과 풋감을 찧어서 그 즙으로 갈칠을 했다고 한다. 전어잡이 그물은 특히 크기가 커서 한 번 갈을 먹이는 데 필요한 소나무 껍질의 분량이 서너 가마니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많은 양의 소나무 껍질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은 부녀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고된 일이었다. 따라서 힘센 장정 4~6명이 3~4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아를 찧어야 하는데, 이때 피로를 잊고 능률적인 작업을 위해 부르던 노동요가 바로 마도갈방아소리인 것이다.

갈방아소리를 부르며 방아를 찧기 시작하면 돌로 만들어진 큰 절구통에 여러 개의 방앗공이를 빠른 속도로 번갈아가면서 내려친다. 노래와 방아 찧는 작업이 동시에 숙련되지 않으면 방앗공이가 서로 부딪쳐 작업이 중단되기 쉽다. 이렇게 해서 찧은 소나무 껍질은 큰 가마솥에 넣어 끓인 후 즙을 만들고 그 속에 그물을 넣고 다시 삶는다. 삶은 그물은 해변으로 옮겨 햇볕에 말린다. 전국적으로 섬 주민 전체가 조상 대대로 이런 방식의 어업을 계승하고 있는 곳은 마도뿐이라고 한다.

현재 전승되는 마도갈방아소리는 첫째, 갈방아 찧는 마당 둘째, 갈을 먹이는 마당 셋째, 뱃고사 지내는 마당 넷째, 고기 잡는 마당 다섯째, 만선을 기뻐하는 마당으로 크게 다섯 마당이며,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도갈방아보존회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연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풍물패와 깃대잡이, 앞소리꾼과 뒷소리꾼, 선주 내외, 갈방아꾼, 갈푸는 여인, 무당과 악사, 그 외 마을사람들이다. 풍물은



뱃고사
경남 사천 갈방아소리보존회

갈방아를 찧을 때는 꽹과리가 중심이 되지만, 칭칭이 소리에서는 여러 악기가 사용되므로 북과 장구, 징이 들어간다. 깃대에는 '마도 갈방아소리', '마도 갈방아보존회', '대어만선(大漁滿船)'과 같은 문구를 쓴 기가 걸리는데, '대어만선'은 남해안 지역의 풍어기이다. 기는 다시 여신(女神)과 남신(男神)으로 나뉘는데 여신 깃발은 오색이 가로로 되어 있고 남신 깃발은 검은 색깔의 무늬가 가로로 되어 있다.

갈방아소리의 연희에 참여하는 무당은 남해안 별신굿의 뱃고사를 담당하는 인물이다. 무당 외에 당산할미인 해미광대, 파계승인 중, 광대와 각시광대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물들은 모두 당산제에서 연유한 것들이다. 마도갈방아소리의 각 과정을 전어잡이의 단계에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당인 갈방아 찧는 마당에서는 소나무 껍질을 절구통에 붓고, 남자 2개조 10여 명이 절구통을 둘러싸고 갈방아를 찧는다. 이때 부르는 소리의 요사(**要事**)는 다음과 같다.

허기야 디야차 갈방애야 에야 디야 갈방아야
이 방애가 누 방앤고 에야 디야 갈방아야
경상도로 내려와서 에야 디야 갈방아야
우리 마도로 들어오거든 에야 디야 갈방아야
어기여차 도장원 방애다 에야 디야 갈방아야
어기야 디야차 갈방애야 에야 디야 갈방아야

……후략……

둘째 마당은 먹이는 마당으로 여자 2개조 여덟 명 정도가 절구통 주위에 둘러서고 방아꾼이 찧어놓은 갈을 퍼서 솥으로 옮긴다. 이때 어부들은 면사 그물을 솥에 넣어 갈을 먹이기 시작한다. 갈을 퍼서 솥에 넣으면서 부르는 소리의 요사는 다음과 같다.

얼씨구나 갈을 퍼거라 에야 디야 갈방아야
우리네 선원들 잘도 한다 에야 디야 갈방아야
이 일을 끝내고 놀고 놀자 에야 디야 갈방아야
업고나 놀자 이고나 놀자 에야 디야 갈방아야
놀다보니 님생각 난다 에야 디야 갈방아야
갈 퍼보자 갈 퍼보자 에야 디야 갈방아야
어이야차 디야차 갈 퍼보자 에야 디야 갈방아야
그물을 살펴서 그물을 살펴서 에야 디야 갈방아야
춤도 추고 놀아나 보자 에야 디야 갈방아야
놀고 보자 놀고 보자 에야 디야 갈방아야
아니 놀고 무엇하리 에야 디야 갈방아야
잘도 간다 잘도 간다 에야 디야 갈방아야
갈 먹이러 들어간다 에야 디야 갈방아야
얼싸 좋구나 내 동사야 에야 디야 갈방아야

……후략……

갈이 모두 솥으로 옮겨지면 그물을 넣기 시작하는데, 이때 부르는 소리와 그물에 갈을 먹이고 나서 햇볕에 말리기 위해 솥에 넣었던 그물을 꺼내며 부르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아 여	아~여	어 여	어~여
얼씨고 좋다	어~여	동사야	어~여
힘을 내어	어~여	일을 하고	어~여
선원동천	어~여	부처놓어	어~여
첫째는	어~여	처자봉천	어~여
그리하고	어~여	남는 도령사야	어~여
놀고노자	어~여	지고노자	어~여
어~이야	어~여	어기야 디야	어~여
어 야	어~여	아 야	어~여

……후략……

그물을 내자	어~여	그물을 내자	어~여
어얼씨구	어~여	그물을 내자	어~여
바다로 가자	어~여	바다로 가자	어~여
얼씨고나	어~여	일도 잘하고	어~여
소리도 잘한다	어~여	동사야 내동사야	어~여
소리도 잘한다	어~여	강지 바다에	어~여
노는 전애는	어~여	우리 그물에	어~여
다들어온다	어~여	얼씨고나	어~여

……후략……

그물이 모두 준비되면 배가 바다로 나가고, 전어 떼가 발견되면 본격적으로 그물을 친다. 다음은 그물을 치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가자 가자	어야~디야	전어 잡으러	어야~디야
강지 바다에	어야~디야	들어온 고기	어야~디야
종자만 남기고	어야~디야	다잡아 내자	어야~디야
청천하늘에	어야~디야	별도 뜨고	어야~디야
달도 뜬다	어야~디야	오동추야	어야~디야
달도 밝아	어야~디야	님의 생각	어야~디야
절로 난다	어야~디야	님아 님아	어야~디야
우리 님아	어야~디야	나를 버리고	어야~디야
어디 갔니	어야~디야	어~야	어야~디야
아~야	어야~디야	어~이	어야~디야

셋째 마당은 그물을 당기는 마당으로 전어가 든 그물을 당기는 소리로 노래를 통해 일꾼들의 동작을 통일 시키며, 노동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요사는 내용이 단순하고 "이 살 저 살" 등의 그물 당기는 방향을 지시하는 요사가 등장한다. 요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여~사리야　　아~여~어~여~
야~여~사리야　　야~여~어~여~
이 살 저 살　　야~여~어~ 여~
중살로 땡기라　　야~여~어~여~
야~여~여~ 여~어~여~
얼씨고 좋다　　야~여~어~여~
우리 동사야~　　여~어~여~

……후략……

배가 항구로 들어오면 배에서 고기를 퍼내는 넷째 마당이 이어진다. 어부들은 배에서 가래로 전어를 풀어내고, 동네 아낙네들이 막걸리를 대접하며 피로를 풀어준다. 이때 부르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어~허야 가래도다　　에헤야 가래야
강지 바닥에 들온 전에　　에헤야 가래야
종자만 남구고 다 잡아내자　　에헤야 가래야
어야 디야차 도장원 가래다　　에헤야 가래야
이 가래가 누 가랜고　　에헤야 가래야

……후략……

다섯째 마당은 화합의 마당으로 마을 사람과 어부들이 함께 모여 칭칭이 소리를 부르며 만선의 기쁨을 즐긴다.

마도갈방아소리에는 다양한 앞소리와 함께 "에야디야 갈방아야", "에헤야 가래야"와 같은 뒷소리들이 일의 박자와 함께 어우러져 있다. 사천 지역은 삼면이 바다와 접해 있어 내륙지방에는 없는 어로노동요가 다양하게 발달했는데, 이런 어로노동요들은 어로작업의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일의 피로를 잊게 하고 능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의의 마도갈방아소리는 농사노동요가 많이 전승하는 것에 비해 그 수가 적은 어로노동요란 특성 때문에 가치가 돋보인다. 특히 전어잡이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향토적 특색을 뚜렷이 보존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전어잡이의 작업 과정이나 그물과 같은 어구 손질 방법을 현재까지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慶尙南道 篇-(文化財管理局, 1972), 韓國의 歲時風俗(張籌根, 螢雪出版社, 1984), 慶南民俗資料集(韓國文化院聯合會 慶尙南道支部, 1993), 韓國 民俗文化 硏究(康龍權, 集文堂, 1996), 泗川市史(泗川市史編纂委員會, 2003).
필자 | 류종목(柳鍾穆)

죽마타기노래

☞ 죽마놀이[竹馬戱]: 가을편

가을 것 못 걷어 들인 놈 겨울 넘길 생각 마라 (ᄀᆞ슬 것 못 걷어 들인 놈 저슬을 넹길 셍각 말라)

정의 가을걷이를 못 마친 사람은 겨울을 쉽게 넘기기 힘들다는 의미의 속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추수를 마쳐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내용 ᄀᆞ슬은 ᄀᆞ실이라고도 하며, 반드시 절기로서 가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곡식을 지칭하기도 하며 또 겨울을 보내기 위해 가을에 치러지는 일련의 가을걷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가을걷이는 겨울을 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조나 콩과 같은 가을 곡식을 수확하고 외양간의 소에게 먹일 꼴을 마당에 낫가리로 만들어두어야만 한 해 겨울을 보내기에 안심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겨울 채비가 다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꼴베기는 음력 8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에 치러진다. 꼴을 베어서 묶고 소나 말을 이용하여 집으로 들여다 놓는다.

음력 10월 보름이 되면 들판의 곡식을 거의 거둬들이게 된다. 태공(太公)은 집안에 있는 열 가지 도둑 중에서 곡식이 익었는데도 때맞추어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음[時熟不收]을 첫 번째의 도둑이라 했고, 거둬들여 쌓아 완료하지 않는 것[收積不了]을 집안을 부자로 만들지 못하는 두 번째의 도둑이라고 했다.

참고문헌 | 明心寶鑑.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좌혜경(左惠景)

가을 곡식은 재촉하지 않는다

정의 가을 곡식은 다 된 곡식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적기(適期)에 수확하도록 하라는 의미의 속담.

내용 음력 2월부터 농번기가 시작된다. 농가에서는 3월이 되면 모판에 볍씨를 파종하여 키우다가 5월 무렵이 되어 그 모가 적당히 자라면 서둘러서 논으로 옮겨 심은 뒤, 몇 차례 논을 매고 돌보면서 수확의 가을을 고대한다. 초여름에 수확한 보리만으로는 식량이 모자라므로 가을 추수를 앞둔 시기는 먹을 것에 궁핍하기 마련이다. 4월과 5월의 보릿고개에 빗대어 이 시기를 벼고개라고도 했다. 춘궁기(春窮期)인 보릿고개에는 산과 들에 봄나물이 지천이고 풋보리나마 먹을 수 있지만, 7월 칠궁(七窮)에는 나물들이 쇠어서 먹을 수도 없고, 벼도 팬 지 40여 일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칠궁이 춘궁보다 더 무섭다.", "칠월 사돈은 꿈에 볼까 무섭다." 같은 말이 생겼다.

가을 추수기가 가까워지면 칠궁의 벼고개를 넘느라 허기진 식구들을 어서 먹여야겠다는 마음에서 농부들은 다급해진다. 따라서 이 말에는 가을에 들어서자마자 설익은 곡식을 서둘러 추수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뜻이 담겨 있다. 벼 안 패는 칠월이 없듯이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기 마련이니 재촉하지 말라는 뜻이다. 가을 제철이 되면 곡식은 당연히 영글어 있을 것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적기를 기다려서 추수를 하라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천혜숙(千惠淑)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영근다

정의 가을에 이슬이 내리면 곡식이 딴딴하게 잘 여문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음력 9월의 한로(寒露)에 접어들면 찬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 이슬이 내리면 날씨가 쾌청하여 곡식들이 잘 무르익게 되므로 가을곡식은 찬 이슬에 무르익는다고 한다.

유사속담 비슷한 뜻의 속담으로는 "가을바람이 불면 곡식은 혀를 빼물고 자란다."가 있다.

참고문헌 |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필자 | 문금현(文錦賢)

가을 다람쥐 같다

정의 겨울잠을 잘 동안 먹을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 늦가을이면 바쁘게 움직이는 다람쥐같이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빠르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을 빗댄 속담. 혹은 겨울을 대비하여 먹을 것을 많이 저장해두는 다람쥐에 비유해서 욕심 많은 사람을 나무랄 때 이르기도 한다.

내용 다람쥐는 우리나라의 어느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친숙한 동물이다. 주로 땅 속에 굴을 파고 보금자리를 만들며, 가까운 곳에다 한두 개의 식량 저장고를 만들어서 보금자리와 통로를 연결하여 자유롭게 드나든다. 다람쥐는 주로 도토리, 밤, 땅콩을 먹고, 잣나무, 참피나무, 붉가시나무, 개암나무들의 종자와 옥수수, 호박, 오이, 수박의 종자도 잘 먹는다.

9월 하순 무렵 평균 기온이 섭씨 8~10도가 되면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기 시작한다. 완전한 동면은 아니고 바깥의 기온이 높아지면 깨어나 저장해둔 먹이를 먹고 다시 잠을 자는 반수면 상태의 겨울잠이다. 따라서 가을이 되면 다람쥐들은 바삐 움직인다. 적어도 늦가을이 가기 전에 열매들을 저장하여 월동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을이면 부지런히 뺨주머니에 열매를 담아 저장고로 나르는 가을 다람쥐들처럼 사람들에게도 가을은 월동 준비로 바쁜 계절이다.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에 거두어들인 것을 갈무리하고 산에 가서 땔나무도 든든히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 말은 앞날을 대비하여 바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때로는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유사속담 가을에 다람쥐가 욕심 많게 먹이를 저장하는 데서 "가을 다람쥐 계집 얻어들이듯 한다.", "가을 다람쥐처럼 욕심만 난다.", "겨울 다람쥐는 눈먼 계집 얻는다.", "다람쥐 밤 물어다 감추듯 한다."라는 속담들이 생겼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동물속담사전(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7).
필자 | 천혜숙(千惠淑)

가을 더위와 노인(老人)의 건강

정의 가을날이 덥다 해도 언제 추워질지 모르고, 늙은이의 건강이 좋다 해도 이미 그 기운이 쇠하여 오래 끌어가지 못한다는 의미의 속담. 가을의 더위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듯 노인의 건강도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비유한 속담이다.

내용 가을은 여름과 겨울 사이의 계절로 추분(秋分)부터 동지(冬至)까지를 말한다. 24절기로는 입추(立秋)부터 입동(立冬) 전까지에 해당된다. 더위가 물러가고 점차 추위가 다가오는 때이기는 하나, 9월의 낮 동안은 아직 여름 못지않은 무더위가 남아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늦게까지 우리나라를 덮고 있을 때는 새삼 늦더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노염(老炎)이 오래 갈 리 없다. 낮 동안은 여름같이 무더워도 어느새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분다. 이미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언제 추워질지 예측할 수 없다. 노인도 마찬가지로 이미 그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으므로 건강하다고 해도 그것이 오래 가기 어렵다. 근력이 좋은 노인에게도 죽음은 느닷없이 찾아온다. '가을 더위와 노인의 건강'은 이미 그 기운이 쇠퇴하여 오래 끌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고 이른 것이다. 곧 닥칠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방심하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순오지(旬五志)』에는 '춘한노건(春寒老健)'으로 나오고 "기력이 쇠퇴한 것을 말하는 것(言氣力衰敗)"이란 설명이 붙어 있다. 『송남잡지(松南雜識)』의 '춘한노건' 항에서는 "봄추위, 가을더위, 노인의 건강 세 가지는 모두 오래 가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구양수의 말인데, 지금의 '건(健)'자는 '뼈[骨]'를 전와한 것이다(春寒秋熱老健 三者 不久長之物 本歐陽之語今健字訛骨)."라고 설명한다.

유사속담 "가을날 더운 것과 노인 근력 좋은 것은 못 믿는다.", "봄 추위와 노인의 건강"은 동일한 의미의 속담이고, 유사한 속담으로 "겨울날씨와 늙은이 근력 좋은 것은 못 믿는다."가 있다.

참고문헌 | 松南雜識, 旬五志,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필자 | 천혜숙(千惠淑)

가을마당에 빗자루 몽당이를 들고 춤을 추어도 농사(農事) 밑이 어둑하다

정의 가을 추수를 마친 다음 빚을 다 갚고 빈손에 빗자루 하나만 남아도 어딘가 남은 것이 있다는 말로 농사일의 든든함을 이르는 속담.

내용 가을에 타작을 끝낸 후 줄 것을 주고 갚을 것을 갚고 나니 빈손이 된 듯해도 그래도 어딘가에 먹을 것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농사일은 실속 있고 든든한 것이라는 생각이 깃들어 있다. "일년 농사 지으면 삼 년 먹을 것이 남는다.", "삼 년 농사를 지으면 구 년 먹을 것이 남는다."라는 속담들도 농사일의 든든함을 의미하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추수가 끝난 가을 들판의 풍요함을 말하는 속담도 많다. "가을 들판은 딸네집보다 낫다.", "가을 들판은 어설픈 친정보다 낫다."라고 한 것은 가을 들판에는 날품 거리가 많다는 뜻이다. 하다못해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필자 | 천혜숙(千惠淑)

가을 메[杵]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

정의 분주한 가을 추수 때에는 메[杵]를 대신하여 부지깽이까지 덤벙인다는 의미의 속담. 분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거나 어떤 물건이 마구 대용됨을 이르기도 한다.

내용 메는 절굿공이나 방망이를 이르는 말로 곡식이 많은 가을철에는 부지깽이도 절굿공이로 쓰인다는 뜻이다. 어떤 물건이 자주 쓰이면 그와 비슷한 것까지도 마구 대용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또 가을철 농가가 매우 바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가을에는 추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론 부엌의 기구까지도 덤벙일만큼 몹시 바쁘고 일손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가을철에는 죽은 송장도 꿈지럭한다.", "가을에는 대부인(大夫人) 마누라도 나무 신짝 가지고 나온다.", "바쁠 때면 부지깽이도 한 몫 한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우리말 큰 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1), 세계속담 대사전(서정수, 한양대학교출판부, 1998),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필자 | 문금현(文錦賢)

가을 멸구는 나락 벼늘도 먹는다

정의 가을 추수기에는 멸구가 나락 벼늘까지 먹을 정도로 멸구의 피해가 심하다는 의미의 속담. 멸구의 피해를 경계하는 속담이다.

내용 가을 멸구는 나락 벼늘(벼 껍질)까지 먹을 정도로 특히 극성이기 때문에 여름 멸구의 피해보다 가을 멸구의 피해가 더 크다. 벼멸구는 방제를 소홀히 했을 때 등숙률(알갱이가 여무는 비율)이 떨어지고 미질도 나쁘게 되어 도정하면 쌀이 적게 나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 속담은 가을철 멸구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가을 멸구는 볏섬에서도 먹는다."가 있다.

참고문헌 |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필자 | 문금현(文錦賢)

가을 물은 소 발자국에 괸 물도 먹는다

정의 가을 물은 소 발자국에 고인 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깨끗함을 이르는 속담.

내용 흙과 분뇨로 범벅이 된 소 발자국에 고인 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을의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은 가을의 기상환경 덕분이다. 8월 중순이 되면 여름철의 기압 배치는 달라진다. 여름 동안 우리나라 일대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약화되어 남진(南進)하고 대륙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형성된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몰고 온 가을장마가 끝나면, 그 고기압에서 분리되어 나온 이동성 고기압이 빈번하게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가을은 말 그대로 맑고 푸른 하늘에다 천고마비의 계절이 된다. 강수량이 줄어들고 습기가 낮아져서 맑고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며 산과 들은 황금빛 단풍과 오곡으로 물든다. 가을 물이 맑은 것은 하늘이 맑고 푸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을 물의 깨끗함을 더러움의 상징인 소 발자국에 고인 물을 들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가을이 되면 말 발굽에 고인 물도 마실 수 있다."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필자 | 천혜숙(千惠淑)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듯 한다[秋風落葉]

정의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져 흩어지듯이 일이나 형세의 세력이 약해져서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이르는 속담.



내용 가을은 식물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계절이다. 아름다운 단풍으로 장관을 이루기도 하지만,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은 조락(凋落)의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 낙엽기의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가을이 되면 활엽수의 잎들은 바싹 건조해지고 약해진다. 그리고 이리저리 불어대는 가을바람에 여지없이 떨어져 흩어져버린다. 낙엽은 가을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 인간 세상의 어떤 일이나 형세가 이길 수 없는 기운에 의해 시들고 쇠락해지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俗談辭典(이기문 편, 一潮閣, 1995).
필자 | 천혜숙(千惠淑)

가을바람은 노새 귀를 뚫는다

정의 가을바람이 매서움을 이르는 의미의 속담.
내용 가을은 여름과 겨울 사이에 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선선해지다가 겨울로 들어서면서 바람도 매서워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계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가을에 부는 바람은 노새의 귀마저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세차다는 의미의 표현이다.
유사속담 가을바람은 매섭고 가을에는 남자의 양기가 왕성하다는 것을 이르는 말로 "가을바람이 노새 귀를 뚫고 가을 좆이 무쇠를 뚫는다.", 여름 소나기는 소 등을 경계로 하여 한쪽에는 오고 다른 한쪽에는 안 오는 경우도 있으며 가을바람은 노새 귀를 뚫을 정도로 세게 분다는 뜻으로 "여름비는 소 등을 다투고 가을바람은 노새 귀를 뚫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의 성 속담 사전(정종진, 범우사, 2005).
필자 | 김기형(金基珩)

가을바람이 귓전을 스쳐가듯 한다 [秋風過耳]

정의 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가을바람이 찰 때는 매섭게 차지만 선선하게 느껴질 때도 많다. 그러한 가을바람이 그저 귓전을 스쳐 지나가는 특성에 빗대어,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속담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못들은 체한다는 뜻을 지닌 "어느 집 개가 짖느냐 한다."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필자 | 김기형(金基珩)

가을밭을 밟으면 떡이 세 개요 봄밭을 밟으면 빰이 세 대다

정의 가을밭의 보리는 착근(着根)이 잘 되도록 밟아야 월동에 좋고, 봄밭을 밟으면 새싹이 상하므로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가을에는 서리가 내려 땅이 들뜨기도 한다. 가을의 찬 서리를 추상(秋霜)이라고 부르는데 서리 기운이 땅을 들뜨게 만든다. 이때 들뜬 땅을 밟아 다시 밀착시켜주지 않는다면 들뜬 곳으로 바람이 통하게 되고, 결국은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자라던 곡식이 말라비틀어지게 된다. 특히 겨울에 밭에서 자라는 보리와 같은 작물이야말로 서리 내리는 가을에는 반드시 밟아줘야 한다. 가을밭을 밟아야 내년 양식이 될 곡식들이 들뜨지 않고 땅에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반면에 봄밭은 이제 생명의 기운을 받은 작물들이 잘 자라나야 하는 시기인데, 이때 밭으로 들어가 밟아대면 그야말로 성장을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봄에는 울타리라도 쳐서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음식속담사전(송재선, 동문선, 1998).
필자 | 유영대(劉永大)

가을 부채는 시세가 없다[秋扇無勢]

정의 때가 지난 것은 그 가치가 없음을 의미하는 속담. 또는 남자의 사랑을 잃은 여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내용 부채의 전성기는 여름이다. 한여름은 부채의

계절이고 무더위 속에서 한 줄기 불어오는 바람의 위력이야말로 가히 그 기운이 엄청나다. 따라서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는 멋진 여름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을이 되면 부채는 이미 제철이 지나서 아무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시세도 없어지고 만다. 가을 부채는 이듬해나 되면 다시 시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에 장롱 속에 잘 간직해야만 하는 물건이다.

가을 부채는 또한 버림받은 여인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나라 성제(成帝)에게는 총애하는 후궁 반첩여(班婕妤)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사랑이 다시 후궁인 조비연(趙飛燕)에게로 옮겨가게 되었다. 조비연은 성제의 사랑이 다시 반첩여에게 되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소문을 나쁘게 내서 반첩여를 옥에 가두게 했다. 나중에 반첩여의 혐의는 풀렸지만 그녀의 처지는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때와는 달라졌다. 반첩여는 임금의 사랑을 받던 일을 회상하면서 '원가행(怨歌行)'이라는 시를 지었다. 이 시에 '가을부채[秋扇]'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신의 처지를 가을이 되어 쓸모없게 된 부채에 비유하였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유영대(劉永大)

가을비는 떡비요 겨울비는 술비다

정의 가을에 비가 내리면 집안에서 떡을 해먹으며 지내고 겨울에 비가 오면 집안에서 술이나 마시며 지낸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가을에 비가 오면 들에 나가 일을 할 수는 없으나 곡식은 넉넉하므로 집안에서 떡을 해먹고 지낸다. 또 겨울에 비가 오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봄비는 일비고 여름비는 잠비"라는 말도 있는데, 봄에 비가 내리면 가뭄을 해소하여 주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지만, 여름에 비가 내리면 일터에 나가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속담은 농경사회에서 각 계절이 갖는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봄비는 일비고 여름비는 잠비고 가을비는 떡비고 겨울비는 술비다."가 있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속담집(한국민속학회 엮음, 서문당, 1996).
필자 | 김기형(金基珩)

가을비는 장인(丈人)의 나룻 밑에서도 긋는다

정의 가을비는 잠깐 오다 말기 때문에 장인 영감의 턱수염 밑에서도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의 속담. 이 속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가을비는 많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잔걱정은 오래 가지 않으므로 우려할 바가 못 된다는 말이다.

내용 장인의 턱수염이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큼 많지도 길지도 않지만 가을비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을비는 잠시 오다 그친다는 뜻이다. 가을비를 인체의 부분에 대비한 해학적인 속담으로 가을비는 적게 오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가을비와 관련된 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라시대 최치원(崔致遠)의 '추야우중(秋夜雨中)'은 가을비 내리는 밤을 노래한 것인데 "가을바람에 다만 괴로이 시를 짓나니, 세상에는 내 시를 아는 이 적다. 창밖에는 한밤에 비가 내리고, 등불 앞에 도사린 나그네 심사"라고 하여 가을의 바람과 비 그리고 밤의 정서를 표현하기도 했다. 또 정철(鄭澈)은 '산사야우(山寺夜雨)'라는 시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 성글은 빗방울로 그릇 알고서 중 불러 문 바깥 나가보라 했더니 시냇가 나뭇가지에 달이 걸려 있다네"라는 표현으로 낙엽이 지는 소리를 묘사하기도 했다.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 최인학(崔仁鶴)

가을 빚에 소도 잡아먹는다

정의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라면 타산이 서지 않는 경우에도 우선 응하고 본다는 의미의 속담. 또는 가을에는 빚을 얻어 쓰기가 쉬우므로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씀씀이가 헤퍼진다는 뜻을 지닌다.

내용 가을에는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진 빚도 가을이 되면 갚게 된다. 그런데 이듬해 가을에 갚을 요량으로 빚을 지게 될 경우, 갚을 힘이 없는 빚도 지게 되는 데서 비롯된 속담이다. 또 가을에는 빚을 얻어 쓰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 빚을 얻어서 흥청망청 돈을 쓰게 되는데 주로 그런 상황을 나무랄 때 사용하는 속담이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필자 | 김기형(金基珩)

가을 식은 밥이 봄 양식이라

정의 가을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나 봄에는 궁하므로 풍족할 때 낭비 말고 절약하라는 의미의 속담.

내용 곡식이 흔한 가을에 곡식을 절약해야만 이것이 봄양식이 된다는 뜻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절약하면 뒤에 궁함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을에는 배부르다고 먹지 않고 내놓은 식은 밥이 봄에 가서는 귀중한 양식이 된다는 말이다.

긴 겨울동안 농사의 소출이 없기 때문에 봄이면 식량 부족으로 시달리기 일쑤여서 이때를 보릿고개라 하였고, 다른 말로는 춘궁기(春窮期)라고 하였다. 식량이 부족하므로 이 계절이 무척 길게 느껴진다. "봄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든가 "봄 사돈은 꿈에 봐도 무섭다." 같은 속담은 이같은 봄의 궁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기에 궁함을 면하는 지혜는 가을의 곡식이 풍성할 때 절약하는 것이다.

필자 | 최인학(崔仁鶴)

가을 쌀밥이다

정의 귀한 물건이 흔하게 되어 아까운 줄 모를 정도로 풍성해졌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가을은 농부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이다. 힘들고 배고팠던 시간이 지나고 들판에는 황금물결이 넘실댄다. 자연히 마음도 풍요로워지기 마련이다. 보릿고개를 지나고 힘들던 모내기와 김매기를 다 거쳐 맞이하는 수확기여서 더 값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시 긴 겨울이 다가오고 또 힘들어지지만 이때만큼은 농부가 세상의 주인인 듯 도타운 인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귀하던 쌀밥도 이 추수 때만큼은 별로 귀하지 않게 생각할 정도로 여유를 갖게 된다. 따라서 쌀밥이 가치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여길 만큼 풍족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평소 가까이 할 수 없는 귀한 것이 갑자기 풍성해졌을 때 이런 속담을 사용하게 된다.

유사속담 귀한 것이 흔해져서 귀한 줄 모른다는 뜻으로 "보석도 귀해야 제값을 받는다."와 같은 속담을 사용한다. 또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여유를 드러내는 속담으로는 "가을 중 시주 바가지 같다."가 있다. 평소에는 먹고 살기도 모자라 시주도 풍족하게 하지 못했지만 가을만큼은 바가지가 가득할 정도로 시주할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음식속담사전(송재선, 동문선, 1998).
필자 | 정병헌(鄭炳憲)

가을 아욱국은 사위만 준다

정의 가을에 먹는 아욱국은 백년손님이라는 사위에게만 먹일 정도로 특별히 맛이 있고 몸에 좋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우리 속담에 "아욱으로 국을 끓여 삼 년을 먹으면 외짝 문으로는 못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욱국이 사람의 몸에 매우 좋다고 한다. 이렇게 몸에 좋고 맛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가을 아욱국은 제 계집 내어쫓고 먹는다.", "가을 아욱국은 문 닫아 걸고 먹는다.", "가을 상치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가 있다.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우리말 큰 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1), 세계속담 대사전(서정수, 한양대학교출판부, 1998),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필자 | 문금현(文錦賢)

가을 안개는 쌀안개 봄 안개는 죽안개

정의 가을 안개는 벼를 잘 영글게 하여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봄 안개는 보리에 병해를 주어 수확을 줄게 한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가을에 벼가 패서 영글 때 안개가 끼면 날씨가 따뜻하여 벼가 익는 것을 촉진시키고 결실을 좋게 하므로 수확량이 증가된다. 그러나 보리 발육기에 끼는 봄 안개는 기온차가 심하고 대기 중의 습도가 높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햇볕을 차단하여 식물의 발육을 방해하고 보리에 흰가루병과 녹병 등의 병해를 주어 수확량을 감소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가을 안개는 천석을 올리고 봄 안개는 천 석을 내린다.", "가을 안개에는 곡식이 늘고 봄 안개에는 곡식이 준다.", "가을 안개에는 풍년 든다.", "가을 안개는 천 석을 보태준다.", "곡우(穀雨)에 비가 오면 풍년 들고 가물면 흉년 든다.", "보리 안개는 죽안개고 나락 안개는 밥안개다."가 있다.

참고문헌 |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김기창(金基昌)

가을에는 손톱 발톱도 다 먹는다

정의 가을에는 손톱이나 발톱까지도 먹어버린다는 의미의 속담. 또는 가을철에는 입맛이 좋을 때라 누구나 많이 먹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내용 벼가 팰 무렵인 음력 7월은 보리나 묵은 곡식이 떨어지고 햇곡식은 익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시기로 칠궁(七窮)이라 하는데, 농가에서는 봄의 보릿고개보다 더 힘겨운 시기이다. 따라서 먹을 수만 있다면 손톱 발톱까지도 먹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는 햇곡식이 나기 시작하면 그동안 굶주렸다가 먹기 때문에 식욕이 좋고 입맛이 당기어 평소보다 많이 먹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첫 가을에는 손톱 발톱 다 먹는다."가 있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김기창(金基昌)

가을에 밭에 가면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

정의 가을철 밭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가을 들판에는 오곡이 익어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먹을 것이 많아서 낫다는 의미이다. 다른 의미로 시집간 딸이 가난한 친정에 가서 무엇을 얻어 오는 것보다는 먹을 것이 많은 밭에 가서 곡식을 가져오는 것이 실속이 있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유사속담 이와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가을 들판이 어설픈 친정보다 낫다."와 "가을들이 딸네 집보다 낫다."가 있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김기창(金基昌)

가을일은 미련한 놈이 잘한다

정의 일이 많은 가을에는 꾀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성과가 좋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가을은 일년 농사의 마무리를 하는 추수의 계절이다. 온갖 곡식이 사람의 손을 기다리고 있어 때를 놓치면 오랜 노력이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꾀를 부리면 농사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약은 수단으로 꾀를 부리지 않고 그저 닥치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속담 한 사람의 일손이라도 아쉬울 정도로 바쁘다는 것을 드러내는 속담으로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 "가을철에는 죽은 송장도 꿈지럭한다."와

같은 속담이 있다. 그리고 평소라면 내외도 하고 위엄을 갖추느라 일에 나서지 않는 대부인 마님까지도 바쁜 추수철에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가을 판에는 대부인 마님까지도 나선다."라는 속담도 있어, 가을철 농촌의 부산함과 이에 대처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문헌 | 朝鮮俚諺(崔瑗植, 新文館, 1913), 俗談辭典(李基文, 一潮閣, 1986), 속담풀이사전(한국고전신서편찬회, 홍신문화사, 1991), 우리말 속담사전(이종호, 대로교육, 1993),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교육출판공사, 1993),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農漁俗談事典(宋在璇 엮음, 東文選, 1995), 속담·고사성어 사전(임무출 엮음, 문창사, 1998),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필자 | 정병헌(鄭炳憲)

가을 전어(錢魚) 머리에는 깨가 한 되다

정의 가을철에 잡은 전어는 특별히 맛이 좋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전어가 산란기인 봄에서 여름까지는 맛이 없지만, 산란을 마치고 여름에 충분한 먹이를 취하면서 생장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몸에 영양분을 많이 비축하게 된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전어의 살이 두툼해지면서 씹히는 맛도 있고 가장 맛이 좋아진다고 한다. 이 속담은 주로 전어가 아주 맛있는 제철 음식임을 표현할 때 쓰인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봄 멸치, 가을 전어"가 있다.

참고문헌 | 속담명언사전(권천학 편저, 풀잎文學, 1999).
필자 | 문금현(文錦賢)



가을 중 싸대듯

정의 가을에 승려들이 동냥하러 바쁘게 싸다니듯이 일이 바빠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이르는 속담.

내용 『심청전(深靑傳)』을 보면 몽은사 화주승(化主僧)이 등장한다. 화주승은 시주를 얻어 절에 양식을 대는데 동안거(冬安居)라고 하는 겨울 정진을 위해 양식이 넉넉한 가을에 이 마을 저 마을 바쁘게 동냥을 다닌다. 이런 모습에서 바쁜 상태를 비유하는 속담이다. 동냥하는 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다소간의 놀림의 뜻도 담겨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궁둥이에 비파 소리가 난다.", "치마에 비파 소리가 난다.", "발바닥에 불이 난다."가 있다.

참고문헌 | 우리속담사전(원영섭, 세창출판사, 1993),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조현설(趙顯卨)

가을 하늘과 큰어미 얼굴은 검어도 좋다

정의 가을에는 구름이 끼어도 바람이 서풍이라 비가 오지 않으며, 친어머니와 저를 미워하는 큰어머니의 얼굴은 보기 흉하게 검어도 좋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수확기인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농사의 풍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날씨는 알맞게도 태풍만 아니라면 가을에 비가 적다. 그러니 설령 검은 구름이 몰려들어도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 구름을 밀어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속담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연 현상을 인문 현상과 병치시켜 표현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더부살이한다고 작은집 식구들을 싸잡아 미워하는 큰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가을 하늘 검어진다고 걱정할 일 아니듯이, 가을볕에 타 시커메져도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할 지경이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성어 백과사전1-속담 편-(박영원 외 편저, 푸른사상사, 2002).
필자 | 조현설(趙顯卨)

전어 김상수

가을 한 밤은 일년 같이 지루하다 [秋夜如歲]

정의 해는 짧아지고 일은 줄어드는 가을밤이 길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르는 의미의 속담.

내용 가을이 되면 밤 시간이 낮시간보다 길어진다. 가을밤은 길 뿐만 아니라 추수를 마치면 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중으로 길어진 밤을 느끼게 된다. 이런 긴 가을밤을 가리켜 흔히 추야장(秋夜長)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긴 가을밤은 임이 없을 때 더 길게 느껴진다.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가을밤은 추분(秋分)을 지나면서 길어지기 시작해서 동지에 이르면 밤이 가장 길다. 이렇게 긴 밤도 임과 함께라면 그다지 길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긴 가을밤이 심리적으로 더 길게 느껴진다. '하루가 여삼추(日日如三秋)'라는 말과도 통한다.

참고문헌 | 우리말 속담큰사전(송재선 엮음, 서문당, 1983).
필자 | 유영대(劉永大)

가을 해 작대기로 못 받친다 (ᄀᆞ슬 헤 작데기로 못 바툰다)

정의 가을 해는 짧아서 해를 받쳐서라도 낮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의미의 속담. 그 이면에는 수확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 부지런히 작업하라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 추분(秋分)이 지나면 어느새 낮의 길이는 짧아지고 곧 어두워져 밤 시간이 길어진다. 콩이나 팥, 메밀 같은 곡식뿐만 아니라 겨울철 외양간 소나 말의 먹이가 될 꼴 거둬들이기를 비롯한 가을걷이를 해야 하는데 하루해는 짧기만 하다. 작대기로 해를 받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던 일을 마치고 싶은 농부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작대기는 일정한 크기의 나무로 주로 농사용 도리깨나 뒤치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집 처마를 받치는 기둥으로도 쓰였다. 콩이나 메밀 같은 곡식의 타작을 하다가 지는 해를 보면 도리깨나 곡식대를 뒤집는 Y자 모양의 뒤치개로 해를 받쳐 붙잡아두고 싶은 심정인 것이다. 그러나 해는 이미 기울게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니 부지런히 일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 제주속담사전(고재환, 민속원, 2002).
필자 | 좌혜경(左惠景)

구시월 닭이다

정의 살이 많이 쪄 있다는 의미의 속담. 또는 구시월에 먹이가 흔할 때의 닭처럼 식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용 음력 구시월은 계절적으로 가을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추수를 하여 각종 곡식이 넉넉한 때이다. 따라서 닭이 쪼아 먹을 모이도 상대적으로 많다. 구시월 닭이 살이 많이 쪄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유사속담 가을 닭들이 탐스럽게 살쪄 있음을 비유해서 "오달지기는 사돈네 가을 닭이다.", "사돈네 가을 마당에 씨암탉 넘보듯 한다."라는 속담들이 생겼다. 또한 가을에 닭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을 닭띠는 잘 산다."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 한국속담활용사전(김도환 편저, 한울아카데미, 1993).
필자 | 김기형(金基珩)



닭 심디스마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정의 음력 구시월에 부는 돌풍은 호랑이도 무서워할 정도로 매우 강하다는 의미의 속담.

내용 도지는 여름과 겨울 사이 또는 가을에 비와 함께 일어나서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 돌풍이 불면 열심히 지은 농사를 망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물어가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였다. 한승원의 소설 『해변의 길손』에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보다도 무섭고, 비 한 방울에 바람이 석 섬이란다. 바람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나가지 말아라."라는 구절이 쓰여 있다.

유사속담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는 "구시월 돌풍은 호랑이보다 무섭고, 비 한 방울에 바람이 석 섬이다.", "구시월 돌풍은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구시월 돌풍에는 비 한 방울에 바람이 석 섬이다."가 있다. 또 "가을비 한 번에 열흘 추수가 늦어진다.", "가을 장맛비 이삭 싹 난다."에도 추수할 때 날씨가 순조롭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구시월의 돌풍은 호랑이도 무서워할 정도로 강해 가을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왔다. "처서에 비가 오면 십리 안 곡식 천석을 감한다."와 같은 속담도 농사일에 날씨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속담 용례사전(정종진 엮음, 태학사, 1993),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해변의 길손(한승원, 문이당, 1999).
필자 | 정병헌(鄭炳憲)

구시월 세단풍(細丹楓)

정의 구시월[九十月]의 곱디고운 단풍을 이르는 의미의 속담. 가을의 고운 단풍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기에는 좋아도 곧 흉하게 될 것을 이르기도 한다.

내용 단풍은 음력 구월이나 시월에 절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때의 고운 단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편 단풍은 아름답지만 금방 시들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 보기에는 좋지만 얼마가지 않아 시들어 흉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단풍 심디스파

참고문헌 | 俗談辭典(李基文, 民衆書舘, 1962), 우리말 큰 사전(한글학회, 어문각, 1991),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두산동아, 1999).
필자 | 문금현(文錦賢)



生業

생업

가을걷이가 끝나면
추수한 곡식이나 채소를
양식이나 씨앗으로 쓰기 위해
갈무리를 해둔다.
갈무리에는 작물의 종류와
그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씨앗의 경우에는
매우 소중하게 여겨
보관하는 장소를
가리는 풍습이 있다.

가을바령

⇨ 봄바령[糞田]: 봄편

갈무리[貯藏]

정의 가을걷이한 곡식이나 채소를 식량과 종자로 쓰기 위해 잘 챙겨 간수하는 일. 저장(貯藏)이라고도 한다.

내용 가을걷이가 끝나면 추수한 곡식이나 채소를 양식이나 씨앗으로 쓰기 위해 갈무리를 해둔다. 갈무리에는 작물의 종류와 그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특히 씨앗의 경우에는 매우 소중하게 여겨 보관하는 장소를 가리는 풍습이 있다.

추수한 나락은 섬이나 가마니를 쓰기도 하지만 농사가 많으면 나락뒤주에 갈무리했다. 나락뒤주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마당 한 쪽에 두툼하게 짚을 깔고 짚으로 엮은 날개를 둘러 울을 세운 다음 그 안에 나락을 채우고, 지붕은 빗물이 스미지 않도록 이엉을 덮고 꼭대기에는 고깔 모양의 덮개를 덮는 방식의 일종의 임시저장고가 있다. 경상도에서는 이를 볏두지라고 하고, 전라도에서는 둑집이라고도 부른다. 울을 짚으로 엮은 날개를 쓰지 않고 멍석으로 두르는 방식도 있다. 둘째, 한 칸 또는 서너 칸의 마치 작은 집처럼 지은 시설로, 사방의 벽을 널빤지로 하고 한쪽 벽의 설주에 홈을 파서 여러 개의 쪽널을 차곡차곡 끼워 넣어 문으로 사용한다. 지붕은 기와나 이엉으로 덮고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뒤주 바닥을 땅에서 30~50센티미터를 띄운다. 셋째, 살림집의 방 한 칸을 뒤주로 쓰는 방식으로 곡식을 꺼내는 문에는 쪽널을 끼운다. 넷째, 대쪽으로 항아리처럼 큰 그릇을 만들고 틈새를 진흙으로 발라 나락이 새지 않도록 하고, 앞쪽 가운데로는 쪽널 문을 낸다. 큰 것은 열 섬 이상의 나락을 갈무리할 수 있다.



갈무리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송봉화

집 모양의 나락뒤주에는 벽에 '적소성대(積小成大)'와 같은 글귀를 쓰거나 주련으로 써서 기둥에 달기도 했다. 뒤주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섬이나 멱서리에 담아 곳간에 쌓아두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섬 대신 가마니를 사용하다 근년부터는 40킬로그램짜리 마대나 플라스틱 포대를 사용한다. 또 최근에는 콤바인으로 수확한 벼를 대형 포대나 탱크에 담아 곧바로 미곡 종합 처리장으로 운반하여 그곳에서 건조하고 저장하는 가공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벼가 아닌 잡곡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가마니에 담아 갈무리한다.

한편 감자와 고구마는 캐거나 운반할 때 생긴 상처가 잘 말라 아물 때까지 그늘에 펴 널었다가 움[窖]에 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움은 갈무리할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대개 1.5미터의 깊이와 지름으로 둥글게 땅을 파고 바닥에는 왕겨나 짚을 깔고 그 안에 갈무리한다. 위는 다시 짚이나 왕겨로 덮고 겨울에 얼지 않게 충분히 흙으로 덮거나 지붕을 한다. 큰 움에는 움 속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지붕에 바람이 통하는 구멍을 낸다. 그리고 양이 많지 않거나 겨우내 식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 한 칸 또는 그 일부에 통가리를 만들어 갈무리하기도 했다.

지금은 움 대신 비탈진 땅에 10미터 이상 되는 굴을 파서 저장하거나 저장실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저온저장고에 갈무리한다.

이듬해 농사에 쓸 씨앗을 갈무리하는 일을 씨갈무리라고 한다. 가을걷이하면서 씨앗으로 쓸 것은 따로 베어서 떨어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타작할 때 잘 여문 것으로 덜어둔다. 나락은 개상이나 탯돌로 타작할 때 맨 앞에 떨어진 것을 씨앗으로 쓰는데,



갈무리
충남 서산시 지곡면 장현 2리 송봉화

잘 여문 것이 앞쪽에 떨어지는 것으로 여겼다. 볍씨는 잘 말려 자루나 가마니에 담아 방 한구석에 쌓아 두는데, 만약 그 방에서 사람이 죽거나 하면 부정하다 하여 이듬해 씨앗으로 쓰지 않았다.

재배가 적은 작물의 씨앗은 뒤웅박이나 씨주머니에 담아 보관하고 조, 수수, 기장, 옥수수의 이삭을 베어서 한 줌씩 묶어 방이나 곳간에 걸어두었다가 이듬해 떨어서 씨앗으로 쓴다.

한편 고구마는 씨로 쓸 것은 상강(霜降) 전에 캐서 크기가 적당하고 상처가 없는 것을 골라 며칠 동안 그늘에서 말린 다음, 여물과 섞어 망태에 담아 사람이 사는 방의 벽에 걸어 두거나 흙을 섞어 항아리에 담은 다음 방 한구석에 두었다. 감자는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움에 저장했던 것을 쓰거나 곳간에 얼지 않게 두었다가 씨앗으로 쓴다.

참고문헌 | 增補山林經濟, 作物學槪要(趙載英, 鄕文社, 1983), 韓國 在來農耕의 地域差(張籌根 외, 韓國의 農耕文化, 京畿大學出版部, 198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 민속의 세계4(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한국의 농기구(박호석 · 안승모, 어문각, 2001).

필자 | 박호석(朴虎錫)

고구마캐기[甘藷-]

⇨ 고구마심기[甘藷-]: 가을편

메밀수확

⇨ 메밀파종: 여름편

박따기

⇨ 박심기: 봄편

생강수확(生薑收穫)

⇨ 생강재배(生薑栽培): 여름편

토란수확(土卵收穫)

⇨ 토란심기(土卵-): 봄편

가을갈치잡이

⇨ 갈치잡이: 봄편

민어잡이(民魚-)

정의 일년 중 7월에서 9월 사이에 서남해안 근해에서 안강망(鮟鱇網)을 이용하여 민어를 잡는 행위.

내용 민어의 크기는 60~90센티미터이며 몸은 길고 옆으로 납작하다. 서남해 근해의 수심 40~120미터의 갯벌 바닥에서 서식하며 여름인 7~9월 사이에 산란을 한다. 민어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먹던 물고기이며 그 어업의 역사도 깊다.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토산품과 공물을 기록한 부분에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여러 곳에서 잡혔고 전라도, 황해도 및 평안도에서도 잡혔던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민어의 주산지가 전남 고흥과 완도·무안·신안·영광, 전북의 고군산열도·죽도, 경기도의 연평열도, 평안도의 신미도·대화도·압록강 입구였다. 지금은 전남 무안 해제반도의 하우리에서 조금 북쪽에 위치한 타리섬 인근이 민어잡이의 집산지이다.







〈민어잡이〉
1 유자망 보망작업
2 양망작업
3 탈망작업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 김상수

정약전(丁若銓)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민어잡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흑산도 바다에는 희귀하나 간혹 물위에 떠오르고 간혹 낚아서 잡는다. 나주(羅州)의 여러 섬 이북에서는 5~6월에 그물로 잡고 6~7월에 낚시로 잡는다." 조선 후기에는 재래식 어구인 민어사슬낙을 사용하였다. 이는 어선의 뱃머리 한편에 여러 개의 낚싯줄을 매단 기다란 새끼를 2~3줄 바다로 넣어 민어를 주로 잡는 도구이다. 미끼는 전어와 새우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도 일본조(一本釣)와 연승(延繩)을 사용하였고 때때로 주목망(柱木網) 및 중선망(中船網)을 사용하였다. 1906년에 일본 어민이 태이도에서 안강망을 사용하여 큰 성공을 거둔 이후 한국인도 민어잡이에서 안강망을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타리섬 인근에서 안강망을 이용하여 민어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시기는 8~9월 무렵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만조 때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玆山魚譜, 韓國水產誌1(農商工部水產局 編, 1908), 韓國漁業史(朴九庚, 正音社, 19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8(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漁業用具 篇-(文化財管理局, 1992).

필자 | 전진섭(全鎭燮)

삼치잡이

개관 삼치는 농어목 고등어과(*Family Scombridae*)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로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중국과 일본의 연안 그리고 하와이와 호주에 이르기까지 널리 분포한다. 삼치는 지역에 따라서 마어(서해) 또는 망어(동해), 망에(통영), 고시(전남)라고 부른다. 일본명은 *Sawara*이고 러시아명은 *Melkopyatnistaya makrel*이다.

내용 삼치의 등쪽은 회색을 띤 청색이며 배쪽은 은백색으로 금속성 광택을 띤다. 몸 옆구리에는 회색의 반점이 7~8줄 세로로 흩어져 있고 등, 가슴, 꼬리지느러미는 검은색이다. 몸의 형태는 가늘고 길며 측편되어 있고 매우 작은 비늘로 덮여 있다. 양턱의 이빨은 창 모양으로 구부러졌고 날카로우며 서골과 구개골에는 융털모양의 이가 있고 혀 위에는 이빨이 없다. 제1 등지느러미 기저(Base; 기관 또는 부속기관과 몸통이 연결되는 부위)의 길이가 매우 길며, 지느러미의 가장자리는 뒤쪽으로 갈수록 천천히 경사져 있다. 가슴지느러미의 뒷변두리는 움푹 들어갔고 부레가 없다. 옆줄은 한 개로 물결무늬 모양이며 일직선에 가깝지만 꼬리 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 있다. 옆줄의 아래위에 직각방향으로 가느다란 가지가 많이 나와 있다.

삼치는 봄부터 여름까지 산란과 먹이 섭취를 위해 연안 또는 북쪽으로 이동하며,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다. 거문도 주변 해역에는 연중 분포한다. 산란기는 4월에서 6월까지로 서해와 남해 연안에 몰려와 새벽에 산란한다. 부화 후 약 2년이 지나면 산란을 시작하는데 약 85만개의 알을 낳는다. 성장 속도는 매우 빨라서 부화 후 6개월이면 33~46센티미터까지 자라고, 만 일년이면 약 57센티미터, 7년이 지나면 103센티미터까지 자라는데, 가끔 더 큰 개체가 발견되기도 한다. 어릴 때에는 갑각류나 어류를 먹지만 성어가 되면서 어류만 먹게 되는데 멸치와 까나리를 주로 먹는다.

어획방법 삼치를 잡는 어구로는 삼치낭장망과 삼치유자망이 있다. 삼치낭장망은 어구형태와 부설 방법, 조업 방법이 멸치, 베도라치의 낭장망과 유사하지만, 삼치는 표층과 중층의 회유성 어종으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자극을 받으면 밑으로 도피하는




〈삼치잡이〉
1 골낚시 삼치잡이
2 삼치 정치망 양륙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김상수

습성이 있으므로 자루그물의 윗판보다 밑판이 앞으로 더 나와 있다.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는 닻줄과 목줄 사이에 뜸을 달아 어구를 표층까지 띄워서 부설한다. 남해 중서부 연안의 수심이 20~25미터인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데, 어기(漁期)는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어획물의 반 정도가 삼치이며 그 밖에 멸치가 30퍼센트, 방어가 20퍼센트 잡힌다. 5톤급 어선 1척이 7~8통의 어구를 여러 곳에 분산하여 투망해 놓고 하루 두 번 조업한다.

삼치유자망은 충남부터 경남까지 연안에 수심이 10~20미터인 해역에서 이루어지며, 어기는 서해 중부에서는 5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와 8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이다. 남해안과 서해 남부해역에서는 6월부터 11월까지 조업이 이루어진다. 투망은 오후 6~7시 무렵에 조류 방향을 가로질러 어군의 분포 수층에 따라 부표줄의 길이를 조정하면서 선수 좌현이나 우현에서 한다. 투망이 완료되면 배잡이줄로 그물 한쪽 끝을 잡고 조류를 따라 흘러가면서 그물 약 30~35폭마다 부착한 부표등을 감시하여 어구의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양망은 다음 날 오전에 선수 우현에 있는 양망 드럼을 통해 사이드드럼으로 감아올리며, 일반적으로 양망 중 어획물을 처리한다. 삼치유자망의 어획물 비율을 보면 서해 중부에서는 삼치가 약 60퍼센트를 차지한다. 남해안과 서해 남부에서는 삼치가 대부분이고 고등어, 전갱이, 가다랑어, 만새기가 일부 혼획된다. 삼치는 여러 가지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과 안강망으로 어획되기도 한다.

기타 삼치는 소금구이, 찜, 튀김으로 요리하면 기름기가 많아 맛이 고소하고 부드럽다. 육질은 연하고 선도도 좋으므로 생선회로도 좋다. 은백색을 띠고 있는 삼치의 배쪽 살은 지방 함량이 많아 최고의 맛을 볼 수 있다. 삼치는 지방의 함량이 높은 편이지만 EPA와 DHA와 같은 불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익하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방단백질(LDL)의 생성을 억제해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삼치에 많이 있는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나이아신은 설염, 구내염, 피부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 삼치 어획량은 연간 27,000톤 정도이다.

참고문헌 | 韓國魚圖譜(鄭文基, 一志社, 1977), 생선회 100배 즐기기(조영제, 한글, 2001), 한국어구도감(국립수산과학원, 2002), 韓國沿近海 有用魚類圖鑑(國立水產科學院, 2004), 水產年鑑 2006(한국수산회, 2006).
필자 | 장창익(張昌翼)

전어잡이(錢魚-)

정의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떼를 지어 이동하는 전어를 그물을 이용해 잡는 행위.

어원 전어는 전국적으로 전어(錢魚), 전어(全魚), 전어(剪魚)라고 부르고,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와 『전어지(佃漁志)』에는 전어(錢魚), 『자산어보(玆山魚譜)』에는 전어(箭魚)라고 하였다. 또 지역에 따라 새갈치, 대전어, 엿사리, 전어사리로 부르기도 하며, 동해에서는 어설키라고 한다. 『자산어보』 권1 인류

(鱗類) 전어조(箭魚條)에는 "큰 놈은 한 자 정도로 몸이 높고 좁으며 검푸르다. 기름이 많고 달콤하다. 흑산도에서도 간혹 나타나나 그 맛이 육지 가까운 데 것만은 못하다(大者一尺許體高而狹色靑黑多 膏味甘厚 黑山或有之不如近陸之産)."라고 적고 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권2, 「전어지」 권4 어명고(魚名考) 강어조(江魚條)에는 "전어는 기름이 많고 맛이 좋아 상인들이 염장하여 서울에서 파는데,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모두 좋아해 사는 이가 돈을 생각하지 않아 '전어(錢魚)'라고 했다(脂膩肥美商人鮓而售京 貴賤共珍之以其味買者不論錢故曰錢魚)."라고 적고 있다.

유래 전어는 청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에는 충청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및 함경도 해역에서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서 전어는 "서남해에서 난다.……해마다 입하 전후에 물가에 나와 진흙을 먹는데, 어부들은 그물을 쳐서 잡는다.……상인들은 절여서 서울에 팔아넘기는데 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진기하게 여긴다(出西南海……立夏前後每來草澨下食泥漁戶張網取之……商人鮓而售京 貴賤共珍之)."라고 적고 있다.

전어는 남쪽에서 월동을 마치고 4~6월 무렵에 난류를 타고 북상하여 3~8월에 산란한다. 동중국해와 일본 중부 이남, 한국 남해 연안 수심 30미터에서 서식한다. 전어는 7~8월에 기름기가 적고 11월 이후에는 뼈가 억세져 9~10월이 가장 맛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전어잡이가 이루어진다. 전어잡이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동해 일부 지역, 경남 통영·남해·사천, 전남 광양·보성 등 남해 해역 중서부, 전남 목포, 전북 부안, 충남 서천 등 서해 해역이 유명하다. 남해안에서는 8월 중순부터 전어가 나오기 시작하며 서해안에선 8월 말부터 전어철이 시작된다. 특히 개흙을 먹고 사는 전어는 갯벌이 잘 발달해 있는 보성 득량만 일대, 부안 곰소만 일대, 군산·김제·부안 일대의 새만금 갯벌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전어를 실으러 온 차들이 포구에 즐비하게 대기한다.

내용 및 지역사례 광양의 전어잡이는 각각 선원 6명이 탄 두 척의 배가 새벽녘 썰물이면 짝을 이뤄 바다로 나가잡는다. 전어잡이는 50미터 그물을 길게 둘러 전어떼를 포획한 후 그물을 끌어 올리지만 예전의 전어잡이는 몽둥이를 두들겨 그물로 전어를 몰아넣어 잡는 원시적인 방식이었다. 전어떼를 그물로 몰아넣고 그물줄을 당기고 둥그런 쪽대(가래)로 퍼 올린다. 섬진강 하구 금호도와 태인도를 막아 광양제철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망덕포구를 중심으로 겨울철에는 김양식으로 생활을 하고 가을철에는 전어잡이로 생활했다.

경남 사천과 전남 광양에는 전어잡이 관련 갈방아소리와 전어잡이노래가 전하고 있다. 마도의 갈방아소리는 전어잡이 그물에 갈물을 드리는 작업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이며, 광양의 전어잡이노래는 선창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진(느린)가래소리, 풍장(농악)소리로 구성되어 있다. 광양 전어잡이 노래가


1


2


3

〈전어잡이〉
1 출어준비(석조망)
2 석조망 양륙
3 탈망
충남 서천 김상수

정작 전승되고 있는 곳은 망덕포구가 아니라 섬진강으로 더 거슬러 올라 자리 잡은 진월면 신아리 신답마을이다.

기타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고 할 만큼 서민들의 사랑을 받은 전어를 소재로 한 속담도 많다. "가을 전어에는 깨가 서 말이다."라는 속담은 전어는 산란기인 봄에서 여름까지는 맛이 없지만, 가을이 되면 체내에 지방질이 차 맛이 좋다는 뜻이다. 가을철 전어축제가 열리는 곳도 많은데 충남 서천 서면 홍천항, 전남 광양시 망덕포구, 전남 보성군 율포항이 해당된다.

참고문헌 | 蘭湖漁牧志,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林園經濟志, 玆山魚譜, 佃漁志, 한국동물도감(鄭文基 編, 문교부, 1961).

필자 | 김준(金準)

볼락젓담그기

정의 볼락과 소금을 섞어 젓갈을 담그는 것. 볼락젓은 주로 남해안에서 담그는데, 진회색 또는 회적색의 도미와 비슷한 생선인 볼락으로 담그며, 경상남도에서는 뽈래기젓이라고 한다.

내용 볼락젓은 가을에 담가야 좋으며 이듬해 모심을 무렵 밥반찬으로 먹기 좋은 음식이다. 가을에 3~5센티미터 가량의 볼락을 소금물에 씻어 건져 물기를 뺀다. 볼락과 소금을 버무려 항아리에 담고 켜마다 소금을 얹고 맨 위에는 볼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금을 많이 얹어 돌을 얹고 밀봉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둔다. 보름쯤 뒤에 국물을 덜어내어 끓이고 식힌 다음, 그 국물을 다시 젓항아리에 붓고 봉해둔다. 이런 작업을 보름 간격으로 세 차례 하고 난 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숙성시킨다. 이듬해 여름쯤에 제맛이 난다. 볼락젓은 오래 보관하는 젓이므로 소금을 적게 넣으면 비린내가 나고 살이 녹아 모양을 유지하지 못한다. 볼락젓은 주로 반찬으로 먹으며 김치 담글 때 넣기도 한다.

참고문헌 | 우리나라 젓갈의 지역성 연구(徐惠卿,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경남향토음식(경상남도농촌진흥원, 1994), 한국의 해양문화3(해양수산부, 2002).

필자 | 서혜경(徐惠卿)

전어밤젓담그기

정의 전어의 내장 중 단단하며 구슬처럼 생긴 '밤'과 소금을 섞어 젓갈을 담그는 것. 전어밤젓은 경상남도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전라남도의 동부 지역에서는 돔배젓, 전라남도 서부 지역에서는 전어창젓, 전라북도에서는 곰뱅이젓이라고 한다.

내용 전어 내장 중 '밤'이라고 부르는 구슬처럼 생긴 부분을 골라 소금물에 살짝 씻어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 다음 소금을 골고루 섞어 항아리에 담아 밀봉하여 그늘에 보관한다. 보름 정도 지나서 알맞게 익으면 먹을 만큼 꺼내서 풋고추와 마늘을 굵게 썰고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을 넣고 양념하여 먹는다. 전어밤은 전어 한 마리에서 하나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전어밤젓은 매우 귀하고 맛있는 젓이다.

참고문헌 | 우리나라 젓갈의 지역성 연구(徐惠卿,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경남향토음식(경상남도농촌진흥원, 1994).

필자 | 서혜경(徐惠卿)





1 볼락젓
2 전어밤젓
김상수


天下大將軍
연 남 고 개 전 설
만 남 고 개 비 문
무학라이온스클럽 증 1995



陽曆歲時

양력세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안성이 남사당의 발생지이자
조선시대 최초의 대중연예인이자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바우덕이를 배출한 것을 기념하고
조선 전국 삼대 장터였던
안성옛 장터를 재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의 날(社會福祉-)

정의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날. 매년 9월 7일에 해당하며 이날부터 일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기념한다.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이다.

내용 1999년에 제10회 사회복지대회에서 4월 30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4월을 사회복지의 달로 지정하여 민간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20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공포일인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그로부터 일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신설하였다.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금전 또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여러 활동들을 지칭하나, 넓게는 사회보장이나 주택보장 등 전체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그 단초를 보이고 있으나, 미력하게나마 직접적인 원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의 최대 관심사는 대외지향적인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오히려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유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후 민주적인 사회분위기 확산과 경제성장으로 조금씩 사회복지정책이 변화하고 보완되어 왔으나, 여전히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또한 사회복지를 단순히 자선사업으로 이해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전문성보다는 사명감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날은 이러한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촉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대우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이고 단순보호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했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소외된 계층과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에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들을 표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관련 민간단체들은 사회복지세미나, 백일장,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참고문헌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혜경, 연세사회복지연구2,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1995), 사회복지의 날 기념세미나 제1회(서울시사회복지협회, 2000), 사회복지계의 숨은 일꾼들 빛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5).

필자 | 윤수경(尹秀京)

철도의 날(鐵道-)

정의 기간(基幹) 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철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 매년 9월 18일에 해당한다.

내용 9월 18일을 철도의 날로 지정한 것은 한반도



철도의 날 기념식 국가기록원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을 개통한 날이 1899년 9월 18일이기 때문이다. 원래 철도의 날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일제에 의해 제정되었다. 그러다가 1964년 한국 정부에 의해 철도의 날이 지정되었으며(대통령령 제1992호), 1973년 3월 여러 국가기념일이 통합, 정비되면서 제정된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으로 그 법률적 기반이 변경되었다.

1964년에 한국에서 철도의 날이 지정된 것은 이무렵이 되어서야 식민지 시기의 여러 잔재들이 완벽하게 청산되고 근대 국가로서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철도의 경우 1961년까지도 여전히 1912년의 제령(制令: 조선총독이 발한 명령) 24호인 '철도(경편철도)와 궤도의 영업에 관한 건'을 법률적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었으나, 1961년 9월에야 비로소 법률 제714호로 '철도법'이 제정되어 독자적인 법률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식민지 시기의 잔재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이후에 철도의 날이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중앙 기념식을 치르고, 지방 철도청에서도 별도의 기념행사를 한다. 또 100킬로미터 무사고 운전을 달성한 기관사들에게 홍조근정훈장(紅條勤政勳章)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해서 철도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장(勳章), 포장(褒章), 표창(表彰)을 수여하기도 한다. 그 밖에 여러 부대 행사를 실시하는데, 행사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그 해의 특성에 맞도록 고려해서 실시한다.

참고문헌 | 국경일·법정기념일의 연혁(총무처, 1997), 한국의 국가기념일 성립에 관한 연구(김민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필자 | 김민환(金玟煥)

뮤직데이(Music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포토데이(Photo Day)

☞ 발렌타인데이(St. Valentine's Day): 봄편

만날제(-祭)

정의 경상남도 마산시 현동과 월영동의 경계에 있는 만날고개에서 해마다 열리는 지역 축제. 만날제 행사라고도 하고 당해년도의 간지(干支)를 붙여 ○○년 만날제라고도 한다. 만날제는 마산 지역에서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가 반보기를 하는 장소로 유명한 만날고개에 서려 있는 만남과 그리움을 지역 축제로 승화시킨 축제이다.

유래 만날제는 마산향토문화진흥회가 만날고개의 전설을 계승하기 위하여 1983년 음력 8월 17일 개최한 것을 시초로 하여, 현재까지 매년 지역축제로서 개최되고 있다. 1985년부터는 시민축제의 하나인 만날제에 만남이라는 순수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시민축제위원회가 주관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부터 음력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으로 축제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만남의 장과 대화, 낭만, 흥취, 삶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축제를 다면화하고 있다.

만날제라는 축제를 있게 한 만날고개의 전설은 시집간 딸과 친정어머니의 애틋한 그리움과 사랑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고려 말엽 마산포에는 양반 가문의 이씨 집에 병석에 있는 어머니와 세 남매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만날고개 너머에 있는 의창군 내서면 감천골에는 돈으로 진사벼슬을 산 천석꾼 윤진사(尹進士) 집에 서른 살쯤 되는 노총각 외아들이 있었다. 이 아들은 벙어리에 반신불수여서 마땅한 혼처를 찾지 못해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던 차에,



만날고개
경남 마산 국립민속박물관



이씨 댁 이웃에 사는 행상 아주머니를 통해 이씨 집에 혼담을 넣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전답 수 십 두락과 상당량의 금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어머니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며칠 후 17세의 큰딸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다. 큰딸은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불효이지만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혼사를 허락하였다.

큰딸은 혼인을 하였으나 돈으로 산 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집살이가 심했고 손자를 낳지 못한다고 구박이 심했으며, 근친도 보내지 않아 2년이 지나도 친정나들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큰딸은 성심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벙어리 반신불수의 남편 시중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3년 만에 근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갈 것이냐"라며 허락하지 않았다. 벙어리 남편은 아내의 이러한 딱한 사정을 측은히 여겨 만날고개까지 동행하고는 여기서 기다릴테니 빨리 친정에 다녀오라고 하였다. 며느리는 단숨에 친정에 가보니 가세가 호전되어 기뻤다. 그러나 시집살이가 싫다고 돌아가지 않으려 하자 친정어머니는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다. 만날고개에 도착해 보니 남편은 이미 자신의 열등의식으로 아내에게 "집을 도망쳐서 잘 살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에 머리를 부딪쳐 자살한 상태였다. 20살의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는 한 맺힌 삶을 살다가 어느 해 8월 열이렛날 행인으로부터 친정의 안부라도 전해 들을까 싶어 만날고개로 올라갔다. 그때 마침 친정어머니도 딸이 그리워 이곳을 찾아와 극적인 상봉을 하여 회포를 풀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고개를 만날고개라고 이름 붙였다. 이후 만날고개는 반보기를 하기 좋은 장소로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내용 만날제는 만남을 주제로 하여 시작된 축제였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행사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만날제의 행사 내용은 서막마당, 공연마당, 상봉마당, 참여마당, 경연마당 등 테마별로 구성된다. 행사의 진행은 축제 첫날 개최를 알리는 만날제향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서막공연으로 만날제의 주제에 맞는 창작극인 '모녀상봉지곡', 판소리, 민요창, 부채춤, 장고춤과 같은 민속공연, 시민노래자랑 예선, 인기가수 초청 공연이 이어진다. 둘째 날이 되면 일반인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민요경창대회와 각설이 공연, 한복맵시자랑 대회, 시민노래자랑 본선, 인기가수 공연, 사물놀이가 행해진다. 그리고 전통민속마당 행사로 대장간, 방앗간, 장승거리를 조성하고, 농기구, 떡, 장승, 죽세공품, 짚공예, 솟대 같은 전통 민속공예품의 제작과정을 재현한다. 널뛰기, 윷놀이, 투호, 연날리기, 투계 같은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마당과 허수아비 축제도 개최하여 다양한 종합 시민 축제의 성격을 띤다.

의의 만날제는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닿아 있는 만남과 그리움을 축제로 승화 발전시킨 축제이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지만, 그리움과 만남이라는 주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축제이다. 또한 중장년층 위주의 행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마산 시민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전통적인 반보기의 전통을 현대적인 지역 축제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만날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마산시는 만날제 축제를 계기로 만날고개 일원에 만남을 주제로 하는 3만평 규모의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만날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지역 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내고장 傳統(馬山市, 1982), 馬山市史(馬山市史編纂委員會, 1997), 한국의 축제(이송미, 성하출판, 1999), 한국민속문화대사전 하권(김용덕 편, 창솔, 2004), 마산시청(www.masan.go.kr.).

필자 | 김시덕(金時德)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安城男寺黨-祝祭)

정의 경기도 안성시에서 매년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열리는 축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2001년에 시작되었다. 축제의 명칭은 안성 남사당패와 19세기 중반에 15세의 나이로 이 남사당패를 이끌었던 바우덕이라는 여자 꼭두쇠에게서 비롯되었다. 남사당패의 여섯 가지 놀이 중 하나인 덜미(꼭두각시놀음)가 1964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1988년에 여섯 가지 놀이가 모두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확대 지정되었다.

내용 남사당패는 솟대쟁이패나 사당패, 걸립패와 함께 전국적으로 퍼져 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은 한자로 男寺黨, 男社堂, 男寺堂으로 표기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표기가 정확한 지는 현재의 문헌과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남사당패는 꼭두쇠가 우두머리로 패거리를 대내외적으로 책임졌으며, 그의 능력에 패거리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조직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50명 안팎의 인원을 필요로 하였다. 곰뱅이쇠는 꼭두쇠를 보좌하며 패거리의 규모에 따라서 두 사람일 때도 있었다. 곰뱅이란 남사당패의 은어로 '허가'란 뜻이며 곰뱅이쇠는 놀이마당을 열어도 좋다는 마을사람들의 사전승낙을 받는 일을 맡아보았다.

바우덕이는 19세기 중반에 안성남사당패를 이끌었던 꼭두쇠로 22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사당패는 남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남자가 우두머리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바우덕이는 여자 꼭두쇠였다. 바우덕이는 다섯 살 무렵에 안성남사당패에 들어가 열다섯 살에 꼭두쇠가 되었다고 한다. 대원군은 경복궁 공사를 좀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리꾼들을 불러들였는데, 1865년에 바우덕이와 그 패도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 놀이판을 벌였다. 이때 공사장 인부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했다고 한다. 대원군은 바우덕이의 기예를 칭찬하는 뜻으로 옥관자(玉貫子)를 하사했다. 옥관자는 조선시대 당상관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바우덕이라는 천민으로 대표되는 남사당패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졌던 것이다.

안성시가 주최하고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지는 이 축제는 2001년에 최초로 개최되었다. 축제는 안성이 남사당의 발생지이자 조선시대 최초의 대중연예인이자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바우덕이를 배출한 것을 기념하고, 조선 전국 3대 장터였던 안성 옛 장터를 재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전통적으로 마을에서 남사당놀이를 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는 것에서 남사당 공연이 시작된 것에 착안하여 곰뱅이트기로부터 시작된다. 안성의 여러 자치 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길놀이가 아울러 행해진다. 길놀이에는 주민들이 다양한 주제에 따른 복장으로 참여하여 시민축제의 성격을 강화한다. 이 축제에서 핵심이 되는 공연으로 남사당의 여섯 놀이 공연이 있으며, 일반 공연으로 음악회와 청소년 음악회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직접 남사당놀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장작패기 등의 민속놀이도 직접 체험할 수가 있다. 그 밖에도 전국 풍물



길놀이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바우덕이축제위원회

1 어름(줄타기)
2 상모돌리기
3 무동놀이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바우덕이축제위원회







경연대회나 풍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안성의 옛날장터와 가축장터를 재현하여 축제에 흥겨움을 제공한다.

남사당의 놀이는 이 축제의 핵심이다. 여섯 놀이의 첫째는 풍물인데 충청도와 경기 이북의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한다. 또 풍물이 관중의 흥미와 주목을 끌 수 있도록 연기를 확대한 묘기 중심으로 최소 2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놀이는 버나인데 다른 말로 대접돌리기라고도 한다. 셋째 놀이는 살판으로 다른 말로 땅재주라고도 한다.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라는 속담에서 생긴 이름이다. 넷째는 어름이라고 하는 줄타기이다. 다섯째 순서인 탈놀음은 덧뵈기라고도 한다. 덧뵈기는 다른 지역에서 연희되는 전형적인 탈놀음보다는 간소화되어 있다. 마지막 놀이인 덜미는 꼭두각시 놀음으로도 불리는데 박첨지놀음 또는 홍동지놀음이라는 명칭도 있다

행사는 전야제와 길놀이를 제외하고 시내에서 조금 먼 안성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행해진다. 예산은 현재 안성시가 주축이 되어 부담을 하며 경기도와 국가가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축제가 시작된 지 몇 해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며 안성시민 이외에 외부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여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의의 이 축제는 국가에서 인정한 무형문화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중요한 전통 장터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사라질 뻔한 한국 전통문화를 전승하며 발전시키는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男寺黨牌 硏究(沈雨晟, 東文選, 1994).
필자 | 강정원(姜正遠)

유왕산추모제(留王山追慕祭)

정의 백제 멸망 후에 당나라로 끌려간 의자왕(義慈王) 일행과 백제인들을 추모하는 의식을 축제로 재현한 행사. 음력 8월 17일에 충청남도 부여에서 열린다.

유래 충남 부여군 양화면 암수리 유왕산에 전승되는 유왕산추모제는 백제의 멸망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서기 660년에 나당(羅唐)연합군이 사비성(泗沘城)을 공격하자 의자왕은 웅진(熊津)으로 피신하였다가 사비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해 7월 18일에 항복을 한다. 소정방(蘇定方)은 사비성을 함락시키고, 9월 3일에 의자왕과 태자 및 세 왕자, 대신 88명과 백성 12,807명을 당나라로 끌고 간다. 왕을 비롯한 대규모 백제 포로의 당나라 이송은 백제 부흥운동을 조기에 진압하려는 전술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당시 이곳에서 백제 부흥군이 당나라 군대를 향해 활을 쏘았다고 하여 유왕산을 사당산(射唐山)이라고도 부른다.

유왕산 인근 가야구의 구전에 의하면, 소정방은 이곳에 가족 친지 간에 이별의 회포를 풀기 위해 의자왕 일행을 8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머무르게 했다. 그래서 왕 일행이 머물렀다는 뜻에서 이곳의 지명이 '유왕산(留王山)'이 되었다.

유왕산을 비롯한 금강 주요 길목은 대규모 선단이 빠져나가는 장면을 보기 위해 몰려든 유민들의 생이별 장소가 되었다. 이런 곳이 당시에는 이산의 시기에 맞춰 재회를 기약하고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추모의 장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용 유왕산 지역은 백제의 멸망에 따른 전설을 지닌 곳으로 20세기 중반까지 여성들의 반보기 행사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혼인을 한 부녀자들은 매년 음력 8월 17일에 유왕산에 모여, 친척과 친지들을 반갑게 만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놀이를 하면서 회포를 풀었다. 인근에서 모여든 인파로 해발 67미터의 작은 언덕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때에 각종 장사치들이 모여들어 난장이 형성되었다.

아침에 출발해서 반나절 동안 만나고 오후에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반보기라 하였다. 이런 풍습은 금강을 중심으로 충남 남부지방과 전북 북부지방에 널리 전승되었다. 유왕산에서 행해지던 반보기는 1948년에 좌익의 준동을 막기 위해 금지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전승이 완전 중단되었다.

인근의 충남 서천 남산에도 남산놀이라 하여 이와 비슷한 전설과 세시풍속이 전한다. 이곳은 금강 하구에 위치하여, 유민들이 모여 서해로 사라지는 대규모 선단을 마지막으로 눈물로 떠나보냈다는 전설이 있다. 이런 전설을 안고 근래까지 이곳 남산 위에서 8월 17일에 대규모 반보기 행사가 전승되었다.

유왕산추모제는 백제 멸망의 역사적 배경과 반보기의 세시풍속을 바탕으로 하여 1997년 음력 8월 16일~17일에 향토 축제로 재현되었다. 주로 추모제의 성격을 지닌 행사로서 포로가 된 의자왕 일행이 탄 대규모 선단이 유왕산을 통과하면 강가의 유민들이 상여를 메고 이산의 아픔을 노래와 통곡으로 재현한다. 이때에 백제의 노래인 산유화가(山有花歌)를 부른다. 그리고 유교식 제사, 원혼을 달래는 망자 천도굿도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움의 꽃 유왕산놀이'라는 축제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유왕산추모제는 이산의 아픔에서 출발한 의식이지만 반보기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만남의 즐거움으로 승화된 축제이다.

의의 추모제가 전승되는 유왕산은 백제 멸망에 따른 이별의 장소가 이산의 아픔을 달래고 혈육 상봉 기원의 장소로 재회가 불가능한 시점에는 원혼을 위로하는 추모의 장소가 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민들의 이산 시기인 9월 3일이 추석의 수확의례 및 조상 천신(薦新) 의례인 음력 8월 17일의 집단 반보기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의례의 주체가 백제 유민에서 출가한 부녀자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역사적 이산과 재회 기원의 장소가 출가한 여성의 재회의 공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추모의 장소로 재정립 된 것이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전통문화의 고장 부여(부여군, 1982), 舒川郡誌(舒川郡, 1988), 백제의 부흥운동(심정보, 백제의 역사와 문화, 學研文化社, 1996), 서천 남산장의 공간적 기능 변화 고찰(정형호, 민속학연구3, 국립민속박물관, 1996), 유왕산놀이 발전 세미나 자료집(부여문화원, 1998).

필자 | 정형호(鄭亨鎬)

ㄱ

가강강술래 265
가거도멸치잡이노래(可居島-) **160**
가례(家禮) 208, 341, 343, 360
가례집람(家禮輯覽) 209
가마 75, 116, 137, 203, 227, 259, 260, 261
가마놀이 259
가마기도 칠월 칠석은 안 잊어분다 67
가마등 202, 203, **227**, 266, 267
가마타기 227, 261
가마타기노래 **269**
가매쌈 259
가메쌈 259
가면극 251, 370, 371, 372, 373, 389
가묘천신(家廟薦新) 212
가무백희(歌舞百**戱**) 218, 388
가배(嘉俳) 22, 186, 198, **205**, 206, 207, 218, 237, 239
가배일(嘉俳日) 198
가배주(嘉俳酒) **218**
ᄀᆞ슬 것 못 걷어 들인 놈 저슬을 넹길 생각 말라 399
ᄀᆞ슬 헤 작데기로 못 바툰다 408
ᄀᆞ실갈치 396
가양주(家釀酒) 347
가우 22, 205
가웃날 22
가월(佳月) 193
가위 22, 187, 198, 205, 207, 240, 241
가윗날 **206**, 269
가을 것 못 걷어 들인 놈 겨울 넘길 생각 마라 **399**
가을 곡식은 재촉하지 않는다 **400**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영근다 **400**
가을 다람쥐 계집 얻어드리듯 한다 400
가을 다람쥐 같다 **400**
가을 다람쥐처럼 욕심만 난다 400
가을 닭띠는 잘 산다 408
가을 더위와 노인(老人)의 건강 **401**
가을 들판은 딸네집보다 낫다 401
가을 들판이 어설픈 친정보다 낫다 401
가을 메[杵]는 부지깽이도 덤벙인다 **401**
가을 멸구 402
가을 멸구는 나락 벼늘도 먹는다 **402**
가을 물은 소 발자국에 괸 물도 먹는다 **402**
가을 부채는 시세가 없다[秋扇無勢] **403**
가을 빚에 소도 잡아먹는다 **404**
가을 상치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405
가을 식은 밥이 봄 양식이라 **405**
가을 쌀밥이다 **405**
가을 아욱국은 문 닫아 걸고 먹는다 405
가을 아욱국은 사위만 준다 **405**
가을 아욱국은 제 계집 내어쫓고 먹는다 405
가을 안개는 쌀안개 봄 안개는 죽안개 **406**
가을 안개는 천 석을 보태준다 406
가을 안개는 천 석을 올리고, 봄 안개는 천 석을 내린다 406
가을 안개에는 곡식이 늘고, 봄 안개에는 곡식이 준다 406
가을 안개에는 풍년 든다 406
가을 장맛비 이삭 싹 난다 409
가을 전어(錢魚) 머리에는 깨가 한 되다 **407**
가을 중 시주 바가지 같다 405
가을 중 싸대듯 **407**
가을 판에는 대부인 마님까지도 나선다 407
가을 하늘과 큰어미 얼굴은 검어도 좋다 **407**
가을 한 밤은 일년 같이 지루하다[秋夜如歲] **408**
가을 해 작대기로 못 받친다 **408**
가을[秋] 11, 16, 18, 19, 21, 22, 24, 25, 26, 27 33, 35, 37, 38, 41, 44, 144, 145, 151 157, 167, 190, 194, 195, 198, 199, 201 205, 206, 211, 258, 275, 288, 298, 324 325, 326, 327, 329, 330, 334, 336, 337 338, 339, 347, 356, 357, 361, 399, 400 401, 402, 404, 405, 406, 407, 408, 409, 417
가을갈치잡이 **413**
가을걷이[秋收] 20, 23, 269, 290, **308**, 309, 310, 382
가을날 더운 것과 노인 근력 좋은 것은 못 믿는다 401
가을누에치기 **172**
가을들이 딸네 집보다 낫다 401
가을마당에 빗자루 몽당이를 들고 춤을 추어도 농사(農事) 밑이 어둑하다 **401**
가을바람에 낙엽이 지듯 한다[秋風落葉] **402**
가을바람은 노새 귀를 뚫는다 **403**
가을바람이 귓전을 스쳐가듯 한다[秋風過耳] **403**
가을바람이 노새 귀를 뚫고, 가을 좇이 무쇠를 뚫는다 403
가을바람이 불면 곡식은 혀를 빼물고 자란다 400
가을바령 **412**
가을밭을 밟으면 떡이 세 개요 봄밭을 밟으면 빰이 세 대다 **403**
가을부채[秋扇] 404
가을비 한 번에 열흘 추수가 늦어진다 409
가을비는 떡비요 겨울비는 술비다 **404**
가을비는 장인(丈人)의 나룻 밑에서도 긋는다 **404**
가을에 밭에 가면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 **406**
가을에는 대부인(大夫人) 마누라도 나무 신짝 가지고 나온다 401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 406
가을에는 손톱 발톱도 다 먹는다 **406**
가을이 되면 말발굽에 고인 물도 마실 수 있다 402
가을일은 미련한 놈이 잘한다 **406**
가을장마 15
가을철에는 죽은 송장도 꿈지럭한다 401
가을케메기 **174**
가정의례준칙 208, 209, 212, 343, 345
가지누름적 220
가지수확 **310**
가초(嘉草) 25
가향주(佳香酒) 347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316, 421
간괘(艮卦) 327
간납(肝納) 219
간조(干潮) 216
간편조선요리제법(簡便朝鮮料理製法) 158
갈가마구소리 296, 297

갈가마귀점 **361**
갈갈이 **172**
갈대 27
갈무리[貯藏] 206, **412**
갈치나끄는소리 396
갈치나끄는홍셍이 396
갈치낚는소리 **396**
갈퀴 365, 366
갈퀴치기 313, **365**, 393
감고지떡 159
감국(甘菊) 24, 336, 347
감로탱 389
감시리(감시루떡) 159
감인절미 159
감자송편 222
감자순 267
강강도술래 265
강강수월래 228
강강술래 188, 189, 201, 202, 227, **228**
229, 230 , 231, 234, 235, 236, 242, 243
244 , 245, 246, 262, **265**, 266, 267, 268
강릉농악(江陵農樂) **90**
강진땅뺏기놀이(康津-) **90**
개고리타령 266, 267, 268
개똥물 **155**
개상 302, 308
개상질소리 302
개역 361
개장국누르미 219
개추(開秋) **34**
객신제 150
거가필용(居家必用) 158, 348
거가필용사류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 226
거릿제 150
거북 100, 188, 232, 233, 234, 295, 296, 386
거북놀이 201, 203, **232**, 384
거풍(擧風) 176
거화야 165
건괘(乾卦) 37
건사거리 372
건전가정의례준칙 211
걸교(乞巧) 30, 33, 35, 45, **49**, 56, 67
걸교전(乞巧奠) 49, 65
걸립굿 101
걸물궤기 396
걸짐 49
검불날리기 302
검불날리는소리 302
게으른 놈 7월에 후회한다 **166**
게으른 머슴은 저녁나절이 바쁘다 166
게으른 머슴은 칠월이 바쁘다 166
게으름뱅이 칠팔월에 애달프다 166
겨울 다람쥐는 눈먼 계집 얻는다 400
겨울날씨와 늙은이 근력 좋은 것은 못 믿는다 401
격구(擊毬) 374
격몽요결(擊蒙要訣) 208, 209, 211
견우(牽牛) 21, 30, 33, 35, 44, 45, 49, 53, 54
55, 58, 59, 61, 65, 66, 67, 68, 87, 193, 206
견우성(牽牛星) 33, 35, 44, 49, 53, 58, 66, 67
견우직녀(牽牛織女) 33, 44, 45, 53, 54, 58
61, 65, 66, 67, 68, 87
경기농악 103, 104, 105
경도잡지(京都雜志) 68, 74, 85, 347, 389
경사굿 393
경칩(驚蟄) 153, 277
계상(季商) **325**, 327, 328
계수나무 190, 326
계월(桂月) **190**, 193
계유정난(癸酉靖難) 223
계증(鷄蒸) 220
계추(季秋) 26, 41, 322, **325**, 327, 330, 331, 360
계추(桂秋) **190**
계포(鷄捕) 239
고구마캐기[甘藷-] **413**
고두마리 119
고려사(高麗史) 64, 144, 209, 212, 236, 276,
280, 322, 335, 341, 356
고려율고 348
고봉(苦蓬) 346
고사(告祀) 49, 64, 80,96, 285, 286, 290, 349, 390
고사리꺽기노래 **269**
고사리꺾기 202, 228, **234**, 243, 262, 265
고사리꺾자 234
고사리껑기 234
고사리껑자 202
고사리따기 234, 244
고사천신(告祀薦新) 49
고상안(高尙顔) 211
고시기(古詩紀) 36
고양송포호미걸이(高陽松浦-) 31, **91**
고유(告由) 283
고장 쏠[米穀] 361
고조(高組) 388
고추(高秋) **190**, 322, 325
고추수확[苦椒收穫] **310**
고호(苦蒿) 346
고환(高紈) 388
고흥풍장소리(高興-) **161**
곡마(曲馬) 374
곡예장거리 369
곡우(穀雨)에 비가 오면 풍년 들고 가물면 흉년 든다 406
곤괘(坤卦) 37, 190, 192, 328
골무떡 222
골무송편 201
곰뱅이쇠 381, 423
곰뱅이젓 417
곰뱅이트기 423
곰취 24
공동적마(共同績麻) 237
공영달(孔穎達) 192
공자(孔子) 194, 271, 288
공자탄일(孔子誕日) **271**

공치기놀이 136
과기(瓜期) **34**
과부노래 297
과월(瓜月) 30, **34**, 37
곽종석(郭鍾錫) 211
관괘(觀卦) 190, 192
관괴뢰잡희시(觀傀儡雜戱詩) 368, 388
관나희(觀儺戱) 388
관습조사보고서(慣習調査報告書) 360
관우희(觀優戱) 368
관월(觀月) **190**
관조(觀潮) **236**
광광수월래 228
광광술래 228, 265
광대 366, 370
광대줄타기 389
광대패 389
광복군(光復軍) 316
광복군사령부(光復軍司令部) 316
광복절(光復節) 180, **316**
괴뢰목우희(傀儡木偶戱) 368
괴뢰부(傀儡賦) 368
교월(巧月) 30, 34, **35**, 193
구당서(舊唐書) 39, 206
구두레 93
구름보기 **214**
구시월 닭이다 **408**
구시월 도지는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409**
구시월 돌풍에는 비 한 방울에 바람이 석 섬이다 409
구시월 돌풍은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409
구시월 돌풍은 호랑이보다 무섭고
비 한 방울에 바람이 석 섬이다 409
구시월 세단풍(細丹楓) **409**
구양수(歐陽脩) 401
9월(九月) 14, 16, 18, 19, 21, 37, 38, 41, 84, 121
132 , 156, 160, 186, 192, 193, 205, 206, 271
274, 275, 277, 280, 286, 309, 311, 313, **322**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4, 336
337, 338, 339, 341, 343,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3, 356, 357, 360, 361, 362, 381
382, 386, 396, 400, 401, 413, 414, 420, 421, 423, 425
구월 군두 조금에 사돈네 빚 갚는다 **353**
구월제(九月祭) 323, 337
구일제(九日祭) 341
구일차례(九日茶禮) 337, 341
구일초(九日草) 346
구절초(九折草) 24, 346
구절초(九節草) 345
구절초(Chrysanthemum sibiricum Turcz) 345
구절초뜯기(九節草-) **345**
국경일 180, 316
국경일에관한법률 180
국고(菊糕) 346
국고(菊餻) 346
국령(菊令) 325, 326
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 420
국월(菊月) 322, **325**, 326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280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51, 154, 277, 280, 283, 288, 335
국추(菊秋) 325, **326**
국화놀이 349
국화전(菊花煎) 24, 323, 335, 341, **346**
국화절(菊花節) **336**
국화주(菊花酒) 322, 326, 334, 336, 337, 345, **347**, 349, 357
군사놀이 268
군웅거리 214
굴렁테 267
굴려라 267
궁둥이에 비파 소리 난다 407
궁추(窮秋) **326**
권덕여(權德輿) 329
권마성 267
권문해(權文海) 211, 357
권벽(權擘) 168
귀뚜라미 16, 145, 167
귀령(歸寧) 207
귀성(歸省) **207**
귀성열차 207
귀일차례 343
귀절(鬼節) 31, 75
귈 334
귈제 335
규원가 67
규합총서(閨閤叢書) 68, 74, 158, 222
그린데이(Green Day) **317**
근두 389
근친(覲親) 200, 274, **280**, 292, 422
금강민속축제(錦江民俗祝祭) **181**
금강초롱꽃 26
금백주할망 78
금산농바우끄시기 181
금산물페기농요 181
금천(金天) **35**
금초(禁草) 282
긍희(絙戱) 388
기고제(祈告祭) 283
기러기놀이 **237**, 241
기로소(耆老所) 339
기로연(耆老宴) 334, **339**
기로회(耆老會) 339
기뺏기놀이 139
기사(騎射) 374
기세배(旗歲拜) 64, 94, 98, 116, 120, 128, 136, 139
기세배놀이 97
기싸움 64, 100, 107, 116, 120
기양의례(祈禳儀禮) 154
기영연(耆英宴) 339
기영회(耆英會) 339
기예 104, 371, 374, 381, 388, 423
기와밟기 202, 227, 236, 261, 266, 268
기와밟기노래 **269**
기우제(祈雨祭) 48, 150, 155 181, 217, 264

기장떡 267
기장수확[黍收穫] **172**
기절낙지 174
기절받기 94
기접놀이 132, 139
기제(忌祭) 211, 335
기창(騎槍) 376
기청제(祈晴祭) 30, 144, 154, 217
기후(氣候) **14**
긴강강술래 243
길군악[길軍樂] 93, 104, 128, 161, 233, 381
길놀이 64, 105, 166, 233, 423
길쌈 22, 35, 50, 67, 74, 131, 187, 199, 231, 237, 251, 329
길쌈내기 205, 239
길쌈노래 164, 238
길쌈놀이 **237**, 252
길쌈두레 138, 238
길쌈요 163
김굉필(金宏弼) 288
김국광(金國光) 116, 127
김매기 31, 45, 47, 48, 71, 72, 85
90, 94, 98, 109, 114, 120, 122
127, 133, 138, 144, 182, 304, 393, 405
김매순(金邁淳) 269
김성일(金誠一) 40
김시찬(金是瓚) 37
김인후(金麟厚) 288
김장생(金長生) 288
김재철(金在喆) 368
김정희(金正喜) 347
김집(金集) 288
김포통진두레놀이(金浦通津-) **94**
김홍도(金弘道) 298
깃대재주부리기 94
까마귀 26, 44, 53, 67, 68, 296, 361
까마귀도 칠월 칠석은 안 잊어버린다 **67**
까마귀밥 45, 53
까막까치 53, 66, 67, 68
까막잡기 **239**, 264
까치 44, 53, 54, 66, 68
까치밥 54
까치밥주기 **53**, 54
깨이말(꽹이말)타기 87
껌데이(Gum Day) **317**
꼬까참새 18
꼬리따기 228, **239**, 241, 242, 266, 267, 268
꼬리따기노래 **269**
꼬이기는 칠팔월 수숫잎 꼬이듯 한다 169
꼭두각시 368, 369, 372, 424
꼭두각시거리 372
꼭두각시놀음 250, 251, 324, **366**, 368, 369
370, 371, 372, 373, 389
꼭두쇠 366, 381, 423
꼰배기 87
꼼배기먹기 47
꼼배기참놀이 116
꼼비기 46, 47, **76**, 87
꼼비기날 **46**, 118
꽁댕이잡기 239
꽁배 84
꽁배술 70, 84
꽃맞이굿 212
꽃송편 222
꽈리 159, 160
꽈리불기 **159**, 160

ㄴ

나(儺) 388
나다리먹기 131
나락뒤주 412
나례(儺禮) 388, 389
나무꾼일놀이 136
나무꾼소리 **296**, 297
나물 25, 27, 51, 52, 53, 61, 88
186, 223, 225, 226, 372, 400
나물노래 297
나배도뱃노래 161
나비질소리 303
나희(儺戱) 388
낙성식 285
낙지 21, 172, 173, 174
낙지잡이[石距-] **172**
낙지주낙 172
낙지축제 174
난야(蘭夜) 35
난월(蘭月) **35**
난추(蘭秋) **36**, 38, 39, 41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 415
날궂이 183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 276
남극성(南極星) 276
남극수성(南極壽星) 276
남대문놀이 246
남도들노래 166
남도문화제 90, 139
남려(南呂) **190**, 193, 327
남사(南史) 327
남사당놀이(男寺黨-) **370**, 389, 423
남사당패(男寺黨牌) 246, 250, 251, 324, 366, 368, 369
370, 371, 372, 373, 380, 381, 389, 390, 423
남산놀이 425
남생아놀아라 246, 266, 267, 268
남생이노래 **269**
남생이놀이 277, 228, **242**, 243
남성관희자(南城觀戱子) 368
남여행차 137
남원삼동굿놀이(南原三童-) 22, **97**, 98, 100, 101
남한산성 도적이야 267
낫치기놀이 136

냉월(冷月) 36, 37, 39
너리기편지기 269
넌출물먹기 **362**
널 243, 244
노냉(露冷) **191**
노동요 303, 396, 397
노랑딱새 18
노량(露凉) **36**, 39
노인사설의(老人賜設儀) 339
노인성 276, 277
노인성도(老人星圖) 276
노인성묘 276
노인성제(老人星祭) **276**, 277
노인잔치[耆老宴] 322
노적놀이(露積-) **373**, 374
노적봉(露積峰) 373, 374
노적쌓기 374
노추(老秋) **326**
노티 **218**, 219
녹두나물 223
논갈이 94, 96, 123, 124
논매는소리 300, 303
놋다리밟기 65, 203, 261, 262
놋치 218
놋티 218, 219
농가십이월속시(農家十二月俗詩) 176, 186, 357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176, 226, 292, 323, 341
농경세시 87, 153, 155
농경신 76, 78, 203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 200
농기(農旗) 64, 87, 91, 94, 96, 97, 103, 107, 119
120, 121, 122, 123, 128, 132, 258, 295
농기고두마리놀이 121
농기뺏기놀이 121
농령 389
농마(弄馬) 374
농마희(弄馬**戱**) 374
농사장원 118, 164
농사점(農事占) 157, 204, 215, 361
농상(農祥) 153
농상패놀이 94
농신기(農神旗) 100
농신제(農神祭) 73, 114, 116, 117, 128, 131
농악(農樂) 64, 66, 73, 75, 90, 96, 97, **101**, 103
104, 105, 116, 139, 183, 234, 244, 245, 261
352, 370, 372, 380, 381, 382, 384, 386, 416
농악놀이 32, 74, 90, 96, 119, 254, 374, 381
농요(農謠) 94, 96, 123, 127, 131, 166
농장원 90, 91, 139
농점(農占) 145, 156, 189, 214
농주(農酒) 137, 218
농청(農廳) 107, 108, 109, 123, 130, 131, 132, 136
농청기(農廳旗) 107, 108, 123, 127
농청원(農廳員) 108, 123, 124, 127, 130, 131, 132
농포제(農酺祭) 30, **150**
농현 45, **47**, 75
높새가 불면 볏잎이 겉마른다 167
높새바람 161
누르미 219
누름적(-炙) 201, **219**, 220
누울 자리보고 발 뻗는다 168
늦모는 감 우려먹으며 심는다 166
늦모는 대추를 코에 넣어가며 심는다 166
늦모는 밤꽃 질 때까지 심는다 166
늦모는 밤송이를 겨드랑이에 넣어가며 심는다 166
늦모라도 겨드랑이에
밤송이 끼고 낼 수만 있다면 먹는다 166
늦은강강술래 228

ㄷ

다나바다마쯔리 49
다대포후리소리 162
다람쥐 17, 65, 400
다람쥐 밤 물어다 감추듯 한다 400
다래 17, 26, 27, 89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37
단야(丹若)낭자 350, 351
단오(端午) 22, 199, 203, 204, 209
211, 217, 264, 293, 334, 335, 341
단오권(端午圈) 344
단오장(端午粧) 217
단오절(端午節) 217
단풍나무 27
단풍놀이[楓菊] 23, 349, 350
단풍맞이굿 212
단헌(單獻) 211
달거리노래 67
달넘기 234, 267
달넘자 268
달데이(Doll Day) **317**
달마중 23, 189
달맞이 206, **215**, 216
달줍기 놀이 268
달팽이진 245
닭살이 202, 203, 239, 243
닭잡기 243, 244
닭잡기놀이 **243**, 244
닭잡이 235, 243, 244
닭잽이 243
닭찜 **220**
담넘는놀이 234
담장넘기 269
답삭희(踏索**戱**) 388
답연삭(踏連索) 388
당그레춤 268
당산굿 101
당산맞이 396
당산신 100
당산제 99, 100, 101, 116, 262

당울림 214
대감거리 214, 396
대구껍질누르미 219
대나무 21, 87, 134, 365, 387
대동고사 93
대동놀이 93, 94, 120, 130, 256
대동패(大童牌) 138
대말타기 **374**
대문놀이 **244, 246**
대문놀이노래 **269**
대문열기 246, 266, 268
대보름굿 101
대서(大暑) 144
대신할머니거리 214
대잡이 366, 368
대접돌리기 389, 424
대제(大祭) 283
대청굿 234
대청도 141
대청통례(大淸通禮) 212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316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180, 316
대한예전(大韓禮典) 151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186, 199, **269**, 270
더부살이 환자(還子) 걱정 167
덕석기뺏기 90
덕석말이[筵卷遊] 228, 235, 236, **244**, 245
덕석몰기 244, 265, 266, 267, 268
덕석몰이 202, 244, 245
덕석몰이노래 **269**
덕석몰자 244
덕석풀기 244, 266, 267, 268
덕석풀이 **245**
덜미 366, 370, 371, 381, 423, 424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이다 **277**
덥곡 추운 것도 추분광 춘분끄진다 277
덧뵈기 368, 370, 372, 381, 389, 424
도굿대당기기 227, 246, 266
도당나무 93
도당산(都堂山) 93
도둑잡기 243, 244
도리깨질하기 302, 303
도리깨질하는소리 302, 303
도립(倒立) 374, 377
도미의례(稻米儀禮) 288
도백삭(渡白索) 388
도연명(陶淵明) 335, 336, 338, 339
도지 409
도토리점 **156**
독립기념관 316
독창 297, 300
독축(讀祝) 100, 153, 155, 209, 211, 345
돌산령지게놀이 391
돔배젓 417
돗당 150
동경몽화록(東京夢華綠) 215, 336, 347, 374
동교 261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44, 68, 74, 85, 176, 208, 222, 237 261, 264, 292, 294, 324, 346, 350, 368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14, 237, 264, 413, 416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48, 226, 363
동동(動動) 23, 31, 205
동맹(東盟) 103
동물(動物) **16**, 17, 18, 27, 54, 204, 232 242, 243, 322, 383, 384, 400
동방노인거리 369
동방오현(東方五賢) 288
동북풍에 곡식 병난다 167
동아누르미 219
동아따기 244, 268, 269
동악선생집(東岳先生集) 269
동안거(冬安居) 407
동애[童瓜]따기 239, 241, 242
동월(桐月) **36**, 37, 40
동의보감(東醫寶鑑) 364
동지(冬至) 14, 199, 211, 283, 341, 401, 408
동추(桐秋) 34
동파전집(東坡全集) 194
돼지고기누름적 220
두레 31, 32, 48, 70, 71, 84, 86, 87, 91 93, 94, 96, 97, 107, 119, 121, 122 123, 127, 128, 130, 136, 137, 138, 238, 239
두레 장원(壯元) 87
두레굿 97, 101, 130
두레길쌈[共同積麻] 199, 237, **245**
두레놀이 90, 91, 94, 96, 97, **105**, 116, 138, 139
두레먹기 70, 87, 122
두레먹이 127, 130
두레삼 163, 237, 238, 239
두레싸움 91, 94, 96
두레잔치 87
두레풀베기놀이 136
두레풍물패 91
두레풍장 122
두목(杜牧) 327, 335
두벌매기 122
두심언(杜審言) 194
둑제[纛祭] **357**
둥당애타령 268
뒷전거리 214
뒷절거리 369
뒷할망제 **360**, 361
들게 175, 237, 238
들국화 24, 26
들독들기 **105**
들돌 70, 84, 100, 105, 106, 107, 114, 119
들돌들기 22, 47, 70, 84, **105**, 107, 131, 137
등고(登高) 322, 324, 334, 335, 347, **349**, 350
등고회(登高會) 334, 350
등단이야 268
등리장신 374, 377
등짐소리 **297**, 298

땅뺏기놀이 90, 91, 139
땅재주 368, 370, 372, 381, 388, 389, 424
떨감장만 **312**, 313
뚜름박소리 165

ㄹ

링데이(Ring Day) **181**

ㅁ

마(곰팡이) 76
마걷이 78
마기(馬伎) 374
마기(馬技) 374
마당굿 188, 381, 396
마당놀이 234, 259
마당밟기 101, 116, 132
마당씻이 372
마당질 308, 309, 310
마댕이소리 303
마불림제(-祭) 22, **76**, 77, 78, 79, 80, 85, 140, 177
마사제(馬社祭) **280**
마산농청놀이(馬山農廳-) **107**, 108, 109
마상재(馬上才) **374**, 376, 377
마술(馬術) 374
마을판굿 233
마협장신 377
마희(馬戱) 374, 376, 377
만경놀이 139
만날고개 421, 422
만날제(-祭) **421**, 422
만두레 71, 90, 139
만석중놀이 368
만열(晩熱) **36**, 37
만염(晩炎) **30**, 36, 37
만월(滿月) 201, 205, 206, 214, 264
만조(滿潮) 216, 414
만추(晩秋) 38, 41, 322, 325, 326, **327**, 330
말광대 374
말놀음 374, 376
말놀이 243, 244
말머리코ᄉᆞ 79
말명거리 396
말복 나락 크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144
말복 지나 열흘 동안 뻐꾹새 울면 풍년 든다 270
망시논매기 131, 132
망제(忘祭) 53, 337, **341**
망제일(忘祭日) **337**
망혼일(亡魂日) 30, 31, 68, **71**, 74, 78, 81
망혼제(亡魂祭) 70, 71, **78**
매구 101
매사냥거리 369, 371
매지따는놀이 239
매호씨 372, 390
매화송편 222
매화타령 165
맹귀유(盲鬼遊) 264
맹목유(盲目遊) 264
맹월(孟月) 151
맹유(盲遊) 264
맹자(孟子) 194
맹추(孟秋) 30, **37**, 38, 41
맹호연(孟浩然) 338
머루 26, 27
머슴날 30, 31, **47**, 48, 72, 75, 87, 109, 119, 201
머슴놀이 116, 128, 130, 139
머슴명일 30, 33, 73
머슴명절 21, 119
머슴생일 87
머슴의 생일(-生日) 71, **72**, 75
머슴잔치 71, 87
머슴회치 87
먹중잡이 372
멍석 19, 32, 72, 87, 105, 108, 175
203, 244, 245, 254, 309, 383, 384, 412
멍에 96, 141
멍에놀날 **141**
메[杵] 401
메밀농사 140
메밀수확 **413**
멜후리는소리 162
면암집(勉庵集) 88
멸치잡이 160, 163
멸치후리는소리 **162**
멸후리는소리 162
명산대천제(名山大川祭) 188, **280**
명태잡이소리 163
모기는 중양절 떡 먹고 죽는다 146
모기도 처서가 지나면 입이 삐뚤어진다 **146**
모내기 20, 86, 96, 97, 121, 122,
133, 138, 144, 308, 310, 405
모듬떡 211
모듬벌초 282
모상(暮商) 325, **327**, 328
모시 238, 251, 252, 253
모시날기 252
모시매기 252
모시삼기 252
모시잎송편 222
모시짜기 251, 235
모시풀베기 252
모심기 47, 90, 96, 114, 123, 127, 131, 138, 300, 303
모심는소리 183, 300, 303
모의주술희(模擬呪術戱) 263
모의희(模擬戱) 242, 263
모정(茅亭) 48, 100, 134, 135, 138
모찌기 94, 96, 123, 127

모추(暮秋) 322, 325, 326, **327**, 328, 332
모혈(毛血) 283
목련경(目連經) 80, 81
목장제(牧場祭) 80
목축신 76, 78, 79
목화 19, 20, 298, 299, 334, 361, 377
목화놀이 298
목화따는노래 **298**, 299
목화풍년놀이 298
못자리고사 94, 96
묘다지는 소리 304
묘제(墓祭) 208, 211, 212, 217, 330, 335, 344, 345, 369
무감서기 214
무관제사 337
무동놀이 105, 382, 424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243, 268
무마(舞馬) 374
무송편 222
무역(無射) 40, 191, 322, 325, 326, **327**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376, 377
무요(舞謠) 228
무천(舞天) 103
무태방어(無泰魴魚) 331
무형문화재 31, 91, 101, 103, 105, 114, 115, 116, 119
123, 127, 128, 130, 132, 138, 139, 160, 161
162, 164, 166, 181, 188, 228, 246, 252, 265
266, 366, 370, 382, 389, 393, 397, 423, 424
무환(舞桓) 388
무후제(無後祭) 341
무후제비(無後祭碑) 341
묵재일기(默齋日記) 339, 343, 350
문굿 132, 233, 254
문도령 76, 78
문록(文錄) 191
문무왕(文武王) 232
문무제례악 288
문선(文選) 329, 330
문선왕(文宣王) 288
문선주(文選註) 194
문소전제(文昭殿祭) **150**, 208
문열기 **245**, 246, 267, 268
문열어라놀이 264
문익점(文益漸) 298
문종실록(文宗實錄) 388
문지기놀이[關守遊] 227, 228, 244, 245, **246**
물꼬싸움 94, 96
물맞이 57, 58, **88**, 117, 118
물병매기 183
물산제 52
물호박떡 293, 294
뮤직데이(Music Day) **421**
미랭(微冷) **37**
민속예술경연대회 64, 66, 94, 97, 104, 117, 119, 121
128, 132, 228, 252, 258, 259, 351, 381
민어잡이(民魚-) **413**, 414
밀떡 49, 51, 52, 56, **59**, 108, 131
밀물보기 **216**
밀부꾸미 32, **59**, 60
밀부침개 51, 59
밀양백중놀이(密陽百中-) 71, **109**, 114, 115, 116
밀양아랑제 114
밀전병(-煎餠) 32, 45, 51, 56, 59, **60**, 61, 67

ㅂ

바늘에 실꿰기 **54**, 55
바쁠 때면 부지깽이도 한 몫 한다 401
바우덕이 380, 381, 423
박괘(剝卦) 327, 328
박나물 88, **221**
박누름적 220
박따기 240, **413**
박문호(朴文鎬) 211
박세채(朴世采) 288
박속 **363**
박속낙지 174
박속밀국낙지탕 174
박월(剝月) 322, 326, **327**
박쥐 17, 18
박첨지 246, 247, 250, 366, 368, 369, 372, 373
박첨지 유람거리 369, 372
박첨지거리 369
박첨지놀음(朴僉知-) 366, 369, 370, **378**, 424
반고(班固) 40, 191, 327
반달가슴곰 17
반보기 187, 188, 200, 201, **280**
218, 282, 288, 421, 422, 425
발바닥에 불이 난다 407
발자랑 267
밤가루 설기 348
밤단자 226
밤떡[栗糕] **348**, 349
밤송이 맺을 때 모 심어도 반밥 더 먹는다 **166**
밧칠성 323, 361
밧칠성제 361
방개타령 165
방생 82
방성(房星) 153
방아소리 139, 183
방어잡이(魴魚-) **311**
밭갈이 34, 267, 268, 393
밭고랑기기 **216**, 217
밭벼수확[山稻收穫] **172**
밭종다리 18
배꾸마당 한판놀이 136, 137
배분(拜墳) 131, 208
배소례(拜掃禮) 208
배수정과 221
배숙[梨熟] **221**
배월랑(拜月娘) 204

백가지[白茄子] **60**
백가지나물먹기[百種菜] **88**
백거이(白居易) 36
백곡지종(百穀之種) 70, 74
백과(百果) 31
백등(白燈) 81
백령도 141
백로 미발은 먹지 못한다 275
백로 아침에 팬 벼는 먹고 저녁에 팬 벼는 못 먹는다 275
백로 안에 벼 안 팬 집에는 가지도 말아라 275
백로 전 미발이면 알곡 수확물이 없다 275
백로(白露) 18, 22, 23, 33, 145 146, 165, 186, 193, 240 **274**, 275, 277, 309, 356
백로가 지나서는 논에 가 볼 필요가 없다 275
백로보기(白露-) **274**
백룡(白龍) 351, 352
백씨장경집(白氏長慶集) 36
백족유(百足遊) 239
백종(白踵) **73**
백종(百種) 21, 30, 31, 68, 70, 71, **73**, 74, 81, 85, 86, 88, 89
백주(白酒) 223
백중 무수기에는 메밀농사 끝에 늘어진 불 보려고 구멍에 든 소라 다 나온다 **140**
백중 물찌엔 모밀농ᄉᆞ끝듸 늘어진 불 보젱 고망에 든 구젱기 다 나온다 140
백중(百中) 21, 24, 30, 31, 46, 47, 48 **68**, 70, 71, 72, 73, 74, 75 76, 78, 80, 84, 86, 87, 88 89, 90, 94, 97, 109, 114, 115 117, 118, 119, 120, 122, 127 128, 130, 131, 132, 133, 136 139, 140, 145, 161, 164, 231 239, 255, 262, 282
백중고사 90
백중굿 78, 101
백중날은 논두렁 보러 안 간다 **139**
백중놀(百中-) **89**
백중놀이(百中-) 21, 22, 31, 66, 68, 70, 87, 89 91, 97, 98, 100, 109, 114, **115** 116, 117, 118, 119, 227, 128
백중복숭아(百中-) **89**
백중불공(百中佛供) **78**
백중빔(百中-) 70, **90**
백중사리 140, 141
백중에 물없는 나락 가을할 것 없다 **140**
백중에 바다 미역하면 물귀신 된다 **140**, 141
백중장(百中場) 71, 72, 117, 119. 121, 122
백중제(百中祭) **78**, 79, 80
백호통의(白虎通義) 191
백희(百戱) 237, 239, 388, 390
뱀 17, 53, 122, 160, 231, 324, 338, 362
뱀신 361
뱀허물거두기 **362**
버나 368, 370, 371, 381
버섯누름적 220
벅구놀이 382
벌초(伐草) 145, 146, 169, 186, 200, 212, 274, **282**, 345
범국(泛菊) 334
범부춤 31, 114
범패(梵唄) 296, 370
법성 295
법정공휴일 316
베어라소리 300, 301
벼둥짐소리 298
벼바숨소리 302
벼베는소리 **300**, 301
벼타작소리 **302**, 303
벼터는소리 302
벼털기 286, 302
벽골제(碧骨堤) 350, 351, 352
벽골제쌍룡놀이(碧骨堤雙龍-) **350**, 351
벽병증(辟兵繒) 55
변정제례통속보(辨定祭禮通俗譜) 330
별상 · 대감거리 214
별제사 49
별추탕(別鰍湯) 364
별포제 150
볍씨뿌리기 96
볏단나르는소리 300
병굿 212
병신굿놀이 114
병신놀이 114
병신춤 31, 114, 116, 137
보름달 188, 189, 201, 202, 205 206, 215, 216, 228, 230, 231, 264, 353
보리 안개는 죽안개고 나락 안개는 밥안개다 406
보막이 96
보삭(步索) 308
보석도 귀해야 제값을 받는다 405
보은 대추나무 270
보은 아가씨 추석비에 운다 **270**
복괘(復卦) 190, 328
복달임 89
복숭아 46, 89
본초강목(本草綱目) 356, 364
본향(산신)거리 214
본향당(本鄕堂) 76, 78, 295, 361
볼락젓 417
볼락젓담그기 **417**
봄 멸치 가을 전어 407
봄 사돈은 꿈에 봐도 무섭다 405
봄 사돈은 꿈에도 보기 무섭다 168
봄 추위와 노인의 건강 401
봄갈치 396
봄꽃놀이[春遊] 277
봄떡은 들어앉은 샌님도 먹는다 405
봄비는 일비고 여름비는 잠비 404
봄비는 일비고 여름비는 잠비고 가을비는 떡비고 겨울비는 술비다 404
봉덕이노래 297
봉사놀이 **264**

부루독 285, 290
부스럼 57, 189, 204, 216, 217
부용 · 사득이노래 65, 66
부용제(芙蓉祭) 65
부인필지(婦人必知) 158, 159, 222, 292
부정 · 가망청배 214
부정거리 396
북두칠성 바라보기 55
북두칠성(北斗七星) 30, 48, 50, 51, 52, 55, 56, 58, 59, 192
북두칠성에 빌기 55
북사(北史) 348, 366
불사거리 214
불천위제사 336
불탄절(佛誕節) 81
비녀돌리기 258
비석치기(碑石-) 378, 379
비월(否月) 37, 38
비자나무 267
삐삐떡 221
뺄기송편 221

ㅅ

사고혼(祀孤魂) 75
사기(史記) 192, 214, 231, 271, 327, 329
사냥거리 396
사냥놀이 369
사당패 105, 117, 366, 370, 371
372, 373, 380, 381, 423
사돈네 가을마당에 씨암탉 넘보듯 한다 408
사령운(謝靈運) 330
사례집의(四禮集儀) 221
사례편람(四禮便覽) 209, 341
사마천(司馬遷) 192, 214, 231, 271, 327, 329
사명일(四名日) 208
사모구(射毛毬) 376
사민월령(四民月令) 175
사선성집(謝宣城集) 39
사시제(四時祭) 208, 211, 335, 360
사신(蛇神) 295
사신(辭神) 209, 211, 345
사연삭(躧輦索) 388
사조(謝朓) 39
사직단(社稷壇) 283
사직대제(社稷大祭) 188, 283
사직천신(社稷薦新) 212
사천마도갈방아소리(泗川馬島-) 397
사혜련(謝惠連) 36
사회복지의 날(社會福祉-) 420
삭망제 211
삭상재(索上才) 388
삭전(朔奠) 212
산강 225
산국(山菊) 24, 25
산대잡극(山臺雜劇) 388
산대희(山臺戱) 388
산떨이 296, 297
산림경제(山林經濟) 39
산받이 366, 370, 372, 373
산상제(山上祭) 93
산소차례 208
산신당(山神堂) 337
산신의 탄신일(山神-誕辰日) 337
산신제 209, 211, 337, 338, 345
산아지타령 165
산악(散樂) 388, 390
산야소리 300, 301
산유화가(山有花歌) 425
산제 183
산지띠기 239, 240, 241, 242
산천거리 214
산천제 150
산타령 297, 371
살판 368, 370, 371, 372, 381, 424
삼(三)시왕 80, 353
삼국사기(三國史記) 22, 31, 153, 155, 163, 187, 198
199, 205, 209, 215, 218, 237, 351, 374
삼국유사(三國遺事) 214, 387
삼국지(三國志) 101, 153, 234, 348, 368
삼굿 32, 163
삼 년 농사를 지으면 구 년 먹을 것이 남는다 401
삼동(三洞) 97
삼동(三童) 97, 99
삼동굿놀이 97, 100, 101, 115, 116, 262
삼동서기 101
삼두레 164
삼들게 175
삼묘일보기(三卯日-) 298
삼복에 비가 오면 처녀가 운다 270
삼삼기[績麻] 163, 164, 174, 175
삼삼는소리 163, 164
삼성혈(三姓穴) 150
삼원사상(三元思想) 87
삼짇날 23, 241, 322, 323, 324,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5, 346, 356
삼째기 174
삼치잡이 414, 415
삼훑기 163
상강(霜降) 14, 16, 18, 23, 24, 166, 308, 322
323, 328, 346, 356, **357**, 396, 413
상강(霜降) 90일 앞두고
모 심어도 잡곡보다는 낫다 166
상국(賞菊) 334, 347
상국일(賞菊日) 322, 338
상냉(霜冷) 331, 382
상놈명절 72
상량식 285
상련수(相連綬) 55
상머슴놀이 254
상묘(上墓) 208

상봉놀이 61, 65, 66
상분(上墳) 208
상사(上巳) 339
상사일 339
상산거리 214
상세경 76, 78, 80
상신(霜辰) 322, 325, **328**, 330
상여거리 372
상원(上元) 21, 71, 74, 199
상월(相月) 37, **38**
상일꾼 115, 119, 121, 254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 155
상정제(上丁祭) 288
상좌다툼놀이 119
상총(上塚) 208
상추(上秋) 37, **38**, 39, 41
새도 가지를 가려 앉는다 168
새미 382
새밥 287
새쫓는소리 **303**, 304
새참먹기 94, 96
색실 49, 55
샌님잡이 372
생강수확(生薑收穫) **413**
생업(生業) **18**, 20, 32, 79, 123, 199, 263, 323, 368
생일제(生日祭) 360
서견(徐堅) 327
서경(書經) 41, 193, 195, 277
서경잡기(西京雜記) 336
서계(誓戒) 283
서리 15, 20, 24, 27, 37, 154, 186
204, 209, 274, 305, 308, 322, 324, 325
326, 328, 329, 330, 331, 346, 356, 363, 403
서산박첨지놀이(瑞山朴僉知-) **246**, 250, 251
서수(西收) 18
서천저산팔읍길쌈놀이(舒川苧山八邑-) **251**
석사놀이(石射-) **253**, 254
석전(石箭) 253, 254, 260, 261
석전(釋奠) 288
석전대제(釋奠大祭) 271, 288
석채(釋菜) 288
석천농기고두마리놀이(石川農旗叩頭-) **119**, 120, 121
석탄병(惜呑餠) 32, **158**, 159
석화누르미 220
선모초(仙母草) 346
선목제(先牧祭) 280
선바위 치성 64
선조실록(宣祖實錄) 371
섣달에 들어온 머슴이 주인집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167
설문해자(說問解字) 154
설빔 217, 218
섬마타령 165
성도절 81
성묘(省墓) 23, 186, 187, 200, 208, 209
211, 212, 219, 334, 338, 345
성삼문(成三問) 223
성수거리 396
성조(成造) 286
성종실록(成宗實錄) 215, 375
성주 · 군웅거리 214
성주거리 214
성주굿 396
성주단지갈기 **285**
성현(成俔) 30, 73, 81, 85, 368, 388
성호사설(星湖僿說) 222
성혼(成渾) 288
세거우(洗車雨) 57
세경본풀이 76, 78, 79, 80
세경신 80
세도두레풍장(世道-) **121**
세발낙지 172, 174
세벌김매기 48, 68, 90, 91, 98, 169
세병관(洗兵館) 317, 319
세서연(洗鋤宴) 75, 85, 87, 109
세서회(洗鋤會) 31, 85, 87
세설신어(世說新語) 175
세성(歲星) 153
세시광기(歲時廣記) 35, 36, 38, 39, 41, 190
세시놀이 91, 101, 139, 200, 254
세시유희요 67
세시잡기(歲時雜記) 57
세시풍속(歲時風俗) **21**, 97, 176, 189, 199
207, 231, 304, 323, 347, 425
세조실록(世祖實錄) 214, 370
세종실록(世宗實錄) 154, 277, 413, 416
셋방살이가 주인집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167
소경놀이 264
소고놀이 139
소놀음굿 393, 396
소놀이 188, 203, 223, **254**, 382, 383, 384, 385, 386
소당풍속시(嘯堂風俗詩) 35
소대감거리 214
소동파(蘇東坡) 194
소동패(少童牌) 138, 139
소먹이기 90
소먹이놀이 **254**
소멕이놀이 254
소묘(掃墓) 208
소분(掃墳) 282
소싸움 123, 127, 188, 201, 204, **255**, 256, 257, 234
소옹(邵雍) 288
소청도 141
소추(小秋) **38**
소통(蕭統) 329
속명루(續命縷) 55
속제해기(續齊諧記) 349
손괘(巽卦) 190, 192
손더듬이 84
손치기발치기 266, 267, 268
솔개병아리채기 244
솔불놀이 45, 61, 64
송계놀이 61

송기송편 201, 222
송남잡지(松南雜識) 68, 73, 215, 401
송도지(松都誌) 68, 74
송병(松餠) 222
송서(宋書) 34, 336
송석하(宋錫夏) 327
송시열(宋時烈) 208, 288
송시초(宋詩鈔) 39
송아지떼기 239
송엽병(松葉餠) 222
송이누름적 220, 291
송이산적 291
송이적(松栮炙) **187**, 291
송이찜 291, 292
송준길(宋浚吉) 288
송편[松餠] 23, 187, 200, 201, 211, **222**, 226, 270, 271, 292, 293, 294, 301
송한의(送寒衣) 329
쇄루우(灑淚雨) 57
쇄서포의[曬書曝衣] 30, 33, 67, **175**, 177
쇄쇄록(瑣碎錄) 215
쇠미꼬지 **90**
수건돌리기 228, **257**, 258, 266
수건찾기 257
수박따기 240, **258**
수서(隋書) 198, 348
수성(壽星) 154, 276, 277
수성단(壽星壇) 276
수수 54, 60, 169, 200, 218, 286, 308, 334, 380, 403, 413
수수깡안경놀이 **380**
수수부꾸미 59, 60
수수지지미 60
수신기(搜神記) 55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 **123**, 127
수의(授衣) 322, 323, 325, **328**, 330
수추(首秋) **38**, 39, 41
숙주나물 50, **223**
순오지(旬五志) 401
술메기 73, 75
술멱이 132
술배소리 160
술비소리 160
술월(戌月) 322, 325, **329**
숭선전제례(崇善殿祭禮) **360**
쉐멩질 78, 79
습재집(習齋集) 168
승굿 233
승기(繩伎) 388
승도(繩渡) 388
승희(繩戱) 388
시경(詩經) 33, 34, 35, 36, 40, 53, 153, 193, 328, 331, 363
시고(柿糕) 158
시곡제(始穀祭) 343
시만곡대제[十萬穀大祭] 78
시식(時食) 60, 204, 211, 291, 324, 335, 337, 341, 356, 363
시의전서(是議全書) 158, 222, 226, 291, 294
시제(時祭) 322, 330, 335, 336, 345
시주(詩酒) 334
시회(詩會) 23, 349
식물(植物) **24**
신곡제(新穀祭) 343
신곡천신(新穀薦新) 286, 288
신과세제(新過歲祭) 78
신도주(新稻酒) 218, **223**, 224, 225, 226
신량(新凉) 36, **39**
신숙주(申叔舟) 223
신월(申月) 37, **39**
신장거리 21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37, 413
신청울림 396
신추(新秋) 34, 37, **39**
실록포쇄형지안(實錄曝曬形止案) 176
실버데이(Silver Day) **181**
심방 백중제 **80**
심방의 명절날 353
심방의 본명일 **353**
십이율(十二律) 40, 190, 191, 327
십이지(十二支) 39, 186, 192, 329
쌀독점 290
쌀점[米占] **290**, 291
쏠황점 290
쌍줄타기 389, 390
써래질 94, 124, 131
쑥부쟁이 24, 25
씨름 22, 30, 33, 70, 108, 114, 117, **127**, 138, 203

O

아시매기 122, 183
아욱국 **363**, 405
악곡괴뢰(樂曲傀儡) 368
악학궤범(樂學軌範) 205
악해독제(嶽海瀆祭) 188, **285**
안성개다리패 380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安城男寺黨-祝祭) **423**
안성남사당풍물놀이(安城男寺黨風物-) **380**, 381, 382
안성농악(安城農樂) 380
안성바우덕이패 380
안택 50, 285, 291
알기는 칠월 귀뚜라미다 167
알기는 칠월 귀뚜라미일세 167
애밤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심어도 먹는다 166
애밤송이를 겨드랑이에 끼워 따갑지 않으면 모 심어도 먹는다 166
야생강 225
약물 45, 57, 58, 67
약물맞이 **57**
약수(藥水) 31, 57
양만리(楊萬里) 326

양반춤 31, 114, 116, 130
양밥 55
양산도 31, 94, 104, 369
양아 225
양애 225
양애간 225
양애간무침 **225**
양애갓 225
양애끈 225
양애떼 225
양양패다리놓기(襄陽-) **258**, 259
양에 225
양왜 225
양외 225
양외갓 225
양외채 225
양월(凉月) 36, 37, 38, **39**, 41
양주방(釀酒方) 225
양주소놀이굿(楊州-) 188, **382**
양하(蘘荷) 225
양하가지나물 225
양하간 225
양하근 225
양하김치 225
양하끈 225
양하녹두나물 225
양하누름적 225
양하산적 225
양하장아찌 225
양하적(蘘荷炙) 225
양하탕 225
양하회 225
양해 225
양해깐 225
어로노동요 397, 399
어름 368, 370, 371, 372, 381, 389, 390, 424
어름산이 372, 390
어름줄타기 389, 390
어릿광대 388, 390
어사랭이 296
어사영 296
어사용 296, 297, 300, 301
어사화 90, 139
어야홍소리 303
어업노동요 163, 396, 397
어정 칠월 건들 팔월 144, 305
어정 칠월 동동 팔월 75, 169, **304**
어정패문재광군방보(御定佩文齋廣群芳譜) 36, 40, 41, 325
어찬시의절중(御纂詩義折中) 331
어화소리 303
억새 26, 140
언감자송편 222
업 234, 362
여름비는 소 등을 다투고
가을바람은 노새 귀를 뚫는다 403
여불위(呂不韋) 39, 326, 331
여씨춘추(呂氏春秋) 37, 39, 193, 204, 206, 325, 326, 331
여아절(女兒節) 65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347
여제(厲祭) **80**
여흥놀이 227, 234, 235, 236, 234, 244, 246
역대시조제(歷代始祖祭) 188, **285**
연계증(軟鷄蒸) 220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68, 74
연산백중놀이(連山百中-) 115, 116, **127**, 128, 130
연시제(年始祭) 211, 343
연안인절미 292, 293
연양당주[靈蔘堂住] 80
열반절 81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31, 68, 74, 85
220, 269, 335, 338, 350
열하지(熱河志) 330
엽월(葉月) **191**
영계육진(靈鷄浴塵) 97
영고(迎鼓) 101
영기(令旗) 90, 103, 122, 128, 135, 136, 138, 295
영남농악 103, 104
영녕전(永寧殿) 150, 151
영녕전제(永寧殿祭) **150**
영동농악 103, 105
영등제 78
영산쇠머리대기 384
영성(靈星) 153, 154, 276, 277
영성제(靈星祭) **153**, 154
영월(詠月) 322, 325, **329**
영전거리 214
영제(禜祭) 30, **154**, 155
영조실록(英祖實錄) 280
영좌농악(領座農樂) 380
영한(迎寒) **191**
예기(禮記) 37, 193, 198, 212, 325
예기강목(禮記綱目) 330
예기집설(禮記集說) 330
예종실록(睿宗實錄) 370
예천통명농요 166
오겸목(吳謙牧) 194
오곡백과(五穀百果) 21, 23, 26, 71, 195, 271, 322
오뉴월 더위에는 암소뿔이 물러 빠진다 167
오달지기는 사돈네 가을 닭이다 408
오려송편 201, 222, 223
오룡쟁주놀이(五龍爭珠-) **386**, 387
오리심리 286
오미자 26
오방진굿 128, 130
오색사 55
오색실 55
오소리 17
오월 농부 팔월 신선 305
오월(梧月) 36, **40**, 293, 305
오음(五音) 193, 325, 327
오작교(烏鵲橋) 44, 53, 54, 65, 66, 67, 68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159, 199

오추(梧秋) 34, 36, **40**
오헤소리 303
옥관자(玉貫子) 380, 423
옥수수 33, 156, 157, 169, 239, 288 308, 309, 387, 400, 413
옥수수알보기 **156**
온돌(溫突) 313
온보기 201
올개심니 80, 285, **286**, 287, 343
올개심리 21, 24
올게심니 286
올게심리 286
올계심리 200, 286
올기심니 286
올베심리 200, 286
올벼수확[早稻收穫] **310**
올벼천신 30, **80**
올비신미 200, 286
올이심리 286
옴탈잡이 372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270**
옹헤야소리 303
완당전집(阮堂全集) 347
완월(玩月) **206**
왔나소리 302
왕건 386
왕발(王勃) 41
왕승유(王僧孺) 38
왕유(王維) 35, 336, 350
왕자안집(王子安集) 41
왕홍(王弘) 336
외따기 228, 268
외땀놀이 243, 244
요록(要錄) 226
용기(龍旗) 64, 91, 103, 116, 122, 128, 132, 133, 136
용기놀이 128, 130, 135, 136
용기부딪치기 136
용기이어달리기 135
용신제(龍神祭) 49, 50, 52, 68, **80**, 132
용왕제 45, 52
용재총화(慵齋叢話) 30, 68, 73, 74, 81, 85, 86
용줄매기 183
우광광광수월래 265
우란반공(盂蘭飯供) 88
우란분경(盂蘭盆經) 31, 80, 82
우란분재(盂蘭盆齋) 30, 68, 70, **80**, 81, 82, 87, 88, 109
우란분절(盂蘭盆節) 75, 81, 82
우란분회(盂蘭盆會) 22, 33, 68, 71, **82**
우물굿 65, 233, 262
우사(雩祀) 153, 154
우순풍조(雨順風調) 90
우하영(禹夏永) 85
울새 18
움[窖] 412
웃다리 가락 372, 381, 424
웃다리농악 65, 66
웃대벌초 282
웅상농청장원놀이(熊上農廳壯元-) **130**, 131
원기(猿騎) 174, 374
원무놀이 227
원정(元正) 199
월병연(月餠宴) 239
월석(月夕) 198, 204, **206**, 207
월월이청청 239, 241
위서(魏書) 38, 101, 153, 234, 348, 366, 368, 374
유견오(庾肩吾) 326
유달산 373, 374
유두(流頭) 52, 53, 74, 90, 106, 118, 205, 217, 262, 265
유모일보기(有毛日-) 298
유수주집(劉隨州集) 331
유신(庾信) 39, 41
유안(劉安) 192, 329
유왕산놀이(留王山-) **294**, 295
유왕산추모제(留王山追慕祭) **425**
유월 가뭄에는 먹을 게 있어도 7월 가뭄은 쭉정이도 못 찾는다 140
유월(酉月) 186, **192**, 193
유의경(劉義慶) 175
유자산집(庾子山集) 39, 41
유자화채(柚子花菜) **349**
유장경(劉長卿) 331
유중림(柳衆臨) 85
유척기(兪拓基) 347
유화(流火) 37, **40**
유화월(流火月) 34, 35
육가시명물소(六家詩名物疏) 330
육구몽(陸龜蒙) 190
육례(六禮) 211
육례홀기(六禮笏記) 211
육자배기토리 266, 267
육칠월 더위에 암소뿔이 빠진다 167
육칠월에는 외서리 칠팔월에는 콩서리 **305**
윤무(輪舞) 228, 230, 231
율고(栗糕) 348
율단자(栗團子) 187, 201, **226**
은중문(殷仲文) 194
은파유필(恩波濡筆) 243, 244
은하수 44, 53, 57, 59, 66, 67, 68, 388
음건(陰乾) 140
음력 칠월 기우는 해에 검정 소뿔이 빠진다 167
음식지미방 219, 292
의례준칙(儀禮準則) 208, 211
의성가마싸움(義城-) 188, **259**, 260, 261
의식요 303
의자왕(義慈王) 294, 425
이규경(李圭景) 159, 199
이규보(李奎報) 48, 209, 363, 368, 388
이리농악(裡里農樂) 101, 102, 103, 104, **132**
이문건(李文楗) 335, 339, 350
이삿제 150
이숙(梨熟) 221
이승(履繩) 388

이시미거리 372
이식(李植) 360
이실먹기 **157**, 158
이아(爾雅) 38, 192, 331
이안눌(李安訥) 71, 269
이앙법(移秧法) 86, 87, 103, 114, 256
이언적(李彦迪) 288, 335
이운지(怡雲志) 68
이이(李珥) 208, 211
이재(李縡) 360
이제(禰祭) **360**
이조궁정요리통고(李朝宮廷料理通攷) 220, 349
이지의(李之儀) 326
이칙(夷則) **40**, 41, 191, 327
이황(李滉) 288
인다리 261
인병(引餠) 187, 292
인절미[引餠] 187, 211, **292**, 293
인형극 246, 250, 251, 366, 368, 373, 388
일년 농사 지으면 삼 년 먹을 것이 남는다 401
일일재선생문집(一一齋先生文集) 37
임실필봉농악(任實筆峯農樂) 103, **132**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416
입동(立冬) 144, 153, 322, 357, 401
입마(立馬) 374, 377
입마기(立馬技) 374
입추 때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 **144**
입추(立秋) 14, 16, 18, 21, 22, 30, 36, **144**, 145
146, 147, 153, 155, 161, 169, 330, 356, 401

ㅈ

자고(**鷓鴣**) 292
자리개질소리 302
자매(姉妹)쌈 259
자산어보(玆山魚譜) 172, 414, 415
자진강강술래 266, 267, 268
자진모리장단 266, 267
자청비 76, 78, 79
작두말타기 31, 73, 114, 116
잔추(殘秋) 322, 325, **329**, 330
잠수굿 78
잠자리 16
잠확거유서(潛確居類書) 387
잡곡부치기 60
잡누름적(잡누르미) 220
잡희(雜**戲**) 231, 388
장군거리(작두거리) 214
장님놀이 264
장례요 304
장마에 논둑 터지듯 한다 147
장명루(長命縷) 55
장목 96
장벼 145, 147
장수거리 396
장신(藏身) 377
장원놀이(壯元-) **132**
장원례(壯元禮) 48, 70, 73, **84**, 87, 98, 109
115, 117, 118, 128, 161, 164, 165
장원질소리 161, 162, **164**, 165, 165, 166
장월(壯月) 186, **192**, 193
장재(張載) 288
장정견(張正見) 39
장제(場祭) 82, 304
장치기놀이 61, 65
잦은강강술래 228
재계(齋戒) 151, 288, 360
재밟기 261
재수굿 188, 211
재인줄타기 389
저장(貯藏) 412
적란(炙卵)누르미 220
적마(績麻) 237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66, 94, 97, 104, 117, 119, 121
128, 132, 228, 252, 258, 259, 351, 381
전당시(全唐詩) 35, 190, 194, 206, 328, 329
전묘(展墓) 208
전소례(展掃禮) 208
전안거리 214
전어밤 417
전어밤젓담그기 **417**
전어잡이(錢魚-) 397, 399, **415**, 416
전어지(佃漁志) 311, 415
전어창젓 417
전주기접놀이(全州旗接-) **132**, 133, 134
전폐(奠幣) 283
절기주(節氣酒) 218, 223, 347
접시돌리기 381
정묘시집(丁卯詩集) 192
정선아라리 297
정수남 76, 78, 79
정약용(丁若鏞) 37, 251, 347
정약전(丁若銓) 414
정여창(鄭汝昌) 288
정이(程**頤**) 288
정전(正殿) 150, 151
정제(丁祭) 288
정철(鄭澈) 404
정추(正秋) **192**
정호(程顥) 288
제경경물략(帝京景物略) 33
제경세시기승(帝京歲時記勝) 35, 74
제민요술(齊民**要**術) 363
제비돌아가는날 **338**
제비가 오면 기러기가 가고,
기러기가 오면 제비는 간다 357
제석 · 호구거리 214
제석거리 383, 396

제석단지 52
제승당(制勝堂) 317
제승당유허비(制勝堂遺墟碑) 317
제요록(提要錄) 35, 36, 190, 206, 325
제해기(薺諧記) 44
제헌절(制憲節) **180**
제헌헌법 180
조개송편 222
조고차(潮高差) 140, 141
조광조(趙光祖) 288
조국광복회(祖國光復會) 316
조국해방기념일 316
조기잡이소리 313
조록싸리 피거든 남의 집에 가지 마라 168
조리지희(照里之戲) 204
조리희(照里戲) 189, 204, **261**, 284
조묘(祧廟) 151
조사놀리기 94
조상거리 214, 343, 396
조상천신(祖上薦新) 212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60, 159
291, 294
조선민요연구 164, 299
조선민족음악전집 301
조선상식(朝鮮常識) 341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 73
조선세시기(朝鮮歲時記) 7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280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 291, 347
조선의 향토오락(朝鮮의 鄕土娛樂) 236, 243, 244, 264, 268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371
조수삼(趙秀三) 74, 88, 337, 350
조수확[粟收穫] **310**
조식(曹植) 37, 41
조왕굿 234
조운종(趙雲從) 88
조월(棗月) 37, **193**
조자건집(曹子建集) 37, 41
조재삼(趙在三) 215
조추(早秋) 34, **41**
조추(肇秋) 38, 39, **41**
조춘일(朝春日) 198
조헌(趙憲) 288
족제비놀이 239
종기놀리기 94
종묘대제(宗廟大祭) 30, 151, **155**
종묘천신(宗廟薦新) 212
종와(縱臥) 377
종지기돌리기 266
종헌(終獻) 153, 209, 285, 345, 360
좌우칠보(左右七步) 377
주돈이(周敦頤) 288
주례(周禮) 154, 191, 280
주먹돋움 131
주방문(酒方文) 177, 220, 225
주부(周孚) 326
주삭(朱索) 55, 388
주송(朱松) 39
주숙진(朱淑眞) 329
주승(走繩) 388
주역(周易) 37, 190, 192, 195, 327
주자(朱子) 40, 360
주자가례(朱子家禮) 208, 209
주질(注叱) 388, 389
주희(朱熹) 288
죽가래질소리 303
죽마놀이[竹馬戲] **387**
죽마타기노래 **399**
죽족(竹足) 387
줄고사 390
줄광대 388, 390
줄타기 117, 324, 368, 370, 371
372, 381, **388**, 389, 390, 424
줄ᄃᆞ래기 239
중강강술래 228, 266, 267, 268
중구(重九) 23, 24, 199, 209, 211, 288, 322, 324, 329
334, 335, 338, **339**, 341, 343, 344, 347, 350
중구연(重九宴) 335, 339
중구일(重九日) 339, 341, 344, 350, 357
중구절(重九節) 189, 335
중구절사(重九節祀) 344
중구제사(重九祭祀) 344
중구차례(重九茶禮) 211, 322, 336, **341**, 343
중구차사(重九茶祀) 341
중기 341
중기일 341
중기차례 341
중로보기(中路-) 23, 201, 268, 280, **288**
중로상봉(中路相逢) 188, 201, 280
중모리장단 266, 298
중사(中祀) 288
중삼(重三) 209, 334
중상(仲商) **193**
중세경 76, 78
중양(重陽) **329**, 334, 345
중양(重陽)놀이 349
중양연(重陽宴) 335
중양절(重陽節) 23, 67, 146, 208, 322, 323, 326, **334**
335, 336, 337, 338, 340, 341,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3, 356, 361
중양절사(重陽節祀) **344**
중양제사(重陽祭祀) 344
중양풍채유(重陽楓菜遊) 349
중양화(重陽花) 338
중요무형문화재 31, 101, 105, 114, 115, 116, 164
166, 366, 370, 382, 389, 393, 423
중원(中元) 21, 30, 68, 70, 71, 73, **74**, 81
중원일(中元日) 68, 74, 87
중중모리장단 266
중추(仲秋) 38, 41, 186, 191, 192, **193**, 198
204, 205, 206, 269, 274, 280, 283, 335
중추가절(仲秋佳節) 198, 199

중추다례 209
중추월병(中秋月餠) 204
중추절(仲秋節) 186, 198, 199, 205, **206**, 236, 237
중추차례 209
쥔쥐새끼놀이 239, 241, **261**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85, 177, 291, 308, 363
지게걸음놀이 391
지게놀이 **391**, 393
지게목발소리 296
지게상여놀이 391
지게생이놀이 391
지게싸움놀이 391, 392
지게춤물박장단놀이 391
지게행상(行喪)놀이 391, 393
지네밟기 97, 98, 100, 101, 261, 262, 268
지모신(地母神) 206
지봉유설(芝峰類說) 368
지수재집(知守齋集) 347
지식은 칠월 실솔(蟋蟀)일세 167
지애밟기 **261**, 262
지와밟기 228, 246, **261**, 262, 266, 267, 268
직녀(織女) 21, 44, 45, 49, 53, 54
55, 57, 58, 59, 64, 65, 66, 67, 68
직녀성(織女星) 30, 35, 44, 45, 49, 53, 56, 59, 65, 66, 67
직녀성(Vega) 58
진강강술래 266, 267, 268
진다(進茶) 211
진도아리랑 267, 268
진상 144, 291
진서 70, 84
진서술 70, 84
진서틱 70, 84
진세 84
진세내기 117, 119
진세놀이 61, 64
진세틱 **84**
진쇠 105, 106, 107
진쇠돌들기 70
진쇠틱 84
진순(陳淳) 326
진양조장단 266
진연(進宴) 340
진오기굿 212
진주삼천포농악(晋州三千浦農樂) 101, 103, 104, **136**
진주성대첩 317
질가락 161
질꼬내기 162, 164, 165
질먹기 32, 70, 71, **84**
질먹기놀이 118, **136**
질짜기 31, 32
집장담그기[汁醬-] **177**
집천가주두공부시집(集千家註杜工部詩集) 190, 191
194, 195, 331
징비록(懲毖錄) 376
짚신빳기 243, 244

ㅊ

차귀본향놀이(遮歸本鄕-) **295**
차연관 장굿(車輦館-) **84**
찬요(纂要) 38, 39, 41, 193, 325, 328
찰부꾸미 60
찰호박떡 293
참깨수확 **310**
참취 25
채상놀이 103, 105
처서 넘으면 풀 더 안 큰다 146
처서(處暑) 18, 21, 22, 30, 32, 33, 37, 144
145, 146, 147, 161, 164, 169, 186, 270
274, 282, 297, 356
처서가 지나면 풀도 울며 돌아간다 **146**
처서비[處暑雨] 145, **146**
처서에 비 오면 사방십리 천 석을 감한다 270
처서에 비가 오면 십리 안 곡식 천석을 감한다 146, 409
처서에 비가 오면 항아리의 쌀이 준다 270
처서에 장벼 패듯 **147**
처용(處容) 214
천고마비(天高馬肥) 194, 402
천도재 82
천신(薦新) 24, 49, 50, 52, 59, 61, 68, 71, 118
121, 186, 187, 188, 200, 211, 212
223, 286, 287, 335, 341, 343, 344, 425
천일록(千一綠) 85, 86
천전성(天田星) 153
천주과지례(薦酒果之禮) 335
철갈이 323, **361**
철도의 날(鐵道-) **420**, 421
철맞이굿 212
철물이굿 **361**
철혈광복단(鐵血光復團) 316
첫 가을에는 손톱 발톱 다 먹는다 406
청룡(靑龍) 351, 352, 386
청룡사(靑龍寺) 368, 373, 380
청명(淸明) 79, 277, 356
청어[靑魚]따기 239, 241
청어엮기노래 **269**
청어엮기(靑魚-) 202, 244, **262**, 263, 265, 266, 267, 268
청어풀기(靑魚-) 245, 262, 263, **264**, 265, 266, 267, 268
청추(淸秋) **194**
초가망거리 396
초간일기(草澗日記) 211
초감제(初監祭) 78, 80
초감흥거리 214
초공본풀이 80, 353
초군놀이(樵軍-) **136**, 137, 296, 298
초마(超馬) 377
초벌논 매고 가물면 수확을 할 수 있어도
만논 매고 가물면 수확도 못한다 140
초연(草宴) 71, 75, **85**, 87, 109
초추(初秋) 34, 37, 38, 39, **41**, 198, 331

초추(杪秋) 325, **329**, 330
초학기(初學記) 193, 357
촉새 18
최남선(崔南善) 73, 341
최식(崔寔) 175
최치원(崔致遠) 404
추계(秋季) **330**
추계석전(秋季釋奠) 188, **288**
추고(秋高) 190, **194**
추고마비(秋高馬肥) 194
추공(秋空) 195
추두부탕(鰍豆腐湯) 364
추말(秋末) **330**, 331
추분(秋分) 14, 18, 22, 23, 153, 186, 274, **275** 276, 277, 298, 308, 322, 330, 356, 401, 408
추분이 지나면 우렛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 **277**
추상(秋霜) **331**, 403
추석(秋夕) 15, 21, 22, 23, 24, 106, 118, 136, 163 186, 187, 188, 189, **198**, 199, 200, 201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1 212,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5, 226, 228, 230, 237 238, 239, 246, 250, 253, 254, 255, 257 259, 260, 261, 264, 265, 268, 269, 270, 275 280, 282, 285, 286, 291, 292, 304, 305, 313 322, 334, 337, 341, 343, 344, 345, 383, 425
추석다례 209
추석비[秋夕雨] **217**, 270
추석빔(秋夕-) **217**, 218
추석성묘(秋夕省墓) **208**
추석월(秋夕月) 198
추석절사(秋夕節祀) **208**, 209, 211
추석제사(秋夕祭祀) 208, 209
추석줄다리기(秋夕-) **264**
추석차례(秋夕茶禮) **209**, 211, 226, 337, 341, 343, 344
추석차사 209
추석천신굿(秋夕薦新-) **212**, 214
추수(秋收) 16, 18, 21, 23, 32, 118, 228, 231, 254 274, 275, 285, 293, 308, 324, 334, 341, 356 357, 361, 363, 374, 412
추심(秋深) 330, **331**
추야장(秋夜長) 408
추양(秋陽) **194**
추어(鰍魚) 356
추어탕(鰍魚湯) 356, **363**, 364, 365
추은(秋殷) **195**
추재집(秋齋集) 74, 88, 337, 350
추정(秋丁) 288
추천(秋天) 186, **195**
추탕(鰍湯) 364
축산신(畜産神) 76, 79
축수한날 **76**
축연(祝宴) 91
춘계석전 288
춘관통고(春官通考) 280
춘궁기(春窮期) 400, 405
춘분(春分) 23, 186, 275, 276, 277
춘추좌전(春秋左傳) 34, 154
춘추집전찬례(春秋集傳纂例) 330
춘추향영녕전의(春秋享永寧殿儀) 151
출가절 81
충렬사(忠烈祠) 319
충렬사제향(忠烈祠祭享) **290**
취리시계(檇李詩繫) 194
치마에 비파 소리가 난다 407
칠궁(七窮) 400, 406
칠궁이 춘궁보다 더 무섭다 400
칠사(七祀) **361**
칠석(七夕) 21, 30, **44**, 46, 47, 48, 50, 52, 53 56, 57, 58, 59, 61, 64, 66, 70, 75 84, 91, 94, 98, 122, 130, 175, 337
칠석가 67
칠석고사(七夕告祀) 30, **49**, 50
칠석굿 50
칠석날 까치 대가리 같다 **68**
칠석놀이(七夕-) 30, 45, **61**, 64, 65, 66, 67, 70
칠석맞이(七夕-) 49, 50
칠석맞이굿 50
칠석물 57
칠석불공(七夕佛供) 49, **53**
칠석비[七夕雨] **57**, 58
칠석아래비 57, 58
칠석요(七夕謠) **66**, 67
칠석우(七夕雨) 57
칠석재(七夕齋) 56
칠석제(七夕祭) 45, 48, 49, 51, **53**, 68
칠석제사(七夕祭祀) 49
칠성(七星) 51, 56
칠성거리 214, 396
칠성고사(七星告祀) 49, 53
칠성공(七星供) 21
칠성날(七星-) **48**, 49
칠성단 48, 49, 51, 52, 56, 65
칠성단지 51
칠성맞이(七星-) 49, 50
칠성맞이고사 49
칠성맞이굿 50
칠성바위 53
칠성불공(七星佛供) 49, 50
칠성시루 51
칠성신(七星神) 48, 49, 55, 56, 65
칠성위하기 49
칠성점(七星占) **58**
칠성제(七星祭) 48, 49, 51, 52, **53**, 56, 64, 65
칠성주머니 52
칠원성군제 51
7월(七月) **30**, 38, 50, 71, 78, 97, 106, 108, 167, 168, 187
칠월 개우랑 해에 황소뿔이 녹는다 **166**
칠월 귀뚜라미가 가을 알듯 한다 **167**
칠월 귀뚜라미만큼 잘 안다 167

7월 그믐에 모내기를 하더라도 바로만 심어주라 166
칠월 높새바람에 볏잎 마르듯 한다 167
칠월 더부살이가 주인 마누라 속곳 걱정한다 167
칠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못 먹어도
팔월 백로에 패지 않은 벼는 먹는다 274
칠월 백중사리에 오리 다리 부러진다 141
칠월 백중에 바람이 세면 흉년 든다 167
칠월 사돈은 꿈에 볼까 무섭다 168
칠월 손님은 범보다 무섭다 168
칠월 장마는 꾸어서 해도 한다 168
칠월 저녁 해에 암소뿔이 빠진다 167
칠월 저녁 해에 황소뿔이 녹는다 167
칠월 칠석날 까치 대머리 같다 68
칠월반(七月半) 75
칠월에 나락 검은 집에는 손노릇 가지 말랬다 168
칠팔월 건들바람이다 169
칠팔월 수숫잎 169
칠팔월 수숫잎 마르듯 한다 169
칠팔월 은어(銀魚) 곯듯 169
칠팔월에는 콩서리 구시월에는 감서리 305
칠팔월 수숫잎 흔들리듯 한다 169
침장(沈醬) 177
칭칭이소리 165

ㅋ

카노푸스(Canopus) 276
칼땅치기 365
캥마쿵쿵노세 165
코스모스 16, 25
콩주머니던지기 266
쾌지나칭칭나네 203, 268

ㅌ

타살거리 396
탈춤 366, 368, 369, 370, 389
태조실록(太祖實錄) 81
터주 49, 52, 286
터주거리 396
터주굿 234
터줏가리 52
테우리코시[-告祀] 85
테우리코ᄉᆞ 78
토란곰국 226
토란국(土卵-) 187, 201, **226**
토란단자(土卵團子) 201, **227**
토란수확(土卵收穫) 413
토란탕 226
토련(土蓮) 226
토신(土神) 212, 280
토장국 363
퇴비장만(堆肥-) 172
통과의례 84, 87
통영한산대첩축제(統營閑山大捷祝祭) 317, 318
통전(通典) 276
통지(通志) 39
투호(投壺)놀이 339

ㅍ

판굿 100, 105, 109, 135, 382
판수놀이 239, 246, **264**, 265
판줄광대 390
팔관(八關) 199
팔선녀(八仙女)놀이 390, 393
8월(八月) 16, 22, 24, 25, 31, 33
186, 189, 190, 236, 275
팔월 그믐에 마지막 쉰다 305
팔월 보름에 비가 오면 흉년이 든다 270
팥수확 310
평양감사재상거리 396
평택농악(平澤農樂) 105, **137**
포서[曝書] 175
포쇄[曝曬] 145, 175, 176, 177
포제 150
포조(鮑照) 326
포채(匏菜) 221
포토데이(Photo Day) 421
표기희(驃騎戱) 374
표생원(表生員)거리 369
푼주의 송편이 주발 뚜껑 송편 맛보다 못하다 270
풀굿날 87
풀베기소리 123, 124
풋고추누름적 220
풋구 46, 71, 87, 115
풋구먹이 87
풋굿 31, 70, 71, **85**, 87, 109, 118
풋바심 187, 200, 287
풍남제 132
풍년제 120, 121
풍물굿 101, 135
풍석질 127
풍속기(風俗記) 53
풍신(楓辰) 330, **331**
풍운뇌우제(風雲雷雨祭) 290
풍장굿 100, 101
풍장놀이 70, 130, 139
풍장소리 161

ㅎ

하세경 78
하안거(夏安居) 31, 70, 81

하외시집(霞外詩集) 192
하회선유줄불놀이(河回船遊-) **160**
학봉일고(鶴峯逸稿) 40
학봉전집(鶴峯全集) 40
학익진(鶴翼陣) 319
한가위 186, 198, 201, **207**, 218, 231, 270
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316
한국구비문학대계 67
한국민요대전 137, 161, 162, 164, 166
298, 301, 303, 304, 396, 397
한국의 농요 162, 166, 301, 304
한단소리 300, 301
한로(寒露) 18, 24, 186, 275, 308, **356**
한로가 지나면
제비는 강남으로 가고 기러기는 북에서 온다 357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간다 **356**
한산도대첩(閑山島大捷) 317
한산제승당(閑山制勝堂) 317
한서(漢書) 153
한식(寒食) 186, 199, 204, 208, 335, 345
한양세시기(漢陽歲時記) 341
한원신서(翰苑新書) 34
한위육조백삼가집(漢魏六朝百三家集) 38, 39
한유(韓愈) 39
한적들노래 161
한춤소리 300
합굿놀이 133, 136
합궁놀이 61, 64
해동역사(海東繹史) 226, 348, 368
해동죽지(海東竹枝) 264
해수병(咳嗽病) 362
해장떡 293
햅밥 287
햇곡맞이굿 212
햇벼 168, 285
행려풍속도병(行旅風俗圖屛) 298
행주대첩 317
행차례(行茶禮) 211
향설고(香雪膏) 221
허리잡기 239
헌강왕(憲康王) 214
현산문화제 258
현월(玄月) 321, 325, **331**
현천소동패놀이(玄川少童牌-) **138**
협제(祫祭) 151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33, 54, 55
호국놀이 374
호남우도농악 103, 104
호남좌도농악 103
호미걸이 47, 70, 75, 87, 91
호미걸이소리 94
호미씻는날 **75**
호미씻이[洗鋤宴, 洗鋤會] 22, 31, 32, 47, 48, 71, 73, **75**
76, 84, 85, 86, 87, 91, 101, 109
118, 145, 164, 391
호미씻이잔치[洗鋤宴] 100
호박따기 239
호박떡 **293**, 294
호박송편 222, 294
호박전(-煎) 32, 47, **61**
호증(胡曾) 328
혼인인절미 293
홍동지놀음(洪同知-) 366, **393**, 424
홍만선(洪萬選) 39
홍석모(洪錫謨) 189, 237
화양누름적 219
화양적(華陽炙) 201, **227**
화전(花煎) 59, 60, 277, 336, 341, 347
화조(花朝) 106
화채(花菜) 23, 221, 323, 336, 341, 349
환희(紈戲) 388
황종해(黃宗海) 211
황해도평산소놀음굿(黃海道平山-) 188, 383, **393**
황화범주(黃花泛酒) 334
회남자(淮南子) 37, 53, 191, 192, 193, 325, 329
회다지놀이 391
회소곡(會蘇曲) 163, 187, 199, 237
횡와(橫臥) 377
후리질 162, 163
후한서(後漢書) 276, 348
훈민정음(訓民正音) 223
희마(戲馬) 374
희승(戲繩) 388
흰배멧새 18
힘발림 70
힝둥새 18

집필자

강권용(康權用) 국립민속박물관
강등학(姜騰鶴) 강릉대학교
강성복(姜成福) 공주대학교
강재철(姜在哲) 단국대학교
강정원(姜正遠) 서울대학교
고재환(高在奐) 전 제주교육대학교
권오경(權五慶) 부산외국어대학교
권태효(權泰孝) 국립민속박물관
김경섭(金鏡燮) 건국대학교
김기창(金基昌) 백석대학교
김기형(金基珩) 고려대학교
김도현(金道賢) 삼척하장고등학교
김명자(金明子) 안동대학교
김민환(金玟煥) 서울대학교
김상보(金尙寶) 대전보건대학
김성례(金成禮) 서강대학교
김시덕(金時德) 국립민속박물관
김용덕(金容德) 한양대학교
김정석(金正錫) 고려대학교
김종대(金宗大) 중앙대학교
김종태(金鍾泰) 국립민속박물관
김 준(金 準) 목포대학교
김지욱(金志昱) 경기도박물관
김지현(金智賢)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김진구(金眞久) 국립수산과학원
김진순(金鎭順) 코리아루트
김한기(金漢基) 유도회 국역원
김헌선(金憲宣) 경기대학교
김혜정(金惠貞) 경인교육대학교
김효경(金孝慶) 한남대학교
나경수(羅景洙) 전남대학교
나승만(羅承晩) 목포대학교
남근우(南根祐) 한국학중앙연구원
류종목(柳鍾穆) 동아대학교
문금현(文錦賢) 숙명여자대학교
박기현(朴起賢) 동아대학교
박록담(朴碌潭) 한국전통주연구소
박성석(朴性錫) 경상대학교
박종오(朴宗吾) 전남대학교
박창원(朴昌原) 청하중학교
박호석(朴虎錫) 농협대학
박환영(朴奐榮) 중앙대학교
배영동(裵永東) 안동대학교
백순철(白淳哲) 고려대학교
상기숙(尙基淑) 한서대학교
서해숙(徐海淑) 전남대학교
서혜경(徐惠卿) 전주대학교
선병윤(宣炳崙) 전북대학교
송화섭(宋華燮) 원광대학교
신경숙(愼慶淑) 한성대학교
신하령(申河令) 서울대학교 규장각
심승구(沈勝求) 한국체육대학교
안태현(安泰賢) 문경새재박물관
양영자(梁永子) 제주대부속중학교
양종승(梁鍾承) 국립민속박물관
염경화(廉庚和) 국립민속박물관
유영대(劉永大) 고려대학교
유재복(柳在福) 남원 대산초등학교
유정칠(劉正七) 경희대학교
윤덕인(尹德仁) 관동대학교
윤수경(尹秀京) 국립민속박물관
윤숙경(尹淑璟) 전 안동대학교
윤숙자(尹淑子)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이경엽(李京燁) 목포대학교
이관호(李官浩) 국립민속박물관
이도학(李道學) 한국전통문화학교
이두현(李杜鉉) 전 서울대학교
이문현(李文鉉) 국립민속박물관
이상열(李相烈) 경기지역사연구소
이상현(李相賢) 안동대학교
이세희(李世熹) 옹진군 지방행정동호회
이수자(李秀子) 경원대학교
이영옥(李永玉) 부산여자대학교
이옥희(李玉姬) 전남대학교
이용식(李庸植) 한양대학교
이 욱(李 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원태(李源台)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은주(李恩珠) 안동대학교
이장섭(李長燮) 한양대학교
이정재(李丁宰) 경희대학교
이종진(李鍾振) 전주문화원
이창식(李昌植) 세명대학교
이창희(李昌熙) 고려대학교
이필영(李弼泳) 한남대학교
이현수(李鉉洙) 조선대학교
임규호(林奎皓) 서울대학교
임동석(林東錫) 건국대학교
임장혁(任章赫) 중앙대학교
임재해(林在海) 안동대학교
임희수(林姬洙) 장안대학
장상교(張庠敎) 국립민속박물관
장장식(張長植) 국립민속박물관
장재한(張在鋎) 유도회 국역원
장정룡(張正龍) 강릉대학교
장창익(張昌翼) 부경대학교
전경욱(田耕旭) 고려대학교
전진섭(全鎭燮) 전북대학교
정근식(鄭根埴) 서울대학교
정병삼(鄭炳三) 숙명여자대학교
정병헌(鄭炳憲) 숙명여자대학교
정상박(鄭尙朴) 전 동아대학교
정승모(鄭勝謨) 지역문화연구소
정연학(鄭然鶴) 국립민속박물관
정현미(鄭賢美) 국립민속박물관
정형호(鄭亨鎬) 중앙대학교
조승연(趙承衍) 국립민속박물관
조현설(趙顯卨) 서울대학교
좌혜경(左惠景) 제주대학교
주강현(朱剛玄) 한국민속문화연구소
주영하(周永河)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인택(朱仁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지두환(池斗煥) 국민대학교
진성기(秦聖麒) 제주민속박물관
천진기(千鎭基) 국립민속박물관
천혜숙(千惠淑) 안동대학교
최덕원(崔德源) 전 순천대학교
최병일(崔炳一) 대전대학교
최상일(崔相一) 문화방송
최순권(崔順權) 국립민속박물관
최운식(崔雲植) 한국교원대학교
최인학(崔仁鶴) 전 인하대학교
최형식(崔亨植) 호원대학교
표인주(表仁柱) 전남대학교
한미옥(韓美玉) 전남대학교
한복려(韓福麗) 궁중음식연구원
한양명(韓陽明) 안동대학교
한정미(韓靜媚) 통일부 하나원
한형주(韓亨周) 고려대학교
허용호(許龍鎬) 고려대학교
홍성훈(洪性薰) 가락고등학교
황루시(黃縷詩) 관동대학교
황보명(皇甫明) 국립민속박물관

편찬팀

기획 · 진행: 최명림
편 수 원: 강성봉, 김수미, 김창호, 박선애, 윤수경, 이유나
감 수: 임동권, 장주근